

# 9

##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883호 ~ 981호 (2012년~2013년)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9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모음  
883호 ~ 981호 (2012년~2013년)

발행일 2022년 8월 일  
발행인 이재훈  
발행처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편집인 김홍주  
기획·편집 채현석, 남윤조, 최지연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문의 :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070-4940-0641, 채현석 010-7336-7387)



# 9

##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모음  
883호 ~ 981호 (2012년~2013년)



## 일러두기

1. 이 책은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온누리교회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신문>의 선교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발췌하여 묶은 자료집이다.
2. 제9집은 <온누리신문> 883호(2012년 1월 1일)부터 981호(2013년 12월 29일)까지의 자료이다. 이후의 자료에 대한 자료집도 연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3. 자료집 뒤에 신문 호수 별 목록과 신문 기사의 분류 별 목록을 실어 필요한 기사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게 하였다.
4. 자료의 배치는 <온누리신문> 원면(쪽수) 순서대로 하였으나 편집상 필요한 경우 일부를 조정하였다.
5. 현재 2000선교본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온누리신문> 축쇄본 일부 자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 자료집의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양해를 구하며, 추후 <온누리신문> 원본의 수집 사업도 계획하고 있으므로 소장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한다.

온누리교회는 2011년 8월, 교회 창립과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교회 리더십들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제2대 담임목사로 세워주신 이재훈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고 선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갔습니다.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온누리신문>에 실린 온누리교회의 선교 관련 기사를 편집한 이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자료집> 제9집에도 이러한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2012년 교회 표어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로 정한 온누리교회는 여름 아웃리치 대상 지역을 아프리카에 초점 맞추기로 하고 특히 대부분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어 영적인 사막화가 가속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으로 “블레싱 사하라!” 라는 표어를 외치며 대규모 아웃리치 팀을 보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도 세네갈 아웃리치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 해의 아웃리치는 온누리교회 제2기 선교 사역의 열의와 헌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밖에 일본 선교를 위한 러브 쏘나타는 2012년에 다카마쓰와 가고시마에서, 2013년에 오키나와와 군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온누리교회가 후원하여 설립한 국제개발 NGO인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도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온누리교회가 설립한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헌신을 다지는 <TIM 선교주일>을 지내며 다양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의 미래 전략은 “젊은 선교사”, “전문인자비량선교사”, “시니어선교사”의 동원을 통해 전방 개척과 미전도종족선교의 단계를 끌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를 위한 아웃리치는 2013년에 특별히 한반도를 축복하는 ‘블레싱 한반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블레싱 한반도’는 발대식, 북한선교집회 및 한반도 대행진, DMZ 자전거 투어 등으로 전 교인들이 적극 참여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온누리교회 선교의 초석이 되는 한민족을 축복하고 그 역량을 끌어 올려 선교에 헌신하게 하는 의도로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청년 및 대학생들의 예배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갈망하게 하는 <카운트다운> 집회는 2012년에 시작되어 2013년에도 각 지역교회와 해외 등지에서 4,000명의 대학, 청년들이 참석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와 선교 회복을 부르짖으며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일도 있었습니다. 2013년에 새롭게 시작된 프로그램으로는 <온누리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 Onnuri Missioinary Orientation)>이 있습니다. 이는 온누리교회 선교사 지망생 및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온누리교회 선교 및 선교사 지원 방법, 훈련 과정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밖에 온누리교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방송 CGN TV가 개국 8주년을 맞아 미디어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소식과, NGO 더멋진세상이 스리랑카, 필리핀 등 자연 재해 지역에서의 긴급구호와 교육지원, 각종 후원 사역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이처럼, 온누리교회가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 후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선교 사역을 이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자료집에 잘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자료집 발간 사역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2022년 8월 일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선교역사연구실

## ■ 목 차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b>2012년</b>					
			924	11월 11일	235
883	1월 1일	11	925	11월 18일	240
884	1월 8일	20	926	11월 25일	248
885	1월 15일	29	927	12월 2일	255
886	1월 22일	33	928	12월 9일	259
887	2월 5일	37	929	12월 16일	263
888	2월 12일	40	930	12월 23일	264
889	2월 26일	45	931	12월 30일	266
890	3월 4일	51			
891	3월 11일	56			
892	3월 18일	61	<b>2013년</b>		
893	3월 25일	64	932	1월 6일	271
894	4월 1일	70	933	1월 13일	275
895	4월 8일	75	934	1월 20일	280
896	4월 15일	76	935	1월 27일	284
897	4월 22일	79	936	2월 3일	285
898	4월 29일	91	937	2월 17일	287
899	5월 6일	98	938	2월 24일	293
900	5월 13일	100	939	3월 3일	299
901	5월 20일	102	940	3월 10일	302
902	5월 27일	108	941	3월 17일	306
903	6월 3일	110	942	3월 24일	310
904	6월 17일	120	943	3월 31일	316
905	6월 24일	124	944	4월 7일	322
906	7월 1일	129	945	4월 14일	327
907	7월 8일	139	946	4월 21일	333
908	7월 15일	143	947	4월 28일	337
909	7월 22일	148	948	5월 5일	340
910	7월 29일	155	949	5월 12일	343
911	8월 5일	161	950	5월 19일	345
912	8월 12일	175	951	5월 26일	355
913	8월 19일	183	952	6월 2일	359
914	8월 26일	189	953	6월 9일	361
915	9월 2일	194	954	6월 16일	366
916	9월 9일	200	955	6월 23일	374
917	9월 16일	206	956	6월 30일	376
918	9월 23일	213	957	7월 7일	383
919	9월 30일	216	958	7월 14일	389
920	10월 14일	220	959	7월 21일	390
921	10월 21일	224	960	7월 28일	398
922	10월 28일	228	961	8월 4일	402
923	11월 4일	232	962	8월 11일	412

## ■ 목 차

---

신문 호수	신문발행일	Page
963	8월 18일	419
964	8월 25일	426
965	9월 1일	430
966	9월 8일	439
967	9월 15일	444
968	9월 29일	450
969	10월 6일	459
970	10월 13일	466
971	10월 20일	471
972	10월 27일	478
973	11월 3일	484
974	11월 10일	489
975	11월 17일	494
976	11월 24일	503
977	12월 1일	508
978	12월 8일	511
979	12월 15일	515
980	12월 22일	520
981	12월 29일	524

##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527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555







2012년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0일  
883호~931호

2013년

2013년 1월 6일~2013년 12월 29일  
932호~981호



## 1월 8일과 15일 선교헌금 작성

### 105억 원 목표, 지속적 후원 위해 CMS 권장

오는 8일(주일)과 15일(주일)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일제히 2012년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목표액은 105억 원이다.

올해 드린 선교헌금은 ▷110명의 선교사 파송 ▷740여 명의 선교사 지원 ▷다문화가정 사역 지원 확대 ▷제2선교사 안식관 건립 ▷단기선교사 FA파송 ▷북아프리카 전방개척 아웃리치 등에 쓰일 예정이다.

#### ▶관련기사 7면

헌금 방법은 CMS 방식과 현금봉투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서는 CMS 방식이 권장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헌금을 작성하려는 성도는 헌금 작성서에 있는 '연장'란에 표기하면 된다.

문의: 2천선교 3215-3209/361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천선교본부에서는 2012년 여름, 'Revival Africa'를 주제로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북아프리카 이슬람 지역과, 남진하는 무슬림과 북진하는 기독교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간 기착지에서 연합선교집회를 실시하여 집중적인 중보기도의 포문을 연 후 단기 팀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임팩트 사역을 하게 된다. 온누리 비전교회와 JDS(예수제자학교, Jesus Disciples School), 대학원년부 등 700여 명의 온누리 용사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왜 아프리카인가?**

"온누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15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었잖아요. 작년 블레싱 아시아에 이어서 전세계를 순회하시는 건가요? 아프리카 선교사의 수가 얼마 안 되는데 혹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결연된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실시했던 아웃리치는 포기해야 하나요?" 등의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일회성 혹은 순회성 행사가 아니다. 선교전략적인 기획 프로젝트이다. 최근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현재 세계 선교계에는 남은 과업의 성취를 위해 5대 전방개척지역으로 선교 역량을 집중하지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한국교회 선교에서 소외된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프랑스 식민지 국가였던 26개국에 여기에 속한다. 이 지역의 선교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선교사역에 있어서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마지막 과업 중 하나이다.

리바이벌 아프리카는 부흥운동이자 임팩트 사역이다. 현재 북아프리카의 5개국(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 모리테니아)은 국민의 95% 이상이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다. 반면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나이지리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의 국가들은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다. 이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는 소망이 없는 땅이 아니다. 부흥의 땅, 그리고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

는 남진과 기독교의 북진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들로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그리고 임팩트 사역의 병행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이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온누리에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목회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 등을 아

지속성의 문제이다. 온누리에서는 이미 모로코에 선교사 47정을 파송 했고 내년에는 튀니지에 한 가정을 파송 할 계획이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교두보를 이미 확보한 셈이다. 이제 전방개척사역을 위해서 임팩트 리서치 팀과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를 싣고 오면 장기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형식으로 사역의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여름 아웃리치 기간 동안 성인공동체에는 기존 방식대로 책임선교사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그 동안 해왔던 사역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되고, 전방개척을 위한 5개 우선 사역 지역에는 청년 및 기관 단기 팀 위주로 투입되어 중보 기도과 임팩트 사역을 할 것이다. 이 일을 시작으로 주님의 군대가 계속 보내어 질 것이고 주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북아프리카 'Revival Africa' 전방개척 아웃리치**



어지고 있는 땅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가 2012년 리바이벌 아프리카의 주 사역지로 삼고 있는 '세네갈, 기니,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이름도 낯선 국가들 대부분은 이슬

람과 교회들과 나눔으로써 아프리카 교회 부흥에 기여하고 무슬림의 남진을 멈추게 하는 것이 리바이벌 아프리카의 중요한 취지이다.

**하나님은 아프리카를 사랑하신다\_Dieu aime l' Afrique**

이제 아프리카는 더 이상 절망의 땅, 어둠의 땅이 아니다. 아프리카는 희망의 땅, 부흥의 땅, 미래의 땅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북아프리카를 위해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 때, 온누리교회 700 용사들이 2012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대규모 선교집회와 아웃리치 'Revival Africa'를 통해서 장기사역의 길을 열고 현지 교회들의 부흥의 도화선을 일으키며 이슬람의 남하를 막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불러온 선교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

\* 이 글은 2011년 12월 발간된 <홍씨>의 내용 중 김태원 목사의 글을 게재한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선교**

**선교역사를 한눈에**

2천선교가 하나님께 선교 현장에 가득 부어주시는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故 하용조 목사 사진과 선교현장이 생생하게 담긴 사진이 전시된다.

사진전은 오는 8월과 15일에 실시되는 2012 선교헌금 작정에 앞서 온누리 성도들의 선교열정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은 1월 31일(화)까지 국내 9개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서빙고 본관 계단과 지하 식당 계단, 선교관 입구, 미션홀(커피숍)에 전시되었다. 미션홀에는 하용조 목사 추모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양재는 커피숍에서 사진전을 관람할 수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천선교가 1월 31일(화)까지 하용조 목사 추모 사진과 선교사역 및 리브 소나타 사진을 국내 9개 캠퍼스에 전시한다.



# 아 듀 2011

2011년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표어로 힘차게 달려온 온누리교회. 하용조 담임목사 소천,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 아부다비와 호치민 온누리교회 창립, 비전의 땅, 꿈의 땅 등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를 보냈다. 2011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1. 하용조 담임목사 영결

2011년 8월 2일 하용조 담임목사가 뇌출혈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천했다. 향년 65세. 영적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과 각계각층의 인사 6만여 명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캠퍼스, 두란노, 전주대 등지에서도 CGNTV를 통해 하 목사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했다.

8월 4일,故하용조 담임목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섬겼던 두란노와 교회를 거쳐 장자인 강원도 문막 온누리동산에서 영면에 들었다.

### 2. 이재훈 담임목사 위임

9월 24일, 이재훈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실시한 위임목사 선출투표에서 투표참여자 18세 이상 세례교인

4757명 중 찬성 4421(92.9%)표를 득표해 故 하용조 담임목사의 뒤를 이어 새로운 담임목사로 위임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의 담임목사는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3. 아부다비, 호치민 온누리교회 창립

Acts29 비전을 따라 지난 6월3일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와 8월 21일 베트남 호치민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는 아부다비에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고 중동과 아프리카에 선교지 교회를 재생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며,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한국 교민들뿐만 아니라 현지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베트남에 영적 공동

체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4. 비전의 땅, 꿈의 땅

지난 6월 3일 때를 따라 열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비전의 땅, 꿈의 땅' 헌금을 작정했다. 1만 153명의 성도들이 비전 40일 특별새벽집회에서 받은 은혜에 따라 작정한 금액은 375억 원이다.

온누리 새 시대를 여는 비전의 땅, 꿈의 땅은 서빙고 주변 8500평 부지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차세대를 위한 공간, >미래를 이끌어 가는 청소년들이 세계를 품고 싶 영적인 디딤돌, >Acts 29 비전의 베이스캠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 5. 캄보디아, 나가노 리브소나타

지난 2월 22-23일 캄보디아 프놈펜과 11월 15-16일 일본 나가노에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졌다. 캄보디아 리브소나타에는 국가행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1만 4000여 명이 군집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용조 담임목사의 소천 이후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처음 나선 나가노 리브소나타에는 2022명이 참석했고, 6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 6. 일본, 터키 긴급구호

지난 3월 11일 일본 태평양연안 지역을 뒤덮은 초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10월 23일과 11월 6일 터키 동부 지역에 위치한 반(Van) 지역에 각각 리히터 규모 7.3과 5.9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에 교회는 4월 8일 일본 이와테현 등 지진피해현장으로 구호팀을 급파했고, 터키에서는 NGO 더 멋진 세상이 이재민 막사와 식료품, 난방기구 등을 전달했다. 터키 지진피해 구호활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 7. 블레싱 아시아

2011 여름 아웃리치는 '블레싱 아시아'를 표방하며 미전도종족 80%가 밀집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



로 진행되었다. 지난해 유난히 많이 발생한 재난과 사건, 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했다. 2000선교본부는 선교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웃리치 스킴을 열어 아웃리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편 대청은 FA 단기선교사들을 복음화율이 5% 미만인 지역으로 파송해 장기선교사와 함께 사역하는 청년선교운동을 벌이고 있다.

### 8. OMC, 최고의 사랑

지난해 10월 12-13일 교회창립 26주년을 맞아 프랜시스 쉐ن 목사 초청 '최고의 사랑' 집회가 양재 사랑성전에서 열렸다. 프랜시스 쉐ن 목사의 열정적인 설교와 하나 되어 뜨겁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열기가 뜨거웠던 집회에는 3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생생한 사랑을 체험했다. 특히 중국 및 국내 미지리교회 목회자 3백여 명이 참석해 온누리교회의 창립 26주년을 함께 축하했다.

### 9. 대청 크리스마스 블레싱

대학청년부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신림동, 평창, 베트남 등지에서 예수님 사랑 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대청 희망코리아 사역은 2010년까지 연탄 나르기 사역으로 진행해 오다 쌀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랑의 쌀 나누기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 10. 40일 특별새벽기도회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올해도 어김없이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에 돌입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국내캠퍼스를 순회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성도들은 40일 특별새벽부흥집회 홈페이지(<http://40daysonnuri.org>)에서 성도들의 기도제목과 간증을 나누고 있다.





01

## 몽골인과 함께한 '메리 크리스마스'

평택 몽골어예배팀이 지난 주일 (25일) 성탄절을 맞아 자국민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용인, 발안, 안양 등지에서 모인 몽골인 50여 명을 초청해 열린 이번 행사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몽골인들은 몽골 전통 만두 뽕쯔(buuz)와 우유차 등 고향음식을 함께 나누며 교제를 했다. 또한 한국어 낱말퀴즈, 한국 지명 맞추기 등의 게임을 통해 한국을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02

## 청년들이 선물한 아름다운 성탄

인천 대학청년부가 성탄절을 맞아 '몽골인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인천 및 김포에 거주하는 몽골인 40명을 대상으로 열린 집회는 ▷식사 및 레크리에이션 ▷찬양 ▷특순 ▷간증 ▷말씀 선포 ▷축복의 시간 ▷교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플룻 연주, 핸드벨, 몽골팀의 찬양 등의 다양한 특순을 선보였으며, 지난해 10

월 세례를 받은 몽골인 어트거 형제가 간증을 했다.

또한 대청 지체들은 지적장애인 시설인 '예림원'을 방문해 예배와 찬양을 섬기고 돌아왔다. 워십, 미술, 차임벨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한 청년들은 예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다.

01

# 아이티와 도미니카에서 끈 “열방 선교의 꿈”

미주

비전교회 리더십 등 17명, 현지 교회, 고아원 방문

미주 온누리가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A) 창립 5주년을 맞아 개최한 평신도 선교리더십 컨퍼런스(이하 선교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7일 아이티에서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꿈을 제외한 10개 미주 온누리 선교 리더십과 본부 스태프 등 17명이 함께 모여 연합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리더십 강연, 현장지역 방문**

첫째 날 김성원 목사(TIMA 본부장)는 리더십들을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가려면 다름을 인정하고 듣기 훈련, 겸손, 희생, 기다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부터는 김현철 선교사(열방인 온누

리 WGM)가 사역하는 아카야 지역의 학교와 교회, 수도인 포트 프린스 인근 ‘오나발’ 지역에 짓고 있는 고아원을 방문하였다.

셋째 날에는 아이티를 떠나 도미니카로 이동하였다. 도미니카에서는 아이티 피난민들과 가난한 아이티 사람들이 일하는 사탕수수 농장(일명 바테이)지역을 방문하였다.

**교회는 소망되어야**

교회는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고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선교의 목표이다. 아이티와 도미니카를 돌아보면서 각 교회 선교위원들과 리더십



지난 11월 20일 IN2 온누리교회가 창립 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들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목표가 생겼다. 미주 온누리가 연합하여 함께 중남미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김우성 집사(센쿠버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미주 온누리가 교회 역량을 집중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선교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선교공동체**

TIMA는 2012년 목표를 ‘함께하는 선교공동체를 만드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주 온누리가 함께 연합 할 수 있는 일대일, 큐티 세미나를 3월, 5월, 9월 중남미 선교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여름 단기선교도 확정하는 대로 연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강일영 통산원(TIMA 총무)

02

2012 온누리교회 조직 안내

• 온누리INGO "더 멋진 세상"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	실행 위원
김창욱	김광동	김석인(기획) 윤현덕(기획) 한충희(기획) 박대호(기획) 최진혁(기획) 안태환(CMN) 김영한(CHE) 허광수(대칭) 박영우(대북) 장선철(홍보)

• 서빙고 캠퍼스\_2000선교

구분	지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이 선 교	운영위/자문위원		도육환 김창욱 김태완	박대호	운영위 : 박대호 윤현덕 정대서 전영수 이승배 양호승 차준한 하성기 자문위 : 김국용 장선철 이재규 함태경 박형규 김석인			
	서빙고			박대호	김영환	이남수 한백진 이승배 양정환 한숙영 함공식 홍범식 김윤식 남영현 김영한 박영우 백남인 문영기 민문기 정성훈 이재원 김태환 강철호 안영수 허복만		
	캠퍼스 선교부	양재	황중연	김병순	김장렬	한갑수 임 훈 임병수 황재익 장광열 고길범 김학태 윤치연 이상규 김기섭 김원태 전병제 정호진 차원재 장성수 신명식 이해숙 공안식 이상형 오장원 정우창 마동숙 이상근 오화평		
				김장렬	고길범	장성수	이충구 오장원 서세창 김학태 전병제 차원재 남주연 장성수 석권규 김기석 김승범 김영환	
				한갑수	김학태 윤치연	신명식 이해숙	유일상 채일석 권수진 이근재 윤종윤 장지선 김미정 김선숙 김승희 김현진 김현영 김현희 노민정 윤희경 이현정 허인영	
				임 훈	이상규	공안식	유일상	
					김기섭	이상형	양성철 백세연 채일석 장경희 김영환 김성란 문희영 이상경 정숙희 강수연 유인순 고주희 구경용 김기우 김동원 김중철 박상경 박현미 송경숙 우정희 유태용 윤효정 이관우 이상은 이상희 이영미 정규만 정순자 조성연 조우현 황희선 조영자 유희경 이해심 김미연 김영심 백승이 이금삼 민보라 이조이 정현주 임남섭	
				임병수	김원택	오장원	김명현 김 원 정대서 최석민	
				황재익	전병제	정우창	이근재 박민희 이경호 민승화 홍성동 김지영 정동영 이정호 장선범 김동준 장준용 권구호 윤주희 조연옥	
					정호진	마동숙 이상근	오화평 이상근 백태수 성명심 강현희 박성혜 장은경 양성철 김동준 김진경 임혜옥 임형진 김현중 임은희 양금화	
	장광열	차원재		이충구 오장원 서세창 김학태 전병제 차원재 남주연 장성수 석권규 김기석 김승범 김영환				
	부천	박영근	송재길	윤석우	김성규 박문서 배승호 김정숙			
	인천	이준호	이승배	정완영	장민환	곽재건 곽태숙 권경숙 김달만 김정미 남혜경 박경희 박미순 박용희 변현열 송동섭 심은희 이동주 이현주 이철희 유선옥 유영순 장민환 조은경 정동희 최용주 천승임 채윤래 채은주 하경숙		
	수원	박철준	함일성	최혁중	박수환	김동식 김준범 최정수 정태희 이우재 추지금		
	대전	임용성	김승열	유병진	오철환	권용영 김종희 박희윤 오운식 이경숙 이상현 이일숙 이창현 이해정 이희민 전상숙 조성우		
	평택	조현수	김영중	유승곤	이종갑	서홍근 홍숙정 최영자 한진희 조태늘		
	남양주	피현희	홍중철	박균상	김진섭	(구리) 권순희 김행록 전성철 최원태 (남양주) 박봉주 이효선 임현태 최태원		
	강동	이재정	나상권	박석목	이성원	김옥순 문현구 박찬주 손동기 신경순 심현선 이상철 이미희 이선주 이은희A 이은영 최윤희		
지원 운영부	공동체 네트워크팀	도육환 김태완	전영수	김영환	윤태식 김채수	고길범 윤석우 정완영 최혁중 유병진 유승곤 박균상 박석목 유병설 신갑섭 남상규 재현식 이광순 이태환		
	선교집회 지원팀			이남수	정영택	허준범 홍성덕 남상규 박경학 김태은 김은희 유순희 한경자 박정희 배소양 이은주 윤찬주 이현숙 한인숙 유의실 정세진 최신영 이정희 송정업 홍명옥		
	문화선교팀			한백진	이성호 서승연	이윤우 박진석 정광식 유재홍 이상은 안정은 김주식		
선교사 케어부	케어기획팀	김창욱 김태완	이승배	이승배	신성복	신정섭 조혜영		
	멤버케어			양정환	전만철	안성영 정수복 양구덕 강영희 김명화		
	멘토링			한숙영	한옥영	송윤희 최향미		
	맞춤 예방케어			함공식	송동섭	전해경 오 명 박성욱 강영창 이용표 이현열 이동주 최용주 정완영 심은희		
	중보기도 네트워크			홍범식	김현미	윤치연 김주옥 이수연 고영희 정기숙 김주희 이현주 이선준 손향숙 김미경 김윤숙 김은정 김 진 변정원 김경란 최태숙 정경애 신희숙 이경희 이지숙 이세영 김소연 김수현 김유리 김민조 윤 숙 황윤정 김태범 백민영 황은경		
	네트워크 케어팀			김윤식	이명호	진중구 이종배 정찬성		
동원 사역부	온누리 선교학교팀	양호승	남영현	유영준	지영아 이태욱 서원순 이국희 이명미 윤병삼 심명성 이옥열 김은주 신민아 임종철 한창석 임미숙 심경희 안경숙 박순기 최윤정 박형신			
	CHE팀			김영환	심명성 장기홍 조성수	정선희 장선범 주찬실 장유미 안형관 심민아 장미경 광정화 신귀순 김종익 윤여옥 김지현		
	복한 선교팀			박영우	한현수 송중주 성현선 김남희 양윤철 조명성 김정식 박상원 박영록 김경태 김민경 노인수 이창문 김유진 김정환 성보성 장준용 민경일 이재성 한혜경			
전문 사역부	과학기술 선교팀	도육환 김태완	하성기	백남인	제송모	장준용 이경석 박기운 이주만 김만복 이태욱 박창복 조순찬 주희성 류미나 이정중 박성자 김진섭		
	전문인 선교팀			문영기	최영재	박효재 김정미 김정화 김재영 박창복 정에선 윤성호 (심삼달)		
	인터넷 SNS팀			민문기	권기현 이희준 박효재	이동현 곽태일 김강춘 권일화 정세영 김준희 이순영 권순덕 유충현 김윤수 이춘녀 김현숙 김윤숙 유환진 김정미		
	의료 네트워크팀			정성훈	이정웅 서세창	박명률 김의석 이우석 이대현 주인탁 김길준 이학일 이규현		
	외국인 유학생팀			이재원	김준연	한철희 조기훈 정민호 박은재 김승범 정진호 노지준 변성준 박진원 이대우 곡신영 최필순 박태호 박승일 김대성 임은경 최미라 김원경 어경자 이수연 김연희 박혜진 이은정 김영애 이예림 정민정 전영희 이근하 장은정 윤영자 김현아 박정미 최윤희 박희경 이금경 권정희 박희정 김지연 이덕희 이슬아 배원경		
국제 사역부	아프리카 개발팀	도육환 김태완	차준한	김태환	박은태	전병제 방승현 김영애 이명선 김명숙 이현화 송윤진 최원미 윤석영		
	동북아A팀			강철호	현일오	김관문 백승모 이한별 임지현 김창우 엄성신 황지연 임의상 이의선 이태환 김성국 이진숙 김현숙 구원정 함상석		
	동북아B팀			안영수	홍갑진	민 경 정미숙 김지나 문명옥 박상진 한경자 최원태 정영태 오희중 허복만 전구영		
	국제사역지원팀			허복만	신철우	김성국 조용진 김기환 양기봉 윤수민 조성순 서승욱 이명선 신갑섭 홍기범 정하숙 나정희		

2012년 1월 1일 883호

•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1(별책13번)



구분	지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Acts29 비전빌리지	두란노 해외 선교회		홍덕표 홍범식	이상자 이국주 송만식 김윤식		홍기영 정화숙 나정희 조상식 김형운 이우진 조석철 이동철 조일현 김중순 이경순 유정화 박삼실 신순남 허혜경			
	비전빌리지 운영위원회		도육환	손한기	이재환 김영배 이상욱 윤현덕 차준한 정영열				
	호련국	선교사훈련	이재환	문성기	유영준 이황재	김상규 김기섭 김기환 차달수 황영자 조문숙 공영호			
	열방국	열방중보		윤지준	김현미 조문숙	임석택 김광연 윤경희 김유정 정석자 정은애			
	시설운영 (재단사무국소속)		김영배	정영열		천명신	최형규 박춘성 이광찬 구자경 김종진 박희정 이현호		
	목회국	비전 빌리지 온누리교회	김영배	정영열	이수길	신동준	공영호 신홍근 임연혁 구자경 천명신 박서일 김철진 유선애		
		비전빌리지 차세대(예꿈)	김성실	안주영	이현경	이현경	이지영		
		꿈땅	조성광		정미정	박은숙	박이나 고미경 양가람 김영임 박선주		
		파워웨이브	김영배						
	Top Class	서영철	임태조						
온누리 M 미션	운영위원회		김창욱/김영철	강찬석(대표) 신현승(서빙고) 김두진(안산)		강찬석 신현승 김두진 황재익 한규중 김경철 권오혁 홍종철 박경락 김만순 이호수 인승화 김성중 김광렬			
	서빙고	네팔	사라드 케이시 (파트)	김경철	노순용	이민정	정윤미 박창미		
		러시아	한 알렉산드라 (파트)	권오혁	정세진	최유리	박유정 최자민 천광식 김베드로		
		몽골	첸데(파트)	한규중	한규중		김지연 서정인		
		아랍	박미애(펠퍼)	신현승	신현승	이영실	하인주 장유정 김은희 정현정 안혜길		
	안산	ANEWS (다국적)	유충선(파트)	황재익	박경락	김만순	김미라 강용휘 강인경 권순철 김나연 김성혜 김연경 김은숙 김진경 김한주 박명균 여민정 유 경 유양욱 유인순 이상화 이선규 이영미 이종학 이진숙 지영아 최의광 최중순 한철수 허인자		
		러시아	김 블라디미르 (파트)	김두진	고선녀	백경애	박종숙 이현우 엄은우		
		몽골	박광규(파트)		박 현	김유진	현승일 김은숙		
		방글라데시	폴렌 파로이 (협력목사)		김태훈	조용순			
		스리랑카	윤용국(파트)		김광렬	조의숙	한경화 백정림 유은영 박현정 이정실 소혜조 오신주		
		필리핀	레비 알난 (파트)		박정희	박종훈	오대훈 이연아 최덕신 조옥천		
		캄보디아	신정빈(파트)		김성중	김한철	안계옥 김미희 오지희 김나경 김연정 김명수 김혜연 안진환 윤현정 이처석 최요한 최은미 최은실		
		태국(개척예정)	마눔(협력목사)		조덕형	박영숙	박세나		
	몽골(평택)	아치트(파트)	이종갑		노종례				
	에베사역	서빙고	김창욱	신현승	노순용	이민정	정세진 최유리 이영실		
안산		김영철	김두진	박경락	김만순	민승화 김광렬 김성중 박정희 신철우 김태훈 박 현 윤찬주 고선녀			
다문화 사역		다문화 가정	이경희(파트)	홍종철	신태형	배순양	윤찬주		
	Star Tree (다문화자녀교육)	배순양			이선규	최철순			
	꿈땅	정국진(펠퍼)			윤찬주	성선미	김승아 이은숙 잠정아 최 선 방선희		
동원 / 스쿨	이주선신학교	김영철	신현승	노순용	박명신	지영아 신태형 이광희 김영수 김한철 김성중 박현정 한영욱			
	한글학교(서빙고)	김창욱	이영복	이영복	이승희	김만복 김미형 김소영 김정숙 박이숙 진창순 심성진 홍정순 최영희 한정욱 송해주 김지왕			
	한글학교(안산)	김영철							
양육/전도	양육/전도	박광규(파트)	강찬석	민승화	이익식	곽노훈 이영미			
	공홀 / 중보 기도	공홀				신철우	신태형	천광식 이영실 김만순 백경애 조의숙 박종훈 김한철 박세나 노종례 이선규 성선미 박명신 이승희 이익식	
		중보기도				유충선(파트)	윤찬주	민경윤	
		M-House(셀터)				윤용국(파트)	이정실	이선규	
협력	BEE KOREA	도육환	윤현덕 이기중	신현승	김성희	강부순 권영석 김윤식 김인균 나문채 성아나 정동기 정원만 정진희			
	KIBI		송민석	권영석	장봉기	마동숙 정호진 이상근 전윤옥 전영희 노순용 오희빙			
	SWIM	이정호	이재규	민문기	권기현	이동현 권태일 김강준 권일화 정세영 김준희 이순영 권순덕 유충현 김윤수 이춘녀 김현숙 김윤숙 유환진 김경미 이희준 김성희 이호림			

2012년 1월 1일 883호

•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2(별쇄14면)

▪ 양재 캠퍼스\_선교

구분	지역팀	담당교역자	담당장로	팀장	총무	실행위원					
선교 지역	2천 선교	황종연	김병순	김장렬	고길범	장성수	김장렬 한갑수 임 훈 임병수 황재익 장광열 고길범 김학태 윤치연 이상규 김기섭 김원택 전병제 정호진 차원재 장성수 신명식 이해숙 공만식 이상형 오장원 정우창 마동숙 이상근 오화평				
							공동체지원부	이충구 오장원 서세창 김학태 전병제 남주연 장성수 석권균 김기석 김승범 김영환			
							중보기도부	한갑수 김학태 윤치연 신명식 이해숙 유일상 채일석 권수진 이근재 윤종운 장지선 김미정 김선숙 김승희 김현진 김현영 김현희 노민정 윤혜경 이현정 허인영			
							동원사역부	홍보팀장 :이상규	홍보팀총무 공만식	유일상	
								교육팀장 :김기섭	교육팀총무 : 이상형	윤종운 양성철 백세연 채일석 장경희 김영환 김성란 문희영 이상경 정숙희 김수연 유인순 고주희 구경용 김기욱 김종원 김중철 박상경 박현미 송경숙 우정희 유태용 윤효정 이관우 이상은 이상희 이영미 정규만 정순자 조성연 조우현 황희선 조정자 유희경 이해심 김미연 김영심 백승이 이금상 민보라 이조이 정현주 임남섭 박노송	
							전문사역부	임병수	적정기술팀장 :김원택	오장원	김명현 김 원 정대서 최석민
							국제사역부	황재익	다문화 선교팀장 :전병제	정우창	이근재 박민희 이경호 민승화 홍성동 김지영 정동영 이정호 장선범 김동준 장준용 권구호 윤주희 조연욱
중동팀장 :정호진	마동숙 이상근	오화평 이상근 백태수 성명심 강현희 박성해 장은경 양성철 김동준 김진경 임혜옥 임형진 김현중 임은희 양금화									
선교사케어부	장광열	차원재	이상근	이충구 오장원 서세창 김학태 전병제 차원재 남주연 장성수 석권균 김기석 김승범 김영환							



## 2012 온누리, 선교헌금 작성

**1월 8일과 15일, CMS 또는 헌금봉투 중 택일  
북서부 아프리카 아웃리치 및 선교사 110명 파송 계획**

하나님이 주신 2천1만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해 첫 헌금을 선교헌금으로 드리고 있는 온누리교회가 2012년도 선교헌금 작정을 오늘(8일)과 다음 주일(15일) 국내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진행한다. 올해 선교헌금 작성 목표액은

105억 원이다. 헌금은 ▷110명의 선교사 파송 ▷대청 단기선교사 FA(Frontier Agency)파송 ▷북서부 아프리카 전방개척 아웃리치 ▷제2 선교사 안식관 건립 등에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다. 선교헌금 작성방법은 금액이 교회

로 자동이체 되는 CMS방식과 8일과 15일 예배시간에 배포되는 선교헌금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교회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CMS방식을 권장한다. 도육환 목사(2000선교본부)는 성도들에게 “차세대부터 성인에 이르

기까지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선교헌금 작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25,828명의 성도가 동참해 100억 원을 작성했다. 귀하게 드린 헌금은 신규 선교사 100명 파송, Acts29 비전빌리지 개원, 선교사 숙소동 완공, 대청 FA 단기선교사 28명 파송, 온누리미션 사역 확대 등에 쓰였다. <관련기사 8~9면>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특별기획/기도〉

- 기도와 영성      기도와 선교
- 기도와 큐티      기도와 사역
- 기도와 성령

##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십니다”

“살려주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마치 70억의 인구가 죄악 된 세상에 빠져 지르는 소리와 같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 15:14)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떨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날마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들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 구원의 현장에 뛰어든 선교사이며 전도자들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인 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살후 3:1-2)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신과 동료들의 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늘에도 올라갔다 온 사

람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할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배웠던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왠지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자에게도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바울도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없으면 선교도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였던 E.M. 바운스는 “교회가 1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故하용조 담임목사님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분입니다. 양지에 Acts29 비전빌리지를 세운 이유도 선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 목사님께서도 선교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기도도 문제지만 기도 없는 선교

는 더욱 큰 문제이기엔 가장 중요한 일을 모두와 함께 하기위해 기도센터를 세우신 것입니다.

Acts29 비전빌리지는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사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성과 영성으로 죽음을 각오한 야성 있는 선교사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 훈련된 선교사들을 파송한 후,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선교는 구호로만 끝나고 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공적인 사역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성공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승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로 취하는 승리

사탄은 결코 선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선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사탄이 철저하게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사탄의 왕국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권능’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선교사들에게 임하도록 후방의 무릎선교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70%가 선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문을 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미 모든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탄이 닫고 있을 뿐입니다. 이 권세는 기도 외에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온누리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없고 기도 없는 선교도 없습니다.

기도의 열풍이 아프리카의 태양열보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 30일 보다 더 배고픈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15억 7천의 이슬람 숫자를 능가하는 더 많은 무릎선교사들의 통성기도가 필요합니다. 8억의 힌두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더 강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 있을 때 선교사들이 성공적으로 일할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죄가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높아질 수록 사탄의 능력은 감소하며 우리 사역의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감히 우리의 영역을 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와 양만큼 사탄의 장막은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 이재환 선교사



## 전문인선교사 찾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2기 온누리전문인선교훈련학교(OPMS, 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2기 온누리전문인선교훈련학교는 비즈니스, 지역개발, NGO 활동 등으로 해외에 나갈 예정인 성도 중에 해외 선교 및 평신도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를 대상으로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OPMS 홈페이지에서 추천서와 훈련지원서를 다운로드해 3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94-1063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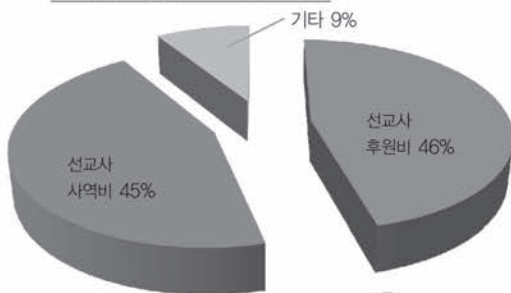


# 선교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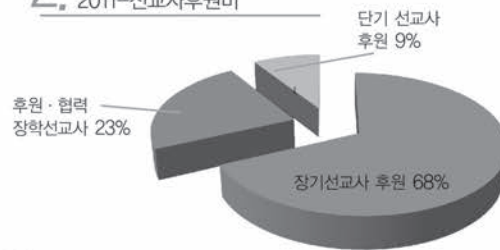
## 이렇게 사용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드린 선교헌금.  
2011년 선교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와 2012년 선교헌금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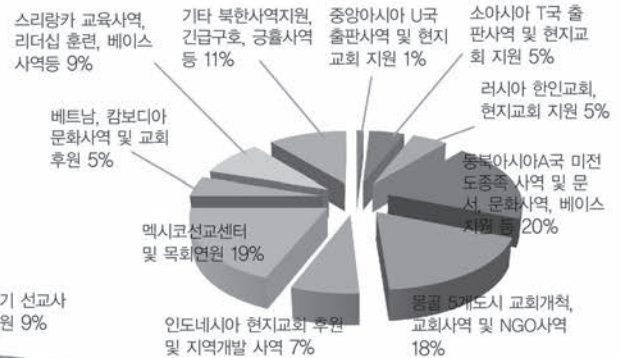
### 1. 2011-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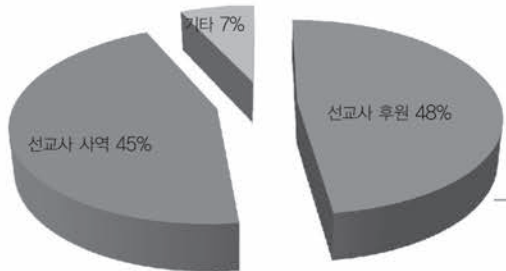
### 2. 2011-선교사후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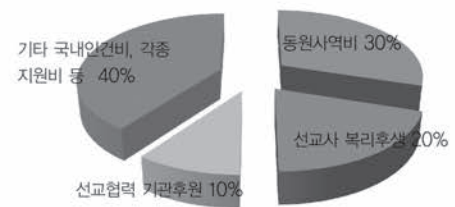
### 3. 2011-선교사 사역비



### 5. 2012-기타



### 4. 2011-기타



#### 선교사후원비(48%)

- 현재 739명의 현장 선교사 중 파송선교사, 후원 선교사, 협력 선교사 후원
- 현지인 사역자, 선교사 자녀 장학금 후원
- 차세대 선교 지도자, 장학선교사 후원
- 110명의 신규선교사 선발, 훈련, 파송
- 선교사 사역 후원비 인상

#### 선교사사역비(45%)

- 선교사 현장 사역을 위한 지원
- 몽골,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남아시아 P국, 소아시아 T국, 이스라엘 등에서 교회개혁 사역과 현지 교회 지원
- 동북아시아 A국과 중앙아시아 U국, 러시아 등지에서 현지인 위한 양육교제 및 기독교 출판 사역 후원
- 네팔과 베트남, 스리랑카 등지에서는 현지인 지도자 위한 신학교 및 성경학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
- 인도네시아 람퐁, 중퐁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지에서 문화센터, 공황사역, 지역개발 위한 사역 후원
- 니카리과, 스리랑카 학교 교육사역 지원

#### 기타(7%)

- 북서부 아프리카 아웃리치 지원
- 대청 단기선교사 FA 지원
- 은퇴선교사 후생 지원
- 미디어 선교지원
- 선교본부 사역 지원



01



도육환 목사

# “선교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지상명령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지상 명령 '선교'. 온누리교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선교헌금 작정으로 새해의 문을 열었다. 2000선교본부 도육환 목사(사진)를 만나 지난해 선교사역에 대한 평가와 올해의 계획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해에도 선교를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지난해 25,800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해 100억 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의 신규 선교사를 스리랑카, 베트남, 터키, 일본 등에 파송하였고, 선교 훈련생을 위한 Acts29 비전 빌리지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선교스쿨도 개설되어 성도들이 다양한 형태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8천여 명의 성도

들이 ‘블레싱 아시아’를 주제로 진행된 아웃리치에 참여했습니다. 이외에도 동아시아 A국의 영적지도자들을 초청해 진행된 Vitamin-C 컨퍼런스 등을 통해 새로운 선교전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2년 온누리교회의 선교사역의 주요 계획은 무엇입니까?

“올해 가장 중점을 둔 선교사역은 북서부 아프리카로 떠나는 전방개척 아웃리치입니다.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서부 아프리카 15개국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청년부, JDS, 해외비전교회, 협력기관(MM, 전주대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110명의 선교사 파송과 대청에서 진행 중인 2기 단기선교사 FA(Frontier Agency)파송, 제2선교사 안식관 건립, 온

- 110명 선교사 파송
- 북서부 아프리카 전방개척 아웃리치
- 대청 단기선교사 FA(Frontier Agency)파송
- 제2 선교사 안식관 건립
- 온누리미션 사역 확대

누리미션 사역 확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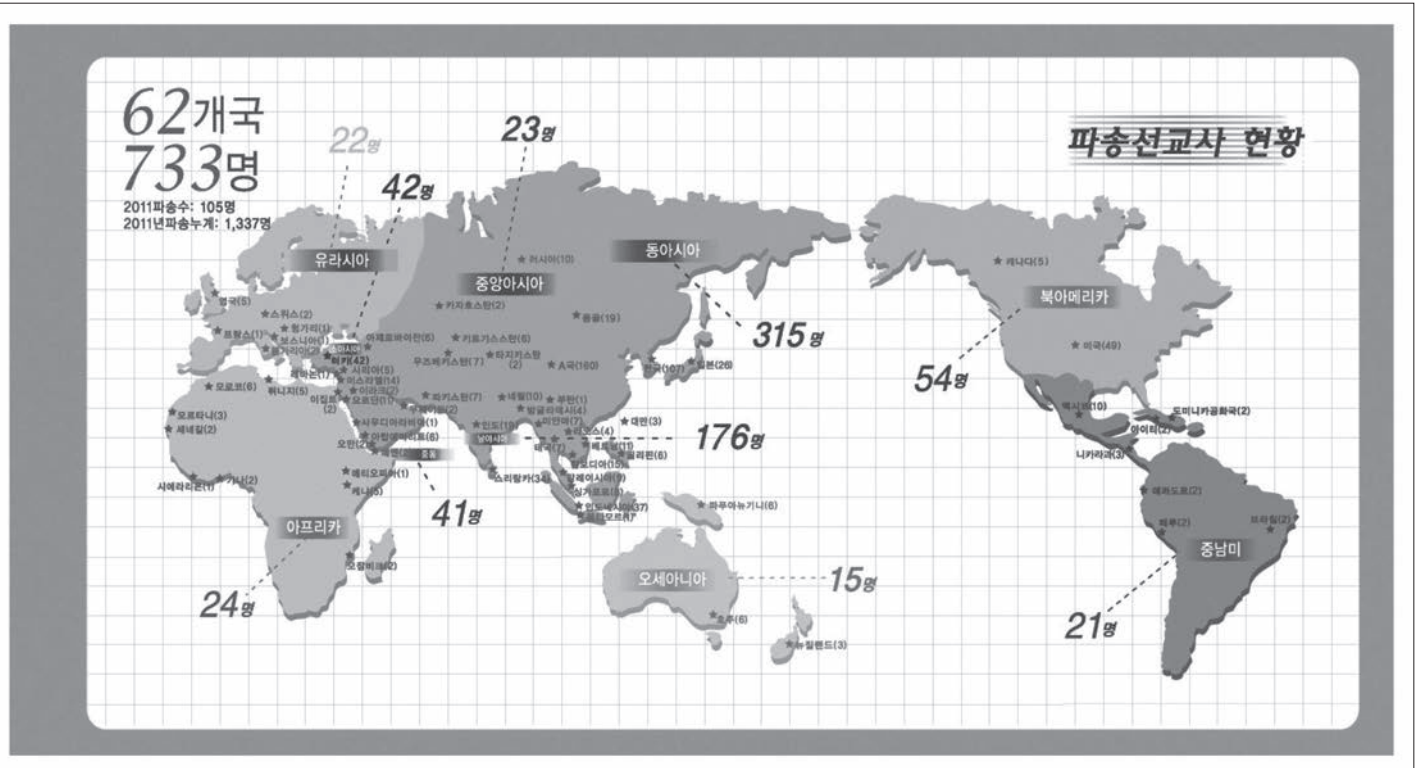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할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선교헌금 작정에 동참해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크든지 작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차세대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선교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대담: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2012년 1월 8일 884호

- 01- 지난 선교사역 평가 & 올해의 계획 · 전망 : 도육환 목사 인터뷰(9면)
- 02-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현황(9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감당하는 힘은 자원이나 인력이 아닙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 28:16~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온누리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진 이 말씀을 되새기며 한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故하용조 담임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온누리교회와 두란노서원, CGNTV를 시작하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교에 목숨을 건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가기 때문입니다.

### 군함과 같은 교회

유람선 같은 교회와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유람선을 타는 목적은 편리한 관광입니다. 돈을 지불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된 직원들은 그 일이 자신의 직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에게는 관광할 여유가 없습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몇몇 관광객들만이 편리한 시설에서 좋은 경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유람선 같은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과 필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가 유람선이 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군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군함은 보이지 않는 명령에 의해 움직입니다. 직전에 의해 움직이는 군함에 탄 군인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런 역할 없이 군함에 탄 군인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군함과 같다면 어떨까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사명과 역

할에 따라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쓰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거나 편리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것입니다. 반대로 군함과 같은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다고 해서 뛰쳐나갈 수 없습니다. 명령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유람선 같은 교회의 성도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군함 같은 교회의 성도로 살겠습니까.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을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 '선교'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딤후 2:4).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일부 선교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군함에 승선하게 됩니다. 선교라는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신 것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베푸는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 신성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경배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드러야 할 경배를 드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 예배, 선교, 선교공동체

선교의 출발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예수님이 주가 되신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 것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전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종이 됨으로써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예배공동체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곳은 반드시 선교공동체가 됩니다.故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 공동체의 성격을 세 가지로 정의하셨는데 그것은 예배, 성령, 선교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역은 다시 한 번 평가해야 합니다. 선교에 헌신하지 않는 성령사역은 방향을 잃어버린 위험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성령사역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거나 은사를 받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치고 성령의 은사를 허락한 이유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사역을 병이 낫고 은사가 생기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친다면 성령을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 사도행전적 공동체

선교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령사역은 선교의 열매가 얼마나 맺어지고 있는지를 토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에 들뜨고 흥분되는 것이 예배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또 다시 성령사역으로 이어지고 성령사역은 다시 선교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선교는 예배를 만듭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성령, 선교공동체는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공동체가 일어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이르러 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뵈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16-17절).

경배를 드리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명령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불순종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동일하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도 결국 성령이 임하면 이 명령을 수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심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변해 굳건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의심은 때로 굳건한 확신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선포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18절).

명령은 누가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



수님이 하신 명령입니다. 지상의 어떤 명령보다도 가장 심각한 명령이요,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정오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실 때 그 권세를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늘의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받은 권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셨다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 가깝게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실감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사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선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빌 2:6-11).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권력이나 무력으로 혹은 금전으로 무릎을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 받으셨습니다.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세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권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권세이며,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이해하는 권세입니다. 인간과 동등한 권세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의 능력으로 이 명령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자원이나 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초점 '제자로 삼는 것'**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19-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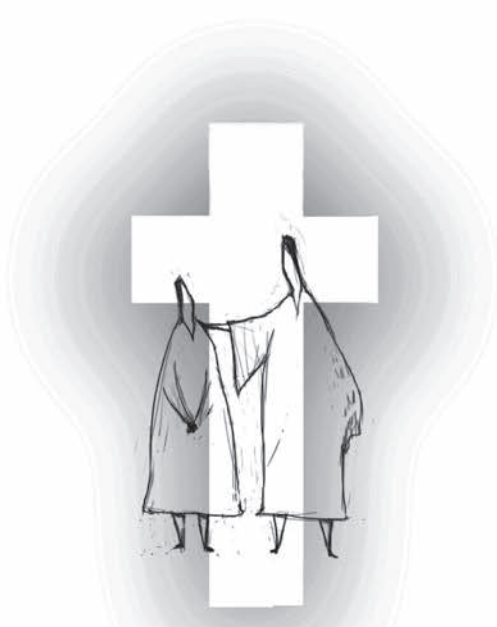
이 명령에는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

우리의 목표는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하는 선교를 통해서 열방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20절).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시제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셨지만 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 동사들의 의미는 “제자로 삼으라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중요한 초점은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교의 위기는 제자사역과 선교사역을 분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의 중심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소수의 제자들과 보내신 것처럼 사역을 할 때에 사람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자를 재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한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일까요.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회와 기도회가 큰 위로와 안전을 책임지는 방법이라는 하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요, 안전장치입니다.

선교에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대 의학으로는 고치기 어려운 질병들이 기도로 나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왜 선교사들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표적을 경험한 이후에 선교에 동참하겠다는 예수님의 권세

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함께 하 시겠다는 임재의 약속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선교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명령에 순종해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삶에서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에게 임재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어떻게 한반도까지 전해졌겠습니까.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 덕분에 열방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윌리엄 보텐이라는 선교사의 삶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의 부모가 세계여행을 시켜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의 건문을 넓히기 위해 세계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선교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선교사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성경책 뒷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리라(No Reserve)”

그는 예일대학에 입학해 정교생 1,300명 중에 1,000명이 참여하는 성경공부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에일호프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성경책에 또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리라 (No Retreat)”

그러다 그는 이집트에서 척수뇌막염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26세였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는 자신의 성경책 마지막 페이지를 남겼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리라 (No Regret)”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입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1월 1일은 온누리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박모세 선교사님이 소천한지 11주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명령에 충성하며 삽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선교에 헌신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meteorjip@nate.com



01



**추천 프로그램**



▷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 1월 9일(월) 오후 10시 20분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김용의 선교사의 메시지입니다.

\*

**서빙고**

02.793.9686

**화요선교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한동홀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온누리M센터**

주일 오전 11시 열방 다민족 예배(1층)  
주일 오전 11시 다문화 꿈땅 예배(3층)  
주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예배(4층)  
주일 오전 11시 러시아예배(처소 2층)  
주일 오전 11시 몽골예배(처소 4층)  
주일 오후 2시 30분 스리랑카예배(4층)  
주일 오후 4시 필리핀예배(처소 2층)  
주일 오후 5시 30분 방글라데시예배(처소 4층)

**서빙고**  
주일 오후 1시~2시 30분 한글학교(본관 B101호)  
주일 오후 2시 30분 네팸예배(선교관 402호)  
주일 오후 2시 30분 몽골예배(선교관 401호)  
주일 오후 2시 30분 러시아예배(선교관 302호)  
주일 오후 2시 아랍예배(본관 B102호)

**평택**  
주일 오전 11시 20분 몽골예배(지하1층 교육관)

**인천**  
주일 오후 2시 20분 몽골예배(기쁨홀)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분기 팀장 (010-4369-3317)

**온누리미션 찬양팀 세션 모집**  
대상: 몽골예배 찬양팀 세션으로 섬겨주실 분들(기타, 일렉, 베이스, 키보드, 드럼)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3시 안산 몽골예배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몽골어 클래스 모집**  
대상: 몽골선교에 비전 있는 온누리 성도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한글교사 모집**  
대상: 몽골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교사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일본어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자,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문의: 최영은 성가사(010-4787-7390)

**단동 온누리교회 부설 유치원교사모집**  
모집대상: 유아교육 전공자  
원감 1명, 교사 1명  
문의: 김성희원감 070-4046-9686 / 070-8248-4119

**다문화 학생을 위한 도서기증**  
(온누리 M센터 스타트리) 대상: 초,중,고  
문의: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택배로만 받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번지 3층 305호

**일본어예배 성가대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자, 일본어 가능,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영은 성가사(010-4787-7390)로 연락 바랍니다.

**선교한금 작정서 입력 알바 모집**  
기간: 2011년 1월 10일(화)부터 약 1개월  
모집인원: 10명  
자격: 컴퓨터 능자, 온누리교회 성도  
시기: 인월마감시까지  
연락처: 2000선교 02-3215-3209 / 02-3215-3679

**대전**

042.825.3642

**외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오후 2:30 꿈땅 303호

**인천**

032.437.9686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 2:20 3층 나눔1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2층 비전홀

**재정**

십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는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8일 884호

• 01- TV 추천 프로그램 :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13면)  
\* 게시판

27

\*

## 선교

■ 2000선교본부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문의: 김만규 간사(3215-3208)

**선교사를 위한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금) 오전 10시30분 비전빌리지 시애틀  
문의: 김현미 집사(010-3243-8786)

**화요 선교 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9:20분 서빙고 한동홀  
문의: 2000선교본부 (02-795-9085)

**'Why Missions?' 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30분 서빙고 홍보관  
문의: 박명신 집사(010-9329-7612)

**비즈니스 선교 중보기도모임**  
매주(일) 오후 4시 서빙고 커피숍 옆 미션홀  
문의: 최영재 집사 (010-2271-4898)

**인터넷 중보기도 모임**  
매주(수) 오후 6시 서빙고 홍보실  
월례모임: 토 오전 6:30 서빙고 Acts29홀  
문의: 민문기 집사(010-4369-3317)

**선교를 위한 월요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주희 집사(010-5697-8736)

**선교를 위한 목요 중보기도모임**  
매주(목)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이수연 집사(010-3243-8786)  
김지영 집사(010-5265-0631)

**이스라엘 선교 중보모임**  
매주(금) 오후 6시 서빙고 Acts29홀  
문의: 이희준(016-739-3086)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터키)**  
함께 섬기실 스테프를 모집합니다.  
매주(월) 오후 7시30분 서빙고 Acts29홀  
문의: 김미희 팀장(010-5272-5910)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문의: 유정경 집사(010-3341-8778)

**티벳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자모실  
문의: 이인희 집사(010-5082-1758)

**몽골 중보기도모임(몽기모)**  
매월 둘째주(주일) 오후 3시 외부(강서구 가양동 한터)  
문의: 박수웅 집사 (010-4120-5046)

**남아시아 중보기도모임(SAM)**  
매월 셋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홍범식 장로(011-278-0466)

**멕시코 I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화) 오전 6시 서빙고 홀 기도실  
문의: 김철주 장로(010-8980-6167)

**멕시코 II 중보기도모임**  
둘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김기호 장로(010-3787-0682)

**위구르족 중보기도모임**  
첫, 셋째주 수요일 오후 8:20- 09:00 순형홀  
문의: 이종우 집사(010-8291-5282)

**필리핀 보홀 중보기도모임**  
마지막 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조오현 집사(010-5526-2227)

**하니족 중보기도모임**  
둘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윤식 집사(011-733-9772)

**이수공동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셋째주(토)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예상욱 형제(010-6533-3314)

**아프리카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토) 오후 2시 서빙고 순형홀  
문의: 김태환 집사(019-242-0516)

**러시아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302호  
문의: 김선(010-2356-8932)

**중동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전병제 집사(010-5249-7056)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모임**  
매월 첫째주(토) 오전 8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김정화/자매 (010-3212-6902)

**인도네시아 람퐁족 중보기도모임**  
넷째주(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 홀기도실  
문의: 김진환 집사(010-9001-7312)

**아제르바이잔 중보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서빙고 영유아실  
문의: 양의천 집사(011-228-3833)

**인도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월) 오후 7시30분 양재2층 굿터  
문의: 조영철 집사(010-8793-9921)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문의: 장지은 전도사(010-3453-8082)

**이천선교CHE(지역개발선교)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45분  
장소: 서빙고 홍보관  
문의: 박대호 장로 (010-4579-7617)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주(목) 오전 10:30 서빙고 302호  
문의: 김은정 선교사(010-2996-6902)

**전방개척(Mission Frontier) 중보기도모임**  
문의: 김신화 간사(794-1063)

■ 키비 (792-7075,6 www.kibi.or.kr)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9시30분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9시30분 JDS홀

**IBS 스쿨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IBS-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  
IBS 서빙고 35기  
일정: 128-33(토 6주)  
시간: 오전 9:30-12:30 / 장소: 서빙고 시온홀  
대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노순용 팀장 (010-5080-0545)  
키비사무실 (02-792-7075-6)

**IBS 서빙고 목요반**  
일정: 119-223 (목 6주)  
시간: 오전 10-12: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1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전윤옥 실장 (010-2204-7378)

**IBS 목회자 세미나**  
일정: 130-31 (월-화, 1박2일)  
시간: 30(월)오후2시-31(화)오후12시  
문의: 키비사무실 (02-792-7075-6)

■ 온누리미션

**몽골가정 위한 출산육아용품**  
기증(안산) 중고가능  
문의:010-7666-7718, 070-8671-8083(사무실)

■ CMN

**양재의료선교팀원모집(토브팀)**  
-치위생사 급구  
장소:양재캠퍼스 치과진료소(1,2주 주일 교대)+가리봉동한중사랑교회(4째주)  
내용:양한방치과진료약무, 이미용, 컴퓨터등  
대상:의사,한의사,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약사, 미용, 기타봉사자  
연락처:팀장-이학일(010-4421-6776)  
총무-장준성(019-309-8768)

## 오늘 선교헌금 2차 작성

### 115억 원 목표, 1차에서 56%작성

오늘(15일) 국내 9개 캠퍼스에서 지난주일(8일)에 이어 2차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1차 선교헌금작성에는 1만 2,926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작성 목표액 115억 원 중 64억 7천만 원(56.3%)을 작성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나눔에 참여하면 좋겠다”면서 “선교헌금 작정이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교헌금은 CMS 또는 현금봉투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CMS후원은 해지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지난해 CMS 작성자 중

해지를 원하는 성도는 2천선교본부에 문의해 해지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작성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오늘(15일) 예배에서 배포되는 작성서의 연장란에 체크하면 된다.

문의: 2천 선교 3215-3209/361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선교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순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순교를 통해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 히브리서 11장 33~40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반석 선교사님처럼 순교적 삶을 사신 분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일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렘 1:20-21).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인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고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순교가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생활에 거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전당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이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33-35절).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화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나이와 성격, 문화와 직업이 달랐지만 동일하게 믿음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35절 뒷부분부터는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튼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35-38절).

이 말씀들을 보면 믿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칼의 위협이 왔을 때 칼이 부러졌고 사자 굴에 던져졌어도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영웅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에 죽고, 채찍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도 이와 비슷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데미야도 우상숭배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유대계 이집트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도 므세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스테판과 베드로는 순교했지만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한 기록을 클라이맥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위대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장벽을 무너뜨린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은 더 위대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핍박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이 아니라 유대교에 대한 핍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러한 사건을 믿음의 전당 마지막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 또한 동일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이들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순교를 했는데, 메시야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실명을 하기 위해 기록을 한 것입니다.

### 더 좋은 부활을 위한 '순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증인은 헬라어로 마티스입니다. 증거라는 단어는 마티우아입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도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결국 다시 번역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나의 순교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스테판은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 흠이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렸을 적부터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어서 겨우 매달려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야고보, 빌립, 마태, 마가, 누가, 막다아, 도마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요한만이 오래 살았을 뿐입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 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들의 털옷을 입혀 개들이 물어뜯어 죽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시신을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을 밝히는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2-3세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약속에 의한 핍박보다 훨씬 심하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나오는 순교 장면은 우리의 가슴이 저리도록 하는 기록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당하면서 일곱 통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자신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하거나 순교당하지 않도록 구명운동을 해달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결같이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신이 단 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적혀있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바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밀알이라고 썼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악행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 순교의 피로 전해지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연약해서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천국 갈 사람이 갑자기 지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부활할 때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활이라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폴리 카피라는

2012년 1월 15일 885호

·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1-1(2면)



사람의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폴리 캅에게 예수님을 저주하면 풀어주겠다 제의하자 그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을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화형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이런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폴리 캅이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서구사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들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순교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통계학자인 바르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약 6억5백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정부의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약 2억2천 5백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연 평균 크리스천 순교자의 수가 15만9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순교의 피를 통해 증거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집회에서 북한교회 지도자의 간증을 들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 소련의 크리스천 여성 지도자가 유럽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여기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오히려 믿음의 도전과 위기를 느꼈던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외국에서 사역하는 한한인목사님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던진 세례문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입니다. 교리적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북한의 한 지도자에게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세례를 줬습니다. 생명을 건 결단이었습니. 세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2003년과 2004년에는 북한의 한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발각이 돼서 처형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전에 하우즈 목사님을 모시고 아프가니스탄에 가다가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한 교회를 방문해 폭탄테러로 사지가 절린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회교도들이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

오지도 못합니다. 그들을 대변했던 바티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누리교회에도 오시고 핏볼트리니티에서 명예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유일한 기독교인 고위 공직자였던 그는 피살했습니다. 1억7천만 인구 중 2%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의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신성모독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무장 세력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지난해 1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슬람 신성모독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계속 벌인다면 살해될 것이라는 협박이 있지 만 폭력은 나를 괴롭힐 수도 위협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지난해 3월 11일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

나케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행 20:24).

선교는 자신의 생명을 주는 순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사가 쓴 글에서 자신의 피를 헌혈해서 누이의 생명을 구한 한 소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읽었습니다. 6살 소녀가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감염되지 않은 깨끗한 피를 수혈해야만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동생의 피와 누이의 피가 맞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자니, 누이 메리를 위해서 너의 피를 줄 수 있겠나?” 그때 자니의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누이를 위해서 제 피를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순교 역사 중 가장 감동 깊은 이야기는 아우 카족을 선교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들어도 감동입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의 휘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안제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 부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외부인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엇의 나이는 불과 28세였습니다. 함께 들어간 친구들도 모두 살해되어서 강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국의 촉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과 잡지들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를 제목으로 순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트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바로 그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우카 부족은 남자만 죽이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게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이 지나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짐 엘리엇트가 죽은 마을교회의 담임목사가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엘리엇트와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우리는 순교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며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한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위대한 순교를 맞이한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순교적 각오로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가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도라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meteorjip@nate.com



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번역되어서 알려지고 있는데 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추운 날 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면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신불수인 형제가 일어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뇌질환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반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인권이 보호되어 순교가 사라진 서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적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는 선교**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빌 1:29).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줄 수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혈이 끝날 무렵 자니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쯤 죽게 되나요?” 자니는 수혈을 하면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주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소년은 누이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선교란 결국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 중에는 생명의 위협이나 고난, 희생을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24개 이상 개척하고 수만 명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선교지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아들을 잃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담배라기 없는 2층에서 발을 헛디뎠다 떨어뜨려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청난 희생 이후 성령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화요선교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한동홀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온누리M센터**  
주일 오전 11시 열방 다민족 예배(1층)  
주일 오전 11시 다문화 꿈땅 예배(3층)  
주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예배(4층)  
주일 오전 11시 러시아 예배(쳐소 2층)  
주일 오전 11시 몽골 예배(쳐소4층)  
주일 오후 2시30분 스리랑카 예배(4층)  
주일 오후 4시 필리핀 예배(쳐소 2층)  
주일 오후 5시30분 방글라데시 예배(쳐소 4층)

**서빙고**  
주일 오후 1시~2시30분 한글학교 (본관 B101호)  
주일 오후 2시30분 네팔 예배 (선교관 402호)  
주일 오후 2시30분 몽골 예배 (선교관 401호)  
주일 오후 2시30분 러시아 예배 (선교관 302호)  
주일 오후 2시 아랍 예배(본관 B102호)

**평택**  
주일 오전 11시20분 몽골 예배(지하층 교육관)

**인천**  
주일 오후 2시20분 몽골 예배(기쁨홀)  
장소: 서빙고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분기 팀장 (010-4369-3317)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 서빙고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분기 팀장 (010-4369-3317)

**일본어예배 토요학교 스쿨버스 운전자 모집**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  
자격: 1종운전면허소유자, 봉고운전에 능숙하신분  
문의: 담당간사 02-3215-3702, 010-3378-4330

**안산 온누리M센터 한국어 강사 채용**  
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국내/외국인 선교에 열정을 가지신 분 환영  
문의: 박성명 간사(031-491-9664, 010-3076-8880)

**Acts29 비전 빌리지 IT간사 모집**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분  
IT를 통한 선교를 준비하는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MAC 사용자 우대  
문의: 차요셉 선교사(031-331-8196)

**온누리미션 다문화학생, 영어교사 모집 (지원불사)**  
대상: 초중학생 (주요 초등부)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시간: 주 1회 (15시~18시 사이 2시간정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영어 관련 자료 기증자 모집 (온누리M센터 스타트리)**  
대상: 초, 중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번지 3층 305호(택배로 받습니다)  
문의: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온누리M센터 컴퓨터 기증**  
M센터에서 현직인 사역자들이 예배 준비용으로 사용할 컴퓨터와 노트북을 기증받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7-32층  
연락처: 031 491 9660  
담당: 장명우 간사(010 2663 6348)

**온누리미션 찬양팀 세션 모집**  
대상: 몽골예배 찬양팀 세션으로 섬겨주실 분들(기타, 일렉, 베이스, 키보드, 드럼)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3시 안산 몽골예배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몽골어 클래스 모집**  
대상: 몽골선교에 비전 있는 온누리 성도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한글교사 모집**  
대상: 몽골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교사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일본어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자,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문의: 최영은 성가사(010-4787-7390)

**단동 온누리교회 부설 유치원교사모집**  
모집대상: 유아교육 전공자  
월급 1명, 교사1명  
문의: 김성희원감 070-4046-9686 / 070-8248-4119

**다문화 학생을 위한 도서기증 (온누리 M센터 스타트리)** 대상: 초, 중, 고  
문의: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택배로만 받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번지 3층 305호

**일본어예배 성가대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자, 일본어 가능,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최영은 성가사(010-4787-7390)로 연락 바랍니다.



**외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오후 2:30 꿈땅 303호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2:20 3층 나눔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7시  
장소: 2층 비전홀



심입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의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0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주(목) 오전10:30 서빙고302호  
문의: 김은정 선교사(010-2996-6902)

**전방개척(Mission Frontier) 중보기도모임**  
문의: 김신화 간사(794-1063)

**■ 키비 (792-7075, 6 www.kibi.or.kr)**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시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9시 JDS홀

**IBS 스크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IBS-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  
**IBS 서빙고 35기**  
일정: 1.28-3.31(토 6주)  
시간: 오전 9:30-12:30 / 장소: 서빙고 시온홀  
대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노순용 팀장 (010-5080-0545)  
키비사무실 (02-792-7075-6)

**IBS 서빙고 목요반**  
일정: 1.19-2.23 (목 6주)  
시간: 오전 10-12: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301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전윤용 실장 (010-2204-7378)

**IBS 목회자 세미나**  
일정: 2.13-14 (월-화, 1박2일)  
시간: 13(월)오후2시-14(화)오후12시  
문의: 키비사무실 (02-792-7075-6)

**■ 온누리미션**  
**몽골가정 위한 출산육아용품 기증(안산) 종교가능**  
문의: 010-7666-7718, 070-8671-8039(사무실)

**■ CMN**  
**양재의료선교팀원모집(토브팀)**  
-치위생사 급구  
장소: 양재캠퍼스 치과진료소(1,2주 주일 교대)+기리봉동한중사랑교회(4주 주일)  
내용: 양한방, 치과진료, 약무, 이미지, 컴퓨터 등  
대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약사, 미용, 기타봉사자  
연락처: 팀장-이학일(010-4421-6776)  
총무-장준성(019-309-8768)



**■ 2000선교본부**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문의: 김민구 간사(3215-3208)  
**선교사를 위한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금) 오전 10시30분 비전빌리지 시안홀  
문의: 김현미 집사(010-3243-8786)  
**화요 선교 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9:20분 서빙고 한동홀  
문의: 2000선교본부 (02-795-9066)  
**'Why Missions?' 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30분 서빙고 홍보관  
문의: 박명신 집사(010-9329-7612)  
**비즈니스 선교 중보기도모임**  
매주(일) 오후 4시 서빙고 커피숍 옆 미션홀  
문의: 최영재 집사 (010-2271-4898)  
**인터넷 중보기도 모임**  
매주(수) 오후 6시 서빙고 홍보실  
월례모임: 토 오전 6:30 서빙고 Acts29홀  
문의: 민분기 집사(010-4369-3317)  
**선교를 위한 월요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주희 집사(010-5697-8736)  
**선교를 위한 목요 중보기도모임**  
매주(목)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이수연 집사(010-3243-8786)  
김지영 집사(010-5265-0531)  
**이스라엘 선교 중보모임**  
매주(금) 오후 6시 서빙고 Acts29홀  
문의: 이희준(016-739-3086)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터키)**  
함께 섬기실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매주(월) 오후 7시30분 서빙고 Acts29홀  
문의: 김미희 팀장(010-5272-5910)

**아프리카 중보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문의: 유정경 집사(010-3341-8778)

**티벳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자모실  
문의: 이인희 집사(010-5082-1758)

**몽골 중보기도모임(몽기모)**  
매월 둘째주(주일) 오후 3시 외부(강서구 가양동 한터)  
문의: 박수용 집사 (010-4120-5046)

**남아시아 중보기도모임(SAM)**  
매월 셋째주(월) 오후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홍병식 장로(011-278-0466)

**멕시코 I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화) 오전 6시 서빙고 홀 기도실  
문의: 김철주 장로(010-8860-6167)

**멕시코 II 중보기도모임**  
둘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김기호 장로(010-3787-0882)

**위구르족 중보기도모임**  
첫, 셋째주(주일) 오후8:20-09:00 순흥홀  
문의: 이종우 집사(010-8291-5282)

**필리핀 보홀 중보기도모임**  
마지막 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조오연 집사(010-5526-2227)

**하니족 중보기도모임**  
둘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윤식 집사(011-793-9772)

**이수공동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셋째주(토)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 기도실  
문의: 예상욱 형제(010-6533-3314)

**아프리카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토) 오후 2시 서빙고 순흥홀  
문의: 김태환 집사(019-242-0516)

**러시아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302호  
문의: 김선(010-2356-8932)

**중동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전병제 집사(010-5249-7066)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모임**  
매월 첫째주(토) 오전8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정희 자매 (010-3212-6902)

**인도네시아 람풍족 중보기도모임**  
넷째주(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 홀기도실  
문의: 김진한 집사(010-9001-7312)

**아제르바이잔 중보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서빙고 영유아실  
문의: 양의천 집사(011-228-3833)

**인도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월) 오후 7시30분 양재2층 컴퓨터  
문의: 조영철 집사(010-8793-9921)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문의: 장지은 전도사(010-3453-8082)

**이천선교CHE(지역개발선교)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40분  
장소: 서빙고 미션홀  
문의: 장기홍 집사 (010-6285-4382)



01

## 선교헌금 작성 90억9천만원

지난 8일과 15일에 국내 캠퍼스를 비롯한 해외비전교회에서 실시된 선교헌금 작성에 1만7,833명의 성도가 참여해 90억9천만 원을 작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헌금봉투 방식과 CMS 후원 방식 중에서 1만1,671명(65.4%)의 성도가 CMS 방식으로 헌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헌금봉투 방식에 비해 CMS 방식이 지속적인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선교헌금은 지난해 집계보다 17억여 원이 증가되었다. 또한 온누리교회 성도 뿐만 아니라 선교에 비전을 가진 타 교회 성도들도 이메일과 우편 등을 통해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했다.

오늘(22일)부터는 각 캠퍼스마다 선교헌금 봉투가 비치된다. 선교헌금 작정을 원하는 성도는 2천 선교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2천 선교 3215-3209/361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온누리M미션 설날 수련회

성도들의 관심과 후원 필요

이주민들을 위한 설날 수련회가 각 언어 예배별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21일) 네팔과 아랍 예배공동체 수련회를 시작으로 오늘(22일)과 내일(23일)은 ANEWS(다국적예배)를 비롯해 몽골, 캄보디아, 러시아, 네

팔, 아랍,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예배공동체가 안산 온누리M센터 등지에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1박2일 동안 집회를 연다. 이번 수련회에는 13개 예배공동체에서 이주민 5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후원문의: 3215-3730

/ 조은실 기자

03

### 선교지

#### 고요한 아침 깨우는 찬양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복음 선교사. CGNTV를 통해 드린 40일 특별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전해왔다.

“매일 새벽 3시20분에 눈을 뜨면 마치 한국에 있는 듯 흥분되었고, 하나님은 고요한 이곳을 찬양으로 깨워 주셨습니다. 캄보디아 최북단에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복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01

선교지

북아프리카에 스며든 주님의 은혜

4년여 동안 북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김 별,백합화 선교사에게 이번 특별새벽기도는 특별했다. 그들의 노래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02

# 기도하는 온누리, 기도가 힘이다!

온누리교회 기도모임을 소개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원동력은 기도다.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장로중보기도모임, 주일예배를 위한 권사들의 시안중보기도모임, 열방과 교회, 남편과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등 교회 곳곳에는 수많은 기도모임이 있다. 온누리교회 기도모임을 소개한다.

■ 서빙고

\* 온누리교회 조직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도모임	주제	일시	장소	문의
온누리M미션 중보기도	각 언어 예배공동체	매월 넷째 주 수, 오후 6시	101호 예정	02-3215-3730

■ 양재

기도모임	주제	일시	장소	문의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열방과 선교사	3/15~6/7 매주 목, 오전 10시10분	화명홀	02-570-7277
양재 2000선교 중보기도모임	양재 2000선교 활동보고와 각 나라와 선교사	매월 셋째주 수, 오후 7시	드림홀	02-570-7433

■ 캠퍼스

구분	주제	일시	장소	문의
남양주	-남양주 파송선교사 -대중문화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 회복	-매주 월, 오전 10시30분 -매주 월, 오전 10시30분 -수, 오후 1시	-교회 중보기도실 -팀원 가정집 -교회 중보기도실	피현희 목사 010-5253-9736

2012년 1월 22일 886호

- 01-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소개 : 김별-백합화 선교사 (아프리카A국)(2면)
- 02- 온누리교회 선교관련 기도모임 소개(5면)

01

웨스트LA

##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하나님

### 국내 아웃리치 'Blessing America'

웨스트LA 국내 아웃리치팀(심상현 목사 외 9명)이 지난해 12월 19~29일 10박11일 일정으로 국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Blessing America'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LA에서 출발해 네바다, 콜로라도, 뉴멕시코, 텍사스, 애리조나 주를 다니며 지역교회를 섬기고, 땅밋기기도를 했다. 특히 뉴멕시코 지역의 원주민들과 함께 성탄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했다. 미리 준비한 스킷과 바디워십, 함께 배우는 율동 등의 프로그램은 원주민들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다.

심상현 목사는 "폭설로 인해 사역지로 향하는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서 "뜻 깊은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 이주상 통신원

02

보스턴

## "나눔과 섬김으로 복음 전했어요"

청년부 40여명 이 지난해 12월 3일과 18일에 보스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원데이 아웃리치(One Day Outreach)를 실시했다.

3일에는 보스턴 로렌스(Lawrence)에 위치한 코우넬 급식소(Cor Unum Meal Center)를 찾아 식사봉사자로 섬겼고, 18일에는 1970년대 폴 포트 정권의 대학살로 인해 생겨난 난민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린(Lynn)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 이승주 통신원



### 대학부 단기선교 다녀와

보스턴 대학부 24명이 영아캠프와 의료선교를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와 또로또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팀은 노방전도와 의료선교를 통해 볼리비아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했고, 김경호 목사(대학부)는 진료를 마친 현지인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다. / 박유진 통신원

03

## Mission Trip to Cambodia

Restoration is at the center of God's heart. From January 5-14, the Cambodia Mission Team had the privilege of experiencing His redemptive heart in Cambodia. The team's first main ministry event was at the Agape Restoration Center (ARC), where girls are rescued from brothels and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be restored. The average age of the girls at the ARC was twelve, and the youngest was two! The goal of this ministry event was to throw a party for them and celebrate the Gospel which frees us from all bondages! Afterwards, the team spent some time at a cafe where the girls work after being rescued and restored. They were able to witness these former victims of slavery reintegrate into society as the Lord intended. Restoration is truly a beautiful thing. /Joel Yoon

\*

## 서빙고

02.793.9686

**완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 서빙고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문기 팀장 (010-4369-3317)

**베트남 중보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서빙고 207호  
 문의: 강경훈집사(010-8736-0486)

**베트남 근로자 및 주부를 위한 한국어 강좌**  
 매주 토 오후 6시~ 7시30분  
 매주 일 오후 2시~ 4시 안산M센터 3층  
 강사: 현지(베트남)전도사  
 문의: 이익식집사(011-708-7926)

**한국어교실 교사 모집**  
 교육대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모집대상: 온누리 교회 성도분 (필)  
 마감일: 2012년 1월 29일  
 시간: 매주 토 오전 10~1시(주1회)서빙고  
 연락처: prarey@hotmail.com

**CMN 효도사진 팀원모집**  
 지역: CMN 의료지역서 어르신들 사진촬영  
 대상: 주일지역이 가능하신 분, 초보자 환영(40세 이상자 우대)  
 문의: 한상욱집사(011-399-0541)

**일본어예배 토요학교 셔틀버스 운전자 모집**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  
 자격: 1종운전면허소유자, 불고운전에 능숙하신분  
 문의: 담당간사 02-3215-3702, 010-3378-4330

**안산 온누리M센터 한국어 강사 채용**  
 자격: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국내 외국인 선교에 열정을 가진 분 환영  
 문의: 박상영 간사(031-491-9654, 010-3076-8480)

**Acts29 비전 빌리지 IT강사 모집**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 IT를 통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  
 \*MAC 사용가능자 우대  
 문의: 차요셉 선교사(031-331-8196)

**온누리미션 다문화학생 영어교사 모집**  
 대상: 초중학생 (주로 초등부)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시간: 주 1회 (15시-18시 사이 2시간정도)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영어 관련 자료 기증자 모집(온누리M센터 스타트리)**  
 대상: 초중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월곡동 762번지 3층 305호(택배로 받습니다)  
 문의: 박정진 간사(010-3606-3159)

**온누리M센터 컴퓨터 기증**  
 M센터에서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배 준비용으로 사용할 컴퓨터와 노트북을 기증 받습니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월곡동 797-32층  
 연락처: 031 491 9650  
 담당: 장명우 간사(010 2663 6348)

**온누리미션 찬양팀 세션 모집**  
 대상: 몽골예배 찬양팀 세션으로 섬겨주실 분들(기타, 알렉스, 베이스, 키보드, 드럼)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오후 3시 안산몽골예배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몽골어 클래스 모집**  
 대상: 몽골선교에 비전 있는 온누리성도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온누리미션 한글교사 모집**  
 대상: 몽골근로자들에게 한국어 가르칠 교사  
 장소: 온누리M센터(안산)  
 문의: 박광규 전도사(010-7666-7718)

**일본어예배 피아노 반주자 모집**  
 피아노 전공자, 예배자로 준비된 사람  
 문의: 최영은 성가사(010-4787-7390)

## 양재

02.570.7430

**다문화가정여성에 한글가르칠 교사 모집**  
 남양주 다문화 사역팀(팀장: 정인숙 집사)에서는 2010년 3월부터 구리,남양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0여명의 결혼이주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사역을 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낮12시부터 4시까지 교회 4층 비전홀에서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문의: 정인숙 집사 017-246-0377)

## 대전

042.825.3642

**외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오후 2:30 꿈방 303호

## 인천

032.437.9686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2:20 3층 나눔실

## 재정

십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 다음 주일 온누리미션 비전헌금

다음 주일(12일)에 드리는 비전헌금은 온누리미션 신학생 장학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온누리미션에서는 외국인 및 온누리미션 사역을 섬기고 있는 한국인 신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미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땅에 온 이주자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100개의 국가가 모여 예배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다. 매년 추석과 설날에는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집회를 열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다.

02

### 故조성록 선교사 소천 1주기

#### 〈은발의 소명자〉출판감사예배도

지난 3일(금) 서빙고 순형홀에서 故조성록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정대서 장로의 대표기도 ▷특송 ▷성경봉독(행 20:22-24)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유족(유은필 권사) 인사 ▷모리타 휘대오 목사(일본 광성그리스도교회)의 감사인사 ▷출판소식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예배 참석자들은 조 선교사를 추모하며 그의 삶과 사역의 여

정이 담긴 〈은발의 소명자〉출판을 축하했다.

온누리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인 故조성록 선교사는 1994년 4월 23일 일본으로 파송되었다.

일본에서 조 선교사는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1996년 10월 야치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일본 복음화에 앞장서던 조 선교사는 사역 중 혈액암 판정을 받고 투병 끝에 지난해 1월 29일 주님의 품에 안겼다.

/ 조은실 기자

03

### 거룩한 세대 세우는 거룩한 격려

#### 대청 멘토, 비전공유 위한 비전나이트

대학청년연합의 멘토들이 지난 2월 1일(수)비전나이트 행사를 열고 2012년 대청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비전나이트 행사는 ▷멘토와 함께하는 시간 ▷사역보고 영상 상영 ▷FA1기 사역보고 ▷간증 ▷이상준 목사의 메시지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FA Movement(전방개척 선교 훈련프로그램)1기 사역보고와 간증을 통해

생생한 선교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선교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상준 목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시 24:3-6)'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격려하는 멘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2천선교가 지난 28일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2천선교, 선교전략 공유

## 중장기 선교비전 위한 컨퍼런스

2천선교위원 및 유관기관 스태프들이 지난 28일(토)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선교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컨퍼런스는 ▷이재훈 담임목사 축하영상 상영 ▷특순 ▷팀별 소개 ▷도육환 목사의 선교비전 제시 ▷비전 맵핑(Vision Mapping) ▷이재환

목사의 메시지 ▷성찬식 ▷기도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상메시지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선행 마음을 나누고 성령님의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비전 맵핑 시간에는 각 팀별로 중장기 실천계획을 세워보고 우수계획을 발표한 팀에게는 시상했다.

온누리교회의 주요 선교계획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신규 선교사 파송과 서부 아프리카 선교베이스 구축 등 전방개척 선교동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사 케어 확대와 맞춤형 선교동원, 현장 선교 강화, 전문인 선교 확대, NGO사역 확대 등의 사역을 펼칠 계획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www.ionnuri.org

**서 · 빙 · 고**

▶ 선교와 전도

**CHE 비전 세미나 4기**  
 일시: 3/10, 3/17 매주(토)  
 오전 8~12시 30분 비전홀  
 문의: 김영한 팀장(010-5522-2730)

**양 · 재**

▶ 기도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일시: 3/15~6/7 매주(목)  
 오전 10시10분~  
 오후 2시10분 화평홀  
 문의: 김주혜 간사(570-7277)

▶ 선교와 전도

**CMN 발마사지 기능스쿨**  
 일시: 3/7~5/2 매주(수)  
 오후 1~4시 샤론홀  
 문의: 장숙희 팀장(010-2041-6150)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초/중/고급)**  
 일시: 3/10~31(초급),  
 4/7~28(중급),  
 5/5~26(고급) 매주(토)  
 오후 7~10시 한동홀  
 문의: 이항재 팀장(010-9287-7123)

**캠 · 퍼 · 스**

■ 수원

▶ 선교와 전도

**온누리 선교학교 '와이미션' 수원 7기**  
 일시: 3/18~4/29 매주(일)  
 오후 4~8시  
 문의: 김준범 집사(010-7254-2242)

\*

**재 정**

십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cts29 비전컨퍼런스에서 해외비전교회 목사들이 사역현황을 소개했다.

# 쉬지 않고 '선교와 전도' 하는 교회

Acts29 비전컨퍼런스 ... "하나님 꿈 실현할 것"

Acts29 비전을 따라 열방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해외비전교회 교역자와 국내 캠퍼스 본부장, Acts29협력위원회 장로 등 80여 명이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에

서 '비전컨퍼런스' 행사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Acts29 비전을 되새기고 해외비전교회의 사역현황과 사역의 어려움 등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종길 목사(Acts29)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첫째 날 ▷ 강신의 장로의 대표기도 ▷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 지역별

사역현황 소개 ▷ 해외비전교회 사역에 대해 나누는 해피타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고 둘째 날에는 ▷ 새가족, 일대일, I-care 설명회 ▷ 지역별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컨퍼런스에서는 중국, 일본, 미주, 아부다비, 호치민, 오세아니아 순으로 사역현황과 기도제목을 나눴고 이어 Acts29협력위원회 장로들이 해외비전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합과 충성, 헌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가는 해외비전교회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피날레는 온누리교회의 본질인 쉬지 않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장식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천국 가게 되었어요”

### 조선족 성도 장인과 사위 함께 세례 받아

지난달 29일(주일) 2부 예배에서 올해 첫 세례식을 열고 성인 3명과 유아 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특히 이날 세례를 받은 조선족 김성화, 김명호 성도는 장인과 사위가 동시에 세례를 받는 은혜를 만끽했다.

김명호 성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죄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취 주시어 천국의 길을 가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대일을 통해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김영배 목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세례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축하한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세례자 명단〉

성인세례 : 김성화, 김명호, 송호영, 유아세례 : 이예찬(부:이현호/모:송혜영), 이예경(부:이수길/모:이현경)

### 간증

### “예수님의 지구촌 만드는데 헌신”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

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예수님을 알지 못해 어두운 길을 걷고 있던 저에게 복음의 빛을 비취 주셔서 천국의 길로

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키워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님의 지구촌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 김명호 성도



01

꿈

## “선교사 사명 다하겠습니다”

꿈 온누리는 지난 2개월 동안 적립한 비전헌금을 지난달 15일 마이크 로네시아 지역에서 선교 활동 중인 퍼시픽 아일랜드 대학교(Pacific Island University)학생 2명에게 선교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이번 선교장학금 전달은 온누리교

회의 비전 중 하나인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첫 걸음으로 많은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

선교헌금을 전달받은 두 학생은 “부모님이 선교를 하신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희열 통신원

02

# OEM Winter Missions

This winter, OEM sent out four mission teams to various parts of Asia. As part of Onnuri church, OEM is also dedicated to bring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to every nation in the world. The first team to go out was a special team in that it was one of the first family mission teams ever to be sent by OEM. Three families, including three mothers, one father, and several teenaged children, went to Thailand to visit Khaodee orphanage in Chiang Rai. OEM has sent several teams to Khaodee in the past, so the family team was there mostly to encourage the staff and children and to build on OEM's existing relationship with them.

Almost immediately after the family team left Khaodee, another team led by Pastor Mike Lee flew into Thailand, this time to visit both Khaodee orphanage and Kru Nam's village. Kru Nam is an abolitionist in Thailand. She works to free children from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slavery. Her village is a shelter for rescued children and it houses about a hundred children plus several staff members. OEM's team was able to provide material blessings as well as encouragement and fellowship to both places.

Following this team, OEM sent a team led by Pastor Joel Yoon to Cambodia where they partnered with Agape Ministries, founded by Don Brewster. Don is also an abolitionist who works to free women and children from sexual slavery and provide healing and training for them so they can survive in society.

Finally, OEM sent their last team to India for another unique trip. This team was comprised of two pastors (Pastors Isaac Surh and Daniel Park), three lay teachers, and a professor from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This team visited three different Bible schools in the north-eastern state of Nagaland and gave workshops on a dozen different topics to the students there, including



The Thailand team praying against the heavy flow of human trafficking and casinos that are planned to open in the Golden Triangle? a point of connection between Laos, Thailand, and Myanmar.

Bible interpretation, preaching,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worship, children's and women's ministries, and the Old Testament.

All in all, it was a fruitful winter for OEM missions. OEM gives all

praise and glory to God for what was accomplished and prays that the summer missions program is even more productive and glorifying to Him. / Isaac Surh

01

#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중앙아시아 기획다큐'  
- 2월 13일(월) 오후 8시20분  
독립국가연합에 살고 있는 한국인 교포 카레이스  
키들을 통한 중앙아시아 선교의 흐름을 전합니다.

\*

## 서빙고

02.793.9686

### 화요선교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한동홀

### 온누리미션(외국어예배)

#### 인산 온누리M센터

주일 오전 11시 열방 다민족 예배(1층)

주일 오전 11시 다문화 꿈방 예배(3층)

주일 오전 11시 캄보디아예배(4층)

주일 오전 11시 러시아 예배(쳐소 2층)

주일 오전 11시 몽골 예배(쳐소 4층)

주일 오후 2시30분 스리랑카 예배(4층)

주일 오후 4시 필리핀 예배(쳐소 2층)

주일 오후 5시30분 방글라데시 예배(쳐소 4층)

### 서빙고

주일 오후 1시~2시30분 한글학교(본관 B101호)

주일 오후 2시30분 네팔 예배(선교관 402호)

주일 오후 2시30분 몽골 예배(선교관 401호)

주일 오후 2시30분 러시아 예배(선교관 302호)

주일 오후 2시 아랍 예배(본관 B102호)

### 평택

주일 오전 11시20분 몽골 예배(지하1층 교육관)

### 인천

주일 오후 2시20분 몽골 예배(기쁨홀)

###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30분

장소 : 서빙고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 민문기 팀장 (010-4369-3317)

### Acts29 비전 빌리지 IT간사 모집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

IT를 통한 선교를 준비하는 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MAC 사용 가능자 우대

문의 : 차요셉 선교사 031-331-8196

### 벽걸이형 냉난방기와 프린터 기증자 모집(온누리M센터 무슬림센터)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

번지 3층 305호

문의 : 장명우 간사(031-491-9650)

###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영어 관련 자료 기증자 모집(온누리M센터 스타트리)

대상 : 초,중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2

번지 3층 305호(택배로 받습니다)

문의 :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 중국어예배 성가대반주자 & 찬양팀 봉사자 모집

분야 : 성가대반주, 건반, 드럼, 베이스, 일렉기타, 음향

문의 : 허리우기외 010-2313-0457 (성가대)

이명윤 010-2894-4756 (찬양팀)

### 단동 온누리교회 부설 유치원교사모집

모집대상 : 유아교육 전공자

원감 1명, 교사1명

문의 : 김성희원감 070-4046-9686

### 이주민 노동자 의료봉사를 함께 섬겨 주실

#### 동역자 모집

대상 : 내과/사기정/화과/의사

장소 : 서빙고성전 선교관 지하층 진료실

시간 : 매월 2째 주일 오후 4~6시(2시간)

문의 : 김길준 팀장(010-9091-8884)

#### 세계인터넷선교교회 행정 간사 모집

업무 내용 : 회계장리후원, 운영관리

제출서류 : 이력서,신상,배우포함한자기소개서

접수방법 : Email접수 (swim@swim.org)

문의 : 권기현(02-766-3270)

#### 일본어예배 토요일교사들버스운전자모집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5시

자격 : 1종운전면허소유자, 불교문전에 능숙하신분

문 : 담담간사 02-3215-3702, 010-3378-4330

#### 인산 온누리M센터 한국어 강사 채용

자격 :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

국내외국인 선교에 열정을 가진 신분 환영

문의 : 박상명 간사(031-491-9654, 010-3776-8480)

#### 온누리미션 다문화학생, 영어교사 모집 (자원봉사)

대상 : 초중학생 (주로 초등부)

장소 : 온누리M센터(인산)

문의 : 박정진 간사 (010-3606-3159)

시간 : 주 1회 (15시~18시 사이 2시간정도)

#### 온누리M센터 컴퓨터 기증

M센터에서 현직인 사역자들이 예배 준비용으로 사용할 컴퓨터와 노트북을 기증 받습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67-32층

연락처 : 031.491.9650

담당 : 장명우 간사(010.2663.6348)

## 대전

042.825.3642

### 외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오후 2:30 꿈방 303호

## 인천

032.437.9686

###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 2:20 3층 나눔1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 2층 비전홀

## 재정

십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선교

### 2000선교본부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문의: 김민규 간사(3215-3208)

**비즈니스 선교 중보기도 모임**  
매월 2째주 (토) 오전8시 선교관 2층 202호  
문의: 최영재(010-2271-4898)

**마그레브 선교 기도 모임**  
매월 3째주 (월) 오후 7시  
문의: 박찬명 형제 (010-9667-0406)

**선교사를 위한 금요 중보기도 모임**  
매주(금) 오전 10시30분 비전빌리지 시애틀  
문의: 김현미 집사(010-3243-8786)

**화요 선교 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9:20분 서빙고 한동출  
문의: 2000선교본부 (02-795-9085)

**'Why Missions?' 를 위한 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30분 서빙고 홍보관  
문의: 박명신 집사(010-9329-7612)

**인터넷 중보기도 모임**  
매주(수) 오후 6시 서빙고 홍보실  
월례모임: 토 오전 6:30 서빙고 Acts29홀  
문의: 민문기 집사(010-4369-3317)

**선교를 위한 월요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주희 집사(010-5697-8736)

**선교를 위한 목요 중보기도모임**  
매주(목)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이수연 집사(010-3243-8786)  
김지영 집사(010-5265-0531)

**이스라엘 선교 중보모임**  
매주(금) 오후 6시 서빙고 Acts29홀  
문의: 이희준(016-739-3086)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터키)**  
함께 섬기실 스태프를 모집합니다.  
매주(월) 오후 7시30분 서빙고 Acts29홀  
문의: 김미희 팀장(010-5272-5910)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매주(화) 오후 1시 서빙고 선교관 201호  
문의: 유정경 집사(010-3341-8778)

**티벳 중보기도모임**  
매주(월) 오전 11시30분 서빙고 자모실  
문의: 이인희 집사(010-5082-1758)

**몽골 중보기도모임(몽기모)**  
매월 둘째주(주일) 오후 3시 외부(강서구  
기양동 한터)  
문의: 박수용 집사 (010-4120-5046)

**남아시아 중보기도모임(SAM)**  
매월 셋째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홍범식 장로(011-278-0466)

**멕시코 I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화) 오전 6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김철주 장로(010-8980-6167)

**멕시코 II 중보기도모임**  
둘째주 (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김기호 장로(010-3787-0682)

**위구르족 중보기도모임**  
첫 셋째주 수요일 오후8:20~09:00 순형출  
문의: 이종우 집사(010-8291-5282)

**필리핀 보홀 중보기도모임**  
마지막 주(월) 오후 7시 서빙고 홀기도실  
문의: 조오현 집사(010-5526-2227)

**하니족 중보기도모임**  
둘째주 (월) 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윤식 집사(011-793-9772)

**이수공통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셋째주(토) 오전 10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예상욱 형제(010-6533-3314)

**아프리카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토) 오후 2시 서빙고 순형출  
문의: 김태환 집사(010-2422-0516)

**러시아 중보기도모임**  
매월 첫째주 (월) 오후 7시 서빙고 302호  
문의: 김선(010-2356-8832)

**중동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월)오후 7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전병제 집사(010-5249-7056)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모임**  
매월 첫째주(토) 오전8시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김정화 자매 (010-3212-6902)

**인도네시아 람퐁족 중보기도모임**  
넷째주(화)오후 7시 서빙고 아론, 홀기도실  
문의: 김진환 집사(010-9001-7312)

**아제르바이잔 중보기도모임**  
매주(토) 오전 6시 서빙고 영유아실  
문의: 양의현 집사(011-228-3833)

**인도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월)오후 7시30분 양재2층 컴퓨터  
문의: 조영철 집사(010-8793-9921)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온누리교회  
문의: 장지은 전도사(010-3453-8082)

**이천선교CHE(지역개발선교)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 40분  
장소: 서빙고 미션홀  
문의: 장기홍 집사 (010-6285-4382)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주(목) 오전10:30 서빙고302호  
문의: 김은정 선교사(010-2996-6902)

**전방개척(Mission Frontier)  
중보기도모임**  
문의: 김신화 간사(794-1063)

### 키비 (792-7075,6 www.kibi.or.kr)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시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9시 JDS홀

**IBS 스킨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IBS-이스라엘 바이블 스테디)**

**IBS 서빙고 35기**  
일정: 1.28-3.3(토 6주)  
시간: 오전 9:30-12:30 / 장소: 서빙고 시온홀  
대상: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노순용 팀장 (010-5080-0545)  
키비사무실 (02-792-7075-6)

**IBS 양재 19기**  
일정: 2.18-3.24 (토 6주)  
시간: 오전 9:20-12:30  
장소: 양재온누리 JDS홀  
회비: 1만원 (교재 별도 구매)  
문의: 전정미 집사 (010-4921-4513)

**IBS 목회자 세미나**  
일정: 2.13-14 (월-화, 1박2일)  
시간: 13(월)오후2시-14(화)오후12시30분  
장소: 양지 비전빌리지  
문의: 키비사무실 (02-792-7075-6)

### 온누리미션

**몽골가정 위한 출산육아용품**  
기증(안산) 종교가능  
문의:010-7666-7718, 070-8671-8033(사무실)

### CMN

**양재의료선교팀원모집(토브팀)**  
-치위생사 급구  
장소:양재캠퍼스 치과진료소(1,3주 주일  
교대)+가리봉동한중사랑교회(4째주)  
내용:양한방,치과진료,약무, 이미용, 컴퓨터등  
대상:의사,한의사,치과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약사, 미용, 기타봉사자  
연락처:팀장-이학일(010-4421-6776)  
총무-장준성(019-309-8768)



01

## 일 년의 기다림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 3월 11일까지 모집

오는 4월 25~26일 열리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열여섯 번째 사랑노래 다카마쓰 러브소나타의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참가자는 A, B 두 팀으로 나뉘어 모집한다. A팀(4/24~27)은 인천에서 마쓰야마를 경유해 다카마쓰에 입성하며 참가비는 105만 원이다. B팀(4/24~27)은 인천에서 다카마쓰로 직항하며 참가비는 99만 원이다. 참가자 모집은 오는 3월 11일(주일)까지 받는다.(접수비 20만 원)

지난해 4월 기획되었던 다카마쓰 러브소나타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 년 연기되었다. 그동안 다카마쓰 현지에서는 궤기대회 및 지진피해돕기 자선집회, 실행위원회 모임 등 10여 차례에 걸쳐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러브소나타를 준비해 왔다.

지난 주일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카마쓰 러브소나타에 참석해 대지진으로 불안에 휩싸인 일본 사람들을 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문의:러브소나타본부(749-1149)

/ 정자은 기자



02

### 2012년 첫 선교사 파송

▶장기선교사: 권능/지혜(동아시아D국)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방법에 순종하여 사역하도록

▶단기선교사: 박조나단/김진경(오세아니아 피지국)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남태평양을 위한 무릎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FA 청년 단기선교사: 곽단비, 문놀, 이하은, 남에스터, 정꿀, 최빛(아시아A국)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든 훈련을 잘 감당 할 수 있도록

홍삼, 최바르쉬, 신영, 임양군, 이조이, 구하나, 유순중(유럽 B국)

-현지 사역에서 만남을 예비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제목과 파송식 사진 등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01

## 온누리M미션 한자리에

### 사역 공유 및 외국인 신학생 장학금 전달

모든 스태프들이 봉사자로 구성된 온누리M미션이 지난 18일(토) 안산 M센터에서 올해 사역을 공유하기 위해 수련회를 열고 외국인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수련회는 ▷찬양 ▷기도 ▷강인원 집사의 특순 ▷김창욱 전도사의 말씀 ▷부흥기도회 ▷장학금 전달 ▷2012년 주요사역 소개 ▷2012년 실행위원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온누리M미션은 태국 예배 공동체 개척, 네팔 남부 교회개척 준비, 선교학교, 아버지학교 등 이주민선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기독교 대안교육기관인 스타트리(Star Tree)의 운영개선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 오늘부터 3월 15일까지

양재 2기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에서 오늘부터 3월 15일(목)까지 수강생 및 교사를 모집한다.

세품아는 공동체 훈련, 자존감 캠프, 해외 아웃리치, 선교 교육 등의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리더십을 키우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Acts29라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선교에 대한 씨앗을 품게 한다. 이번 학기(3/31~11/18일)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에 양재 비전홀A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

은 30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이다. 접수 방법은 교회에 배치된 지원서를 작성해 차세대 사무실로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학기 당 25만 원(해외 아웃리치 별도)이다.

한편 온누리 등록 세례교인으로서 찬양과 소그룹 인도자로 섬길 교사를 모집한다.

- 면접: 3월 17일(토) 오전 11시
- 문의: 박민혜 코치 (010-3232-1433)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세품아 사진과 간증은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01

## 올해 선교사역 이렇게 진행된다!

### 평택 선교팀 열정 재확인

평택 온누리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평신도 선교학교 ‘Why Missions?’ 1기의 열기를 이어받아 올 해에도 선교에 대한 열정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평택 선교팀의 2012년 사역계획은 선교를 위한 바자회, 국내외 아웃리치로 나뉜다. 오는 6월에는 선교후원금 마련을 위한 선교바자회를 개

최하며, 그 동안의 선교사역을 성도들과 공유하기 위해 선교사진전을 열 예정이다.

해외 아웃리치는 오는 7월 중 평택의 책임선교지인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할 예정이고, 국내 아웃리치는 안산M센터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선교체험을 할 계획이다.

02

단동

### 나라와 민족을 위해

##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중국 단동에 불기 시작한 성경통독운동과 중보기도의 열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처음에 성경통독 운동은 지난 1월 까지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

다. 특히 올해 교회 표어인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를 되새기며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단동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상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 성시용 통신원



01

동경

# “일본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지진피해 이어 인플루엔자 확산

일본 동북부 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한 지 1주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에서는 지진피해 복구 대책에 관한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지난 주일(19일)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이 네 차례나 지진을 감지하고 불안에 떨었다.

동경 온누리는 긴급하게 지진방재 도구를 사용하여 가구 및 기자재를 고정시켰지만 성도들의 불안은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장재운 목사(동경 온누리교회)는 “안식일에 일본

땅에 재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달라”면서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순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경 온누리는 건물의 특성상 비상구와 엘리베이터가 좁아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피난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물에서 연2회 지진피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경 온누리도 차세대 예배에서 지진피난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일본에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해 차세대들이 주일예배에 결석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을 위한 중보기도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한 때다.

/ 이수영 통신원

02

시드니



# “하나님의 비전 발견했어요”

## 청년부 아웃리치

시드니 온누리 대학청년부 AS공동체(대학청년)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크고 이슬람의 세력이 지배적인 술라웨시(Sulawesi) 남부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윤대근 목사(AS공동체)를 비롯한 청년 26명으로 구성된 아웃리치팀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고아원과 신학교를 섬겼

다. 특히 한글학교를 운영하면서 복음 전파율이 0.06%밖에 되지 않는 미전도 종족 부기스(Bugis)족의 어린이 1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맺었다.

아웃리치팀원들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남태평양 지역을 선교의 요충지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 윤대근 통신원

01



## 선교의 지경 넓히는 '책임선교사제도'

2천선교가 지난 18일(토) 공동체 책임선교사 제도를 정착하고 선교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공동체 리더십 초청 조찬모임을 열었다. 모임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선교 사역 및 책임선교사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이날 소개된 책임선교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 ▶ 책임선교사 제도란?

책임선교사 제도는 선교사 케어사역이 공동체 및 다락방과 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교사들이 본인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의 강화를 하고, 공동체의 선교동원 및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 ▶ 책임선교사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공동체가 요청한 지역을 1차적으로 배정하고 가족, 공동체 관계자가 선교사로 파송된 경우를 우선으로 배정한다. 공동체별로 이웃리치가 가능한 지역을 배정하고, 각 다락방의 인원수를 고려해 선교사를 배정한다.

### ▶ 선교사 케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교사 선발부터 은퇴까지 모든 과정을 교회가 성공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선교 본부와 연합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 후원대상은 일차적으로 책임선교사, 이차적으로 선교사자녀, 그리고 선교사의 가족들이다.

### ▶ 공동체 및 다락방의 역할은 무엇인가?

선교사 및 선교지 상황을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수시로 파악한다. 또한 다락방 및 순모임 사진을 통해 공동체 소식을 선교

사에게 전한다. 무엇보다 책임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지역별 중보기도모임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동체와 연결된 책임선교사의 선교지로 떠나서는 이웃리치도 빠질 수 없다.

### ▶ 책임선교사 제도가 맺는 열매는?

공동체와 선교사가 긴밀하게 동역할 수 있다. 공동체 지체들은 공동체별로 배정된 선교사들의 사역현장을 이웃리치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선교의 지경이 확장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FA청년 단기선교사들이 들려준 '선교이야기'

대학·청년부 FA1기 단기선교사들이 각각 아시아A국과 유럽B국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그들의 간증이다.



## 한 영혼을 찾기 위한 부르심

저를 부르신 그 땅은 하루 다섯 번 애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거리에 양탄자를 깔고 절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의 견고한 믿음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과 같이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도 잠시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서툰 언어로 먼저 다가갈 말을 건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고난과 희생의 길이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대하신 축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날갯짓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쁘게 여기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물결을 만드십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FA 선교사 손하진(유럽B국)

## 애타는 그 마음 닮고 싶어요

하나님은 지난 5개월 동안 FA 단기선교팀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두려움과 하나님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고 싶어졌습니다.

부족한 저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을 체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FA 선교사 임하영(아시아A국)



\*FA 단기선교사 간증 전문과 관련 사진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2년 2월 26일 889호

- 01- 2천선교 : 공동체 '책임선교사 제도' 소개(8면)
- 02- FA청년 단기선교사 간증 : 임하영(아시아 A국)& 손하진(유럽B국)(8면)

0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109편>  
- 2월 27일(월) 오후 8시20분  
샤머니즘과 이슬람의 나라 세네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에릭 쉘미오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나의 선교지, 파푸아뉴기니  
- 3월 2일(금) 오후 11시  
파푸아뉴기니의 선교사 가정을 통해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01

##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위한 비전헌금

다음 주일(11일) 드리는 비전헌금은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를 위해 쓰인다.

의료사역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

당하고자 1969년에 창립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재난구호와 안식년 및 은퇴선교사 복지, 의료선교협의회 협력 및 네트워크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 정지은 기자

02



지난달 29일, 2천 선교본부와 17개 선교단체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 선교단체장 모임을 가졌다.

## 아프리카 선교베이스 구축

### 블레싱 사하라, 선교단체에 긴밀한 협조 요청

지난달 29일(수) 서빙고 순형홀에서 열린 선교단체장 초청 모임에서 도육환 목사(2천 선교본부)는 “올해 온누리교회의 주요 선교정책은 블레싱 사하라(북서부 아프리카)에 집중해 장·단기 선교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개 선교단체장에게 적극적인 후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선교단체장 모임에는 온누리교회, 인터콥, GO, HOPE, WEC, UPMA GBT, 알타이선교회 등 17개 선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모임에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선교에 대한 성찰과 시행착오를 파악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장·단기 선교사역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선교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선교단체장들은 “CGNTV를 통해 열방의 선교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와 CGNTV에 감사를 전했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CMN 스프링데이 'Healing Together'

## “의료선교 통해 사람 낚는 어부될 것” 결단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Christian Medical Network) 멤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전을 공유하고 기도하는 모임 '연합스프링데이'가 지난 2월 25일(토) 양재 화평홀에서 열렸다. 'Healing Together'를 슬로건으로 내건 연합스프링데이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설립 43주년 기념예배 및 제 44차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되었다.

연합스프링데이는 ▷찬양 ▷CMN 대표 안태환 장로의 기도 ▷의선협 양유식 회장의 격려사 ▷교회분과 공미경 위원장의 세미나 ▷FL워십팀과 CMN 챔버의 특순 ▷아웃리치 보고 ▷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양유식 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했다. 의약품 지원 및 국제 활동을 위한 한국기독교 재난 구호에 대한 소위원회활동보고로 열린 세미나에서 공미경 위원장은 “한국의료선교협회의 의약품 공급이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통합으로 운영되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아웃리치 보고에서 정성훈 장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

씀처럼 필리핀에서 만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치료했다”고 말했으며, 서울드림교회 김탁 형제가 “홍수로 상처 입은 태국인들의 영과 육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길 간구하며 치료의 손길을 펼쳤다”고 간증했다.

CMN 스프링데이 행사에 앞서 진행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설립 43주년 기념예배 및 제 44차 정기총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들(마 4:18-20)’라는 제목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모인 의료인들이 의료선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이들을 격려했다. 다음 주일(11일)에는 의료사역을 통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를 위한 비전헌금을 드린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매년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해 한국교회 의료선교단체의 비전 공유 및 네트워크를 이뤄가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자세한 내용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4일 890호

• 01-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연합스프링데이' 개최(4면), • 02-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안내(4면)

#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 오는 10일, 3,500여 명 수료자 초청

평신도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 (Why Missions?)'이 열 돌을 맞아 오는 10일(토) 서빙고 비전홀에서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기념행사는 와이미션이 걸어온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2002년 OWMC(온누리 세계 선교센터)에서부터 시작된 와이미션 1기부터 현재 26기까지의 3,500여 명의 수료자들이 초청되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기념행사는 ▷기수별,캠퍼스별 참석자 소개 ▷도육환 목사의 메시지 ▷토크쇼 ▷2012년 스쿨일정 소개 ▷조별모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와이미션은 수원 7기(3월18일~4월29일), 서빙고 27기(4월7일~5월26일), 서빙고 28기(4월14일~6월2일), 강동 2기(4월21일~6월9일), 서산 1기(5월12~6월23일), 오사카 1기(5월18일~19일) 개강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대전

**■ 청주 여자교도소 통역 봉사자 모집(여성사역팀)**  
 모집분야: 스페인어 통역가능자  
 봉사시간: 한 달 1회  
 문의: 노혜란 팀장  
 (010-5532-2899)

02

							
프로그램	소 개	수업기간	시 간	장 소	대 상	문 의	회 비
양재 세품아	공동체 훈련, 자존감 캠프, 해외 아웃리치, 선교 교육 등의 훈련 프로그램	3/17~6/30	(토) 9:30~13:30	비전홀A	초등학교 4학년~6학년	양승순 전도사(010-2756-7458)	학기별 25만원 (아웃리치비용별도)



일본을 향한 두드림,

# 이번에는 다카마쓰다!

4월 25일, 26일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다음 주일(11일)까지 봉사자 A, B팀 모집

지난해 3월 11일, 다카마쓰 러브소나타가 열리기 40여 일 전 일본 동북지방에 유례 없는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다. 러브소나타 현지 실행위원회는 합동기도회와 꺾기대회, 자선집회를 개최해 행사가 열리기를 기도했지만, 러브소나타는 일 년 연기되었다.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러브소나타를 기다린 다카마쓰에 오는 4월 25일(수)~26일(목)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진다. 러브소나타 본부는 봉사자로 참가할 성도들을 모집 중이다. 현재 참가신청이 저조해 많은 성도들의 헌신

과 결단이 필요하다. 신청은 다음 주일(11일)까지이며, 4월과 11일 서빙과 본관 1층에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하면 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접수비 20만 원을 입금한 뒤 3월 18일(주일)까지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

러브소나타는 저녁 7시 알파 아내부키움(가외현 현민홀) 대홀에서 열리며, 주강사는 이재훈 담임목사다. 다카마쓰는 일본 시코쿠 섬의 북동부 가가와현에 위치한 곳으로 사누키 우등의 본고장으로 더욱 유명하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기·도·제·목

- 3월 5일(월)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 3월 6일(화)  
일본 열도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 3월 7일(수)  
다카마쓰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인근 지역 협력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 3월 8일(목)  
모든 참가자들이 열정을 품고 일본인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 3월 9일(금)  
한국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기도하며 동참하여 필요한 봉사자가 채워질 수 있도록
- 3월 10일(토)  
출연자들과 프로그램이 잘 결성되어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 3월 11일(주일)  
지난해 3월 11일 동북대지진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은 일본 땅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도록



▲ 황재익, 구재영, 장응복 장로

## “삼총사가 말하는 그 기쁨”

예수님이 행하신 포도주의 기적은 물 떠온 해인만이 아니다. 러브소나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일명 러브소나타 삼총사 장응복(86세, 중종로공동체), 황재익(64세, 서초B공동체), 구재영(63세, 서초B공동체) 장로가 바로 그 물 떠온 해인이다. 장응복, 황재익, 구재영 장로는 오키나와,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나가노 등 러브소나타 봉사자로 10회 이상 참석했다. 처음에는 각각 참석해 섬겼지만 횡수가 늘어나다보니 이제는 자연스럽게 러브소나타 이야기만 나와도 서로가 서로의 이

름을 참가자 목록에 올리는 사이가 됐다. “러브소나타에 한두 번 참석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셋이 친해졌고, 나고야 러브소나타부터는 셋이 함께 안내를 서고 종이비행기를 접으며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지요” 러브소나타 봉사자로 섬기는 일은 삼총사의 기쁨이다. 처음에는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봉사자로 섬기면서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황 장로, 러브소나타를 섬김이 자신의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장 장로, 한 번 갔다 오면 멈출 수 없는 것이 러브소나타라고 고백하는 구 장로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마지막 기회이자 일본을 향한 우리의 이웃사랑입니다. 러브소나타 섬김을 통해 참석한 사람만이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 받으십시오.” 다음 주일(11일)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봉사자의 참가 모집이 종료된다. 러브소나타 삼총사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발을 담글 온누리 봉사자들의 헌신이 절실하다.

/ 정지는 기자

## 성령의 바람 쐬러 다카마쓰로!

▶ 이승주, 변은미 부부

이촌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승주, 변은미 부부. 다카마쓰 러브소나타를 앞두고 일본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카페를 찾았다. 카페에 들어서자 ‘〈생명의 삶〉을 무료로 나눠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일 년 동안 기도하면서 카페를 오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이 예배와 나눔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하셨어요. 〈생

명의 삶〉을 나누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젊은 부부의 얼굴에서 거룩함이 물어왔다. 이 부부는 일본을 사모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저희 부부는 일본을 사모하는 마음이 매우 큼니다. 2010년에 결혼하고 아사히카와와 니가타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는데 풀리지 않은 것이 풀리고, 처음과 끝이 다른 말 그대로 은혜의 장이었어요. 섬기러 갔다 오하려 사랑을 듬뿍 받고 왔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연기되었던 다카마쓰 러브소나타가 막 오른다는 소식에 부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일본인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 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부는 마지막으로 참석을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일본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일본을 향한 열정과 비전만 있으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열정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바람 쐬러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자세한 내용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Love Sonata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감동과 말씀이 있는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 다카마쓰 TAKAMATSU

2012. 4. 26(목) 7pm  
알파아나부키홀 대홀

※4/25(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다카마쓰



주강사 MAIN SPEAKER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문의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 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주 최 |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실행위원회

Onnuri

협 찬 | CGNTV DURANNO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준비 한창

## 참가신청 18일까지, 잔치 한 달여 앞두고 기대감 절정

오는 18일(주일) 일본 다카마쓰에서 러브소나타를 위한 총괄기대회가 열리는 등 러브소나타를 한 달여 앞둔 일본 현지는 신망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이다. 현지 목회자들은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있다. 시코쿠복음그리스도교회의 가와사키 미치코 목사는 “일본 전역이 영적 어두움에 덮여있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이때에 러브소나타를 통해 다카마쓰를 비롯한 시코쿠 전 지역이 큰 영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러브소나타 본부에 전해왔다.

지난 1월 다카마쓰에서는 ‘러브소나타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다카마쓰 시온교회의 카토 목사는 이날 “흠뻑 성이인 나 같은 목사의 메시지일지라도 주님께서 러브소나타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다카마쓰타무라초교회의 가라토 목사도 “온누리 성도들이 보여준 일본에 대한 믿음을 보고 한층 가까워



한일양국이 다카마쓰 러브소나타를 한 달여 앞두고 신망 맞을 준비를 하느라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러브소나타.

진 느낌이 들었다. 온누리 성도들과 함께 성공적인 러브소나타를 완성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다카마쓰시민문화센터에서 ‘큐티세미나’가 진행됐다. 큐티세미나에는 20개 지역교회에서 총 95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합동기도회, 궐기대회, 동북지방 지진피해 자선집회를 여는 등 러브소나타에 힘써왔다.

한국 본부에서도 준비가 한창이다. 다카마쓰 러브소나타의 일반 참가자 모집을 다음 주일(18일)까지로 연장했다. 지진에 대한 두려움과 공

포, 좌절에 휩싸인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성도들은 서빙고 로비 1층에 마련된 러브소나타 안내데스크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된다.

문의: 3215-1149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1

# 중동 복음화 꿈 이룰 ‘방송선교’

## 아랍CGNTV 창립, 인근교회와 지속적 협력 다짐 SK브로드앤티비, CGNTV 채널 554번으로 변경

지난 2일 아랍CGNTV가 창립예배를 드리고 ‘방송선교를 통한 중동 복음화’의 꿈을 이루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아랍CGNTV는 아랍어 말씀강해 및 프로그램을 시범방송 중이며, 단계적으로 아랍어 방송을 확대해 24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랍CGNTV는 중동지역에서 외국인들의 예

배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아부다비의 이점을 살려 중동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민 목사(CGNTV)는 자사(自社)와의 인터뷰에서 “중동의 복음화는 선교단체나 CGNTV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인근 교회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방송선교를 통한 중동 복음화의 꿈을 이뤄낼 것”

이라고 말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드린 창립예배에는 미국교회 담임목사, 아랍어 예배 담임목사 등 아부다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근지역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05년 개국한 CGNTV는 미주, 일본, 중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 아랍지역에는 제작센터를 오픈해 복음을 송출하고 있다.

한편 SK브로드앤티비(Broad&TV)의 CGNTV 채널이 554번으로 변경되었다.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기·도·제·목

- 3월 12일(월)  
필요한 봉사인원이 다채워질 수 있도록
- 3월 13일(화)  
현지 다카마쓰에서 실행위원장과 위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 3월 14일(수)  
일본 참가자 모집을 위한 모든 홍보활동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3월 15일(목)  
출연자들이 잘 결정되어서 은혜롭게 모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 3월 16일(금)  
다카마쓰 러브소나타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기쁨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 3월 17일(토)  
일본 지역의 영적부흥과 새로와짐을 위해
- 3월 18일(주일)  
말씀과 세미나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을 위해

2012년 3월 11일 891호

- 01- 아랍 CGNTV 창립 및 본격적 활동 안내(4면)
- 0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12-18)(4면)

01

평택 1+2예배는...

평택 온누리교회의 1+2예배는 매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1+2'의 의미는 기존의 것과 또 다른 것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하는 예배, 평택 온누리와 다른 단체(양로원, 고아원 등)가 함께

하는 예배, 한국과 다른 나라(인도네시아어 또는 몽골어)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예배를 추구하고 있다. 1+2예배에서는 매달 셋째 주에는 몸으로 살기로 실천하는 예배를 통해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시설을 방문하고, 넷째 주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오는 3월 셋째 주일에는 보육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02

세례

#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를 고쳐주세요”

지난 3월 서빙고 러시아 주일예배에서 세례식이 열렸다. 이날 세례를 받은 9명의 지체들은 성도들의 축하와 환호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혼식을 치렀다. 어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쏟은 지체의 사랑노래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저희 가족은 러시아에서 러시아인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학교에서 유일한 고려인이었기에 인종차별에 항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저의 삶은 근심과 우울로 가득했습니다. 돌아켜보면 제 인생에서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교회가 좋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와 종교에 대한 강한 의심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 해 말에 알 수 없는 심한 두려움과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극도의 우울과 비참한 미래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결국 자살까지 결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 년을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라는 것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제발 저를 고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고통과 모든 우울과 걱정에서 저를 치유하셨고 뿐만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 최고의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빛, 기쁨, 높음, 순결함, 아름다움, 진리, 깊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 깨닫게 된 것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내면세계를 탐험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제 재능과 은사를 찾아보게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시와 가사를 쓰며 예배팀 안에서 최선을 다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꿈을 꾸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껏 제가 선택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꿈과 계획과 방법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인나 유가이





01



## 와이미션,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꿈

어제 (10일) 서빙고 비전홀에서 열린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와이미션 수료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0년 동안 와이미션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나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기 차준환 장로는 "와이미션을 통해 더 많은 선교동원자들이 선교현장으로

달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미션 2대 원장 황중연 목사는 참석자들에게 "와이미션이 10년을 달려왔지만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와이미션 사역에 동참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조은실 기자

02



3,500명의 선교동원가 배출한

## 와이미션(Why Mission?)을 말하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무엇이 선교인가?"

와이미션은 선교에 대한 의문점들을 풀어주고 일반적인 삶에서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평생도 선교훈련학교이다.

2002년 OWMC(온누리 세계 선교센터)에서 시작된 와이미션은 2009년 온누리 이천선교로 이전해 지금까지 국내 9개의 캠퍼스와 12개 해외 비전교회, 대청, 차세대 등 3,500명의 선교동원가들을 배출하며 10년을 걸어왔다. 올해는 오사카와 서산 등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고, 특히 해외 비전

교회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일본어로 번역된 교재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온누리 성도라면 누구나 수요해야 할 와이미션(Why Mission?)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간증

### 와이미션(Why Mission)은?

성경 전체에 나타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나가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선교의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선교 기초 훈련.

#### <현황>

캠퍼스	본부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인천	강동	평택	해외비전	기타
횟수	26	6	6	3	2	1	1	1	12	7
인원	1547	224	162	167	105	66	52	24	658	496



#### <모집계획> 상반기 일정

캠퍼스	날짜
수원7기	3/18~4/29(주일)
본부27기(서빙고)	4/7~5/26(토)
본부28기(양재)	4/14~6/2(토)
강동27기	4/21~6/9(토)
서산7기	5/12~6/23(토)
오사카	5/18,19(토)

## 내 인생의 이정표 '와이미션'



제가 와이미션을 듣게 된 계기는 선교에 헌신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교가 왜? 중요하고 시급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알고 싶었고, 그럼 나는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 후 큰아이를 임신하여 태중에 아이와 함께 선교에 헌신했었고, 와이미션을 다니면서 태중에 아이와 함께 강의를 들으면서 웃고 울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막연했던 선교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이미션은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크리스천들에게 선교는 은혜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맞보는 것입니다. 와이미션 수료이후 10년이란 시간을 돌아켜보면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 아래 저의 인생과 우리가정에 이정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받고 있는 장기선교훈련(OSOM)을 통하여 앞으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허만호 예비 선교사

2012년 3월 11일 891호

- 01-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9면)
- 02- 와이미션(Why Mission?) 소개 및 허만호 예비 선교사 간증(9면)



0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세네갈 이화섭 선교사 편>  
- 3월 12일(월) 오후 8시20분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무슬림 미전도 종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화섭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위클리 미션 <첫방송>  
- 3월 17일(토) 오전 5시40분, 오후 1시10분  
세계 각국의 선교 관련 소식을 전하는 주말 선교종합뉴스입니다.

# 왜 사하라인가?

이슬람세력 팽창, 영적 사막화 가속  
여느때보다 아프리카에 복음전파 절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천연자원이 풍부하지만 풍토병, ADIS,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정부, 부족 간의 빈번한 충돌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 영양실조, 높은 문맹률, 열악한 의료시설, 비위생적인 수도시설도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몫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해 영적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여느 때보다 간절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때다.

올해 여름 온누리교회는 아프리카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과 손잡고 북서부 아프리카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서부에 위치한 18개 나라(모로

코, 튀니지, 이집트, 모리타니,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부르키나파소, 베냉, 감비아, 시에라리온, 차드, 니제르, 기니, 가나)가 대상이다. 북부 아프리카는 95% 이상, 서부 아프리카는 70% 이상이 무슬림이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서는 교육과 보건, 환경개선 사역을 통해 현지교회와 선교사들을 위로한다. 아웃리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단기 선교사와 무릎선교사도 세울 예정이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선교공동체 온누리교회.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가자.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관련기사 9면



## 02

### 선교사 파송

오늘(18일) 서빙고, 양재에서 각각 1부(6:50), 3부(11:20)예배에서 파송식이 열린다.

- ▶ 신원석/오수경-스리랑카
- ▶ 김빌립/임희보-서부아프리카
- ▶ 이대원-스리랑카
- ▶ 박지혜-동아시아 M국
- ▶ 조규연/이명숙-캄보디아
- ▶ 이성령/김단비-아프리카 T국
- ▶ 아이작/사만다-서부아프리카
- ▶ 김헬비-동아시아 M국
- ▶ 송바울/최에스더-동북아시아 C국
- ▶ 이영재/최영미-탄자니아

## 03

### 해외 일만사역자 임명식

오늘(18일) 서빙고 1부 예배(오전 6시50분)에서 해외일만사역자 임명식이 열린다.

- ▶ 최필순(싱가포르)
- ▶ 박희경(싱가포르)

자세한 내용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ionnuri](http://ionnuri) 앱(more⇒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01



기·도·제·목

- 3월 19일(월)  
러브소나타가 성령의 기름 부으  
심어있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 3월 20일(화)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사역을  
준비하도록
- 3월 21일(수)  
러브소나타에서 섬길 통역요  
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 3월 22일(목)  
교회부흥세미나를 통해 다카  
마쓰 지역에 부흥의 역사가 일  
어나도록
- 3월 23일(금)  
프로그램을 맡은 게스트들의 건  
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
- 3월 24일(토)  
러브소나타에 참여할 일본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
- 3월 25일(주일)  
일본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02

남양주

- 선교사를 위한 기도모임  
일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교회
- 한국, 북한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모임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중보기도실

03

온두라스 사진첩 판매

얼바인 온누리교회 단기선교팀이  
중남미 온두라스 정글로 들어가 '미  
스끼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  
활동을 담은 사진첩이 발간됐다.

이번 사진첩은 단기선교팀으로 동  
행한 포토그래퍼 이상호 성도가 활  
영한 사진들을 담았다.



올 여름 우리가 떠날

# 아 · 프 · 리 · 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아프리카 대륙. 메마른 땅 아프리카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블레싱 사하라'가 시작됐다. 이번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는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북서부에 위치한 아프리카로 정해졌다. 아직은 생소한 아프리카, 우리가 떠날 18개 국가를 소개한다.

## 북아프리카

### 1. 웅대한 사랑 '모로코(Morocco)'



수도 : 라바트 (Rabat)  
인구 : 32,777,808명  
주요언어 : 아랍어  
주요종교 : 이슬람 99.8%, 기독교 0.09%, 유대교 0.02%

### 2. 아브라함 언약의 별 '모리타니(Mauritania)'



수도 : 누악쇼트 (Nouakchott)  
인구 : 3,365,675명  
주요언어 : 아랍어  
주요종교 : 이슬람 99.7%, 기독교 0.25%

### 3. Again Exodus '이집트(Egypt)'



수도 : 카이로 (Cairo)  
인구 : 84,474,427명  
주요언어 : 아랍어  
주요종교 : 이슬람 86.7%, 기독교 12.8%, 무교 0.5%

### 4. 북아프리카를 여는 파란문 '튀니지(Tunisia)'



수도 : 튀니스 (Tunis)  
인구 : 10,373,957명  
주요언어 : 아랍어, 프랑스어, 영어  
주요종교 : 이슬람 99.4%, 무교 0.3%, 기독교 0.2%

## 서아프리카

### 5. 아프리카의 황금 아이 '가나(Ghana)'



수도 : 아크라  
인구 : 2338만명  
주요 언어 : 영어, 토착어  
주요 종교 : 개신교 63%, 이슬람교 16%, 토착종교 21%

### 6. 슈퍼마리오가 사랑한 나라 '감비아(The Gambia)'



수도 : 반줄 (Banjul)  
인구 : 1,750,732명  
주요언어 : 영어  
주요종교 : 이슬람 88.5%, 토속종교 5.6%, 기독교 4.5%

### 7. 딸같은 나라 '기니(Guinea)'



수도 : 코나크리 (Conakry)  
인구 : 10,323,755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주요종교 : 이슬람 88.3%, 토속종교 6.9%, 기독교 4.5%

### 8. 숨겨진 큰 나라 '니제르(Niger)'



수도 : 니아메 (Niamey)  
인구 : 15,891,482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하우사어  
주요종교 : 이슬람 97.1%, 토속종교 2.5%, 기독교 0.3%

### 9. 사하라 전설속의 나라 '말리(Mali)'



수도 : 바마코 (Bamako)  
인구 : 13,323,104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주요종교 : 이슬람 87.4%, 토속종교 9.9%, 기독교 2.6%

### 10. 부두교의 발원지 '베냉(Benin)'



수도 : 포르토노보  
인구 : 8,532,540명  
주요 언어 : 프랑스어  
주요 종교 : 토착종교 50%, 그리스도교 30%, 이슬람교 20%

### 11. 오구도구 와가도구 '부르키나파소(Burkina Faso)'



수도 : 와가도구  
인구 : 15,264,735명  
주요 언어 : 프랑스어, 모시어, 둘라어  
주요 종교 : 토착종교 69%, 이슬람교 7%, 천주교 4%

### 12. 춤과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네갈(Senegal)'



수도 : 다카르 (Dakar)  
인구 : 12,860,717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주요종교 : 이슬람 91%, 기독교 6.4%, 토속종교 2.2%

### 13. 생명으로 빛날 '시에라리온(Sierra Leone)'



수도 : 프리타운 (Freetown)  
인구 : 5,835,664명  
주요언어 : 영어  
주요종교 : 이슬람 63%, 토속종교 23.3%, 기독교 13.2%

### 14. 아프리카의 검은 심장 '차드(Chad)'



수도 : 은자메나 (N'djamena)  
인구 : 11,506,130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아랍어  
주요종교 : 이슬람 52.8%, 기독교 38.5%, 토속종교 7.7%

### 15. 카카오와 복음의 향기 가득 '코트디부아르(Cote d'Ivoire)'



수도 : 야무수크로 (Yamoussoukro)  
인구 : 21,570,746명  
주요언어 : 프랑스어  
주요종교 : 이슬람 41.8%, 기독교 33.6%, 토속종교 24.1%

## 기타지역

### 16. 아프리카의 숨겨진 흑진주 '모잠비크(Mozamb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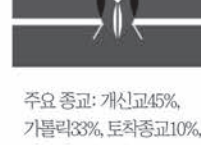
수도 : 마푸토  
인구 : 21,284,700명  
주요 언어 : 포르투갈어, 스와힐리어  
주요 종교 : 가톨릭교 23.8%, 시온주의 그리스도교 (17.5%), 이슬람교 17.8%

### 17. 페트라와 신비 '요르단(Jordan)'



수도 : 암만  
인구 : 6,198,677명  
주요 언어 : 아랍어  
주요 종교 : 수니파 이슬람교 92%, 그리스도교 6%

### 18. 아프리카의 Hub '케냐(Kenya)'



수도 : 나이로비  
인구 : 약 3735만명  
주요 언어 : 영어, 스와힐리어  
주요 종교 : 개신교 45%, 가톨릭 33%, 토착종교 10%, 이슬람교 (10%)

# Africa



# CGN, 개국7주년 특집 다큐

## ‘블레싱 사하라’ 등 풍성한 프로그램 방영

CGNTV가 개국7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블레싱 사하라’를 오는 26일 오후 8시20분에 방영한다.

특집 다큐 블레싱 사하라는 올 여름 온누리교회가 아웃리치를 떠날 서부 아프리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부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의 사헬지대)는 남하하는 이슬람과 북진하는 기독교의 영적 격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장벽으로 인해 선교에 소외된 지역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영어권인 동·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 불어권인 서부 아프리카는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려면 프랑스어, 영어, 종족어까지 배워야하는 부담이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선교사 비자가 발급되고, 선교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무적이다.

이외에도 CGNTV는 개국 7주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성지순례 비전 트립 다큐멘터리 ‘물, 길 그리고 노래’, 이라크에서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 ‘이라크의 크리스천’, 광야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다큐 ‘광야’를 방영한다.

· 편성표 참고 13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도·제·목

- 3월 26일(월)  
다카마쓰 실행위원들이 하나되게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도록
- 3월 27일(화)  
참가자들의 영적 준비와 헌신을 위해
- 3월 28일(수)  
통역팀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카마쓰 사역을 섬기도록
- 3월 29일(목)  
CEO 포럼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 3월 30일(금)  
영상작업(샌드 애니메이션, 주제 영상 등) 시나리오와 제작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 3월 31일(토)  
다카마쓰 문화전도집회를 통해 양국간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선교가 꽃피도록
- 4월 1일(주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도록

01

# 전문인 선교학교 2기 참가자모집

## 전문기술 활용한 선교사 양성

“그곳에서 전문인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OPMS 1기 수료생 이영재 집사. 지난해 1년 과정의 OPMS 훈련을 마친 그는 올해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난다. 기술직에 종사하던 그는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 기술학교와 유치원을 세운다는 계획을 갖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준비했다. 그런데 비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한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탄자니아 연합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며 전문인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OPMS(Onnuri Professional Mission School, 은누리전문인 선교학교) 1기 수료자 56명 중 7명은 사우디아라비아, 피지 등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전문인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전문기술을 활용하면 서 선교를 하는 OPMS에서 2기 참가

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문인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나 해외 자비량 선교를 준비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모집은 4월 1일까지.

OPMS 훈련은 1년 2학기제로 4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홈페이지(www.opms.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지원서와 사진을 본부로 발송하면 된다.

### <1기 OPMS 수료 및 파송상황>

고경일, 권순호, 김병식, 소광숙, 김승민, 오황선, 김영미, 김영환, 김창성, 박형일, 배윤호, 박정자, 윤지준, 김광연, 엄현정, 유광중, 이명옥, 한성희, 김은정, 최영재, 김정화, 조대규, 윤석왕, 이정미, 정예선, 이혜민, 이한기, 한정우, 최은주, 박대호, 정성희, 정대서, 박형진, 홍범식, 이영재, 최영미, 정영열, 홍덕표, 이남수, 김태완, 문영기, 송순동, 배윤수, 박창복, 송정관, 윤수연, 김종익, 김진화, 이정우, 조은덕, 임현주, 오정민, 정준용, 류완철, 박호재, 김재영

03

## 스타트리, 영어전문학원으로 재탄생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영어전문 교육프로그램 ‘스타트리’가 지난 16일(금) 안산에서 개강했다.

기초에 영어, 수학, 미술 등 여러 분야를 교육하던 스타트리는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만을 실시하는 전문 학원으로 개편했다. 이는 타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무상 공부방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 교과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스타트리 교육과정에서는 학문증진은 물론

영어 성경을 통해 신앙교육도 병행한다. 스타트리에는 15명의 학생이 등록했고, 8명의 교사가 자원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지원 봉사자는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문의: 이경희 전도사  
010-3016-9787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남아시아 선교사 전략회의

### TIM주관, 비전공유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주관하는 남아시아 전략회의가 중국 모처에서 지난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진행되었다. 네팔,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10개국에서 모인 36명의 장기 선교사 및 자녀들이 참여한 전략회의는 매일 아침 경건회를 시작으로 일대일 세미나, 사역별 발표, 지역별 특강, 저녁집회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빽빽한 일정과 고산지역으로 인해 참가자들의 육신이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의 사역을 나누고 함께

교제함으로써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었다.

담임목사 부임 후 첫 선교 전략회의에 참석한 TIM의 대표인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사들과 교제하며 사역을 보고 받았으며, 15일(목) 저녁성령집회를 통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막2:18-22)’라는 주제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전했다. 특히, 이번 전략회의에는 당회운영위원을 포함한 여섯 명의 장로들이 동참해 전체 일정을 함께하며 선교의 지평을 열었으며,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 조은실 기자

## “사역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

선교사: 소아시아 A국  
언어: 쿠르드어, 아랍어  
기후: 지중해성기후, 흑해성기후  
종교: 이슬람교 99.8%

A국에 온 지도 벌써 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은 가난하고 직업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최근 큰 감사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로 세운 젊은이를 보내 달라고 기도했는데 대학을 갓 졸업한 26세의 새신앙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다니는 직장인 집에서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고 주일에도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어 사역에 매진하기가 힘들다. 이 형제가 교회 리더의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80평생 무슬림 할머니 예수님 영접하다  
두 번째 감사제목은 한 성도의 어머니가 오랜 주저함에서 벗어나 예수님

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심방을 가서 복음을 나누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렸는데 드디어 믿기로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83세의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교회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교인들과 함께 집을 방문해 예배드리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팔십 평생을 무슬림으로서 살아왔기에 회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곳의 성도들 중 몇 명은 일대일 성경공부와 주중 기도모임을 꾸준히 하다가도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굳건히 세우는 일도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기도와 성경읽기가 계속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소아시아 A국에서 이영광, 이찬양 선교사

## “척박한 이땅에 은혜 부어주소서”



선교사: 태국  
언어: 타이어  
기후: 열대몬순기후  
종교: 불교 94.6%, 이슬람교 4.6%

태국에 온지 2년이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사로 이곳에 왔지만 이 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서 올해 9월에 ‘은누리장기선교훈련’을 받기 위해 한국에 갑니다.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때가 더 많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는 도심의 센트럴 백화점 1층 무대에서 캐롤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 기다림의 훈련

이곳에서 가장 많이 훈련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느리고 게으르기도 하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저도 쉽게 지치고 피곤함을 느

낫습니다. 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 혹은 한 달을 남겨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상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판단하는 마음과 싸웁니다. 제 방식과 경험을 버리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귀한 형제 ‘빛’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빛’이라는 학생을 캠프 때 만났습니다. 스스로 성경책을 사와 재미있다고 성경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빛은 하나님이 시편 23장 2절을 읽게 하시더니 그를 호숫가와 풀밭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빛이 사진을 찍어 와서 보여주었는데 정말 푸른 초장과 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훗날 꼭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귀한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태국에서 임윤희 선교사

04 | 05

2012년 3월 25일 893호

• 01- 전문인 선교학교(OPMS) 2기 참가자 모집 & OPMS 1기 수료 및 파송상황(6면), • 0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남아시아 선교사 전략회의(6면)  
• 03- 다문화가정 위한 교육프로그램 (스타트리)영어전문학원으로 개편 개강(6면), • 04-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이영광-이찬양 선교사(소아시아 A국)(6면), • 05- 선교지에서 온 편지: 양윤희 선교사(태국)(6면)





## 친구도 만나고, 하나님도 만났어요

### 오늘 캄보디아어예배서 4명 세례 받아

2011년 캄보디아어 예배가 독립되고 처음 교회에 나온 녀 소완(Nhoem Sovann) 성도. 처음에 그는 동족들과 만날 수 있고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가에 안산 M센터를 찾았다. 타국에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포천에서 안산까지 4시간이나 걸

리는 거리를 오게 만드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몰랐고 예배도 재미있지 않았다. 그저 친구들이 좋았고,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즐거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지고 계셨다.

그는 2011년 추석연합수련회에서 수많은 죄를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

렸다. 그 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때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는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와 인터넷전화로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낙이 되었다. 드디어 천국 백성이 된 그가 세례를 받는다.

/ 조은실 기자 jes@onnuri.org



## 간 증

## 아내와 딸 데리고 교회에 갈 거예요

저는 캄보디아의 따께오하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2004년에 결혼해서 8살 난 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2006년 8월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알하게 된 곳은 어린이 책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나쁜 공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



다. 동료들은 날마다 술을 마시고 서로 싸워서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교회에 가보자고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돈을 더 벌기 위해 포천에 있는 고무공장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주·야간 일을 해야 했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산에 캄보디아어 예배가 생겼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보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러 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 추석 연합수련회가 저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에서 그동안 제가 지은 수많은 죄들이 생각났고, 그 죄들을 후회하며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는 의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안산 M센터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놓치고 화가 났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저는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와 지하철이 시간에 맞게 오게해주세요”

기도 후에 버스와 지하철이 제 시간에 맞게 와서 친구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안산 M센터에서 캄보디아 요리를 해서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아주 추운날에도 M센터 가는 날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지낼 수 있고, 기타와 한국어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캄보디아에 있는 아내와 통화하면서 같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면 아내와 딸을 데리고 교회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 념 소완(Nhoem Sovann)

### \*캄보디아어 예배에서는……

열방다민족예배(ANEWS)에서 캄보디아어 예배로 독립했다. 주일 오전 11시 안산 M센터 4층 러브홀에서 드리는 예배에는 캄보디아인 30명, 한국인 봉사자 10명이 참석한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캄보디아인 15명이 세례를 받았다. 한글교실과 기타강습도 열린다.

# Freedom and Honor Conference

In Korea and beyond, there are millions to whom freedom and honor are daily denied but as Jesus commands, OEM desires to champion the cause of these disenfranchised ones, those whose voices cannot be heard: the unborn, the poor, the elderly, single mothers and orphans, refugees and prisoners, and also the victims of trafficking in the modern global slave trade. On February 10 and 11, in conjunction with Hope Be Restored and Not for Sale Korea, OEM held its most recent Freedom and Honor Conference with guest speakers Tara Teng (former Miss Canada and a slavery abolitionist) and David Batstone (Co-founder of the Not for Sale organization and author of the book Not for Sale).

Tara raised awareness of the plight of the victims of the global slave trade and encouraged the audience to come to terms with its reality and join the fight for its destruction. David Batstone expanded on the issue and taught practical steps on how people might make a difference. Of these, the "free2work" application was explained a power-



FreeConf.fri: Tara Teng speaking on Friday night of the Freedom and Honor Conference.  
FreeConf.sat: David Batstone speaking on Saturday night of the Conference.

ful tool to force companies to behave ethically. For more about the application, see [www.free2work.org](http://www.free2work.org). David Batstone believes that Korea and China can influence the world both for good and evil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a similar way to the UK in the nineteenth and the US in the twentieth century and that the Church should lead in the fight

against slavery: "If the world accepts slavery as normal, then we should want to be crazy" he declared. At the conference, Tara recalled Jesus' first words in public, when He opened the scroll of Isaiah and revealed His purpose the fulfillment of Scripture in His person. On the need for freedom and honor, our God is unambiguous: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oclaim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and recovering of sight to the blind, to set at liberty those who ar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 Luke 4:18-19  
/Mike Long



01

# Intro to IJM Night

OEM will be hosting an "Intro to IJM" night on Wednesday, March 28 at the Dogok campus in Joy Hall (3rd floor of Building A) at 7:30 p.m. The vi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IJM) is "to rescue thousands, protect millions and prove that justice for the poor is possible." IJM is an amazing ministry and a leading force in the fight to end human trafficking around the world. Some of the leaders from IJM will be visiting Korea to prayerfully consider possible work and partnerships in Korea. Please join us in supporting this organization that is truly setting captives free. For more information on IJM please visit <http://www.ijm.org>.

02

##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블레싱 사하라  
- 3월 26일(월) 오후 8시20분  
영적으로 메마른 땅 서아프리카의 세네갈과 말리에 서 전하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입니다.

03

##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라크의 크리스천  
- 3월 28일(수) 오후 11시20분  
이라크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소수 크리스천들의 삶이야기입니다.

# 다카마쓰, 부흥은 이미 시작

## 러브소나타 위한 총괄기대회

지난 3월 18일(주일), 다카마쓰 현지에서 러브소나타를 위한 '총괄기대회'가 열렸다. 궐기대회가 열린 다카마쓰 크리스천처치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인 148명이 참석해 성공적인 러브소나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한국에서는 이정호 목사(러브소나타 본부)가 참석해 설교했다.

궐기대회에 참가한 카토 목사(다카마쓰 시온교회)는 “니느웨가 원수인 요나를 사용한 것처럼 나 또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러브소나타에 초대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했고, 모리 미에코 성도(다카마쓰 시온교회)는 “이정호 목사의 메시지에서 니느웨가

일본인이고, 요나가 한국인이라는 예시에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러브소나타를 행사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러브소나타에 협력한 일본의 현지교회는 시코쿠 지역, 오카야마 지역, 야마구치현, 나가사키 등을 포함해 총 57개 교회다. 현지 실행위원회는 매주 구역별로 기도모임을 진행하며 러브소나타를 위한 준비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다카마쓰 러브소나타의 돕는 손길, 봉사자들을 위한 '참가자 교육'이 오는 12일(서빙고 두란노홀)과 19일(양재 화평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참가자 교육은 교육을 포함한 중보기도의 날로, 봉사팀 일정 안내, 팀별 및 조별 모임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4월 2일(월)  
일본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도록
- 4월 3일(화)  
모든 참가자들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 4월 4일(수)  
모든 스태프들이 집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 4월 5일(목)  
가스펠나이트가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 4월 6일(금)  
CGNTV의 섬김과 작업 일정, 작업 간에 안전을 위하여
- 4월 7일(토)  
일본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 4월 8일(주일)  
다카마쓰 집회를 통해 한일 양국 안에 화합과 부흥이 있도록



# NGO ‘더 멋진 세상’,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정의, 화해를 구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인가를 받아 출범한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국내외에서 아동보호, 긴급구호, 지역개발, 의료/교육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더 멋진 세상’에 이재훈 담임목사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더 멋진 세상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 좋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

-먼저 NGO ‘더 멋진 세상’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NGO의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은 어떤 세상이 ‘더 멋진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더 멋진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는 다른 것이 소중한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권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가는 사회라면, 더 멋진 세상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서번트(servant) 리더십 사회입니다. 세상이 많이 가진 사람들과 적게 가진 사람들이 갈등하는 구조라면, 더 멋진 세상은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갈등과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 화합의 구조입니다. 세상은 경제논리에 의해 움직이지만, 더 멋진 세상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나눔과 섬김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산상수훈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 나눔을 실시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더 멋진 세상입니다. 이러한 더 멋진 세상을 보고 하나님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 나눔, 청지기 의식으로 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눔, ‘더 멋진 세상’이 꿈꾸는 나눔은 어떤 것이지요?

“나눔에 대한 성경적인 철학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세상적인 나눔이라면 성경적 나눔은 본래부터 내 것은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교와 나눔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 ‘더 멋진 세상’ ...故하용조 목사의 간절 한 소망

-NGO ‘더 멋진 세상’이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요?

“Acts29 비전은 사회참여(LAMP ON 활동

등), CGN TV, 온누리 비전교회, Acts29 비전블리자이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 사회도행선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긴급구호, 지역개발, 사회참여를 통해 Acts29 비전을 실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故하용조 목사님은 창립 25주년이던 2010년에 온누리교회가 받은 축복을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해 9월에는 40일 동안 나눔 캠페인이 실시되었고, 10월에는 온누리 리더십축제가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창립기념주일인 10월 10일에 삼암월드컵경기장에서 드린 기념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들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희망을 부여하자. 천국이 있음을 선포하자. 온누리교회가 앞장서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자’던 하 목사님의 메시지가 원동력이 되어 NGO ‘더 멋진 세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파키스탄 사바즈 바티 장관의 순교

-2010년,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파키스탄과 온누리교회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 사바즈 바티 파키스탄 소수민족부 장관의 온누리 방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와 파키스탄의 하 사바즈 바티 소수민족부 장관이 처음 만난 것은 그가 하 목사님의 초청으로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명예리더십 박사학위를 수여받으러 왔을 때였습니다. 사바즈 바티 장관은 온누리교회 창립25주년 기념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온누리교회와 당시 최악의 흉수로 신음하고 있던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수해복구기금 1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사바즈 장관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행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파키스탄에서 크리스천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성모독법 폐지 및 소수민족과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러다 지난해 3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암살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하 목사님은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테러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언제 죽을지 몰라 결혼도 하지 않았을 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이다. 그



이재훈 회장

의 죽음은 순교이다’라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음까지 뛰어 넘은 그의 순교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 파키스탄 예수마을에 세워지는 센터

-그의 순교가 만들어 낸 기적이 그의 고향인 후시푸르 마을에 세워지고 있는 ‘사바즈 바티 비저너리 센터’인 것 같습니다. 오는 5월에 문을 열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 사바즈 바티 장관의 고향에 살고 있는 8천여 명의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바즈 바티 비저너리 센터는 그들의 자활과 그들이 건강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에서는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협의해서 후시푸르 마을의 리더십 2-3명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배우게 할 것입니다. 한국을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을 그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의해서 마을청년 2-3명을 한국으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그 청년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장

기간에 걸쳐 교육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전문인/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여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전문인으로 활동하며,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기독교 NGO의 새로운 사역 모형이 마련되리라 기대합니다.”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더 멋진 세상’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소개해 주십시오

“NGO ‘더 멋진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의 지평을 넓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도가 선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NGO를 활용한 사회참여, 지역개발, 재난구호가 선교의 주요 방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에는 NGO 활동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기에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슬람권을 비롯한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전문인선교이고 또 다른 하나는 NGO사역입니다. 전문인 선교와 NGO활동이 마지막 세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이 바로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 새롭게 출범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온누리에게는 전 세계가 공동체이며 우리의 '순'



장선철 편집국장

**정부와 다른 NGO와 적극적으로 협력**

-이미 활동 중인 NGO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협력해 나갈 건지요?

“NGO ‘더 멋진 세상’은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KOICA 등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위해 실사를 받았습니다. 승인이 되면 정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개발사업과 북한지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니세프와 WHO의 자료에 의하면 아프리카 최빈국의 어린이 약 25%가 기생충에 의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캠페인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월드비전이 배고픈 아이들을 구호하고 있듯이 ‘더 멋진 세상’은 사랑, 섬김,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를

“Acts29 비전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세상에 섰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재난, 기근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레아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대형교회가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누리’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온누리라는 이름에는 온누리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누리를 섬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이름처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난, 사고, 기아 등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전 세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공동체요, 순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가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성도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02

“온누리’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온누리교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누리를 섬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우리에게는 전 세계가 공동체요, 순입니다.”

B/W 사무실 :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69-167  
신동아 쇼핑센터 204호  
전 화 : 02-3215-3791, 3792  
www.abetterworld.or.kr



**일본 쓰나미 긴급구호 사업**

기간: 2011.3.11-5.1 / 사업내용: 쓰나미 지역 긴급구호팀 파견(3차, 38명)

- 1차 봉사팀(4.8~15일, 14명) 이와테현 가마이시 지역 - 침수건물 보수, 현지교회 복구
  - 2차 봉사팀(4.18~24일, 10명) 이와테현 오후나토 지역 - 교회 복구 및 대피소 사업
  - 3차 봉사팀(4.25~5.1) 이와테현 오후나토 지역 - 교회 복구 및 대피소 사업
- 생활필수품 지원(일본 야기베 CGN NGO 협력) / 4.7일 5컨테이너 발송 / 지원예산: 2억 7천 1백만 원.

**터키 지진피해 지역(VAN)구호 사업**

지역: 터키 동부 VAN 주 동쪽 19km / 기간: 2011.12.5-16(12명)  
사업내용: 개량형 천막 50동 설치, 전기난로, 식료품 지원 / 지원예산: 40,000\$

**태국 홍수피해 지원**

지역: 나뭇바롬 벨랑족 / 기간: 2012.2-3월  
사업내용: 벨랑족 162가구 정수시설, 침구류, 긴급의료용품, 쌀, 방역 용품 지원 / 지원예산: 1천 9백만 원.

**더 멋진 계획**

일시	국가/지역	내 용	후원계좌
2012.4	일본 이와테현	쓰나미 피해지역 후속 지원사업	예금주 : (사)더 멋진 세상 하니은행 573-910009-09905 문약: 02)3215-3791 www.abetterworld.or.kr
2012.5	파키스탄 후시푸르마을	지역개발 사업(우물/하수도공사)	
2012.5	국내외	파키스탄 후시푸르 마을 리더십 초청 세미나/운동사업 파키스탄 후시푸르 행년 초청 장기교육 사업, 선교사 훈련 베트남 시가리아동 초청 개안 수술사업	
2012.8	서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2012년 4월 1일 894호

- 01-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1-2(9면)
- 02- NGO ‘더 멋진 세상’ 긴급구호사업 계획 안내(9면)

故 하용조 목사 성묘



## “그 길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건강관리는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故 하용조 목사. 육신의 생명보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 더 소중하다고 고백하던 지도자를 기억하기 위해 온누리 400여 장로와 권사, 교역자들이故 하용조 목사의 묘소를 찾았다. 이날 리더십들은 하 목사가 생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순종한 그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재훈 목사와 함께 '비전 나눔'

## 감동을 주는 교회로 도약 Acts29비전 함께 이룰 'AMA'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누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온누리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상한 것이 'Acts29 Mission Alliance(이하 AMA)'라는 기구입니다. 교단이나 온누리교회의 내부 기관이 아니라 Acts29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는 협의체입니다.

AMA의 비전은 Acts29비전 성취를 위한 사도행전적인 교회개척 운동입니다. 이것은 캠퍼스나 비전교회가 아닌 독립적인 교회개척운동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교회가 개척되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교회입니다. 목표는 100개의 AMA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들과 협력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Multi-Site 철학과 Matrix system은 계속 유지됩니다. 선교

적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는 초교파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AMA교회의 구성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온누리교회의 지원을 통해 개척되는 독립교회이고, 둘째는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에 의해 개척되는 선교지 교회입니다. 셋째는 캠퍼스 및 비전교회 중에 전략적 필요에 따라 분리해서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단 온누리교회가 아닌 타 교회에서 AMA에 가입을 원할 때에는 편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와 DNA가 다를 경우 목회 철학의 충돌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방법은 인사와 재정은 독립적이지만 협약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유지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공유해야 할 내용은 방송선교, 문서선교, 선교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개척되는 교회의 경상비 5%와 CGNTV 후원을 조건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것입니다. AMA 사역을 통해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감동을 줄 것입니다.

/ 정리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1

#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

12, 19일 서빙고 · 양재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이 오는 4월 12일(목)과 19일(목) 두 차례에 걸쳐 서빙고 두란노홀과 양재 화평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각각 개최된다.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교육은

일정안내, 팀별모임, 중보기도, 핸드북 배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한다.

/ 정지은 기자

02

# 산타모니카, 뉴저지, 교토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 승인

산타모니카(구 웨스트LA), 뉴저지, 교토 온누리교회가 해외비전교회로 승인되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2007년 11월 도육환 목사가 개척해 웨스트 LA로 시작되었으며, 뉴저지 온누리

교회는 2005년 11월 마크최 목사가 개척했다. 교토 온누리교회는 2010년 11월 야마나가 목사가 개척했다. 이로써 온누리 해외비전교회는 27개에서 30개로 늘어났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3

## 평택

..... > 인터뷰 <

###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역자를 위해”

이번 고난주간 동안 몽골어 예배팀에서는 지체들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몽골인 친구 두 명이 많이 아픕니다.

몽골에 있는 가족들 중에도 아픈 사람이 많아 몽골인 지체들이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 몽골에 계신 아버지가 압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 아지트 전도사(평택 몽골어예배)

04



## 기 · 도 · 제 · 목

- 4월 9일(월) 집회에 일본 현지인들이치고남치도록
- 4월 10일(화) 4월 12일 진행될 참가자 교육을 위하여
- 4월 11일(수) 현지에 중보기도팀이 많이 오기를
- 4월 12일(목) 교회부흥세미나가 복된 시간이 되도록
- 4월 13일(금) 섭외된 게스트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 4월 14일(토) 집회 기간 동안 모든 환경이 뒷받침되도록
- 4월 15일(주일) 일본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01

### 선교사 파송

▶장갈렙/홍사라-동아시아 C국

1. 영혼들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묵상과 기도로 충만하기를
2. 언어훈련에 지혜를 주시고 현지 적응 잘하도록

▶김스데반-중동 Y국

1.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길
2. Y국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02

## 온누리미션 열방연합예배

온누리미션이 주관하는 열방연합예배가 다음 주일(22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 관산중학교에서 열린다. 이번 열방연합예배에서는 내적 치유 전문 사역자인 크리스 해리슨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예배 후에는 선교지 교회 개척·건축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이 열린다. 바자회에 필요한 의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기증받고 있다.

· 문의: 장미숙 간사 010-4732-4371

/ 조은실 기자

03

### Love Sonata 기·도·제·목

■ 4월 16일(월)

집회를 통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 4월 17일(화)

봉사자들이 주 안에서 한마음으로 집회를 섬길 수 있도록

■ 4월 18일(수)

집회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 4월 19일(목)

말씀을 선포하실 이재훈 목사님을 위해

■ 4월 20일(금)

세미나 강사로 섬기는 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 4월 21일(토)

순서를 맡은 출연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 4월 22일(주일)

일본 땅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04



## 아리문츠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지난 5일(목) 서빙고 순형홀에서 아리문츠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이병현 선교사 대표기도, 아리문츠 선교사 추모영상 상영,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아리문츠 선교사는 디모테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었다”며 아리문츠 선교사의 삶을 되새겼다.

/ 조은실 기자

# 선교사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내주세요!

## 1 선물 준비

###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아래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씁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할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 5)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교사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치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4월 중으로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4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가져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 메일 발송)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쿠키 책, 게임 SW,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
- ③ 참고 인터넷 쇼핑몰 <http://mall.durannor.com>(두란노몰)

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한두교권 - 인도, 네팔 등 (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 (예수전도단의 경우 예수전도단에 현지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함.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목사님 → 사장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기독교어(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가급적 피할 것.

###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 - 중국  
모슬렘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우즈베키스탄, 키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

##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 : 김민규 간사  
02-3215-3208, 2000mandu@gmail.com

## 4 우편요금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b>■서빙고 캠퍼스</b>																				
<b>● 김촌공동체</b>																				
주승결/주누가	미국	예수전도단	김재인, 여, 20070805	김다인, 여, 20091024		김창오/정문오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다인, 남, 20090331											
김창오/손은오	미국	WEC 선교회	임은혜, 여, 20100313			<b>● 서빙고공동체</b>														
김갑열/자현나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신, 남, 20011107	김의, 남, 20020418	김인, 여, 20031101	최선아/이름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신, 남, 20040305	최솔, 여, 20051028	최강, 남, 20060405									
<b>● 용산공동체</b>																				
권보/오성령	미국	GO	권성연, 여, 19940110	권인애, 여, 19950530	권경연, 남, 19970410	<b>● 영등포구로공동체</b>														
김루이스/김현나	미국	BEE KOREA	김예지, 여, 20070206	김예성, 남, 20100303		이영생/박은혜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경애, 남, 19970120											
김스태브/정린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하일, 남, 19981219	김하성, 남, 20040207		구리원스틴/김마리아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구유진, 여, 20051113	구본훈, 남, 20070411	구해진, 여, 20090224									
서관영/김경오	베트남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준하, 남, 20020316	서승하, 남, 20040417	서은하, 여, 20070224	<b>● 영등포구로공동체</b>														
류다윗/송안나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류시연, 여, 20051102	류가연, 여, 20080302		노여홍수아/정마리아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노하린, 여, 20011123	노하민, 남, 20031212	노하연, 여, 20110420									
최요셉/최현나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사프란, 여, 20081104	최사본, 여, 20081104		<b>● 양천공동체</b>														
<b>● 한강공동체</b>																				
윤정오/정홍오	미국	코너스톤	윤신유, 여, 20000313	정길원, 남, 20020515		이도오/오은오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성, 남, 20011226	이분, 여, 20050101	이빛, 남, 20070820									
강현오/김경오	중동	WEC선교회	강진위, 남, 20050528	강예스타, 여, 20080101		김영림/정세희	미국	중동 선교회	정지연, 여, 20040816	전소연, 여, 20061112										
<b>● 관악금천공동체</b>																				
김보아스/최그레이스	미국	BEE KOREA	김지유, 여, 19940729	김다린, 여, 19970410		최바울/김현나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예찬, 남, 19940525	최예향, 여, 19960301	최예경, 여, 19980322									
<b>● 동작공동체</b>																				
박사무엘/이오	미국	GP 선교회	박준용, 남, 19950802	박주영, 여, 20010511		아글라/브리스가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전유민, 여, 20000913	전유진, 여, 20090106										
김반석/성생물	미국	WEC 선교회	김윤서, 남, 20010227	김사진, 여, 20050502		토마스/타나	미국	무소속	<b>● 영등포구로공동체</b>											
양타원/김나복	미국	FMnC선교회	양다원, 여, 20060626	양우림, 남, 20110111		이영생/박은혜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경애, 남, 19970120											
<b>● 김포 공동체</b>																				
김경오/이지오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보라, 여, 20070605	김소라, 여, 20100303	김길, 남, 20120226	김재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b>● 마포 공동체</b>											
토마스/세라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정재오/정봉오	동남아	GP선교회	정세람, 남, 20030728	정세희, 여, 20080430	정영광, 남, 20101125									
<b>● 서대문공동체</b>																				
고진우/예현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진우, 남, 20010217			서광/양혜원	한국	인터랩선교회	서유진, 남, 19980922											
김복음/김지우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115	김이삭, 남, 20050528		Rachel/아이린 카바오	필리핀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수아, 남, 20030912	니코, 남, 19981222										
송바울/양세비아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하은, 여, 20021222	송시은, 여, 20040226	송재은, 여, 20070807	<b>● 서대문공동체</b>														
<b>● 여의도공동체</b>																				
박일오/신인오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영, 여, 19940515			고진우/예현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115	김이삭, 남, 20050528	송바울/양세비아									
이시랑/김평화	미국	예수전도단	이석은, 남, 19971123			김스태브/조희	한국	Inter-CP	김하린, 여, 19980815	김하연, 여, 20021212	김하경, 여, 20041023									
김스태브/조희	한국	Inter-CP	이재준, 남, 20060610			이생림/이생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재준, 남, 20060610											
<b>● 일산공동체</b>																				
김바나바/김드보라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806			이예복/syستا Lee	세네갈	GMP	이예림, 여, 19960602	이예향, 여, 19980807										
송바울/소현나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송민준, 남, 19940525	송보은, 남, 19960222		다니엘/예레미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문예스타, 여, 20020812	문예스타, 여, 20051113										
<b>● 동대문중앙공동체</b>																				
최관영/윤예지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경란, 남, 19960821	최요한, 남, 19990720	최세라, 여, 20040319	제프/프조	미국	IMB	저스틴 윌리고라, 남, 1996	카시이 윌리고라, 여, 1998	에릭 윌리고라, 남, 2003									
고엘리사/하에스타	미국	Inter-CP	고성주, 남, 19950921			<b>● 북대문공동체</b>														
탁광복/준기름	미국	HOPE선교회	탁예경, 여, 19981015	탁은찬, 남, 20000223		정은유/최열매	미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정하은, 남, 19960716	정하연, 여, 19980311										

2012년 4월 15일 896호

·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10번)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단체	주 소	연락처	
김미가/송두리 김환희, 여, 19650624	한국	GO	주누기/최희선 주주영, 남, 1971229	한국	GO	이철오/원은오 이선용, 남, 19690222	M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부천 캠퍼스	●	선교단체 주소록
●	노환공동체		박민음/함은애 박소연, 여, 19661108	V시	HOPE 선교회	김도수/아말리아 김예영, 여, 2010510	가을연, 남, 20020228	김세영, 남, 20060612	TM(두란노 해외선교회)	040-2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66 두란노빌딩 202	02-794-1063	
이훈/오지영 이아연, 여, 20030314	필리핀	GMP	기드온/에스터 박세희, 여, 20060426	B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반석 사라, 여, 20040601	사무엘, 남, 20061011	두란노 해외선교회	경배와 찬양	040-2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기산빌딩	02-796-9700	
조경오/브린오 조플린, 남, 20060423	네팔	두란노 해외선교회	●	서초B공동체		양아브라함/센시라 양정주, 여, 19660502	양한결, 남, 19971205	양한빛, 남, 20070922	바울 선교회	061-82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동 1566-6 마태빌딩 2층	063-254-8418	
●	성동광진공동체		Joseph/주행란 박신심, 여, 19940613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요한/조은오 오이시, 남, 20001229	오요셀, 남, 20011029	두란노 해외선교회	발리온 선교회	051-8530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원동 86-10번지 2F	02-879-1191	
김일오/명유오 김규, 남, 20040407	네팔	예수전도단	심다윗/김미소 심하린, 남, 20060110	D시	FMnC 선교회	●	수원 캠퍼스		알타이 선교회	033-60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우체국 사서함 4820	02-553-3606	
요한/오재넷 사라, 여, 20000514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현오/우종오 김하람, 남, 20030705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대전 캠퍼스		중동 선교회	038-102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6-3 한일빌딩 4층 401호	02-3436-3307, 070-8250-3342	
●	성북공동체		●	서초C공동체		허드슨/앤마리 허진희, 남, 19970218	T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창조과학회	038-22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02-419-6656	
김자이닐/피아향 김주영, 여, 19980323	S국	예수전도단	김나무/서별 김주원, 남, 20070420	I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기범/문하나 이윤석, 남, 20090309	이윤아, 여, 20090731	두란노 해외선교회	BEE KOREA	040-24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7-4번지	02-822-9480	
최말영/이명강 최예미, 여, 20000516	Y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오/김승오 이하나, 여, 20050701	R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바울/김연오 김현서, 남, 19971031	김현서, 여, 20010222	두란노 해외선교회	Come Mission (한국침선교회)	000-000 서울시 동작구 사동5동 213-27 3층	070-8250-3866	
전생명/구원혜 전영광, 여, 19651004	E국	FMnC	차요셉/서라헬 차근민, 남, 20030911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은샘 서정파, 남, 19980501	D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Cornerstone 모퉁이들	035-6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우체국 사서함 682	135-600	02-796-9846
●	종로로공동체		바사르 살만, 남, 20090627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대전 캠퍼스		Destination	kdestination@hanmail.com (#0232364028)		
Cho○○ Reuben Om Ngai, 남, 20020910	A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바·바/조세민 강산길, 남, 19981104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남양주 캠퍼스		FMnC 선교회	056-85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동 686-2 3층	02-848-6251, 070-7500-6241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박사람/김은혜 박지혜, 딸, 19990420	말레이시아	BEE KOREA	●	대전 캠퍼스		GBT 선교회	056-09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02-586-5324	
바·바/렘시바 이희창, 남, 20040320	A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송파공동체		조영오/박은오 조진현, 여, 19650400	조영현, 남, 19661115	조영현, 남, 19960604	GMF 선교회	058-803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103	02-2633-4270-1	
김별/백합화 김유미, 여, 20060421	C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강남A공동체		John/Esther 김은애, 여, 20030219	C시	경배와 찬양	GMP 개척 선교회	020-823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8-15 연희로빌딩 119	02-3377-191	
●	강남B공동체		신원오/오수오 신영호, 남, 20010501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	남양주 캠퍼스		GMTc 선교회	058-0520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231-188	02-2649-3197, 070-4066-0114	
●	강남C공동체		정재오/홍정오 정예연, 남, 19960529	한국	GBT	●	대전 캠퍼스		GO 선교회	037-07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4-1번지 아이아빌딩 2층	02-400-9182	
이뫼트/앤라 이하준, 남, 20010106	E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분당A공동체		김엘리사/최마리아 김혜원, 여, 20010508	김혜원, 남, 20040517	김혜윤, 여, 20051206	GP 선교회	038-2010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1동 77-3 3층	02-443-0883	
서요셉/영모즈 서희원, 여, 20060802	Y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현오/홍성오 김도연, 여, 19651204	T국	WEC 선교회	●	남양주 캠퍼스		GPTI 선교회	0305-3400 대전 유성구 도룡동 307-28번지 4층	042-862-4800-1	
이찬오/송이오 이윤아, 여, 20111208	R국	InterServe	●	분당B공동체		김영은 요셉, 남, 20040910	일본	두란노 해외선교회	HOPE 선교회	035-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	강남B공동체		●	분당B공동체		김홍오/정일오 김지수, 여, 19960417	F국	기성(OMC)	Inter-Coop	040-60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	강남C공동체		김순중/선사람 김미래, 여, 20040707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인천 캠퍼스		InterServe 선교회	053-80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27-32 대평테크노파크 12차 1108호	070-7013-0066	
이뫼트/김향한 표하영, 여, 19970216	I국	Inter-CP	●	신분인산공동체		●	인천 캠퍼스		ITM 선교회	058-0740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61-122 2층	02-2636-1451	
표현, 남, 20030806			●	양재평촌공동체		●	평택 캠퍼스		KIBI	040-24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평빌딩 1층	02-792-7075-6	
고종오/백미오 고예향, 여, 19941004	대만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OM 선교회	063-01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5 한일빌딩 5층	031-713-5715	
아이작/사만다 박시아, 여, 20060326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OMF 선교회	037-82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93-32 호안빌딩 2층	02-465-0051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UPMA 선교회	053-803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5-132 4층	030-5315-1983	
아들라/브리스가 윤은서, 여, 20100819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WEC 선교회	037-1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승안빌딩 4층	02-529-4552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YWAM	051-85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동 241-34 5층 / 문의가능 /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1	
아들라/브리스길라 선주연, 여, 20010226	C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박주만 박유원, 남, 20000101	한국	Inter-CP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강충만/김신실 강인경, 여, 20050903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이빛/윤다연 전유원, 남, 20111009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위진오/홍성오 홍신의, 남, 20040307	H국	예수제자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아브라함 서별안, 남, 20020605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스테판/에스터 카는, 여, 20020906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	서초A공동체		●	양재공동체		●	강동 캠퍼스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도제목

- 타문화권에서 선교사 자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작은 선교사가 되도록.
- 잦은 이동으로 많은 이별을 하는 선교사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 언어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임하도록.
- 선교사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선생님을 만나도록.
- 선교지의 풍토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선교사 자녀들이 건강하도록.

2012년 4월 15일 896호

·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11번)

01

# 오래 기다렸다 '다카마쓰'

일 년 만에 울려 퍼지는 사랑노래  
25~26일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막 올라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일 년 연기되었던 러브소나타 다카마쓰가 오는 25~26일 드디어 막이 오른다. 간절하게 일 년을 기다린 만큼 이번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러브소나타 다카마쓰를 섬길 150여 명의 봉사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참가자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을 위해 뜨겁게 중보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다카마쓰 현지는 부흥 예감에 흠뻑 젖어있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일본인 신청자가 2800여 명이 넘었고, 협력교회도 65개나 된다.

현지인들은 예수님을 소개해 준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감사편지와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요네타니 목사는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다마모 공원을 투어할 수 있도록 자비로 입장권을 구입해 선물하기로 했다고 한다.

러브소나타 다카마쓰는 25일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26일에는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일정으로 진행된다.

일 년을 기다린 러브소나타 다카마쓰를 위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

/ 정지은 기자 jje@onnuri.org

**Love Sonata**  
영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김종과 말씀이 있는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TAKAMATSU**

**2012. 4. 26(목) 7pm**  
알파아나부키홀 대홀

※4/25(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다카마쓰

**주강사 MAIN SPEAKER**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문의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 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주최 |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실행위원회 Onnuri | 협찬 | CGN TV buranno

02



## 기·도·제·목

- 4월 23일(월)  
스태프들이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 4월 24일(화)  
은혜 가운데 집회가 준비되도록
- 4월 25일(수)  
모든 프로그램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 4월 26일(목)  
러브소나타 집회가 은혜의 잔치가 되도록
- 4월 27일(금)  
스태프들이안전하게 돌아오도록
- 4월 28일(토)  
일본에 부흥의 바람이 불도록

2012년 4월 22일 897호

- 0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곧 개막(1면)
- 0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23-28)(1면)



01

## 온누리미션 연합열방예배

### 외국인 500여 참석, 자선장도 열려

온누리미션이 주관하는 열방 연합예배를 오늘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관산중학교에서 드린다.

열방연합예배는 온누리미션에 소속된 13개 예배공동체에서 500여 명의 외국인 지체들이 참석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이번

열방연합예배에는 크리스헤리슨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한다.

오후 2시부터는 온누리M센터로 자리를 옮겨 네팔교회 개척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이 열린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일만사역자 파송

오늘 서빙고 1부 예배에서 해외일만사역자 임명식이 진행된다.  
김원기(헝가리)

-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생활에 성공 할 수 있도록
- 신앙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 초기 직장에 적응이 잘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복음을 전파하라

한 영혼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복음은 한 영혼이 삶과 죽음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 막 16:1-11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명령을 날마다 되새기고 지켜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온 세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다. ‘온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온누리’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이웃나라도 가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통수단도 원활하지 않았고, 소식을 전할 기회가 없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교회의 이름이 온누리교회인 것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대상과 영역이 온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 이웃과 가족의 문제가 시급하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세상’은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세대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전 세계를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오늘날은 지구 끝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CGTV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 실패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11-14절).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어떻게 믿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잠재 성령을 받고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대적자들에게 복수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대적자들이 기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거짓말과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복수하기 위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변화되어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위험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일은 단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을 어떻게 믿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을까 싶지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복음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이 깊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주셨고, 사랑이 깊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줘서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온 세상으로 전파되어야 할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은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하는데 그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 온 세상이 처해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롬 1:18).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현재도 하나님의 진노가운데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주에 대한 기록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은 복 받음 일보다 저주를 받을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진노하고 심판을 하셨을까요. 짜증이 많고 미성숙하기 때

문일까요. 아닙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로 마찬가지로입니다.

#### 잭 헤일즈 목사 일화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헤먼드 제임스대학교라는 곳에서 근무하시던 잭 헤일즈 목사는 2001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는 정말 뛰어난 복음전도사였습니다. 잭 헤일즈 목사가 헤먼드 제임스대학교에 취임하실 때 성도가 100여 명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실 때에는 주일학교 학생만 2만5천명이 넘었습니다. 그분의 일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잭 헤일즈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고 6개월쯤 되었을 때 한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신 후로는 전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이야기를 들은 헤먼드 목사가 자신의 간증을 성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한번은 집회에 참석하시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집회가 끝난 후 몇 개월이 지나서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내가 새해가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보라.” 그해 겨울, 아버지가 심장 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이가 밤중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때 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어느 건물 2층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 관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 천사가 관들을 하나씩 열어 주었는데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보였어.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있는 관은 보여주지 않더라고 이상해서 들여다보았더니 시신이 손으로 관을 잡고 있어서 뚜껑을 닫지 못한 채로 있었어. 그런데 그 관이 아버지의 것이었어. 아버지가 맡은 하지는 않았지만 무척 괴로운 얼굴로 ‘빨리 가서 전해라. 내가 온 곳에 사람들이 오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 이후로 잭 헤일즈 목사님은 온 세상이 처해있는 위험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해 치른 대가**

두 번째 이유는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담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롬 4:25).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심판을 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본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두 종류의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전도대상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엄청난 대가를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인 이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전도대상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값진 대가인지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면 이기적이든지 전도대상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전도대상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한번 전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도 훈련은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사모하게 되면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온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프랑스의 한

의사가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무게에 대해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37절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한 가치**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막 8:36-37).

한 영혼의 무게는 온 세상보다 무겁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은 한 영혼이 삶과 죽음을 선택

**십자가의 부활에 동참**

구원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심판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든, 믿지 않든지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좋습니까. 심판이 좋습니까. 이것을 비교 못할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설명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단순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만

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6:3-4절).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세례를 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17-18절).

놀라운 표적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방언도 나타났습니다. 선교현장에서는 선교사들이 부족의 언어를 오랜 세월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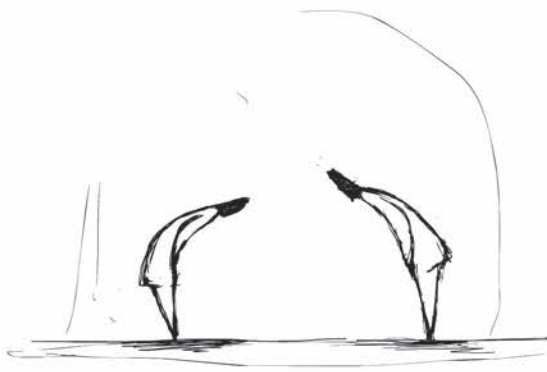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특수체질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20절).

여러분, 표적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만 표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표적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구가 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 가정과 이웃뿐만 아니라 낯지도, 가보지도 못한 세상에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CGNTV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CGNTV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셔서, 두란노서원이 문서선교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온 누리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일러스트 박정일 meteorjip@nate.com



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한 영혼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16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요 3:18).

여러분,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세상은 이미 심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심판의 길만 있었는데 이제는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두 길에 길이 된 것입니다.

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세례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

01

### “땅 끝까지 섬기는 복음전도자”



박신웅 목사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매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제게 두 가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수많은 은사들 중에 한 영혼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습니다.

둘째는 미전도종족 선교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온 맘 다해 땅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02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급  
지난 주일(15일) 양재 3부 예배에서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  
유학 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  
했다. 올해는 러시아, 브라질, 우간  
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카자흐  
스탄 등지에서 온 8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 조은실 기자



동 경



## 창립 11주년 동경, 새비전 선포

### TV카페교회 통해 복음 전파

지난 8일 동경 온누리교회가 창립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활 주일과 창립기념일이 같아 더욱 뜻 깊었다.

이날 장재윤 목사는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일본에서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보다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 동경 온누리 가족들은 CGNTV를 활용해 일본 특성에 맞춰 전도를 할 것을 다짐했다. / 전미진 통신원

### “테페르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일본에도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무목교회가 많습니다. 올해 동경 온누리 성도들은 테페르(TV카페교회)를 만들어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일본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테페르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대일도 하고 큐티도

임과 성경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어디에서든지 CGNTV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안도마사요시 형제

01

야치요

## 부활만큼 기쁜 소식

지난 8일 부활주일 아침, 야치요 온누리교회에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다.

연고가 없는 노인들을 7년 동안 섬겨 온 야마가시 경순 집사가 전도한 키타무라 스스무 형제가 세례를 받은 것. 야마가시 경순 집사는 전도 잘하기로 소문이 났다.

올 1월에는 2명의 무연고 노인을 전도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또한 야치요 성도들은 북한 어린이들을 도와달라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의 편지를 받고 부활절 헌금의 1/2을 드리기로 했다. / 권영한 목사



키타무라 스스무 형제가 세례를 받고 있다.

02

대련



## “부활을 노래한 찬양축제”

지난 8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대련 개발구 안디옥교회에서 대련교회협의회 주관으로 8개 한인교회가 모여 찬양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찬양축제에 참가한 교회는

대련온누리교회, 대련국제회, 안디옥교회, 성암교회, 무지개빛교회, 꿈이있는교회, 장흥도한인교회, 연합교회 등이다.

/ 정성애 통신원



01

### 산타모니카 창립예배

오는 29일에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및 김창석 담임목사 취임예배와 뉴저지 온누리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는 심상현 목사의 이임식이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달 25일에는 산타모니카(구 웨스트 LA) 온누리교회를 섬기던 한승진 목사 이임예배를 드렸다.

한편 지난 2월 비전헌금을 아웃리치에서 동역했던 토렌스 주빌리 일본인교회(기타노 미노루 담임목사)에 전달했다.

/ 이주상 통신원

02

시드니

## 인도네시아에 첫 선교사 파송



### AS공동체 오범석 형제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지 6년 만에 첫 선교사 파송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호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오범석 형제(AS 공동체).

오범석 형제는 정체성의 혼란과

긴 방황의 시간을 보내던 중 지난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신앙훈련을 통해서 세계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품게 되었다.

오 형제가 파송되는 곳은 인도네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섬 마카싸르 이곳에서 그는 현지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고아원에서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치고, 의료사역을 할 예정이다.

/ 윤대근 통신원

03

미주연합

## 미주연합, 단기선교 간다

### 콜롬비아서 큐티세미나

미주 온누리교회가 연합해서 오는 5월 29일(화)-6월 4일(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일대일큐티세미나 단기선교를 개최한다.

이번 일대일큐티세미나 단기선교

에는 알바인, 앵커리지,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참여하며, 이번 선교에 참여할 성도들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는 미주 두란노해외선교회(213-200-5202) 또는 해당 미주 온누리교회에 문의하면 된다.

01

수원

- 의료선교팀 여름 아웃리치  
 일시: 7월21일(토요일저녁출발)  
 7월26일(목요일 새벽도착)  
 장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역: 의료, 이미용, 어린이 사역 및 전도  
 문의: 이현수 총무(010-9717-0214)
  
- 류모세선교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비전드립  
 일시: 2012년 7월31일~8월8일(8박9일)  
 장소: 이스라엘 전역  
 모집: 4월 29일까지, 50명(12세이상)  
 문의: 박정훈 (010-9020-0668)

02

# Intro to IJM Night

On Wednesday, March 28, Jamie McIntosh and Joe Jordano from International Justice Mission, came to speak at a special gathering called Intro to IJM Night. The event was held at the Dogok campus of Onnuri church but included visitors from various churches throughout Seoul. About a hundred people were in attendance. As the name suggests, the purpose of the night was to introduce people in Korea to IJM, which is the world's leading Christian law firm dedicated to the fight against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slavery. IJM was founded by Gary Haugen in 1997. Haugen, who is the current president and CEO of IJM, has also worked for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was the UN director in charge of investigating charges of genocide in Rwanda in 1994.

Jamie McIntosh, a former youth pastor, gave the main message for the night. He shared about what IJM is doing around the world and in particular about his experiences in setting up the Canadian branch in London, Ontario. He also explained the purpose behind their trip to Seoul, which was to see if Seoul was a viable place for IJM to plant a field



Jamie McIntosh speaking on Sunday Service at Seobinggo.



From left to right, Joe Jordano, Eddie Byun, and Jamie McIntosh.

or partner office. McIntosh said that IJM takes these decisions very seriously and considers many important factors before investing into setting up an office in another country. IJM is currently looking to build an office somewhere in Asia, with Seoul being one of several candidate cities.

One of the many insights that McIntosh shared was that legal prosecu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deterrents against human trafficking. The reason so many people engage in this illegal activity, McIntosh says, is that traffickers know they can make a great deal of money with impunity, with virtually no fear of the law because only a small percentage of cases are actually tried in court. He also shared how IJM's work in Cebu, Philippines helped to lower the rate of human trafficking

by over seventy percent in the past few years.

Please pray that IJM would set up an office here in South Korea so that they would have a presence in this country. With a partner like IJM, the churches of Seoul would be able to make a far greater impact on the issue of human trafficking.

/Isaac Surh



01

여름아웃리치

## 올 여름 아프리카행 마지막 티켓

# 농치지 마세요!

개인·팀별 참가자 접수 중

5월, 블레싱 사하라 본격 준비 돌입



2012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에 참여하려는 성도들의 참가신청이 줄을 이으면서 참가자 접수가 마무리 되고 있다. 현재 개인이 참가신청 할 수 있는 지역은 모로코와 이집트 카이로이다.

개별로 아웃리치를 신청한 팀은 사역지 방문 및 현지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팀별 참가자를 모집해 UAE 원전공사현장과 오만을 방문해 이슬람권에서 전문인 선교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UAE 오만팀도 아직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블레싱 사하라를 준비하기 위한 실제적인 교육에 돌입한다. 교육은 5월 8일 서부아프리카를 시작으로 15일 북부아프리카, 22일 기타지역으로 아웃리치 참가를 신청한 성도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각국상황 및 선교현황, 선교전략, 예방 접종 및 안전 교육 등이다.

5월 말에는 3주 동안 아웃리치 스쿨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웃리치 스쿨에서는 중보기도, 위기대처 방법, 촬영방법, 결과보고서 작성법 등을 배운다.

한편 2천선교본부와 CGNTV는 2012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를 주제로 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사역현장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 담아 온 영상을 공모하면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

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GGNTV는 공모한 영상들을 모아 아웃리치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접수 가능한 팀	날 짜	예정지역
모로코 A(개별)	6월 27일~7월 6일	현지부족 방문, 전도
모로코 B(개별)	6월 30일~7월 8일	비전트립, 중보기도사역
이집트 카이로(개별)	8월 13일~24일	어린이사역, 구제사역
아랍에미레이트-오만(팀)	A팀-7월2일~8일, B팀-7월5일~11일	UAE원전 공사 현장과 오만 방문, 현지선교사 사역현장 방문

02

## CMN 의료사역, 함께 합시다

### 의료인선교사 헌신 줄어 어려워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 필요

양재 커피숍에서 만난 CMN(Christian Medical Network)담당 황종연 목사와 안태환 장로가 기자를 보자마자 의료선교사들에게 CMN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달라고 했다. CMN은 매일 국내 미자립교회에서 의료선교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고 해외 아웃리치에서도 자신의 은사로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사역팀이다. 선교사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고국에 돌아오면 그들의 건강을 케어하기도 하고, 햇빛트리 니타신대학원대학교에 유학 온 유학생들과 외국인 근로자들, 탈북자들의 건강관리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CMN사역에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나공동체에서 학생들이 싸우다 코뼈가 부러진 일이 있었는데 그때 CMN에서 성형외과 의사를 연결해줘서 그 학생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매우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CMN소속 의료선교사들의 수가 줄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은 의



사에게 계속해서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 때문이에요"

CMN은 서빙고와 양재에 8개팀과 부천, 대전, 남양주, 수원외 의료봉사팀으로 구성, 각 팀마다 30~40명이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인원에 비해 소수다.

"매월 농어촌 미자립교회로 의료선교 아웃리치를 가는 데 어느 날 외과 선생님 한 분이 급한 사정이 생겨 참석을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웃리치를 갈 지역교회에는 이미 외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모이도록 해 놓았는데...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CMN소속 의료선교사가 부족하다보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사역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의료선교팀을 기다리고 있는 농어촌 교회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어도 CMN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성인의료선교사들의 노하우와 청년들의 열정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의료선교사역에 동참할 청년들이 그립습니다."

국내외 의료선교 아웃리치가 아니어도 섬김을 실천하는 장은 많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CMN사역이다. CMN사역은 아웃리치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선교사님이나 유학생들을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해 주는 것이지요. 진료비는 CMN과 의사 본인이 나눠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교사들과 유학생들이 가장 연약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CMN. 마지막으로 안장로가 CMN이 꿈꾸는 사역에 대해 들려주었다.

"사역하는데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의료인들이 헌신해 광범위한 의료인선교사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내외 아웃리치팀과 자신의 병원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의료선교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인의료선교사들과 청년들이 의료현장에서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사역팀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 조은실 기자

2012년 4월 22일 897호

- 01- 2012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남은 지역 참가 접수 및 안내(9면)
- 02-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의료사역 동참 요청(9면)



## “여성선교사 리트릿에서 생긴 일”



“가장 초라한 곳에서 천국 문을 바라보며  
감동했을 바울을 떠올렸다.”

교회창립 이래 처음으로 온누리 여성 선교사 리트릿이 4월 둘째 주 로마에서 열려 북부 아프리카와 중동,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30여 명의 여성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부활절 아침, 로마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치 오페라 홀에서 찬양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감동이 느껴졌다.

드디어 기대하던 저녁 프로그램이 시간. 회복과 치유, 비전에 관한 세미나가 이어졌고, 조경민 목사가 성령의 터치가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여성사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었다. 또한 유영춘 선교사가 인도한 치유 세미나도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8년 전 딸아이를 천국으로 먼저 보낼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딸아이의 임종을 함께 지켜본 김창옥 전도사님의 사랑이 떠올랐고, 많은 지체들에게 배려 받은 기억이 떠올라 눈가를 적셨다. 그 감사한 기억이 생생하다.

식사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나눴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 안아주고 위로했다. 또한 본주에서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머플러가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카타콤에서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은 무덤이었고 나올 수 없는 땅굴이었다. 반면 지상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목욕장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각종 쾌락을 즐겼다고 한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마지막 행선지는 바울의 순교장소인 감옥을 방문했다. 한 사람이 누우면 발이 닿을 만큼 작고 습한 감옥이었다. 바울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썼을 지도 모를 낡은 대리석 책상을 보며 가장 초라한 곳에서 찬란한 천국 문을 바라보며 감동했을 바울을 떠올렸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내 자신에게 깜짝 놀랐다. 2010년 공황장애 판정을 받은 나는 긴장감이나 슬픈 내용에 감정이 폭발할까봐 영화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 적어도 몇 주 전까지도 그런데 내가 긴장감이 넘치는 영화를 밥까지 먹으면서 보고 있구나...

이 기쁜 소식을 가족들에게 들려주니 온 가족이 행복해했다. 특히 아들이 기뻐했다. 온누리 여성사역 리트릿에 치유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배려해 준 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 T국 천사랑 선교사



01

## The Global Orphan Care Revival & the Korean Church

On May 1, at Saddleback Church, Lake Forest, California, pastors and respected leader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join with Pastor Rick Warren to speak on the importance of orphan ministry in churches? focusing on South Korean and Korean-American churches. Some of the featured speakers include our OEM's Pastor Eddie Byun; Paul

Pennington, Co-Founder of Executive Director of Hope for Orphans; Jim Bob Park, Pastor at Oriental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along with many others. The speakers will be sharing personal testimonials and speaking on practical ways the Church could tackle orphan issues across the world.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event please visit <http://www.hfoinstitute.org/>.

02

## Free2 Play

Ten OEM members had the honor to partner with Not For Sale (NFS) and The Volunteer for Children's Development Foundation (VCDF). On April 9-11 the team attended the annual Free2Play Project in Chiangmai, Thailand. Free2Play offered various programs from sports to music and arts and crafts. Over a hundred children and young adults attended. Over the three days many friendships and bonds were formed. Most importantly, these kids had the opportunity to be free to play. Just like any child, they should

have the right to play. These children are from an ethnic minority group and do not possess Thailand citizenship. They are at risk of exploitation to the sex trafficking industry. They are also deprived of subsidized medical treatment and are reluctantly accepted into schools. Furthermore, these children are robbed of a childhood often neglected by their families and mainstream society in Thailand. VCDF provides a loving home with an opportunity for a promising future for these children. /Jane Kim

03



▷ 독수리 5형제 (11편)

- 4월 23일(월) 오후 8시20분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감비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한병희 선교사이야기입니다.'

04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 4월 28일(토) 오후 10시20분

지난해 일본 대지진으로 연기되었던 다카마쓰 러브 소나타가 1년의 기다림 끝에 막이 오릅니다.



01

# “영원한 희망 선물받았어요”

## 참석자 2,183명, 114명 결신 ‘놀라운 결과’

“십자가는 절망의 나무였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희망의 나무로 바꾸셨습니다. 희망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다카마쓰가 희망의 항구가 되고 희망을 삼는 땅이 되길 바랍니다.”

이재훈 목사의 강력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자 후지카와 히로코 씨가 눈물을 흘렸다. 히로코 씨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리브소나타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팔과 함께 걸어왔다. 그는 리브소나타에 참석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다’고 답했다.

리브소나타 다카마쓰에는 2183명(일본인 참가자 1,791명)이 참석해 114명이 결신했다.

### 다카마쓰를 위한 축제

청록색의 푸르른 바다와 새 생명이 움트고 있는 산의 경치가 멋지게 어우러진 다카마쓰 일본 남서쪽 시코쿠섬 가가와현의 중심도시이자 사누키우동의 본고장이다. 다카마쓰는 높은 소나무라는 뜻을 가졌을

만큼 소나무가 유명하다.

리브소나타의 행사장인 알파이나 부키를 주변에도 훌륭한 일본식 조경을 자랑하는 리스린 공원과 다마모 공원이 있다.

여기는 행사장 입구. 행사사자 전부터 일본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한국인 봉사자들이 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 시켰다.

드디어 일 년을 기다린 리브소나타 다카마쓰의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집회의 포문은 다카마쓰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 아나세 타카시의 작품 ‘호행맨(안광맨)’ 소개영상 상영이 열렸다.

“이 집회는 2년 동안 기도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에 여러분을 향해 부르는 사랑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이민섭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대지진을 겪은 일본인들을 위로한 샌드 애니메이션 >배재철 테너의 영상 상영 >파페라기수 권휘진의 공연 >송솔나무의 플루트 연주 >김영미 권사의 찬양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종이비행기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재훈 목사는 ‘희망의 나무’를



다카마쓰 리브소나타가 114명의 결신 열매를 낳으며 지난 26일(목) 막을 내렸다.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영원한 희망을 선물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했다.

리브소나타 하루 전날에는 한일 양국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영적 교류를 위해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가 알파이나부키 소홀과 JR 클레멘트호텔 3층에서 각각 열

렸다. 교회부흥세미나에서는 박종길 목사(양재 은누리교회)와 김성목 장로(아버지학교 본부장)가 >교회론과 목회철학 >가정의 회복과 자녀교육에 대해 강의했고, 가스펠 나이트에는 일본연합성가대, F팀, 송솔나무, 이민섭 목사와 사토 아카리 목사의 간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리브소나타에는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석해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목도했다. 또한 현지교회를 방문했고 땅 밟기 기도를 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 인터뷰 Interview

## “다음에 삼대가 함께 올 거예요”



가족이 함께 리브소나타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번 리브소나타에 할아버지께서 손주까지 삼대가 봉사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무병 중이셔서 저희끼리만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픈 와중에도 손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A-1팀 소속이었는데 79세의 목회자가 시무하고 있는 현지교회를 방문했는데 후임교역자가 없어 은퇴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행사에 참석하기 전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리브소나타 봉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적극추천합니다. 다음번 리브소나타에는 저희 가족은 삼대가 총출동 할 것입니다. / 소민재 김지윤 부부

### 참가자

## “어머니 건강 회복, 종이비행기에 날려”



엄마가 교회에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희들을 리브소나타에 초대해주셔서 같이 왔습니다. 오늘 열린 프로그램 모두가 즐거웠습니다. 특히 소원을 적어 날리는 종이비행기 세리머니 시간이 기억에 남는데, 지금 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엄마가 열

린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종이비행기에 적어 날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병 때문에 리브소나타에 참석하지 못한 엄마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 시라이 케이코, 시라이 유우키



##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얻어”

리브소나타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데 다양한 음악들이 연주되어 즐거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셔서 힘이 들었는데 이번 리브소나타를 계기

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마시 유우코



##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 배웠어요”

리브소나타 집회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메시지중에 크리스천도 낙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

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일본에도 크리스천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 후지카와 히로코, 후지카와 모모요

2012년 4월 29일 898호

- 01- 리브소나타 (다카마쓰) 폐막(4면)
- 02- 리브소나타 (다카마쓰) 봉사자 & 참가자 인터뷰(4면)





“빼어난 경관 자랑하는 다카마쓰”

사누키우동의 본고장이자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다카마쓰 러브소나타가 열린 행사장 앞에는 선착장과 페리 대합실, 다마모 공원이 있었다. 다카마쓰는 우리나라에 ‘호랑맹’ (일본은 양팡맹)으로 알려진 작가 야세 타카시의 고향이기도 하다. / 정지는 기자

교회부흥세미나

교회와 가정의 주인 ‘예수님’

지난 25일(수) 알파아나부키 소홀에서 열린 ‘교회부흥세미나’ 강사로 나선 박종길 목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성령공동체, 양육공동체, 증인공동체, 고난공동체, 선교공동체로 정리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은 프로그램이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진 강의에서 김성목 장로는 가정은 자녀 인생의 베이스캠프라며 중요성을 피력했다.



가스펠 나이트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25일(수) 한일 양국이 함께 예배드린 축제의 장 ‘가스펠 나이트’.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콘셉트의 무대, 이날 일본 어린이들로 구성된 ‘잇베 재팬’ 찬양팀의 찬양, 이민성 목사의 간증, 일본연합성가대와 댄싱, 송송나무의 플루트 연주, 모두 함께 기뻐 뛰며 춤춘 빅토리밴드의 공연이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봉사자

“숨은 보물 봉사자”

러브소나타 다카마쓰를 섬긴 한국인 봉사자. 흰색 셔츠에 분홍색 리본을 매고 한 한 미소로 일본인 참가자들을 반겼다. 어느때보다도 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섬긴 그들이 러브소나타의 숨은 보물이다.

CEO포럼

“한일 리더십들을 위한 잔치”

한일 리더십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는 ‘CEO 포럼’에는 한일 양국 138명이 리더들이 참석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토 아키라 목사와 CGN NGO를 설립해 지진피해 지원에 힘쓰고 있는 아가베교회의 마네노 목사에 각각 4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현지교회 방문기

# 부흥을 꿈꾸는 그들의 열망

## 예배를 사모하며 부르는 사랑노래

“과거에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카마쓰 니시 그리스도교회의 이토 다케히코 목사가 현지교회를 방문한 한국인 봉사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있는 현지교회.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조호영 목사(양재 여성사역)가 인솔한 참가자 A-2팀은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 40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A-2팀은 한일양국 크리스천들의 연합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현지 교회를 방문해 CGNTV 안테나를 달아 주었다. 다카마쓰 니시 그리스도교회는 ‘유아 전도’를 비전으로 품고

지난 1979년 4월 1일 창립했다.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이토 다케히코 목사(이하 이토 목사)는 20대에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고난을 겪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다. 연로한 나이 때문에 은퇴를 고려하고 있지만 뒤를 이을 목회자를 찾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현지교회를 찾은 A-2팀은 현지교회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선포했다. 현지교회 성도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에게 자필편지와 꽃을 전달했다.

같은 날 참가자 A-1팀은 미야하라 토요하루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칸온지 성서교회를, B팀은 요네타니 요시타카 목사가 시무하는 그리스도 마루노우치교회를 방문했다.

A-1팀소속 윤순구 집사는 “현지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예배드리



러브소나타 봉사자들이 한일 양국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현지교회를 방문했다.

면서 감동을 받아 통곡하시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윤 집사가 소속된 A-1팀이 방문한 칸온지 성서교회는 1961년 11월 창립된 교회로 전형적인 시골마을 가정교회이다. 이 교회도 후일 목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목회자의 고령화라는 일본교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예배에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현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부흥을 꿈꾸

는 그들의 열망이 느껴졌다.

/ 정지은 기자 [jie@onnuri.org](mailto:jie@onnuri.org)

자세한 내용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신문' 또는 [ionnuri 앱](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nnuri)(more⇒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토 아키라 목사

##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

다. 이 짧은 기간이 1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교단과 교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지역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홈페이지를 남겨두었는데 피난하는 가운데 20만 명의 사람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은 교회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방송국에서 이곳을 취재하러 왔습니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저희 교회는 2년 전에 예배당을 신축했는데 쓰나미와 원전사고로 모두 잃었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제 딸이 '예배가 목사님이 된 것은 쓰나미를 이기려는 사명감'이라고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당시 저는 광동지역에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은 모두 다른지역으로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아내는 후쿠시마로 향했습니다. 후쿠시마에는 자동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우

“저희 교회는 교회 중에서도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집은 폐쇄됐고 피난 중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한 미국교회는 300만 엔을 헌금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전에서 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은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러시아의 체르노빌과 같은 장소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교회 중에서도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교회와 집은 폐쇄됐고 피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주셔서 우리

리 부부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다카마쓰 러브소나타가 일 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년이 지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의 무대가 된 교회)라는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희망의 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희망을 선물해줍니다.  
희망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11일 쓰나미가 이태현의 리쿠젠타카타 시의 소나무 공원을 덮쳤습니다. 이 공원은 200년 넘게 살아온 소나무 7만 그루가 있었습니다. 쓰나미로 모든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사라졌는데 단 한 그루만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바닷물에 젖어서 더 이상 살수 없었지만 나무의 가치를 통해 또 다른 소나무 18그루의 모종으로 사용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희망을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호흡이 필요하듯이 인간의 영혼에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유사에서 자주 발견되는 말이 바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은 쉽게 절망합니다. 엄청난 재난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절망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절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위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인간의 연약함이 더 큰 절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확신이 있는 희망입니다. 인류역사에서 가장 확신이 있는 희망을 가져다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사람이었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 오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기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세상의 희망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말하면서도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막연한 기대를 붙여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대하면서 동시에 희망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이 담긴 희망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눈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난에 감추어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질병도 희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만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 희망을 전해 주



십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외면한 희망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진실을 깨닫는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세상에 희망인 이유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문제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

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우리같이 평범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변화시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장애가 아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면 의로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

므로 데리고 간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 절망에서 희망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건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의로운 분이 죄로 가득한 악인들에 의해 죽임 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의로운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절망의 나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절망을 모두 죽였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디스립을 거부할 때 오는 것입니다. 거부한 대가로 인류가 절망하게 되었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뜻밖에 만나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희망을 가로막는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굴복할 때마다 희망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모든 죄를 절망의 나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망을 희망의 도구로 변화시켰습니다. 누구든지 희망의 나무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리쿠젠타카타의 소나무는 하나님의 희망을 전해 주었지만 영원한 희망은 가져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희망을 선물해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희망의 나무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다가가스가 변화될 것입니다. 일본이 변화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남양주 온누리미션,  
오늘 '자선장'

남양주 온누리미션이 오늘(29일) 다문화가정과 해외 이주 근로자 후원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을 연다.

오전 9시부터 4층 사이닝글로리홀에서 진행되는 자선장에 가면 음식, 의류, 베트남과 인도 전통의상을 입은 현지인과 사진촬영을 할 수 있다.

/ 황치연 기자

02

도서안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을  
나도 사랑했습니다

하용조 지음  
| 두란노 | 12,000원 | 160쪽



이 책은 일본 두란노서원에서 그의 메시지와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편집해서 출간했다. 수차례 개최된 일본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고(故)하용조 목사가 설교했던 메시지로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본인들에게 전했던 그의 열정적인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03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 '유현숙 선교사'  
- 4월 30일(월) 오전 9시40분  
편편한 북카페의 새로운 MC 주영훈과 함께 사람과 책, 그리고 삶을 만나봅니다.

04

TV 추천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믿음의 영웅들-에이미 카마이클  
- 5월 3일(목) 오후 4시30분  
인도 고아들의 어머니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의 삶입니다.



해외 이주 근로자 섬기는  
박흥규, 이지희 부부

#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지난 23일(월), 온누리미션 한두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남양주 4층 사이닝글로리를 이곳에서 한두권 예배를 섬기고 있는 박흥규, 이지희 부부(오부 6순)를 만났다.

“3년 전 남편은 한국에 봉사, 저는 주방봉사를 섬기면서 해외 이주 근로자들과 심방 다니고, 소풍도 가면서 가깝게 지냈어요.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안보면 보고 싶고 걱정되어서 자주 만나고 있어요”

이지희 성도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교회에 와서 늦은 8시까지 해외 이주 근로자를 위해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녀가 만드는 음식은 카레인데 한두권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선정된 메뉴라고 한다.

“인도에서 주방장을 하던 형제가 있어서 인도식 카레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주 근로자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가봤지만 자신들을 이렇게 섬겨주는 곳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내내 한두권 예배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그녀의 표정에서 섬기면서 경험한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예배가 시작되려면 한참인데 박흥규 집사가 분주하다. 어디를 저렇게 급하게 가는 것일까.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저기서 한 사람, 여기서 두 사람 데려와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지체들을 데리러 가고 예배를 마치면 데리러 주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 예배 시작 2-3시간 전부터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박흥규 집사. 그의 헌신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엿볼 수 있었다.

## 국내 선교사의 꿈

남양주 온누리교회 해외 이주 근로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하자 올해로 9년째다. 불법체류자가 되어 추방당하거나,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해 해외 이주 근로자 예배에는 평균적으로 10-15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다.

열매도 풍성하다.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해외 이주 근로자도 있다.



“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내 선교사로서 사역 하고 있습니다 ”

한 네팔 자매는 식사 모임에 왔다가 세족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외 이주 근로자들끼리 모여 아침예배도 드린다고 한다.

“선교사로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섬기는 것은 치료를 받으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역이라 좋습니다. 국내 선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흥규 집사는 우즈베키스탄과 카라크에서 선교를 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 국내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매주 월요일에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다.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박 집사는 바람을 갖고 있다. 그 바람은 해외 이주 근로자들 잘 섬기면 그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다.

“선교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곳에 와보니 꼭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교는 모든 생활과 연결 되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남양주 온누리미션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부. 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해외 이주 근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한다. 3년 동안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섬기면서 봉사자들이 없어 힘들 때도 있었다는 부부에게 하나님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다.

“세족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더니 세족식이 끝나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자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해외 이주 근로자들은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으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부부가 해외 이주 근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끈질기게 정도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부부는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하시니깐 되더라고요” 사이닝글로리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지희 성도와 한두권 예배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반가운 표정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던 그들이 향한 곳은 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에 일하러 온 네팔 자매들의 숙소 사역하러 가는 길에 이창용 집사가 사역의 기쁨을 들려줬다.

“이 사역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해외 이주 근로자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이자, 은혜입니다.”

이 집사는 해외 이주 근로자를 섬기는 사역의 맥미를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툰 한국어로 기자를 반갑게 맞아주는 네팔 자매들. 그녀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날은 프로밀라, 산다, 아시의 생일이다. 타국에서 맞은 뜻밖의 생일 파티에 감격하는 그녀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다.

“이렇게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거 같아요”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자매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다. 하루 종일 아재비를 포장을 하고 이곳에 왔다는 사람들에게서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예배가 재미있고, 기분이 좋아요. 피로도 풀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정말 좋아요”

이곳에서 만난 부부에게서 훈훈한, 친근한, 행복, 감사, 사랑이 가득 묻어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소망을 들어봤다.

“남양주 경기 북부 지역에도 M센터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량이 부족하지만 인도, 네팔,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두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소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만큼 문화적으로 묶어 뱀 습관들이 짙어요. 그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한두권 예배는...

2010년 12월 27일부터 예배를 드렸으며, 현재는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4층 사이닝글로리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인도어로 통역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 이주민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라

지난 20일(금)부터 2박 3일 동안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을 위한 '리더십 회복집회'와 '열방연합예배'를 드렸다. 에zell 선교회가 주관한 리더십 회복집회에는 온누리M미션에 소속되어 있는 12개 나라의 리더십 65명이 참석했다. 열방연합 예배에는 13개 예배공동체의 지체들이 모여 연합해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에 선교지 교회 개척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장이 열렸다. 말 그대로 이주민들을 위한 시간이었다. 2박 3일 동안 이주민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 흘린 현장스케치다.

## 첫 번째 현장, '리더십 회복집회'

###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경험 치유와 회복의 '눈물바다'

"이주민들이 2박 3일 동안 집회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앞당겨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섬김을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잠시나마 힘든 일에서 해방되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집회를 섬기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에게 김영철 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이주민을 위한 회복집회에서는 크리스 해리슨 목사, 반태효 목사, 서경남 목사가 회복과 치유에 관한 강의를 했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세족식이 장식했다.

저녁 6시 30분. 봉사자들이 세족식이 거행될 예배당으로 모였다. 에zell선교회 대표 홍정희 권사가 세족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순조

로운 세족식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홍 권사의 모습에서 은혜가 느껴졌다.

세족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회개하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한 중보기도였다.

저녁 7시. 65명의 이주민들이 봉사자들이 미리 세팅해 놓은 의자에 앉았다. 지금은 회복집회의 네 번째 강의 시간. 대청의 한 자매가 가야금 연주를 선보이자 이주민들은 공연에 관심을 보이며 휴대전화에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담았다. 이어 크리스 해리슨 목사가 타국에서 이주민들이 받은 상처를 말씀으로 위로했다. 또한 십자가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주민들에게 전했다.

해리슨 목사가 인도한 기도회가 시작되자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예수님이 십자



가에 못 박히는 장면들이 상영되었다. 영상을 보는 이주민들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이 젖기 시작했다. 영상이 끝나자 세족식이 이어졌다. 봉사자들은 무릎 꿇고 앉아 이주민들의 발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봉사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이주민들도 봉사자들에게 발을 내어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처절한 사랑과 자신들을 섬기는 봉사자들을 보며 이주민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세족식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현장을 뒤덮었다.

세족식을 마치고도 은혜가 충만해진 이주민들이 한 방에 모여 자신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 늦은 시간까지 찬양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 두 번째 현장, 화합의 장



###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구원의 기쁨 만끽한 열방연합예배

회복집회 다음날 주일 아침. 회복집회에 참여한 이주민들이 피곤할 법도한데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열방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 안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13개 예배공동체 소속 250여 명의 이주민들이 모인 현장. 피부색이 다른 찬양예배자들의 찬양소리가 연합예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다. 강찬석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사랑쟁버의 공연이 이어졌다. 20여 명의 사랑쟁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희망을 연주했다. 사랑쟁버 어머니들의 수화공연도 펼쳐졌다. 이주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내며 공연에 빠져들었다. 장애를 뛰어넘어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한 공연은 이주민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부족함이 없었

다. 타국살이에 지쳐 마음에 생긴 병이 씻겨 내려가는 듯 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크리스 해리슨 목사가 전날 회복집회에서 선포한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 이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되어 새 삶을 누리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자 이주민들은 구원받은 기쁨을 만끽하기 시작했다.

행사의 피날레는 한국의 전통놀이 박 터뜨리가 장식했다. 합것 오재미를 던지는 이주민들의 표정에서 동심이 느껴졌다. 드디어 박이 터졌다. 박 속에는 이주민을 위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항상)기뻐하라!', '(쉬지 말고)기도하라!', '(범사에)감사하라!', '할렐루야!'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돕는 손길 '자선장' 지난 주일(29일) 남양주 온누리미션팀이 다문화 가정과 해외이주근로자, 탈북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장을 열었다. 자선장에서 는 북한식 음식, 인도음식이 참석지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미술작품전과 사진전도 열렸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준비된 선교사를 양성하는 강동 와이미션 2기가 힘차게 출발했다.

## 준비된 선교사 키우는 ‘와이미션’

### 강동 와이미션 2기 스타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선교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을 안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지난 달 21일(토) 선교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진 30여 명의 성도들이 평신도 선교훈련학교인 와이미션 2기에 참석하기 위해 강동 온누리 두란노홀에 모였다.

지난해 1기 와이미션에서 48명의 예비선교

사를 배출한 열기를 이어받은 2기 와이미션 과정은 오는 6월 9일(토)까지 7주 동안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 ▷세계 선교역사 ▷한국 선교역사 ▷타문화 이해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 ▷선교에의 도전과 참여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강동 온누리교회 최원준 담당목사는 와이미

션 참석자에게 “와이미션을 수료할 때에는 수료자 모두가 선교사의 삶을 살기로 선포하기를 기대한다.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준비된 선교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기 와이미션의 첫 강의를 맡은 전생명 선교사는 “와이미션 과정을 통해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성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 여름 아웃리치 시작됐다

## 블레싱 사하라 위한 세미나 아웃리치 지원자 필참 해야

“아프리카 가시나요?”  
 요즘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묻는 인사다. 모집인원이 300명인데 지원자가 500명이 넘어 새로운 아웃리치 팀을 꾸릴 정도로 올해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이 뜨겁다.  
 2천선교본부는 아웃리치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망을 반영해 아웃리치를 위한 세미나의 문을 열었다.  
 지난 8일 서빙고 순형홀에서 열린 아웃리치를 위한 세미나 첫 날에는 서부아프리카의 전반적인 지역정보와 현지 상황을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아웃리치를 떠날 나라를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아 올렸다. 세미나는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오는 29일부터는 3주 동안 아웃리치 스쿨이 개강한다. 아웃리치 스쿨에서는 아웃리치에 대한 강의와 영상촬영, 지역 리서치 작성 방법 등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동체 아웃리치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공동체 아웃리치는 책임 선교사가 있는 선교지에서 진행된다. 단 선교지의 사정에 의해 공동체 책임선교지로 아웃리치를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2천 선교본부에서 지역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문의: 2천선교본부 (3215-3208)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가족과 함께 하나님 만나는 기쁨”

오늘은 저희 가족에게 뜻 깊은 날입니다. 저희 큰 딸 화영이가 단기선교사로 파송되어 모든 가족이 함께 오전에 예배를 함께 드렸고, 막내 딸 화은이와 제가 '3대가 모여 드리는 주일저녁 가족예배'에서 특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온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린 축복 받은 날인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9개월 동안 단기선교를 하는 큰 딸 화영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영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마음 속 깊이 새겨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온누리 공동체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 이웃과 나누는 사랑, 열방에 전하는 사랑을 누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상현 집사 가족

## 전도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꿈

### 상황별 5분 전도팀 동행취재

서울역과 안산M센터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별 5분 전도팀이 지난달 22일(주일) 서빙고 홍보관에서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번 상황별 5분 전도법 과정에서는 임종환자, 불교신자, 무신론자, 교회에서 상처 입은 사람 등 상황에 맞춘 대처법을 배우고 시연했다.

지난달 15일과 22일에는 안산M센터와 서울역 등지에서 배우고 익힌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황별 5분전도법 1조의 전도현장을 동행취재 했다.

####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들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 상황별 5분전도팀 1조가 세미나에서 배운 전도법을 복습하느라 여념이 없다. 연습을 하루만 안 해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재우 집사. 안산M센터와 온누리요양센터 등지에서 전도를 많이 해보았

다는 베테랑 박인숙 권사는 전도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디어 전도실습이 시작되었다. 서울역에 곳곳으로 흩어진 팀원들은 가장 먼저 KTX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휴가 나온 군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법도한데 팀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소개했다. 전도팀원들의 능숙한 전도실력 때문인지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도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고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저는 간헐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있다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과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실습을 마친 백수화 성도가 전도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다른 팀원들도 자신들이 만난 사람들을 소개했다.

“불교도인 군인을 만났는데 그 형제가 말씀



을 따라 읽더니 힘들 때 예수님을 불러 보겠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던지요” 역시 베테랑 박인숙 권사다. 이재우 집사는 캐나다에서 온 대학생 케빈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고요.” 상황별 5분 전도팀에게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거부 당할 것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은 세미나에서 실제적인 전도기술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시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조 조장 박인숙 권사가 전도팀이 경험하고 있는 은혜를 나눴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할 때마다 힘이 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서울역이든, 용산역이든, 안산M센터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전도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 “그 감동 잊지 못해 왔습니다”

## 아사히카와 목회자들 온누리교회 깜짝 방문 러브소나타로 맺은 인연의 아름다운 재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그들은 아사히카와 러브소나타에서 받은 감동을 잊지 못해 한국을 찾은 김재란 선교사와 아사히카와팀(사사기와 히로후미 목사 외 5명)이다.  
 “러브소나타 아사히카와가 열린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의 감동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들은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준 온누리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비방으로 한국을 찾았다. 러브소나타본부 팀원들과 마주한 일본인들은 서로 반갑게 얼싸안으며 아름다운 재회를 했다.

팀은 인솔한 사사기와 목사는 “늘 일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큰 사랑을 전해 준 온누리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하기까지 2년이 걸렸다. 한 번도 잊어 본적 없는 마음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3박4일 동안 ▷이재훈 담임목사와 만남 ▷온누리 순예배 참석 ▷CGNTV·두란노 탐방 및 예배 참석 ▷온누리교회 탐방 ▷서빙고 수요일양예배 찬양 특순 ▷인사동 및 북촌 한옥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일본으로 떠났다.  
 한편 지난 5월 11일에는 동경 요도바시교회의 미네노 목사가 한국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 정지은 조유진 기자



▲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한 사사기와 목사(맨 뒷줄 왼쪽 두 번째)와 일본 목회자 및 사모들이 러브소나타 가족들을 방문해 아름다운 재회를 했다.

### 선교사 파송

오늘(20일) 서빙고 1부예배와 양재 3부예배에서 3차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 ▶ 표바나바/ 송사라-아프리카 T국
- ▶ 어영선/ 박미선 - 인도

01

##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

### 연세세브란스 병원 의료비 50% 감면

지난 15일,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37개 교회가 연세세브란스병원과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선교사 및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의 의료비 50%를 감액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선교사들이 원하는 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더 많은 선교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료비를 선교사 1인당 300만원, 교회당 10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장 이철 장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병원으로서 한국교회와 동역하기 위해 5,000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것을 목표로 건강지원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교회는 해외선교사 건강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후원했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2

## “아웃리치 물품 후원해주세요

### 학용품 · 약기 필요

오는 7월 3일 모잠비크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간사 아웃리치팀에서 사역에 필요한 학용품(크레파스, 파스텔, 매직)과 약기(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헌옷과 신발을 후원받고 있다. 미술과 음악을 접해본 적 없는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입을 옷이 없는 이들을 위해 집에 잠자고 있는 물품을 꺼내 양재 목회지원실로 가져다주면 된다.

간사 아웃리치팀은 모잠비크에서 여름성경학교와 새로 건축된 건물에 벽화를 그리는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김태은 간사(570-7438)



01

## “중보기도로 선교에 적극 동참”

### 양재이천선교본부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난 15일(화) 이천선교 중보기도 모임에서 황종연 목사(양재 이천선교)가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권면하며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이천선교 중보기도모임에는 강남B공동체 40명의 지체와 강남B공동체의 결연선교사 김상희(시에라리온), 조규연 선교사(캄보디아)가 참석했다.

‘함께하는 선교’를 강조한 이천선교 중보모임에서는 선교보고와 간증,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강남B공동체 결연선교사인 김상희 선교사(시에라리온)는 ‘고아 및 과부를 위한 사역’을, 조규연 선교사(캄보디아)는 “언어 섬김 및 어린이 사역, 교회개척을 계획하고 있다.

양재 이천선교본부는 매주 화요일 양재 온유희에서 이천선교 중보기도모임을 열고 선교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서초C공동체 리더십들이 Acts29비전빌리지를 방문해 훈련생들을 위로했다.

02

### 강 동

#### ■와이미션 2기

6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00 두란노홀

#### ■프라미스 청년부 예배

프라미스 청년부가 오는 6월 10일부터 7/1일까지 아웃리치와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10일 박종길 목사 (청년 선교의 방향)

17일 조정민 목사 (선교, CGNTV 그리고 소통)

24일 도육환 목사 (온누리 선교의 어제 오늘 내일)

7/1일 최원준 목사 (요나서에 나타난 선교)

01

수원

# 행복한 여성, 아름다운 세상

## 예배, 바자회, 문화스쿨 등 수원 여성사역 '활기'



환한 표정의 여성들이 본당을 가득 메웠다. 이 아름다운 여성들은 눈인사를 건네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말쑥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다.

지난 5월 2일(수) 수원 은누리교회에서는 여성예배와 JDS(예수제자학교: Jesus Disciple School)강의가 함께 진행됐다. 말씀을 전한 예수전도단의 김준환 간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

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새길 것”을 강조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 여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수원 여성들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담대한 여성으로, 하나님의 참 일꾼으로 살아가길 것을 다짐했다.

바자회 위해 상품도 직접 제작

여성예배가 끝난 후 수원 은누리교회 로비는 선교사 후원을 위한 바자회장을 찾은 사람들로 붐볐다. 그 속에서 만난 백은기 집사는 계단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테이블보를 깔고 상품을 진열하면서 무척이나 바쁜 모습이었다. 백 집사는 “오늘 판매할 상품들을 며칠 동안 하나하나 손수 만들며 준비했다. 만들면서 이 제품을 통해 모인 수익금이 열방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 날 바자회에서는 머리핀, 귀걸이, 목걸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카네이션 볼펜, 성도들이 직접 만든 머그컵과 커피잔 세트 등이 판매돼 인기를 끌었다.

유영순 목사(수원 여성사역)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은 5월에 선물용으로 필요한 제품들을 바자회에서 판매했다. 또한 성도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을 내놓아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바자회 수익금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전액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2

### ■ 북누리공동체 아웃리치

일정 : 7월말~8월초(4박5일)예정

장소 : 광저우(한길선교사님)

문의 : 각 순장, 김진호 다락방장(010-9567-6627)

03

### 부천

### ■ 아웃리치 신청

중국사천(7/24~31,의료)-강은수

중국사천(7/10~17,성경학교)-김윤식

축섬(7/28~8/1,리더십세미나,성경학교)-최범석

베트남(8/9~16,성경학교)-정형권

\*신청: 담당 교역자



01

시카고

## 선교적 삶 결단한 와이미션(Why Mission) 시카고 2기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Why Mission) 시카고 2기가 지난 달 13일(금)부터 15일(주일)까지 진행되었다. 강의를 김성원 목사(샌디에이고 온누리교회), 강일영 목사(일바인 온누리교회), 손정래 장로(TIMA)가 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과정에는 70여 명 성도들이 참석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선교해야 하는가?', '무엇이 선교인가?' 등

의 질문에 답을 찾아갔다. 첫 날, 강의를 한 김성원 목사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강조했고, 둘째 날에는 손정래 장로와 김성원 목사가 세계선교현황과 타문화 이해하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문화적 관점을 주제로 강일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 이현경 통신원

03



## OSOM 훈련생 위로

지난 17일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본부장들이 Acts29 비전빌리지를 방문해 OSOM(장기선교사훈련학교)훈련생들을 위로했다.

예비선교사가 되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는 OSOM 훈련생들은 교역자들의 안수기도를 받으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냈다.

02

산타모니카



##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창립

### 김재석 담임목사 취임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지난 달 29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담임목사 취임 및 명예장로 장립식을 거행했다.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를 개척한 도육환 목사(2천선교)는 "말씀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또 다른 교회를 낳기를 바란다.

산타모니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산타모니카 담임목사로 취임한 김재석 목사는 취임사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사울이 바울로 거듭난 것처럼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성국 명예장로가 장립되었다.

/ 이주상 통신원

04



### ▷ 강석우, 김자옥의 하늘빛향기(양유식 장로)

- 5월 23일(수) 오전 9시40분

성한평생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섬김을 실천해온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양유식 회장을 만나봅니다.

Church! Change! China!

# “중국에 바로 그 교회 세운다”

## 중국교회 리더십 위한 비타민-C

중국교회의 변화를 꿈꾸며 지난 14일부터 오늘(2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되는 비타민-C집회. 중국에 가장 필요한 비타민은 교회라는 뜻을 가진 집회의 참의미는 3C(Church, Church, China)다.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변화시킬 비타민-C 집회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전수

“4년 전부터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배우기 위해 6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큐티와 일대일을 중국에 전파했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국 온주에서 온 지아춘 목사.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집중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교회도 선교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선교방향과 노하우를 저희교회에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은 선교라는 것을 깨달은 그를 보면서 온주에서 일어 날 선교의 봄이 기대되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평신도가 눈에 띄었다. 그는 큐티와 일대일을 매력에 흠뻑 빠져 지아춘 목사와 동행했다는 정창화 성도다.

“이번 집회에서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큐티와 영적 성장을 돕는 일대일에 대한 강의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경배와 찬양도 빼놓을 수 없었고요, 중국교회가 성장하면서 행정적인 부분도 필요했는데 오정연 장로님께서 입맛에 꼭 맞는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내용들을 중국에서 활용할 것입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이번 집회에 참석한 성도도 있다. 비자를 거부 당해 16일에서야 한국에 왔다는 왕신 성도. 그들 일행은 13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6명만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어렵게 온 집회인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겠다는 그의 열정이 용광로보다 뜨겁다.

“한국인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생명의 거둬냄을 경험한 이후 한국에 대한 열망이 생겼어요.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중국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귀한 정보를 주신 온누리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조선족 목회자도 만났다. 그는 입이 닳도록 CGNTV를 칭찬했다.

“선교사님을 통해 CGNTV를 보게 되었는데 CGNTV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CGNTV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CGNTV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곳에 안테나를 달면서 위험한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출 수는 없어요.”

비타민-C 집회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를 중국에 전파할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중국의 복음화가 먼 미래가 아니라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다.

도육환 목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중국이 복음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국교회에 온누리의 핵심가치를 전수하고 중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故하용조 담임목사 묘지 이장

안전문제 제기, Acts29 비전빌리지로  
유족 · 리더십 31일, 성도는 8월 예배 참석

故하용조 담임목사의 묘지를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31일(목) 강원도 문막 온누리동산에서 Acts29 비전빌리지로 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오후 2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이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지난해 8월 소천한 하용조 담임목사가 문막 온누리동산에 안장되기

며칠 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묘지에 정지에 물이 차는 문제가 생겼었다.

배수 공사를 마치고 하관을 무사히 마쳤지만 폭우가 또 다시 올 경우 묘지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유족들과 협의를 거쳐 이장을 결정했다.

Acts29 비전빌리지로 묘지를 이장하게 된 것은 고인이 생전에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면서까지 강조한 선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장소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곳에 故하용조 담임목사 기념관도 설립할 예정이다.

교회 측은 하용조 담임목사 묘지 이장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싶다는 유족의 뜻을 존중해 “성도들은 오는 8월 2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드리는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나, 8월 4일 서울에서 드리는 추모예배에 참석해 달라”고 부탁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CEO포럼의 ‘선한 영향력’

세미나 및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

지구촌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크리스천CEO포럼(이하 CCF)이 지난 19일(토) 양재 화평홀에서 특별세미나 및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식을 했다.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특별세미나에서는 ‘도전과 개혁’을 주제로 당회서기 최도성 장로와 김흥국 회장(하립 대표)이 하립의 성공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립의 CEO김흥국 회장은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 날마다 말

씀을 묵상하고 기업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식도 진행되었다. 기금은 지난달 22일 안산M센터에서 열린 자선장의 수익금으로, 네팔 현지교회의 건물을 세우는데 사용된다. CCF 소속 한성도는 1만 불을 헌금했다.

크리스천CEO포럼은 내년 2월 네팔 현지교회가 완성되면 그곳을 방문해 기도회와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3



CGNTV를 위해 써주시시오. 지난 18일 비타민 C집회에 참석 중이던 중국 크리스천 리더십들이 선교사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하고, 선교사가 갈수 없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CGNTV 사역에 써달라며 460만 원을 헌금했다. 이들은 CGNTV를 소개하는 故하용조 담임목사의 영상메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 헌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금은 안영수 집사이 천선교 국제사역부가 조정민 목사(CGNTV)에게 전달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2년 5월 27일 902호

• 01- 故 하용조 담임목사 묘지 이장(1면)  
• 02- 크리스천CEO포럼(CCF) : 특별세미나 및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4면), • 03- 〈비타민 C집회〉 : 중국 크리스천 리더십 CGNTV 후원(6면)

# “중국, 복음화 될 것입니다”

## 비타민C집회 감동, 편지에 담아

중국교회의 변화를 꿈꾸며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 비타민C집회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 집회에 참석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루이 안시 광명당교회의 탕전도시와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의 이병훈 학생이 집회의 감동을 잊지 못해 편지를 보내온 것. 중국교회를 회복시키겠다는 다짐과 중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는 소망이 담긴 편지다.



학생이 보낸 편지

01

##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는 매일 저녁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들 중에 빠짐없이 중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저희들은 중국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저희가 이번 ‘비타민C’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용기를 낸 것은 온전히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중국의 크리스천 리더십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경배와찬양학과 학과장 김문택 교수의 열정적인 지도아래 서물지만 중국어 찬양과 위임을 준비했습니다.

중국말은 서물렀지만 ‘비타민C’ 집회 참가자들을 통해 중국 땅이 복음화 되기를 바라는 소망은 용광로보다 뜨거웠습니다. 준비기간 내내 성령의 불이 저희들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집회에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이 손을 잡기도 하고, 서로를 가슴으로 안으며 눈물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이 언어와 민족, 국경을 초월한 천국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들의 호소력 짙은 메시지에서는 중국을 향한 사랑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 짙게 묻어 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하는 중국의 크리스천 리더십들의 모습에서 이미 중국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중국교회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중국인들을 섬기는 모습에서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성껏 섬기는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비타민C’ 집회에서 중국 크리스천 리더십들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중국의 복음화라는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 경배와찬양학과 이병훈



02

중국에서 온 편지

## 사랑하는 온누리교회의 성도님들께

평안!

저는 루이안 광명당 교회의 탕전도시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저에게 큰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생명력 넘치는 사역에서 흘러나오는 기쁨과 사랑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교회의 발전이 멈추고 사역을 하면서 활기가 부족하고, 성도들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등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비타민C’ 집회를 통해 앞으로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할 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가 저희에게 나눠준 모든 것과, 섬겨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를 위해 4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 중국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하게 QT와 일대일을 중국에 전파할 것이고,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비타민C’ 집회에 참석하면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누리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QT)와 사람과의 관계(일대일)를 통해 중국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저희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중국교회를 축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루이안시 광명당교회 탕자매드림



01

# 故하용조 목사 묘지 이장

오는 8월 2일 · 4일 1주기 추모예배 예정



故하용조 목사의 묘지를 유가족과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문막 온누리동산에서 Acts29 비전빌리지로 이장했다.

이장예배는 문막 온누리동산에서 제천 시립화장장을 거쳐 고인이 생전 그토록 좋아하던 Acts29 비전빌리지에 이장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장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

이동원 목사는 “하 목사가 ‘나, 이곳으로 와서 행복하다’ 고 말하는 것 같다. 하 목사의 이장은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위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용조 목사의 묘지가 이장된 Acts29 비전빌리지에는 하용조 목사 기념채플 및 기념관도 세워질 예정으로 선교에 대한 고인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기념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인 8월 2일에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8월 4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 관련기사 8~9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여름 아웃리치 위한 ‘비전헌금’

6월 둘째 주에 드려지는 비전헌금은 단기선교 및 아웃리치를 위해 사용됩니다.

매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 세계로 떠나 복음을 전해왔던 온누리교회는 올해 7월 ‘블레싱 사하라’를 주제로 아프리카 땅 19개 지역으로 500여 성도를 보낼 예정이다.

/ 정자은 기자 jji@onnuri.org

03

## 기쁨으로 섬기고, 섬김으로 기뻐하리

### 축복과 교제의 CMN 간담회

지난 5월 26일(토) 서빙고 순형홀에서 ‘CMN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CMN은 새로운 팀원을 축복하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황종연 목사(CMN 담당)는 “CMN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하고 “CMN 가족

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권면했다.

최근 의료인 선교사들의 헌신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CMN은 지난 4월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사역에 동참할 새가족을 모집했는데, △긍정적 반응 50여 명, △아웃리치에 동참

(일주일에 한 번) 40여 명 등의 호응을 얻어냈다.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사이버공간에서 돕겠다고 대답한 성도들도 많아 CMN의 활력이 되고 있다.

현재 CMN은 8개의 현장사역팀이 정기적으로 국내 농어촌교회 및 농촌 지역을 방문해 의료 진료, 이미용, 영정사진 봉사 등의 사역을 섬기고 있다.

/ 정자은 기자

평택

# 하나님의 ‘힐링 캠프’

## CMN과 함께 의료봉사 80여 명 치료 받아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변화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용서비스를 다 받고 나서는 옆에 있는 한방진료도 받고 싶어요. 짐을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지만 몸이 쭉시고 아픈 곳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무척 기대가 돼요”

지난 달 20일(주일) 평택 캠퍼스 누루 아프니 자매(인도네시아어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2층 로비로 향했다. 이날 캠퍼스 2층에서는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사역팀에서 마련한 의료봉사 서비스가 실시됐다.

몽골, 인도네시아 등 외국인들을 대상

으로 기초검진에서부터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치료, 발마사지, 미용,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공업단지가 밀집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 무료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에는 평소보다 두 배 가량 많은 80여 명이 참석해 2회로 나누어 사역이 진행됐다.

박철웅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외국인 예배를 섬기는 지체들이 자기 나라 친구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계

기가 되어서 그 의미가 더 컸다”면서 “무료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만큼 지속적으로 의료봉사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MN 마노아팀의 이대현 팀장은 “외국인들에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팀원들도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에 와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했다. 덧붙여 “CMN에서는 의료봉사와 관련된 사역을 늘 준비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 “몸도 영혼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평택에서 처음으로 의료봉사가 실시된다고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몽골어 예배팀에서는 여러 몽골식당이나 공장에 직접 찾아가 전도를 하면서 외국

인 근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늘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참석해서 참 기뻐했습니다.

몽골어 예배팀 식구들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고 몽골에 있는 남은 식구들이 안에 걸리거나 아픈 가정이 많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몽골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예수님과 더욱 교제함으로써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만져지도록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더기 자매

###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의료 서비스로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와 봉사자들에게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자나 보험이 없는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병원을 한 번 찾아가는 것조차 부담

이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무료로 다양한 분야의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의료봉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초청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더 기쁩니다. 저는 친구의 전도로 평택 온누리에 나오기 시작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일과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몽골에 있는 부모님과 아들 그리고 한국에 같이 살고 있는 남편, 딸과 함께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 사마 자매

01

## 나는 '보내는 선교사' 다

### 오늘 선교후원 바자회

평택 온누리는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층 로비와 교육실 그리고 4층 식당에서 선교를 후원하는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번 바자회는 평택 모든 성도가 함께 뛰는 공동체를 꿈꾸며 선교사를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바자회 물품은 옷, 신발, 스카프, 장난감, 식용유, 슬리퍼 등 사용하지 않는 새 물품이나 깨

끗한 중고품, 개인 애장품, 기타 생필품 등을 모아 마련했다. 바자회 현장에서는 어묵과 떡볶이 등의 음식도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평택 온누리의 책임 선교지인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지역의 김다윗 선교사(두란노 해외선교회) 가정을 후원하는데 사용되며, 일부는 여름 이웃리치 후원 비용으로 쓰인다.

02

간 증

##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저는 2010년 9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은 안성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는 몽골에서 같이 한국에 온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몽골인 동생에게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교회에 있는 다른 동생에게서 기독교 책 두 권을 빌려 보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읽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

하셨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 가정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가를 어린나이에 알게 되어서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기에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 서적들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도 변화가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삶들이 기억 속에 다시 살아나, 저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아버지를 용서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저에게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괴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하는 한국인, 몽골인 형제, 자매들의 끊임 없는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잘 견디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욱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저희 가정, 가족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노력하고 싶습니다.

/ 윤병바야르 자매(평택 몽골어예배)



# 일대일사역팀의 ‘아름다운 연합’

## 아홉 빛깔 무지개 드리운 자선장

지난 주일(27일), 양재 원형광장에서 온누리 9개 캠퍼스 일대일사역팀이 아웃리치 기금마련을 위한 연합자선장을 열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이럴 수가... 갑자기 쏟아진 비로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 대던 지체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언제 비가 왔는 듯 하늘이 맑게 개이고 아홉 빛깔 무지개가 드리운 것. 일대일 사역팀의 아름다운 연합을 축복하는 ‘아홉 빛깔 무지개가 뜬 연합자선장 풍경이다.

### 하나 됨 경험하는 축제

일대일사역본부는 2년에 한 차례씩 9개 캠퍼스 연합자선장을 열고 아웃리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자선장에서도 아낌없이 경쾌한 선율의 색소폰 연주가 울려 퍼지고 캠퍼스 마다 솜씨를 뽐낸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캠퍼스에서는 꽃차, 오디시초, 오디 쟀,

젓갈, 참기름 등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했고, 장로들이 준비한 돼지 바비큐는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그곳에서 일대일사역 본부의 이상기 장로를 만났다.

“연합자선장은 아웃리치 기금마련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온누리 9개 캠퍼스 일대일사역팀이 하나 됨을 경험하는 축제의 장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9개 캠퍼스가 연합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일대일사역팀은 지난 몇 년 동안 연합사역을 펼치기 위해 힘써왔다. 누구보다 장로들이 숭선수범했다.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돼지바비큐도 일대일 사역팀 장로들이 자비를 모아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

연합자선장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에서 온 라상원 팀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가슴 벅찬 은혜가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품으니 대전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달려왔



습니다.”

세 번의 기도모임을 하고 자선장을 준비했다는 인천의 박용식 팀장도 기지를 만나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숙성된 젓갈이 맛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가 연합해서 하나 됨을 경험해야 신앙이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일대일사역본부는 9개 캠퍼스의 하나 됨을 위해 연합자선장뿐만 아니라 연합기도모임, 일대일양육 세미나, 일대일대외사역 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뉴저지

# 뉴저지 온누리교회 창립

## 새 성전을 위해 기도 중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지난달 6일 창립예배를 드리고 담당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목사는 영상축하 메시지를 통해 "마크최 목사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교회에 대한 꿈이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뉴저지 땅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전했다.

취임사에서 마크최 목사는 "뉴저지 비전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실한 성도 분들의 기도와 섬김의 도움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미동부 지역의 거점교회로서 Acts29의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그동안 유대 회당을 빌려 예배를 드려왔으며, 새

로운 성도들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성전을 위해 전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다.

현재 오후 2시30분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고, 9월부터는 오전 11시 30분 주일예배도 준비 중에 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는 현재에 정착한 젊은 이민자 부부들이 중심이 되어 3-4백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뉴욕 맨하탄의 IN2교회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8-9백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 이도영 통신원

02

시드니

# 시드니, 리드컴 새 성전에 입당

## 인도네시아 발리 '요셉하우스' 건설 프로젝트 선포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지난 27일 리드컴 새 성전에서 입당예배를 드렸다. 지난 2006년부터 본 성전 이전을 위해 이기훈 담당목사와 온 성도가 기도도 준비해온 열매이다.

이날 예배에는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안광국 목사(뉴질랜드 온누리교회)를 비롯해 1000여 명의 교민과 축하객들이 참석해 시드니 온누리교회의 성전 이전을 축하했다.

입당을 맞아 시드니 온누리교회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선포했다.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께 감사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고아원인 '요셉하우스'를 세우기로 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훈 목사는 "선교를 하면서 이슬람이나 힌두의 장벽을 실감했지만 선교를 위한 틈새도 발견했다"며 "발리지역의 고아나 가난한 아이들을 요셉하우스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함으로써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 윤대근 통신원





# “목사님의 헌신 · 열정 이어가겠습니다”

## 故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현장스케치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고인의 열정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Acts29 비전빌리지로 이장된故하용조 목사, 고인의 절친한 친구 이동원 목사의 말처럼 “나, 이곳으로 와서 행복해”라고 속삭이는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다. 지난달 31일 거행된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현장을 스케치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故) 하용조 목사 移葬 禮拜

· 일시: 2012년 5월 31일 (목) 오후2시 ·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1. 故하용조 목사가 문막 온누리동산을 나서고 있다. 유가족과 교역자 및 리더십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이동했다.
2. 재현 시립화장장. 참석자들은 하용조 목사를 다시 만날 소망을 가슴에 묻었다.
3.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는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곳에 도착했다.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도열해 하용조 목사를 환영했다.
4. 이장예배. 유가족 및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 고인의 절친한 친구 이동원 목사는 “고인이 Acts29 비전빌리지로 이장된 것은 다음세대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다.
5. 그리움. 고인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복희 권사. 이장예배 참석자들이 하용조 목사를 애도하고 있다.
6. 유가족들과 리더십들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 주며 위로했다.

사진: 황치연 기자







이동원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장애물로 요르단 강을 만났습니다. 지금 요르단 강물은 수심이 얕지만 당시에는 수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르단 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홍해 바닷길을 열었던 하나님은 요르단 강물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입성해서 처음 도착한 곳은 길갈이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수 4:21).

저는 하용조 목사의 묘지를 이곳에 이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 다음세대를 위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생각보다 빨리 잊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흐르면 사람들은 하 목사의 사역과 헌신, 치열한 기도와 선교에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것을 잊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 목사는 잊어도 꺾을지 모르지만 하 목사를 쓰시던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음세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 목사를 통해 쓰셨던 역사가 다

음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차세대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선배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기억하는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은 모세와 여

에서 계속 기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다음세대를 위한 장소이자, 공동체를 위한 역사의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 목사가 어떤 분이요, 온누리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장소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길갈의 기념비

여호수아 4:19~24

이곳은 다음세대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고,  
하 목사를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호수아와 함께 길을 걸어왔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쓰고 있는 선교역사는 하 목사님과 동역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는 온누리교회의 공동체와 한국교회 역사 속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그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리(수 4:24).”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에 걸어 온 25년을 돌아보면 많은 사역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수해야 합니다. 다음세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 목사를 쓰셨던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세대의 하나님, 한국교회의 하나님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 길갈이라는 땅에서 매우 의미 있는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째,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길갈의 땅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둘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곳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처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눠주시고, 도전의 메시지를 통해 행복을 전하십시오. 이곳이 다음세대와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외하고 하 목사를 기념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정리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기도

## 선교의 열정으로 열병을 앓게 하소서!

우리의 구속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존재의 이유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저희가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존귀와 위엄이 주의 앞에 있으며 진리와 공의가 주의 것입니다.

암울한 시대에 세상을 비추는 빛 되라 하시며 이 땅에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하용조 목사를 불러 25년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를 데려 가겠지만 그에게

주셨던 꿈은 그대로 저희에게 남기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제 그를 품에 안으셨지만 그에게 주셨던 사명은 저희의 몫으로 남기셨습니다. Acts 29 비전 빌리지에 그의 기념관을 세우기로 하고 그의 몸을 이곳에 다시 묻으며 저희는 주께서 주신 꿈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를 선교의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선교의 열정으로 온 몸이 열병을 앓게 하소서. 그가 꿈꾸셨던 것처럼 저희도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는 비전을 품고 세상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품고 열병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이 땅을 밟을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생애를 불태웠던 하나님의 사람, 그를 기억하게 하소서. 이곳이 무너진 교회를 수축하고 열병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임재 하는 거룩한 땅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김종인 장로



01

# “준비된 아웃리치가 더 은혜롭다”

## 세미나, 기도회, 스쿨 등 아웃리치 모임 이어져 오는 5일에는 사진 영상 관련 전문강좌 개설

아웃리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2천 선교분부는 세미나와 기도회 아웃리치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블래싱 사하라 세미나’는 사하라지역을 서부와 북부, 동남부, 중동으로 구분해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지역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사하라 지역의 선교 필요성과 소명 의식, 지역별 선교에 대한 정보 등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질의응답시간에는 현지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의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아웃리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상 지역

을 위해 기도중이다. 지난 달 22일(화) 블래싱사하라 모임에서는 참가자 전체가 모여 도육할 목사(2천선교분부장)의 인도로 각 팀의 일정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여름 아웃리치 스쿨도 시작했다. 지난 달 29일(화)에 첫 번째 모임이 있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대형 선교사(선교한국 사무총장)는 ‘아웃리치 A to Z’라는 주제로 전반적인 선교정보, 단기선교에 임하는 마음가짐, 사후조치 등 단기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특히 이날은 모임 후 각 팀장, 중보기도 팀장, 회계 역할을 맡은 성도가 모여 각 영역의 전문가를 통한 담당별 개별 강의를 이어갔다.

아웃리치 스쿨은 앞으로 2주 동안 더 진행



된다. 오는 5일(화)에는 CGNTV 오성환 PD의 아웃리치에서 영상촬영하는 방법과 신미식 사진작가의 사진촬영 방법에 대한 강의 진행된다. 12일(화)에는 정보에 대표

(UPMA)의 지역 리서치의 필요성과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진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1 주차 아웃리치 스쿨 메시지 \_ 이대형 선교사



##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한 로드맵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에게 단기선교란 무엇인가?’입니다. 단기선교에는 재정, 문화, 언어 등의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벽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 여행은 4단계로 나뉩니다. 입문, 본격적 준비, 현지 활동, 사후구도입니다. 입문과정에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교여행의 장소와 목적은 리더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에 따라 사역계획이 달라질 수 있고 리더십의 스타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문단계에서 본격적인 준비단계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준비와 홍보,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갈등도 생깁니다. 준비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이미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기류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여행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면 갈등여부보다는 갈등해결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워십이나 현장활동을 위한 준비도 이 단계에 포함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입니다. 내가 그들과 나누는 메시지. 내 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본격적인 준비 다음에는 현지활동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일정의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목표에는 충실하지만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단계는 평가회, 기도회, next step 등의 사후구도 단계입니다. 평가회는 현지에서의 평가회와

귀국 후에 갖는 평가회가 있습니다.

특히 현지에서 마지막 하루는 반드시 평가회를 해야 합니다. 귀국 후에도 적어도 한 달 안에 평가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화자찬의 평가회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돌아보는 평가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돌아온 후에 다음 단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공부, 다녀온 지역을 위한 기도회, 방문지역 재방문계획 및 현지인과 네트워크, 장?단기 선교사 파송과 같은 것입니다. 활동기간과 규정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집중도가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 ‘나의 존재’와 ‘소명 의식’

결국 선교여행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선교와 세상에 대한 폭넓은 경험, 선교사역 이해, 복음 확장에 참여, 변화의 기회(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다), 적극적 표출입니다.

양화진의 Rubye Kendrick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순교하실 때 “만일 천 번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조선을 위해 다 바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을 사랑해서보다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즉 선교사님의 소명이었음을 고백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될 때 소명 의식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도 ‘천 번의 생명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 선교여행은 반드시 갈 것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소명 의식이 있다면 이번 선교여행이 축복된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03

### 간증

##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수) 서명고 콘서트홀에서 OSOM(장기선교훈련) 19기 수료식이 열렸다. 19기는 12주 동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진행되었으며, 부부 9쌍, 싱글 11명 총 29명이 수료했다.

기도와 말씀가운데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리큘럼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영성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내적 치유며 디딤줄을 통해 내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쓴 뿌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와 영적전쟁 강의를 통해서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현실에서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이론이 아닌 실제의 훈련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지성프로그램들은 타문화권에 대한 나의 무지를 일깨워주는 시간이었고 현지문화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타종교에 대한 이해는 선교사로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의 다양한 사역들의 현장보고들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합하여 주님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

습니다. 배운 영성과 지성을 토대로 현지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적용할 것인가는 아성 프로그램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장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선교지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결정된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초기정착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내가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견고히 세워야 한다는 것과 선교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통로인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 김진경  
예비선교사



2012년 6월 3일 903호

- 01- 2천선교 : 아웃리치 세미나&기도회& 스쿨 진행 현황 안내(10면)
- 02- 1주차 아웃리치 스쿨 ‘이대형 선교사’ 메시지 :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한 로드맵(10면), • 03- 장기선교훈련(OSOM) 19기 수료식 및 김진경 예비선교사 간증(10면)

01

**알림**

■ 대청 공동체별  
'블레싱사하라' 일정

- 갈렘- 브루키나파소(7/7~14)
- 여호수아- 감비아(7/12~22),  
세네갈(7/6~15)
- 요셉- 코트디부아르(7/7~15),  
가나(7/14~22)
- 하늘- 요르단(7/2~8)
- 허브- 튀니지(7/6~14),  
니제르(7/13~22)
- GiL- 튀니지(7/13~21)
- J4U - 차드(7/28~8/4)
- Pole2- 이집트(7/6~16)
- W- 세네갈(7/6~14)

02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다카마쓰 비전트립  
- 6월 4일(월) 오후 8시 20분  
일본 다카마쓰 지역교회들을 돌아보고 노방전도를 통  
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비전트립 이야기입니다.



01

## NGO '더 멋진 세상' 사무실 이전

가난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이 지난 13일(수) 서울 충무로 2가 50-6 라이온스빌딩 7층 703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반태효 목사, 박종길 목사, 최도성 장로, 이상욱 장로, 윤현덕 장로, 양호승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NGO 더 멋진 세상의 회장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NGO '더 멋진 세상' 이 되겠다"고 말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의 CEO 김광동 장로는 예배 참석자들에게 "많은 동역자들의 헌신과 기도가 NGO 더 멋진 세상의 힘"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파키스탄의 역사바즈 바티 장관의 고향마을에 '사바즈 바티 비저너리센터'를 오픈했고, 아프리카 어린이 새 생명 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 감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말씀과 함께라서 행복해요"

서빙고 여성 큐티, 무릎 종강

지난 14일(목) 서빙고 여성사역이 주관하는 '묵상에서 나눔까지' 큐티투게더가 종강했다. 14주 동안의 과정 동안 호흡기도, 침묵기도, 예수님의 기도, 말씀 기도를 배우며 참석자들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잡고 풍성한 기도생활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날 종강예배는 묵상기도, 침묵기도, 간증,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성찬식이 진행됐고, 참석자 모두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선포하며 다함께 일어나 찬양을 불렀다.

같은 날 한동홀에서는 성경일독학 교 종강예배가 드려졌다. 지난 2월 16일부터 16주 동안 열린 성경일독

학교는 이날 오전 10시 강의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오후 1시에는 수료식이 있었다. 신수정 성도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구원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 두 가지의 변화가 나의 삶과 생활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다.

한편, 지난 8일(금)에는 무릎선교 기도학교가 종강을 맞아 청와대 팟밭기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련됐다. 100명의 참여자들은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지를 위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3

## 아웃리치 함께 GO GO!

대전 온누리의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첫 테이프는 여성사역팀이 끊었다. 여성사역팀은 지난 5일(화)부터 11일(주일)까지 중국 주해 지역에서 좋은어머니스쿨, QT강의, 예배 사역

등을 섬기고 돌아왔다. 이 외에도 대전 캠퍼스는 앞으로 7-8월 동안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일본, 중국, 네팔 등 해외 8개 지역과 전북, 충남 등의 국

내 지역으로 나뉘어 여름 아웃리치를 펼친다.

한편 올해 신설된 빌립대학부에서는 처음으로 국내 거지전도여행을 실시하며, 02공동체(청년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해온 일본 나고야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아래 표 참조) / 조유진 기자

아웃리치 일정표

구 분	국 내	해 외
성인	■ 중서공동체 일시 : 7/28(토) ~ 7/29(주일) (예정)	■ 유성공동체 (인도네시아 반둥) / 일시 : 7/11(수) ~ 7/15(주일) 동누리공동체 (필리핀) / 일시 : 7/18(수) ~ 7/23(월)
차세대 & 대학부(빌립)	■ 빌립 거지전도 (전북 김제, 충남 예산, 홍성 일대) 일시 : 7/16(월) ~ 7/28(토)	■ YDS 아웃리치 (라오스) / 일시 : 7/23(월) ~ 7/28(토) ■ 영아부&유년부 (캄보디아) / 일시 : 8/13(월) ~ 8/20(월) ■ 어린이 JDS (중국 연길) / 일시 : 8/10(금) ~ 8/15(수)
청년부 (O2)	■ 충남 보령 일시 : 7/26(목) ~ 28(토)	■ 일본 나고야 / 일시 : 8/15(수) ~ 8/19(주일)
여성 & 외국어예배		■ 여성사역 (중국 주해) / 일시 : 6/5(화) ~ 6/11(주일) ■ 영어예배 (네팔) / 일시 : 7/25(수) ~ 8/2(목)

01



**대전&평택 캠퍼스**

“우리 바자회에서는요...”

지난 3일(주일) 대전 캠퍼스 바자회 현장에서는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다. 바로 성도들이 바자회 수익금 마련을 위해 구두닦이 봉사를 진행한

것. 한편 같은 날(3일) 평택 은누리에서도 선교를 후원하는 바자회가 열렸다. 옷, 신발, 장난감, 식료품 및 기타 생필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품이 판매된 이 날 바자회에는 많은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 조유진 기자

02

**보스턴**

도미니카 '일대일, 큐티 아웃리치' 간증

“현지인들이 주님 오실 날까지 견고하기를”

도미니카 땅을 밟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 4개의 비전교회가 함께 동역하면서 어떠한 불평과 갈등도 없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최고의 동역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도미니카 사역은 일대일과 큐티 정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습니다. 일대일은 현지 목회자반과 성도반을 나눠서 은누리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섬겼습니다. 첫 날 사역을 조율하면서 현지인 교육 수준을 고려해서 눈높이를 맞추라는 양육 지침을 주셨습니다. 사실 감이 잡히지 않아 강의 준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인들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섬기는 저희보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더 컸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정 앞에 제 자신의 부끄러움과 영적인 부족함을 보게 됐습니다. 시간마다 형제, 자매들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영적인 매력을 느끼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그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정상적인 제도권 속의 교육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뒤따른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꿰뚫고 지나간 것은 수많은 집회와 말씀 속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판단과 잣대를 들이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성도님들처럼 옥토와 같은 마음 밭을 갖고 싶었습니다. 도미니카 형제, 자매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라시아!”(감사해요)를 외칩니다. 도미니카에 다녀와서 저도 모르게 “그라시아!”를 외치게 됩니다. 그런 기회를 갖게 해준 현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라시아!”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현지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이 말씀의 반석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오실 날까지 견고하기를 기도합니다. / 조은영 집사



01

우에다

### 나가노 러브소나타 네트워크 결성

#### 이재만 선교사 초청 세미나

나가노에서는 나가노 러브소나타 이후 실행위원 목사 13명(대표:키타 무라 요시히코 목사)을 중심으로 ‘러브소나타 나가노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러브소나타 나가노 네트워크는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교단과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는 취지로 오는 10월까지 세

미나를 개최한다. 그 첫 작품으로 지난달 4일 나가노에서 이재만 선교사를 초청해 창조과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2명의 목회자 부부는 “우상 숭배가 강한 나가노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과 성경의 창조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으며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다.

/ 아마구찌 목사

02

오사카

### “가족, 일본이 선교지인 것 깨달아”

#### 오사카 와이미션 61명 수료생 배출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Why Mission)이 작년 동경에 이어 두 번째로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린 ‘와이미션’은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일본 선교역사 >세계 선교 현황 및 온누리 선교현황과 비전 순으로 진행되었다.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와이

미션은 선진국이면서 아직 선교지인 일본 땅을 위하여 선교의 중요함을 깨닫고 중보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새신자부와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나카가와 아츠코 자매는 “나카가와 가문의 가족과 400여 채의 마을 친척들이 살고 있는 일본 땅이 선교지임을 와이미션 강의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며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간증했다. 이번 오사카 온누리교회 와이미션은 본부, 남양주, 동경, 요코하마, 나고야, 현지 선교사 등 총 11명이 조장 및 스텝으로 섬겼다.

한편, 일본 와이미션은 현지 일본인들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재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1월 경 동경에서 일본인을 대상으로 와이미션 3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 김기환 통신원

03

나고야

### 지진피해지역을 위한 자선장 개최

지난달 5일 나고야 온누리교회가 지진피해지역을 위한 자선장을 개최했다. 이날 자선장에는 부침개, 떡볶이, 잡채, 비빔밥 등의 요리와 일상 잡화, 의류 등이 판매되었다.

특히 종이 인형 연극을 통한 복음

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요시하라 목사(나고야 담당)는 “지역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기쁨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지역선교 사역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요시하라 목사

01

# 온누리 선교사로 명 받았습니다!

## 신규 허입 23명 온누리 선교사 탄생

“온누리교회 선교사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OSOM 훈련과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온누리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마음속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TIM에 허입된 주현경 선교사는 마음이 두근거린다.

12주 동안의 OSOM(온누리 장기선교사훈련학교)을 수료하고 MRB(Mission Review Board) 허입 심사를 통과해 오늘의 오리엔테이션 자리에 와있기 때문이다. 매일 12주 동안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이 이제는 온누리 선교사로 허입돼 한자리에 모인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훈련을

받은 23명의 선교사들은 이제 열방으로 나가게 된다. 온누리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심어주기 위해 2천 선교본부는 신입선교사들의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교회와 선교본부와의 소통 방법, 현지에서 온누리선교사로서의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온누리교회 선교정책과 비전을 알렸다.

또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동기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2천 선교본부와의 교제시간을 통해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2천 선교 본부장인 도유환 목사는 마지막으로 23명의 신입선교사들에게 “선교사는 영적 모델로써 선교적 과업에 대한 책임이



맡겨졌으니, 교회와 잘 소통하고 교회 정책과 비전에 잘 참여하여 복음의 사명을 잘 감

당하라”며 진심어린 조언으로 당부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여러분이 저희들의 위로입니다”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 팀이 아프리카로 떠난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성도들은 요즘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아웃리치 팀을 받는 현지 선교사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개설까? 현지 선교사들이 블레싱 사하라 팀에게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 제목을 편지로 보내왔다.

### 블레싱 시에라리온

온누리교회 아프리카서 북부를 품고 사랑과 기도로 준비하시는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께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이번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 팀이 시에라리온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도여행 팀 모임을 위하여 광고를 하지만 지원하는 분들이 없다면 팀이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의 모 교회에서 전도여행을 오신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시에라리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며, 저에게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위로와 격려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만큼의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31시간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할 수 있는 곳, 자신의 귀한 여름 휴가시간을 시에라리온을 위해서 양보하는 겸손함, 물질 그리고 말라리아와 풍토병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번 아웃리치 팀을 통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큰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현지 사역자 분들이 감사하고 있고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복’의 행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에라리온은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은 땅입니다. 1991년부터 2001년 까지 10년 동안의 내전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것들이 파괴된 지역입니다. 내전 이후로 이슬람교에서 사물지역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포교활동을 해서 현재 시에라리온 종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0% 이슬람, 30% 정령숭배, 10% 기독교(구교, 개신교 모두 포함). 2002년부터 재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많은 혼돈이 있는 시간들이었고 내전의 여파로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고통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2008년 UN군이 철수했지만 하루하루 치자는 물가로 인하여 치안도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시에라리온 에니스트 바이 코르마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조를 통해서 도로 확장과 영아 사방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내전 중에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UN에서 만들어 놓은 난민캠프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기도 수도 시설도 없고 말라리아와 풍토병, 영양실조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시에라리온 사람들이 길, 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도 생존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JDS 전도여행팀과 고아원, 학교 의료사역 팀의 이번 방문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 특히 고아원 아이들과 UN난민 캠프에서 살아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노방전도와 의료 사역을 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요즘을 세대와 반대정신으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이번 팀의 방문은 진정한 ‘하늘로부터 내려온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 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블레싱 사하라 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시에라리온 땅에 충만하게 흘러넘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 시에라리온 김상희 선교사

\*나라별로 선교사들의 편지를 연재합니다.

03

###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선교지를 기록하라!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단 한번의 단기선교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록을 남겨 추후 선교활동을 위해 이 Tip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각 영역의 전문가인 신미식 사진작가와 오성환 PD가 전하는 아웃리치에 대한 Tip을 정리했다.



### 신미식 작가의 사진 촬영 Tip

1. 잘 찍은 사진이 아닌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어라.
2. 무작위로 찍기보다 진심을 담아 찍어라.
3. 우리의 사진보다 그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라.
4.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라. 다가가 때 까지 기다려주어라. 찍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최고의 사진이 나온다.
5. 가로 컷과 세로 컷 등 다양한 사진을 부지런히 찍어라.
6. 수동보다 Auto로 설정해놓을 때 카메라가 최적의 사진을 찍어낸다.
7. 여건이 된다면 휴대용 사진 프린트기를 챙겨가라. 그들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가족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
8. 인물을 찍을 때 정중앙에 놓고 찍지 말고 화면의 2/3 정도에 놓고 찍어라. 그것이 황금비율이다.



### 오성환 PD의 영상 촬영 Tip

1. 사진과 영상 촬영을 가능한 많이 해라. (휴대폰 촬영가능)
2. 초창기 선교사 가족사진을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에 담아라.
3. 현지인 사는 모습을 담아라(재래시장이 좋은 장소)
4. 마을과 도시 모습을 스케치할 때는 가능한 정지 영상으로 찍어라.
5. 팀이 이동하는 모습, 예배 영상을 기록해라.
6. 근접해서 찍을 때는 5-10초 정도 움직이지 말고 찍어라.
7. 무슬림 앞에서는 되도록 촬영을 하지 마라.
8. 인터뷰를 활용하라.

2012년 6월 17일 904호

• 01- OSOM 수료하고 신규 허입한 23명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9면)  
 • 02-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김상희 선교사(시에라리온)(9면), • 03-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신미식 작가 • 오성환 PD(9면)



01

## Acts29비전빌리지, 양지 온누리교회로

### 당회운영위원회의서 승인

지난 15일(금) 당회운영위원회의에서 Acts29비전빌리지를 온누리교회 양지 캠퍼스로 승인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현재 220여 명의 성도들이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용인지역 복음화, 큐티와 일대일 훈련, OSOM, TP, H2H 등의 선교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1986년 6월 8

일 벤엘교회와 2000/10000 훈련원으로 개원, 2010년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를 거쳐 2012년 캠퍼스교회로 승인 되었다.

/ 김남원 부장

02

### 동부 '다문화 음식체험'

동부노인요양센터와 온누리 영어예배, 몽골어예배 지체들이 '다문화 음식체험'을 했다. 지난 9일(토) 미국, 몽골, 태국, 일본, 중국 등 5개국 외국인들과 동부 어르신들, 정관장 아이패스 청소년 봉사단이 함께 다

문화 음식체험을 통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함께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면서 세대 및 문화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시설 거주 어르신과 생활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

련됐다.

이날 행사는 ▷나라별 모임 ▷레크리에이션 ▷나라별 음식 만들기 ▷발표 ▷음식 나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나라별 음식 만들기 시간에는 몽골의 초이왕, 태국의 툽카까이, 일본의 초밥 등 다양한 음식을 만들며 친밀함을 나눴다. / 정지은 기자

03

### "아웃리치위한 장터 열어"



지난 주일(17일) 서빙고 이천만광장에서는 일산공동체 주관 자선장이 열렸다. 이번 자선장은 오는 8월 진행될 세네갈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 정지은 기자



# “세상 변화시키는 요셉 되어라”

## 요셉 공동체 12주년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가 시작됐을 때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하지 않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 요셉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요셉 공동체가 12주년을 맞았다. 주일에 배로 시작돼 토요일에 바뀌면서 드러진 것이 벌써 12년이다.

요셉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토요일에 드리는 예배’이다. 왜 토요일일까? 대세를 거스르기 위험이라고 요셉공동체 구현우 담당목사는 말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세를 거스린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비전으로 품은 요셉공동체는 토요일예배를 선택했다. 주 5일제가 되면서 토요일의 쉼과 야외나들이 등은 교회로 향하는 발길을 더디게 할 수도 있지만 요셉 공동체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주일에는 주위의 연약한 교회를 섬기고 다시 모여 ODO(One Day Outreach)사역을 하러 고아원, 양로원,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러 각 협의체마다 현장으로 떠나고 있다.

예배와 사역을 통해 선교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요셉청년도 있다. 지난 FA단 기선교 1기에는 2명이, 2기에는 1명이, 돌아오는 3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고 있다.

요셉 공동체 멘토로 8년을 섬긴 심희돈 장로는 청년들에게 “지난 12년이 중요한



요셉 청년 공동체가 12주년을 맞았다. 지난 16일(토) 서빙고 본당에서 요셉 멘토들과 대표 MC단들이 단상에 올라와 요셉청년들과 함께 12주년 Blessing을 하고 있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12년, 주님오실 그날까지 사역에 앞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더 집중함으로써 어떤 사역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튼튼한 체력을 확보하는 그런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요셉 청년들은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헌신하고 충성되며 순종된 종이 될 것을 다짐하며 이렇게 외친다. 요셉 파이팅! 주를 위하여 파이팅!



### 요셉공동체 ODO사역 현황

ODO 내용	사역 주기	사역 장소
주일학교 사역	매월 넷째주	구세군 후생원
유학생한국어교육	매주 금	한양대
중국어예배 섬김	매주일	서빙고은누리
하나원 예배,교육	매월 셋째,넷째주	안성시 하나원
밭퍼 사역	매월 첫째주	서울역
무슬림전도 사역	매월 마지막 주	서빙고은누리&이태원거리
외국근로자 교제	미정	안산M센터
몽골예배 사역	매월 첫째,셋째주	장안동 동천교회
독거노인 사역	매월 둘째주	중량구 공릉동
어린이예배 섬김	매월 넷째주	서울대병원교회
장애우 사역	매월 셋째주	일산사랑의 집
노방찬양 및 전도	매월 둘째,넷째주	미아삼거리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베냉 매고 베냉으로 오세요”

### 관심이 필요한 베냉

한국과 외교관계가 없어 잘 알려지지 않은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나라, 부두교의 원산지로 잘 알려진 베냉에 온누리 아웃리치팀이 방문하게 됨에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베냉에서 한턴 사역을 한 후 한국 본부에서 사역하면서 베냉에 대한 선교를 한국 교회와 선교 관심자들에게 알려 방문하는 분들과 선교 사역자들이 나오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사하게 온누리교회에서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팀이 베냉에 대한 마음을 품고 방문한다니 너무 기쁩니다. 제가 현재 선교 현장을 떠나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베냉에 관심을 가진 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베냉은 한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없고 불어라는 언어 때문에 방문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제주도 아프리카 박물관에서 베냉에 대한 기념품과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베냉을 여행한 한 개인이 촬영한 비디오가 방송국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많은 분들이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아프리카와 남미로 넓혀 여행하는 추세입니다. 한 때 한국 교회가 아프리카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다가 요즘에는 가까운 지역으로 국한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으며 연약하여 동역하면서 세워야 할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이 있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 온누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

베냉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캠프

를 했지만 부족에 한정되어 지역교회를 돕는 어린이 성경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비전트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베냉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동시에 지속적인 기도와 방문을 통해 선교의 고리가 연결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교사들과 교육 자료들의 부재로 신앙의 성장이 더딘 아이들에게 찾아가 성경말씀을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주신 것은 젊은 세대들이 말씀을 배우고 믿음 안에서 잘 지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쓰임 받을 일꾼이 되도록 씨를 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 다른 교회가 아닌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베냉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사역을 통해 영적 전쟁터인 북위 10도 주변, 즉 사하라 사막 주변 나라들 특별히 불어권 지역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황폐해 가는 사막 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과 가정,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고 이끌어 가실 영적 리더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Blessing Sahara’의 주제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그 땅에 거민들에게 강하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각 나라의 팀들을 통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기대하며... / 한진 선교사 드림

\*아프리카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들의 편지를 연재합니다.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선교지를 기록하라!

올해 여름 아웃리치는 단 한번의 단기선교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기록을 남겨 차후 선교활동을 위해 이 Tip들을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정보애 선교사가 전하는 리서치 작성 Tip을 정리했다.



### 정보애 선교사의 리서치 작성 Tip

#### -필드노트(현장)

1. 포켓 크기의 노트와 펜 항상 휴대한다.
2. 기록하기 전 응답자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다.
3. 응답자가 기록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억하거나 녹음한다.
4. 응답자의 말은 그대로 충실하게 기록한다.

#### -파일노트(돌아와서)

1. 시간순서나 주제별로 정리한다.
2. 날짜, 인터뷰어, 기록자 이름, 인터뷰 숫자, 장소, 대상자의 간략한 정보를 기록한다.
3. 분석, 해석 및 부가적인 질문은 인터뷰 내용과 구분하여 기록한다.





# “우리 러브소나타 덕분에 결혼했어요”

러브소나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나태일·사사키 유미 부부

2008년 아오모리 러브소나타 후속 프로그램 '2010 대청 아오모리 문화부흥집회'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일본어예배의 나태일 형제와 아오모리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이 사사키 아키히사 목사의 딸 사사키 유미 자매다. 지난 9일 하나님의 가정으로 첫 발을 내딛은 이들을 만났다.

2008년 9월, 일본에서 아홉 번째로 열린 아오모리 러브소나타 이후 2010년 7월, 대청연합은 아오모리로 '문화부흥집회'를 다녀오게 된다. 이 집회에는 39개의 아오모리 교회들이 연합해 476명 참석, 50명 결신, 180명 헌신서약 등의 열매를 맺었다.

여기까지가 이들의 러브스토리의 배경이다. 두 사람은 이 문화부흥집회에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된다. 첫 만남 전이었다.

“그때(2010년 7월) 저는 통역 스텝으로 섬겼어요. 거기서 사사키 아키히사 목사님(2008년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을 알게 되었어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파님이 동경 CGNTV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나 형제 칭찬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어머니 말씀들을 들었을 때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 요코하마에서 첫 만남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7월 문화부흥집회 후에 있었던 8월 일본어예배 이웃리치였다. 장소는 요코하마였다.

“제가 섬기고 있는 일본어예배에서 요코하마로 이웃리치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미 자매를 만났어요. 사사키 목사님 파님이어서 그런지 첫 인상이 친근했습니다. 좋은 동생, 자매로 느껴졌어요.”

나 형제의 말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운 듯 첫 만남의 추억을 떠올렸다.

평소 일본을 사랑하기에 일본인 자매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태일 형제에게 또 한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추도예배였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두 번째 만났다.

“작년 9월 동경 요도바시교회에서 고 하용조 목사님 추도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유미 자매는 CGNTV 스텝으로, 저는 추도예배에 참가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만났지요. 제가 먼저 저녁을 같이 먹었느냐고 물었죠. 그 후로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신앙, 가치관 등을 나누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추도예배 후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나 형제가 자기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남았고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일 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자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 예수님 중심으로 어려움 극복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평탄치는 않았다.

“교제하기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친애하는 사사키 목사님의 딸이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라는 네 글자

를 주셨습니다. 유미 자매가 떠올랐죠. 아마도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었나봐요. 유미 자매랑 결혼을 하는 꿈을 꿴거든요.”

“언어, 문화, 국적이 달라서 고민을 했지만 국적보다 그의 중심을 봤어요. 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는 달랐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그리고 지난 9일(토) 하나님의 가정으로 출발을 했다. 만난 지 2년 만의 일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을 맺어준 러브소나타에 대해서 감사를 잊지 않았다.

“저희가 러브소나타의 한 부분인거 맞아요.

러브소나타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하나님이 한 국사람, 전 세계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 일본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본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손을 잡고 일본만의 러브소나타가 아니라 아시아, 미국,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지난 10일 일본 성도들이 일본어예배를 방문했다. 맨 왼쪽이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일본어예배 담당)와 사사키 아키히사 목사. 맨 오른쪽이 나태일, 사사키 유미 부부.

# 여름 아웃리치 본격 시작!

## 45개국 121개 지역 3천 여 성도 참가 3일, 10일 아웃리치 위한 특별기도회

2012 여름 아웃리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올 여름에는 45개국 121개 지역으로 3천 여 성도들이 해외 아웃리치 길에 오른다. 특히 블레싱 사하라를 주제로 아프리카 19개국으로 28개 팀 600여 성도들이 북음을 들고 떠난다.

부서별 아웃리치 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체와 캠퍼스가 52개 팀, 대청 47개 팀, JDS 49개 팀, 차세대 28개 팀, 국제부 및 간사팀 13개 팀, 선교 및 기관 12개팀으로 총 201개 팀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도 오는 7일 아웃리치 발대식이 거행되는 두바이 집회에 참석하고 세네갈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국내에서도 아웃리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다.

오는 3일과 10일 각각 서빙고 시온홀과 서빙고 한동홀에서 오후 7시 20분부터 2012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열린다.

기도회에서는 아웃리치를 떠나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의 제단을 쌓는 의미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TIM 소속 김경찬 선교사와 손충성 선교사는 선교지 소식을 전해줄 예정이다. 중보기도로 아웃리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도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블레싱 사하라”를 주제로 2012 여름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사진은 3일 모잠비코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간사팀원들.





01

## 장춘 종교국 관계자 방문

지난달 28일, 장춘 종교국 관계자들(김립성 장춘시 종교국장 외 6명)이 온누리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했다. 이날 온누리교회 교역자와 Acts29위원들과 만나 교회 탐방 및 만찬을 함께 했다. 장춘 종교국 관계자들은 “중국에 기독교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앞으로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7박 8일 동안 온누리교회 교역자와 Acts29위원들과의 만남, 온누리교회 탐방, 양재 주일1부 예배 참석, 여수 박람회 및 정선 개미마을, 남산 한옥 마을 방문 등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29일 중국으로 떠났다.

/ 황치연 기자

02

강동

## 지구촌 구석구석 섬기러 “함께 가요”

### 아웃리치 준비 마지막 특별예배

“프라이스 공동체가 해외 12개, 국내 10개 팀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떠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 되어 겸손히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지난 17일(주일) 오후 2시 강동 캠퍼스 본당에서 열린 청년부 예배, 프라이스 공동체의 신민주 MC가 여름 아웃리치를 위한 기도를 나직이 울기 시작했다.

2012 아웃리치 시즌에 발맞춰 강동 온누리에서는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예배’를 지난 6월 10일(주일)부터 3부 예배를 통해 한 달 동안 진행했다. 이번 특별예배의 설교는 >10일 도육환 목사(이천선교 본부장) >17일 조정민 목사(CGNTV 대표) >24일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차례로 맡아 아웃리치와 선교에 관한 메시지를 젊은이들에게 열정적으로 전했다.

예배의 피날레는 오늘(1일)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의 설교로 장식된다. 최목사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강동은 올 여름 ‘Hug’를 주제로 아프리카 베냉,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중국, 라오스, 일본, 네팔, 캄보디아 등의 해외 아웃리치와 평창, 보은, 하동 등지에서 국내 아웃리치를 실시한다.

#### # 1탄 ‘이 복음을 위한 행진’

특별예배 첫 번째 시간에서 도육환 목사는 ‘이 복음을 위한 행진(롬 10:13-15)’를 주제로 설교했다. 도목사는 “선교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이



강동온누리교회가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예배’를 드리고 국내외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고, 예배는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시간을 조심스럽게 내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 2탄 ‘믿음의 삶’

조정민 목사는 ‘믿음의 삶(롬 12:14-22)’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복음을 끊임없이 전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축복, 공감, 겸손, 선행 그리고 화

평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 # 3탄 ‘무명의 선교사’

세 번째 시간에는 ‘무명의 선교사(행 11:19-21)’라는 타이틀로 박종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름 없는 선교사들의 이야기와 자신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했을 시절의 일화를 밝힌 박목사는 “편견, 미움, 한계와 상처를 뛰어 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감당했던 무명의 선교사들의 삶을 우리들이 닮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onnuri.org



01

평택

# 평택 대청, 첫 아웃리치 떠난다



평택 온누리가 아웃리치 준비에 한창이다. 대학청년부는 중국 청도로 첫 아웃리치를 떠난다. 또한 평택의 책임선교자인 아제르바이잔과 M센터에서도 아웃리치가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평택 파워웨이브의 인천 아웃리치 모습.

평택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처음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번 아웃리치는 오는 7월 5일(목)부터 11일(수)까지 중국에 있는 청도 온

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청은 이번 아웃리치에서 차세대 예꿈 캠프 진행, 땅 밟기, 현지교회 방문 등으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청은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중보기도모임을 하고 있으며, 지난주부터는 릴레이 금식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다. 또한 6월 한 달 동안 청년부 주일 예배에서도 '선교'를 주제로 설교가 진행되었다.

조현수 목사(평택 차세대 및 대학청년부)는 "이번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청년들에게 계속적인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갖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편 대청 외에도 평택 온누리는 국내외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다. 해외로는 평택 캠퍼스의 책임선교자인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에 오는 8월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다녀오게 되며, 국내로는 작년에 방문했던 안산 M 센터를 찾아갈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02

## 수원 알림

### ■ 남누리 공동체 아웃리치

7월 21일(토) ~ 7월 26일(목) 캄보디아 프놈펜

남양주

중국 자매의 편지

# “온누리교회의 헌신 본받겠습니다”

지난달 2일 중국 현지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양육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다. 중국인 자매가 일대일 수료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이 편지와 함께 이번 일대일 양육에 참여한 정인숙 집사의 간증을 들어보았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선생님들께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료한 자매입니다. 중국에 오셔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짧은 만남을 통해 선생님들의 진실된 신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삶에서 진실되고 활발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저희들을 격려해주시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저희들을, 중국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들은 선생님들에게서 예수님의 신묘 막측하심과 감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생님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 이런 교회와 주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제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번 일대일 양육과정을 통해 우리들도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목숨까지 바치는 온누리교회의 헌신을 본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모범을 본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오시길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이신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교회 동반자 자매.

정인숙 집사의 간증

# “그곳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3명을 양육하고 동반자들을 수료시키면서 업그레이드 된 양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념하고 있던 중 이번 일대일 양육

은 세계 한줄기 밝은 빛이 비추듯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게 될 동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반자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A교회 젊은 부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아기를 시댁에 맡기고 저에게 안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감격으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젊은 남편은 출근 전에 기타를 치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워간 중국 찬양을 같이 하자고 했고, 함께 찬양하며 중국인들과 한 마음이 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단 한번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찬양 후 부부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에 또 한번 감격했습니다.

제 동반자는 담당목사님이셨습니다. A교회 목사님과 삶은 물론, 교회의 어려움, 목사님의 고민, 중국교회의 실상과 선교현황 등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중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배워 타 교회에도 전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일대일에는 다른 교회 목회자들도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양육자반을 수료하셨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개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삶을 나누었지만 중국에서는 그 분들과 지속

적으로 교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예전부터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었으나 이번에 A교회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대일 양육받은 사람이 다른 양육자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도대를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라고 했습니다. 이번 여름 블레싱 사하라를 통해 아프리카 땅을 밟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일대일 양육과 큐티를 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01

단동

### 윤형주 장로 찬양 전도집회 열어



젊은 시절에 닦진 절망의 순간에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증거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단동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교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찬양 고백을 들으며 이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따라하는 등 성령의 감동이 집회 가운데 임했다.

한편 아웃리치 중인 CGNTV팀은 이날 하루 동안 음향과 방송시스템을 점검해주고 행사진행을 도와주었다.

/ 성사용 통신원

지난달 6일 단동 온누리교회가 윤형주 장로를 초청해 찬양 전도집회를 열었다. 이날 찬양 전도집회에는 교회 1회 행사상 가장 많은 인원(276명)이 참석하는 은혜가 있었다. 윤장로는 찬양을 통해 인기 절정이던

02

로스앤젤레스

### 갈 것인가? 보낼 것인가?

제5기 'Why Missions' 사명, 부르심 확인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Why Missions(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첫 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 그리고 선교’ 강의를 통해 도육한 목사(이천선교)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월 5일 진행된 제5기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Why Missions’는 25명의 예비선교사를 배출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5기 ‘Why Missions’는

도육한 목사와 손정래 장로(ITMA)를 강사로 초빙해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는 자’ 로의 부르심과 ‘보내는 자’ 로의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었다. 6개조로 편성된 자원자들의 뜨거운 나눔의 열기와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선교사역팀의 헌신적인 지원이 협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지원자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는 대학청년부를 대상으로 6기 ‘Why Missions’를 계획 중이다.

/ 이동오 통신원

03

대련

### 중국 난치병 어린이 위해 자선장 개최

지난달 2일 대련 온누리교회가 제4회 중국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장을 개최했다.

성도들이 기부한 물품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서로 나누며 행복 가득한 장터를 이루었다.

이날 모금된 수익은 대련지역 교회협의회를 통해 한국에 오는 의료팀과 중국 홍십자사를 지원하고 있다.

/ 정성에 통신원





## 결혼 30주년 선물은 “아웃리치”

결혼 3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섬긴  
용산공동체 사랑5순 김현태, 김병희 부부

결혼기념일에 근사한 식당에서 잘 차려진 식사를 하는 것보다 인도네시아 반동 지역 현지 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마음을 나눈 부부가 있다. 주인공은 서빙고 캠퍼스 용산공동체의 김현태, 김병희 부부다. 지난 6월 28일(목) 서빙고 커피숍에서 김 성도 부부를 만났다.

### 결혼기념일에 선교지로 출발

결혼기념일을 앞둔 어느 날, 아내 김병희 성도의 머리에 붙힌듯 ‘인도네시아’ 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예전부터 가족과 관계가 깊었던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했고, 김 성도가 비전을 품고 있는 땅도 사실 인도네시아였기 때문.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남편 김현태 성도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번 결혼기념일 30주년에는 어떻게 보낼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럼 우리 인도네시아로 갈까?”

곧바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현지에서 사역하는 박성문 선교사(정천교회 소속, GMS 파송)에 연락을 취했다.

“현지에서도 두 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할 때였는데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네요. 두 분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3박4일 동안의 결혼기념일 아웃리치 여정이 시작됐다.

### 인도네시아에서 본 현장

6월 7일(목)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120km 떨어진 반동으로 향했다. 그동안 다른 곳으로 아웃리치도 다녀왔지만 이렇게 열악한 상황과 맞닥뜨린 건 처음이었다. 오물처럼 보이는 물을 자연스럽게 마시고, 쓰레기 더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그저 충격적이었다. 그 땅을 향한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첫날은 소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세 곳을 방문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8%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 드러내놓고 예

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김 부부는 자유롭게 많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다.

둘째 날은 반동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전깃불도 없고 화장실이나 생활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학교 문을 수리해주는 사역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밝은 미소를 보이며 웃어주는 아이들을 보며 힘을 얻었다. 오후에는 박 선교사가 사역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마지막 날은 주일인 관계로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현지인들도 한국말로 된 찬양을 불러주며 부부를 축복해주었다.

### 인도네시아, NO에서 YES로!

김 성도 부부와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년 전 어느 날, 김병희 성도는 꿈을 꾸었다. 안방에 들어섰는데 장롱 앞에 얼굴이 까만 사람들이 방안 가득하

게 모여 둘러앉아 있는 게 아닌가. 그 당시만 해도 그들이 인도네시아 사람일 거라는 생각 못했다. 단지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궁금증만 있었다. 20년 전의 꿈이지만 지금도 잊히지가 않았다.

10년 전 여름에는 가족 모두 인도네시아 발리로 놀러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향 때문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돌아왔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지난해 인도네시아에 진도 7.1의 강진이 났다. 김 성도는 새벽기도에 나와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기도를 했다. 자신도 모르는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그 땅에 밀려든 쓰나미가 마치 예수님의 눈물 같았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땅이 나와 정말 관계가 있는 땅일까?’ 여러 번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 어두운 땅에 환한 불빛을 주고 싶다고

6월 5일이었던 결혼기념일 30주년을 앞두고

고 재 삶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사랑5순 지체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땅을 밟을 계획입니다.”

남편 김현태 성도의 고백에 김병희 성도도 거듭했다.

“저도 아웃리치는 7박8일을 기다려도 이동하는 시간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사역하는 데 있어 효율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박4일의 일정이었는데도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현장을 둘러보고 알뜰하고도 영양가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웃리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고 배우는 소중한 통로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다시 인도네시아를 가게 되면 선교사들이 일 년 동안의 결과를 보여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부는 오는 11월 열리는 가고시마 러브소나타에도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서ပါ. 저희 사랑5순의 70%가 함께 러브소나타에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 선교지에 힐링캠프 세우는 가족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진 김 성도 가족은 부부와 두 아들이 단란하게 살고 있다. 부부는 이렇게 고백한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일을 잘 붙들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어요. 정말 올바른 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일을 가족이 하고 싶어요.”

부부의 직업은 엔지니어와 간호사다. 두 아들은 모두 치과의사다.

“두 아들이 사실 시간을 내가 어렵겠지만 각자 2주씩 한 달 동안의 시간만 있어도 인도네시아 현장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짐은 저와 남편이 있고 아이들은 아들과 저와 함께 치료를 하면서 그 땅에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이 저희 가정의 비전이예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 가족이 선교를 하는 쓰임 받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김 성도의 가정, 부부가 꿈꾸는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힐링캠프가 세워지길 기도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30주년에는 특별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세요.’ 그때 머릿속에 인도네시아 땅을 향한 불이 켜졌다. 그년부터 조금씩 이어져왔던 인도네시아와의 인연이 준비 단계를 마치고 실행 단계로 옮겨진 것이다. ‘NO’였던 땅이 ‘YES’로 다가왔다.

### 선교에 불붙인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저는 사실 작년에 아웃리치를 처음 가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땅을 섬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이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 외국인 학생? 내국인 선교사!

## ‘온누리 장학금’ 수혜 학생 리트릿 열어 2천 선교비전 공유, 온누리 멤버십 체험

지난 6월 9일 토요일, 네팔, 러시아, 미얀마, 몽골, 케냐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양평 용문산 자연휴양림에 모였다. 온누리교회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이 리트릿을 위해 모인 것이다. 이날 학생들은 레크리에이션, 바비큐 파티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비전을 공유했다.

###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2002년도부터 온누리교회는 햇빛트리나 디신학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2010년부터는 2월 비전헌금을 통해 온누리 M미션 신학생들도 함께 후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온누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수는 583명. 올해는 트리니티 8명, 온누리M미션 23명을 지원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까지 학생들이 한국 내에서 공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 왔다. 그렇다보니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면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일쑤였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학업을 마치고 자국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길 소중한 선교 자원인 이들을 교회는 올해부터 장학금 지원과 더불어 온누리 멤버십을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온누리 장학금’을 받게 되는 신입생부터는 인선M센터에서 예배를 드리며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온누리의 한 멤버로 소속감을 형성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도 교회와의 멤버십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학업을 마치고 온누리선교사로 소속되어

자국에서 사역하길 원한다면 선교훈련을 받은 후 온누리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 "모든 나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감동"

이날의 리트릿은 바로 그 귀한 선교자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2천 선교의 비전을 소개하는 귀한 자리였다. 리트릿의 가장 인기 시간은 바비큐 시간이었다. 샐러드, 소시지, 돼지갈비, 과일 등 푸짐한 저녁메뉴가 한상에 차려졌다. 모두 접시 한가득 담아 식사를 즐겼다.

함께 한 학생들 중에 푸앙(26세)이라는 예쁘고 참한 여학생을 만났다. 라오스에서 온 자매의 본래 이름은 푸앙말라이 파나퐁(Phouangmalay chanthavong) 한국어로는 ‘평안’이라고 했다. 라오스에 있을 때 한국 선교사가 붙여준 이름이라고 했다.

푸앙 자매는 라오스에 있을 때 한국선교사를 만나 함께 2년 동안 사역했다.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몰랐던 자매는 8살 때 아버지를 따라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 자매는 한국선교사



를 만나게 됐고, 성경에 대해 더욱 알고 싶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 자매에게 한국선교사는 신학교 정보 웹사이트를 알려주었고 햇빛트리나 디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받아주었다.

햇빛트리나 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간다. 그 시간동안 그녀는 공부와 함께 수월 캠퍼스 어린이 영어예배에 선생님이 되며 어린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고 있었다.

푸앙 자매는 기자에게 자신의 마지막 학기 공부를 위해, 어디를 가든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라오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서 아시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아이들과 깨진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고 비전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매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미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셨다고 생각한다. 오늘 리트릿을 통해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마다 주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사하라 땅에 축복의 바람이 불게 하소서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 팀이 아프리카를 떠난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성도들은 요즘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아웃리치 팀을 받는 현지 선교사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계실까? 현지 선교사들이 블레싱 사하라 팀에게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과 기도 제목을 편지로 보내왔다.

올해 여름 온누리교회와 ‘블레싱 사하라’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님의 백성을 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에 보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잊혀진 땅, 전쟁이 있는 땅, 사막화로 인하여 기근이 있는 땅, 많은 부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땅, 정치적인 갈등으로 내전이 끊임없이 있는 땅, 회교와 기독교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땅, 불어와 아랍어로 인한 선교 후보생들과 교회들이 기피하는 땅, 여러 질병으로 사망률이 높은 땅,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 주님께서 이번에 주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사하라 땅에 블레싱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 드립니다. 복음의 소망이 넘치는 땅, 부족간에 화해가 일어나는 땅, 전쟁이 종식되고 질병이 고쳐지는 땅, 주의 종들이 섬기기를 원하는 땅, 축복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모든 참가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

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현자인들을 섬기게 하소서.

이끄는 분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현지 사역자들을 잘 돕게 해 주시고 모든 여정에 주님께서 친히 먼저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낯선 기후와 문화와 음식과 언어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역으로 기후로 지친 주의 종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파송한 교회들이 저들을 위해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공향 세관을 잘 통과하고 짐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세관원들에게 선한 마음

을 주시고 시비를 하지 않도록 막아주소서. 수도에서 마을로 경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잘 도착하고 또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카누를 타고 강을 건널 때도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기라 비포장이라서 질퍽하고 웅덩이가 많은데 차가 빠지지 않고 마을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저들이 떠난 후에 축복의 비를 허락하소서. 모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하게 하옵소서. 섬기는데 건강을 주소서. 낯선 음식을 감사히 잘 먹게 하시고 바쁜 물로 인해 배가 아프지 않도록 하소서.

진료를 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이 잘 배우고 통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드 김영섭 선교사



01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첫 번째 마을,

# 파키스탄 후시푸르 비전센터 완공

## “지구촌에 더 멋진 마을 100개 세울 것”

“네 뺨을 물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전 11:1).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 100개의 더 멋진 마을(Better Village)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은누리 소속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이 지난달 15일 첫 번째 마을을 조성했다. 파키스탄의 후시푸르 마을에 비전센터를 오픈한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터를 닦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물을 세운 후시푸르 비전센터 완공식에 다녀온 최진혁 기획실장(NGO 더 멋진 세상)의 글이다.

### 후시푸르 비전센터 오픈

후시푸르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8천 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은누리교회는 2010년 파키스탄이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을 때 NGO ‘더 멋진 세상’ 을 통해 수해복구지원비 10만 달러를 지원하면서부터 이곳을 섬기게 되었다. 이곳 환경은 낙후 그 자체다. 이런 곳에 기금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후시푸르 비전센터가 오픈한 것만으로도 기쁨이 벅차다. 후시푸르 비전센터가 이곳을 복음화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완공식에는 한국에서 NGO 더 멋진 세상의 CEO 김광동 장로와 최진혁 기획실장, 현지에서는 폴 바티 파키스탄 소수민족 장관을 비롯한 현지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폴 바티 장관은 은누리교회와 NGO 더 멋진 세상 측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후시푸르 비전센터를 모델로 자립을 위한 뉴빌리지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소외당하고 핍박 받고 있는 크리스천 빌리지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동 장로는 “60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소득 2만 달러

와 인구 5천 만명이 넘어 ‘20-50클럽’에 가입한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다”면서 “파키스탄도 한국처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는 소망을 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주민들의 자활 돕는다

후시푸르 마을의 리더십들과도 만나 지역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자활과 주민들의 건강증진, 건강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한 방안들이 발표되었다.

가장 먼저 염분기가 높은 물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이 단축되고 농사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식수와 농업용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마을에서 3km 떨어진 수원(水源)과 마을을 파이프로 수도로 연결해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농수로를 재구축하기로 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30%이상의 농업소득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건강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번째는 후시푸르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논의를 했다. 2층 건물인 후시푸르 비전센터는 1층 메인홀에는 사무실 및 회의실로, 2층은 강의실, 컴퓨터실, 도서관,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술학교(기술, IT), 소규모 공장(가족, 세라믹, 타일, 비료)을 운영해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신앙교육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큐티방을 개설해 주민들이 바른 신앙교육을 받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인재 양성도 병행

올해 11월에는 새마을 운동중앙회와 협의해 후시푸르 마을 리더십 2-3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배우게 할 예정이다. 현재 NGO 더 멋진 세상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새마을운동을 파키스탄에 접목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고 있다.

또한 마을청년 2-3명을 한국에서 유학 시킬 계획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협의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

수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유학한 청년들이 외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는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중앙대, 경북대와 협력해 대학원 과정에서 리더십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사업의 초점은 그들의 자립이다.

후시푸르 비전센터는 후시푸르 마을의 비전과 소망이다. 이곳 사람들은 기도와 후원으로 자립이라는 희망을 선물 받는다. 이곳의 복음화를 꿈꾸며.

지구촌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고 있는 ‘NGO 더 멋진 세상’. 재난, 가난, 질병 등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 흘리고 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에 중보기도의 씨앗이 필요하다. 더 멋진 마을 100개 세우지는 그날까지 중보기도와 후원이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 최진혁 실장

02

# 더 멋진 세상은

### 일본 쓰나마이 긴급구호 사업

기간: 2011.3.11-5.1

사업내용: 쓰나마이지역 긴급구호팀 파견(8차, 35명)

1차 봉사팀(4.8-15일, 14명)

이와테현 가미야시 지역

### -침수건물 보수, 현지교회 복구

2차 봉사팀(4.18-24일, 10명)

이와테현 오후나토 지역

### -교회복구 및 대피소 사업

3차 봉사팀(4.25-5.1)

이와테현 오후나토 지역

### -교회복구 및 대피소 사업

생활필수품 지원(일본 아가페 CGN NGO 협력)

-4.7일 5 컨테이너 발송, 일본 아가페 CGN 지원, 후쿠시마 침례교회 지원

지원예산: 2억 7천 1백만 원.

### 터키 지진피해 지역(VAN)구호 사업

지역: 터키 동부 VAN 주 동쪽 19km

기간: 2011.12.5-16(12명)

사업내용: 개량형 천막 50동 설치, 전기난로, 식료품 지원

지원예산: 40,000\$



### 태국 홍수피해 지원

지역: 나뭇바롬 팻랑족

기간: 2012.2-3월

사업내용: 팻랑족 162가구 정수시설, 침구류, 긴급의료용품, 쌀, 방역용품 지원

지원예산: 1천 9백만 원.

### 2012. 8 서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예정

후원계좌: 예금주사)더 멋진 세상

하나은행 573-910009-09905

문의: 02)3215-3791

www.abetterworld.or.kr

2012년 7월 1일 906호

- 01- 더 멋진 세상 파키스탄 후시푸르 비전센터 완공식 다녀와서 : 최진혁 실장(11면)
- 02-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구호사업 소개 및 계획 안내(11면)



0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버지학교'  
- 7월 2일(월) 오후 8시20분  
아프리카의 오랜 약속을 끊고 아버지들이 변화되는 남아  
공 아버지학교 현장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기획대담] 한국 선교의 미래를 말한다  
- 7월 2일(월) 오후 10시20분  
OMF선교회 김승호 선교사, GO선교회 주누가선교사  
등 선교단체장들에게 듣는 사역과 비전 이야기입니다.

# 대청, 복음 전하러 떠난다!

공동체별 3천 4백여 명, 8월 21일까지 진행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움 없는 세대 대학청년들이 올 여름 세상 곳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하다.

대청은 '함께 기뻐하라(Rejoice Together)'를 주제로 지난 1일 하늘 공동체의 블레싱 요르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웃리치에 돌입했다. 대청의 아웃리치는 7월부터 8월까지

지 진행되며, 블레싱 사하라를 비롯해 해외 24개국, 국내 42개 지역으로 약 3,400여명의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된다. 해외는 미전도종족 전도, 차세대 문화사역, 현지 선교사 협력사업 등의 사역을 진행한다. 국내는 차세대 여성성경학교, 교회보수, 거지전도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하나님의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아웃리치를 떠나는 대학청년들에게 이상준 목사(대청 본부장)는 "아웃리치를 통해 열방 중에 복음이 증거될 뿐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서빙고-한샘간사(3215-3759)

양재-이용희간사(570-7521)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2012 해외 아웃리치 일정표

대청구	기간	지역/사역	대청구	기간	지역/사역
요셉	7/6-7/15	코트디부아르	여호수아	7/12-7/22	캄보디아
	7/14-7/22	가나		7/18-7/28	프랑스/독일
	7/21-7/25	라오스		7/21-7/29	스리랑카
	7/26-8/5	이스라엘		7/21-7/28	인도
	7/29-8/5	러시아		7/29-7/29	인도네시아
	8/15-8/19	일본		7/29-7/31	일본
	7/6-7/15	세네갈		7/29-8/05	이스라엘
	7/27-8/2	몽골		7/29-8/4	중국
	7/28-8/5	이스라엘		8/12-8/19	인도
	7/13-7/21	튀니지		8/13-8/18	중국
W	7/18-7/23	몽골	가렛	8/13-8/19	베트남
	7/27-8/2	몽골		8/14-8/19	중국
	7/28-8/5	이스라엘		7/7-7/16	부르키나파소
	7/13-7/21	튀니지		7/14-7/20	캄보디아
	7/18-7/23	몽골		7/21-7/28	인도
	7/27-8/2	몽골		7/23-7/28	중국
	7/28-8/5	이스라엘		8/15-8/21	일본
	7/1-7/8	요르단		7/27-7/24	일본
	7/19-7/25	베트남		7/27-8/2	캄보디아
	GIL	7/27-8/2		캄보디아	J40
7/4-7/13		아랍트	7/6-7/14	튀니지	
7/16-7/24		중국	7/10-7/22	니제르	
7/20-7/27		일본	8/6-8/17	몽골	
7/25-7/31		일본			
7/1-7/8		요르단			
7/19-7/25		베트남			
8/3-8/8		일본			
7/6-7/15		세네갈			
7/11-7/18		터키			



## 전신갑주 입은 727 군사, 열방으로 출동

### JDS, 21개국 58개 지역으로 파송

예수제자학교(JDS: Jesus Disciple School) 훈련을 마친 727명의 훈련생들이 몽골,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중국, 터키, 모로코, 러시아 등 총 21개국 58개 지역으로 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

지난 7월 3일(화) 서빙고 주간반 15기 파송식이 서빙고 시온홀에서 열렸다. 파송식은 ▷성찬식 ▷메시지 선포 ▷십자가 예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십자가 예식(춧불로 세워진 십자가 주변에 한 명씩 누워 몸을 십자가 상태로 만드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렸다. 이어 순종과 연합의 의미로 팀원들이 팀종을 어깨 위로 올려 중보하는 예식도 진행됐다.

이훈 목사(JDS 담당)는 “우리는 함께 동역하기 위해 주님이 부르신 존재”라고 강조하며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의 몸을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올여름 서빙고(주간 15기, 저녁 13

기)와 양재(주간 10기, 저녁 8기), 부천(주간 1기), 수원(주간 7기, 저녁 8기), 남양주(주간 2기), 인천(저녁 1기) 캠퍼스에서 JDS 훈련을 마친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한다. 지난 7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몽골,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중국, 라오스 팀이 아웃리치를 떠났다. 내일(9일)은 중국 쿤밍팀과 인도 델리팀, 러시아 부랴티아팀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예정이다.

JDS팀은 오는 8월 19일까지 모든 아웃리치 일정을 마치고, 이후 아웃리치 보고회를 가질 계획이다.

/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한 학기 동안 예수제자학교 과정을 밟은 훈련생들이 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 이들 727명은 지난 7월 4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선포한다. 사진은 서빙고 주간반의 십자가 예식.

01



## ‘블레싱 사하라’ 복음 선포

### 서빙고 노원, 요르단 아웃리치

아시아 서남부에 위치한 아랍왕국, 기독교 인구가 6%밖에 되지 않는 땅, 요르단에 노원공동체가 복음의 깃발을 쫓았다. 지난 6월 7일(목)부터 16일(토)까지 9박10일 동안 서재범 목사(노원공동체)와 15명의 노원공동체 지체들이 요르단 아웃리치가 시작됐다.

요르단은 노원공동체가 섬기고 있는 책임선교지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노원공동체는 네 번에 걸친 성령집회와 저녁집회를 통해 요르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섬겼다.

지역의 첫날인 8일 저녁에는 선교사 세 가정을 초대해 선교지의 상황과 지역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 날에는 자발웨디교회를 방문해 만남의 잔치와 서재범 목사의 인도로 성령집회가 진행됐다. 주일인 10일에는 가든교회에서 찬양집회와 성령집회를 열었고, 팀모임이 이어졌다. 1박2일 동안 행해졌던 사막생활 체험을 통해서 암몬성과 느보산, 사해, 거라사 지방, 아줄론 성을 방문하는 성지순례와 페트라와 와디랴, 요르단 남부의 항구도시 아카바(홍해)를 돌아봤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느꼈다는 정음화 총무는 “날씨가 무덥다 못해 뜨겁고 물도 부족하고 척박한 그 땅에서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받았다”면서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로해 드리고 땅밧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심고 돌아와 기쁘다”고 고백했다.

/ 정자은 기자

02

### 평택 → 알림

#### ■ 평택

##### 안산 M센터 아웃리치

8월 11일~12일 안산 M센터

내용: 현지 노방전도, 지역사회 청소 봉사, 열방 및 리시어예배 참석, 다문화 식생활 체험

#### ■ 대전 아웃리치

##### · 유성공동체

7월 11일(수)~15일(주일)

인도네시아 반둥

##### · 동누리공동체 아웃리치

7월 18일(수)~23일(월) 필리핀

##### · YDS 아웃리치

7월 23일(월)~28일(토) 라오스

##### · 영아부&유년부 아웃리치

8월 13일(월)~20일(월) 캄보디아



01

책임선교지 첫 아웃리치 '아제르바이잔'

## 또 하나의 열매 꿈꾸며 메마른 그 땅으로!

평택 온누리가 오는 8월 16일(목)부터 23일(목)까지 책임선교지인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책임선교지로 지정된 2009년 이래로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평택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격려하고 이스탄불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의 땅 밟기, 기도모임 등의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शल렘과 기대감을 갖고 아웃리치를 준비 중인 구금회 집사(믿음 5순)는 "아웃리치가 태어나서 처음인데 아제르바이잔이 현재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등 준비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아제르바이잔(Azerbaijan)이 궁금해요!



위치: 아시아 남부 카스피해 연안  
 인구: 817만 7717명(2008년 현재)  
 면적: 8만 6600km<sup>2</sup>  
 수도: 바쿠  
 화폐단위: 마나트(Manat, AZM), 1달러=0.80마나트

언어: 아제르바이잔어  
 종교: 이슬람교(93.4%), 러시아정교(2.5%), 아르메니아정교(2.3%), 기타(1.8%)  
 수교일: 1992년 3월 23일



02

대 련

## 예배찬양 컨퍼런스 개최

지난달 15일부터 3일 동안 대련 온누리교회가 박희광 목사를 초청해 예배찬양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예배찬양컨퍼런스에 참석한 150여명의 성도는 >예배란 무엇인가 > 예배의 태도와 방법 등을 배웠다. 또한 찬양팀과 회중들은 모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 정성에 통신원

01

# 10억 아프리카여 “복이 있으라”

## 두바이에서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44개팀 아프리카 19개국에서 진행

지난 7일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에서 세네갈로 아웃리치를 떠나는 이재훈 담임목사팀을 비롯한 미주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 남양주 아웃리치팀, CGNTV팀, 차세대팀, 주향한성가대 아웃리치팀, 대학청년부 아웃리치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10억 아프리카인을 가슴에 품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관문 두바이 DECC 마라나타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온누리교회 아프리카 아웃리치팀, 두바이 한인교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 600여 명이 참석해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의 재단을 쌓아 올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참석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드라마가 완성된다. 거역할 수 없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고 권면했다.

이어 도옥환 목사(이천선교)의 인도로 아프리카 각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고 아프리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선교공동체를 만들기로 결단하는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아웃리치 발대식 전에는 이재훈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 원장)가 ‘기도의 대상 이슬람, 사랑의 대상 무슬림’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담임목사는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를 주제로 선교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전했다.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블레싱 사하라는 8월말까지 44개팀이 북서부 아프리카 19개국에서 진행된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창립 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관련기사 2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현장. 10억 아프리카인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했다.

02

## 죽 받아주세요!

### 해외 아웃리치 팀 위해 본사랑 후원

해외 아웃리치 팀을 위해 본아이에프(주) 본사랑에서 죽을 후원합니다. 영양부족 아이들을 위한 분말 형태의 죽으로 따뜻한 물에 타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분말죽입니다. 분말죽 형태(2kg)이며, 영유아

기준 50명, 아동기준 20명 분량입니다. 해외 아웃리치 팀에만 해당되며 팀별 6kg(3팩) 후원됩니다. 분말죽은 서빙고 성전 이천선교 본부에서 17일(화)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사랑(본아이에프(주))은 2009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굶주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변화와 행복을 돕기 위해 취약계층 영양급식사업(국내/해외), 장애아동 꿈드림 사업, 소아암 아동지원, 해외아동계 발사업, 쪽방촌 섬김 사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이천선교 김민규 간사  
(02-3215-3208)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2년 7월 15일 908호

- 01-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진행(1면)
- 02- 본아이에프(주) 본사랑 : 해외 아웃리치 팀 위한 죽 후원(1면)





# 아프리카를 품다

800미터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칼리파가 우뚝 솟아 있고 멋들어진 고층 빌딩들이 위엄을 자랑하는 두바이. 건축물들의 공연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았다. 연일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는 '이곳이 한중 막인가?' 하는 착각이 들게 했다. 아프리카를 향하는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두바이가 북서부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장소로 정해졌다. 이미 아웃리치를 다녀온 팀들과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 두바이에 모

인 아웃리치팀들은 10억 아프리카인들을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했다. 기도열기가 어찌나 뜨겁던지 한중막을 뚫어붙게 하는 두바이의 높은 기운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아프리카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성도들. 북서부 아프리카를 축복하며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맺은 열매를 기대한다.



2012년 7월 15일 908호

• 두바이에서 열린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스케치(2면)





주일강단



황중연 목사

# 내 양 떼를 먹여라

몸과 마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전도여행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여행만큼 복 받을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 요한복음 21:15-17

요한복음 21장 15-17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죠.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베드로가 맡고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의 옷을 입히기 위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이 시점의 베드로는 예전과 달라 보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해서 자신을 표현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실재를 발견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딛고 다시 한 번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잘 알고 계십니다. 창조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구분해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맡기신 명령이 결국 실패했을 때에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지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온 힘을 다해 사역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크고 깊은 사랑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힘들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 과거를 보지 않는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네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요 13: 34-36).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랑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을 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자신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수한 축복을 거둬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귀중한 보물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일수록 거두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일수록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왜 공부를 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고 이제 떠나셔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남은 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맡긴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가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때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난 후에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오늘을 위한 준비입니다. 또한 내일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 실제적 필요 채워주는 것이 우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자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약 2:15-16).

여러분, 아웃리치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 땅 밟기, 영적 전쟁도 좋지만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어야 합니다. 병이 든 사람들은 병을 고쳐주어야 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곳은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웃리치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성동적인 아웃리치를 위해서는 육체적인 필요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가가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몸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 떼를 먹여라.’”(요 21:16).

몸을 살렸으면 이제 마음을 살려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친구가 필요한 시대이고, 살아갈 의미와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대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기를 원하시는 영혼을 향해 다가갈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고민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누어 주어 아깝습니다.

### 영혼까지 살리는 아웃리치

여러분이 아웃리치에서 몸을 살리셨으면 이제 마음도 살리십시오. 사람을 건져주셨으면 보파리도 줘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미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몸을 통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여는 열쇠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웃리치를 갈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은 마음의 문도 잘 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까지는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웃리치는 영혼까지 접근해야 합니다. 몸을 살렸으면 마음을 살려야 하고, 마음을 살렸으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여행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자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갈 2:20)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둘째, 언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사 6:8).

선교 현장은 열약합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면 황재한 것입니다. 그것만큼 복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아웃리치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CMN 아웃리치 발대 예배...8개팀 286명

만 17살 주낙형 형제 여름방학의 하이라이프는 아웃리치이다. 외국에 유학중인 주 형제에게 아웃리치는 가족모두가 모이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경험했다던 주 형제 누나의 아웃리치에 대한 고백에 2003년 그의 아버지는 직업과 관련 있는 CMN의료선교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그 후 여름마다 가족들은 아웃리

치에 동참했다. 올 여름에는 주 형제와 아버지 주인탁 성도가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떠나기 전 캄보디아 프놈펜 팀장을 맡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 주 형제는 지난 7일(토)에 열린 CMN 여름아웃리치 발대예배에 참석했다.

예배에는 올해 CMN 아웃리치를 떠나는 8개 팀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렸다. 강의와 워크샵 시간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다. 특히 초기 온누리 교회 의료 선교회의 일원이었던 오규명 목사(일상평강교회, 서울모자이크교회 협동목사)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과 차주용 선교사의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을 재점검했다.

발대예배에 참석한 이대현 성도(필리핀 보홀섬 팀장)는 "지금까지 5번째 아웃리치 의료사역에 참가하는데 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아웃리치도 기대하며 나간다"고 말했다.

올해 CMN은 필리핀 마닐라(7/17~22), 필

리핀 보홀섬(7/18~23), 캄보디아 프놈펜(7/21~26), 아프리카 케냐(7/21~30), 아프리카 시에라리온(7/28~8/4),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8/8~12), 캄보디아 헤브론병원(8/10~15), 아프리카 탄자니아(8/25~9/1)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현재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팀이 치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김의석(010-2865-5354).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국내 아웃리치 지역 (42개 지역 80개팀) 총2500명

**Team Introduction**

**인천/경기 \*3개지역 3팀 70명**  
요셉 양주, 허브 인천, 대부도 요셉

**충청 \*10개지역 18팀 490명**  
W 간담, 충주, 여호수아, GIL 2, 갈매, 배산, 창원, 여호수아, GIL 사산, 옥천, 여호수아, GIL, 여호수아, J&J 2, 대안, 진천, 여호수아, 하월, 여호수아 3, 보은, 보은, 여호수아

**전라 \*12개지역 19팀 502명**  
요셉 2, 무주, 익산, 여호수아, W, 허브 곡성, 고신, 여호수아, GIL 부안, 무안, 여호수아, GIL 영광, 남원, 갈매, 하월 4, 여호수아, 예수, 군산, 갈매, 여호수아 2, 진주, 고창, J&J

**제주 \*5팀 40명**  
제주도 W, 허브 4

**강원 \*9개지역 18팀 470명**  
요셉 할성, 영월 4, 요셉 3, 중해, 화천, 여호수아, W, 공신, 고성, 여호수아, GIL 2, 춘천, 속초, 여호수아, Pokel 4, 공창

**경상 \*7개지역 17팀 509명**  
요셉 4, 사천, 고원, 여호수아, 여호수아 4, 문경, 함산도, 갈매, 여호수아, 하동, 영주, J&J, 합천, 허브 5

## 청년들이여 영적으로 무장하라

### 아웃리치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중'

대청연합은 'REJOICE TOGETHER(함께 기뻐하라)'를 주제로 영적 무장을 위한 아웃리치 준비가 한창이다. 6월 아웃리치 스쿨에 이어 현재 각 공동체별 홀리스타에서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재2부 새벽예배에서는 지난 토요일(14일)까지 2주 동안 이상준 목사의 인도로 출발하는 아웃리치 팀들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시간과 함께 블레싱 사하리를 위해 집중 기도했다. 이상준 목사(대청본부장)

“이번 아웃리치는 무엇보다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적무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윤영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선교MC)는 “직장 상사 눈치 보며 뻥 귀한 1주일 휴가, 한달 월급을 투자해 하나님을 전 하겠다는 여호수아의 청년들을 통해 은누리교회의 DNA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아웃리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4일(수) 양재2부 새벽예

배에서는 다음날 떠나는 감비아 팀을 위한 중보시간이 있었다. 예배 후에 이어진 감비아 팀 모임에서는 감비아의 날씨 등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안전을 위해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다.

감비아 팀은 21명으로 여름성경학교, 노방전도, 오지사역 등을 할 예정이다. 감비아의 감자영 팀장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작은 땅 감비아. 그 곳에 우리의 작은 발자국이지만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전해질길 바란다”며 함께 기도해주길 부탁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성령의 바람이 홍해를 갈라라!

### 신바람 프로젝트, 아웃리치 위한 '홍해기도회'

부천 대학청년연합 드림(Dream) 공동체는 지난 6월 22일부터 3주 동안 금요일마다 모여 홍해기도회를 통해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홍해기도회는 4월부터 진행되어온 신바람(Divine wind)프로젝트가 지역사회를 넘어 7, 8월 국내의 아웃리치로 펼쳐지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 기도회는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바람을 기억하며(출 14:21) 아웃리치 현장 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기도회였다.

매 주마다 중국 사천과 모로코, 전라도 강진과 충청도 광천 등 아웃리치 팀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 시간을 가졌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 맞춰 떠나는 모로코 팀은 “죄”(틀)사하라, ‘갑’ 사하라, 블레싱 사하라”는 구호를 만들어 외치며 무슬림의 영적사막에 하나님의 길을 만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드림공동체는 모든 아웃리치 일정 이 마치는 오는 8월 12일에 전 공동체가 대부도에 모여 석양을 바라보며 아웃리치 감사예배를 드릴 것으로 신바람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다.

/ 조은실 기자





아프리카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블레싱 사하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세네갈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있다.

# 아프리카의 눈물 닦는 '블레싱 사하라'

## 교육, 의료, 생활환경 개선 사역 이제 중보기도로 축복 이어가야

전쟁, 굶주림, 질병으로 신음하고 남진하는 이슬람 세력으로 영적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북서부 아프리카를 축복하는 '2012 블레싱 사하라'가 아프리카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지난달 24일 모리타니아 아웃리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7월 21일 기준) 23개 팀이 아프리카 10개 지역에서 교육, 의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8월말까지 총 44개 팀이 아프리카

19개국에서 복음을 노래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도 지난 7월 두바이에서 진행된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을 마치고 세네갈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 목사는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의 시범 사역지와 현지 학교 및 보건소 등지를 방문했다. 은혜로운 아웃리치 간증도 줄을 잇고 있다. 한국인이 거의 거주하지

않는 모리타니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국 여행객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면, 현지인들과 함께 부른 찬양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워 녹음을 해왔다는 팀도 있다. 지금은 이슬람 세력이 자리 잡아 지상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천여 년 전 교회가 있었다는 곳을 방문해 찬양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며 천

년 만에 찬양으로 영광 올렸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10여 아프리카인을 가슴에 품고 떠난 블레싱 사하라. 이제는 중보기도로 아프리카를 축복해야 할 차례다.

관련기사 4~7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8월 2일, 4일, 5일 비전빌리지와 서빙고에서

홍정길·김진홍·이동원 목사 메시지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기일인 8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에는 비전빌리지에서 홍정길 목사가, 8월 4일(토) 저녁 7시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김진홍 목사가, 8월 5일 주일예배에서는 이동원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에는 데니스레인 목사 부부,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했던 목회자 등 국내외에서 조문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회만이

이재훈 담임목사팀 - 세네갈 아웃리치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과 하늘을 뒤덮을 기세로 날아다니는 독수리 때가 일행을 반겼다. 이곳은 아프리카 서쪽 끝에 위치한 세네갈공화국이다. 동쪽은 말리, 남쪽은 기니와 기니비사우, 북쪽은 모리타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은 대서양에 면하여 있다. 해안선 길이가 무려 531km나 되는 무역항이자 국제도시이다.

세네갈에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렵다는 워로프족을 비롯해, 페울족, 세렐족, 만딩고족, 투쿠로족, 디오라족 등 다양한 부족이 모여 살고 있다. 국민의 94%가 무슬림인 이곳에 1만 2천 3백여 명의 크리스천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는 가나와 나이지리아 등지에서 건너온 크리스천이 대부분이고, 순수 현지인 크리스천은 0.12%에 불과하다.

### 아무것도 없어 평안한 나라

세네갈은 말리, 기니와 함께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이지만 이슬람 세력이 견고해 전도가 녹록치 않은 곳이다. 선교사 비자를 주는 것도 이슬람 세력의 견고함을 과시하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희망적이다. 이유는 풍부한 자원이 없는 것과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투표용지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정치가 안정된 나라라는 점이다.

풍부한 자원이 없는 것이 희망적이라는 표현이 역설처럼 들리지만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은 자원 때문에 종족 혹은 종교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네갈을 '아무것도 없어 평안한 나라'다.

###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곳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이곳 사람들은 가난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산물 수출과 농업을 활성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네갈은 수산물과 땅콩이 유명하다.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갈치 대부분이 세네갈에서 공수해 온 것이라고 한다. 갈치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을 만나 인사도 나눴다. 이곳 사람들의 주식에는 땅콩으로 만든 음식이 빠지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작물을 재배해서 굶주림에서 벗어나려는 눈물겨운 노력들을 볼 수 있었다. 농업용수는 커녕 식수로 사용할 물도 부족한 곳에서 양동으로 물을 이고, 지고 와서 작물에 물을 주는 아낙네의 얼굴에는 무거운 인생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내쉬는 한숨소리에서는 팍팍한 삶이 엿보였다.

### 교육선교와 비즈니스 선교

척박한 곳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 세네갈에서의 선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선교이고, 하나는 비즈니스 선

교다.

교육선교에 집중하고 있는 존 웨슬레 학교 방문으로 세네갈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존 웨슬레 학교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네갈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 정동제일감리교회와 건설했다. 학교에 들어서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가 귀를 타고 가슴에 흘러들었다. 존 웨슬레 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얼마나 극진하게 가르치고, 돌보는지 아이들의 표정만 보아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존 웨슬레 학교는 올해 12월에 중학교 과정

목사님이 걸어 온 길이 그들이 갈망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을 듣는 일석이조의 전도방법인 셈이다.

### 순순한 사람들, 리크로스 마을

다음 행선지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의 시범 사역예정지 리크로스(Rac Rose) 마을. 움푹 파인 길을 2시간 여 달렸을까. 마을 앞에 다다르자 눈앞에 장관이 펼쳐졌다. 호수 주변에 온통 새하얀 소금산이 우뚝 솟아 있고 붉은 빛으로 물든 호수..

## 풍부한 자원 없고, 정치가 안정된 나라 교육선교와 비즈니스선교로 복음화 꿈꿔

을 개설 할 예정이고 고등학교 과정이 생기기 를 기도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30분씩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종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세네갈의 미래를 이끌어갈 크리스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했다.

비즈니스선교는 현지에서 30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님이 모델이다. 사진관을 운영하며 현지 한인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미 호수'라고 불리는 이곳은 천연 염천이다. 호수의 수심이 3m인데 반은 소금이고, 반은 물이다. 호수가 바다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있어 바닷물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소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호수가 붉은 빛으로 물든 것은 현지인들은 호수에 사는 조개의 영향을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호수가 많은 미네랄을 흡수해서 물을 붉은 빛으로 변하게 하는 에너지 를 만들고, 태양 광선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붉





# 희망이다



은 색소를 생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희한한 풍경이었다.

마을에 들어섰다. 이미 차세대팀이 캠프를 진행했고, 남양주팀의 사역이 한창이던 때라 마을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다. 그곳에서 한국의 이장님 같은 선교사를 만났다. 마을사람들을 극진히 살피고 마을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파울로(PAULO)라는 선교사다. 차세대팀은 무슬림 마을인 이곳에서 영화 '예수'를 상영했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은 매우 순수했다. 준비해간 모기장,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자 환호하며 기뻐 뛰는 그들의 등심이 아름다웠다. 이곳에서 NGO

문이었다. 오죽하면 '아프리카 속담에 바오밥 나무가 없다면 아프리카가 망한다'는 속담까지 있오랴.

바오밥 나무 옆에 짙은 초록을 뽐내는 식물이 눈에 띄었다. 네버 다이(never die)라는 풀이다. 이 식물은 이름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한다.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의 팍팍한 삶과 닮았다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네버 다이는 아프리카의 생명력을 웅변하고 있었다.

### 눈물로 얼룩진 역사 '고래섬'

마지막 일정은 고래섬(Goree) 방문. 배를 타



##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는 처절한 노력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묵상한 전도여행

'더 멋진 세상'은 아프리카 어린이가 생명 살리기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아프리카의 상징 바오밥 나무

마을 아귀에 아프리카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웅장한 바오밥(Baobab) 나무가 있었다. 어른 세 명의 아픔이 필요할 정도로 웅장했는데 그 큰 나무가 바람이 불면 넘어진다고 한다. 바오밥 나무가 아프리카 상징이 된 이유는 한 순간도 골게 자라지 못하고 굽어서 자라는 모양새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닮았기 때

고 20여 분 바다를 가르자 육구슬처럼 맑은 바닷가에서 해염치며 노는 개구쟁이들이 보였다. 아프리카 속의 유럽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절경은 한 순간에 눈길을 빼앗았다. 마음을 매료시킨 이 아름다운 섬에는 눈물로 얼룩진 역사가 숨어있다.

길이 900m, 너비 300m인 고래섬은 영국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점령을 받으면서 미국적인 섬으로 변했지만 과거에는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핵심기지였다.

노예의 집을 복원한 곳에 가보았다. 5평 남짓한 방에서 십여 명의 사람들이 조기 위듯이 이

어져서 생활했다고 한다. 어린이, 여성들도 노예로 보냈다. 몸무게가 60kg 미만인 사람은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살을 찌운 뒤 노예로 파는 잔인한 일을 자행했다고 한다.

1815년 노예무역 폐지 된 이후 인구가 급감했고, 현재는 세네갈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오히려 평안하다는 세네갈. 그곳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삶이 이어지고 있다. 고래섬 정상에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법이 무엇인지를 묵상했다. 그래! 교회만이 희망이다. 하나님은 분명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픈 기억도, 굶주림도, 질병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막지 못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네바다이 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 김남원 부장 one@annuri.org



### 이재훈 선교사가 들려주는 아프리카 이야기



#### 아프리카 오렌지는 썩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연은 썩지 않고 말라서 없어진다고

#### 아프리카 미(美)의 기준

남자는 키가 크고, 마르고, 긴 얼굴이, 여자는 얼굴이 둥글고, 뚱뚱할수록, 입술이 검을수록 아름답다고

#### 아프리카인의 삶 웅변하는 바오밥 나무와 동키

골게 자라지 못하고 굽어서 자라는 모양새와 서툰게 우는 울음소리가 아프리카인들의 팍팍한 삶을 웅변한다고

#### 아프리카인들의 의상

눈에 띄기 위해 진하고 감렬한 색상의 옷을 선호한다고



01

하늘공동체 **요르단**

# 요르단에 울려 퍼진 사랑노래

7월 1일, 설렘을 가득 안고 요르단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목상하고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를 기대하며 요르단 땅에 발을 내딛었다.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22명의 팀원들을 반갑게 맞아 주셨다. 우리를 바라보는 선교사님의 눈빛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기억되었다.

###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첫 일정은 모세를 기념하는 느보산 탐방이었다. 느보산은 출애굽 사건의 종결점이며,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곳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팀이 사역할 가든교회로 이동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자기목사님이 팀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아웃리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아웃리치 둘째 날, 교회팀과 태권도팀, 음악팀으로 팀을 꾸려 사역을 시작했다. 음악팀에 소속된 나는 암몬성으로 이동했다. 암몬성은 성경에 랍바(Rabbah)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다. 또한 우리야 장군이 죽은 곳이



기도 하다. 암몬성 주변을 바라보며 이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상상하며 기도했다. 공연을 위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음악학원 중 80%가 무슬림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는 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무슬림을 품고 기도했다. 요르단에서는 음악 자체가 생소하다고 한다. 음악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한다. 우리팀은 '사랑'을 주제로 공연을 준비했다. 이곳에서는 CCM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메시

지가 담긴 곡들을 선정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음을 표현하기 위해 민요와 단소연주, 꼭두각시 공연도 준비했다. 드디어 공연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관객들의 반응이 이상했다. 사마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음악을 즐기기 시작했다. 우리의 사랑이 전해진 것이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일하신 열매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몹시 아쉬워했다. 그렇게 우리팀과 관객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

###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빛

셋째 날, 장애인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기관으로 향했다. 장애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네 아이들도 우리의 공연을 보러왔다. 기뻐했다. 우리와 처음 만난 아이들의 눈빛에서 사랑을 갈망하는 애처로움이 느껴졌는데 공연이 진행되자 애처로운 눈빛이 기쁨과 사랑으로 반짝였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 줄 수 있어 행복했다. 마지막 일정을 위해 모든 팀이 교회에 모였다. 교회에서 예배에서 온 형제의 간증을 들었다. 그분은 라디오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 집을 나왔다고 했다. 그 형제를 보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곳에서 선교사님이 나에게 '눈물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셨다.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요르단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다. 요르단을 위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성도님들께도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고 싶다.

/ 박수정 자매  
(하늘 공동체)



02

차세대 교역자 교사 **세네갈**

#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

차세대 교역자와 교사 아웃리치팀은 지난 6월 30일~7월 8일 8박 9일 동안 서부 아프리카 땅, 세네갈의 복음화를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웃리치팀은 '여호와께서 친히 네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신 31:8)' 말씀을 붙잡고 >어린이 성경캠프 > 사진 촬영 > 태양열판 설치 등의 사역을 섬겼다.

###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

6월 30일, 인천공항을 떠나 두바이를 거쳐 세네갈 다카르까지 도착하는 데 꼬박 24시간이 걸렸다. 세네갈은 거리만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까만 피부와 9등신에 가까운 사람들의 외모부터 시작해 내 눈 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 낯설어 마치 현실이 아닌 4차원의 공간에 와 있는 듯 했다. 전 국토가 공사를 하다 만 듯 제대로 된 건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고, 땀을 흘리는 자동차를 피해 도로를 걷는 길로 건너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 반대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화십 선교사(세네갈 선교 교회)와 파울로 선교사(라코르즈 마을)의 배움을 받으며 장미호수라 불리는 라코르즈 마을에



들어갔다. 그곳은 사하라이남 지역에서 가장 먼저 이슬람을 받아들인 세네갈에서도 지극히 폐쇄적인 마을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께서 어린이 성경 캠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된 곳이었다. 성경 캠프는 준비부족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져서 그 어떤 근사한 캠프보다도 아이들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 캠프 기간 내내 불렀던 "썩트네, 썩티요!" 찬양이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나 그 가정으로, 라코르즈 마을로, 세네갈로, 아프리카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흘러가기를 기도했다. 캠프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날씨가 간섭해서 이상기온으로 예년보다 높지 않은 기온 속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요리사 출신인 파울로 선교사의 부인 루시를 통해 풍성하게 영양을 공급해주셨다. 오후에는 짝지만 대서양의 깨끗한 바다에서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코

르즈 마을에서의 마지막 밤에는 파울로 선교사의 요청으로 우스타스(종교지도자)의 집 벽을 스캔한 삼아 예수님 생애에 관한 'YEESU 예수' 영화를 상영했다. 이 영화는 라코르즈 마을 사람들의 언어인 월로프어로 된 최초의 영화였다. 영화 상영 전 폐쇄적인 이슬람 마을에서 우리는 우리말로 마음껏 찬양을 불렀고, 그곳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한류 스타라도 되는 것처럼 환영해주었다. 그러나 이 일은 이화십 선교사의 표현에 의하면 돌에 맞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다. 이슬람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외쳤으니! 예수님에 관한 영화가 그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다음 날 마을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에 관한 얘기가 계속 되었고 다른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가 왜 우리 마을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지 않느냐는 원성이 있었다고 한다. 꿈결처럼 라코르즈 마을에서의 시간이 지나고 두바이 집회를 위해 세네갈을 떠났다. 세네갈 아웃리치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이었다.

/ 김지아 교사  
(양재 품방 소년 2부)



2012년 7월 22일 909호

- 01- 요르단 아웃리치 보고 : 박수정 자매(하늘 공동체)(6면)
- 02-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지아 교사(양재 품방 소년 2부)(6면)



블레싱 사하라 동행 취재기 - 모로코, 모리타니 편

# 이슬람 심장을 가진 두 국가를 정탐하다

간사 팀인 '모리타니팀'은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의 일정으로 블레싱 사하라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기사는 모리타니 팀원으로 함께 동행하며 모로코와 모리타니 땅을 정탐했다. 예상치 않은 일과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모리타니 팀은 돌아와서도 현장에서 보고 듣고 만난 이들을 위해서, 마지막 블레싱 사하라 팀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이웃 리처를 이어가고 있다.

다리는 '아프리카', 머리는 '유럽', 심장은 '이슬람'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로코 왕국. 북아프리카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을 뛰어넘어 이슬람과 아랍어권에 속한다.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던 모로코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대륙은 '아프리카', 지향하는 문화는 '유럽', 7세기 후반에 이슬람 군대가 들어왔을 때부터 뿌리박힌 '이슬람'은 그들의 심장이었다.

팀은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서 머물면서 모리타니 비자를 신청하고, 메디나(Medina)를 탐방했다. 메디나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큰 재래시장이었다. 좁은 미로와 하얀 회칠을 한 긴 담벼락으로 시장이 이어졌다. 전통의상을 펼쳐 관광객에게 옷을 파는 상인, 각종 향신료를 파는 가게, 모로코 역사가 그려져 있는 그림들, 검은 차도르를 온몸에 감고 손과 발에 하나로 묶은 여성, 시장 안의 모스크 등 한 시간이 넘게 땅바닥을 하며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 메디나에서 나와 15분 정도를 더 걸어 우데야 마을로 이동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겼다. 편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여자들의 모습은 차도르를 둘러싸고 남자와 거리를 두어 다니는 여자들과 달라보였다. 웃도 편하고 시원하게(?) 입고 있었다. 젊은 세대의 사람들 특히 유학을 다녀왔거나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 들일수록 이슬람 문화관에서 벗어나 보았다. 그러나 모습만 그렇게 보일 뿐 그 마음은 여전히 동일한 이슬람 심장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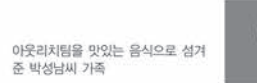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모리타니로 이동하는 일정이 하루 늦춰졌다. 27일에 이동해야하는 비행기 티켓이 비자문제로 취소가 됐기 때문이다. 카사블랑카에 있는 숙소로 가는 길에 막 군대를 제대한 듯 보이는 청년이 도움을 청해왔다. 말이 통하지 않고 늦은 밤이라 우리



모리타니에서 만난 자선가로 세계여행중인 김형상 씨와 쌍둥이 아들.

모로코에서 만난 지육이



아웃리치팀을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 준 박성남씨 가족



숙소에 함께 머물기로 했다. 청년의 이름은 '지육'이었다. 스페인을 여행하기 위해 왔고 경유지인 모로코를 구경하기 위해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중에 해매고 있었다고 했다. 유럽 여행객들이 도와준다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웬지 믿음이 가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우리를 만났다고 했다.

다음 날 지육은 스페인으로 향하고 우리는 모리타니를 가기 위해 함께 공항으로 갔다. 공항에서 지육이와 팀원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고마워서라도 꼭 집 근처인 양재 온누리교회에 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팀 일정이 바뀌었을지언정 지육을 만나 도움을 주고 교회에 나오도록 스스로 다짐받게 되는 과정을 보며 한 영혼을 위해 팀

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거룩한 땅 '모리타니',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누악쇼트'

28일 모리타니에 도착했다. 그러나 팀원 모두가 아닌 절반만 3명뿐이었다. 항공권을 다시 사면서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는 예상치 못한 일을 수습하느라 발권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로인해 3명만 발권이 됐고, 나머지 3명은 하루를 더 모로코에서 머물게 됐다. 팀원 모두는 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며 인도하심에 맡겼다. 29일, 드디어 모리타니 팀 6명 전원이 모리타니 땅에 모두 모였다. 하루 만에 부쩍 성숙해진 모습들이었다. 연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짐을 느꼈다. 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마음이 있었다. 거룩한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스스로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한다는 것. 그날 밤 팀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떻게 들어온 모리타니 땅 위해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다.

모리타니에서 우리의 사역은 누악쇼트 땅 밭기였다. 모리타니 수도인 누악쇼트는 가장 큰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전체적인 도시의 이미지는 정진없을 만큼 복잡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한가로워 보이지도 않았다. 낮의 도로는 조용했고, 오히려 밤의 거리는 복잡했다. 60도까지도 올라가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낮의 활동을 하지 않고 대부분 오후 늦게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웅장함을 드러내는 모스크는 모스크 펜스 밖의 각종 쓰레기들과 힘없이 주저 앉아있는 염소들과는 대조되어 보였다.

땅 밭기의 하이라이트는 '사막'과 '바다'였다. 사막 초입에 새로 지어지는 수많은 집들이 있었다. 신도시였다. 가뭄이 이어지면서 살기 힘들어진 사람들이 누악쇼트로 올라온다고 했다. 이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의 무지함이 보이는 듯 했다. 양쪽 사막을 끼고 아스팔트가 반듯하게 깔려있었다. 중국인들의 업적이라고 했다. 중국인들이 모리타니에서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처음에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좋았으나 지금은 중국인들의 무차별한 비즈니스로 오히려 시선이 좁아져갔다고 했다.

사막에서 30분을 차로 이동하니 넘실대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땅을 삼킬만한 파도위에 고기를 잡는 배들이 빼곡히 있었다.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도 따로 없었다. 그냥 파도에 밀려 자연스럽게 나가고 들어오는 그곳이 바로 부두였고 선착장이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인지 떨어진 물고기만 잡는 아낙네들도 있었다. 이 풍부한 어장으로 대서양의 모리타니는 살아가고 있었다.

누악쇼트에서의 사막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바다는 그들의 생명줄이었다.

오래 기억하고 평생 중보하기

10박 11일 일정동안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많은 것을 보여주지 위해 이미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팀의 일정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사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곳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위해 오래 기억하고 길게 마음에 품으며 평생 중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 이원하시는 아웃리치가 아닐까.

/ 조은실 기자 ces@annuri.org





송파공동체 인도네시아 람퐁

#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송파공동체 10명의 자체가 지난 6월 29일 (금)~7월 4일(수) 5박6일 동안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두 달 전부터 이들은 매주 모여 인도네시아 땅과 그곳에 계신 두 명의 공동체 책임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중보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 ‘영과 육’ 치료하는 홈-케어

송파공동체 아웃리치팀이 람퐁에 도착하자마자 이곳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는 디나 목사님을 만났다. 먼저 홈-케어(home-car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섯 팀을 만들었다. 홈-케어 프로그램은 치료비가 없어 점점 더 병이 깊어지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무료로 진료해주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우리들이 처음 방문한 장소는 거친 비포장 도로를 지나 몸을 구부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집이었다. 이곳에는 당뇨병으로 다리가 잘린 아저씨와 19개월 된 아기가 원인 모를 병으로 누워있었다. 또한 다가오는 죽음만을 아픈 가슴으로 기다리는 아이의 엄마, 열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이 귀신들려 집을 떠나고 두 자녀와 집을 지키는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과 육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을 만



났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그들과 함께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를 해주었다. 그러자 그들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같은 날 오후에는 람퐁에 있는 한 병원 내의 입원 환자들을 방문해 기도와 선물로 그 영혼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했다. 둘째날 주일에는 메트로 GKBS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오직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마 6:33)’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요성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



은 하나님 나라와 뜻에 관심이 있고 이를 구하므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된다”면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우시마까시공동체와 나는 ‘기쁨의 교제’

예배 후 우리 팀은 우시마까시공동체의 학생들을 찾아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난 사람’을 불러주며 축복했다. 찬양하는 가운데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서로 받은 감동을 나눌 수 있었다. 이어 팀원 중 세계적인 기업의 법인 대표로 계시는 이광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며, 이곳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기도하며 미래의 인도네시아를 빛내는 주역, 더 나아가 세계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증을 마치자 팀원들은 학용품들을 선물로 전달했다. 그리고 주변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곳은 어느새 눈물바다가 되었다. 우리는 근처에 있는 센터룸으로 장소로 옮겨 그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간식을 나누며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 후에는 우시마까시공동체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네 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제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부흥 기독교학교의 교사를 초청해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웃리치 팀원들은 사역을 마치고 서로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 쏟으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 정현숙 집사 (송파공동체)



## 1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집회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이어지는 이번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기도회와 함께 특별강의도 마련됐다. 무슬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목), 심대섭 선교사 ‘무슬림 문화의 이해’ >31일(화), 손동현 선교사 ‘무슬림의 전략과 영향

력’ >8월 9일(목), 차주용 선교사 ‘무슬림 세계관’ >8월 16일(목), ‘무슬림 선교’ 등으로 4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서툼은 서빙고 9시, 양재 9시 30분에 운행한다.

문의: 031-331-819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 터닝포인트 찍고 '새로운 출발'

5주 동안 단기선교훈련 TP (Turning Point) 과정을 마친 15명의 수료생들이 선교사의 삶을 시작했다. 이번 TP과정은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대부분 한국지체들이 참여하던 과정에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등지에서도 훈련생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수료생 김 에스더 자매는 "다르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고,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수료예배에서 도육환 목사(전 선교본부장)는 참가자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해 달려가는 신실한 사역자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조은실 기자

02



전교인 필독서

##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케이티 데이비스는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의 다복한 가정에서 자란 스물세 살 아가씨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과 보장된 미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을 떠나 우간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열 네 명의 꼬마 숙녀들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돌보고,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들을 돕고 있다. 그녀의 삶이 선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03

##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홍렬의 꿈꾸는 자전거

- 7월 26(목) 오후 11시 20분

'이홍렬의 국토대장정'으로 모인 1000대의 자전거를 남수단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01

# 하용조 목사 소천1주기 “목사님 보고싶습니다”

추모예배 2일 비전빌리지, 4일 서빙고  
이번 주 새벽예배 하용조 목사 영상설교

교회가 내일(30일)부터 8월 4일(토)까지를 故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을 발표했다.

하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는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비전빌리지와 4일 오후 7시 서빙고 은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메시지는 2일 홍정길 목사, 4일 김진홍 목사가 전한다. 추모기간 동안 새벽예배에는 하용조 목사의 믿음 시리즈 설교를 영상으로 상영한다.

비전빌리지에서 드리는 추모예배에는 공동체별로 키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참석해야 한다. 2일 오전 8시 30분 서빙고와 양재 은누리교회에서 비전빌리지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체별로 담당교역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교회 측은 성도들에게 “추모예배

에 참석할 때에는 복장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에는 데니스레인 목사 부부를 비롯해 대만, 일본 등지에서 조문객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CGNTV는 오는 31일 저녁 9시 30분에 하용조 목사의 일생을 재조명한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하용조’를, 8월 1일 오후 9시 40분에는 하용조 목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메시지 >인터뷰 다큐멘터리 ‘하용조’를 방송한다. 추모예배 심황은 생중계한다.

두란노는 오늘(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서빙고 1층 로비와 양재 사랑성전 로비, 화평홀에서 하용조 목사 사진 및 도서전을 연다.

<추모예배안내 9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우리사랑나눔美’ 가입하세요

은누리교회와 우리은행이 기부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협약한 ‘우리사랑나눔美’에 대한 홍보를 오늘(29일)과 다음 주일(5일) 서빙고와 양재에서 실시한다. ‘우리사랑나눔美’는

가입해서 받은 특별금리(최대20%)를 은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에 기부하는 상품이다.

수익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말라리아 퇴치 및 보건의료 환경 개선사

업에 사용된다. 본인의 서약에 따라 특별금리를 받은 만큼의 이자 또는 원금과 이자 모두를 교회에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은누리교회를 비롯한 영락교회, 광림교회, 사랑의 교회 등 20여 개 교회 성도들이 ‘우리사랑나눔美’에 가입해서 얻은 이익을 교회에 기부하고 있다. 문의: (792-1390)

/ 김남원 부장

03

## 선교사 파송

카일리(동아시아 C국)

-MK사역을 통해 차세대지도자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다윗/정빛 (중동 A국)

-대학 내 교수사역 및 한국 대학들과의 교류가 잘 성사되고, 그 가운데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는 지혜 주시도록

2012년 7월 29일 910호

• 01- <故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 안내(1면)  
• 02- 은누리교회& 우리은행 협약 ‘우리사랑나눔美’ 홍보 행사(1면), • 03- 선교사 파송 : 카일리(동아시아 C국), 이다윗-정빛(중동 A국)(4면)





만남 : 비전트립의 감동을 일러스트로 나누는 이준천 형제

## '열방' ... 그곳에 하나님의 꿈이 숨 있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의 청소년부와 에베림, 아프리카 선교팀을 섬기고 있는 광고 및 그래픽 디자이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 1년 4개월 동안 33개 나라, 150 지역으로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여행지에서 느낀 감동과 스토리를 담아 쓴 '미션 아트북'인 <33나라 지구별 비전트립>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며 그림과 디자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블로그 및 홈페이지 : [www.alltheheavens.com](http://www.alltheheavens.com)  
[www.33visiontrip.com](http://www.33visiontrip.com)  
<http://club.cyworld.com/timalrica>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스펙(Spec)이 아닌 스토리(Story)예요. 저도 사실 스펙 쌓는 디자이너였죠. 그러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한 소년이 있었다. 그 소년은 5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림과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자랐다. 성인이 되어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고, 예수전도단(YWAM)에서 사역하면서 그림과 디자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가 되겠노라 그 꿈을 차근차근 쌓아나갔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광고, 디자인 분야의 공모전에서 30여 회에 걸쳐 수상을 받았고, 누구나 모방하는 큰 회사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좋은 연봉을 받으며 세속적인 성공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주변사람이 부러워하는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부족함, 허전함이 늘 존재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진정한 기쁨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을 때, 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를 당했다. 스카우트 된지 1년 4개월 만에.

### "너를 열방으로 스카우트 한다"

2007년, 실직자 신세가 된 이준천 형제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며 절망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 때야말로 디자인과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비전을 다시 찾을 시기라고 확신했다. '열방에 대한 소망' 이 다시금 피어올랐다. '그래, 성경이 시작이자 배경이 되었던 그 땅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시작되었던 그곳으로 떠나자. 예수님의 흔적, 그 역사가 깊게 배인 지구 곳곳을 돌며 선교현장을 방문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던 중에 영국의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것은 영국에 와서 자신을 도와달라

는 것. 부흥의 꽃, 선교의 선배 나라였던 영국에 교회가 쇠퇴하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있다면서...

마치 하나님의 콜링처럼 느껴졌다. 주님이 열방으로 그를 스카우트 한 것이다. 그렇게 이 형제는 마음이 맞는 두 친구와 함께 비전트립을 계획했다. 처음에는 출애굽 루트로 영국을 포함한 18개의 나라를 돌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트립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다.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5대양 6대주, 33개국 150개 지역의 선교여행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최초 역사와 복음의 진원지인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복음의 서진 루트'를 따라 유럽, 아메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시아까지 지구 한 바퀴를 돌고 2009년 12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 비전트립으로 본 '하나님의 꿈'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여백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샘솟았다. 한번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림엽서를 디자인하여 판매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 형제는 영국 런던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 데이터를 한국으로 보내서 엽서 1000세트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 받았다. 전도를 하며 그 엽서를 팔았는데, 인기가 좋아 천 세트가 모두 팔렸다.

"비전트립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 역사, 인종을 보았어요.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열방의 소원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불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과 여러 인연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해주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지요."

젊은 패기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 한들 전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길'이 열렸다. 그는 타국에서 힘

들고 의로울 때, 주님께서 늘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새 힘과 믿음을 주셨다고 고백했다.

은혜 없이는 불가능 했을 비전트립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간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복음과 부흥이 지나간 자리, 잃어버린 영혼과 무너진 성읍을 다시 재건하려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이야기 등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 직접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 꿈같은 '미션아트 선교센터'

이준천 형제는 자신이 33나라 150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싶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안주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려나가고 계십니다."



어 또다시 1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책을 준비했다.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광고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는 성경 책과 카메라, 스케치북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땅에서 만난 교회와 사람들을 그림으로 표현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미션 아트북 <33나라 지구별 비전트립>을 지난해 6월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지난 2011년 올해(겨울분기)의 종교·철학 분야의 청소년도서로 선정되었고, 책의 출판과 함께 국민일보 선교기획 부분의 전면을 맡아 매주 글과 그림, 디자인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았다.

"저의 앞으로의 꿈은 문화와 디자인 창조를 통해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문화 부흥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영역인 디자인, 미디어, 예술 등을 배우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디자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창조물을 만들어 세상을 이기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해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형제는 올해 2월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재능나눔 프로젝트 '미션아트스쿨'을 무료로 진행했다. 1기 미션아트스쿨에 참석한 20여 명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꿈을 직접 디자인으로 표현해 엽서를 만들고, 아프리카에 기증할 티셔츠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 2기 과정은 올 여름 다시 진행되며, 이번 시즌에 만든 디자인 티셔츠는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 팀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그의 최종 꿈은 이러한 미션아트스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미션아트 선교센터'를 짓는 것이다. 그림과 디자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꿈을 찾게 하고, 전 세계 교회, 선교사님과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따라 젊은 날 한 때 주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보는 것.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그의 비전트립을 통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꿈을 향해 어서 떠나라. 더 늦지 전에."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 (故) 하용조 목사 1주기 추모 안내



추모기간  
2012. 7.30.(월) ~ 8.4.(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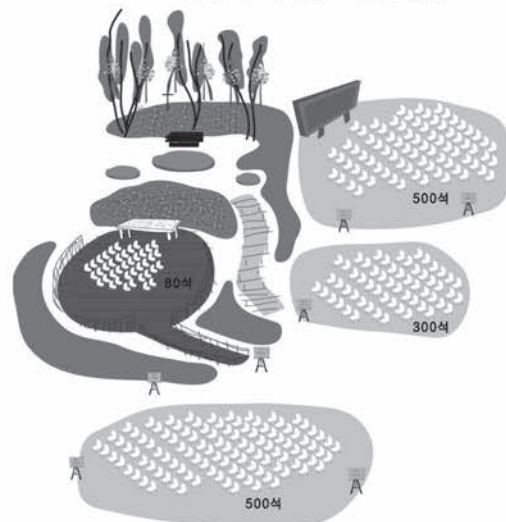
사랑하는 (故)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신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아래와 같이 추모기간을 갖하고자 합니다.  
열방을 향한 (故)하용조 목사님의 선교적 열정과 Acts29의 비전을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 1. 새벽예배 (故) 하용조 목사 영상설교

일시 : 2012. 7. 30.(월) - 8. 4.(토)  
장소 : 서빙고 및 전 캠퍼스

7/30 (월)	약속에 기초한 믿음   창 12:1~3
7/31 (화)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마 8:5-13
8/01 (수)	믿음대로 펼쳐어다   마 9:27-31
8/02 (목)	믿음의 실상과 그 증거   히11:1-6
8/03 (금)	믿음의 영웅들   히11:32-40
8/04 (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히 12:1-3

## 8월 2일 / 소천 1주기 야외추모예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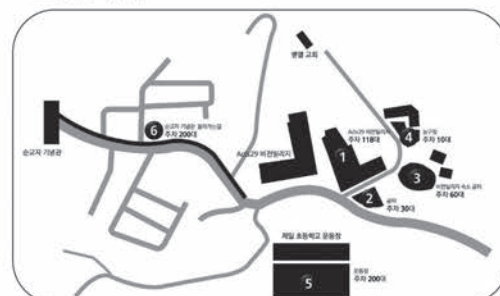
## 2. 추모예배

**2** 일시 : 2012. 8. 2.(목) 오전 10:30분  
장소 : Acts2 비전빌리지(양지)  
설교 : 홍정길 목사

**4** 일시 : 2012. 8. 4.(토) 오후 7시  
장소 : 서빙고 본당  
설교 : 김진홍 목사

\*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소속 공동체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 길



**Onnuri**  
Commun ty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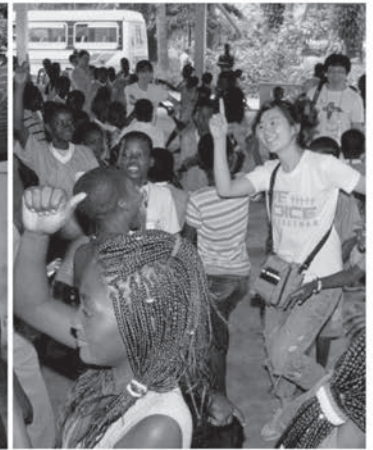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안녕하세요? 코트디부아르에서 기쁜 소식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2000년도 코트디부아르에 보냄을 받은 이래 처음으로 아웃리치 팀을 맞이해서 함께 동역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7일 온누리교회 요셉공동체 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8일부터 11일까지 600여명의 어린이와 함께 하는 성경 캠프를 열었습니다. 8일 주일예배에서부터 수요일까지 모든 아이들이 같이 한 캠프는 스태프들과 봉사로 도와준 현지인 교사들, 아웃리치 팀까지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팀이 혹시 잡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특별한 일 없이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천지창조와 댄싱, 찬양, 태권무, 드라마 등 아웃리치 팀은 많은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이들과 팀원들은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가 됐습니다. 한 아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반 이상이 모슬렘 가정의 아동들이었지만 단으로 나와 마음으로 기도 받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기도를 받지 못한 아이도 와서 왜 자신을 위해서 기도 해주지 않냐며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캠프 일정 중 마지막 날 바다에 가서 기뻐했던 아이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스태프들의 강력한 권의로 파도는 높았지만 바다에 들어가 놀도록 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웃음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리고 함께 놀아주는 아웃리치 팀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아웃리치 팀은 현지인 교사들과도 함께 나눔을 가지며 그들을 블레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비록 4일의 일정이었지만 헤어질 때는 모두 눈물을 글썽거리며 공항에서 배웅하는 아쉬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아이들을 위해서 지난 시간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웃리치 팀을 통해 저희도 큰 위로를 받았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1년간 쓸 수 있는 크레파스 연필, 풍선, 전도 도구, 축구공 등등 많은 선물도 받았습니다.

캠프 기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공향 픽업과 식사대접을 해 주신 현지 NGO단체의 몇몇 한인 이사님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열린 성경 압송대회에서 많은 성경구절을 외어서 교통비를 받은 아이들을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 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아동들 100명씩 차례로 센터에서 생일잔치 후에 아웃리치 기간 동안의 사진과 동영상상을 같이 보는 시사회를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즐거운 나눔의 시사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코트디부아르에서  
박광우, 고혜영, 박규형 선교사 드림



01

남양주 세네갈

# 성령의 사람을 통해 본 희망과 빛

지난 15일, 9박 10일 동안의 아프리카 세네갈 아웃리치를 마치고 귀국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한 달 반전부터 우리 세네갈팀(남양주 온누리 세네갈 아웃리치 팀)은 사역을 위한 준비와 기도로 매주 모임을 갖게 되었다.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팀과 각 사람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설명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 말씀으로 양육되기

8일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 도착했다. 서울의 모습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처음 본 다카르의 모습은 수도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낙후돼 있었다. 국민의 96%가 무슬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리를 향한 갈급함과 가난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세네갈의 국민들은 '마라부'라는 이슬람 종교지도 세력과 부패한 정치세력 사이에서 가난과 무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일어설 힘도 소망도 보이지 않아 더욱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께서서는 아웃리치 기간 중 두 분의 성령의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 팀을 인도하셨다. 처음 사역지에서 만난 브라질 파울로(PAULO)선교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여 풀라(PULAAR)족 마을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후원교회와 단체 하나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걸음을 내딛은 선교사님의 사역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흔적과 증거들이 확인됐다. 우리 팀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작은 학교에서 풀라 어린이들에게 찬양과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작은 수일이라도 말씀으로 양육된 이 아이들이 세네갈의 희망과 빛이 될 거라고 믿으며 아이들을 축복했다.

두 번째 사역지 음부르에서는 프랑스인 에릭 선교사와 함께했다. 가난한 농군학교를 전형으로 세네갈 청년들에게 복음으로 훈련

시키고 동시에 농업기술을 교육하는 브엘셰바 프로젝트(Beersheba Project)를 운영하고 계셨다. 현지인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믿는 그곳, 바오밥 나무 두 그루밖에 없던 황량한 벌판에 울타리를 치자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나무들을 자라게 하셔서 지금은 누가 봐도 황무지가 아니라 숲이 되어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땅에서 훈련받고 있는 14명의 인턴들을 만났다. 우리 팀은 스테프들과 인턴들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했다. 우리 팀의 한삼춤과 스킵드라마, 찬양에 대한 답례로 인턴들은 춤과 함께 세레(Serer)어 찬양을 불러 주었다. 이들도 이 세네갈 땅을 변화시킬 리더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 믿는다.

###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림이며 아프게 하는 장면이 있다. 조엘 목사님(에릭 선교사님이 양육하여 세우신 현지인 목사)이 하시는 탈리베 어린이사역에서 만난 걸인 아이들의 커다랗고 불안한 눈망울이다. 주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로 아주 어릴 때부터 '마라부'에게 맡겨져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지낸다. 그 아이들의 하루는 구걸과 뜻도 모르는 코란을 암송하는 것이 전부이다. 구걸을 나가서 일정량의 소득이 없으면 '마라부'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코란을 외우지 못해도 폭력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리는 잠시 그 아이들을 만나 음식과 비타민밖에 줄 수 없었지만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그 아이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히 느끼기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둠과 부패한 이슬람 종교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탈리베 아이들과 세네갈 전역, 더 나아가 아프리카 대륙에 임할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한다.

/ 김보람 성도  
(남양주 구리공동체)



02

간사공동체 모잠비크

#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다

모잠비크팀은 각자의 소속, 부여하신 마음, 아프리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잠비크 땅을 소망하는 그 마음만은 모두 같았다. 우리의 사역지는 모잠비크의 수도 마푸토에서 배를 타고 들어 가야하는 카렘베이다. 모든 사역 일정은 트럭을 타고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광활한 자연과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해줬던 주민들의 모습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 뜨거웠던 사역현장

첫째 날 세월의 흔적이 녹아있는 베이스에는 온누리상업고등학교와 컴퓨터교실, 도서관, 기숙사, 작은 오두막, 정원, 한쪽에는 강당이 몇 달간의 기초공사를 끝내고 벽돌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기초공사를 기계가 없어서 몇 달이 걸려야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 선교사님께서는 그것도 선교의 시간이라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공사로 몇 달간 일하는 분들이 출퇴근하며 드러지는 예배가 복음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둘째 날 사역의 불씨를 태운 씨미 중학교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리코더를 가르쳤다.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예상과는 달리 금새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기대 이상의 효과라며 선교사님이 무척 즐거워하셨다. 다음에 찾아간 켈리베이트, 사미사바에서는 마을아이들을 초청하여 율동과 여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였고 그 아이들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았다. 그러나 변변한 공간이 없어 갖지 못한 사미사바 병원의 천장만 있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어서 까치발을 들고 보는 아이들, 우는 아이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안타까웠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줘서 너무나 고맙았다. 오후의 사역은 새로 지은 씨미 유치원 벽화를 그리는 것이었다. 붓을 잡아본 경험이 전혀 아마추어들이었지만 현지 스텝까지 총 동원되어 그림을 벽화화

그리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벽화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에 우리도, 선교사님도 너무 뿌듯해하며 어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심고 돌아왔다. 한국에 돌아와 접한 소식에 의하면 이 아이들을 통해 고등부에 리코더반의 개설되어 모두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날 씨미교회,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왕관을 모든 성도가 나누어 쓰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의 눈에는 작지만 그 작은 것에 기뻐하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자 몇 개, 강대상이 전부인 시설의 교회였지만 그 곳에 울려 퍼지던 아름다운 화음의 찬양이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이곳의 예배를 누구보다 기쁘게 바라

보고 계시리라는 마음이 들었다.

### 그곳을 기억하며

온누리교회 간사로서 각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 있는 지금, 그 시간들이 마냥 행복했다고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프리카의 광활한 자연, 노래와 춤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전하려 애쓰는 현지 사역자분들, 모잠비크로 주님 따라 소풍 나온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아들, 딸같이 여겨주신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늘 부족한 모습임에도 그 모습 그대로 들어 사용하시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시간이었기 때문이라.

모잠비크 아웃리치가 그저 일회성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서 경험했듯, 각자에게 주신 마음을 품고 부족한 입술로 기도할 때, 모잠비크에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원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 안에 소망하는 마음까지도 그 분께서 주신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사자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 손영은 간사  
(양재 목회지원실)



2012년 7월 29일 910호

- 01-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보람 성도(남양주 구리공동체)(11면)
- 02- 모잠비크 아웃리치 보고 : 손영은 간사(양재 목회지원실)(11면)



01

TV 추천 프로그램



▷ [추모특집 다큐] 하용조  
- 7/31(화) 오후 9시 40분  
▷ [추모특집 인터뷰 다큐] 하용조(3부작)  
- 8/1(수) ~ 8/3(금) 오후 9시 40분  
지인들이 증언하는 故 하용조 목사의 삶과 믿음, 온누리에 남겨진 선교 비전에 대해 들어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Live)  
- 8/2(목) 오전 10시 30분, 8/4(토) 오후 7시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드리는 추모예배를 생방송합니다.



# ‘하나님의 더 큰 비전’ 이뤄가겠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맞은 온누리 하나님의 비전 계승·발전시킬 것 다짐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4일) 추모기간을 보낸 온누리교회가 질병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다 천국 간 하나님의 사람 하용조 목사의 삶을 본받기로 결단했다.

교회는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지난 2일과 4일 Acts29 비전빌리지와 서빙고 본당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새벽예배는 하 목사의 믿음 시리즈 영상설교를 상영했다. 추모기간 동안 성도들은 하 목사를 기리며 그가 남긴 하나님의 비전을 유지·계승·발전시킬 것을 다짐했다.

###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폭염의 기세도 예배 참석자들의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국내의 조문객과 성도 1천여 명이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홍정길 목사는 “하 목사가 생애를 걸고 보여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본받자”고 권면했다. 이동원 목사는 조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선교에 모든 것을 걸고, 한국 교회의 희망을 노래했던 하 목사가 그림다”고 했고, 일본 러브소녀다 실행위원장 미네노 목사는 고인을 일본 교회에 희망을 주신 분이라고 회고 했다. 온누리교회 부목사 출신 김영련 목사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것을 가르쳐주신 분”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 8월 4일 서빙고 본당

본관 로비에 전시된 하 목사 사진 및 도서를 둘러보던 성도들은 고인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눈물을 흘렸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김진홍 목사는 “고인은 천국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있을 것”이라며 유가족과 성도들을 위로했다. 데니스레인 목사 부부는 조사에서 고인과의 만남을 회고했고, 이어령 교수는 추모시를 읊조렸다. 김영길 총장은 조사를 하는 내내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 흘렸다. 유가족 대표 장남 성석 형제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 김남현 부장 one@onnuri.org

## 승리의 월계관

시인 이원로 장로  
(인제대학교 총장)

극심한 육신의 고통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모두를 바치시고 홀연히 소천하신지 어느덧 1주기 예뉘는 추모의 가슴에 눈물의 바다가 파도칩니다.

다정한 음성도 인자한 눈빛도 미소도 이제는 더 볼 수 없습니다. 수척한 모습도 안쓰럽던 자세도 겹겹도 더 이상 안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한 성령의 불길과 열광의 우레와 환희의 울림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와 끝없는 감동의 큰 물결로 살아갑니다. 우리들 일깨워주시던 열정의 가르침은 주님의 영광 속에 영원하십니다.

감당키 어려운 상실과 좌절과 고난의 시련을 극복하시면서 응답 없는 기도의 깊은 의미를 간파하셨기에 스스로를 불살라야 주어지는 초월적 영적체험을 통하여 숨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을 깨달으셨기에 영혼을 흔드는 소망과 믿음의 메시지로 성도들을 울리셨습니다. 불타는 믿음과 간절한 기도의 삶이 있으셨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밤이나 낮이나 동행하셨기에 두려움의 파도를 물리치는 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과 씨름하여 이기는 명철을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바친 찬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가 뿌리신 큰 사랑의 노래가 늘 울려 퍼지기에 그가 가꾸신 높은 소망의 날개가 늘 솟아오르기에 그가 보이신 깊은 믿음의 불길이 늘 타오르기에 우리의 머리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드디어 큰 감사가 소용돌이칩니다.

하 목사님은 지금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토록 사모하시던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에는 빛나는 승리의 월계관이 쓰여졌습니다. 눈부신 새 옷을 입으시고 환한 미소와 인자한 모습으로 Acts29의 비전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보내십니다.



#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 Acts29 비전빌리지서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1천여 명 성도 조문 ... 영국, 일본, 대만 등에서도 참석



지난 8월 2일(목) 오전 10시30분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 십세 37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성도들이 하 목사를 기리기 위해 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데니스 레인 목사 부부, 40여 명의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이애용 국가브랜드위원장,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선교사, 전주대와 전주비전대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인과의 추억을 회상했다.

### 추모예배 '눈물에서 비전으로'

Blossom챔버팀의 연주곡 '나 어는 날 꿈속을 헤매며'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인도로 묵도 ▷생전에 하 목사가 가장 좋아하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양유식 장로의 대표기도 ▷하용조 목사의 생애를 담은 영상 상영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입골 번의 간담 수습, 주3회 투석, 당뇨와 고혈압으로 투병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헌신한 하 목사의 영상이 상영되자 참석자들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설교는 홍정길 목사(삼서울은혜교회 원로)가 했다. 홍 목사는 “하 목사 없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가 비어있는 공간은 채울 수가 없다”고 말하며 설교를 시작했다. ‘햇되지 않은 인생’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홍 목사는 “하 목사가 삶 전체로 붙잡았던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특별한 특순도 진행되었다. 하 목사를 기리며 조은아 자매가 작시한 추모시에 신상우 형제가 곡을 붙인 ‘소망’을 김영미 권사가 불렀다.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은 ‘더욱 사랑’을 합창했다. 김장근 목사(무학교회)는 축도를 했다.

### 추모사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와 미네노 터츠히로 목사(동경 요도바시교회), 김영련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추모사를 낭독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이동원 목사는 “예수님 전하느라 자신을 모르고 산 사람, 선교에 모든 것을 건 사람, 한 국교회에 내일이 있다고 소리친 사람이 하

목사”라고 했고, 미네노 목사는 “눈을 감고 있던 일본에 큰 활력과 희망을 불어 넣어 일 본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김영련 목사도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하 목사를 그리워했다.

하 목사의 장남 성석 형제는 “아버지를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인사했다.

### 자원봉사 '아름다운 손길'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분주했다. 서빙고와 양재 권사회 소속 60여 명의 봉사자들을 비롯해 교역자와 간사들도 새벽부터 주차와 셔틀, 안내, 식당 봉사, 예배 준비를 했다.

한편 CGNTV는 예배실황을 생중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더 많은 기사와 사진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ionnuri](mailto:ionnuri@onnuri.org) 앱 (more →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설교

## “햇되지 않은 인생”



본문 : 고린도전서 15:50~58

하 목사님을 떠나보낸 사건을 세상 말로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상가와 철학자는 단 네 마디 명제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홀로 죽고, 대신 죽을 수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반드시 죽는 것, 이것을 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째로는 인생이 햇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인

생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현상과 마주하면 자신도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부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햇되고 햇된 세상에서 햇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안에서 수고입니다. 하목사의 생애는 주께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안에서 수고를 전력질주 했습니다. 하목사가 뿌려놓은 씨앗, 이곳저곳에서 자라 날것입니다. 하 목사님이 땅을 흘리고 울고 피를 토하며 흘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를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는 무수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 목사님의 생애처럼 숨지는 날까지 더욱 내 주께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전문은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ionnuri](mailto:ionnuri@onnuri.org) 앱 (more →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스케치(2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홍정길 목사 설교(2면)



#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 서빙고에서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1천 5백여 성도 조문 행렬 ... “목사님 사랑합니다”

지난 8월 2일(목)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드린 추모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 어제(4일) 저녁 7시 서빙고 성전에서 또 한 번의 추모예배를 드렸다.

1,500여 성도들이 고인을 애도하기 위해 교회로 찾았다.

고인이 가장 좋아하던 찬양 ‘내 영혼이 은총임이’ 합창으로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의 문이 열렸다. 이어 연합합창 및 교역자들의 ‘하나님의 은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등의 찬양으로 은혜로운 분위기가 무르익자 예배참석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빠져들었다.

대표기도에서 박종길 목사(양재 은누리교회)는 유가족, 성도들, 은누리교회의 비전 그리고 하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들을 회고하며 “하 목사님이 선포한 Acts29 비전을 은누리 성도들과 함께 잘 이어갈 것”을 기도했다. 계속해서 홍정표 성가사가 지휘하는 은누리연합성가대 및 챔버의 특선과 추모영상 이어 지자 성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 메시지 \_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이날 ‘자는 자들과 남은 자들(살전 4:13~18)’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진홍 목사(두레교회)는 생전에 하 목사와 함께한 추억담을 회고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 곁에 잠든 하 목사님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근 장로의 웰로 연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와 고은정 권사가 정영선 권사의 자시 ‘비람 사람 그리워라’를 낭송했다.

### 추모사 \_ 당신을 생각하며

추모사는 하 목사의 목회 열정을 함께 나눈 세 친구인 데니스 레인(OMF) 부부와 이어령 교수(전 문화부장관) 그리고 김영길 장로가 낭독했다. 먼저 데니스 레인 부부는 영국에서 하 목사 부부와 함께 나눴던 깊은 교제와 만남 그리고 아쉬운 이별에 대해 회고하며 추모사를 낭독했다. 하용조 목사의 전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어령 교수도 추모사

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추모사를 낭송했다. 김영길 장로는 하 목사님과 첫 만남과 추억,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목숨 걸고 선교하시고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쳤던 하 목사님, 너무 그림고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고 말한 뒤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다.

### 비전과 사명

추모사를 마치고 유가족을 대표해서 장남 하성석 형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하 목사를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분위기가 온 성전을 가득 메웠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인도한 합심기도시간에는 유가족, 은누리교회, 두란노서원, CGNTV 등 은누리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 있는 은누리 성도 하 목사님의 비전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더 많은 기사와 사진은 www.onnuri.org → ‘신문’ 또는 ionnuri 앱 (more →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설교

## “자는 자들과 남은 자들”

본문 : 데살로니가전서 4:13~16

러브소나타와 관련된 하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가 일본선교와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구절을 읽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5살까지 살았기에 일본음식은 좋아하지만, 일본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 목사님이 일본선교를 위해 10년 만이라도 더 일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정신분열증에 걸린 형을 저와 동생들이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형이 세수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서 앉은 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형님이 숨을 거두기 10분 전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빛이 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동생들, 나 예수님 나라 간다.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땅에서는 못 갚아도 예

수님 나라 가서 동생들 뒤를 봐 달라고 할게”라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 같은 얼굴로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가서 잠자고 있는 하 목사님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기도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사명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김진홍 목사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서빙고 성전 추모예배>(3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김진홍 목사 설교(3면)



01

##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수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같은 추억을 간직한 분들과 만나 마음이 좋습니다. 아버지께서 천국으로 가신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생각 해주시고, 기억해주시고, 그리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처럼 저희 가족 또한 그 뜻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아버지께 하나님과 대화 가능하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질문에 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벌써 응답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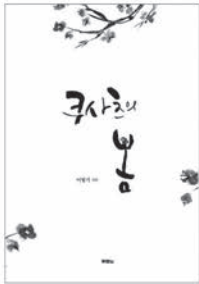
저희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 가족들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울림이 남아있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故 하용조 목사 장남 하성석



02

### 책으로 만나는 목숨을 건 사랑이야기



#### 쿠사츠의 봄

지은이 \_ 이형기 사모  
펴낸곳 \_ 두란노

이형기 사모가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쿠사츠의 봄>이라는 책을 펴냈다.

이형기 사모는 저작 <쿠사츠의 봄>에서 평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하 목사의 평소 생활모습, 젊은 날, 결혼과정, 그의 달란트, 인간됨, 우정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았다.



#### 순전한 복음

지은이 \_ 하용조 / 이재훈 목사  
펴낸곳 \_ 두란노

하 목사의 마지막 설교와 이재훈 목사의 첫 설교를 묶은 설교집<순전한 복음>도 출판되었다. 하 목사가 마가복음 강해설교를 하던 중 소천해 마무리 하지 못한 나머지 마가복음 강해를 이재훈 목사가 바통을 이어 받아 설교한 메시지에는 세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랑의 메시지가 녹아있다.



####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지은이 \_ 하용조 목사  
펴낸곳 \_ 두란노

하 목사의 지독한 일본사랑 이야기 <하 목사의 일본사랑>도 출판되었다.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던 하 목사의 고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메시지가 쓰여 있다. 암세포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선교열정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03



##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2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날을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 곁에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건강 좀 돌봐라”, “일을 쉬어가면서 해라”는 말은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 목사가님이 그러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성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반성이 지나쳐서 선교에 대한 패배주의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선교의 바람을 누가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 목사님이 그러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비판은 필요한 비판일지 모르지만 이럴 때 한국 교회에 밝은 메시지를 던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 목사가님이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 목사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하 목사님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선교의 지상명령을 붙들고, 한국 교회에 내일이 있다고 소리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 목사님 그러합니다.

/ 이동원 목사

04

### 故 하용조 목사 추모시

## 소망

작시 조은아

한 평생 한 분만 한 맘으로 섬기며  
십자가 그늘 너머에 소망을 지켰네

예수의 흔적을 일평생 지니며  
울곧이 빈 맘으로 한 길을 걸었네

이제는 허다한 무리들 속에 함께 서 있으리  
예수의 산 증인으로

우리도 그 때가 이르를 때에 함께 서게 되리  
예수의 한 증인으로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故 하용조 목사 장남 하성석(4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저서 안내(4면), • 03-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이동원 목사 추모시, • 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추모시(4면)



01



#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 새벽예배에서 다시 만난 하용조 목사 -

하용조 목사 1주기 추모 새벽예배 첫날. 서빙고 본당을 올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오랜만에 하 목사를 볼 생각에 성도들은 밤잠을 설친 것 같았다.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찬양소리는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우렁찼다. 하 목사의 믿음시리즈 설교영상이 상영되자 성도들은 반가우면서도 그림고, 기쁘면서도 슬픈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말씀이 선포되자 성도들은 주옥같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펜을 열심히 굴러댔다. 어떤 성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이라고 내뿔었다.

### “믿음으로 사십시오”

추모기간 새벽예배 말씀은 되새겨야 할 '믿음'에 관한 내용이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믿음, 어려운 믿음이 아닌 붙들 수 있는 믿음이었다. 일주일 동안의 말씀의 핵심은 '참된 믿음은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며 '진정한 믿음의 가치는 내적이고,

질적이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 목사의 메시지는 부드럽지만 강렬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손을 흔들었고, 축복할 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영상으로 만나는 그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생생하고 힘 있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도전을 주었다. 그는 성도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담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새겨놓고 떠났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하용조 목사 추모사진 및 도서전



두란노가 서빙고 본당 로비와 양재 사랑성전 로비와 화평홀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사진 및 도서전'을 개최했다. 고인의 일대기가 담긴 사진과 신간 도서 및 강해집이 전시된 장소를 둘러보면 많은 성도들은 하 목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눈물 흘렸다.

03

### “모습이 생생합니다”



하 목사님 추모기간을 맞이해 믿음 시리즈 영상 설교를 한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설레

었습니다. 하 목사님이랑 같이 했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번 한 주 동안 그 은혜를 또 경험 하길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거나 기도 받은 적은 없지만 항상 가까운 데 계시고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소천 하셨을 때 마음의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림고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지으신 은누리교회가 정말 좋은 것은 선교 중심인 교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 선교가 중심인 교회로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 백은나 자매

### “마음을 울렸습니다”



생전에 계속 들던 음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어 새롭고 지금까지 들어온 어떤 설

교보다 하 목사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울려서 너무 은혜롭고 반가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알고 있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다른 믿음의 말씀을 해주셔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누리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말씀에 매일 은혜 받고, 눈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벌써 1주기가 지났는데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이호형 성도

### “수식이 필요없는 설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

도록 쉽게 와 닿게 설명해 주시는 설교였습니다. 하 목사님 설교는 수식이 가 필요 없이 동네 아저씨가 얘기해주듯이 친근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꾸미지 않는 말씀에 핵심이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그것을 붙잡게끔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은누리교회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뜻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고 그 뜻이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 고순안 자매

### “확신이 생깁니다”



목사님 소천하시고 1년이 됐는데 다시한번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 위해서 새

벽예배를 왔습니다. 항상 제 곁에 계시는 것 같고 친정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하 목사님 통해 비전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분만 생각하면 확신이 생깁니다. 영상이었지만 하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차세대의 예배공간이 잘 마련되어 하 목사님이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전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세계로 나아가는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하 목사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향신 성도

### “비전 이어가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은누리교회에 뿌려놓은 씨앗은 하 목사님의 놀라운 비전, 하나님의 꿈

이므로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비록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저희에게 남겨주신 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 땅에 반드시 펼치시고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Acts29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모든 비전들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 권영석 장로

\*자세한 기사는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onnuri.ym](http://onnuri.ym) (more →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5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추모사진 및 도서전> 개최(1면)
- 03-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 참석자 인터뷰 (5면)



# 하나님의 사람 그 이름 '하용조'



하용조 목사는 1946년 9월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태어났다. 5살이 되던 해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부모님과 함께 한반도 끝자락 목포로 피난했다.

청소년 시절 하용조 목사는 한국대학생선교회(C.C.C.)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대학졸업 이후에는 C.C.C.에서 간사로 헌신했다. 당시 하 목사는 김준곤 목사의 지대한 영향을 받아 복음, 성령, 민족을 향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갑작스럽게 폐결핵을 앓게 되었는데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다. 이후 장로회신학대학교에 입학해 1974년 신학 공부(M.Div.)를 마쳤고, 197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 하나님이 세운 '비저너리'

하용조 목사는 신학생 시절부터 수많은 연예인을 전도했다. 그 씨앗이 한국 최초의 '연예인교회'로 열매 맺었다. 연예인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던 하 목사는 또 다시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만성간염과 당뇨, 고혈압이 겹쳤다.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하 목사는 연예인교회를 사임했다.

병상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던 중,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1981년 12월 두란노서원을 창립했다.

하용조 목사는 이철기 사모와 1978년 결혼하였다. 이들 부부는 안식과 기도, 학업을 위해 1981년에 영국으로 건너갔다. London Institutes에서 만난 존 스트루에게 큰 도전을 받았다. 영국에서 안식하는 동안 하 목사는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열방에 복음 전하라는 사명

1985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12가정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이 작은 모임이 오늘날 7만 명이 넘는 성도가 출석하고, 선교사 1,388명을 파송한 교회로 성장했다.

하 목사는 2003년 Acts29 비전을 선포하고 국내, 미국, 오세아니아, 일본, 중국, 베트남, 중동에 34개의 비전교회를 설립했다. 2005년 3월에는 지구촌 전역을 신앙 네트워크와 하는 꿈을 갖고 선교 전문 위성방송 CGNTV를 개국하였다. CGNTV는 650만 명의 해외 한인들과 수많은 선교사와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목회'라는 새 장을 열고 인터넷, 위성, 케이블, 모바일 등 매체를 활용해 사이버 공간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하용조 목사는 한동대학교와 전주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했고, 햇볼트리나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후학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데 헌신했다.

하 목사는 젊은 시절부터 질병과 싸우면서 연약해진 육체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사람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 두란노, CGNTV에 물뚫듯 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한국 교회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모든 진액을 쏟아내고 지난해 8월 2일 소천 했다.



## 최순영 장로 인터뷰

▷한국에서 목회를 해보겠느냐는 제안이 지금의 온누리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귀하고 복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의 서빙고 온누리교회입니다. 당시 하 목사님은 영국에 계셨는데 제가 전화를 걸어 교회를 해보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 하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교회 디자인을 직접 했을 정도니까요.

당시 온누리교회에는 성도가 거의 없었는데 하 목사님이 땅값과 건축비를 갠다고 했습니다. 갠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받아서 제2의 온누리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면서 기어코 갠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빛을 갠기 위해 현금의 70%는 교회 운영비로, 30%는 땅값 및 건축비를 상환하는 데 쓰셨습니다. 빛을 갠 데는 10년이 걸렸는데 빛을 갠 과정이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0년 뒤에 빛을 모두 갠 후에 하 목사님은

## "선교하는 교회로 발돋움한 계기"

남은 30%의 현금을 선교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현금의 30%를 선교현금으로 쓰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현금이 바로 러브소나타의 초석이요, 단일 교회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온누리교회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만.

"90년대 초반으로 기억되는데 온누리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님이 운행하는 교회를 꿈꾸고 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역자와 장로는 물론 평신도들까지 성령에 취해 기뻐 뛰는 온누리교회의 모습은 크리스천으로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만난 하용조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 목사님이 사모님과 풀레 데이트를 하던 중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당황해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 목사님은 누군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1998년 어려움을 당해서 무척 힘들어할 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 목사님의 위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지하던 분이 떠나고 나니 반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



온누리교회의 태동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지켜본 최순영 장로(할렐루야 교회)에게 당시 이야기와 그가 만난 하용조 목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신 그 사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헌신해야지요"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 고이 간직하겠습니다. 천국에서 자귀와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故 하용조 목사 행장(行狀)(6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최순영 장로 인터뷰(6면)





# 끝나지 않은 사랑이야기

하 목사의 목숨 건 사랑, “일본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납니다”

요양하기 위해 건너간 일본. 그곳에서 故 하용조 목사는 처절하고 가슴 저린 사랑에 빠졌다. 그 사랑이 얼마나 달콤하던지 암세포와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면서도 목숨 걸고 그 사랑을 노래했다. 그 노래가 바로 러브소나타다.

하 목사의 목숨을 건 러브스토리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마 그곳이 복음화 될 때까지 그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일본을 향한 세레나데

“저는 일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2008년 10월 故 하용조 목사는 일본을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러브소나타의 막이 올랐다.

“오사카에서 삿포로까지 성령의



일본 러브소나타 연혁

년도	지역
2007년	오키나와(3/29), 후쿠오카(3/30), 오사카(5/3~4)동경(7/23~24) 삿포로(10/31~11/1), 센다이(11/22~23)
2008년	히로시마(4/22~23), 요코하마(7/28~29), 아오모리(9/24~25), 나가사키(11/4~5)
2009년	고베(4/14~15), 나고야(11/25~26)
2010년	아사히카와(8/30~31), 니가타(11/10~11)
2011년	나가노(11/15~16)
2012년	다카마쓰(4/25~26), 가고시마(11월 예정)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서, 일본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요양하기 위해 머무는 곳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 목사의 생각과는 달랐다. 하나님은 그를 일본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의 한평생 기도제목은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하 목사는 처절하게 질병과 싸우면서도 일본을 위한 세레나데를 멈추지 않았다.

### 일본 교회의 희망 되어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일본 16개 지역에서 울려 퍼졌다. 적게는 30개 많게는 209개 교회가 협력하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던 일본인들이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과거사의 문제로 가깝고도 먼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기적이었다.

하 목사가 생명을 다해 지키던 지독한 러브스토리는 이제 이재훈 목사가 비통을 이어받아 지켜 나가고 있다. 상처, 아픔, 고통으로 절규하던 일본 교회가 희망을 불어 넣은 러브소나타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울려 퍼질 것이다. / 정지은 기자

### 특별인터뷰 Interview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故 하용조 목사를 기리기 위해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및 CEO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국제번역사 등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용조 목사와 러브소나타는 어떤 모습일까.

#### \*만남 사람들\*

- 오오가와 츠쿠미치(아미토갈비교회)
- 사사키 미츠오(국제번역사)
- 미네노 타츠히로(요도바시교회)
- 이케다 히로시(후고다이그리스도교회)
- 쿠니요시 마모루(나하침례교회)

## “하용조 목사, 그분이 ‘러브소나타’ 였습니다!”

### 따스한 ‘하나님 사랑’ 듬뿍 전해준다

**미네노:** 러브소나타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일본인은 부끄러움이 많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는데, 러브소나타 행사 마지막에 서로 안이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화선교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케다:**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동안 저희 장남 부부가 호텔에 머물며 집회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로비에 서 하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물론 저희 부부와 목사님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죠. 가까운 소파에 앉아서 10분가량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그 만남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제게 신나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때 목사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처음 본 사람과 오랜 시간 따스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의 넘치는 사랑

과 진실한 모습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쿠니요시:** 오키나와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 숨 쉬는 사랑의 집회였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노래를 은누리교회 성도들과 일본인들이 하나가 되어 불렀습니다. 일본선교가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러브소나타의 활약을 하 목사님도 천국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실 겁니다.

### 일본선교에 진정한 ‘희망’ 이 되어준다

**이케다:** 2008년 7월 요코하마 러브소나타가 열렸습니다. 제가 요코하마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25년 동안 해왔지만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경우가 1500명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그 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코하마 러브소나타에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에 8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의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데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네노:** 러브소나타는 일본교회가 침체의 시기를 견고 있을 때 희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 목사님은 러브소나타를 비롯해 CGNTV, 창조론 사역, 일대일, QT 등의 사역을 통해 일본 기독교에 활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또한 다른 교파의 교회가 벽을 넘어 협력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오가와:** 하목사님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류 문화가 일본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읽고 그 시대에 맞춰 문화전도를 이끄는 분이셨습니다.

**사사키:** 하 목사님은 항상 부족한 저를 응원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과 후원이 아니었다면 지금하고 있는 창조과학 모임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늘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천국에서도 기도해주시리라 믿기에 더 애써 사역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 대담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아플수록 비전은 커졌고, 단단해졌다”

질병과 처절한 사투 벌이면서도 멈추지 않은 선교열정



“내가 아플 때마다 교회는 성장했다.  
이상하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영적인 충만을 경험한다.”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중에서-

그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20대에 앓은 폐결핵이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으로 이어졌고 심근경색, 7번의 간암수술, 심장수술, 투석 등 많은 질병이 40년 이상 그를 괴롭혔다. 투병은 마치 인생의 동반자와 같았다. 연예인 교회 시절에는 간질환과 당뇨를,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 할 때는 간암수술과 심장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그 무서운 질병도 그의 뜨거운 선교열정을 막지 못했다. 그가 아플수록 비전은 커졌고, 더욱 단단해졌다. 건강을 위해 연예인교회를 사임하고 영국으로 건너 갔을 때 그곳에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꿈을 꾸었다. 2001년 일본에서 간암수술을 받

은 이후에는 동경 온누리교회와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개척했다. 2004년 또 다시 수술대에 올랐던 하 목사는 Acts29 비전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CGNTV 개국과 2007년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를 개척했다. 이 모든 과정이 선교에 목숨을 걸게 한 원동력인 셈이다. 그의 친구 이동원 목사는 말한다.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상명령만을 붙들고 한국교회에 내일이 있다고 소리친 사람’ 그가 바로 하 목사라고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투병 일지

- 20대 대학생 시절 폐결핵 발병
- 군 시절 폐결핵 재발병
- 연예인교회 사역 당시 만성간염, 당뇨, 고혈압 발병
- 1999년 간암 수술
- 2001년 1월 2차 간암 수술
- 2001년 8월 3차 간암 수술
- 2004년 4, 5차 간암 수술
- 2008년 4월 6차 간암 수술
- 2009년 11월 7차 간암수술
- 2010년 심장 수술
- 2011년 뇌출혈

### 비전 확장

- 결핵 요양소에 격리 수용 중 환자들 전도와 성경공부
- 결핵 요양소에서 또 다시 환자 전도로 영혼 구원에 집중
- 영국행,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기 시작
- 5월 디지털목회를 선포, 온누리인터넷방송 개국
- 안식 위해 방문한 일본에서 4월 7일 동경 온누리개척
- 10월 27일 우에다 온누리 교회 개척
- Acts29 비전과 CGNTV의 꿈을 더욱 구체화, 2005년 CGNTV 개국
- 나고야, 고베 러브소나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선교 150주년기념 요코하마 집회 준비
- ‘말씀과 성령’ 비전 선포
- Acts29 비전 빌리자 개원
- 제 2기 온누리교회 이사

## 의사들이 말하는 하용조 목사

### “마지막 남은 한줌까지”



이 철 장로(주치의)

하용조 목사님은 육체의 가시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력을 ‘설교의 강단’에서 태우셨습니다. 목사님은 20대에 폐결핵을 앓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고혈압, 망막 이상, 심근경색, 콩팥 기능 정지로 인한 혈액 투석 등이 해를 지날수록 목사님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천국가시기 12년 전에는 간암이 발생하였습니다. 간암을 치유하기 위하여 개복 수술 2번, 고주파 치료, 6회 색전술 시술 등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가히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기에 Love Sonata, CGNTV, 두란노, 핫볼트리니 타신대학원, 주일 설교 등의 사역을 감당 하셨습니다. 그러나 혈관 손상과 심근경색 악화 등으로 건강관리만을 하기도 벅잡았을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쓰러지시겠다는 일념으로 사모님과 교회의 간곡한 권유를 물리치시고 계속 주일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결국 주일 설교 후 그날 새벽에 회복하시기 어려운 뇌출혈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하 목사님의 마지막 12년간의 건강을 돌보았던 주치의팀의 책임자로서 감히 교회에 말씀드립니다. 온누리교회가 하 목사님의 목회철학을 잘 계승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바람을.

### “혼신을 다한 목사님”

한덕중 장로(신장담당)



하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으신 후 경과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뵈는 것이 벌써 1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예정된 신장이식 수술의 담당 의사로 수술을 준비하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환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숨겨려 합니다. 하지만 하 목사님은 오히려 당신의 병을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수많은 환자를 접하며 아는 저에게, 하 목사님께서 건강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에 처음에는 많이 놀라기도,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

도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불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성도로서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많은 기적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도 변치 않는 열정으로 혼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짐합니다. 저희도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2012년 8월 5일 91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투병일지 및 비전 확장(8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하용조 목사 담당의사들 인터뷰(8면)



#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

## 그가 남긴 비전은 영원하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꾼 故 하용조 목사. 그는 1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비전은 아직도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에 살아 숨 쉬고 있다. 그가 남기고 간 비전을 향해 오늘도 온누리교회는 전진하고 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꿈꾸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이 운행하는 바로 그 교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가 제시한 비전을 되새겼다.



02

### ■ 하용조 목사와의 잊을 수 없는 만남

비전교회 세우며 생긴 일

## “예수님처럼 목사님도 목수셨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건축팀장의 직분을 맡아 해외 비전교회를 지으러 다녔습니다. 하 목사님과 함께 알바인, LA, 보스턴, 일본의 오사카, 동경, 우에다 비전교회와 홍콩, 몽골, 중국 영길 무지개유치원 등을 지었습니다.”

2001년 우에다 온누리교회를 지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납니다. 인부들과 함께 톱질을 하고 땅치질을 하시던 하 목사님이 오후 3시쯤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걱정이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하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러 멀리까지 다녀오신 것입니다. 우에다 온누리교회 주변에는 상점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먼 길을 걸어서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런 목사님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작업현장에 계셨던 목사님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신 것처럼 하 목사님도 땅치질을 하고 톱질을 하며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인정이 넘치고 겸손하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림고 또 그림습니다.”

/김선도 집사(강서김포공동체)

\*자세한 기사는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ionnuri 앱 (more → 'news')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말씀과 예배〉

“말씀은 선하고 거룩하며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 나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형식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것이 부흥이고 개혁입니다.”

### 〈기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이기고 육체의 본능을 꺾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승리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 〈선교와 전도〉

“우리는 세계로 ‘나가서’ 모든 부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나고 훌륭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영광이 됩니다.”

### 〈믿음과 순종〉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잘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잘못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과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일은 헌신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직접 져야 합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어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 〈Acts29, 사도행전적 교회〉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결혼하면 아기를 낳듯이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살아 있는 교회는 생산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낳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낳았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주선애 교수

하용조 목사님은 영력 있는 설교자, 예수님의 품격을 닮은 은유와 겸손의 사람, 이 시대에 맞는 독창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언자 같은 영성에서 우리

나오는 말씀을 전하실 뿐 아니라 겸손히 섬기고 나누는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1980년대 초 목사님이 몸이 약해져 런던에 가서 연구하시며 전양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유럽에

행을 하던 중 런던에 들렀습니다. 런던에서 목사님이 마중 나와 호텔로 가려는 저희를 만류하며, 자택으로 가져고 권하여 2-3일간 목사님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제가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살림이 서툴고 당황해하는 저를 보신 하 목사님은 “나는 내 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며 음식 준비를 모두 도맡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안내하시는 대로 한 교회에 갔는데 마치 초대교회를 연상시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존 스토틀(John Stott)목사님의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모두 텅텅

비어있었는데 이 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의아한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하 목사님을 큰 일꾼을 만드시려고 그토록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 목사님을 ‘하 목사’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 배후에는 경건한 하 장로님 내외분과 이형기 사모님 그리고 김준근 목사님과 존 스토틀(John Stott) 같은 세계적 영적 인물들을 두셨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고 손수 나누는 예수님 닮은 진정한 제자였습니다.

## “섬기고 나눔을 실천하신 목사님”

### “목사님 그림습니다!”



유중근 총재(대한적십자사)

신기하게도 하용조 목사님의 기억이 날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지고 중요한 순간마다 반자리

가 몫시도 아쉬워집니다. 그렇게 소천하신지 1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우리 기억을, 마음을 희미하게, 무디게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분의 모습은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자유스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큰일을 거침없이 쉽게 풀어나가시고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한 번 더 보고 싶고 그림습니

### “오늘만 울게 하소서”



이여령 장관(전 문화부장관)

지 성경을 펴면 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분명 당신을 보고 급히 횡단보도를 건너가보면 아 단지 가로등 그림자 일 뿐. 당신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임이 떠나신지 오늘 한해가 되었다는데 바로 어제 갖고 혹은 먼 신화의 연대 같은 기억의 착시 속에서 갑자기 끊긴 생명의 합창. 음표와 음표사이의 빈 자리에서서 기다립니다. 미처 함께 부르지 못한 나머지 노래를 위하여 그래도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든 만납니다.

목마른 날이면 새벽 응달샘처럼 찾아오시고 피곤하여 앉으면 나무 그늘이 되어 함께 쉽니다. 피약별 8월의 대낮 속에도 동짓달 문풍지 우는 긴 밤에도 우리의 눈물자국과 긴 탄식, 그리고 기도의 시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

“아, 믿습시다”라고 말하는 그 끊어진 생명의 노래가 다시 울리고 눈물이 다른 샘에서 백합꽃이 피어나는 웃음을 듣습니다. 님은 우리의 아침이고, 님은 우리의 생명의 약속인줄 아무나 용서 하소서. 다만 오늘 하루만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 “얼굴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배운 위원장(국가브랜드위원회)

우리들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지 벌써 1주기가 되었다니 세월의 빠른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곁을 떠나셨어도 하나님 곁에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시리라 위로 받는 마음입니다. 목사님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 지어주신 우리들의 기도모임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음은 오로지 “계획은 인간이 해도 진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목사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확신과 약속에 대한 한없는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심입니다. 우리 것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과 자립의 정신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서 배어 나와 우리들의 가슴을 박차게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잠편 사역인으로서 온몸을 불태워 열정을 다하는 신앙심입니다. 세계 곳곳을 뛰어다

니시던 복음선교의 족적들,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 그리고 회생정신이 살아있는 생명의수로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아우르는 긍정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소탈한 면모와 따뜻한 미소 속에서 피어나는 편안함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하늘의 큰 별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의 길을 열어 희망의 밝은 빛을 영원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고귀한 섬김의 정신을 늘 기억할 것입니다.

### “얼굴 자체가 말씀이었습니다”



데니스 레인 목사

하 목사님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릴 향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 목사님의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께서 회중 한 가운데를 거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하고 또 한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하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이곳저곳을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하 목사님은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친절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온누리교회에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받았습니다. 바로 그 이메일은 하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불이 꺼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 목사님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 목사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영국 남쪽 해안 도시에서 1년 전에 이메일을





### “비전의 바통 잇겠습니다”

최도성 장로

당 회서기로 섬기다 보면 때때로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하 목사님께서 동경에서 치료받고 계실 때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동경으로 하 목사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열려져 가득 찬 저의 설명을 다 들으신 후에 목사님께서서는 한 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추진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회 40년 동안 상황이 어려워 하나님의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한하게 웃으시면서 내게 주신 그 한마디는 지금도 나를 지탱해주는 최고의 격려였습니다.

“목사는 코치, 평신도가 플레이어”라고 하시

면서 평신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스타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신 하용조 목사의 말씀이 오늘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하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 온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중보 위에 세워진 한동대학교에서 지난달부터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대학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파송되었고 이번 달부터는 국제화 부총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오늘도 “Why not change the world?”라는 구호를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도록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 젊은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들에게 꿈을 가지도록 도전하신 하 목사님의 비전의 바통을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 “목사님 뜻 따르겠습니다”

김광동 장로



살의 고비마다 멘토가 되어주시고 큰 버팀목이 돼주셨던 목사님께 그리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다 40대 중반에 주님께 돌아온 외교부의 돌아온 탐자 3인방 중 하나인 저를 각별히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장로 안수를 해주셨을 때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95년 북한 방문을 위해 홍정길,故 옥환흠, 이동원 목사님과 함께 북경에 오셔서 모시게 되었는데 북한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겨 예정보다 오래 체류하게 되어 목사님들께는 죄송하였으나 더 오래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저희 집에서 두 차례나 식사하시면서 “여기가 우리 성도 집이야!” 하시면서 함께 오신 목사님들께 자랑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영광스러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여름, 동경에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서 지난 25년간 하나님께서 은누리교회에 허락하신 큰 축복과 부흥을 이제는 지구촌 모든 이웃들과 함께 인종과 이념, 종교의 장벽을 넘어 가난과 질병, 재난 등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국제 NGO를 설립하라는 비전을 주셔서 작년부터 시작된 ‘더 멋진 세상’의 활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재훈 목사님의 세네갈 방문까지 이어져 이 사역을 통해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다짐해봅니다.



### “당부 잊지 않겠습니다”

오성연 장로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은혜로 ‘교회문맹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제 인생에 있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서 준비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목자로 살아

가십시오. 그러면 가장 보람된 인생길을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당부를 잊고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은누리교회와 함께 행복하고 또 행복하셨습니다. 하 목사님! 모든 은누리교회 충실하게 자라고 있으며 교회 밖에 두란노서원, 한동대학교, 청소년복지관, 노인 복지관, 치매 병원에 하 목사님 사랑의 생명이 내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극한 헌신과 봉사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은누리에 영원할 것입니다.

### “사명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김성목 장로



영혼을 사랑하고 세워주셨던 하 목사님, 저는 그분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1991년, 저희 부부가 이혼 직전의 위기 속에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무렵 처음 보는 저에게 “가정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겠습니까?”라며 다가오셨습니다. “가정사역이 뭐예요?”라는 저의 질문에 웃으시면서 가정 사역이 무엇인지, 왜 가정 사역이 필요한지를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 부부가 먼저 들어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목숨만 붙어 있다는 생각으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기다리시고 품어주셨던 하 목사님, 결국 그분의 비전과 열정, 격려와 기

도 그리고 사랑과 기다림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 “왜 하필이면 우리 부부를 택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빙그레 웃기만 하셨던 목사님, 그러나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를 준비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 목사님, 저도 영혼을 사랑하며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받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 “위대한 종교지도자셨습니다”

김진국 장로

세계선교를 꿈꾸던 위대한 종교지도자 하 목사님이 서거하신지 어느덧 1주기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은누리교회가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시고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의 목사님 모습이 선합니다. 저는 그날 안수집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세계선교센터(지금의 교육관) 건립을 위하여 매일 새벽기도와 팔복기, 찬양기도를 하다가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데모로 1년 늦게 건축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세계선교관을 꿈꾸셨습니다. 목사님이 건강문제로 강원도 용평에서 안식하시면서 토요일에 서울로 와서 주일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용평에 목사님을 뵈러 찾았을 때 목사님께서 목사 일을 하면서 가구도 만들고 집수리를 하는 목수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1999년 제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삼성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늙은 사람이 목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이제는 목사님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 “그 뜻 이어가겠습니다”

이남수 장로



목사님을 처음 만난 것은 연애인 교회 초창기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십년이 지난 뒤 1985년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을 창간하면서 목사님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빛과 소금에서 일년만 사역을 톺다가 세상으로 나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두란노에서 정년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년퇴임을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기도를 해 주시던 그 손이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손등은 투박한 주사바늘로 인해 아파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여행 때 100달러 지폐를 손에 쥐어 주시면서 “아내에게 선물을 사다 주렴” 하시던 그 손, 파리에 잦다 오시면서 유명한 사진집

을 선물해 주시던 일, 취재할 때 목사님이 알고 계시던 유명 목사님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동역자로 대우하신 것, 새벽기도에 처음 나왔을 때 칭찬해 주셨던 일, 영적으로 회복되고 거듭난 체험을 한 뒤 내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을 보았다면서 좋아 하시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영적 스승이요 영적 아버지이신 목사님은 가셨지만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 “선교의 버팀목 되어주신 목사님, 그립습니다”



유은필 권사

하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의 창립을 위해 1984년 저희 부부를 포함한 열두 가정의 제자훈련을 시작하셨고, 이듬해 10월 6일 제자훈련을 받은 24명을 창립멤버로 하여 78명의

성도가 모여 온누리교회 창립예배를 드렸습니다. 1994년 6월 12일 아치오 오와디시엔 그리스도교회를 개척하여 좁은 공간에서 70여 성도들이 모여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 하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일본 교회에서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방문해서 격려해주시는 등 하 목사님은 저희 부부에게 언제나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일본에서의 10년간의 선교 동안에도 그 후에도 항상 저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하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 “진정한 하나님 사람”



이반석 선교사

주님의 손에 붙잡혀 복음전도를 꿈과 희망으로 삼고 온 열정을 불태웠던 한 사람, 주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한 사

람, 육신의 연약함을 가시로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걸고 어떤 고난도 사랑으로 승화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한 사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대와 그 사랑에 멈춰있을 수 없어 그렇게 선교에, 복음전파에 교회에 목숨을 걸고 미친 듯이 달려왔던 한 사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서 볼 수 있었고, 멀리서나마 그분과 함께 달려갈 수 있었고, 은혜를 입은 자로, 선교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 있었음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움과 사랑을 은혜 받은 자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시간을 가질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 “가르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반석 장로

하 목사님!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평소예 그렇게 사랑하시던 예수님과 얼마나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게 기쁘게 복음을 전하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희들은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설교, 넘치는 열정과 창조적인 아이디어, 어려움을 헤아리시는 섬세한 감성,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로지 쫓대를 향하여 달려 오신 그 삶은 이제 모든 크리스천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목사님! 그립습니다.

### “목사님 통해 주님을 느꼈습니다”



조항진 장로

교회 가건물 시절 소그룹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시던 모습, 알기 쉽게 정성을 다하시던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저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신 주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많

은 사역을 맡아 섬기면서 복지재단 사역도 함께 섬길 때 목사님은 누구나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역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재로움과 사려 깊은 돌보심에 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일은 소천하시기 사흘 전 에버미러를의 광고 최종 디자인을 결정하신 일입니다. 그날 차안에서 완성해주신 광고 유적이 지금도 <생명의 삶>에 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말씀으로는 매일 다가오시나 생전의 자애로웠던 모습을 손으로 느껴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온통 사랑이셨던 하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윤형주 장로

1976년 봄, 하 목사님이 전도사였던 시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고, 둘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열매로 하 목사님과 정기적으로 성경공부를 함께 했던 연예인들 가운데서 목회자, 장로, 권사, 사역자,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예배를 마치고나면 목사님 방에 가서 인사드리고 나오던 때가 그리워집니다. 온통 사랑이셨던 그분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습니다.

### “마지막 유언, 힘써 감당하겠습니다”



고건 장로

제가 영동포구공공동체 대표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하 목사님을 찾아뵙고 “장로 투표에 있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얼마 지

나지 않아 목사님은 제게 그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 목사님께 전화가 오면 ‘이번엔 또 무슨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닌지?’ 하고 가슴이 찡찡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사님은 제게 전주대학교를 맡아 이 대학을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제게는 하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 목사님! 항상 담대하고 깨끗하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해나신 목사님을 생각하며 저도 맡기신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합니다.

### “당신은 온누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문창국 장로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번지는 나무 크기만큼 넓습니다. 큰 인물이 가고 나면 그 자리를 메우기가 어렵습니다. 하 목사님이 소천하신 뒤에 온누리교회는 그 번지리를 어

떻게 메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떠나셨는데 온누리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당신은 그림자가 되고 살아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목사님의 사진이 점점 바래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머리로 남아 있는 한 목사님도 교회의 몸으로 영원히 함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거목인 당신처럼 온누리교회는 점점 더 큰 나무로 자라갈 것입니다.

### “목사님의 미소가 그립습니다”



박동순 장로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께서 떠나신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몹시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미처 드러지 못한 사진이 하나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2005년 8월 14일 ‘예루살렘 평화행진’ 당시 갈릴리 호수가 열이있는 풍경이 보이는 호텔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볼 때면 아직도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지금도 그곳에서 이렇게 쾌활하게 웃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뵙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히 계세요!

###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워”



유병진 장로

같은 기간이라도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짧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주, 1주년 하면 ‘벌써 그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이지만 하 목사님 소천 1주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갈수록 잊혀져가고 빠르게 느껴지지만, 하 목사님은 소천하신 후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더욱 크게 남아 계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전의 삶과 남기신 말씀으로 계속 전하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 “그곳에선 건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천국으로 가신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옛그제 같은데,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천국은 답지 않죠?

이곳은 너무 더워서 온 세상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 전 세계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곳에선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랑해요, 목사님!

/ 노안내(서빙고 초동1부)

### “그 때 눈물 보여 죄송합니다”



1994년, 직장암 수술을 받은 저는 아내에게 이끌려 서빙고 당회장실에 계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는 저를 위해, 그날은 물론이고 그 후로도 2년 동안 기도를 주셨습니다. 당회장실에 사람이 넘칠 때면, 복도에 서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반갑게 잡아 본 목사님 손은 깊은 병환으로 진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을 펄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께 눈물을 보인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 심창구 정로(강남B공동체)

### “잘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것은 2000년도 일본 오사카에서였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시는 그 모습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집에서 설교 영상을 볼 때 직접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외롭고 슬퍼 눈물이 흐릅니다. 목사님이 꿈꾸신 사도행전적 교회, 세계선교를 생명같이 생각한 교회, 그 뜻을 받들어 잘 하겠습니다.

/ 백완숙 권새(남양주캠퍼스)

### “모습이 생생합니다”



이제 돌이켜 특별히 기억나는 모습은 가정훈련학교가 처음 시작할 무렵, 때 기수마다 첫 강의를 맡으셨던 하 목사님. 특히 가정의 소중함과 아내들에 대한 감사함을 말씀으로 풀어주시며,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께서 다정히 연수원 뜰을 거닐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신지 1년, 그 빈자리가 너무나 크지만 지금도 예수님 앞에서 저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기쁨 줄 만기에 감사드립니다.

/ 이무용 정로(강동캠퍼스)

### “목사님 그림습니다”



1994년 은누리교회 간사로 섬길 때, 성도 200여 명이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허드렛일을 맡아 분주하게 뛰어다니

다가 너무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데, 하 목사님께서 오셔서 “수고 많지”하면서 금일봉을 내미시는데, 눈물이 왈칵 났던 기억이 아직도 잊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님께까지 세심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 목사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나가든지’의 가르침대로 스리랑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 목사님 그림습니다.

/ 박영근 선교사

### “목사님 발자취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인격적이었고 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안제부터인가 투병중에도 CGN TV, 러브소니타 등 큰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목사님의 열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목사님과 처음 악수를 하면서 느낀 차가운 손에 놀라 눈물이 났습니다.

목사님의 선교의 열정을 본받아 복음의 빛 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평안히 쉬십시오. 목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힘쓰겠습니다.

/ 윤석우(부천캠퍼스)

### “선교 열정 심어주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사람들 마음속의 아픔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이웃을 축복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싫어해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셨습니다. 세세한 일까지 마음 쓰시는 하 목사님은 모든지 철저하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돌아와 여기서 죽을 생각하지 말라”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분의 선교에 대한 열정은 힘들 때마다 저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 이병현 선교사

### “그 사랑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성가대에서 몇몇이 한쪽에서 연습하고 있을 때 하 목사님께서 문을 열어보시고는 전원을 몇 개를 끄시면서 “필요하지 않은 불은 꺼 두자. 이게 다 성도들의 소중한 헌금이나까...” 하시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가셨던 일이 기억납니다. 헌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바라하신 목사님의 마음은 아마도 그 날비들은 선교사님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재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미소로 격려하신 그 사랑 아직도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이용수(요셉공동체)

### “늘 겸손했던 그 모습 기억할 것”



저는 90년대부터 은누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꽤 가까이서 하 목사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얼굴만 봐도 그

온유한 모습에서 따뜻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늘 겸손하게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신 이슬람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 선교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다시 새깁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제게는 너무 가슴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기대합니다.

/ 김성숙 권새(수원캠퍼스)

### “참 사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 목사님과의 인연을 통해 많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요리연구가로서 하 목사님을 위한 환자식을 만들어 섬김을 통해 환자식 연구의 깊이도 더 깊어졌습니다. 마치치기라도 하면 두 팔 벌려 “권사님~” 하고 부르시던 그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 목사님을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 심영순 권새(용산공동체)

###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파송하신 선교사님 한분한분 찾아뵙아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가보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 흘리던 목사님! 하나님을 몸으로 사랑하셨고, 마음으로 성도를 깨우치며, 눈물의 기도로 선교와 선교사님을 생각하셨던 목사님! 환하게 웃으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 목사님! 우리가 슬퍼하면 “그렇게 마음이 없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날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살아가세요!”라고 호통하실 것 같은 목사님!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 오상현 집새(인천캠퍼스)

### “주님 닮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 목사님! 그림과 보고 싶습니다. 삶의 이유와 답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닮은 분! 만나면 손잡아 주시고 끌어안아

기도해 주신 내 삶에 모델이신 분! 그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오직 선교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분,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몹시 아쉽고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 집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닮은 하 목사님! 사랑합니다. 주저함 없이 저도 당신을 닮고 당신이 꿈꾸셨던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 박현규 정로(신분산신공동체)

\*주요메시지 전문과 더 많은 메시지는 [www.onnuri.org](http://www.onnuri.org) => '신문' 또는 [onnuri@onnuri.org](mailto:onnuri@onnuri.org) =>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the 1st year anniversary of his passing

하용조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전 일본사랑

# 러브 소나타

“하나님이 사랑하신 일본을 나도 사랑했다”



하용조 지음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암세포와 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선교의 열정,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 소나타는 지금도 연주되고 있다!

# 쿠사츠의 봄

이형기 지음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복음전도는 저의 꿈이요, 희망입니다! 7번의 건강 수술, 당뇨병, 주 3회의 신장 투석 등 육체의 고통이 있지만 제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주의 길을 굳게 예비하라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나의 사랑의 고백이요, 꿈의 노래요, 희망의 합창입니다.

하용조 지음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는 오늘날도 존재할 수 있는가! 하용조 목사의 30년 복회 경험! 하용조 목사의 삶과 온누리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명저이다.

하용조 지음



“고(故) 하용조 목사의 신앙과 사상, 평소의 철학과 소신, 그를 하용조 목사가 되도록 만든 기초는 무엇이었나?”

아내 이형기 사모를 통해 듣는 하용조 목사의 신앙과 삶. ‘우리가 몰랐던 그의 사랑, 성품, 마음, 일상, 우정...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

“나는 하용조 목사가 사역하며 열매를 맺은 어떤 청년들보다 그가 이룬 것을 감내하며 견뎌 내던 하루하루의 내려놓음의 과정들 다 놓이 평가해 주고 싶다.” 본문에서

두란노

두란노 북카페 [cafe.naver.com/durannobook](http://cafe.naver.com/durannobook) |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durannobooks](http://durannobooks)

2012년 8월 5일 911호

· 전면광고 : 故 하용조 목사 추모 1주기 기념 저서 안내(16면)

01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는 '정경화 자선 콘서트'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이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기금 마련을 위한 '정경화 자선 콘서트'를 연다.

다음달 3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정경화 자선

콘서트의 수익금은 말라리아와 기생충으로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콘서트 입장권은 오늘(12일)부터 서빙고 본관 로비와 양재 사랑성전 로비에서 구입할 수 있다. 평일에는 목회

지원실에서 구입하면 된다.

NGO 더 멋진 세상의 회장 이재훈 담임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축제로, 생명을 살리는 섬김의 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교수는 첼리스트인 언니 명화, 지휘자 겸 피아니스트인 동생 명훈과 함께 정트리오로 불리는 인물이자.

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일본인 위한 전도집회 '기즈나'

### 9월 1일 서빙고 본당 ... 참가자 모집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기즈나'가 다음달 1일(토) 오후 2시 서빙고 본당에서 막 오른다. 일본어예배와 전도사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전도집회는 '고난은 은혜의 시작이었다'를 주제로 열린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다. 국내 판 러브소나타가 될 이번 집회는 특

별히 작년 3월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와 목숨을 잃은 일본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복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또는 일본어예배팀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는 3215-3702.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간담회

## “일본교회의 변화를 꿈꿉니다”

지난 3일,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러브소나타와 일본 교회를 위한 기도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러브소나타 이후 일본 교회 변화 방안을 모색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러브소나타가 열린 16개 지역의 실행위원장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인 이번 간담회에서 실행위원장들은 지금까지의 러브소나타를 감탄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인구 중 크리스천 인구가 0.5%인 일본

### 초교파 연합, 한국 러브소나타와 협력해 변화 위한 후속 프로그램 이어가야

에서 이전 명이 넘는 일본인들이 문화전도집회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다. 또한 복음화, 성령과, 장로교, 개신교, 성공회 등 일본의 150여개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연합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뿐만 아니라 집회의 융성함도 돋보

였다고 했다. 만약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를 준비했다면 3년은 걸렸을 것이라고 말하는 위원장도 있었다. 실행위원장들의 관심사는 오직 일본 교회의 변화였다. 열린 토론이 펼쳐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초교파 연합을 견고히 하기 >교회와 교회간의 교제 활성화시키기 > 일

대일 제자훈련, 큐티, 아버지학교 등을 통해 성도들을 변화시키기 >한국 러브소나타 본부 긴밀하게 협력하기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일본 아웃리치 활성화시키기 등이 일본 교회의 변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故 하용조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윤구 장로(일본 두란노)는 “자신의 소천 1주기 추모예배에 맞춰 일본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게 하는 걸 보니 하 목사님은 천국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고베 러브소나타 그 후

## “러브소나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 초교파적 연합, 일본 복음화 선봉

2007년부터 일본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에 참가한 일본인이 6만 명이 넘었다. 현재까지 60,623명이 참석해 2,254 명이 결신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만해도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 러브소나타는 일본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집회로 자리 잡은 것이 분명하다.

러브소나타의 열매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2천 3백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는 결심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열매는 일본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회 40일전부터 행사당일까지 기도당반을 정해 간구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행사장 주변을 일곱 번 돌면서 제단을 쌓은 기도 덕일까. 고베 러브소나타 이후 일본 교회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었다. 고베 러브소나타 이후 일본 교회의 변화들을 살펴보자.

#### 간구, 축제, 선교의 장



온누리교회의 전적인 원조로 진행되던 러브소나타가 2009년 고베 때부터 양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회가 되었다. 현지 실행위원회의 헌금으로 행사장 대여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섬기기 위해 좌석을 자유석에서 지정석으로 바꾼 것도 이때부터다. 러브소나타의 대미를 장식하는 꽃가

루 세리머니도 고베 러브소나타부터 시작되었다.

현지 반응도 좋았다. 초교파적 연합을 이룬 것도, 자신들이 일본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것도 몹시 만족해했다.

러브소나타가 꿈꾸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은 일본 교회의 변화를 통해 일본이 복음화 되는

것이다. 고베 러브소나타를 위해 협력했던 교회들은 지금도 ‘효교협력회’라는 이름으로 한 달에 한번 씩 기도모임을 갖고 있다.

각 교회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교와 찬양 등으로 교회와 교회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우물증에 걸렸던 한 성도가 회복되는 은혜도 있었다. 일본 교회의 초교파적 연합이 어렵다는 말은 러브소나타를 위해 협력한 교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지난 2일에는 하용조 목사 소천1주기 추모예배에 고베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 소속 20명이 참석해 질병과 사투를 벌이면서도 일본에 예수님을 사랑을 전한 고인을 기렸다. 그들은故 하용조 목사를 일본 교회에 변화의 비람을 일으킨 분이라고 회고했다.

일본 교회의 변화를 생각하면 러브소나타는 분명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행사 전에는 기도의 재단을 쌓는 간구의 장이요, 행사는 예수의 이름을 듣는 축제의 장이다. 행사 이후에는 일본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일본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사도들이 모이는 선교의 장이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1

Pole2공동체 이집트

# 주님의 은혜로 48도 더위도 거뜰!

작년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오며 그때의 행복을 잊지 못해 이번에도 이집트 아웃리치에 다녀왔다. 이집트 대통령 당선문제로 정해진 팀 인원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되어 우리는 출발 몇일전인 돼서야 사역을 준비 할 수 있었다. 이집트 일원 중에 나를 제외한 모두가 공동체의 리더십 수준이었고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팀원들과 내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여지기도 했었다. 나는 공동체 생활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를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많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아웃리치는 시작됐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 12시간이상을 함께하며 사역을 준비했다. 내가 걱정하던 동역자들은 나와 너무 잘 맞는 사람들이었고 매일 사역을 준비하면서 몸이 피로했지만 너무 화목하고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다.

###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주세요'

우리 들뜬 마음으로 이집트에 도착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렇지만 빈부격차도 너무 심했고 이집트의 당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조심해야했기에 사역하는 동안 대부분 버스 안에서 이집트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무슬림세력이 많은 이집트라 소리 내 기도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다. 8개의 교회와 고



아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보며 마음도 아팠지만 주님께 이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고 항상 기도했고 저들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사역할 때 우리를 바라보던 그들의 눈빛과 표정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만큼 무미건조했다. 위심을 하며 드라마를 하며 부채춤을 추며 마음속으로 계속하여 기도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세요. 우리를 통로로 쓰시어 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사역이 마친 후에 그들의 박수세례와 그들의 눈빛과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우리를 통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와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 같다는 기분이 주님께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다닌 곳 중에 한 집회에 가게 됐는데 놀람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85%의 무슬림과 15%의 크리스천이 있는 이집트인데, 그 15%의 크리스천이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힘든 환경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본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열정적이어서 큰 감동을 받았다.

48도의 무더운 날씨였지만 3일을 먼저 가 득한 버스 안에서 쪼그려서 잠을 청해야 했

고 씻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곳에서 그들에게 주님께 향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더 열어준 것 같아 그것만으로 너무 은혜로웠다.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행복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다.

### 더 깊어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곳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것은 예수님께 죄송해서였다. 우릴 위해 이토록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 나는 정작 얼마만큼 내어드렸나 싶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다.

아웃리치 동안 여행자병원에 걸려 팀원의 반 이상이 아파했고 건강적으로 힘들었지만 끝까지 함께하고 힘내준 우리 팀원들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다. 우릴 위해 손수 닭국을 끓여주시던 김승훈 목사님께도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내게 이토록 좋은 사람들을 알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역시 우리 하나님아버지란 생각이 든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금부터 난 더 주님께 나아갈 것이며 주님만을 섬길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이다.



/ 홍차영 (Pole2 공동체)

02

허브 공동체 튀니지

#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지난 7월 6일(금)부터 14일(토)까지 튀니지 아웃리치를 떠났다. 우리 팀의 일정은 이렇었다. 첫날은 시디부사이드와 메디나를 땅 밟기를 했다. 다음날에는 조를 짜서 각 지방으로 흩어졌다. 1박 2일 동안 거지전도여행을 통해 현지인집에서 투숙하며 문화체험을 했다. 셋째 날에는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통해 가정에 데코레이션을 해주고 오후에는 현지 청년들과 피구, 축구 등을 하며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문화와 삶을 체험한 전도여행

처음에 관광지 위주로 땅밟기를 하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았다. 물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한 것은 정말 좋았지만 미치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현지 모를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1박 2일의 전도여행은 달랐다. 우리가 머물렀던 수도 튀니스에서 3-4시간 떨어진 지방으로 갔다. 그 땅을 밟으며 현지인과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기 위해 도전했다. 현지인들은 우리가 동양인이라는 것에 신기해하면서 말을 걸어오고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했다. 우리 조는 살리어스 라는 지역으로 갔다. 도착 후 예배를 드리고 계속 돌아다녔는데 갈 곳을 찾지 못했다. 난감해하던 중 옷가게를 들어가서 말을 붙이고 대화중에 잘

곳이 없으면 자신의 집에서 오라고 초청받게 됐다. 우리 초청 받은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들이 믿은 신은 알라이고 알라는 항상 자신과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집안의 딸의 말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

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진리의 신이 아닌 알라를 태어날 때부터 당연한 듯이 믿으며 살아온 그들에게 복음이 심겨졌으면 하는 소망도 생겼다.

###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마음

평소 아웃리치를 갔을 때는 큰 사역을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1박 2일 거지전도여행을 통해 한 현지 가정집에 머물면서 그들의 문화와 삶과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그 땅에 머물렀던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슬람 선교에 대하여 보여주신 것 같고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느끼고 돌아온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한 영혼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나마 느끼고 돌아왔다.



/ 민웅기 형제 (허브 공동체)

2012년 8월 12일 912호

- 01- 이집트 아웃리치 보고 : 홍차영 자매(Pole2공동체)(8면)
- 02- 튀니지 아웃리치 보고 : 민웅기 형제(허브 공동체)(8면)



고양은평공동체 중국

## 그 땅에 보여주신 약속의 무지개

“영유아, 올해도 아웃리치 가야지?” ‘갈거야?’ 가 아닌 ‘가야지’ 라고 단정적으로 물어 보는 동역자 H언니 역시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도저히 아웃리치에 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한 비용을 예비하셨고, 사랑으로 플로잉도 허락하셨다. 결국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7일 동안의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둘쨋날인 21일(토) 자정이 다 된 시각, 벌써부터 차량을 대기시키고 쿤밍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신 반가운 선교사님 부부께 제대로 인사할 틈도 없이 2층 침대 버스에 짐을 싣고 몸을 실었다. 팀원들은 심야찬양집회로 새 힘을 충전하고 잠을 청했다. 버스 화장실 고장으로 12시간을 달리는 사이 사이마다 정차를 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서 빛이 났다.

리짱 센터에 둘러 선더미 같은 짐을 분류하고, 다시 선물을 싸들고 6명의 장학생 가정을 방문하는 긴 이동길. 여독을 추스리며 이동하는 사이, 우리는 찬양을 하며 중국과 이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마음먹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존재인 나는 기도와 사랑 밖에 줄 것이 없었다.

### 리쉬족, 장족 마을을 방문하며

포도를 좋아하던 왕리창 학생과 함께 산족



대기 집을 방문하고 나서 우리는 리쉬족 마을로 향했다. 인도 영화에서 봤던 산족대기로 연결된 지그재그로 된 길을 폭우를 맞으며 등산했다. 산꼭대기로 쫓긴 장족 마을의 한 가운데 베퉁 끝에 교회를 세운 복음화율 50%의 마을.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렸고,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주일인 다음 날에도 이른 시간부터 나와 아침을 준비해 주었다. 세 번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피곤해 졸면서도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다. 작은 인형 하나에도 좋아하고, 소꿉놀이 세트로 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에서 생수와 같은 사랑이 넘쳤다. 사실 3부 예배는 예정에 없었는데 예배가 있는 줄 알고 밤길을 걸어온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팀원 전체가 무대로 나가 율동을 하며 기쁨을 나

눠다. 또한 목사님의 제의로 큰 앞마당으로 나가 기차놀이와 한국 전통 무용을 보여 주며 우리는 천국 잔치의 밤을 보냈다.

장족마을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어 눈을 감고 손을 모으는 기도 금지령을 받았다. 100%가 라마 불교인인 장족마을로 투입된 우리들에게 쏟아진 축복은 약속의 무지개에 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방문했던 집은 출타 중인 남편과 과로로 신장과 근육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해 간 게임 이얼싼뽕(일명 007뽕 게임) 때문에 웃음을 잃었던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소녀같이 폭소를 터뜨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하니 그곳에 새 생명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를 향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던 남동생도 나중에는 귀빈에게

주는 실크 스카프를 목에 걸어주며 우리에게 라마 불교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 했다. 늙은 아버지가 비싼 새 술병을 꺼내 대접하고 싶어할 만큼 우리는 환영받고 사랑받았다. 떠나기 전, 미리 준비해간 학용품과 장난감, 소액의 숙박비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니 그들은 내년에 또 오라며 아쉬워했다.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약속의 무지개를 또 보았다.

### 더 큰 사랑 받은 아웃리치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소재자 편집 작업을 했다. 힘든 내색 하나 안하시고 섬겨 주신 선교사님 부부를 생각하니 죄송함이 밀려왔다. 살려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는 충성스러운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흐르는 분들이었다. 아웃리치는 사랑을 주러 가는 줄 알았는데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자책 없는 우리를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로, 주님의 도구로 불러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선한 마음으로 플로잉 해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신 박영훈, 김영옥 집사님 부부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조영우 성도 (고양은평공동체)



브릿지33+공동체 필리핀 세부

## “진정한 겸손을 깨닫게 된 아웃리치였어요”

지난 7월 30일~ 8월 5일 6박7일 동안 브릿지33+공동체 22명의 자체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새영크리스천학교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새영크리스천학교는 브릿지33+공동체 원영아 자매의 사촌언니인 김영미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로 현재 총 33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다니고 있다. 이곳에서 우리 팀원들은 미술과 체육 등 다양한 과목들과 위임 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

### 가르침의 기쁨 만끽 ... 아이들과 함께한 '즐거움 시간'

나는 아이들에게 미술과 체육을 가르치며 섬겼다. 이 사역을 섬기기 위해 그동안 유재웅 팀장과 백수화 미술팀장의 지도를 받았다. 그들에게 전수받은 가르침과 리더십을 통해 이곳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잘 가르칠 수 있었다.

미술팀 2팀의 조장으로 섬기게 된 나는 아이들에게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또한 사진을 찍고 액자를 만드는 법, 도화지에 자신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법, 십자가 목걸이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가르쳐주었다. 아이들



을 가르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십이었다.

### 사역 통해 'God is Love' 경험

아웃리치의 주제는 'God is Love(하나님은 사랑이시라)'였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웃리치 팀원들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나는 캐나다에서 3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필리핀 아이들에게 영어로 강의하는 부분을 맡았다. 또

한 아트2팀의 김건희 자매님, 김현미 자매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석한 브릿지33+공동체 22명 모두 각각 성격과 배경 및 자라온 환경 등이 달랐지만 'God is Love'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인 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 팀원들은 마지막까지 맡은 모든 분야에서 빠짐없이 참석해 사역에 임하는 열정을 보였다. 체육대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뛰놀며 아이들에게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

지, '함께 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었다.

목요일 밤에는 세부크리스천학교에 있는 필리핀 선생님들과 문화교류의 밤을 열었다. 문화교류의 밤 시간에 한국과 필리핀 음식을 함께 제공해 기쁨의 교제를 나눴다. 식사를 마치고 유재웅 팀장의 인도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영어로 동시통역을 하며 섬겼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값진 보람을 느꼈다.

필리핀 세부팀의 모든 팀원들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섬기며 가르치는 가운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지라도 참고 희생하고 늘 감사하며 기쁨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임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 이번 아웃리치에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또한 아웃리치 기간 동안 다친 영혼 하나 없이 모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박지명 형제  
(브릿지33+공동체)





하용조 목사님 소천 1주기를 보내며



새롭게 그리워지며 보고 싶습니다



정병두 장로

목사님, 새롭게 그리워지며 보고 싶습니다. 창립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교회에 새로운 부서가 생길 때마다 맞기시고 철부지 아이같이 보채도 사랑으로 감싸고 지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늘 기쁨이 가득한 얼굴이 더욱 그립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잊지 않고 찾아 주신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사마리아인이었습

니다. 그런 목사님을 본 받고 싶어 몸부림쳤습니다. 소천 1주기를 보내며 여러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을 떠올려봅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교회의 각성을, 홍정길 목사님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라고, 김진홍 목사님이 천사 같은 죽음을 준비하라고, 주선애 교수님이 회개하라는 광야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동원 목사님이 선교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에서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목사님의 뜻 이어 받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홍범식 장로

이런 일도 있었지요! 교계 어른들과의 모임에서 저를 “나와 동역하시는 집사님”이라고 소개 해주셨을 때 “아! 내가 하 목사님과 동역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섬기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또 한 번은 끼리끼리 모여 있으면 주님의 코이노니아가 되지 못한다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몸이 편찮으면서도 직접 교도소에 전도하려 가시면서 “목사는 전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떨

어져, 바쁘다고 핑계대지 말고 시간을 만들어 전도해야 돼” 라며 영혼구원에 힘쓰시던 우리 목사님! 아침에 출근 하시면서 현관 거울에서 옷을 연습을 하시며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는 힘들지만 성도들은 기쁘고 행복해야 해. 몸 아픈 것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이길 수 없어”라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던 목사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며 살아하겠습니다.



포인트5 공동체가 스타트리학원 아이들과 함께 과자집을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이번 캠프에는 총 2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 ‘포인트 5’ 와 함께한 스타트리 영어성경캠프

‘포인트5’ 공동체가 다문화가정을 섬기기 위한 아웃리치인 ‘2012 케어리치’를 개최했다.

‘케어리치(Careach)’는 케어(care)와 아웃리치(outreach)의 합성어로, 아웃리치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뜻한다.

포인트5 공동체는 안산온누리센터 산하 스타트리 학원과 공동으로 지난 7~9일까지 총 21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산M센터에서 ‘스타트리영어성경캠프’를 열었다. ‘너는

세상의 빛(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마 5:15’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20여 명의 교사가 섬기는 가운데 ▷음악, 미술, 말씀 등을 배우는 시간 ▷소그룹모임, 다과 및 교제 나누기, 연극, 게임, 편지쓰기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간으로 꾸며졌다.

마지막 날(10일)에는 야외플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한 물놀이를 하며 사역을 마무리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TV** 추천 프로그램



▷ [특집대담]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 8/15(수) 오후 6시10분  
크리스천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대적 사명과 미래를 조명  
해본 특집대담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블레싱사하라 특집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 8/17(금) 오후 8시20분  
아프리카 세네갈 '라크로즈미울'로 떠난 아웃리치팀의  
생생한 지역현장입니다.

# 람퐁에 울려 퍼진 작은 러브소나타

## 서빙고 · 젊은 부부학교 연합 아웃리치

서빙고공동체와 젊은부부학교 사역팀이 연합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해로 7년째 인도네시아 람퐁으로 아웃리치를 다녀 온 서빙

고공동체는 이번에는 젊은부부학교 지체들과 한 팀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팀은 현지에서 1천여 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주고, 작은 러브소나타를 열었다. 직접적인 전도가 어려워 눈빛으로만 복음을 전하던 무슬림 지역에서 작은 러브소나타가 열린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 복음의 문 열리다

하나님의 절묘한 부르심과 조합으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골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무료진료를 했다. 아웃리치 셋째 날에는 기독교 병원 앞마당에서 환자와 가족, 병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미니 러브소나타를 열었다. 미니 러브소나타에는 현지 기독교 및 찬양팀도 참석해 힘을 보탤다.

▷한국 전통 무용 부채춤 ▷SUM(몸으로 드리는 찬양) ▷클래식 연주 ▷간증 ▷메시지

▷중이비행기 세리머니 등의 순서로 진행된 러브소나타에 대한 현지인들의 호응은 매우 뜨거웠다. 무려 6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한 병원관계자는 개원 62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집회라며 감격에 젖었고, 현지 선교사는 인도네시아에 드디어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했다.

젊은부부학교 임진완 팀장은 "의료서비스와 문화 교류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복음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2012 4차 선교사 파송식

오늘(19일) 서빙고 1부 예배와 양재 3부 예배에서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는 1,403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며, 지역중인 선교사는 65국가의 730명이다.

- 김기용/ 김선희(언어공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성령 충만)
- 김요한/ 김하나(경배와 찬양, 제자 양육 및 선교비전을 제시, 영육 간 강건)
- 비느하스(소통과 공감, 감동 있는 삶,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 한데이빗/ 최필(팀의 연합, 최선교사 건강, 성령 충만)
- 이다윗(하나님 나라 회복, 영광 돌리는 삶, 언어의 은사)
- 양기쁨(하나님과 깊은 관계, 현지선교사와 좋은 협력관계, 건강과 안전)
- 김인태(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구원)
- 최갈렘/ 임렘시바(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 선포, 초기 정착 과정에서 지혜)
- 박에벤/ 박에셀(현지 적응, 언어공부,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 FA 3기 팀(렘레이첼/김나엘/김따라/다비다/김나무/서로/정하심-군사된 자로 부르신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팀이 되기를)



남양주 33+ 인도, 네팔, 부탄

## 히말라야에 복음의 깃발을 꽂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의 전도여행을 묵상하던 중 우리 공동체도 이러한 아웃리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셔서 인도와 네팔, 그리고 부탄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다. 인도와 네팔, 부탄은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교두보이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트래킹전도가 가능한 곳이었다.

### 마을 전도하러 산으로 들어가다

우리의 첫 방문지는 인도 델리. 7월 하순의 델리는 우리가 듣던 살인적인 더위는 없었다. 평균 33도 바람도 불었다. 델리 시내 곳곳에서 목격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옆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소무리들. 그 속에서 사람보다 소를 더 귀하게 여기는 힌두교를 볼 수 있었다. 이를 동안 델리 땅밋기를 마치고 인도의 실리구리로 이동했다. 실리구리는 히말라야산맥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평지로 일 년 중 180일 동안 비가 오는 지역이다. 우리는 실리구리 숙소에서 트래킹복장과 마을 전도지역 물품을 챙기고 2대의 차량에 몸을 싣고 해발 2000m이상에 위치한 페둥에서 인도와 네팔의 국경 킴블봉 지역으로 출발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보았던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산 곳곳에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힌두사원과 라마불교 사원들이 즐비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해발 2700m. 이 높고 깊은 산속에 오직 마을 주민들에 의해 세워진 초·중·고 통합학교가 있었다. 40명의 학생들이 우리를 반겼다.

선교사님의 유창한 네팔어 통역으로 예배

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실은 학생과 교사뿐만이 아닌 마을주민들로 채워졌다. 학생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하며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 예배가 끝나고 준비한 풍선아트, 네일아트, 얼굴마사지, 축구 등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어주었다. 학교 사역이 끝나고 산 속 곳곳에 묻힌 집들을 찾아다니며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준비한 사역을 하였다.

이들간의 마을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부탄으로 향했다. 극도의 고립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는 신비적이고, 주술적인 성격이 강한 탄트라(tantric)불교를 강화하고 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직접보고 중보하고 싶었다. 인도 자이가온을 통해 넘어가는 부탄 국경 도시인 폰츨링은 부탄사람과 인도사람들은 별도의 검문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지만 타국사람들은 검문이 까다롭다. 경비병들이 우리를 막으면 넘어가지 못한다. 차를 통해 검문소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양쪽으로 서있는 경비병들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모두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오히려 우리가 신기하게 경비병들을 쳐다보며 국경을 넘었다. 이윽고 펼쳐진 부탄. 그들은 정말 우리와 흡사했다.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을 마쳤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 인도-네팔-부탄을 밟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는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땅과 영혼, 열방을 향해 기도할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블래싱 히말라야 2탄이 기다려진다. 할렐루야!

/ 황민식 전도사 (33+공동체)



##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세상의 유희와 개인적인 사정들이 자치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팀원들과 나 스스로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아웃리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일 뿐인데... 교만함을 깨닫고 베트남으로 향했다.

### 예비한 땅에 은혜의 열매

7월 20일(금) 새벽, 불 꺼진 간판들이 즐비한 베트남 호치민 땅에 도착했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버스를 타고 수면목으로 이동하는 시간동안 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졌다. 20~23일까지 베트남 교회 세 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했다. 첫 날은 우리가 생각했던 30명보다 훨씬 많은 100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왔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서툰 진행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기를 기도했다.

준비해간 데코, 드라마, 율동 등이 잘 진행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 기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를 함께 한 친구들과 헤어지고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마음이 많이 아팠다. 21일에 찾아간 교회는 현지 목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본 교회였다. 이 날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했다. 사역을 하면서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주님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하나님 만나러 온 아이들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장을

구경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교회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다른 지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드렸는데,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간 그 곳에 청소년 사역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놀랍고 반기웠다.

23일 오전에 어린이 사역을 위해 또 다른 교회를 방문했다. 그 곳은 가정집이었다. 동네의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했다. 2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을 만나 사역들을 진행했다. 적은 수

의 아이들이라 더욱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고 더욱 깊은 나눔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 동안 공간들이 찾아와 지켜보고 갔는데 우리가 돌아간 후에 그곳이 안전할지 걱정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

준비했던 사역들을 잘 마치고 호치민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면서 베트남의 바다에 들어서 자연을 묵상 하는데 바람소리가 거세서 다른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상황이 마치 세상소리가 너무 거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나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자연묵상은 새로운 경험이었고, 평소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모든 사역을 마친 베트남 아웃리치 팀은 베트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상의 유희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다. 나의 첫 해외 아웃리치 베트남. 하나님께서 그 땅을 더욱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박혜원(하늘공동체)





01

GiL 공동체 캄보디아

##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만끽했어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16명의 GiL공동체 지체들이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5박 6일 동안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과 노방찬양, 땅 밟기를 사역을 했다.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다.

“오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어도 지금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것 다 잊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선교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숨어있던 사역에 대한 부담감을 일순간 녹여버렸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다시 느끼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었던 긴급한 심령에 불이 붙는 듯 했다.

### 나를 불드시는 하나님

첫 예배에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겠다고 말씀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여쭙 보거나 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바로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 또는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응답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웃리치 기간 내내 이어졌다.



사역지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 나는 내가 설정해놓은 기준에 미달하면 자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 했는데 내 자신을 마워하고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이 달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내게 전달되는 듯 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딸이 되지 않겠다고 기도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졌다.

주님의 은혜로 어린이 사역을 무시하 마치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대기하는 중 지체 한

명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대화에서 나의 죄와 연약함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사 놓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메시지 성경이 떠올랐다. 로마서 5장 5-8절에 눈길이 머물러 있게 됐다. 자기 지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탁 트이고 드넓은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말씀을 보여주셨다.

나를 자유케 하심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이토록 나를 불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국에 도착하고 이틀 후인 토요일 QT를 하면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산에서 내려가기 싫어한 본문을 묵상하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마음껏 누렸던 캄보디아에서의 일주일일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던 내가 다름 아닌 베드로였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오늘 이곳에서 살기로 결단하게 하셨다.

나무와 하늘만 봐도 하나님 목상이 절로 되던 캄보디아와는 달리 이곳은 시선을 빼앗는 화려함으로 넘쳐난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 새로운 은혜로 더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을 온전히 만족시키는 유일한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내게는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선교자가 될 것이다.

/ 임수연  
(GiL공동체 선교그룹)



02

차세대 양재 중등1부 베트남

## “믿음 올림픽 2관왕 달성했어요”

양재 중등부 '선교하는 바울학교'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선교에 목숨 걸었던 하용주 목사님의 소천 1주기에 떠나는 아웃리치라서 감회가 새로웠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부모님들의 뜨거운 기도를 받고 출발한 인천 공항에는 피서를 떠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관광객들을 보며 모두 선교여행을 떠나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

베트남 하이퐁교회에서는 여성성경학교 사역을 섬겼다. 아이들은 틈틈이 준비한 연주와 찬양으로 정성껏 섬기며, 페이스페인팅과 풍선 아트로 즐거움을 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은사를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는 친구들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현지 신학생들의 인도로 찬양과 율동을 선보이는 베트남 어린친구들의 해맑은 표정이 꼭 현사 같았다. 찬양가사를 따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에 많은 도전을 받았다. 온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한 목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했다.

사회지역에서는 가난을 타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교산족 마을의 땅을 밟으며 그 땅을 품었다. 부족함 없이 자란 친구들이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리 넓지 않은 공연 전막대에서 전도사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느 각도로 사진을 찍어도 작품사진이 나올듯한 멋진 풍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알아듣지도 못

하는 우리의 찬양에 몰입했다.

선교사님 부부와 아웃리치 팀 등 16명은 한국의 정자 비슷한 곳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는 장엄한 예배도 아니고,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하고 짧은 선교 말씀으로 진행된 소박한 예배였지만 나름대로 은혜로웠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라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 예비 선교사 양성소 '선교하는 바울학교'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 양재 중등부 친구들은 시원한 복음의 팔복수와 예수님의 사랑의 부채질로 베트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적갈증을 풀어주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에서 개최된 믿음의 올림픽에서 탁월한 기량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오르며 금의환향했다.

아웃리치는 사랑스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화려한 대중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비 선교사 양성소인 '선교하는 바울학교'에서 훈련받은 친구들이 기특하고 대견스럽다. 부디 믿음의 경주에서 한 눈 팔지 않고 완주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울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며, 선교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웃리치 오셨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신현기 교사  
(양재 중등1부)



2012년 8월 19일 913호

- 01- 캄보디아 아웃리치 보고 : 임수연 (GiL 공동체 선교그룹)(8면)
- 02-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신현기 교사 (차세대 양재 중등1부)(8면)



# 그가 일본 선교에 목숨 걸었던 이유는...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 소나타  
| 하용조 지음 | 두란노



“일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일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창립한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암세포와 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일본 선교 사역인 ‘러브소나타’를 펼치면서 했던 말이다.  
최근 발간된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소나타’ (두란노)에는 하 목사가 왜 일본 선교

에 목숨의 진액까지 쏟아부었는지 잘 나와 있다.

책에는 2006년 일본 CGNTV 개국 예배를 시작으로 2007년 오키나와부터 2010년 니가타 러브소나타에 이르기까지 고인이 선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멈출 수 없는 선교 열정, 그리고 일본 열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면 곳곳에 나타나 있다.

하 목사는 “나는 일본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면서 그 이유를 말한다. “일본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러브소나타를 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변하면 세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에서 탁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이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일본은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러브소나타는 하 목사가 엄청난 한류 붐을 일으킨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영적 운동이다.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목숨까지 내어놓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만난다면 열도의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려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벌인 이 시대 선교행전이다.

2009년 고베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서 하

목사는 “사랑은 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사랑은 영적 지진을 일으킨다”면서 일본인들에게 최고의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책 속 ‘내가 본 러브소나타’란 항목에는 일본 목회자들이 쓴 감동과 감사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고베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을 역임한 고무라사키 요시히로 시라가 와다이침례교회 목사는 “천국에서 다시 하 목사를 만나면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당신의 사랑이, 당신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이 일본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일본인들에게 던진 하 목사의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과거에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하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 사랑을 전하고 싶

어 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다. 암세포와 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선교의 열정에 고개 숙여진다.

하 목사는 2006년의 메시지에서 2·3년 안에 일본에 치유와 회복의 불길이 일어나야 하며 5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 전에 오사카에서 삿포로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일본 민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그가 시한을 정한 5년이 지났다. 일본인들에게 사랑을 전했던 하 목사는 이 땅을 떠났다. 이대로 끝낼 것인가. 추천사를 쓴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는 말한다. “나는 이 책으로 일본과 아시아 그리고 이 세대 온 세상을 향해 꿈꾸는 자(visionary)로 헌신한 또 다른 ‘하용조’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한국인 목회자가 암세포와 치절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열도 복음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 선교는, 열도에서 불려지는 러브소나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태형 선임기자 thlee@kmib.co.kr  
\* 8월 8일자 국민일보 기사를 전제했습니다.



01

##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

### 키비 IBS 스쿨 21기 개강

키비 IBS(Israel Bible Study)스쿨 21기가 오는 9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양재 JDS홀에서 6주 동안 진행된다.

키비 IBS스쿨에서는 학습교재를 통해 복음전파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묵상하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동영상교육을 통해 이스라엘 회복의 필요성과 회복과정, 예언, 성취 등을 다양한 각도로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개강예배에서는故 하용조 목사의 '로마서 강해' 설교영상을 통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묵상한다. 참가비 만원

문의 010-2500-4414

/ 권정혜 통신원

02

### TV 추천 프로그램



#### ▷ Salt & Light

- 8/23(목) 오전 9시 40분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을 다녀온 CCF(Christian Ceo Forum) 아웃리치팀의 1352km의 사역현장을 소개합니다.

03

### TV 추천 프로그램



#### ▷ 한국기독실업인회(CBMC) 60주년 기념대회

- 8/23(목) 오후 10시 20분

비즈니스와 선교를 함께 실천해온 CBMC가 60주년을 맞아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01

## 여름 아웃리치 작품 공모

2천선교본부와 CGNTV가 공동으로 '여름 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아웃리치 현장을 담은

동영상, 사진, 간증, 보고서이다. 작품은 9월 15일까지 이메일(blessings-hara@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시상내역〉-----

▶동영상·사진부문

1등(1명) 뉴아이패드

2등(1명) 아이패드2

3등(2명) 생명의 삶 1년 정기구독권

▶간증문·보고서 부문

1등(1팀) 지역지원비 50만원

2등(2팀) 지역지원비 30만원

문의: 795-9085

02



'2012 Disciple's Day

## 60개팀 아웃리치 풍성한 결실보고

### 국내외로 복음 전한 729명의 JDS

예수제자학교(Jesus Disciple School, 이하 JDS) 학생과 간사들이 '2012 Disciple's Day'를 맞아 한자리에 모여 은혜의 잔치를 나눴다.

지난 8월 20일(월) 서빙고 본당에서 JDS 아웃리치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는 자신의 몸과 시간, 재능을 드려 복음의 도구로 올 여름을 불사른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캠퍼스의 770여 명이 참석했다.

아웃리치 보고회는 ▷정진호 장로의 대표기도 ▷SUM, 드라마, 태권도 특순 ▷간증 ▷이훈 목사의 말씀

▷중보기도 ▷리더십 영상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간증한 나금숙 성도(케냐)는 "아웃리치에서 받은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서 "특히 무슬림 마을에서 당당히 복음을 전했던 것과 거리로 나가거나 현지인 집에 들어가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 모두 은혜가 넘쳤다"고 했다.

임신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아웃리치를 떠난 정민주 성도는 "주변에서 만류하던 아

웃리치였다. 임신 초기 유산 위험이 있던 것을 극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아웃리치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말씀을 전한 이훈 목사(JDS 담당)는 "예수님은 삶 전체가 아웃리치였다"고 강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제지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땅에서의 아웃리치를 감당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올 여름 JDS는 60개팀(해외 51개, 국내 9)의 총 729명이 21개국 58개 지역으로 떠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돌아왔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다

## 온누리미션 연합세례식 현장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한분만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죄와 작별하는 삶 살겠습니다”

지난 19일(주일) 오후 4시 대부도 온누리미션 침례식 현장. 16명 세례자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다. 세례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270명의 축하객들은 손에 꽃다발을 든 채 새 삶을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에 담았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세례식이 진행됐다.

“세례는 더 이상 세상 옷을 입은 자가 아닌 그리스도 옷을 입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마음과 영혼도 성령의 세례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온누리미션 김영철 목사는 비장한 목소리로 짧지만 강력하게 세례의 참의미를 전했다.

예배가 드려진지 50분이 흘렀을까? 만조시간에 맞춰 바닷물이 조금씩 예배드리는 곳까지 밀려들어왔다. 세례침례 전 세례자들의 표정에서는 엄숙함과 함께 기대감이 묻어나왔다. 서대문 공동체 500여 명의 찬양소리와 함께 세례자들은 한명씩 침례식에 임했다. 바닷물에 잠겼다 나온 세례자들의

마음은 어느새 성령으로 가득 찼다. 새 생명을 받은 세례자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바다를 향해 손을 뻗어 주님을 경배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해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세례식을 섬긴 서대문공동체 심재이 총무는 “침례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물 밖으로 나오는 이주민들의 환한 표정을 보면서 감동이 밀려왔다”고 고백했다.

세례자 손춘희 자매는 “새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전했다.

## 아름다운 섬김이 서대문공동체

서대문공동체는 이번 여름 국내 아웃리치로 온누리M센터로 섬기기로 결정했다. 대부도에서 침례식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봉사자들을 모집하니 순식간에 50명이 넘는 손길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19일 아침 일찍 안산 온누리M센터를 방문해 국가별로 열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예배 후에는 대부도 세례식 현장으로 찾아가 찬양팀과 식사팀으로

아름다운 손길을 나눴다. 온누리M센터 아웃리치를 통해 이주민들의 뜨거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세례식을 통해 성령의 벅찬 감동을 느꼈다고 봉사자들은 입 모아 고백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소망으로 가득 찬 삶”

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제 인생은 늘 불안했고 두려웠으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에 일할 기회가 생겨 오게 되었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일의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지냈습니다. 술로 인해 잡시는 즐길 수 있었지만 동시에 술로 인해 친구들과 마찰이 생겼고 일을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보니 제 자신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저에게 온누리M센터를 소개시켜주었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고 캄보디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첫날 M센터 선생님과 친구들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정말 저를 잘 돌봐 주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정기적으로 M센터에 왔고 성경공부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저의 삶은 변화했고 사랑과 친절이 가득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저의 삶은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랑스런 주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삶을 드립니다.

/ 짜야 티나 형제(캄보디아)



##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저는 6개월 전 지인을 통해 온누리M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어예배가 있다고 해서와 보았는데 예상 외로 분위기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각자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는 달랐지만, 오직 전능하신 주님 안에서 언어와 민족, 국경을 초월하여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저는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나 자신이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일대일 제자양육과 성경공부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됐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각 그룹별로 진행되고 있는 ABC성경공부를 통하여 여러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삶의 활력소도 얻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앞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7)는 말씀을 마음 속에 새기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손춘희 자매(중국)



## 세례자 명단

캄보디아(짜야 티나, 속리양), 태국(빨라타론, 세터웃, 아빠), 네팔(아누즈, 비렌드라), 중국(손춘희, 성정화), 스리랑카(디네슈), 몽골(몽크사불), 러시아(간 엘레나, 안나 비티엔코, 이리나 김), 한국 유아세례(유민봉, 윤별)



01

일산공동체 세네갈

# “세네갈 땅에 임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5월 중순, 주님은 내게 인생의 첫 아웃리치에 대한 희망을 주셨다. 몸담고 있는 일산공동체에서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오래 전부터 후원하고 있는 세네갈의 풀라니쪽에 의료 선교 아웃리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

###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감격

세네갈에 도착한 첫날 물도 나오지 않는 공황 화장실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입국 심사대 등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위축됐지만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을 뵈고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약품, 물리치료 장비 등 모든 점의 통관이 문제없이 진행되면서 아웃리치에 대한 긍정적인 기운이 다시 감동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 공항에서 500km 떨어진 리차드볼로 이동을 하고 셋째 날부터 본격적인 의료선교 사역이 시작됐다. 세네갈에서 머무는 5일 동안 왕복 1,600km나 되는 일곱 개의 마을을 방문하며 400명이 넘는 현지인들에게 의료사역을 펼쳤다. 접수팀, 내과팀, 물리치료팀, 약제팀이 불나바퀴 맞물리듯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 2:5)처럼 하나되어 사역했다. 통증 환자, 피부병 환자가 많았고 그 외에도 충치 환자, 나무 조각이 박혀 다리를 저는 환자, 기생충에 감염되어 혈뇨가 나오는 환자, 감기 환자, 피부가 백인



처럼 하얗게 변한 환자, 당뇨환자 등 다양한 유형의 환자들이 몰렸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려고 노력했고 이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비타민, 영양제라도 주었다.

3일 차 은돔 지역에서는 해가 저서 사역이 마무리됐을 때 한 여자 분이 다가왔다. 그녀가 가슴을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 여인을 기억하여 주소서’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진찰하신 안용태 장로님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유방암 말기 환자라고 하였고 오래 살 수 없는 상태라고 하셨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며칠분의 약과 기도밖에 없었다. 이슬람 지역이라 사람

들이 보지 못하게 문을 막고 그 여인을 위해서 이해영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기도했다. 우리가 사역했던 세네갈 풀라니 종족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이었고 특히 리더단 기간과 겹쳐 이슬람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다.

5일 차 사역한 마탐교회는 교회지만 드러낼 수 없어서 보안을 위해 담벼락에 깨진 유리조각을 놓거나 스포츠 센터로 위장하고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었다. 쌓인 기도 덕이었는지 그곳 사역이 영적, 육적으로 제일 수월했다. 현지인 목사님께서 우리는 사역을 마치고 떠나도 ‘너의 친구들은 잘 돌아갔느냐?’ 며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고 다시 와서 의료 사역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

라고 하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웃리치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행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아직도 그 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가 된다.

### 그 땅에 열매를 허락하시다

마지막 날 지다카르에서 세네갈과 모리타니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까지 합해서 가장 많은 115명의 환자를 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잠깐 수고하고 가지만 수백km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차 그 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다.

5년 넘게 남편과 교회를 따로 다니다 올해부터 남편이 출석하는 은누리교회에 등록했고 나를 은누리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을 아웃리치를 통해 얻었다. 부부가 함께한 아웃리치를 통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고 이슬람에 대한 아픔과 안타까움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 박지영 성도(일산공동체)



02

양천공동체 일본 이치카와

# “일본인들의 마음문 두드린 노방전도”

양천공동체는 지난 7월 30일(월)부터 8월 2일(목)까지 일본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3차에 걸친 준비 기도모임 후, 7월 23일 아웃리치 파송예배를 드렸고, 아웃리치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체 식구들도 함께 기도하고 이치카와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렸다.

### 길거리에서 전한 예수

나라타공원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이도현 선교사님과 함께 이치카와교회에 도착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 내역과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예정대로 이치카와 전철역에 나가 노방전도를 했다.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뒷면에 일본어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은 물티슈와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했고, 다른 한 팀은 전도사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찬양 ‘예수 믿으세요’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본어로 불렀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에 복음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며 물티슈 1박스(250개)와 전도지를 모두 나누어 주었다. 둘째 날 아침, 누가복음 8장 40-56절로 큐



티를 나누고 오전 9시부터 모토야와타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시작했다. 어제보다는 한 가한 지역이었으나 의외로 전도지는 잘 받는 편이었다. 짙은 무더위 속에서도 물티슈 전도지 두 박스를 2시간 만에 모두 나누어 주는 성과가 있어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심을 실감했다.

이날 이치카와교회에서는 전도사님들의 사역 소개 발표가 있었다. 주제는 ‘홈쿨이 활성화된 일본에서의 처치 스킴(church

school) △신도 0.02%인 일본 선교의 당위성 △교회 카운슬링이었다. 이후 우리는 이치카와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길, 8년간 준비해 온 이치카와 국제학교와 어린이 교육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셋째 날은 동경에 들려 땅 밟기를 하고 이치카와교회로 이동하여 수요저녁예배를 드렸다. 예배자는 은누리교회 11명, 이치카와 교회 11명 총 22명이었다. 예배 후 교인들과 일대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은 통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낀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나도 ‘보내든지 가든지’

마지막 날은 하용조 목사님의 소헌 1주기였다. 작년에는 이스라엘 아웃리치 현장에서 하 목사님의 소헌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다. 러브소나타! 일본을 생애 마지막 사역지로 또한 일본인들의 정신을 변화시킨 하 목사님! 선교 중심의 교회에 목숨을 걸었던 작은 예수, 하용조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 비록 단기사역이지만 나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하 목사님이 걸어온 길을 흉내라도 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보는 아침이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고 듣고 느끼니 선교사를 돕지 않을 수 없음을 실감했다. 공동체에서 후원하는 다른 선교사들의 사정을 알아 후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든지 가든지’ 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자는 비전을 품고 아웃리치를 마감하게 되었다.

/ 조대현 집사(양천공동체)



2012년 8월 26일 914호

- 01-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박지영 성도(일산공동체)(10면)
- 02- 일본 이치카와 아웃리치 보고 : 조대현 집사(양천공동체)(10면)



Point5공동체 스리랑카

# “온 맘 다해 예배한 아웃리치였어요”

지난 7월 29일~8월 1일 Point5공동체 지체들과 Jesus Crew의 교사들이 함께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팀은 손속 목사님(Jesus Crew), 윤효정 팀장님을 중심으로 20~50대까지 다양하고 독특한 은사와 성품을 가진 14명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었다. 첫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5시간을 지나 차(tea)밭이 많은 지역인 ‘데니아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위해 먼저 교회로 향했다.

## 함께 울고 웃었던 2일

첫날(29일)에는 현지교회의 교사들에게 >올바른 예배 자세 >QT하는 방법 >어린 이사의역의 노하우 등을 알려주고 세족식을 가졌다. 온전히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세족식은 우리는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은 우리에게 안수기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족식을 하는 내내 우리 팀원들과 그들은 서로 섬기는 가운데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둘째 날(30일)과 셋째 날(31일)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열었다. 예상한 인원의 두 배나 되는 140명의 아이들이 이곳으로 몰려왔다. 팀원들은 짐통 더위 속에서도 울동, 찬양, 연극, 공작, 게임 등으로 아이들



과 하나가 되어 기쁨이 가득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우리들은 현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내내 배고픔으로 인한 굶주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줄기의 소망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한 기쁨의 이틀을 보냈다. 아이들은 본인 자신보다 하얀 우리의 살갓을 만지며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에 팀원들도 그들을 안아주며 아낌없는 사랑을 쏟았다. 그 결과 마지막 날(1일)에는 우리들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결심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또한 아웃리치 팀원들은 사흘 내내 이른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라싼테 목사님 부부와 이곳 성도들의 가정심방을 다녔다. 병들거나 가난하

게 살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아,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러지길...

불신자들만 있는 마을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러지길 간절히 바랐다. 팀원들은 차(tea)공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공장 주변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돌보기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불신자였던 공장 사장님께서 마음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 주셨다. 우리는 이 한 영혼이 복음의 씨앗을 공장에 뿌려 이곳이 복음화 되길 바라며 간

절히 기도했다. 다음 날(2일) 뛰어난 영성을 가지시고 양들을 각별히 사랑하시는 라싼테 목사님, 그의 가족 그리고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콜롬보로 향했다. 콜롬보에 도착하자마자 사만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사만 목사님은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오셨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학공부를 한 후 목사님이 되신 분이데 자신의 모국인 스리랑카에 개척하셔서 이렇게 큰 열매를 맺고 있었다.

팀원들은 이곳을 떠나기 전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방문으로 마지막 일정을 마쳤다. 그곳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목사님과 선교사님 여러 분이 계셨는데, 믿음으로 교육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학교라서 그런지 진한 감동이 전해졌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모든 팀원들은 주어진 은사대로 스리랑카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곳을 떠난 후 라싼테 목사님의 교회를 인근 불교신자들이 습격해 성도들이 예배에 단 한 명도 참석하지 못한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스리랑카의 크리스천들이 안전하게 지내길,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길, 그 땅에 복음이 확산되길 간절히 기도드린다.



/ 임윤 자매(Point5)

01

남양주 J공동체 필리핀

##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아웃리치를 출발하기 전,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 달 동안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아웃리치 또는 학비 둘 중 어느 곳에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있었다. 이때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이 떠올랐다. 나 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신 예수님처럼 나 역시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 이에 장학금 발표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필리핀으로 떠났다.

### 걱정근심 사라지는 아웃리치

7월 31일 기도하고 기대했던 수리가오 땅을 밟게 되었다. 선교사님 부부,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난 뒤 필리핀 학생들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 축복송을 불러주며 직접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었을 때 너무나 큰 감동이었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곳에 오기를 바라셨고, 복을 내려주었다고 느꼈다. 계속 나를 붙잡고 있던 재정과 가족에 대한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아웃리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수요일부터 이틀 동안 교회 보수지역으로 벽화 그리기와 바닥 시멘트 작업을 했다. 전도지역이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방문하여 공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 초등학교에 도착하고 학교 앞 작은 무대 위에 울동을 위해 섰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필리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배우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공연이 끝나고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 글 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 아이들은 그 복음을 주의 깊게 들었고 기도하

는 것도 힘차게 따라했다.

수리가오 사역 마지막 날, 명랑운동회를 통해 필리핀 사람들의 미소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진 것도 많으면서 불평을 달고 사는 나의 모습이 교차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9박 10일간의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보여주었다. 먼저 열방

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셨다. 필리핀 땅과 영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루하루 느끼며 경험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다. 한 순간 한 순간 나를 보호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고, 내가 아버지를 다시금 진실로 사랑하게 하였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떠났던 아웃리치. 내가 아웃리치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그분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 아웃리치에서 돌아온 수요일 오후 학교에서 온 등록금 고지서에는 장학금을 지원받아서 등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를 느꼈다. 아주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 분이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험했다.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음을 느꼈다. 저는 이 아웃리치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누렸고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 장민주(남양주 J공동체)

0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119편)  
- 8/27(월) 오후 8시 20분  
힌두교의 땅, 인도 벵갈로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양재일 선교사를 만났다.

2012년 8월 26일 914호

- 01- 필리핀 아웃리치 보고 : 장민주(남양주 J공동체)(12면)
- 0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119편)(13면)



01

## 다락방장 위한 와이미션 모집

### 9월 17일, 서빙고 쌍용전시관서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와이미션(Why Missions?)’ 이 공동체 다락방장을 모집한다. 이번 스쿨은 공동체별 책임 선교사 제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다락방장들을 대상으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선교 비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훈련은 선교에 대한 강의와 양화진 및 안산M센터 방문 등의 프로그램으로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7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아이

스쿨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와이미션을 수료한 다락방장들이라면 와이미션 스템으로 지원해서 섬길 수 있다.

한편, 30기 서빙고 와이미션은 9월 22일부터, 31기 양재 와이미션은 10월 6일부터, 인천 와이미션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 허은아 간사(3215-3644)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세계로 뻗어나가는 일대일 양육

### 일대일 사역팀, C국 아웃리치

“공산주의가 넘치는 이곳에 일대일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반자를 통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동안 C국으로 ‘일대일 아웃리치’를 다녀온 참석자들의 간증이다.

서빙고 일대일 사역팀은 공개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땅, C국에서 ▷ 일대일 양육 사역 ▷ 동반자 연결 ▷ 기도회 ▷ 일대일 수료예배 등의 사역을 통해 낳고 낳는 일대일의 열매를 맺고 돌아왔다.

이번 아웃리치에 참석한 유현모 집사는 “동반자를 만나면서부터 성령님의 임재를 느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어려워하던 사람들이 큐티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고백했다. 심길섭 장로는 “한 교회에서 오신 분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분과의 시간을 통해 그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언어를 공부해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C국으로 부르시면 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전했다.

아웃리치를 담당할 김대진 목사는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면서 “작은 지식과 열심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 정지은 기자 jje@onnuri.org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 전하는 좋은이웃모빌팀



강정례 팀장(서초B공동체) 오정란 권사(강남C공동체)

# “수감자들의 ‘좋은 이웃’ 되어 함께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을 하셨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 갇힌 자, 포로 된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영혼이든지 사랑하며, 잘 돌보라고 말이다. 지난 8월 12일(주일)에는 6년째 구치소를 찾아가 마음이 닫힌 영혼들, 세상에 외면당한 억울한 자, 억눌린 자, 포로 된 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양재 좋은이웃모빌팀의 강정례 팀장(서초B공동체)과 오정란 사역자(강남C공동체)를 만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왜 좋은이웃모빌팀인가?

‘좋은이웃모빌팀’이란 명칭은 스페인어 모빌(Movil)의 ‘움직인다’는 뜻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씀으로 듣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을 쏟아 부으며, 삶을 통해 말씀을 실천하는(움직이는) 사역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양재좋은이웃모빌팀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팀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 구치소에서 만날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6-12명의 팀원들이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활동한 지도 벌써 6년째. 그러나 아직도 좋은이웃모빌팀 멤버는 창단했을 당시와 같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치소 이야기만 들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잘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직접 가서 그 영혼들을 보면 한없이 공활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부터 들거든요. 무엇보다 저처럼 공황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곳에 와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얼굴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거든요.”

매달 셋째주 목요일 오전 10-11시에는 각자 소개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11시까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일대일 상담을 한다. 그때 수감자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자연스럽게 기도제목을 나눈다. 이곳에는 20세 이하의 내국인 자매들과 나이제한 없이 다양한 연령층의 외국인 자매들이 있다. 대부분의 내국인들은 이혼으로 분리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다. 좋은이웃모빌팀이 이들과 만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울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면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

를 통해 정이 쌓이게 된다고 한다.

이곳에는 다양한 사연들로 온 영혼들이 많다. 오 권사는 이곳에 있는 외국인들과 교제를 열어 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외국인들은 면회 대상도 영치금도 없어요. 이들에게 매번 영치금을 넣어주다 보니깐 처음 나올 때는 그 돈이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랬던 그들이 저희와 말씀을 통해 교제를 하다가 서서히 마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죠. 어떤 중국 자매는 불교에서 개종해서 신학교까지 가기도 했어요.”

양재 좋은이웃모빌팀은 이 자매가 처음 남부 구치소에 있었을 당시부터 청주교도소로 옮기고 형량을 다 마칠 때까지 꾸준히 이 영혼을 돌봤다고 한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모든 형량을 다 마치면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양재 좋은이웃모빌팀에서 양재 공황사역팀과 연합해서 이 자매가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 주고 그녀에게 필요한 가방, 운동화, 왕 자매의 할머니한테 드릴 선물 등 모든 물품들을 구비해서 중국 땅으로 보내줬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고로부터 그녀의 삶이

계속해서 제 1, 2, 3의 왕서평 자매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밖의 외국인들도 왕 자매처럼 교도소에서 형량을 살고 나면 자기 나라로 추방을 당한다. 강 팀장은 ‘코리아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와서 본인이 뜻하지 않은 대로 일이 안 풀리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크며 이야기를 했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국제사기로 인한 범죄로 이곳에 많이 오게 돼요. 그런데 이곳에서 언어가 안 통하니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웅변할 수 없어 억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반감 이 생겨서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깐 우리가 먼저 이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예수님을 전하면 이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 2007년부터 매월 구치소 방문·전도 ‘거듭난 새사람’ 되도록 사랑으로 섬겨



### 수감자에서 신학생으로 ‘감동 스토리’

오 권사는 중국 자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감자라며 그 자매에 대한 스토리를 이어갔다.

“2011년 가을에 10개월 정도 교제를 한 왕서평이라는 중국인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독실한 불교신자인데 처음 만났을 때만해도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우연히 저희와 인연이 닿았는데 첫날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자매가 첫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계속 말씀을 사모해서 그 런지 두 달이 지난 후에 만났을 때는 무섭고 사나운 얼굴이 조금씩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매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매가 되었어요.”

변화된 것을 저희가 다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와 본인도 감동이었지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더 놀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이렇게 사랑은 누군가에게 실천할 때 그것을 앞에서 본 사람까지 전해져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친인척도 아닌, 그것도 그들에게는 외국인인 양재 좋은이웃모빌팀에서 영적 물질적인 사랑을 쏟았어요.

“왕서평 자매가 저희들을 보고 신학을 하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했어요. 중국 간 그녀에게 편지도 왔어요. 그 모든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 출소한 영혼 위한 섬티 필요

강 팀장은 영혼들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후기 프로그램에 대한 본인의 바람을 말했다.

“구치소에 있는 학생들이 교도소에서 형량을 받고 나오면 학교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역은 이 영혼들을 끝까지 돌보는 것까지는 못 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들이 교도소에서 나와서 잠시 동안이라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는 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일단 밥 먹고 잠도 자는 쉼터 그리고 온전히 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팀이 생겨야 이 사역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학교와 사회에서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기 쉽거든요. 잠시라도 이들이 쉼터에 머물면서 성경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들의 생각까지 선하게 바뀌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에서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꿈을 꾸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인터뷰 \_ 박영근 · 강일영 선교목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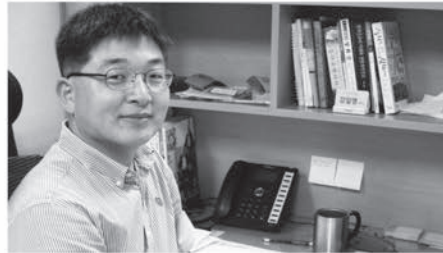
# 선교와 목회 있는 ‘선교목회자 인턴십’

## 올해 첫 시행... Acts29 비전 배우는 기회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온누리교회 목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선교 목회자 인턴십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됐다. 현재 박영근 선교사와 강일영 선교사가 각각 부천 믿음공동체와 서빙고 김포공동체에서 인턴십을 받고 있다. 이 제도가 선교지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를 두 선교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대담 조은실 기자



박영근 선교 목회자



강일영 선교 목회자

### ‘목회를 통해 도전이 됩니다’

“저는 13년 동안 스리랑카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올해 1월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2월부터 부천 믿음 공동체와 김포M센터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스리랑카에 있을 때 목회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만나야하고 행정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결국 목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목회자로서 효과적인 선교와 온누리가 지향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목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회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있

습니다. 행정적인 것과 순예배를 드리고 심방을 다니면서 관계와 공동체의 유익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는 자세로 서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도전이 됩니다.

2년의 시간동안 배우고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서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선교지에 가서도 잘 연결하여 풍성한 영적인 삶을 나누고 싶습니다.”

### ‘온누리 시스템 잘 배워가겠습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사로 2년, 마주 온누리교회 TIMA에서 7년 동안 사역하고 현재 김포공동체와 2천선교본부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으면 온누리가 지향하는 것들과 발맞춰가기가 힘듭니다. 선교지에서 한인선교사나 현지인들이 온누리교회에 대해 물어봤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이케어나 아이스쿨을 보듯이 이제는 스마트한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런 시대흐름을 준비하지 못하

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누리교회의 스마트한 여러 프로그램을 잘 배워서 선교현장에서도 잘 적용했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 다시 선교 현장에 나갔을 때, 온누리교회 시스템을 잘 심을 수 있도록 Acts29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선교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Acts29정신이 현장에 흘러가서 현지교회가 스스로 개척되고 스스로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2

인터뷰 \_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 “꿈과 희망 선물하십시오”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자선콘서트  
오는 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기금 마련을 위한 정경화 자선콘서트가 오는 3일(월)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콘서트를 앞둔 지난달 31일(금)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성도를 만나 이번 콘서트 의미에 대해 들어보았다.

공연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와 온누리교회는 인연이 깊습니다.故 하용주 목사님은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 해주셨고,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을 때 출석했던 교회가기 때문입니다.

저의 은사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저의 공연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말라리아와 기생충으로부터 받고 있는 생명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남달라 보입니다.

“오래전부터 르완다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납니다. 평생 동안 했던 음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도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놓고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에 빠지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보다 공연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공연의 메시지입니다.

병들고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연주회에 귀한 발걸음을 하셔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십시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1

고양은평공동체 **국내외**

# “공동체 지원으로 더 많은 지체 ‘아웃리치’ 로”

고양은평공동체의 2012년도 국내(5개 팀) 및 해외(1개 팀) 아웃리치가 지난 8월 19일 로모든 일정을 마쳤다.

### 해외 - 중국 곤명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중국 곤명에서 진행되었다. 31명의 참가자들은 두 달 전부터 여성민 목사님과 함께 사도행전 1-28장의 각 주제를 암송하고, 워십과 부채춤을 배우고, 중국어 찬양과 선물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다.

우리는 중국의 남쪽 운남성에 위치한 곤명에서도 500km 이상 떨어진 티벳과의 국경 접경지 근처의 소수민족 마을을 방문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아웃리치는 그야말로 ‘야생 배리어터’였다. 5명씩 6개 조로 나누어 매일 소수민족 가정을 방문하고 허락된 가정에서 숙박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곤명 공항에 내려 버스로 12시간을 달리고 해발 2700m의 비포장 산길을 거세게 내리는 비와 함께 걸어 밤늦게 도착한 리슈족 마을. 그들과 함께한 주일 세 번의 예배는 성령 충만했다. 특히 각 조별로 나누어 라마불교를 믿는 장족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복음을 합부로 전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민속춤과 경연, 즉석



노래시랑, 태권도 시범, 게임 등을 하며 하나씩 주신 지혜와 은사를 발휘하여 그들과 교제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함께한 아웃리치였다. 100명 이상의 공동체 지체들이 현지에 가져갈 물품을 후원해 주었고 장로님을 비롯한 리더십들은 합심하여 해외 선교를 위한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문제 메시지와 메신저로 지체들에게 실시간 기도제목과 보내주고, 팀의 소식을 공유하며 서로 하나 되어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국내 - 다락방별 아웃리치

국내 아웃리치는 두 개의 다락방이 함께 다섯 팀으로 나누어 했다. 2개월 전부터 다락방별로 집중적으로 기도와 준비를 했고 그 결과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고양 1, 2다락방은 충남 청양의 생명나무 교회를 방문해 농촌 활동과 교회 청소를 도왔고 가정방문 전도를 행했다. 고양 3, 4다락방은 파주 금파교회를 방문해 주일예배와 마을주민 초청전지, 교회 보수공사를 했고 은평 1, 2다락방은 양평 서후교회를 방문해

밭마시지와 미용 봉사, 찬양학교 및 가정방문 전도를 행했다. 은평 2다락방은 제천수산 성결교회에서 거리 청소와 농촌일손을 돕고 마을주민을 초청해 식사대접을 했고, 은평 4다락방은 오산 참빛교회에서 교회 예배와 청소를 돕고 주일 점심식사를 거들었다.

국내 아웃리치는 교회가 위치한 마을을 방문해 농촌 일손을 도움과 동시에 농어촌 교회의 목회자를 위로하고, 마을 주민을 섬기는 아웃리치였다. 고양은평공동체에서는 국내 아웃리치에 대한 공동체의 지원을 강화해 좀 더 많은 지체들이 아웃리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여성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들은 순장모임과 순예배 때마다 중보기도와 홍보를 했고, 이를 통해 해외 아웃리치 31명, 국내 아웃리치 170명, 총 200여 명이 참여하게 됐다. 고양은평공동체에서는 내년에는 각 순별로 아웃리치를 한번도 가보지 못한 지체 1명을 선정, 순에서 1년 동안 집중기도를 하기로 했다. 또한 선교사님을 위한 월 1회 중보기도모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양은평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박영훈 집사 (고양은평공동체)



02

일산공동체 **인도네시아**

# “이슬람 땅에서 외친 강한 복음의 소리”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동안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산공동체 아웃리치팀은 5월 말부터 중보기도모임을 시작했고 한 달 전부터는 매일 새벽 재단을 쌓으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이해영 목사님과 부부 4가정이 동참해 모두 9명이 가게 되었다.

### 회복과 감동의 아웃리치

우리의 사역지는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위치한 솔로 지역이었다. 주요 사역 내용은 솔로 지역 다섯 곳의 현지인 교회를 방문해 집회와 어린이 사역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솔로엘사다이교회 오픈예배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 엘사다이교회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교회였는데 작년에 목사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80명이었던 성도들은 흩어져 2명 밖에 안 남았다. 우리 팀은 함께 중보했고, 기적적으로 재정이 채워져 엘사다이교회는 현지인 목사님을 모시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

사역 첫째 날, 우리 팀은 마케판 지역으로 이동했다. 우리는 준비해 간 태권도 시범과 격파, 인도네시아 찬양과 워십을 무사히 마



쳤다. 이날 모인 60여 명의 아이들은 동그란 큰 눈을 반짝이며 찬양을 따라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뻐 보였다.

저녁에는 루카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마케판 하나님의교회 저녁집회에 참석했다. 이 교회는 기독교 방송을 운영하는 귀한 교회였다. 우리 팀의 발표에 이어 이해영 목사님의 기도문과 300용사에 대한 사시기 말씀이 선포됐다. 200여 성도들과 우리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끝으로 우리 팀은 성도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며 뜨겁게 기

도한 그 감동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 현지인들과 함께한 감동의 예배

둘째 날, 우리는 마디온으로 이동을 해 요하네스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녁집회를 했다. 이 교회는 매일 4시 30분에 새벽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께서 직접 만드신 솔로 전통음식으로 우리 팀을 맞아 주셨다. 성도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는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가득했다. 셋째 날, 솔로로 이동을 하고 드디어 솔로

엘사다이교회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교회라 엘사다이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기쁨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넷째 날 아침, 베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솔로 마하나임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어르신 성도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모습은 감동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솔로 엘사다이교회를 찾았다. 오픈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전달 밤새 만든 화관을 씌워주며 축복송을 불러주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꼭 꿈에서 깨어난 것만 같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국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열정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다.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네시아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땅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

아웃리치를 마치며 다섯 번의 설교마다 폭포수와 같은 귀한 말씀을 부어주시는 이해영 목사님과 늘 맑은 분위기를 이끌어 각자의 다양한 은사로 아름답게 섬겨주시는 일산공동체 아웃리치 팀에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조수현 집사 (일산공동체)



2012년 9월 2일 915호

- 01- 중국 곤명 아웃리치 보고 : 박영훈 집사(고양은평공동체)(9면)
- 02- 인도네시아 솔로 아웃리치 보고 : 조수현 집사(일산공동체)(9면)



서초B공동체 '블레싱 사하라' 케냐

## “1,2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지난 7월 21~30일 10일 동안 서초B공동체와 토브팀 37명이 중앙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아프리카로 향한 아름다운 발걸음

13시간 동안의 긴 비행 끝에 7월 22일(주일) 오전 5시30분 경 케냐 나이로비 JKA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날씨는 흐리고 13°C 정도로 쌀쌀했다. 우리는 3일 동안의 사역을 위해 많은 의료장비를 가져왔다. 가져온 짐을 보며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다. 문득 사전에 수련회 일정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요원'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났다. '얼마나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난하고 무지했던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장비를 들여왔을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품고 중보하며 기도했을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강도 만난 자인 아프리카를 위해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많은 생각이 드는 동안 박석봉, 홍해욱 선교사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 주셨다. 국내선 항공기로 갈아타고 콰바사까지 450km, 그곳에서부터 사역지인 움페케토까지 남은 거리 350km를 4대의 차량



에 분승하여 갔다. 마침내 저녁 6시에 도착했다. 거의 24시간의 강행군이였다.

### 움페케토에서 전한 복음

23일(월)에 사역을 펼친 움페케토니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 번도 의료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역을 하기 전에 수님께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 육신의 질병 뿐만이 아닌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진 것이 생각났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가 되어 그들을 만지고 치료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

이번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24일(화)에 펼쳐졌다. 뜨거운 적도의 태양으로 인해 삼하게 상한 눈에 파리가 달라붙은 아이들, 생전에 한 번도 귀이저를 파 본 적이 없어서 딱이 되어 꼭 막힌 귀를 가진 아이들, 피부 부스럼이 온 머리에 가득한 사람들, 한없이 슬퍼 보이는 에이즈 환자들 등이 넘쳐났다. 난생처음 산부인과 초음파 기기를 접한 임산부들은 아기의 모습과 심장의 박동소리가 얼마나 충격적이고 감격이었을까. 아프리카를

사랑한 슈바이처처럼, 노벨평화상에 빛나는 국경없는의사회 소속의 의사처럼, 17명의 토브팀 의료진과 20명의 서초B선교팀이 한 마음이 되어 이를 동안 1,200명의 환자를 돌보는 기쁨을 누렸다. 또한 물려드는 주민과 어린이들에게 죽을 풀어주고, 머리도 깎아 주며, 중보기도를 해주었다. 그렇게 우리가 3일 동안 예정했던 사역은 가져간 모든 약이 소진되는 바람에 이를 만에 끝을 맺고 25일(수)에 현지에서 계시는 김현우, 우주희 선교사님이 개척한 마부노교회에서 우물통수 식으로 짧고 강렬했던 사역을 끝냈다.

처음 아웃리치에 참여한 우리 부부와 몇몇 지체들은 이번 케냐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예전에는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의문들이 많았는데 아웃리치를 끝내고 나니 그 궁금증이 풀렸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프리카를 품게 하신 소명이었다. 이 마음으로 계속 온 세상을 품기를 기도한다.

/ 한동호, 이향숙 성도  
(서초B공동체)



서초C공동체 / 북경

#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아웃리치

서초C공동체 26명 지체가 8월 15~18일 3박4일 동안 중국 북경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북경 아웃리치가 결정되자마자 세 번의 준비모임을 가지고 선교에 대한 비전, 중국 선교사님의 간증,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관련된 지식에 대해 준비하고 기도, 찬양, 친교로 팀워크를 형성했다. 출발 전 비바람이 심해져서 결항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무사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

### 중국 가정교회에서 만난 하나님

아웃리치 사역은 첫째날 가정교회 방문, 교회 이전을 위한 재정지원, 현지 선교사님 부부의 위로와 격려 등으로 진행되었다. 둘째날에는 북경 은누리교회에서 김주환 목사님(서초C공동체)의 특별집회 지원 및 강부호 목사님(북경은누리교회)이 부탁하신 책 70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북경에서 함께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팀원들은 가정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각자의 가방에서 꺼내서 전달했다. 이어 선교사님 가정교회를 방문해 중국 가정교회의 실상에 대한 간증을 들었다.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 작은 가정교회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



다. 또한 선교사님 부부의 간절한 기도와 비전을 나눴다.

이어 아웃리치 팀원 모두가 교회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어떤 한 지체는 남편에게 받은 선물을 여자 선교사님 손에 눈물을 글썽이며 꼭 쥐어 주기도 했다. 그 모습을 통해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여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또 어떤 형제는 의지를 만지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다. 선교사님 부

부는 공동체와 처음으로 사역을 함께 한다고 하시면서 설레면서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리 팀을 정성껏 섬겨 주셨다. 그 모습에 팀원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선교사님 부부와 헤어질 때 두 분의 맑고 선한 눈빛과 눈가에 맺힌 눈물이 왓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다.

### 축복의 통로 된 아웃리치

북경 은누리교회에서 새벽기도와 특별집회 참석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기쁨으로 채워주셨다. 특히 김주환 목사님의 산상수훈에서

의 팔복에 대한 설교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겼다. 또한 은누리교회 DNA와 하 목사님의 'Acts28' 비전이 동일하게 이곳 북경 은누리교회에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낮에는 천안문, 자금성, 만리장성, 예술인의 거리에서 팽팡기를 하며 13억 7천만 명의 중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강부호 목사님 부부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하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도 주심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로 이동하며 팀원들이 기도제목과 간증을 나눌 때에는 목적이 도착 직전에 단 하나의 간증도 빠짐없이 은혜로운 간증을 모두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셨다.

마지막 날 밤에는 26개의 촛불로 십자가를 만들어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주환 목사님은 한 가정씩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팀원들 모두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마음 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남주연 성도  
(서초C공동체)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안한 북카페  
- 9/3(월) 오전 9시40분  
1960년대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미국 은퇴 선교사들의 마음 '블랙 마운틴' 을 찾아갔습니다.





## 천국 경험한 2012 여름 아웃리치

### 45개국 121개 지역 3천여 성도 참가 아프리카를 내 품에 '블레싱 사하라' 뜻깊어

오는 11일 돌아오는 일본어예배팀을 끝으로 2012 여름 아웃리치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올 여름 온누리교회는 3천여 성도들이 45개국 121개 지역(공동체 및 캠퍼스 52개팀, JDS 51개팀, 대학청년 48개팀, 차세대 24개팀, 국제부

및 간사팀 13개 팀, CGNTV 및 기관 12개팀)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특히 아프리카 사하라 주변 국가들을 축복한 '블레싱 사하라'에는 성도 586명이 참가해 아프리카 20개국 의 땅을 밟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지난 7월 7일 두바이에서

열린 아웃리치 발대식에서는 현지 교민과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팀원들이 두 손을 맞잡고 10억 아프리카인들을 가슴에 품었다.

블레싱 사하라에는 45개팀(공동체 및 캠퍼스 21개팀, JDS 3개팀, 대학 청년 12개팀, 차세대 2개팀, CGNTV 및 기타기관 7개팀)이 여름성경학교, 의료, 중보기도, 환경개선사업, 교회 협력 사업 등으로 아프리카를 섬겼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

교사들은 이천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원들 덕분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또한 블레싱 사하라를 통해 서부아프리카 C국과 S국에 장기선교사 27명이 파견되어 아프리카 장기선교 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CMN의 민정혜 성도는 "개미와 도마뱀과 같이 자고, 제한된 언어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행복했다"고 말했다.

대청 감비아 팀의 김지영 자매는 "맑고 깊은 눈망울을 가진 아프리카 아이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예배드린 그곳이 천국이였다"고 고백했다. 한편 이천선교본부는 아웃리치의 감동을 성도들과 나누고 향후 사업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아웃리치 사진, 영상, 간증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김민규 간사(3215-3208)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어떤 고난 속에도 주님과 함께라면...

# 그곳에는 새로운 희망이 싹튼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입니까! 대지진이 흔들고 지나간 고향 땅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겨우 생명을 건진 마을 사람들은 평생 흘러야 할 눈물을 다 쏟았습니다.”

지난해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완전폭발 사고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버린 일본 후쿠시마. 이 지역 원전 5km 이내의 유일한 교회였던 후쿠시마제일침례교회의 사도 아키라 목사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지난 1일(토) 오후 2시 서빙고 본당에서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絆:kizuna)’가 열렸다. 이번 집회는 반북된 자연재해로 인해 두려움과 상처를 갖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희망을 함께 노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샌드엔ิเม이션으로 막을 연 키즈나에는 요즘 약화된 한글관계에도 불구하고 어른 250명, 동시에 진행된 어린이캠프 ‘보물섬’에 어린이 110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탈런트 오연수, 유호정의 환영영상 ▷이화첼리의 클래식 연주 ▷김영미 권사(소프라노)의 찬양 등 따뜻한 환영인사와 화려한 공연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곳에 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쁜 마음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날 사도 아키라 목사는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 생활을 하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이번 재해로 깨달은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또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로 하나님과 이어져 있다”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 시금 알게 됐다. 주님과 함께라면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 Q&A시간, 축복기도, 결산카드(설문지) 작성 및 희망트리에 메시지를 다는 시간이 이

어졌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카드를 제출한 67명 중 예수님을 알고 싶다, 성경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이 40명이 나 됐다. 그들은 쓰나미가 휩쓸고 간 고국의 처참한 현실에 공감하며, 절망 속에 싹튼 희망인 하나님을 알아갔다. 반북된 재해로 인해 얼룩진 일본인들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물어져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2



인터뷰 \_ 티아트 테이블 장식 담당자 서은주교수

## “우리 문화로 따스한 주님 사랑 체험하길”

저는 2005년 온누리교회에 나오면서 차 문화 알리기, 테이블 세팅 등의 사역을 통해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의 티(tea)아트, 테이블 세팅 및 디자인 등을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데커레이션을 하면서 일본인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일본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차와 우리들의 문화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 서은주(한서대 교수, 한국유아대예 연구소)



03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저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카나가와 현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땅이 흔들려서 무섭고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집회에서 보여준 당시 후쿠시마 지역의 영상을 보니 그때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경멸을 해서인지 말씀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 습니다.

저는 아직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작년 9월 한국에 와서, 집 근처 작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 이소기아 타카에

“교회 분위기가 참 편안했어요”



키즈나 집회는 친구의 소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데, 전혀 부담감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있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년 전 한국에 유학을 왔기 때문에 쓰나미나 지진의 피해소식을 잘 알 수 없었는데, 목사님을 통해 일본 미디어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리얼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익했습니다.

아직 제가 믿음이 생겨 종교를 갖게 될지는 확실할 수 없지만 오늘 집회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생긴다면 꼭 다시 한번 참석할 생각입니다.  
/ 요한 유이

“따뜻한 환영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봄까지 영국에서 살았습니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도 이슈가 되었지만 어느새 잊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이번 여름부터 한국에서 일하게 되어서 직장 동료의 초대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회에 지진 후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록 크리스천이 아니지만 온누리교회가 영국에서 잠시 다녔던 교회와 느낌이 닮아서 편안했습니다. 오늘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행복했습니다.  
/ 치에 아키코

“가슴 움직이는 문물함 느껴”



저희 집은 조상 대대로 불교집안입니다. 일본은 선조의 뜻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교회에 발을 들이는 것도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습니다. 교회도 처음이고 이런 집회 참석하는 것도 처음이라 가슴이 무척 설레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시집을 온 딸이 크리스천이 되어서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의 분위기도, 목사님의 강연도 좋았고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문물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추억을 선물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토 세이코

2012년 9월 9일 916호

- 01-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개막(6면), • 02-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티아트 테이블 장식 담당자 인터뷰(6면)
- 03-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참석자 인터뷰(6면)



01

안식년 선교사들과 함께...

# 신실한 종, 심을 얻다

## 선교사 영적 충전소 '홈투홈'

홈투홈(Home to Home)은 5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한 선교사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는 안식년 장기사역자 훈련 프로그램이다. 2010년 10월에 시작된 홈투홈 훈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 훈련에는 13개 종족에서 사역 중이던 선교사 23명이 참석했다. 선교사를 위한 안식년 훈련 프로그램의 유익이 무엇인지 이성희 선교사와 최선·이름(선교사 부부)선교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안식년 선교사 훈련 '홈투홈' 프로그램이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이성희 선교사** "2008년에 스리랑카에 나가 2년은 언어공부와 문화적응, 3년은 국제학교 베이스 재정과 행정사역을 했습니다. 홈투홈을 하고 나서 영적으로 성숙해짐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선교사들과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위로를 받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텝과 감사 모두가 선교사이고 온누리교회 식구여서 정말 홈투홈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교지(Home)에서 교회(to Home)로, 교회(Home)에서 다시 선교지로

(to Home)가는 것이 이 훈련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최선 선교사** "2004년부터 M국에서 태권도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홈투홈을 통해 성공적인 교회 개척이나 사역 스토리가 아닌, 사역 가운데 아프고 슬펐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이야기를 듣는 것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이 다들어 주신 각 선교사들의 생을 컵으로 한모금씩 떠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일한 비전으로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 선교사**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근 것 같은 기분 좋은 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선교사님들과 서로 나누면서 느낀 강한 동질 의식을 통해 안정감이 생기면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 안식년동안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이성희 선교사** "우선적으로는 심을 가지면서 제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사역에 필요한 훈련을



23명의 안식년 선교사들이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홈투홈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배울 생각입니다.

**최선 선교사** "지금은 사역지에서 태권도 관장의 옷을 입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른 옷을 입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중심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름 선교사**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한국어교육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안식년 동안 깊이 있는 기도시간과 말씀 통독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 선교사들에게 안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성희 선교사**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심을 가질 수 있었고, 재충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님들의 선교사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지에서 잘 사역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 되겠습니다"

**최선 선교사** "쉽고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식년동안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온누리교회 뒷받 안에서 신나게 놀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낌과 이 영성 그대로 동일하게 선교지에서 즐겁게 선교하겠습니다"

**이름 선교사** "안식년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확신과 확인의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소중한 교회가 있고 동료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아웃리치팀과 함께 꿈같은 시간



이번 여름 블레싱사하라 탄자니아 팀과 CGNTV 팀과 함께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CGNTV와 함께 다레스살람의 곳곳을 다니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난하고 이슬람이 대부분인 이곳의 현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미숙한 우리 부

부를 촬영하는 것이 쑥스러웠지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귀한 사역과 나눔 간직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도착한 블레싱사하라 탄자니아 팀은 저희가 드림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해 온 팀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풍선을 좋아하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풍선 터트리기 게임을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아이들이 어찌나 귀하게 여기는지 차마 터트리는 게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풍선을 처음 보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그냥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벽화그리기였습니다. 초라한 우리 유치원의 벽을 너무나 멋지게 그려서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렇게 팀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에 남는 또 하나는 팀과 함께 드린 예배입니다. 이슬람 지역의 선교사님이 세우고 지금은 현지인 목회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드린 예배는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아나라 여러 가지 학용품과 옷, 가방 등 후원해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팀원 중 한 청년이 말라리아에 걸려 기도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중보자들의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 만에 차도가 있었고 회복되어 마지막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거의 회복되어서 어찌나 감사하던지...

팀이 모두 돌아가고 이제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허전한 마음이 들지만, 팀과 함께했던 사역들과 귀한 나눔을 기억하며 다시한번 힘을 냅니다.

/ 탄자니아에서  
이영재, 최영미 선교사 드림



2012년 9월 9일 916호

- 01- 안식년 장기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홈투홈(Home to Home)' (9면)
- 02-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이영재-최영미 선교사(탄자니아)(9면)



01

용산공동체 몽골 · 평창

# “몽골, 평창 땅에 의료 선교의 깃발을”

용산공동체는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해는 피부과와 비뇨기과, 내과, 치과, 정형외과, 소아과의 의사 5명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이 등 28명이 함께했다. 두 달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새벽기도모임과 네 번에 걸친 모임을 통해 우리는 중보기도로 아웃리치를 준비해왔다. 의료선교활동이 처음이라 의료 기구를 가져가는 문제와 그곳에서의 의료 행위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무사히 잘 해결되어 18일 밤 23시30분경 몽골 울란바토르 칭기스칸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 눈물로 영접하는 역사 일어나

사역 첫날, 우리는 현지교회 두 곳으로 나뉘어져서 각각 주일예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밤 12시까지 함께 포장하며 아웃리치 팀이 주님 안에서 하나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둘째 날,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 강당에서 진료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의료 6개 분야 5개 과로 나뉘어져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 대상은 권오선 선교사님이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국제대학교 임직원들과 선교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과 현지인이었다. 특히 선교사님 가족들은 그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치료를 해주니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치료가 끝난 사람을 한 사람씩 불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다. 130여 명의 치료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티브차 목사님의 현지인을 위한 성령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집회는 은누리 M센터에서 몽골 형제자매를 섬기고 있는 현송일 형제의 간증으로 마무리됐다.

셋째 날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의료봉사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울란바토르 외곽 빈민지역에서 진료를 시작했는데 그곳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자 한국 선교사님이 몽골인들을 케어하는 지역이었다. 이날의 주 진료 대상은 몽골 현지인들이었다. 특히 충치 환자와 다리 관절 및 허리, 당뇨 환

자, 소아 환자, 피부 환자 등 다양한 환자들의 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첫날 치료 사역과 중보기도했던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그런지 의사와 통역, 중보기도자 등 모든 봉사자들의 손발이 착착 맞았다. 우리는 모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재빠르게 치료에 임하기 시작했다.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주는 몽골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현지인 7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마음이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우리는 빈민지역 교회에서 158명(중복치료자 318명)의 현지인을 치료할 수 있었다.

### 하나님 사랑 펼친 시간들

아웃리치를 앞두고 다양하게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잘 마칠 수 있을지를 염려했는데 기우에 불과했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펼쳐진 모든 팀원들의 섬김과 사랑이 펼쳐졌던 의료사역 현장은 그저 감동적이었다. 선교사님은 몽골에 오신지 18년 만에 교회에서 아웃리치팀이 온 것이 처음이라면서 우리 팀을 위해 애써주셨는데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후 그동안의 외로움을 잊고 새롭게 충전되어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다고 큰 힘을 얻었다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작년 이어 강원도 평창 미산교회에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왔다. 이동차와 버스과 내과 진료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피부과 진료를 추가하게 되었다. 전도폭발팀의 심방 전도와 농촌활동, 주민들을 위한 삼계탕 잔치 등으로 우리는 지역주민과 하나 되었고 저녁에는 성령집회를 통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 국내 아웃리치는 용산공동체가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평창에 펼친 1박2일 동안의 축제였다.

/ 오희중 집사  
(용산공동체)



02

서빙고 전도폭발 스리랑카

# “스리랑카에서 담대하게 행한 전도폭발훈련”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7박8일 동안 우리는 전도폭발훈련을 위한 해외 아웃리치를 스리랑카로 다녀왔다. 아웃리치의 대상은 현지 선교사들과 OSOM 19기 훈련 선교사들.

전도폭발훈련을 담당하시는 최봉오 목사님과 송일섭 장로님을 비롯한 8명이 훈련팀으로 구성되었고 우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도도 무장하여 싱가포르를 거쳐 스리랑카로 향했다.

### 현지에서 진행된 전폭훈련

첫날, 스리랑카에 도착하자마자 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에 베이스를 구축하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최봉오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이론교육과 팀원들의 각종 시범교육 및 간증이 3일 동안 진행되었다.

넷째 날에는 콜롬보 인근에 위치한 할렘가 씨피프라 지역에 전도폭발 현장실습을 나갔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다. 그래도 현지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시어서 우리는 그 지역이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며 기도했다.

다섯째 날, 2박3일의 일정으로 우리는 실론티로 유명한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 해발 2500m의 고원지대 마을 누와렐리아로 떠났다. 전도폭발훈련팀은 마을 원주민을 대상으로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전도폭발훈련을 실시했다. 사역을 하다보니 현지 목회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세워 힘쓰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다. 특히 이날 현지교회에서 최봉오 목사님의 전도폭발에

대한 강한 메시지 설교는 큰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 역사하시는 하나님 체험

이곳에서의 전도폭발훈련은 일주일 동안의 짧고도 힘든 훈련이었지만, 이 훈련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어려워하셨던 전도를 보다 쉽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 훈련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폭발훈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전도폭발훈련을 반드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아웃리치를 통해 또한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실시한 여러 현장전도훈련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스리랑카어로 번역된 전도폭발 복음을 말하고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원주민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 고침을 받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돌아왔다.

지금까지 몇 번의 아웃리치를 다녀올 때마다 믿음의 한 단계씩 성숙해짐을 경험했지만, 이번 전도폭발훈련을 결한 스리랑카 아웃리치는 의미가 달랐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도폭발훈련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감명 깊은 해외 아웃리치였다.

/ 이태열 집사(전도폭발)



2012년 9월 9일 916호

- 01- 몽골 아웃리치 보고 : 오희중 집사(용산공동체)(10면)
- 02-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이태열 집사(서빙고 전도폭발)(10면)



분당A공동체 중국

#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시간이었어요”

지난 8월 5~26일 한 달 동안 매주일 4회에 걸쳐 공동체 두 다락방이 연합해 서울 광진구 지양동에 위치한 살림중국동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의료 및 이미용사역

살림중국동포교회는 지난 2010년 5월 조선족 목회자인 김우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다. 김우 목사님은 탈북자들을 돕다가 중국공안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인도적 차원의 체류자로 이곳에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마땅한 입터가 없는 조선족 형제자매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25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분당A공동체는 첫째, 셋째 주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하며 이곳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전했다. 이곳 성도들은 세미나를 통해 진화론의 허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중국 땅에도 그들이 모르고 있던 여러 성경적 창조의 흔적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감격했다.

둘째 주에는 김형순 순장님의 치과진료와 김종순 집사님 외 헤어숍팀의 이미용 봉사 가 있었다. 많은 성도들은 스케일링, 충치치료 등 치과진료를 받았고,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들이 피어, 염색, 컷트 등 다양한 이미용 서비스를 받았다. 한 성도는 병원이거나 미용실에 가면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이용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서비스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이에 함께 봉사해주신 헤어숍 원장님이 필요하면 한 달마다 미용 서비스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서로에게 충만한 시간을 보냈다.

### 전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체험

마지막 주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강보 집사님께서 외국인 근로자 및 체류자를 위한 법률상담을 해주셨다. 먼저 조선족 형제자매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참고하고 지켜야 할 법규와 그들이 평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궁급했던 사항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근로 중 부상을 당해 입원해 있는 동안 해고당한 일, 출입국관리법을 몰라 억울하게 출국 당할 뻔했던 일 등을 이야기하며, 조선족들이 한국 땅에서 편안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목

사님으로부터 탈북사역을 하다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했던 사모님의 아픈 과거의 사연을 전했다. 현재 온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샤워한다는 어려운 사정을 듣고, 화장실과 욕실에 온수기 2대를 각각 설치해드리기도 했다. 또한 매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전도지를 들고 주변 시장 및 거리로 나가 노방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렸다. 전도 중에 만난 어떤 조선족은 주변에 조선족만을 위한 중국동포교회가 있는지 몰라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기도 했다. 셋째 주에는 실제로 우리가 전달한 전도지를 보고 교회를 방문한 형제도 있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할 수 있었다.

4주간 이어진 다락방 아웃리치에서 매주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살림중국동포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처음 준비부터 여러 사역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셔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아웃리치를 마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린다.

/ 송영봉 집사  
(분당A공동체)



01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 남양주, 서울아산병원

## “예수님의 음악전령사를 꿈꿨다”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팀이 지난달 13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16일 서울아산병원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국내에서의 해외 아웃리치

남양주 온누리미션 예배를 섬기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남양주 온누리교회로 향했다. 온누리미션예배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일하는 인도와 네팔, 파키스탄 사람을 위한 예배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첫사랑에 빠진 성도들이라고 들었다. 예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는데 인도어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께서 정통 인도 카레로 식사 준비를 해주셔서 인도의 식생활 문화를 체험했다. “정통 인도카레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면 꼭 대접해주신다”는 팀장님의 말씀에 선교는 다른 사람의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면서 전도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겠다고 깨달았다.

우리의 작은 음악회가 시작하자 감동적인 모습으로 연주를 감상하며 이는 곡이 연주되면 함께 기뻐 뛰며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를 해주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작은 달란트인 악기 연주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주셔서 감사했다. 예배는 주님을 위한 축제로 승화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면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쌍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찾아가 기도하고 권면하는 주님의 전령사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서울아산병원 '사랑의 인사'

서울아산병원에서 '정오 음악회-사랑의 인사' 연주가 있어 연주하는 우리단원들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병원에 도착했다. 공연이 시작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우리의 음악을 듣고 몇몇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링거를 맞는 어린이, 휠체어를 타신 할머니, 많은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분들. 각자의 사연들이 음악과 동화되어 많은

호응과 박수로 답해주시는 것 같았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놀라웠지만 우리와 음악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기뻐했다. 연주가 끝나고 몸 전체에 흐르는 땀방울은 즐겁고 뿌듯한 마음의 안식이 느껴졌다. 이번 아웃리치는 연주를 듣는 이들 뿐만 아니라 연주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한층 더 성숙해진 온누리드림챔버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도 이러한 음악으로 하나님의 꿈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려나갈 것이다.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들에게 음악으로 아름다운 선교를 할 수 있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미션 예배, 병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순백의 정결함과 더불어 아픈 환우들의 고통이 가슴으로 전해지는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아웃리치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랑을 전하는 감사의 장이었다.

/ 박지현  
(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



02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 9/2(수) 오전 9시 40분  
필리핀, 이스라엘 대사 등을 역임하며 40년 동안 외교관으로 헌신한 박동순 장로를 만납니다.

03

TV
추천 프로그램

▷ 일본인 전도집회 'KIZUNA'  
- 9/13(목) 오후 11시 20분  
한국판 러브소스 1타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현장을 소개합니다.

2012년 9월 9일 916호

- 01- 남양주 온누리미션 아웃리치 보고 : 박지현(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12면)
- 02-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13면), • 03- TV 추천 프로그램 : 일본인 전도집회 'KIZUNA' (13면)



01

## 이주민과 함께 ‘특별한 한가위’

9월 29일~10월 1일 ... 봉사자 모집 중

온누리M미션이 고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외로운 외국인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연합집회를 개최한다. 추석연합집회는 29일(토)부터 10월 1일(월)까지 2박3일 동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Turn to God(주께 돌아오라)’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집회는 이주민들에게 위로와 회복,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영적축제 한마당으로 이재훈 담임목사, 이재환 선교사, 김창욱 전도사, 서경남 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이번 집회에서는 1명이 1명 이상을 전도하는 ‘One on One’ 캠페인을 벌인다.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성도에게는 iPad, 넷북, 디카 등이 수여된다.

한편 네팔, 러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등 외국인 이주민 5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의미 있는 집회를 섬겨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 ◆봉사 및 후원안내

참여 문의: 010-3937-3927

후원문의: 010-4732-4371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함께 가자!

### 참가자 모집 시작

또 하나의 러브소나타가 일본 본토의 최남단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울려 퍼진다. 이국적인 정취로 동양의 나폴리라 불리는 가고시마에서 열릴 이번 러브소나타는 오는 11월 14일(수)과 15일(목)에 진행된다.

접수는 오늘(16일)부터 시작되며,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인천-후쿠오카-가고시마 노선의 A티(11/13-16, 99만원)와 인천-가고시마 노선의 B티(11/14-16, 87만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모집은 선착순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지금 가고시마 땅은 영적 한류인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면서 “온누리 성도님들의 참여와 섬김은 부흥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러브소나타를 알리는 프레젠테이션(홍보집회)이 오는 10월 5일(금)부터 10일(수)까지 가고시마시를 포함한 총 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문의: 02-749-1149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3

##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CMN이 전한 사랑...6개국 7,231명 진료

“입술이 문드러진 아이가 치료를 받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BEE팀 이형원). “사랑의 물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자 주님은 더 크고 좋은 물병을 준비해 놓으셨다” (마하나임팀 김지영).

여름아웃리치를 다녀온 CMN인들의 간증이 쏟아졌다. 의료사역팀 CMN은 필리핀, 탄자니아, 시에라리온 등 6개 국가에 치료의 손길을 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짧은 아

웃리치 기간 동안 7,231명이라는 기적적인 인원을 진료했다. 또한 CMN은 공동체와 연합해 이마용 및 어린이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케냐의 김현우 선교사는 “하루 종일 모래먼지 속에서 늦은 저녁까지 맡겨진 영혼들을 모두 책임지려는 팀의 열정에 도전 받았다”고 전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4



### 사랑은 ‘흔적’을 남긴다

올 여름 ‘HUG, 열방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세계 곳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던 강동 온누리. 그 사랑의 흔적을 담은 아웃리치 사진전이 강동 캠퍼스 11, 12층 로비에 전시되었다. / 조유진 기자

01

## “그 사랑, 선교지에 전하겠습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앞둔 CGNTV에 무명의 발신인으로부터 상자하나가 배달되었다. 상자를 열어보니 탐스럽게 익은 복숭아와 작은 상자가 담겨 있었다. 작은 상자도 열어보니 500원짜리 동전 118개와 100원짜리 동전 7개가 있었다. 총 5만 9천 7백 원. CGNTV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동전을 모았을 그 귀한 사랑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달콤하게 퍼지는 복숭아향도 CGNTV 직원들을 감동시키는데 한 몫했다.

CGNTV는 후원자들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중보기도와 격려메시지가 CGNTV를 키우는 영양이다. 무명의 발신인이 보낸 귀한 사랑만큼이나 CGNTV에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많다.

지난해 7월 CGNTV는 14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다는 성도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매일 새벽 5시에 부부와 아들이 함께 모여 CGNTV에서 방영하고 있는 '리빙라이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들이 CGNTV를 이토록 사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심장병과 갱년기 증상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나날을 보내던 그들에게 CGNTV가 진정한 자유를 선물했기 때문이다. 이들 부부는 CGNTV가 자신들의 말동무이자, 친절한 멘토라고

소개했다. 올해 3월에는 노르웨이에서 손지연 자매가 보낸 이메일이 도착했다. 자신을 강동 온누리교회 성도라고 소개한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된 노르웨이에서 예배드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CGNTV 덕분에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예배가 갈급한 곳에서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이 느껴졌다는 그녀는 CGNTV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최소명 씨는 공연을 통해 수입이 생길 때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CGNTV에 헌금하기로 했다. 말씀에 굶주린 척박한 땅에서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해주는 CGNTV가 고맙기 때문이다.

CGNTV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틀림없다.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 고갈되고 있는 선교사들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뿌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CGNTV는 열방에 복음을 송출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그들을 응원하자. 그들의 꿈을 키우는 후원자가 되자.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절호의 기회다.

후원문의: 02-796-2243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물질 · 기도 · 격려 ... “후원자 되자!”

02

포틀랜드

## 파워웨이브 선교실습훈련

### 어르신, 청소년전도 찬양집회 섬겨

포틀랜드 파워웨이브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선교훈련을 진행했다. 현장에서 실습위주로 진행된 훈련은 어르신전도 및 섬김, 공원전도, 10대를 위한 찬양집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어르신전도는 한인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해 봉사하고 식사를 함께 했다. 공원전도는 10대 청소년들을 공원으로 초대해

운동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찬양집회에서는 200여명의 다민족 청소년이 참석했다.

훈련에 참여한 엘리사 공 자매는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섬기겠다”고 말했다.

/ 김대욱 통신원



동경

## “사람들 마음에 희망이 피어나길”



지난달 30일~9월 1일 동경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지체들과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의 최대피해지역 중 하나인 미야기현의 이시노마키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크리스천이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일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재해의 피해 속에서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하고 가슴이 미어지도록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일본 땅에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이라는 생각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하게 되었다.

###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상처와 눈물로 얼룩진 샌다이와 이시노마키의 피해 지역.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로서 많은 사람들이 쉬를 얻었을 공원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쓰레기 처리장으로 변해 진입조차 불가능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황량한 풍경 앞에 분위기는 정숙해졌고, 마스크를 통해서만 들어왔던 피해상황을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마음이 아파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우는 팀원도 있었다. 다음날 언론에서 검은 바닷물이 마을로 밀려들어와 차와 건물 등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영상 속의 그 지역 이시노마키로 이동했다. 이시노마키는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 15,842명, 실종자 3,485명, 건물피해 125,000건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는 이 지역의 대피소 중 하나였던 초등학교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이 모여 있었는데 쓰나미에 모두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외침과 눈물을 듣고 계셨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했을까라는 생각에 점점 더 숙연해졌다.

마지막 날 딴 선교사님과 같은 단체에서 사역하는 아베 하지메 어르신과 함께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했다. 바닷물의 영향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려 마치 돌과 같았다. 우리는 두 조로 나누어 가만히 두면 아무런 생명을 품지 못할 그 땅을 삽과 쟁기, 호미 등을 통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갔다. 내년에는 우리가 밭 흘린 바로 이곳에서 푸른 식물들이 자라나 사람들의 마음에도 희망이 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열방의 소망으로 임하신다. 가족, 친구, 집, 학교 혹은 일터를 모두 잃어버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시노마키 땅에 복음이 튼튼하게 심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숙소로 사용했던 신학교 건너편에 보이는 거대한 불상이 아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그 땅에 살아가는 이들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같이엎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려 축축이 적셔주셨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이 산과 바다에 흘러 넘쳐 주를 예배하는 땅으로 서서히 변화시켜 가실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

/ 염은혜(동경온누리교회)



01

보스턴



동남아 워터 페스티벌에서 보스턴 선교팀이 전도행사를 진행했다.

## 워터 페스티벌에서 전도행사

### 전도부스 운영

지난달 18일 로웰유산주립공원 (Lowell Heritage State Park)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워터 페스티벌에서 보스턴 온누리교회 선교팀이 일일 전도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캄보디아, 라오스, 대만, 베트남 언어로 된 전도지를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

팸찌를 선물했다. 전도를 위한 부스도 만들었다. 부스에서는 페이스페인팅, 찬양을 통한 복음 선포와 워십댄스, 한국전통 무용을 선보였다.

행사 봉사자로 참가한 한 대학생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다”고 말했다.

/ 황원정 통신원

02

IN2

간증 \_ IN2\_보스턴 린 아웃리치

## “천국을 이루어가는 작은 마을”

뉴욕/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지난 달 6-12일 캄보디아인들이 출석하는 보스턴 린의 리빙필드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아웃리치 팀은 텅 빈 지하실의 수북한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칠을 하며 캄보디아인들의 예배처소를 꾸렸다. 사우나를 방불케 하는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작업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는 가진 것을 다른 이에게 주는 것이 아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임을 배웠다. 하나님의 향기가 이 작은 마을에 스며들어 언젠가는 이들과 한 팀이 되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오기를 소망했다.



새롭게 '부흥'을 결단한 2012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

#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이상승배의 나라 '일본'



**장선철 장로**  
(온누리신문편집국장)

동경으로 가는 비행기 창 너머 푸르디푸른 대한해협이 끝나자 나라타 국제공항이 눈에 들어왔다. 갑자기 밀려드는 그리움에 어찌할 수 없이 멍치 부위가 아파왔다.

어느 날 깊은 밤, 그 분이 꿈길을 따라 찾아 오셨다. 운무 자욱한 숲속을 이리저리 이야기기를 나누며 함께 거닐었다. 그 분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귀전을 스치는 청아한 음성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보을 때에야 얼마나 좋으며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가 그렇게나 애써 사랑했던 일본, 인구수보다 종교별 신도수가 훨씬 많은 일본 땅에서 '2012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교회 창립부터 품어 온 '일본선교'의 비전**

일본 선교는 하용조 목사의 안식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 목사가 1차 안식년을 떠난 1990년에 토요학교, 일본어예배가 시작되었고, 간암 수술로 맞은 2차 안식년(2001년)에는 일본 현지에서 비전교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 하용조 목사는 치료를 위해 일본에 머물면서 교회 개척에 힘을 쏟았다.

2000년 오사카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2001년에는 동경과 우에다 온누리교회와, 2002년에는 아치오 온누리교회와, 2003년에는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와, 2006년에는 나고야 온누리교회와, 2010년에는 교토 비전교회와 문을 열었다.

사실, 온누리교회는 창립에서부터 일본 선교의 깃발을 올렸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 석 달이 지난 1986년 1월 5일, 변재창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하였다. 1994년, 2천1만 비전이 선포되었고, 그해 2월에는 조율희 선교사가 삿포로에 파송됐으며, 첫 장로 선교사인 조성목 선교사가 6월 12일 아치오 온누리교회의 전신인 오와타신덴(大和田新田)그리스도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일본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 2002년 11월 27일부터 2박3일 동안 하코네에서 진행된 '일본 온누리공동체 수련회'에서 하용조 목사는 일본을 향한 비전을 선포했다.

“저는 일본 교회가 일어나 견고 뛰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일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의 말씀대로 일본에는 7개의 온누리비전교회가 세워졌고, 러브소나타, 두란노, 일본 CGN를 통하여 이제 일본은 이상승배의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은 '일본교회의 부흥'**

언제나 아늑하고 조붓한 느낌을 주는 동경 온누리교회의 본당에 찬양이 넘쳤다.

“예수 사랑해요” 일본과 한국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노래하며 부흥집회의 문이 열렸다. 한 순간 한 순간, 한 날 한 날 그리고 평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이기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요, 찬송이었다.

이재훈 목사가 메시지를 선포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이 있게 쓰임 받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요, 하 목사가 꿈꾸셨던 교회임을 소개한 이 목사는 '일본 교회와 동경 온누리교회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서도 운동력이 끊이지 않고 다음세대 다음세대로 이어져 나갈 것'을 선포하며 '일본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 날마다 새로운 신앙, 내일을 밝히는 신앙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곳저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일본교회의 부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 참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그 비전이 하나 하나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 번 새롭게 결단하는 감동의 눈물들이요,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었다.

부흥집회 외에도 2012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는 발제와 토론, 그룹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와 토론 시간을 통하여 비전교회 담당 목사들은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고 있으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과 일본교회(나고야 온누리교회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일본의 성령운동의 역사와 현황'(오사카 온누리교회 문봉주 목사), '일본 창조과학의 현황' (우에다 온누리교회 야마구치 키요타카 목사), '전도폭발의 효과와 기대'(교토 온누리교회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 '예배와 목양사역'(요코하마 온누리교회 김철희 목사), 'TV CAFE CHAPEL 'TEPEL' 상황보고'(동경 온누리교회 장재윤 목사), '종교법인 등록 등 목회현장의 문제'(아치오 온누리교회 권영환 목사)란 7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온누리가 지향해야 할 일본선교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서울 온누리 리더십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다. 일본 땅에서 체험한 주 안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간증하는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아이처럼 맑았다. 한마디, 한 마디의 말에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배려가 넘쳤다. 10년, 20년 한 장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며 사귀어 온 친구처럼 마음이 편했

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눈빛으로 온누리교회를 향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읽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모두들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 되어 울부짖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그 역사적 기간은 정지되고 있었다. 일본과 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동경온누리교회의 정미연, 염은혜, 송수연 자매



부흥집회에서 일본 온누리 일곱 개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 좌로부터 권영환 목사(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나고야),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교토), 문봉주 목사(오사카), 야마구치 키요타카 목사(우에다), 우치노 마사코 전도사(오사카), 김철희 목사(요코하마), 장재윤 목사(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동경), 에이다 나오 전도사(교토).

국, 그 공간적 장벽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일본 비전교회에 부흥을 주소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일본 땅에 교회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부흥집회 동안 이곳저곳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말씀으로 '일본 교회의 부흥'을 새롭게 결단하는 감동과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었다.





01 메시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막 2:18~22

이재훈 목사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운동력이 약해지고 영향력이 쇠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한 미국의 하워드 헨드릭스(달러스 신학교)교수는 '3M 사이클'을 발표했습니다. 3M 사이클의 첫 번째는 운동(movement)

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인(machine)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적인 운동력은 사라지고 의형적인 조직만 남게 되면 기계적인 단체가 됩니다. 세 번째는 기념비(monument)입니다. 역사상 많은 교회들이 기념비가 되었고 기념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며 동족들을 가르치기로 헌신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리새인을 본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 바리새인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찬박을 받았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마리아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18절).

식, 갈망의 금식입니다. 두 번째는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천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더 찢어지게 된다"(21절).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은 문화를 의미합니다. 교회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결과에서 나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교회도 바리새파 공동체가 됩니다. 새로운 문화의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한때 좋았던 문화라고 할지라도 문화를 지키기 위해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 발제와 토론시간에 비전교회 담당 목사들은 7개의 주제발표를 통해 온누리가 지향해야 할 일본선교의 큰 그림을 제시했다.

세 번째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 모두를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이다"(22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옛 가죽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절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운동력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인간적인 제도는 모두 없어집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만 남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비유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금식을 할 수 있겠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금식할 수 없다"(19절).

예수님은 금식과 결혼 잔치를 연결시켰습니다. 결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음식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온 성도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마름의 금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 있게 쓰임 받는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로, 하 목사님이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동경 온누리교회를 비롯한 일본의 7개 비전교회와 나아가 일본의 모든 교회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도 운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다음세대로 이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일본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내일을 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정리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일본 땅에서 체험한 주인의 길, 사랑의 길, 믿음의 길을 간증하는 형제, 자매들의 표정이 아이처럼 맑았다.



일본연합 비전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모두들 뜨겁게 기도했다. 하나 되어 울부짖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그 역사적 시간은 정지되고 있었다.

일본 CGNTV가 개국한지 올해로 6년째다. 그동안 일본 CGNTV는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화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오키나와에서 북해도까지 47개현의 네트워크를 완성했고, 1000개 교회가 협력하게 되었다. 교단과 교파를 넘어

## “하나님의 콘텐츠로 복음화 꿈꿉니다”

### 02 일본 CGNTV

#### 일본교회를 하나로 ... 연합과 일치 가장 큰 열매

50여 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본 CGNTV에 출연하고 있다. 지역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러브소나타가 지속적으로 개최하게 하는 밑거름이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영적 성장을 돕는 사역에도 집중하고 있다. 800만개의 우상을 숭배하고, 진화론 교육만 받아 온 일본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일한러브크리에이션 창조과학 사역'과 목회자가 없는 700여 개의 교회에 CGNTV위성안테나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된 일본교회를 위해 젊은 목회자 양성 사역과 청소년 사역, 자진피해 지역의 회복을 돕

는 CGN아카데미사역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일본 CGNTV는 금년 초 실시한 앙케트 조사를 바탕으로 예배와 말씀강해 프로그램과 목회자 영성 키우기, 차세대 양성, 전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100여 개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모국어로 CGNTV를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4시간 말씀과 예배,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는 일본 CGNTV. 그들의 활약으로 일본 복음화의 그날은 한 걸 가까워졌다.

2012년 9월 16일 917호

- 01-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9면)
- 02-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일본 CGNTV 개국 6주년(9면)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09편)  
- 9/20(목) 오전 9시40분  
88서울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은퇴 후 15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양영자 선교사이야기.

01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약정서 · 인터넷 · 전화 ... 행복 스크래치 이벤트도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고백한 한 자매의 사연이 마음을 울린다. 중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자매는 18년 전 척추에 생긴 종양이 악화되어 지금은 반신불수가 되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그녀의 삶은 어떨까. 그녀의 삶에는 생명력이 넘친다. 날마다 기쁨과 환희, 감사와 평안이 끊이질 않는다. 질병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녀의 삶을 뒤바꾼 것은 바로 CGNTV다.

“CGNTV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된 소식, 한량없는 은혜로 저를 위로해주었습니다.”

오늘(23일), 국내 온누리교회 9개 캠퍼스에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열린다.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고, 선교사가 없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CGNTV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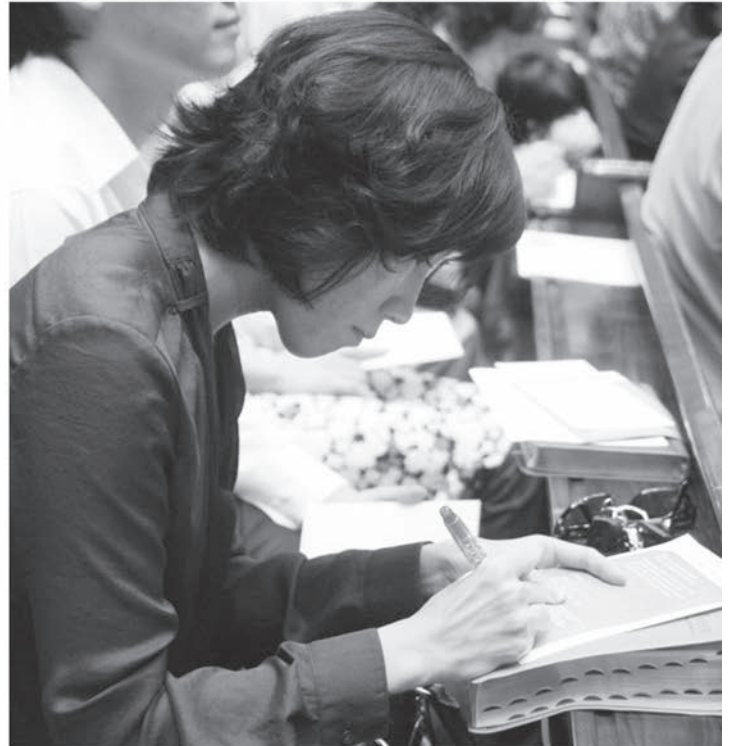
후원자가 되는 절호의 기회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는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신규 후원자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하고 기존 후원자는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날 CGNTV는 행복 스크래치 이벤트도 실시한다. 5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명함 사이즈만큼 스크래치를 긁어 선교지 모습을 완성하는 이벤트에서는 깜짝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500원짜리 동전은 중국에 CGNTV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사용된다.

문의: 02-796-2243(후원팀)

/ 김남현 부장 one@onnuri.org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해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자.

02

## 올 해 마지막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 중

17번째 러브소나타가 일본 본토의 최남단 가고시마에서 열린다. 빼어난 경치로 일 본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은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릴 이번 러브소나타는 11월 14일(수)에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15일(목)에는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가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3박4일 일정의 A팀과 2박3일의 B팀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등록(www.lovesonata.org)하면 되고 접수마감일은 10월 7일까지다. 현재까지(21일(금) 기준) A팀 16명, B팀 18명으로 총 34명의 신청자가 접수됐다.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 이번 가고시마 러브소나타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가 필요하다.

문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02-749-1149  
lovesonata2008@gmail.com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3

## 열방의 영혼을 추수하라!

외국인 이주민 위한 ‘Harvest 2012’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열방의 영혼들을 추수한다.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를 개최하는 것.

이번 집회는 오는 29일(토)부터 2박 3일 동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Turn to God(주께 돌아오라)’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참가자가 다른 한 사람을 데려오는 ‘One On One’ 캠페인을 벌여 몽골, 아랍, 캄보디아 등 16개국에서 온 이주민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성경공부, 야외 이벤트, 풍성한 식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 이재환 선교사, 김창욱 전도사, 서경남 목사가 전한다.

600개의 마편을 직접 구워 후원한다는 성도, 고기부패를 후원하는 성도 등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물질 후원과 함께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번 집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후원이 절실하다. 여름 아웃리치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에 온 이주민들을 위한 섬김과 기도를 당부한다.

문의: 010-4732-4371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2년 9월 23일 918호

- 01- CGNTV 정기후원 약정 행사(1면)
- 02-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1면), • 03-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개최(5면)



01



- 9월 24일(월)  
성령의 일치를 이루고 주의 마음을 이루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 9월 25일(화)  
가고시마현과 쿠마모토현, 미야자키현의 모든 교회들이 축복 받도록
- 9월 26일(수)  
장소, 교통, 숙박, 날씨 등 행사를 위한 여건들이 충분히 준비되도록
- 9월 27일(목)  
한일 양국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 9월 28일(금)  
주의 영광 속에 많은 수확을 거두고 가고시마와 남큐슈의 교회 성장에 연결되도록
- 9월 29일(토)  
남큐슈의 모든 교회들 안에 세계선교를 향한 불길이 일어나도록
- 9월 30일(주일)  
현지 교회로부터 많은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02

### OEM 기도행진

지난 6일(수) 도곡 교육관에서 영어예배(OEM, Onnuri English Ministry) 수요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서는 지난 8월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팀이 간증을 했고 조엘 윤 목사가 설교를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20~30명의 OEM 멤버들이 이슬람을 위한 땅 밟기 기도회를 열고 녹사평역에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고지대까지 행진했다.

/ 김주성 통신원

열 방 을 향 한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감 동 과 말 씀 이 있 는 문 화 전 도 집 회 러 브 소 나 타



# Love Sonata 가고시마

2012년 11월 15일(목) 오후 7:00  
가고시마 시민문화홀

※ 11월 14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가고시마

주강사 | Main Speaker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 Kagoshima

## 鹿児島

### GUESTS

※ 출연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영미 | 소프라노



배재철 | 테너



신상우 |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 플루티스트



FL Ministry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CGNTV** **Duranno**



01

## 추석집회 ‘Harvest 2012’ 진행 중

### 16개국 550여 외국인 이주민 위한 축제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가 어제(29일)부터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진행 중이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집회는 고국을 떠난 외국인 이주민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회복, 예수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영적 축제이다. 현재 집회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

안마, 스리랑카, 아랍, 필리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 550여 명의 외국인 이주민들이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어제(29일)는 새신자 환영회와 야외 이벤트, 서경남 목사·이재훈 선교사 메시지, 기도회 등으로 진행됐다. 오늘은(30일) 오전 11시 주일예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어드벤처 게임과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저녁식사시간으로 이어진다.

저녁집회는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이 선포되며 예배 후에는 각 나라별 지체들끼리 모여 교제를 나누었다. 10월 1일에 김창욱 전도사의 말씀과 전도 시상식으로 집회가 마무리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온누리교회와 함께 한 TIM 20주년

### 10월 17일부터 ‘기념 선교대회’

온누리교회 대표 선교단체인 두란노 해외선교회(이하 TIM)가 20주년을 맞이한다. TIM은 1988년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1992년 2월 창립됐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지원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온 TIM이 오는 10월 17일(수)부터 28일(주일)까지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선교대회는 20년 동안의 TIM의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성도

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열방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2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한 ‘20주년 감사예배’(17일) ▷발자취를 돌아보고 비전 선포와 정책을 공유하는 ‘선교사대회’(18-19일) ▷책임선교사와 함께 하는 ‘순예배’(19일) ▷신규 선교사 파송식 등이 진행되는 ‘TIM선교주

일’(21일) ▷비전을 향한 ‘선교 리더십 회의’(22일-23일) ▷선교사들이 각 캠퍼스를 방문해 사역과 현장 이야기를 하는 ‘선교간증’(28일)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TIM에서 파송한 선교사 1200여 명이 각 사역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선교사들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사역지의 간증을 나눌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기·도·제·목

- 10월 1일(월)  
러브소나타 프레대회가 열리는 6개 지역과 교회가 잘 준비되도록
- 10월 2일(화)  
프레대회를 통해서 러브소나타를 위한 협력교회들이 일치할 수 있도록
- 10월 3일(수)  
준비하는 스태프들의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최선의 준비가 되도록
- 10월 4일(목)  
섭외된 출연자들이 주의 능력으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 10월 5일(금)  
재정적 부담을 지고 헌신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온누리교회에 큰 축복이 넘치도록
- 10월 6일(토)  
이재훈 목사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 10월 7일(주일)  
봉사자들이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잘 준비되어지고 기쁘게 봉사하도록

2012년 9월 30일 919호

- 01-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진행 보고(1면)
- 0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20주년 선교대회) 개최 안내(4면), • 03-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1-7)(4면)

01

## CGNTV 가을개편 단행

### 선교 및 문화 콘텐츠 강화

CGNTV가 선교 및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가을개편을 단행했다.

어제부터(29일) 개편된 CGNTV의 콘텐츠 중에서는 우수열 목사와 아나운서 오영실이 진행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즌'이 가장 눈에 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연예인들의 삶과 신앙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으로 엄선된 해외 목회자들

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들을 수도 있다. 앙골라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 필립 안시, 탁월한 변증가로 손꼽히는 티모시 켈러 목사 등의 메시지를 CGN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선교방송으로서의 정체감을 확립하고자 양질의 선교 콘텐츠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프로그램 안내 12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 월 8천만 원 증가 신규 3천 명

지난 주일(28일) CGNTV가 실시한 정기후원 약정행사 집계결과 월 후원금액 기준으로 8천만 원이 증가되었다.

신규 후원자 3천 명이 증가했고, 기존 후원자 중 후원금액을 증액한 성도들도 많았다. 이번 행사로 CGNTV 정기후원자는 1만 9천명이 되었다. 또한 스크래치 이벤트를 통해 중국에 위성안테나 3대를 후원할 수 있게 되었다.

CGNTV측은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정기후원 약정행사



에 참여해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03

투·고

## 사도 도마의 소명 따라 인도에 가다

### 김정숙 목사, 한가족의료봉사회와 의료봉사

김정숙 목사(삼성서울병원 파송 목사)는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병원 비공식 신우회 한가족의료봉사회 회원들과 함께 인도 난디알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난디알(Nandial)은 인도 남동부 중심도시인 첸나이에서 360km 떨어진 곳으로, 의료봉사팀은 이유희 선교사가 15년 동안 섬겨오고 있는 시골마을로 갔다.

####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

홍콩을 경유하여 10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첸나이에 도착했다. 난디알까지는 버스를 타고 15시간을 더 가야했다. 허리가 시원치 않던 나는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를 드렸다. '주님, 2010년 첸나이에서 버스를 10시간 타고 달려 허리에 무리가 간 것 가시죠? 고속버스를 타면 좋겠는데요. 우리 팀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첸나이공항을 빠져나왔는데 이게 웬일인지 'Mercedes Benz' 라고 쓰여 있는 버스 두 대가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장시간의 여정 가운데 모두 지칠 만도 했지만 난디알에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이유희 선교사님 일행과 CSI병원에서 사역하시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지 목회자님들이 환영해 주셔서 우리는 모든 피로가 사라진 듯 일상분란하게 두 팀을 이루어 진료에 임했다. 1팀은 바이파빠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2팀은 세인트 워버그 CSI병원에서 진료했다.

인도인들조차도 잘 모르는 이 작은 시골도시 난디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다. 인도 정부에서 카스트제도 최하층민인 달릿(불가촉 천민)들을 위해 주택 5,000세대를 지어주었고,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 '희망공동체' 선교센터가 완공된 것이었다.

####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일"

42명으로 꾸려진 의료봉사팀은 예수를 훌쩍 넘긴 얼굴을 한 심한 관절염으로 진료를 찾은 바하다, 흉통과 관절염을 호소한 아키야마, 2주 전 급성심근경색 증세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아내와 함께 진료를 찾은 수브한, 귀지를 제거하지 않아 귀지가 돌처럼 굳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울상을 지었던 라즈막시미 등 난디알과 첸나이에서 1,929명을 진료했다.

열매를 보면 감사하지만 실상 현지의 열악한 곳에서 쉬는 시간 없이 몰려오는 사람과



짜릿하고 나면 고생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내년에는 해외봉사를 쉬어야겠다고 고백하는 회원들도 모집광고가 뜨는 그 순간에는 피로와 고생을 잊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을 한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에는 믿지 않는 일가족 네 명이 참여했다. 안과의사인 이동석 원장은 자비탕으로 준비해간 돋보기를 한 환자의 눈에 맞춰 끼워줬는데 그가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동네에 자랑해 안과 진료소에 사람이 넘쳤다. 그는 "이번 인도 의료봉사의 선택이 내 인생 여정 중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했다. 중학교 3학년인 상훈이도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왔는데 지금 생각하니 잘 왔다. 다음에 나도 아들과 함께 봉사 다녀야겠다"고 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룸메이트와 큐티를 한 후 일정한 장소에 모여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사도 도마의 소명 따라'였다. 첸나이에서 순교한 사도 도마의 행적을 찾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한가족봉사회의 특징이다. 매년 영적 지도자로 함께하면서 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이번에도 믿지 않는 몇 가정과 함께 예배에도 참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은 봉사 이후 지금도 병원 곳곳에서 지속되어 간다. 그때마다 회장님과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병원선교에 힘쓰고 있다.

/ 김정숙 목사 (온누리교회 병원선교 담당, 삼성서울병원원목)

2012년 9월 30일 919호

- 01- CGNTV 선교 및 문화 콘텐츠 강화 가을개편 단행(5면), • 02-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보고(5면)
- 03- (투고) 인도 난디알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김정숙 목사 (온누리 병원선교 담당)(5면)



01

### “외국인 위한 예배 열려있어요”

평택 온누리교회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몽골어예배가 오전 11시30분부터, 인도네시아어예배가 오후 2시부터 열리며 장소는 드림홀이다. 사진은 인도네시아어예배 모습.



02

### TV 가을개편 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 10/2(화) 오후 4시 20분  
중동국가와 아랍 문화를 생생하고 유쾌하게 전해주는 선교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03

### TV 가을개편 프로그램



▷ [선교다큐 시리즈] 1부 카자흐스탄  
- 10/5(금) 오전 9시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01

선교지 탐방\_ 중국 심양·단둥·연길

## 한국선교의 발상지 중국교회에 가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 동안 남양주 교역자와 장로부부가 중국 심양과 단둥, 연길 지역으로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다. 선교지 탐방은 심양의 D교회, 압록강 단교, 단둥 은누리교회, 조선족 교회, 가나안학교 등을 다니며 선교의 참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았다.

### 선교지 땅을 밟으며...

지난 9일 중국과 북한을 가슴에 품고 중국 심양으로 출발했다.

선교지 탐방 첫째 날, 우리민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유서 깊은 D교회를 방문했다. D교회는 1876년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J. Ross) 목사가 세웠다.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인쇄해 고려문을 통해 조선에 전해졌다고 한다. 한글성경은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믿음의 선배 백홍준, 이성하, 김진기 등이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함께 만들었다. 이들은 사도바울의 후예들로 열정을 바쳐 복음을 전파해 중국과 북한, 한국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 시키는데 힘썼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한국 선교의 발상지라고 생각하니 감사가 흘러 넘쳤다. 이 엄청난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니 감정을 억제 할 수가 없었다. D교회는 현재도 28개의 교회를 개척하

고, 4만 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다.

셋째 날, 단둥 은누리교회와 조선족 교회, 가나안 농군학교를 돌아보고 단교된 압록강 철교 위에서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할렙토 초라한 북녘 땅의 풍경을 보면서 압담하고 처참하게 동포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압록강 줄기를 따라 백두산과 두만강을 향해 오르며, 북녘 땅을 위해 기도했다.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서 중국과 북한의 상황을 듣고 난 이후에 중국과 북한 선교의 참의미와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한민족이 둘로 갈라져 굳게 닫힌 북녘 땅을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았다. 평안한 환경 속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면서도 겸손과 은유,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서로 시기하였고, 중보하고 격려하지 않은 것을 회개했다.

선교사님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 걸고 사역하는 것일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9-20).”



선교지 탐방 동역자들. 좌로부터 백상욱 담임목사, 정순풍 장로, 맹정에 권사, 정은섭 장로, 홍종철 장로, 안희갑 권사, 김정희 목사, 이형석 목사.

이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의 뜻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선교사님들은 한 영혼과 한민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싸우고 계셨다. 또한 은누리 비전교회 목사님들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다

선교지 탐방을 통해 회개 할 수 있는 기회

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금부터 기도가 변하고 섬기는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큰 사역이 아니더라도 잠잠히 기도하며, 진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여정을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정순풍 장로

0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진정한 '희망'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뭄, 열대야, 폭우에 이어 태풍까지... 길고 힘든 여름을 보내었다는 한국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와 M국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은혜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어는 눈에 띄게 진보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고, 긴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지 친구들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위해 더 고만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어를 인내로 정복하고, 우리의 연합 할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며 열심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십시오.

### 라미단 기간의 풍경

이곳은 어느덧 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뜨거운 여름 한 달 동안 이곳 사람들은 변함없이 라미단 금식을 지키며 보냈습니다. 식당을 제외한 대부분 상점들과 시장은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정상 근무를 하면서 라미단 금식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가끔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거리에서 물 한 모금 마시는 사람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조차 예의상 길에서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요.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그런지 시장은 오전부터 장보러오는 사람들이 북적북적 평상시 주말을 연상케 합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물가도 조금 오릅니다. 가끔 쌀 야채 종류는 두 배 가량 오를 때도 있고 닭고기는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러나 시장 외에는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날들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모스크에서 기도 소리가 울리던 온 동네가 조용해지고, 버스도 택시도 잘 다니지 않습니다. 모두 첫 식사하러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밤늦게까지 이리저리 소리들이 가득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잠해집니다.

M국의 경우 라미단이 되면 낮 시간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저녁이 되어서야 일과를 시작합니다. 평상시에는 숨이 턱 막히는 더위로, 오전에 잠깐 일을 하다가 정오가 되면 상점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 4시가 되면 문을 다시 엽니다. 그러다 라미단이 되면 그나마 오전에 잠시 하던 일까지 거의 하지 않습니다.



### 복음이 필요한 2,300만 영혼

몇 주 전, 사해바다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닷물에 동동 뜨는 기적을 맞볼 수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는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옛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건너편 땅을 바라보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함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멀리서 M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의 심정과 조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라에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섬김이 필요한 2,300만 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우리의 기도에서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청년들은 자신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희망'은 부자로 잘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희망'을 알고 있고 가르쳐 줘야 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의 백성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네요. 즐겁고 사랑이 넘치는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늘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 M국에서 윤요섭, 신마리아 드림

2012년 9월 30일 919호

- 01- 중국 심양·단둥·연길 선교지 탐방 보고 / 정순풍 장로(10면)
- 02-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윤요섭-신마리아 선교사 (M국)(10면)



01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벌써부터 뜨겁다’

가고시마가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지난 5일(금)부터 10일(수)까지 6차례에 걸쳐 진행된 ‘프레대회(홍보집회)’에서는 그 뜨거운 반응을 입증하듯 총 380여 명이 참석했다.

가고시마현 7개 도시의 교회에서 진행된 프레대회는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소개 >메시지와 찬양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특순 등이 진행됐다. 실행위원장인 구보키 사토

시 목사는 4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한다. 이번 러브소나타 집회에 와서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레대회에 참석한 무라카미 성도(가고시마 메구미교회)는 “드라마(이산)에 나왔던 송솔나무의 음악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직접 들어보니 그 이유가 연주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믿음 때문임을 알았다”면서 “온누리교회 성

도님들이 가고시마를 위해 기도해 주고 러브소나타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이 마감된 뒤에도 신청접수가 끊이지 않아, A팀(인천-후쿠오카-가고시마, 11/13-16, 99만원) 40명을 추가모집 한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오는 19일(금)까지. 문의는 02-749-1149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02

## 10월 비전헌금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오늘 드리는 10월 비전헌금은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에 쓰인다. 더 멋진 세상은 현재 아프리카 세네갈과 르완다 지역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향후 기

니와 말리 등에서도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6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3



기·도·제·목

- 10월 15일(월)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과 전달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잘 보급되기를
- 10월 16일(화)  
가고시마를 향한 사랑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로 들리기를
- 10월 17일(수)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 10월 18일(목)  
봉사자들이 연합과 일치로 이루어 언어를 초월해 헌신할 수 있기를
- 10월 19일(금)  
예비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가난한 마음으로 열리기를
- 10월 20일(토)  
가고시마의 악한 영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보기도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 10월 21일(주일)  
준비하는 팀과 강사님들을 위해 건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01

##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선교대회

17일 서빙고 본당 감사예배, 28일까지 행사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소속이며 5년 이상 된 각국의 선교사 120명이 한국에 들어온다.

TIM의 20주년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 현재 선교사 92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TIM은 그동안 수고한 선교사들 격려하고 은누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의 사역을 알리기 위해 선교대회를 마련했다.

이 행사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17일(수), 저녁 7시 20분

서빙고에서 '20주년 감사예배' ▷18일(목)-19일(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선교사와 선교 스태프가 함께하는 '선교사 대회' ▷19일, 각 공동체 책임선교사와 함께하는 '책임선교사 순모임' ▷20일(토), 서빙고 비전홀과 시온홀에서 열리는 '선교지역 세미나'가 열린다.

다음 주 주일(21일)은 TIM선교주일로 선교사들의 간증과 캠퍼스에서 설교가 있을 예정이며, 선교간증은 28일(주일)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문의 794-1063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수원 긍휼사역팀은...

- 독거노인지원팀: 사랑의 도시락, 반찬배달, 월 1회 심방 예배, 이미용, 청소, 집수리 등으로 어르신들을 방문해 친밀한 교제와 중보기도를 합니다.
- 노숙자지원팀: 노숙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단체(꿈아119 및 행복의집)의 사역을 도와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다가갑니다.
- 구제성미EM팀: 사랑의 쌀과 구제헌금에 동참하도록 돕고 쌀 주머니와 사랑의 저금통을 나눠드립니다.
- 리합의 집: 수원역 부근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강하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밑씻개 드와 함께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전합니다. 조선족과 새터민도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 사역지원팀: 인도네시아 셸터 등 이방인, 고아와 과부처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 천국백성으로 거듭나다!

## 외국인 이주민 위한 '하비스트 축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계 7:9)”

각 나라와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가진 외국인 이주민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지난 추석동안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그들을 위한 축제 'Harvest 2012' 집회가 열린 것. 520명의 외국인 이주민과 102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주민 중 절반이상이 새신자로 채워져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들은 3일 동안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동족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 위로 받으며, 다양한 이벤트와 풍성한 식사로 영과 육을 채웠다. 아름다운 축제 하비스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 스리랑카에서 온 Saman 이야기

작년 6월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온 Saman(사만). 스리랑카에서 서양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사만은 웃음을 잃지 않는 청년이었다. 27세 건장한 청년인 그는 한국말이 꽤 유창했다.

“안산 M센터에 열심히 나가고 있어서 제 이름을 다면 모르는 사람이 없게 거예요.”

M센터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알리며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본인을 소개해 나갔다. 그는 사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은 충남 당진에서 일하지만 안산에도 공장이 있어 그전에는 안산 공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그때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윤용국 전도사님을 만났고, 그렇게 안산 M센터와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당진에서 안산까지 와 예배에 참석하는 열정의 청년이 되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는 이번 전도집회가 너무 좋으며 연신 싱글벙글이다.

“하비스트는 급년이 처음이에요. 다양한 말과 문화를 만나게 되어서 좋아요 여러 나라 사람과 사귀 수 있어서 좋아요 설교도 너무 좋아요 안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집회 말씀에 감동 받았어요.”



### 전도왕 네팔 Bharat 형제 이야기

네팔에서 온 Bharat 형제. 그는 현재 한국에서 신학을 배우며 안산 M센터 네팔 예배를 섬기고 있다.

“안산 네팔예배는 형제 4명으로 시작해 다국적 예배인 ANEW에 속해 있다 가 일년도 되지 않아 30명으로 늘어나 한 달 전에 독립하게 됐어요”

네팔예배는 서빙고와 안산으로 나뉘어 드린다. 서빙고는 2년 전에 독립해 따로 예배를 드려왔지만, 안산은 인원이 적어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마다 30명의 형제들이 안산M센터에 모인다. 그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루를 M센터에서 지내고 주일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말을 보낸다. 그가 M센터를 섬기며 가장 은혜로웠던 점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뤄주시는 것. 먼저는 한국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네팔예배가 독립하게

된 것이다.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길. 이번 집회에 원래 인원의 2배 이상인 69명의 네팔 자제들이 참석했다. 그 중 25명은 바닷항제가 전도해 전도왕으로 뽑히기까지 했다. 그는 그가 받은 은혜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기 위해 전도에 힘쓰는 참된 주의 종임에 틀림없었다. 집회 셋째 날인 1일(월)에 네팔예배 개척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와 집회에 참석한 69명의 네팔 자제들은 앞으로 나와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렸다.



### 봉사자 오은철 형제 이야기

“이번 'Harvest 2012' 집회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궁극적으로 천국사람 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봉사자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 M센터를 섬기며 이번 집회 봉사자로 섬긴 오은철 형제. 태권도 선교학을 전공한 그는 안산M센터에서 스리랑카 형제들을 위한 예배를 섬기고 있다. 자신이 섬기는 형제들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자연스럽게 자신도 봉사자로 일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섬기는 스리랑카 형제들을 하나님이 공동체

에 보내주시길 귀한 사람들로 알고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이며 임무라고 말했다.

“처음 교회에 와서 서먹서먹해 하던 형제들이 태권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태권도를 저의 달란트로 주신 데 대해 너무나 감사하곤 해요. 제가 오직 바라는 것은 형제들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돌아가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주민을 대함에 있어서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때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들을 친구로 대할 때 이들 역시 마음을 열게 된다고 말했다.

“저희들이 하는 이 작은 일(봉사)이 이주민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각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귀국한 후에도 자신의 가족은 물론 주위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을 전파해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조은실 기자, 박성환, 박정란 통신원







# 쿠사츠의 봄



김병중 교수(서울대 미대)

언젠가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보였던 것이다. 하용조 목사와 몇몇 분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이거 사건이구나' 싶었다.

내가 알기로 그간 몇몇 인사들이 기독교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갔다가 차가운 빙벽 앞에 선 듯 돌아서곤 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이어령 선생과의 식사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더군요. 축하드립니다"라고 했더니 "하용조 목사님께 서 권하셔서..."라고 했다. 문득 하 목사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사 하용조 생각해 보면 그는 기독교에

냉담했던 한 석학을 무릎 꿇게 했던 것처럼, 유난히 선교가 어려워 보이는 땅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곤 했다.

연예인 선교와 일반 선교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도 가끔 재능 있는 연예인들이 스스로 꽃 같은 목숨을 버리고 떠나는 뉴스를 접할 때면 하용조 목사, 그분이 선각자였구나 하는 생각을 갖곤 한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 차마 말 못할 아픔과 외로움을 지닌 연예인들을 보듬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게 하곤 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한 중견 연극자가 기독교계통 잡지를 하나 창간하고 싶다고 저문을 구해온 적이 있었다. 좀 프약한 느낌으로 만났더니 하 목사가 얘기를 했다. '두란노'로 문서선교의 파란을 일으켰던 하 목사의 영향을 단단히 받은 듯싶었다. 이처럼 여기저기서 그분의 영향력에 영적인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호기심을 통해 그 설교를 들어 보려간 적이 있었다.

마침 이슬람권을 다녀온 뒤라며 설교 중에 동그란 이슬람 모자를 써 보이면서, 어머나고, 멋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 모습이 좀 코믹하

기도 하고 영똥해서 모두들 까르르 웃었다. 완전히 내 예상을 빗나가는 설교였다. 여기저기에 끼친 그분의 영향력으로 보아 질풍노도 같은 설교 등쪽에 죽비를 치는 것 같은 카리스마 있는 설교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저처럼 다정다감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어떻게 이 거대 교회를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 목사가 거주지를 천국으로 옮긴 지 1년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이를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 교회 교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담을 넘어서까지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져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흥정길 목사 같은 이는 "하용조 없는 지구를 생각할 수 없다"고까지 격한 그리움의 감정을 토로할 정도다. 그러나 그이를 그리워하는 목소리 중에는 누가 뭐래도 평생의 반려였던 사모의 그것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쿠사츠의 봄'은 먼저 떠난 지아비에 대해 아내가 쓴 절절한 그리움의 연서다. 거기에는 무슨 신학적 대담론 같은 것은 찢고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현란한 수사나 미문(美

文)의 꾸밈새 같은 것도 없다. 오히려 읽는 사람이 당혹스러워질 만치 초보 글쓰기다운 소탈함과 솔직함으로 일관되어 있다.

한국 현대 교회사에 일획을 그은 간 거인 하용조가 아닌, 내 남편 하용조의 아프고 약하고 자질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 마치 연애하는 청춘남녀들처럼 두 사람만의 사랑 이야기가 화사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한 목회자에게 어머니와 아내와 누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앙 동지였던 사모의 모습이 수채화처럼 드러나 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대목도 많지만 영어로 말하다가 막히면 1000원씩 내기하는 대목 같은 데서는 소리 내어 웃게 될 정도다.

소풍장난하듯 예쁘고 아름답게 산 한 부부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하다. 두 사람은 생전 먼저 떠난 사람이 천국의 어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약속을 했다 한다. 마치 들어서 옛날에 잘 가던 어느 대학 다방 앞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죽음의 다리를 건너서까지 이어지는 견고한 사랑의 현존을 짚어주는 대목이다.

\* 본 기사는 국민일보 [김병중 내 영혼의 책갈피]에서 전제했습니다.



# 선교사와 함께하는 'TIM선교주일'

## 선교사 특송, 간증, 파송식 등 행사 다채

교회가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21일) 'TIM선교주일'로 지정하고, 선교사들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린다.

서빙고 12부 예배와 양재 34부 예배에서는 선교사들의 특송과 간증, 19명의 신규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된다. 서빙고 3부 예배에서는 일반 사역자 파송식이 진행된다. 캠퍼스와 차세대예배에서도 선교사들이 선교지 이야기와 간증, 설교를 한다.

지난 17일부터 TIM 20주년 선교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선교대회의 포문을 연 17일 감사예배에는 27개국 130여 명의 선교사와 선교 단체장, 선교 스태프 등 1,033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 참가자들은 TIM 2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헌신해준 성도

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 특히 이날은 TIM의 3대 대표로 취임한 이재훈 목사가 처음으로 인사를 한 자리여서 더욱 뜻 깊었다.

이반석 선교사는 "TIM이 성년이 된 만큼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를 소망한다"고 했고, 요한 선교사는 "TIM이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IM 20주년 기념 선교대회는 22-23일 '리더십 회의', 24-26일 온누리 부흥집회 참석, 28일 주일예배 간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선교사 / 일반사역자 파송

#### \*선교사

임모세/유루스(아프리카 I국)

파디/파디아(아프리카 A국)

허길/유진희(모잠비크)

박겸손/장에스더(아프리카 A국)

방경훈/김귀남(남아시아 D국)

조갈렙/박크리스틴(스리랑카)

주보라(아프리카 T국)

하다스(아프리카 T국)

연진숙(아프리카)

조이스 정(감비아)

홍시안(남아시아 I국)

그레이스 오(서아시아)

홍은혜(동아시아 M국)

#### \*일반사역자

임형규(동아시아 A국)

01

## ‘주님 안에서 하나 됨 경험’

### 강남B, 캄보디아와 연합야외예배

강남B공동체가 지난 주일(14일) 남한산성 목사의집에서 공동체 전도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다락방별 코너 ▷캄보디아예배 ▷레크리에이션 ▷OX퀴즈 ▷빙고게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모임은 캄보디아 형제들을 초청해 단순한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아닌 교제를 통해 ‘전도와 선교’로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280명의

강남B공동체 가족(자녀 포함)들과 35명의 캄보디아 형제들이 모였다. 다락방별 코너에서는 ▷보물찾기(민음) ▷골프장타대회(희락) ▷다트(화평) ▷카페(총성) ▷벼룩시장, 호박엿(양선) ▷과일가게(소망) 등 풍성하고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예배에서 강남B공동체는 찬양을 캄보디아어로 배우고, 캄보디아 형제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배우며 하나

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다. 보물찾기 시간에는 보물을 찾은 성도들에게 고급삼푸, 하림선물용세트, FC 축구팀 사인볼, 고급선글라스, 시계 등을 선물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강남B공동체를 대표하는 권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볼 수 있었던 불고기 300인분과 비빔밥 300인분이었다. 한편, 이날 양산다락방에서 준비한 벼룩시장에서 얻은 10만원의 수익은 선교헌금으로 사용되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선교 공모전 결과

- |  |  |
|--|--|
| <p>1. 동영상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뉴 아이패드) 부르키나파소(차세대 연합팀)</li> <li>• 2등(아이패드2) 라오스(양재 JDS107)</li> <li>• 3등(생명의 삶 1년 구독권) 말레이시아(서빙고 JDS107)</li> <li>• 3등(생명의 삶 1년 구독권) 인도(강남C)</li> </ul> <p>2. 사진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뉴 아이패드) 인도(강남C)</li> <li>• 2등(아이패드2) 시에라리온(양재 JDS87)</li> <li>• 3등(생명의 삶 1년 구독권) 라오스(양재 JDS107)</li> <li>• 3등(생명의 삶 1년 구독권) 인도(서빙고 공동체, 젊은 부부학교</li> </ul> | <p>사역 연합팀)</p> <p>3. 보고서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사역지원금 50만원) 부르키나파소 (차세대 연합팀)</li> <li>• 2등(사역지원금 30만원) 케냐 (개별팀)</li> <li>• 2등(사역지원금 30만원) 라오스 (수원 JDS 7기)</li> </ul> <p>4. 간증문 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사역지원금 50만원) 캄보디아 (양재 JDS 주간107) 박성희 성도</li> <li>• 2등(사역지원금 30만원) 필리핀 (대전캠퍼스+마노아의료팀 연합) 김현 성도</li> </ul> <p>*시상식: 30일 오후 7:20 서빙고 한동홀 (02-795-9085)</p> |
|--|--|

03

## 온누리 핵심가치 전수 ‘비타민C집회’

### A국, 19개 지역 257명 참석

기독교 탄압이 심한 동아시아 A국에서 곳곳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 마가(예명)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은 지난 2011년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비타민 C집회에 참석했다. 집회동안 온누리교회의 비전과 목회철학, 양육 등의 강의를 들으며 온누리 핵심가치를 전수받았고, 당시 열린 창립26주년 부흥집회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했다. 그 후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 주변 교회에 자신이 알게 된 온누리교회와 비타민C집회를 알리기 시작했다.

이 소식은 동아시아 A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다. 최근 동아시아 A국의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지만, 양적인 부흥에 비해 어떻게 양육하고 예배를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질적인 성장 방법을 모르는 교회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Acts29의 비전을 실천하는 ‘비타민 C집회’. 오는 22일부터 일주일동안 제 3회 비타민 C집회가 열린다. 현재 동아시아 A국 19개 지역의 257명이 집회를 신청했다. 이번 집회에서도 동일하

게 온누리 양육체계, 예배사역, 일대일 QT 등을 소개하고 부흥집회 ‘하나님의 흔적’에도 참석하며,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교회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4



기·도·제·목

- 10월 22일(월) 가고시마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사랑으로 열매맺기를
- 10월 23일(화)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고시마의 영적힘이 일어나도록
- 10월 24일(수) 집회에 오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 들이고 성령안에서 거듭나기를
- 10월 25일(목) 스템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고, 장소 배정이 슬기롭게 진행되도록
- 10월 26일(금) 간사님들과 풍역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성령으로 흥만하기를
- 10월 27일(토)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기도의 영으로 묶임을 받도록
- 10월 28일(주일) 러브소나타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2012년 10월 21일 921호

• 01- 강남B공동체 : 캄보디아 형제들 초청 ‘전도집회’ 개최(4면), • 02- 선교 공모전(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각 부문 결과 발표(4면)  
• 03- 온누리 핵심가치 전수 <제3회 비타민 C집회> 개최(5면), • 0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22-28)(5면)



기획연재

-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② 선교사들의 버팀목 'TIM'

#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발자취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 14)”

온누리교회가 기도로 뿌리내린 선교단체 두란노해외선교회(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가 선교만을 위해 걸어온 외길인생이 20주년을 맞이했다. TIM은 1987년부터 시작된 중보기도모임으로부터 태동되었다. 이상자 권사 집에서 시작된 한남동 중보기도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해나갔고, 1992년 최 다니엘 선교사를 초대대표로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1994년 2천/1만 비전이 선포되면서 TIM의

사역은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되었다. 1995년에는故하용조 목사가 2대 대표를 맡으면서 사역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온누리교회가 단일교회로는 세계에 유례없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데에는 TIM의 역할이 컸다. TIM은 현재까지 921명의(장기선교사 539명, 단기선교사 382명)선교사를 60여 개국으로 파송했다.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도 병행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와 함께 성장한 TIM 20주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1992년 최다니엘 선교사(초대 대표), 하용조, 김재은, 한상원, 오성연, 이시영, 주수일, 하용민, 김종민, 박을용, 등으로 초기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 한눈에 보는 TIM 20년

### 태동기(~1990년)

- ▶1987년 9월 중보기도모임 시작
- ▶1988년 중보기도 모임 명칭을 TIM(Tyrannus International Ministries)으로 변경
- ▶이상자 권사 집에서 정기 모임시작
- ▶'한남동 기도모임'이라는 별칭을 얻게 됨

### 개척기(1991년~2000년)

- ▶1992년 이사회 구성(초대 대표: 최 다니엘 선교사) 67명 하임
- ▶1993년 1호 선교사 초선주 선교사 파송
- ▶두란노 선교선사자훈련 학교 개설
- ▶12월, 동아시아 베이스 개척
- ▶남아시아 선교부 'SAM'선설
- ▶1994년 2천/1만 비전 선포
- ▶2월, 이스라엘 성령집회

- ▶4월, 이스라엘 선교부 'KIB'선설
- ▶1995년 TIM 2대 대표 하용조 목사
- ▶1996~9년 15개 미전도 종족입양
- ▶1996년 2천/1만 선교사훈련원 개설(양지)
- ▶스리랑카 베이스 개척
- ▶외교통상부 산하 NGO기관 공식 등록
- ▶2000년 러시아 가정상담훈련원 'NEW LIFE' 설립

2012년 10월 21일 921호

- 0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발자취(8면)
- 02-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0년)(8면)



01

# 모든 종족에게 교회를!



## 인터뷰



도육한 목사  
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 열방에서 선교 구현해 나가는 '두란노해외선교회'

###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을 소개해주세요.

"TIM은 온누리교회의 비전, 선교에 대한 확신 등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하면서 성장한 선교단체입니다. TIM이라는 한 패러다임으로 보면 독자성을 유지한 하나의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이지만, 온누리교회로 볼 때는 온누리교회를 선교하게끔 돕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실행해나가는 전위 부대이기도 하고, 온누리 선교정책과 전략을 수행해나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IM이 20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은혜를 나누주세요.  
"그동안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TIM의

초창기 사역이 기억에 남습니다. TIM은 중국사역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유사하고, 복음적으로도 우리가 섬겨야 할 선교 타겟 지역이기 때문에 최선수 1호 선교사, 박승철 선교사 등 초기 선교사는 모두 중국에 집중했습니다. 초기에 중국선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엄청난 교회 부흥뿐 아니라 오히려 선교 중국으로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헌신한 중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 ▶TIM 20주년 선교대회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선교가 가장 크게 부흥한 시대에 TIM이 온누리교회와 함께 한국선교의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TIM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역사를 재해석하고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또 한번 써내려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계획을 나누고,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제하는 축제가 될 것입니다."

### ▶TIM의 향후 사역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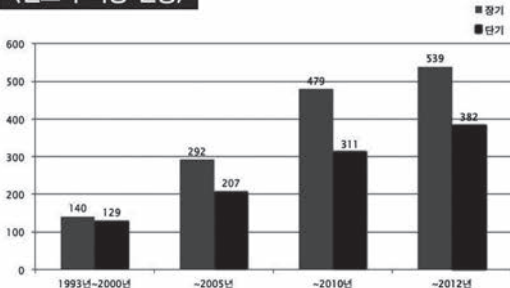
"TIM은 온누리 비전을 열방에 구현해 나가는 실질적인 손발의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손발의 역할답게 다양한 자원의 선교동원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선교 노령화가 급격화 되기 때문에 '젊은 선교사 동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비즈니스나 주재원 형태로 전 세계를 이동하는 자원들을 훈련하는 '전문인재비람선교', '시니어 선교'에 대한 동원이 계속될 것입니다. 온누리 선교가 계속해서 2000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교전략에 대한 방향을 조정하고, 앞으로 전방개척과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 ▶성도들에게 당부말씀을 전해주세요.

"TIM을 좀 더 깊이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핵심 멤버들은 TIM에 구성되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사역했지만 세계선교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선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

02

### 〈선교사 파송 현황〉



### 〈대륙별 선교현황〉

현재 46개국 103도시 371명(MK 263명) 선교사 파송

파송국가	중점사역	사역분야	
아메리카	5개국 5도시, 11unit	·전방개척선교 ·토착선교 ·TEAM사역 ·초교파 선교 동원 및 협력 ·전문인 선교 ·글로벌 리더십 양성	
아시아	17개국 67도시, 157unit		
아프리카	9개국 12도시, 16unit		
북유라시아	6개국 8도시, 11unit		·복음전파 ·교회사역 ·교육사역 ·전문인사역
중동	6개국 8도시, 15unit		
오세아니아	2개국 2도시, 2unit		
페르시아	1개국 1도시, 1unit		

03

### 성장기(2001년~2012년)

- ▶2001년 온누리미션 상업고등학교 설립  
박승철(박모세) 선교사 순교(C국)  
300호 선교사 파송
- ▶2004년 김사무엘 선교사 순교(이라크)
- ▶2011년 아리문츠 선교사 순교  
2기 TFM 청년선교사 파송
- ▶2002년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설립  
세브란스 의료협약 체결  
온누리세계훈련센터 설립
- ▶2005년 아프가니스탄와지르쿨중등학교 설립  
TIM 영문명 변경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교회개혁 5P 전략 실시  
예루살렘 평화행진
- ▶2007년 700호 선교사 파송
- ▶2008년 TIM-HOUSE 선교사숙소 건립  
안식년 선교사 디브리핑 시작
- ▶2012년 900호 선교사 파송  
2기·3기 FA 청년선교사 파송
- ▶2003년 아프가니스탄 사역시작
- ▶2006년 500호 선교사 파송
- ▶2010년 TIM-J 일본지부 설립  
1기 TFM 청년선교사 파송
- ▶2012년 10월, TIM20주년 선교대회

2012년 10월 21일 921호

• 0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도육한 목사 인터뷰(9면)  
• 02-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선교사 파송현황& 대륙별 선교현황(9면), • 03-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1년~2012년)(9면)



01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참가자 교육

### 1차, 오는 11월 1일 서빙고 한동홀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이자 빼어난 경치와 이국적인 정취로 일본인의 사랑을 받는 곳, 가고시마. 오는 11월 14일(수)~15일(목) 양일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진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이번 러브소나타의 1차 참가자 교육이 오는 11월 1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서

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이 날 가고시마 현지에서도 러브소나타 기도회 및 일본인 봉사자 설명회가 저녁 7시 나자렌 가고시마교회에서 열린다. 참가자 모임은 1, 2차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차 교육은 오는 11월 8일(목) 7시 30분 양재 화평홀에서 실시된다. 러브소나타의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말씀과 중보기도.

나눔의 시간 등이 이뤄질 참가자 교육에서는 반태효 목사(서빙고 캠퍼스)와 박종길 목사(양재 캠퍼스)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참가자들 모두가 1, 2차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02



기 · 도 · 제 · 목

- 10월 29일(월)  
따금씩 기도가 양적으로 연결되도록
- 10월 30일(화)  
박종길 목사님 강의에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 10월 31일(수)  
이남식 총장님 강의에 많은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 11월 1일(목)  
가스펠나이트 가고시마의 쿠보키사토시 목사님께 기쁨부으심이 있도록
- 11월 2일(금)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한일 양국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 11월 3일(토)  
가고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일본에 복음을 대대히 선포하도록
- 11월 4일(주일)  
스텝들의 건강과 손발이 잘 맞도록

# “슬픔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구원으로”

## 큰 도전 받았다 ... 날마다 3,600여 명 운집

“집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곳에 남아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지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28일(금) 온누리 부흥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프랜시스 쉐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실천할 것’을 강하게 권면했다. “솔직함, 진실성을 갖고 가르치라”, “기도는 조건적이다. 의심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면 교회 본당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가라” 등 단호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온누리 성도들에게 도전과 열망을 부여 준 온누리 부흥집회 ‘하나님의 흔적’이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다.

### 넘치는 은혜 고백합니다

이번 부흥집회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참석자들로 붐비 임추의 여지가 없었다. 130여 명의 선교사와 270여 중국 목회자들, 50여 일본인들, 햇빛트리니티 학생들과 영예예 성도 220명, 농어촌교회의 60여 목회자, 11명의 제주도 목회자와 사모 등 매일 유례없는 3,600여 명이 모였다. 차고 넘치는 사람들로 인해 본당과 비전홀뿐만 아니라 두란노홀, 한동홀도 오픈됐고 집회마다 밥을 굶어가며 줄을 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본당은 강의 시작과 동시에 만석이 됐다.

프랜시스 쉐 목사의 열정적인 강의와 하나님이 부여주시는 성령에 감동해 감격할 얼굴로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었다.

“쉐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회 현장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설교하는 모습 또한 감동이었습니니다.” 충주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열모 목사(충주향산교회)가 고백했다. 홍성혜 사모도 “목사님이 설교와 Q&A 시간에 강조하셨던 솔직함과 섬김의 도리, 이웃과의 나눔과 돌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느꼈다”면서 “프랜시스 쉐 목사의 모습 자체가 감동적이고 은혜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란노해와선교회(TIM) 2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이번 집회에도 참석하게 된 조경근 선교사(네 팔)는 “선교지에 있으면 영적으로 메말라지기도 하는데 예배하고 은혜도 받아서 기쁘다”면서 “선교지에 돌아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제자 양육에 더욱 힘써 준비하겠다”고 했다. 소리엘 선교사도 “이번 집회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을 붙잡게 됐다”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반드시 하겠다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비타민C 집회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한 사역자는 “집회를 통해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The Signature of  
*God*  
하나님의 흔적

사진팀 : 황지연 기자, 김만홍·이충현 통신문



목사안수

###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작은 종



하카마타 미키(일본어예배)

복음의 불모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이 작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격려해주시고 많은 분

들을 제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으로 저를 그분의 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치유집회 네팔

## 배가되는 성령 사역 “기적이 일어났어요”

온누리교회 월요치유집회팀은 지난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네팔 카트만두와 간지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한 것이었다.

특히 가장 큰 일은 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카트만두 성령 컨퍼런스’였다. 조경근 선교사님과 비루 목사님, 김영미 선교사님과 100여 개의 교회들이 연합한 이번 집회는 카트만두에서 가장 큰 가네스웰교회에서 열렸다. 각 교회의 리더십과 환우들이 참석한 블레싱 네팔 카트만두 성령 컨퍼런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매일 1,300명 정도의 크리스천 리더십과 병든 이들이 참석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한 7-800명중 대부분에게 방언이 임했고, 50평생 한 번도 말을 해 보지 못한 여성의 말문이 열리고, 1살부터 걷지 못한 자매는 그 날 처음으로 걷는 기적이 일어났다. 다리 암으로 25년간 걷지 못한 어떤 여성은 뛰는 은혜도 있었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질병과 고통 속에 살고 있던 그들의 삶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게 됐을 것이라 기대한다. 집회에 참석하신 방글라데시 선교사님과 부목사님은 ‘어메이징!(놀랍다)’을 연발하시며 내년 초에도 방글라데시에 와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월요치유집회팀은 카트만두 성령 세미나와 집회를 마친 다음 날인 9일, 네팔의 서부지역인 ‘포탈팔’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 30인승의 경비행기를 타고 이



동했다. 포탈팔에는 조경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올네이션스 비전센터와 25개의 교회, 4개의 NGO 단체가 활동 중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25개 교회에서 목사 및 사모님 50명 전원이 참석했다. 김성진 장로님은 5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을 위해 기도했고 스태프들은 안수기도를 도왔다. 성령 사역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방언으로 말했고, 그 자리에는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임했다. 주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 주셨다.

성령이 임한 참석자들은 에베소교회에서처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기름 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 또한 그곳에 가기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동하며 찬양과 기도로 자신을 드린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 현지 목회자, 성령 사역 계속할 것 고백

포탈팔에 있는 아너더교회를 갔다. 그 교회는 재정 부족으로 건축하다가 말아 콘크리트 기둥과 천정만 있었다. 그런 가운데 300명으로 예상하던 집회에 650명의 성도들이 꼭 차 찬양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스태프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을 오랫동안 묶고 있던 어둠과 귀신들이 떠나가고 듣지 못하던 한 여성은 귀가 들린다고 간증하며 기뻐하던 모습들이 나타난 놀라운 예배였다.

식사가 미처 준비 되지 않아 점심식사도 거른 채 집회는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배고픔에도 오직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리를 떠나지 않던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이 눈에 선하다. 집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 이날 임이라 권사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쁨을 치며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며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그 있던 자리가 너무 익숙해서 나오지 못하고 찬양만 부르는 모습이 생각났다”면서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가 그곳에서 이들을 손을 잡아 이끌어내는 사명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집회 후, 아너더교회의 담임목사님은 “성령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좋은 모델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29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네팔 간지에 성령 사역을 하겠다”고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씨를 뿌리고 오는 것이었다. 계속해서 네팔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한다. 이번 아웃리치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계획과 주님이 그 땅을 위해 하실 일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귀한 아웃리치였다. 성령 세례로 부르시고, 치료로 임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게 빈 그릇인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용명순 권사



'2012 Acts29 비전 컨퍼런스'

# 비상하는 해외비전교회 꿈꾼다

## 시드니 · 뉴질랜드 · 아부다비 · 호치민 본부 권역으로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 자매결연도

시드니 · 뉴질랜드 · 아부다비 · 호치민 은누리교회가 해외 비전교회 본부 권역으로 편제 되었다. 또한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가 자매결연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데 힘쓰기로 했다.

지난 24일(수) 서빙고 한동홀에서 '2012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컨퍼런스에는 해외비전교회 교역자와 국내 캠퍼스 교역자, Acts29 협력위원회 장로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은누리교회의 매트릭스 사역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해외비전교회의

사역현황과 사역의 어려움을 나누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종길 목사(Acts29)의 사회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강신의 장로의 대표기도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지역별 사역현황 소개 ▷기도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본부, 일본, 중국, 미주 순으로 진행된 사역현황 보고에서는 해외비전교회의 생생한 현장 소식을 나누고 서로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2012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지난 24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 권역별 사역보고

#### ▶▶ 본부 권역 (시드니, 뉴질랜드, 호치민, 아부다비)

"시드니는 교회가 첫 입당예배를 드리고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처리된 문제들로 예배 정지를 받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뉴질랜드는 지역교회와 연계해서 비누아트 선교에 중점을 두었고, 호치민은 한인 성도뿐만 아니라 베트남 성도들도 교회에 초청해 섬길 예정입니다."

/ 이기훈 목사(시드니 은누리교회)

#### ▶▶ 일본 권역 (오사카, 요코하마, 아치오, 동경, 나고야, 교토, 우에다)

"일본지역은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목사님들이 일본인들을 한명이라도 구원하는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에 기독교 방송이 일본어로 24시간 방송된다는 것은 목회자들의 가장 강력한 지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CGNTV를 통해 은우리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매주 한 두 명의 새신자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 문봉주 목사(오사카 은누리교회)

#### ▶▶ 중국 권역 (북경, 상해, 대련, 단둥, 장춘, 청도)

"중국은 현재 주석교체시기로 정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춘을 비롯한 동북산성지역이 초간장 상태이고,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되었고,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촛불시위 때부터 한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매주 월요일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록강을 바라보고 있는 단둥은 저절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 강부호 목사(북경 은누리교회)

#### ▶▶ 미주 권역 (앨버틴, 샌디에이고, 뉴욕/뉴저지, 네이퍼빌시카고, 산타모니카, 로스앤젤레스, 앵커리지, 밴쿠버, 괌, 보스턴, 포틀랜드, 노스시카고)

"미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은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안수집사가 없습니다. 이번에 11명의 안수집사를 세워 교육받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은누리교회에서는 교회를 떠났던 27정이 다시 돌아와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 권혁민 목사(앨버틴 은누리교회)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 11/1(목) 오전 9시  
세네갈 리크로즈의 무슬림 마을, 블레싱 사하라 아웃리치팀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 건축 현장입니다.



01

## CGNTV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 2012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CGNTV가 제작한 블레싱 사하라 특집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가 2012 환태평양영화제에서 (Panpacific

Film Festival)에서 베스트 미션 필름상을 수상했다.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는 올 여름 세네갈의 라크로즈

(Lac Rose) 마을에서 복음을 전한 아웃리치팀의 활약상을 담았다. 영상은 CGNTV 홈페이지에서(www.cgntv.net) 다시 볼 수 있다.

올해 5회를 맞은 환태평양영화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발굴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02

## 아웃리치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2 아웃리치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30일(화) 서빙고 한동홀에서 화요선교집회 중에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사진·영상·보고서·간증문 부문으로 나뉘었다. 공모전을 주최한 2천선교본부는 각 부문의 1등 수상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했다.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는 받은 상품을 선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주도록 당부했고, 보고서와 동영상 부문에서 1등을 한 차세대 연합팀은 상품으

로 받은 아이패드와 사역지원금을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키비(KIBI: Korea Israel Bible Institute)가 이스라엘의 요셉 숲 캠퍼스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5일(월)부터 8일(목)까지 4일 동안 서빙고에서 로마서 강해를 주제로 진행된다. 회비는 무료다.

키비문의: 792-7075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가고시마 기·도·제·목

- 11월 5일(월) 이재훈 목사님이 전달하는 내용이 사람들에게 잘 보급되도록
- 11월 6일(화) 가고시마 언론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도록
- 11월 7일(수) 김성묵 장로님의 강의를 많은 가정들이 회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 11월 8일(목) 가스펠 나이트를 준비하는 모든 이가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 11월 9일(금) 장소와 날씨, 숙박 등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 11월 10일(토) 가고시마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회에 와서 복음을 영접하도록
- 11월 11일(주일) 모든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가 가고시마를 보호하도록

기획연재

-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② “선교는 즐겁다” I
- ③ “선교는 즐겁다” II

# “선교는 즐겁다”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두란노 해외선교회 2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대회가 끝났다. 특히 이번 선교대회는 선교사가 선교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선도들에게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TIM 선교사들은 각 선교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선교는 간단했다. ‘선교는 즐거운 것이고, 은혜가 있을 자리’.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교회개혁과 저세대 사역, 의료선교 이야기를 강연을 통해 들어보자. / 조은실 기자

### 1 교회개혁 이야기

T국에 파송 받은 후 2년 동안 현지적응과 언어를 배운 후 저희 가족은 한국인 사역자와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파송 받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2년 차 선교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걱정도 됐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은 인구 70만 명의 작지 않은 도시로, 약 3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현직인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꼭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교회개혁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아니지 않아요? 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쭙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라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만 해도 없이 하는 게 저의 특징인지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교회개혁을 위해 교회를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4개월을 아무런 응답이 없

었습니다. 그 4개월 동안 저는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얻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면서 영혼을 더욱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긍휼함이 더해져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교회가 한글학교도 시작하게 되고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가 침체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요. 요즈음은 교회의 이전을 놓고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합당한 응답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언제 어디에서나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감사가 넘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T국 이영광 선교사

### 2 차세대 사역 이야기

2010년 12월, 저희 가족 4명은 네팔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2001년 단기선교사로 사역한 지 10년 만에 장기선교사가 되어 네팔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선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네팔의 서부지역을 놓고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팔의 서부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하며, 사회적으로는 중부나 동부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신분차별이 존재하고, 서부네팔은 조상의 부채 때문에 자손이 대대로 종살이하는 할리아제도, 가난한 어린이를 노비로 삼는 껌리리제도, 그리고 이웃나라 인도의 서커스와 매춘업계에 10대 소녀들을 파는 인신매매 등의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가족은 카트만두에서 네팔간지사로 이동해 두란노 해외선교회 네팔지역의 서부 교두보의 역할을 하게 될 ‘All Nations Vision Center’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난 2월 센터의 센터를 시작한 후에 첫 사역으로 서빙고 중등부 아웃리치팀이 방문하여 청소년사역을 섬겨 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이 몰려왔습니다. 100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 공간에 거의 300명의 아이들이 몰려와 사실상 센터 오프닝에 해당하는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후에도 여름 아웃리치로 양재 유치부와 서빙고 고등부 등 계속해서 차세대 사역팀들이 찾아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차세대 사역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10명 정도 나온 아이들이, 이제는 초등학교생 60-70명 정도가 고정적으로 출석하고 있으며 학생부에도 20여명의 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30-40명 출석하고 있는 성인예배의 두 배를 넘는 숫자입니다.

네팔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어려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밝게 자라고 있고, 지난 여름 45-50°C를 오가는 살인적인 더위도 잘 이겨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저희 가족은 충만해져 있습니다. 선교사처럼 영광스러운 소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섬기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네팔 조경근 선교사



두란노 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주님 함께 하시니 언제 어디에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처럼 영광스러운 소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 3 의료선교 이야기

2000년 전, 구주 예수님은 참 좋은 의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간의 육신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는 참 의사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진정한 의사의 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의과대학사절 한 순장님의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 제 삶의 소망이 되면서 그러한 삶이 제 속에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다렸습니다. 자주 넘어지기도 하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 소망이 저의 다짐들이 되었고, 결국 전 알어붙은 A국 땅 한 칸에 버려지고 약한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2003년 12월 영하 30도의 아주 추운 날, 남루한 옷차림의 카자족 젊은이 한 명이 제가 섬기고 있던 A국 연세전선병원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는 이미 1,500km 가량을 2박3일 동안 말

을 타고 트럭을 타고서 이곳에 10개월 전 제가 써 준 종잇조각 하나만 믿고 왔습니다. 그의 코 속에 큰 혹이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들은 치료를 포기한 절망의 표상이었습니다. 그 무렵 우연히 다윗공동체와 함께 지방사역중이던 저를 만났고, 다시 저를 만나기 위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긴 여정을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와 수술을 위해 수술팀 전원이 함께 기도할 때 저는 그에게 오하려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었으나 알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위해 저를 준비하

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제 영혼을 울렸습니다. 수술 후 그에게 저는 차근차근 예수님의 복음을 읽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3주후 그가 연락해왔습니다. 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참 좋은 신의사입니다. 저는 그의 손에 쥐인 못난도 구여도 좋습니다.

/ A국 한영훈 선교사



**대 련**

#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

## 대련,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지난달 21일 대련 온누리교회가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 16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

전대진 집사의 대표기도로 시작된 창립기념감사예배는 챔버팀(장수희 집사 외 5명)의 특송, 김영배 목사(양지 온누리교회)의 메시지, 올 한해 아름다운 섬김이 시상, 케이 크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감사예배에서 김영배 목사는 “중국 땅에 대련 온누리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을 것”이라며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손대현 담당목사는 “16년 동안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오신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는 감사한 날이라”고 고백했다.



이날 올 한해 섬김이 아름다운 성도 시상식도 하였다. 수상자는 주방사역으로 섬기고 있는 정정희 집사가 뽑혔다. 부상으로 감사패와 한국행 왕복티켓, 성도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며 살 것을 다짐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 정성애 통신원



# “서로의 비타민이 되어 주세요”

##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 자매결연

지난달 24일 열린 해외비전교회컨퍼런스에서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자매결연 하였다. 앞으로 자매결연한 해외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는 아웃리치, 대외협력사역, 교회방문 등을 통해 서로의 비타민이 되기로 했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자매결연 현황

비전교회	자매결연 캠퍼스	비전교회	자매결연 캠퍼스
얼바인	강동	동경	양천
산타모니카	여의도, 양지	오사카	평택
LA	남양주	우에다	수원
샌디에고	분당A, B	요코하마	한강
포틀랜드	강촌	야치오	서빙고
보스턴	서초B	나고야	중종로
뉴욕	수원	교토	서초C
뉴저지	송파, 강남A	단통	인천
네이퍼빌시카고	강남B	대련	양재, 양지
노스시카고	남양주	상해	용산
앵커리지	강남C	북경	대전
밴쿠버	대전	징쑤	서초A
괌	부천	청도	마포
시드니	강동	호치민	부천
뉴질랜드	인천	아부다비	영등포구로

01

## 성북공동체 M센터 아웃리치

서빙고 캠퍼스 성북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안산 온누리M센터를 찾았다. 지난달 20일(토) 성북공동체의 다락방별 아웃리치가 진행됐다.

이번 아웃리치는 성북공동체의 7개 다락방(강북, 도봉A, B, 개운, 길음, 성북, 정릉)에서 67명의 성도들이 참여했다. 성도들은 찬양과 예배로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이어 양육진 사역자(M센터)의 전도방법 및 M센터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성도들은 8개 팀으로 나뉘어 저 안산 다문화거리에서 다락방별 전도에 나섰다. 각 다락방마다 러시아, 태국, 베트남, 네팔, 미얀마,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이주민들을 찾아 전도하며 M센터를 홍보하고, 양말 교환권을 전달했다. 양말 교환권을 받은 이주민들은 오후 6시30분에 M센터를 방문하여 선물을 교환하고,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이후 성도들은 M센터 내 국가별 소그룹 모임 참석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후 지역 소감 나눔과 중보기도로 아웃리치를 마무리했다.

아웃리치 이후에도 성북공동체 7개 다락방은 M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소그룹(국가)을 지속적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 / 정지은 기자

02

## 비전 향해 앞으로!

### 외국인 장학생 리트릿

지난 4일(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온누리교회가 지원하는 외국인 장학생 리트릿이 진행됐다. 비전을 공유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리트릿에는 30여 명의 외국인 장학생들이 함께했다. 이번 리트릿은 교회개척을 위한 목회자 영성과 교회 개척 사례를 나눔으로써 비전을 공유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었다.

첫날에는 서경남 목사의 “교회개척을 위한 목회자 영성”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고, 바닷 전도사(야랑네 팔 예배)의 교회 개척 사례 발표시간이 이어졌다. 둘째 날은 친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교제와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 조은실 기자

03

##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막 오른다!

### 14~15일 ... 영적 부흥의 재도약 꿈꿔

열일곱 번째 러브소나타가 일본 본토의 최남단 가고시마에서 오는 14~15일 대망의 막을 올린다. 가고시마는 1549년 프란시스코 자비에르(San Francisco Xavier) 선교사를 통해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 일본 기독교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70여개(무목교회 20개)의 교회만이 남은 영적 불모지가 되었다. 일본 현지에서는 메마른 그 땅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이번 집회에 대한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기대감을 입증하듯 가고시마 러브소나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일본 교회가 거리상 멀리 떨어진 섬 지역의 교회들을 포함해



총 50개가 되었다. 러브소나타 집회는 ▷교회부흥 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14일) ▷CEO포럼과 문화전도 집회(15일) 순으로 진행되며 주 메시지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한편 지난 1일에 이어 8일(목)에는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2차 참가자 교육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전체적인 일정과 봉사내용,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러브소나타를 위해 뜨겁게 중보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1



가고시마 기·도·제·목

- 11월 12일(월) )  
봉사자들에게 보호하심이 있게, 사고 없이 기쁨으로 일본 땅을 축복하도록
- 11월 13일(화)  
모든 사람들의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행사가 되도록
- 11월 14일(수)  
일본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품게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 11월 15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지역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 11월 16일(금)  
가고시마가 영적 대 각성운동과 전도 폭발이 일어나며 선교사를 파송하도록
- 11월 17일(토)  
성경을 많이 보도록, 교회와 가정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도록
- 11월 18일(주일)  
가고시마 교회들이 예배의 능력을 받고 우상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02

## 해외에서도 멈추지 않는 일대일 양육

### 미주, 중국, 베트남 ... 해외 비전교회 이야기

한 사람의 충성된 양육자가 다른 한 사람인 동반자를 일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일대일 사역'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뉴질랜드 온누리교회는 51명의 양육자와 31명의 동반자가 있어 활발히 일대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를 '일대일 정착의 해'로 정하고 4월 1일 70여 명의 성도가 일제히 일대일을 시작했다. 이순옥 집사는 "일대일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잘 알게 되어 기도와 교제의 깊이가 더해졌다"면서 "자칫하면 안주할 수 있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일대일"이라고 강조했다.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141명의 등록교인 중 61%인 87명이 일대일을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17~18일에는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를 초청하여 일대일 사역축제를 열기도 했다. 정탁영 집사는 "창립 1주년 된 신생교회가지만 일대일 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면서 "호치민에서 가장 큰 사이공한인연합교회에서도 일대일 강의를 진행하여 이민교회지만 일대일이 교회 간 연합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비전교회 중 대련 온누리에서는 현재 16명의 동반자와 31명의 양육자가 있다고 전해왔다. 정성애 집사는 "일대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면서 "다문 화가정 중 한 분이 중국어로 일대일 양육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근황을 전했다.

청도 온누리에서도 현재 여성 20개 팀(40명)과 남성 8개 팀(16명)의 일대일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미주 비전교회에서도 일대일 열기는 뜨겁다. 뉴저지 온누리는 지난 2011년 일대일 사역 팀이 발족돼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 현재 양육자 수는 27명이며 5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한 동반자반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7일에는 '일대일 만남의 잔치'를 열어 45쌍의 양육자, 동반자들이 만남을 가졌다. 보스턴에서는 31명이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고, 17명이 양육자 과정을 밟았다. 이현지 집사는 "보스턴은 지역적 특성상 단기 방문 체류자가 많아 동반자 과정에 비해 양육자 과정 신청자가 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들이 양육자 과정을 다시 한 번 청강하는 등 더욱 올바른 양육자로 서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노스 시카고에서는 일 년에 두 번 동반자 수료식을 갖는다. 현재 25명 양육자와 18명의 동반자가 있다. 양성혜 집사는 "일대일은 선데이 크리스천들에게 말씀이 새롭게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하며 "이달(11월)부터는 일대일 양육자 스쿨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평택

# 축복하는 공동체, 웃으시는 하나님

## 전교인 체육대회, 300여 명 한자리에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빛나던 지난 10월 28일(주일). 평택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가 경기도에 위치한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에 함께 모였다. 전교인 체육대회가 열린 이날,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에서부터 몽골어예배, 인도네시아어예배에서 온 외국인 식구 등 모든 공동체 성도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체육대회의 준비는 박성천 목사를 비롯해 김경돈 집사, 박찬홍 총무, 서흥근 집사가 맡아 기획과 실행에서부터 중보 기도까지 전체 프로그램을 짜는데 헌신했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평택대 운동장으로 이동한 공동체 식구들은 오후 1시부터 순별로 모여 고기를 구워먹으며 자유롭게 식사와 교제를 나눴

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회는 >친해지는 마당 >어울리는 마당 >하나되는 마당으로 나누어 보물찾기, 기념촬영, 릴레이, 축구, 수건하키,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게임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철웅 목사는(평택 캠퍼스) 개최 선언을 통해 “해맑은 오늘 날씨처럼 마음껏 즐기고 뛰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온몸으로 기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팀(믿음, 소망다락방)과 백팀(사랑, 충성다락방)의 대결로 이뤄진 체육대회는 결국 백팀의 승리로 끝났다. 본부에서는 우승팀에게 각티슈를, 전체 기념품으로는 주방 밑배용 기세트를 증정했다.

‘하나됨과 기쁨’을 주제로 열린 체

육대회는 외국어예배팀, 새가족, 차세대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며 공동체성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몽골어예배팀은 이번 행사를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친구들을 초청, 평소보다 2배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새가족팀에서는 올 해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을 위해 순별로 식사에 초청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쏟았다.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한 성도는 “남편이 교회를 등한시 했었는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과 어우러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평택 온누리교회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열고 풍성한 교제를 나눴다.

수원

###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일정: 11월 13일~16일

참여인원: 교역자 및 성도 40여 명

러브소나타에 참석하는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획연재

-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② “선교는 즐겁다” I
- ③ “선교는 즐겁다” II

# “선교는 즐겁다”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교회개혁과 차세대 사역, 의료선교 현장 이야기에 이어 제자양육, 태권도 사역, 학교 사역 이야기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선교지는 즐겁다. 선교사들의 고백이다. / 조유실 기자

### 4 제자양육 현장 이야기

저는 1996년에 온누리교회의 파송을 받아 남편과 어린 두 아들과 함께 A국에 들어왔습니다. A국에서 셋째를 낳아 2남 1녀가 되었습니다. 초기에 언어를 배우고 문화에 적응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저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개척해 사역에 너무 바쁘고, 저는 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응원 가운데 일대일 제자 양육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언어가 잘 되지 않아서 두 달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첫 일대일 모임을 마치고 나서 저는 일대일 동반자를 통해 언어도 너무 잘 통했고, 이해도 아주 잘 되었다란 말을 듣게 됐고, 이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게

되었고, 그 때 양육 받은 사람들 대부분 지금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목회자 사모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저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됐고 영적으로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언어도 부쩍 늘었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일대일을 계속하면서 선교의 핵심이 “제자 양육”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공평 목회자 사모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상담하고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 몽골의 많은 제자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A국 원은복 선교사

### 5 태권도 사역 이야기

작년 12월에 태권도학원을 시작하고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 가르치던 아이들이 20여명에서 현재는 60여명이 훈련을 받고 있고 지역에는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여름 단기 아웃리치팀이 지역 센터를 빌려 공연을 해 300여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여름방학 이전에는 방과 후 태권도 교실을 운영해 그 결과 여름방학에는 100명의 학생들이 몰려서 태권도 수업을 받았고 제 개인 승용차로 차량운행을 해야 할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12월까지 재정적으로 자립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의 가난한 센터나 고아원을 연결해 불우하고 어려운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한 단기 청년들에게 태권도기술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사람을 키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한국의 대학교나 태권도학원을 연결하

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을 선별해 한국으로 보내 훈련을 시켜 다시 제3국으로 파송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보내시고 이끄시는 모든 것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태권도 학원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태권도학원과 차별화된 이유이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 무력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제가 처한 모든 환경, 조건 등의 모든 것은 현재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최고의 상태를 믿으며 주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 Y국 최일말 선교사



“늘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란노 해외선교회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

### 6 학교 사역 이야기

중남미 니카라과의 김수선 선교사님의 만남을 시작으로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기독교 학교의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Carazo 기독교 학교는(CCA)는 2007년 4명의 아이들로 시작하여 1년에 한 학년씩 증설되고 있습니다. 학생 중 4학년의 모범적인 아이인 오스카와 로베르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오스카는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삶에 말씀을 적용하려 노력하는 아이입니다. 니카라과는 각 지역마다 성기는 성인(Saint)이 있고, 그 성인을 숭배하는 축제를 엽니다. 이는 토속 신앙의 잔재로 남아 있는 우상숭배입니다. 오스카는 십계명에 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카톨릭이 강한 부모님과 항상 믿음에 대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카라과는 무계획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많은 남성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 없어 많은 가정이 깨져 있습니다. 로베르토 역시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베르토는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CCA를 통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CCA의 교사들과 선교사들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합니다. 불과 8학년 지나면 이 4학년 아이들이 대

학교에 진학할 것이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됩니다. 각 영역의 크리스천 리더십이 세워져 이전의 있었던 가정의 반복적인 죄를 끊고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 목숨 거는 선교사로 날마다 기쁨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 니카라과 김경혜 선교사

01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88편>**  
 - 11/14(수) 오전 9시40분  
 주 브라질 대사들 거쳐 NGO '더 멋진 세상'의 CEO로 활약 중인 김광동 장로의 비전이야기입니다.

02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17편>**  
 - 11/15일(목) 오전 9시  
 월요치유집회 사역팀과 김성진 장로가 함께한 네팔 성령집회 현장입니다.

03

**TV 추천 프로그램**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 11/17(토) 오후 9시40분  
 영적 부흥을 꿈꾸는 가고시마. 일본 본토의 최남단에 울려 퍼지는 열일곱 번째 사랑의 노래입니다.



01



# “영원한 친구 하나님 만났습니다”

## 가고시마, 잊혀진 그리스도 흔적 되찾다

일본에 울려 퍼진 열입곱 번째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가고시마를 적셨다. 가고시마 러브

소나타에는 2229명이 참여해 130명이 결신했다. 일본에서 최초로 복음이 흘러간 가고시마

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의 불꽃을 지핀 의미 있는 축제였다. 행사는 지난 14일(수) 가고시마 선로얄호텔에서 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15일(목) 웰뷰호텔에서 CEO 포럼, 가고시마

시민문화홀 제1홀 문화전도집회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4~7면>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2

##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 파키스탄 리더십 초청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이 세네갈 본나바 지역과 파키스탄 후시푸르 마을 현지 리더십을 초청해 새마을운동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20일(화) 세네갈(1명)과 파키스탄(2명)의 현지 리더십이 한국을 방문해 21일부터 9박 10일 동안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새마을운동 기본에 대한 이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노하우 전수,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자국에 대한 적용방안 등이다.

올운동중앙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새마을운동 기본에 대한 이해,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 노하우 전수,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사례, 자국에 대한 적용방안 등이다.

/ 황치연 기자

2012년 11월 18일 925호

- 0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개막(1면)
- 02-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 파키스탄 리더십 초청 새마을운동 교육(1면)

#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다시 새겨지다

주님 빛으로 물든 가고시마 ... 130명 결신




## Love Sonata

2012 REVIVAL JAPAN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1400여 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달받았던 그 축복의 땅 가고시마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잃어버린 채 메말라버렸다. 지난 14~15일 이틀간 열린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는 기독교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던 가고시마에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적 부흥의 새 단비를 흠뻑 뿌렸다.

#### 하나님 드러내는 감동적인 공연

11월 15일(목) 가고시마 시민문화홀 로비는 러브소나타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든 일본인들의 행렬로 쉴 새 없이 북적였다. 집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들이 회장에 들어서자 순식간에 모든 좌석이 가득 찼다. 저녁 7시, TV워십팀의 화려한 퍼포먼스가 오픈닝 무대를 달구며 러브소나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서 영화 <씨나>의 영상이 흐르고 영화의 주

인공이었던 텔런트 유희정, 진희경 자매가 무대에 섰다.

“<씨나>는 친구와의 따뜻한 우정과 추억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희 둘은 실제로도 무척 친한 친구예요.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는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개 멘트가 끝나자 >샌드애니메이션(박진아) >플루트 솔로(송솔나무) >테너 솔로&간증(배재철) >소프라노 솔로(김영미 권사) 등의 순으로 문화전도집회의 꽃인 공연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일본인 참석자들은 처음 본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갑상선암 수술로 한때 목소리를 잃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한 테너 배재철 형제의 감동적인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플루티스트 송솔나무가 일본 NHK를 통해서도 방영된 드라마 <이산>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하자 멜로디를 함께 흥얼거리기도 했다. 특히 일본인

의 심금을 울렸던 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의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수준 높은 공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매순수마다 큰 환호성과 아낌없는 박수로 화답했다.

#### 진정한 친구 ‘예수님’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러브소나타의 주강사로 나선 이재훈 담임목사는 ‘친구, 예수’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가고시마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묻는 인터뷰 영상을 보고 나서 “친구란 많은 일본 분들께서 인터뷰에서 대답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터놓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면서 “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사람은 친구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목사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죄인들과 교제하지만 그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서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드리면 그 믿음 안에서 기쁨을 얻고 생명력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강력하게 전했다.

#### 은혜의 여정 속 ‘놀라운 축복’

러브소나타의 피날레를 장식한 세리모니 순서는 이민섭 목사가 부르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속에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입장할 때 받은 피란 산물봉투에는 화관과 종이비행기 그리고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결신카드가 들어있었다. 서로 옆에 앉은 사람에게 화관을 씌어주며 환하게 웃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반짝거렸다. 소중한 소원이 적힌 종이비행기가 천장으로 솟아오르자 모든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 그들의 희망이 주님께 닿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는 소규모 지역에서 개최되었지만 총 참가자수 2229명(일본인 참가자 1837명), 결신자수 130명으로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며 은혜가운데 대망의 막을 내렸다. 집회 전부터 끝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긴 봉사자 378명과 한일 각국에서 모인 스태프들은 일본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모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숨은 보물이었다.

또한 협력교회 52곳의 목회자 및 성도들, 지난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11명이 함께 자리해 러브소나타가 더욱 빛났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손길이 어우러진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통해 서로 한 가족이 된 참석자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2012년 11월 18일 925호

•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스케치(4면)





**가스펠나이트**

“모든 것 채워주시 주님, 찬양합니다”...한일 양국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가스펠 나이트’가 지난 14일(수) 저녁 7시 선로알 호텔 2층에서 김종규 목사(오쿠치그리스도호프체플)의 사회로 진행됐다. FL팀, 가스펠 홀라 댄스팀, 이민섭 목사와 러브소나타밴드, 송술나무, 연합&유스 찬양팀의 화려

한 공연으로 꾸며진 가스펠 축제는 연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날 쿠보키 사토시 목사는 ‘완전한 사랑은 이미 왔다(요한일서 4:16-21)’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완성되었다. 빈 그릇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그분을 전하며 살자”고 말했다.



**교회부흥세미나**



**성경적 교회론과 목회철학**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추구하고, 말씀과 성령이 살아 숨쉬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선교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힘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회복과 자녀교육**

김성목 장로

“가정은 마음의 고향, 교회는 영혼의 고향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바통터치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가정에 행복과 구원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 리더십의 핵심**

이남식 총장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배우고 진정한 믿음을 키워 나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러브소나타의 꽃 봉사자**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 감사”**



섬기면서 느낀 것은 감동도 크지만 무엇보다 저같이 작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었

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집회에 들어올때와 나갈때의 일분분들의 표정이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비전을 주셔서 주님 일에 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하현빈 형제(봉사자)



01

● 실행위원장 인터뷰

# “전도와 선교의 새 패러다임 선물”



쿠보키 사토시 목사  
(나자렌 가고시마교회)

처음에 가고시마에서 러브소나타를 하자는 의뢰를 받고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러브소나타 설명회도 사람이 모이지 않아 2번이나 해야 했고, 집회가 진행되는 가고시마 시민문화홀을 보면서 '저렇게 큰 회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고시마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한국으로부터 온 선물인 러브소나타를 감사하게 반기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분들의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헌신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3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봉사에 참석하고, 물질과 기도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저희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감동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러브소나타의 준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러브소나타 통해 하나된 가고시마

사실 9월까지만해도 러브소나타에 함께하기로 한 협력교회가 22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목표는 50개의 교회였는데 많이 부족했지요. 일본 교회에서는 여름이 여러 가지 캠프 행사가 열리는 중요한 시기여서 러브소나타 준비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이번 러브소나타는 앞으로 가고시마현 전체를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집중해서 본격적으로 러브소나타 알리기에 들어갔고 11월에는 42개, 그리고 행사가 열리기 2주 안에 목표가 채워지고 총 52개의 협력교회가 생겼습니다.

가고시마현은 오키나와 본토 바로 전까지 포함하는 넓은 지역이고 바다를 끼고 여러 섬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도 합력을 요정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작

은 섬에 있는 교회까지 러브소나타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진정으로 러브소나타를 통해 가고시마 현의 모든 교회가 하나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 은누리교회에 전하는 메시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의 메시지가 제게는 무엇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선교에 목숨 걸었다”라고 하신 그 말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통해서, 은누리교회 성도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 말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실

제로 전심을 다해 헌신하는 그 모습이 많은 일본 목회자와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큐티와 일대일이라는 기초적인 영적 토대가 만들어져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위대한 영적 체질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가 한 번의 전도 축제가 아닌 어떻게 전도를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러브소나타와의 만남이 앞으로 가고시마현 전체에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2

● 크리스천 CEO 포럼

# “선한 영향력 끼치는 리더십 러브소나타”



지난 15일(목) 오후 4시, CEO포럼이 열린 가고시마 호텔웨일류에는 사회 각 분야의 한인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장재운 목사(동경은누리교회)의 위트 넘치는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 강간의 장로(크리스천 CEO포럼 회장은 CEO포럼의 역할을 소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일교류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자”고 말

했다. 이어서 ▷오오가와 목사 ▷조석래 회장(효성그룹) ▷미네노 목사 ▷김명용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이용만 장로가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환영 인사를 건넸다. 조석래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도 러브소나타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기대감을 밝혔다.

이 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시대를 변화시킨 역사적 인물이 많이 배출된 가고시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경영 안에서 하나된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운다면 일본이 살아나고 변화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인 · 터 · 뷰

## “새 선교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김명용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이번에 러브소나타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는데,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보니 너무 감격적이었고, 은누리교회에서 대단히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재훈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

다.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흔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찬양을 하신 분들 모두가 참 기쁨에 와 닿는 공연을 해주셔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을 것입니다.

저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일본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 전체 복음화를 위해 모든 교회들이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누리교회가 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교회들이 배우고 선교의 부담이 가는 곳에도 도전해서 고 하용조 목사님의 훌륭한 선교정신을 같이 이어받아 새 선교의 장을 열어가길 기도합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2012년 11월 18일 925호

- 0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실행위원장 인터뷰(6면)
- 02-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크리스천 CEO 포럼 및 김명용 총장 인터뷰(6면)





이재훈 목사

# “친구, 예수”

친구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진정한 친구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친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납니다.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집단따돌림입니다. 집단따돌림을 심하게 당한 학생은 자살하기도 합니다. 집단따돌림은 우리가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현실입니다. 자살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힘과 용기를 주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죄인들의 친구' 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유대나라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흉악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세리들을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리고 도시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삭개오는 '죄인들의 친구' 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나무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삭개오는 얼굴이 알려진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건강, 사회적인 직업의 위기가 아니라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친구와의 우정, 동족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지만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며 "내가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문화에서 누군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주고 싶다' 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피합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도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합니다. 친구로부터 강력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로

부터 따돌림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사람들이 가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가 없으면 병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는 미워했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와 사람을 하나로 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람만 미워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를 짓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죄를 쉽게 배웁니다. '선' 은 배우기는 어려워도 '악' 은 배우기 쉽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죄인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계속 죄를 짓도록 방치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회개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누구인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 세계관에서는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겸손하지만 자신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신 내용의 핵심

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너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 11:25-2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 14:6)."

여러분,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자신이 곧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위인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대로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훌륭한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한 것은 눈감아 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회생 없이 진정한 우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친구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 놓는 사랑"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아 우리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로 와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 인물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가고시마에는 유난히 여러 위인들의 동상과 공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위인들이지만 우리의 친구는 될 수는 없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외롭고 힘들 때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역사속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사상과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입니다. 교리와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친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버릴 지라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희 죄가 용서 받았다, 내가 너희 죄의 대가를 모두 지불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두 지불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한 친구로 받아들인다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어서 가고시마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 정리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1

## 의료선교 숨은 주역 “지원팀이 튼튼해야 CMN이 산다”

의료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뒤에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CMN사역에 어디든 함께 하는 ‘지원팀’이다. 이들은 의료사역이 진행될 때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팀은 수기침팀, 호도사진팀, 어린이사역팀, 챔버팀, 발마사지팀, 미용팀, 전도팀(중보기도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지원팀은 사역할 때 모였다가 마치면 각자 흩어져 피드백을 나누거나 단합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고 CMN팀과 지원팀을 하나의 팀으로 강화시키기 위해 지난 10일(토) CMN담당 황종연 목사와 안태환 장로가 전체 지원팀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날은 각 지원팀 소개와 건의사항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황 목사는 “서로 모습은 다르지만 방향은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원팀이 튼튼해야 CMN이 산다”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02

###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인도네시아 발리섬>

- 11/19(월) 오전 9시40분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김희명, 오효숙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03

### CGNTV **감사합니다**



CGNTV를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은 선교사들의 지친 영과 육에 생명이 되어 다시 힘을 주곤 합니다. 현재는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고, 전에는 우즈베크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CGNTV를 시청하면서 받은 은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이 귀한 방송을 볼 수 있게 되었기에 그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즈베크에서는 남편이 추방되고 어린 아이 둘과 함께 남아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갈 수 없고 한국 사람도 없는 지역이어서 CGNTV 방송을 보며 혼자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흐르는 감사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제나 방송을 보면

#### “지친 선교사들의 영과 육에 생명이 되어 줍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유익한 말씀과 풍성한 프로그램은 영혼을 살피고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 찾아오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은 저의 어려움을 털고 일어날 새 힘을 줄 때도 많습니다. 정보가 차단된 지역이기에 더욱 유익하였습니다.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프로그램은 전파를 통해 제한 없이 말씀이 전해지기에 현장에 있는 선교사로서 놀라움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함께 수고하실 수많은 섬김과 후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큼니다. 은혜로운 말씀, 예배와 프로그램들은 많은 우상의 나라에서 복음이 꽃피울 날을 예비하는 큰 기쁨의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귀한 사랑과 섬김 기억하며 저희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A 선교사(인도)



# 선교사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 1 선물 준비

###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아래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자녀에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 5)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 일을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4년생 이후 출생

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 메일 발송)

-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백, 게임 S/W,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제 사리 등

- 3) 참고 인터넷 쇼핑물 : <http://mail.duranno.com> (두란노물)

###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 - 중국

모슬렘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 - 인도, 네팔 등 (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 (예수전도단의 경우 예수전도단에 현지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함.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록된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목사님 → 사장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기독교 용어(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기급적 피할 것.

##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 : 김민규 간사 02-3215-3208  
2000mandu@gmail.com

## 4 우편요금

###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b>■ 서빙고 캠퍼스</b>			<b>한데(하)북/최○○</b> NI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지우, 여, 20110721			<b>윤정오(정홍오)</b> ASI 코너스톤 윤신우, 여, 20000313 정갈원, 남, 20020515 이도오/오은오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셀, 남, 2011226 이 불, 여, 20050101 이 및, 남, 20070620			<b>김복음/김치유</b>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115 김이삭, 남, 20050528 송바울/양재비야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송하은, 여, 20021222 송사은, 여, 20040226 송재은, 여, 20070807		
<b>● 강촌공동체</b>			<b>● 한강공동체</b>			<b>● 이주공동체</b>			<b>● 여의도공동체</b>		
주승필/주누가 U국 예수전도단 김해인, 여, 20070805 김다인, 여, 20091024			노○○/김○○ ASI 두란노해외선교회 노현서, 남, 20060420 노현준, 남, 20080621			강현오/김경오 중동 WEC선교회 김진휘, 남, 20060528 강에스터, 여, 20080101			박일오/신인오 스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연, 여, 19940515		
김○○/정○○ R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다나엘, 남, 20090331 김사무엘, 남, 20120901			문열원/(전세계) S국 중동 선교회 전지현, 여, 20040816 전소연, 여, 20061112			소리엘/소리셈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원, 남, 20040816 박지수, 여, 20060418			이사람/김경화 T국 예수전도단 이석은, 남, 19971123		
임장택/손은정 일본 WEC 선교회 임은혜, 여, 20100313			<b>● 관악천공동체</b>			둘겔자유/김종리 소아시아 DN 김지나, 여, 2011106 김하나, 여, 20030405 김사무엘, 남, 20051006			김스대반/조희 한국 Inter-CP 김하진, 여, 19980815 김하연, 여, 20021212 김하경, 여, 20041023		
<b>● 서빙고공동체</b>			김보아스/최그레이스 F시 BEE KOREA 김지윤, 여, 19940729 김다현, 여, 19970410			<b>● 강서공동체</b>			<b>● 일산공동체</b>		
김달원/서한나 P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김신, 남, 20011107 김의, 남, 20020418 김인, 여, 20031101			최바울/김한나 B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예찬, 남, 19940525 최예향, 여, 19960301 최예경, 여, 19980322 최예광, 남, 20000328			양라천/김나복 ISI FMnC선교회 양라천, 여, 20090626 양우림, 남, 2011011			김바나비/김드보라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805		
최선/이름 NI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선, 남, 20040305 최솔, 여, 20051026 최강, 남, 20080405			박사무엘/이○○ B국 GP 선교회 박준우, 남, 19960802 박주영, 여, 20010511			<b>● 김포 공동체</b>			이예은/aysata Lee 세네갈 GMP 이예림, 여, 19960602 이예람, 여, 19980807		
<b>● 용산공동체</b>			김반석/성생물 T국 WEC 선교회 김문서, 남, 20010227 김서진, 여, 20050502			김경오/이지오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보라, 여, 20070605 김소라, 여, 20100303 김길, 남, 20120226			송바울/스한나 C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송명훈, 남, 19940525 송보훈, 남, 19960222		
권능/오성령 M국 GO 권성령, 여, 19940110 권인애, 여, 19950530 권경영, 남, 19970410			<b>● 동작공동체</b>			토마스/세라 NI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다나엘/예레미 ASI 두란노해외선교회 문에스터, 여, 20020812 문에스터, 여, 20061113		
김무이스/김한나 G국 BEE KOREA 김예지, 여, 20070206 김예성, 남, 20100303			아굴라/브리스가 O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전유빈, 여, 20060913 전유진, 여, 20090106			<b>● 마포 공동체</b>			<b>● 동대문중앙공동체</b>		
김스대반/정린 ASI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하늘, 남, 19981219 김하성, 남, 20040207			토마스/티나 D시 이주은, 여, 20080308			김경오/이정오 동남아 GP선교회 정새람, 남, 20060728 정세희, 여, 20080430 정영광, 남, 20101125			최관능/문예지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영환, 남, 19960821 최요한, 남, 19990720 최세라, 여, 20040319		
서관능/김정오 베트남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준하, 남, 20020316 서승하, 남, 20040417 서은하, 여, 20070224			<b>● 영동포구공동체</b>			서광/양해원 한국 인터콤선교회 서유진, 남, 19980922 서유민, 남, 20031210			고성주/하에스터 M국 Inter-CP 고성주, 남, 19950921		
하길/유진리 Q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하요한, 남, 20020729 하예은, 여, 20040419			이영생/박은혜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경배, 남, 19970120			<b>● 마포 공동체</b>			탁광복/준기쁨 S국 HOPE선교회		
<b>● 이촌공동체</b>			구리빙스톤/김마리아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구유진, 여, 20051113 구보훈, 남, 20070411 구혜진, 여, 20090224 구하진, 여, 20100709			이원/남○선 필리핀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수아, 남, 20030912 니코, 남, 19981222					
류다윗/송안나 U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류시연, 여, 20051102 류가연, 여, 20080302			노여호수이/정마리아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노하린, 여, 20111123, 노하민, 남, 20031212 노하연, 여, 20110420			<b>● 서대문공동체</b>					
최요셉/(최한나) K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사프란, 여, 20081104 최사은, 여, 20081104			<b>● 양천공동체</b>			고진우/해현 J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진우, 남, 20010217					

2012년 11월 18일 925호

·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12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단체	주 소	연락처
탁애경, 여, 19981015	탁은찬, 남, 20000223		박유현, 남, 20000101	박소원, 여, 20020901		민주희, 여, 19950801	민시원, 남, 19980127		김세영, 남, 20020425	20020425	
<b>북부리공동체</b>			<b>서초A공동체</b>			<b>양재공동체</b>			<b>평택 캠퍼스</b>		
정은우/최영애	N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강종민/김신실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철오/김정오	F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세영/김은우	20050907	FmNC 선교회
정하준, 남, 19960716	정하윤, 여, 19980311		강인경, 여, 20050903	김윤진, 여, 20070514		김상진, 남, 20000208	김환, 남, 20040620		박하은/정수오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b>노원공동체</b>			<b>서초B공동체</b>			<b>부천 캠퍼스</b>			<b>강동 캠퍼스</b>		
김기가/송두리	한국	GO	이빛/윤다진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하오/박정오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스터, 여, 20060220	김하연, 여, 20100313	
김환희, 여, 19950624			위진오/홍성오	H국	예수제자선교회	류모재/김사라	S국	두란노해외선교회	<b>경덕 캠퍼스</b>		
<b>성동광진공동체</b>			<b>서초C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선교단체 주소록</b>		
이훈/오지영	필리핀	GMP	박양오/홍성오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조수아/클라라	F시	두란노해외선교회	<b>TIM (두란노해외선교회)</b>		
이아현, 여, 19980314	이시원, 남, 20040511		박신실, 여, 19940613			김예영, 여, 20010510	김종영, 남, 20020528		TIM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95		
이찬, 남, 20071017			심다윗/김미소	D시	FmNC 선교회	김세영, 남, 20080612			번지 두란노빌딩 202호 02-794-1063		
<b>성북공동체</b>			<b>송파공동체</b>			<b>대전 캠퍼스</b>			<b>경배와 찬양</b>		
조경오/브린오	네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현오/우중오	G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반석	E국	두란노해외선교회	180 가산빌딩 02-796-9700		
조물린, 남, 20050423	조홍순, 남, 20070728		김하람, 남, 20030705	김하민, 남, 20050303		사라, 여, 20040601	사무엘, 남, 20061011		561-8022주주식 박진구 금강동		
<b>중종로공동체</b>			<b>송파B공동체</b>			<b>대전 캠퍼스</b>			<b>바울 선교회</b>		
김일오/경유오	네덜	예수전도단	김현오/우중오	G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양아브라함/천사라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1556-6 미려빌딩 2층 063-254-8418		
김규, 남, 20040407			김하준, 남, 20060101			양광주, 여, 19960502	양한결, 남, 19971205		151-653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86-		
<b>성북공동체</b>			<b>송파C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말타이 선교회</b>		
그레철키오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양모세/유우주	U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양한성, 남, 20020417	양한빛, 남, 20070922		10번지 2F 02-679-1191		
사라, 여, 20000514	요셀, 남, 20020101	쥬니어, 남, 20040512	임하라, 여, 20120527			요한/조은오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133-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		
<b>성북공동체</b>			<b>송파D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중동 선교회</b>		
김자아/필/피아람	S국	예수전도단	김나무씨별	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철오/원은오	M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02-543-8505, 070-714-0266		
김주영, 여, 19980623	김주은, 여, 20000101	김주산, 남, 20031223	김주연, 남, 20070420			이선영, 남, 19950922	이혜인, 여, 19980212		138-162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56-3		
<b>성북공동체</b>			<b>송파E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창조과학회</b>		
최일일/이광강	Y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오/김순오	R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허드슨/안마리	T시	두란노해외선교회	02-3436-3307, 070-6250-3320		
최예미, 여, 20000616	최예성, 남, 20020718	최예건, 남, 20040220	이하나, 여, 20050701			허진석, 남, 19970218			138-229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639-6		
<b>성북공동체</b>			<b>송파F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BEE KOREA</b>		
전상영/구원혜	E국	FmNC	차요셉/방라벨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기쁨/문한나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강남빌딩 5층 02-419-6465		
전영광, 여, 19951004	전승리, 남, 19990904		차건우, 남, 20000419	차건민, 남, 20030911		이윤석, 남, 20060309	이윤아, 여, 20090731		(140-240) 서울시 동작구 신도동 7-		
<b>성북공동체</b>			<b>송파G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Come Mission (한국복음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문석/김연오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070-6250-3365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바사르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바울/김연오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울시 동작구 서동5동 213-27 3층		
<b>성북공동체</b>			<b>송파H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Cornerstone (모퉁이들)</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나비/김조세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바울/김연오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02-622-9480		
이희정, 남, 20040320			강산길, 남, 19981104	강예주, 여, 20110729		김현석, 남, 19971031	김현서, 여, 20010222		서울시 동작구 서동5동 213-27 3층		
<b>성북공동체</b>			<b>송파I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Destination</b>		
김필/백민화	C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강산길, 남, 19981104	강예주, 여, 20110729		한길/김사랑	Q시	두란노해외선교회	kdestination@hanmail.net		
김유비, 여, 20060421	김유민, 여, 20120415		박사오/김은오	말레이시아	BEE KOREA	황해연, 여, 19991020	황의경, 남, 20020105		+902326548028		
<b>성북공동체</b>			<b>송파J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FmNC 선교회</b>		
박나비/백민화	C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오/강자오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은성	D시	두란노해외선교회	137-6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 오		
이희정, 남, 20040320			박지은, 여, 19990420			서정파, 남, 19980501			신빌딩 2층		
<b>성북공동체</b>			<b>송파K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BT 선교회</b>		
김필/백민화	C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신원오/오수오	S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진현, 여, 19950430	조세현, 남, 19961115		02-848-6251, 070-7500-6241		
김유비, 여, 20060421	김유민, 여, 20120415		신영은, 여, 19991118	신영록, 남, 20010501		조성현, 남, 19980904			156-091 서울시 동작구 서원동		
<b>성북공동체</b>			<b>송파L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MF 선교회</b>		
박나비/백민화	C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정제오/홍정오	한국	GBT	노훗	베트남	두란노 해외선교회	22길 33 02-598-5324		
이희정, 남, 20040320			정제현, 남, 19960529			나다니엘, 남, 2001	Bao Tran, 여, 2006		158-603 서울시 양천구 목동 231-		
<b>성북공동체</b>			<b>송파M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MP 개척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현오/홍성오	T국	WEC 선교회	John/Esther	C시	경배와 찬양	02-337-4915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도연, 여, 19951204	김정소, 여, 19980612		강은혜, 여, 20030219			158-091 서울시 동작구 서원동		
<b>성북공동체</b>			<b>송파N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MTC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김나비/김조세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02-2649-3197, 070-4066-0114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강산길, 남, 19981104	강예주, 여, 20110729		134-080 궁중시 금각동 273-1 2층		
<b>성북공동체</b>			<b>송파O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O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박사오/김은오	말레이시아	BEE KOREA	김해신 건사 010-2437-2555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신원오/오수오	S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02-796-8846		
<b>성북공동체</b>			<b>송파P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FMNC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신영은, 여, 19991118	신영록, 남, 20010501		kdestination@hanmail.net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신하연, 남, 20061116	신하람, 여, 20090222		+902326548028		
<b>성북공동체</b>			<b>송파Q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Inter-Serve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오/홍정오	한국	GBT	02-796-8846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156-091 서울시 동작구 서원동		
<b>성북공동체</b>			<b>송파R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ITM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김현오/홍성오	T국	WEC 선교회	02-2649-3197, 070-4066-0114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김도연, 여, 19951204	김정소, 여, 19980612		134-080 궁중시 금각동 273-1 2층		
<b>성북공동체</b>			<b>송파S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P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김유진, 여, 20011128			김해신 건사 010-2437-2555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신원오/오수오	S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02-796-8846		
<b>성북공동체</b>			<b>송파T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PTI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신영은, 여, 19991118	신영록, 남, 20010501		138-20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신하연, 남, 20061116	신하람, 여, 20090222		77-3 3층 02-443-0883		
<b>성북공동체</b>			<b>송파U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GPTI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오/홍정오	한국	GBT	3305-340 대전 유성구 도룡동 397-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2392지 4층 042-682-6800~1		
<b>성북공동체</b>			<b>송파V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HOPE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135-6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시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서울 1052호 070-4005-5300		
<b>성북공동체</b>			<b>송파W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Inter-Coop</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140-60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초시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서울 120호 070-6787-8800		
<b>성북공동체</b>			<b>송파X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InterServe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1463-9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b>성북공동체</b>			<b>송파Y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ITM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070-4352-6510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158-07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b>성북공동체</b>			<b>송파Z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KIBI</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991-12호 2층 02-2636-1451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		
<b>성북공동체</b>			<b>송파AA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OM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고동 4-108 대원빌딩 1층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031-713-5775		
<b>성북공동체</b>			<b>송파AB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OMF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137-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이희정, 남, 20040320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동 763-32 호안빌딩 2층		
<b>성북공동체</b>			<b>송파AC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UPMA 선교회</b>		
Cho오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02-455-0261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iek Tha H, 여, 200412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김유민, 여, 20120415			정제현, 남, 19960529			153-6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b>성북공동체</b>			<b>송파AD공동체</b>			<b>수원 캠퍼스</b>			<b>WEC 선교회</b>		
김나비/헬시바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정제현, 남, 19960529			536-132 4층 02-5315-1936		
이희정, 남, 20040320											





## “감사하러 한국에 왔습니다”

### 일본 현지교회 감사패 전달

지난 11월 21일, 지난해 일본 나가노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의 감동을 잊지 못한 일본 현지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국을 깜짝 방문했다.

한국을 찾은 일본 현지교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토미 그리스도교회다. 나가노 러브소나타 당시 부실행위원장을 맡았던 츠지우라 노부오 목사가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토미 그리스도교회 목회자와 성도 12명으로 구성된 방문팀은 이재훈 담임목사를 만나 감사패를 전달했고, 한국 성도들과 함께 일본어예배도 드렸다.

나가노 러브소나타에는 2,022명이 참석해 66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mailto:one@onnuri.org)



강남B공동체

# 탁구로 선교하는 공동체

## 선교지에 탁구대 보냅니다

강남B공동체의 남자 성도들은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특히 오래전부터 탁구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탁구경기를,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배드민턴을, 축구를 좋아하는 성도들은 축구를 하며 친목을 다져왔다. 이렇게 강남B공동체는 '다양한 스포츠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난 여름 이후로 탁구선교팀을 구성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해왔다.

### 탁구 선교의 계기 및 방향

처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정한 선교사(현 주니어탁구국가대표감독)의 비전 선포에 따라서 기도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황의서 장로(강남B공동체)가 탁구 선교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

“현재 탁구 동호회 형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탁구는 실내의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한 운동이라 각 동네에 있는 동사무

소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특히 낮에는 시간이 많은 주부들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온누리 성도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탁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비용이나 장소 등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이 탁구인 만큼 탁구를 통해 선교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어요. 먼저 탁구가 선교에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현재 탁구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양영자, 이정한 선교사님을 통해서였어요. 또한 온누리 성도 중에도 탁구를 즐겨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선교의 통로가 되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있어요.”

### 선교의 통로 '탁구'

물론 탁구를 통한 친목모임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에 양재 2000선교사역팀에서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냅니다'를 주제로 탁구에 관심이 많은 성도들을 모아서 온누리 탁구선교회(Onnuri Pingpong Mission) 사역팀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케냐 지역을 섬기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의견을 소개하며 탁구가 선교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들었다.

“아프리카는 재정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 달리기 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는 많이 있지만 다양한 운동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희가 그런 지역에 탁구대를 보내면 탁구를 통해 교제가 이뤄지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의 통로'가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우도 교회 성도들과 지역주민의 접촉에 탁구보다 효과적인 전도의 도구가 없다고 해서 일본 선교사님이 탁구에 재능은 없지만 선교의 귀중한 도구로 쓰인다고 하니 배워보겠다고 오시기도 했어요.”

이렇게 스포츠의 한 종류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며 시작된 탁구모임은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일원초등학교 강당에서 매월 2번(24주) 토요일 오후 2-6시에 진행된다. 이 모임에 현재 참석하는 온누리 성도는 20여 명이다. 또한 오는 12월 1일(토) 오전 8시-오후 5시에는 안양 호계체육관에서 경기기독탁구연합회 주최로 '교회탁구팀초청 탁구대회'가 열린다. '해외선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탁구대회에는 100여 개 이상 경기도의 지역교회 탁구팀들이 총 400여 명이 모일 예정이다. 현재 온누리팀에는 15명 이상 신청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방향 및 그 밖의 소개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 들어보았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누리 전 성도를 대상으로 탁구대회를 개최해서 선교지나 해외에 흩어져있는 온누리의 탁구 동호인들이 모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거주하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대부분 탁구교실이 있는데 각 지역 공동체별로 별도의 탁구팀을 구성해서 각 공동체가 그곳에서 친목을 다지며 하나 되기를 꿈꿉니다.”

· 문의: 양재-고갈범 집사(010-3772-3686)

서빙고-이종우 집사(010-8291-5282)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수원

# “일본 향한 주님의 마음 느낄 수 있었어요.”

## 하나님 사랑 가득했던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는 정말 갈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운영하는 가게에 일하는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한 달간 휴가를 갖기에, 제가 직접 일을 맡아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시간 중에 목사님을 통하여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마감임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키면 큰일날것 같은 마음이 들어 러브소나타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까지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막상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하니 '내가 왜 여기 왔지?' 라는 약간의 두려움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가고시마를 향하는 버스 속에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간증과 찬양을 들으면서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계획에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주인그리스도교회에서 도착예배를 드

리고 다음날은 사쿠라지마 화산섬을 바라보면서 가고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제 마음속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일본과 하는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마다 입술로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쓰나미가 일본을 휩쓸었을 때에도 긍휼한 마음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선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러브소나타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해온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는 생각에 방문하는 교회와 땅 밟기를 하는 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있던 날, 모든 팀원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가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는 지난 11월 14~15일 가고시마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 40명이 참석했다. 성도들은 안내, 청소, 디자인, 탁자 등 집회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다.

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담겨지며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일본 땅을 향한 악한 마음과 생각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 내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마노 아이데 아이시마쓰(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사모함으로 오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부족한 일본어로 위로했습니다. 일본 일초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던 하나님 사랑이 가득했던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돌아가는 그들을 안아주기로 마음먹고 두 팔을 벌였습니다. “아이시마스(사랑합니다).”를 외칠 때 마다 제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쌓여갔습니다. 웃으면서 우리를 안아주던 그들의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한 많은 사람들, 주님의 나라가 임했던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함께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장옥이 성도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크리스천 CEO 포럼

# 일본과 한국이 함께 누리는

## CEO 포럼과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이 가 러브소나타와 한일 리더십 포럼은 일본



정말 힘든 처지에서도 싯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마와타리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러브소나타 CEO 참여자들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한번 이룩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진 속의 16, 17살 청년들이 '세계평화'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라며 환희 웃고 있었다.



미지립교회이지만 마쿠라자키교회 공동체에는 여태껏 세상에서 맞보지 못했던 평강과 사랑이 함초롬히 내려앉아 있었다.

### 10년 만에 결산한 한 명 열매 맺은 시골교회 방문

1947년,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이주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던 무기노시치우에몬 목사 부부가 가고시마 남단에 있는 시골마을 마쿠라자키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56년 11월 13일, 마쿠라자키교회라 문을 열었다. 1997년, 7번째 담임목사로 부임한 마와타리 목사.

눈물로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집집마다 뿌리며 영화 상영과 가스펠 콘서트를 가지며 1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

“드디어 2006년, 자애 한 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제일 많을 때, 17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다. 겨울같이 맑고 비단결같이 고운 얼굴이다.

정말 힘든 처지에서도 싯된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 마와타리 목사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러브소나타 CEO 참여자들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바로 이 자리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행3:7).

주보에 나와 있는 2012년도 마쿠라자키교회의 표어이다.

‘곧 힘을 얻기’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정성껏 마련한 차와 과일과 떡을 내 놓았다. 조금이라도 더 접대하고 싶어서 그저 마리를 조아리는 마와타리 목사와 성도들 간의 정이 부러울 정도로 도타워 보였다.

비록 일본에서도 작은 교회, 미지립교회에 불과했지만 이 공동체에는 여태껏 세상에서 맞보지 못했던 평강과 사랑이 함초롬히 내려앉아 있었다. 교회와 일본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였다. 참으로 순박한 어르신이 생기발랄한 울림으로 말을 걸어왔다.

“아픈 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눈빛에 가슴이 뜨거워져 왔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라파 엘,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요, 진정한 행복임을 마쿠라자키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은 해맑은 얼굴로 증거하고 있었다. 가고시마에서 열린 CEO 포럼은 이렇게 뜨거운 감동과 넘치는 은혜로 그 문을 열었다.

일본과 한국에 새 시대를 열어갈  
‘CEO 포럼’

가고시마 중심부에 자리 잡은 호텔 웨블부에 일본과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크리스천 CEO 포럼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실천하는 21세기형 클래팸(Clapham)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영국의 국회의원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가 살던 클래팸 지역의 친구들, 정치인, 사업가, 장군학자, 고위 공무원이 함께 교제하며 성경대로 살기 위해 노력한 결과, 노예제도를 비롯한 각종 사회악습이 폐지되었고, 19세기 영국의 찬란한 빅토리아 시대가 열렸듯이 크리스천 CEO 포럼을 통하여 일본과 한국에 새 시대가 열리길 소망한다며 강신의 장로가 문을 열었다.

일본을 대표하여 오오가와 목사와 미네바 목사가, 한국을 대표하여 김명용 장신대 총장과 이용만 장로와 효성그룹 조성래 회장이 CEO 포럼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본질을 선포하는 김명용 총장의 메시지이다.

“기독교는 역사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명이 매우 큼니다. 여러 분들의 의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생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뀔 수도 있고, 거꾸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사랑하는 이용만 장로가 일본의 영적

부흥을 선포했다.

“성경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잊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일본은 축복의 완성국가가 되고 머지않아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성에 회장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여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부터 배운 사랑과 용서의 기독교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경제, 정치 분야에서도 러브소나타, CEO 포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목사님과 함께 찍은 사진, “꼭 보내주세요.”

“가고시마는 아시아선교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메이지유신의 지도자들을 배출했을 뿐 아니라,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시아 선교가 시작된 지역입니다.”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가 환희 불을 밝힌다.

한 분의 선교사와 함께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했던 가고시마 영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는 한 사람의 진정한 CEO의 이야기에 모두들 눈이 번득였다. CEO포럼을 향한 하나님이 비전이요, 은수리교회 회가 품은 하나님의 꿈이다.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하나가 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이 자리아지만 일본과 한국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러브소나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가 될 때 한일 역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러브소나타를 도시마다 계속 할 것입니다. 먼 훗날 하나님의 역사에서 일본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중요한 도구로 기록될 것입니다. 러브소나타와 한일 리더십 포럼은 일본 땅에서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본과 한국의 CEO와 크리스천 리더들이 하나가 되어 화답했다. 어느 포럼과는 달리 ‘가고시마 CEO포럼’에는 이 지역 불교와 천주교를 대표하는 스님과 신부가 참석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메시지를 들은 이들이 이재훈 목사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꼭 사진 보내주세요.”

‘가고시마 CEO포럼’에 차고 넘치는 사랑은 나라와 종교를 떠나 모두들 활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다.

1억 명이 다 같이 죽자,  
‘일억옥쇄(一億玉碎)’

반세 잔뜩 물을 품은 채 꺾꺾 참았던 하늘이



# ‘하나님 나라의 기쁨’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에 뿌린 ‘희망의 씨앗’ !본 땅에서 쓰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어스름 새벽에 비를 뿌렸다. 후쿠오카로 떠나는 버스에 오르자 조금씩 빛줄기가 굵어졌다.

오늘 아침에도 서 현목사가 전하는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다. 함께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돌리니 차창 너머로 문득 천진난만한 얼굴들이 어른거렸다. 어제 지란특공평화회관에서 보았던 얼굴, 얼굴들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겨울, 일본이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을 감행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미국령이었던 필리핀까지 접수했다. 그러나 미국동사령관은 필리핀 레이테 만에 상륙했고 개전 첫날 미 전투기는 섬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었다.

패색이 짙자 일본 사령관 오니시가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는 작전을 펼쳤다. 폭탄을 실은 전투기를 몰고 조종사가 그대로 적함에 부딪혀 ‘옥쇄(玉碎) 작전’이다. 그것도 일본뿐만 아니라 ‘내선일체’를 외치던 만주, 조선, 대만의 모든 인구를 합친 1억 명이 다 같이 죽자는 뜻으로 일억옥쇄(一億玉碎)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미카제(神風) 특공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신의 바람’이라는 뜻인 가미카제는 가마쿠라 막부시절 원(元)나라가 일본을 침공했을 때 갑자기 태풍이 불어 이들을 침몰시켰다’ 해서 유래된 말이다.

한번 이륙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사진 속의 16, 17살 어린 청년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천하보다 더 소중한 그 귀한 생명을 버리겠다고 환희 웃고 있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났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 3:16).

‘온누리가 왜 일본을 품어야 하는지’ 갑자기 눈

물이 났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 악숙의 땅, 가고시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일본과 한국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 하늘나라 축제,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꿈처럼 보내고 다시 인천공항에 내렸다. 문영재 목사의 인도로 모두들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일본 땅에 부흥의 바람이 불기를...’

‘이제는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며,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지며,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될 것을...’

심자기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최고의 CEO,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발자국을 따라 걷겠다는 다짐의 기도였다.

짧은 듯 긴 3박4일, 규슈의 최남단 활화산 섬 사쿠라지마에서 후쿠오카까지 하나님이 그렇게나 애쯤게 찾으시는 일본 땅을 밟으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

CEO 포럼과 크리스천 리더십 스쿨 멤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뿌린 복음의 씨앗이다. 1949년,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선교사를 통하여 일본에 최초로 복음의 뿌려진 악숙의 땅, 축복의 땅, 좋은 땅 가고시마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다.

공명을 내서는 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

마음 한 가운데 기쁨이 솟아올랐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지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와 육십배와 백배가 되었느니라”(막4:8). 아멘.

/jsc@onnuri.org



가고시마 CEO포럼에 차고 넘치는 사랑은 나라와 종교를 떠나 모두들 활짝 마음을 열게 하였다.



가고시마 러브소나타를 꿈처럼 보내고 인천공항에 내린 참가자들은 문영재 목사의 인도로 모두들 손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가고시마 활화산이 분출하는 모습.

### 리더십 스쿨 (Christian CEO Leadership School)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 훈련(강의, 특별프로그램)과 서로간의 나눔(group discussion, 중보기도)을 통한 변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의 자질과 은사가 발휘되도록 섬기며 나누는 것을 조명한다.

#### 연혁

2005년 1학기 과정으로 오픈 되었으며 2006년에 1년 과정으로 바뀐 후, 2012년 현재까지 매회 100여명의 학생들이 훈련 받고 있다.

#### 훈련내용

- Christian Driven Vision
- Christian Formation
- Christian Worldview
- Christian Business & Ethics
- Special Program
- Outreach

### CEO포럼에 관하여

#### Mission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한다.

섬김의 지도력을 추구하고 훈련한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건강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화합운동이나 노사화합운동에도 함께 협력한다.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각종 방송 언론 매개체를 통해 확산시킨다.

#### Objective

##### 1. 기도하는 CEO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 자신의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해 항상 기도한다. 모든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하는 리더의 모범을 보인다.

##### 2. 평신도 네트워크

사회 각 분야에 실력과 신앙을 갖춘 평신도 리더십을 세운다. 또

한, 이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교회간 네트워킹

크리스천 CEO들이 주도하는 교회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 기독교 연대 형성까지 발전시켜 간다.

##### 4. 차세대 리더십 양성

차세대 젊은 지도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짐으로써 차세대 리더십 양성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회부흥과 개혁추진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젊은 목회자 양성을 관심양면으로 지원한다.

##### 5. 국제협력

한, 중, 일 리더십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시아 크리스천 리더십 교류를 이룩한다. 이어서, 영향력 있는 서구 교회와도 연대, 협력하여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 포럼까지 확대시킨다.



# 이주민 위한 '사랑' 과 '돌봄'

## 온누리 M미션, 네팔어 예배 창립

지난 주일(18일), 추수감사절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감사하며 네팔창립예배가 열렸다. 네팔 지체들과 축하하기 위해 모인 100여명의 성도가 온누리 M센터 4층을 가득 채웠다. 네팔 지체들은 전통춤 공연과 국가(國歌)를 열창하며 예배 창립을 기념했다. 네팔예배 봉사자인 김만순 집사와 많은 네팔 지체를 전도한 비라트 전도사, 지지하고 후원한 리더십들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킨 네팔 지체들의 열정으로 네팔 예배가 탄생했다.

### 귀한 사역 '온누리 M미션'

소수국가 사람들이 모이는 열방예배(ANEWS)에서 한 국가나 한 언어권의 지체가 25~30명이 모이면 독자적인 예배공동체로 독립하게 된다. 네팔예배는 온누리 M미션의 독립된 15번째 예배 공동체이다.

1997년에 시작되어 15년을 달려온 온누리 미션은 현재 안산 온누리 M센터에 8개, 서빙고 캠퍼스 4개, 팜택 캠퍼스 1개, 인천 캠퍼스 1개 등 총 14개 이주민 예배 공동체를 섬기고 있으며, 유학생과 근로자, 한국 봉사자 등 550여 명이 속해있다. 예배사역 외에도 ABC양육(Assurance, Baptism, Church member)과 주중모임 및 토요모임에서의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맞춤 양육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예배 리더십을 양육하는 현지인 핵심지도자양육과 이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열방연합사역, 다문화자녀들의 영어와 신앙교육을 위한 다문화사역 등 귀한 사역들로 채워지면서 한걸음씩 비전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앞으로 온누리 미션은 더 큰 꿈을 향해 간다. 배가 운동을 펼쳐 열정과 헌신, 관심, 사역의 질 등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며, 외국인인 모여 사는 각 지방으로 뻗어나가 맞춤형으로 아웃리치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올해 시작된 꿈땅에 이어 차세대 사역도 시작될 것이고, 그리하여 온누리교회 30주년인 2015년에는 모자이크 처치(Mosaic Church)라는 명칭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위한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다.

### 온누리의 축복 '온누리 M센터'

온누리 M미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2006년 안산시 원곡동에 온누리 M센터가 세워졌다.

M센터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종족이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국가별 모임도 하면서 열방 예배의 비전을 이뤄나가고 있다. 기도와 섬김, 전도를 통해 현재 8개의 예배공동체(러시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ANEWS(열방-중국,미얀마,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태국)가 있다. 이주민 성도가 늘어나면서 건물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워 M센터 근처 건물의 3개의 층을 렌트해 M2의 이름으로 예배와 모임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M2에서는 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예배가 진행된다.

### 숨은 보배 '봉사자'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은 온누리 M센터를 통해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온누리의 큰 축복이다. 그 축복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은 온누리 미션의 봉사자들이다. 대부분의 주일예배 봉사자들이 서빙고, 양재 캠퍼스에서 1부나 2부 주일예배를 드리고 안산으로 와 섬기고 있고, 토요일 모임을 섬기는 대학청년부의 청년들이나 주말 봉사자들도 자신들의 주말 여가시간을 온누리 미션 섬기는데 모두 쏟는다. M센터 베트남예배를 섬기는 세



▲ 안산 온누리 M센터 건물 모습. 4호선 안산역 1번 출구로 나와 아래 악도대로 5~10분만 걸으면 찾을 수 있다.  
▲ 지난 18일(주일) 네팔창립예배가 열렸다. 사진은 예배 후 리더십들과 네팔 지체들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

성 봉사자들은 자체적으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헌 옷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베트남 이주민들의 식사와 스텝들의 식사봉사를 섬기기도 한다. 자신들의 노력과 시간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은 온누리 미션의 숨은 보배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이주민사역에 동참하려면

**주일사역** 예배준비, 안내, 청소 등  
**각종교육** 한국어, 영어, 음악, 컴퓨터, 일대일 등  
**네트워크** 중보기도, 통역, 의료, 법률 상담, 사진, 영상 등  
**재정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  
**문 의** 031-491-9660

### 'M' 으로 보는 온누리미션 흐름

온누리미션은 긍휼사역(Mercy)으로 시작. 복음 전하는 '선교(Mission)' 영역으로 발전. 금년부터 '교회(Mosaic Church)'를 세워 나감. 다문화(Multiculturalism) 사역(Ministry)으로도 지경을 넓혀가고 있다.

### 온누리 M센터 예배안내

장 소	주일예배	시 간
M센터1	ANEWS	오전 11:00
	러시아	오후 3:00
	꿈땅	오전 11:00
	태국	오후 2:00
	캄보디아	오전 11:00
M센터2	필리핀	오후 3:30
	네팔	오전 10:00
	방글라데시	오전 5:30
	몽골	오전 10:30
	스리랑카	오후 2:30

### 안산 온누리 M센터 오는 길





01 **분당A공동체 터키**

## “이 땅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꿉니다”

분당A공동체 10명의 팀원들은 지난 11월 2-10일까지 터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도착하자마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지 안뜰 시내를 둘러보고 있을 무렵, 무슬림의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터키인들이 세속적인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아잔 소리에 맞춰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무슬림을 거의 볼 수가 없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많이 바꾼 탓에 기독교를 향한 마음도 이전에 비해 많이 열렸다고 한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에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었다.

### 땅밭기 사역 통해 하나님 말씀 되새겨

지난 4일(주일)에는 숙소에서 터키 현지인 성도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황종연 목사님(분당A공동체)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했다. 우리 팀원들은 특송을 부르고 현지인 성도들을 축복했다.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주일에배웠고 터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암괴석과 지하도시로 유명한 갑바도기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경이로움과 더불어 지하도시에 숨어서 믿음을 지킨 초



대교회 신자들을 떠올리며 감동을 받았다. 그 후 에베소, 버가모, 발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사데 등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방문하며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을 되새겼다. 이렇게 땅밭기를 하면서 그 지역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 선교사님의 세 딸 중 한국에 있는 둘째 딸을 제외하고 앙카라에 있던 첫째와 흡스쿨링을 하는 막내도 이번 일정에 합류했다. 선교사님 가정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표정으로 사역에 임했다. 선교사님 가정은 이스탄불이나 이즈미

르와 같은 대도시가 아닌 터키 남동부의 가지안뜰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가정교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다. 우리 팀원들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주시기를 기도했다.

### 선교사님과 함께한 은혜의 시간

마지막 날에는 이스탄불에 도착해 전철로 이동하며 비잔틴 시대를 상징하는 성 소피아 성당, 토포카프 궁전의 웅장하고 아름다

운 모습을 보았다. 해질 무렵에는 보스포루스 해협 크루즈를 마지막으로 아쉬운 일정을 마무리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팀원 모두가 7박 9일의 일정이 언제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선교사님 가정과 한 식구가 되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그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든 선교사님 가정과 작별인사를 하러니 모두의 마음이 몽글했다. 우리는 서로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연결해주신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중보기도로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인사를 나눴다. 하나님께서는 멀고 외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그곳에 가게 하셨다. 우리는 선교사님 가정이 사역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현실적, 영적인 어려움을 직접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웃리치 일정과 모임 내내 동행하고 인도해주시며 팀원 모두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신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 이영희 성도  
(분당A공동체)



02 **인천 A공동체 불가리아**

## 불가리아에서 만든 기막힌 김치

지난 10월 31일(수)부터 11월 10일(토)까지 인천 A공동체와 연결된 불가리아의 하스코 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서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김장사역과 사모 블레싱 사역을 했다. 유지영 장로님을 팀장으로 이준호 목사님과 아이들 3명을 포함해 15명이 참여하였다.

10시간 걸린 비행 끝에 하얀 눈이 덮인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고 다시 4시간을 기다려 소피아행 비행기를 탔다. 소피아의 날씨는 한국보다 조금 추웠다. 밝은 시간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지고 다음날 아침 박서규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소피아에서 3시간 반 거리의 랩스카라는 곳으로 이동했다. 김장 장소인 박계홍, 김여선 선교사님 부부의 집에 도착하니 먼저 도착한 선교사님 가정들이 계셨고 배추와 무, 양파, 마늘, 생강들을 차에서 내리고 계셨다. 배추는 이 나라에 없는 채소여서 한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미리 심어 준비하셨다고 했다. 배추는 작고 얇아 보였고 파는 1미터가 넘게 컸다. 우리 고춧가루와 고무장갑, 앞치마, 간식들을 내려놓고 숙소에서 짐을 풀러 갔다.

### 김장의 사모 블레싱

사모 블레싱이 열릴 교회에 가보니 어찌나 작고 열악한지 한숨이 나왔다. 섬김이 묻어



낸 우리 성도들은 재빠른 솜씨로 현수막을 걸고 풍선을 불고 꽃을 달고 깨끗한 식탁보와 컵과 간식을 세팅하고 초를 켜니 몰라보게 화사해졌다. 사모 블레싱 첫 시간은 이준호 목사님의 DISC 성격검사였는데 오랜만에 사모들의 얼굴이 밝아졌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이운재 전도사님의 장체성 강의와 뜨거운 기도시간이 이어졌고, 남편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편지 읽어주기, 화관 전달, 선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순서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 세 자매들의 작은 콘서트로 격조 높은 마무리를 했다.

### 1000포기 김장도 하나님은혜로

김장사역은 발칸 반도 지역의 9개 국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곳에 모여 김장을 하고, 못 오신 분들을 위해 배달도 하신다고 했다. 김치를 받는 선교사님들이 그리운 고국의 맛에 기뻐하실 생각하니 맛있는 김장이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에 동참했다.

다음날 아침에 모두 모이니 아이들까지 80여명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배추를 다듬고 정리는 작업부터 돌입한 우리 김장 사역팀은 “국제 김장단”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영청나게 눈부신 활약으로 해가 지기 전에 배추 1000포기를 씻고 건지기까지 끝났다. 작년에 밭투게까지 했다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인천 아줌마들의 울트라 슈퍼 파워 실력에 놀라웠다. 몸은 힘들었지만 즐거운 수다가 끊이지 않았고, 김아엘 선교사님의 기타 연주도 우리의 작업을 행복하게 해주었다.

어린이들은 강남스타일 춤출 공연으로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했다. 이튿날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준비해 놓은 배추를 양념에 버무려 한 봉지씩 포장에 들어갔다. 배춧잎을 뜯어 양념을 싸 먹어 보니 맛이 기막혔다.

소피아로 돌아와 김아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집사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들어가니 작은 예배당이 꽉 찼다. 오후에는 국경을 넘어 그리스로 들어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지를 둘러보며 우상이 가득했던 이 땅에서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짐작 되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가니 그동안 정들었던 선교사님 가족들과의 이별이 아쉬웠다. 아이들도 서로 친해져서 어린 선교사의 역할을 특별히 해낸 것 같았다. 비행기에 오르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선교사님들의 위로와 도움이 되어드렸기를 바라며 그 땅을 떠났다.

/ 최형선 사역자



01

## NGO 더 멋진 세상 해외봉사단원 모집

NGO 더 멋진 세상에서 개발도상국의 빈곤해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라 지역에서 1년 동안 보건 및 교육을 담당할 단원 2인이다. 지원 자격은 19세 이상 건강한 성인으로 파견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 성도다. 봉사관련 전공자나 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접수는 오는 12월 12일까지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이메일(betterworld9626@gmail.com)로 송부하면 된다. 문의: 02) 2271-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자비량 전문인 선교사 배출

### OPMS 2기, 32명 졸업

전문인자비량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학교 OPMS가 2기 예비 선교사 32명을 배출했다. 지난 24일(토) 서빙고 비전홀에서 졸업식이 열렸다. 졸업식은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선포와 졸업장 수여, 간증, 현장에 나가있는 OPMS 1기의 축하 영상, 3기 모집을 위한 OPMS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OPMS 2기는 앞으로 미얀마, 모로코, 베트남 등지에서 유치원사역, IT 사업, 학원사역 등을 할 계획이다. OPMS는 내년 훈련에 참가할 3기를 모집한다. 문의. 070-7118-4805

www.opms.or.kr

/ 조은실 기자

03

## 청년 단기선교사 모집

### 이달 26일까지 신청

청년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인 FA(Frontier Agency)는 작년 8월에 1기 훈련이 시작되어 현재 3기가 진행되고 있다. 훈련을 마친 FA선교사들은 기도모임을 형성하거나 선교 현장에서 만난 현지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FA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FA에서는 이미 선교사로 나갔거나 내년엔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선

교사, 장기선교사로 헌신할 선교사 등 귀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현재 현장훈련중인 3기에서도 현지인 세례식을 거행하는 등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다음달 16일까지 FA 4기를 모집한다. 대학청년부 예배에서 FA신청서가 배포되고 있다.

문의: 3215-3726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 FA무브먼트

/ 조은실 기자



대전



## 중국어 예배 신설

### 중국 복음화 위한 일꾼들

지난 11월 11일(주일) 오후 2시 대전 온누리교회 꿈광 303호에서는 중국어예배팀의 첫 예배가 드려졌다.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열린 첫 예배는 찬양을 시작으로 ▷천영무 장로 대표기도 ▷청년부, 파워웨이브, 박하경(색소폰 연주) 특순 ▷윤길중 목사 축사 ▷김승렬 장로 격려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 캠퍼스에서는 지난 9월부터

‘중국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대전지역 15개의 대학교 안에는 5천명이 넘는 수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있다. 대부분 미신자인 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돕고,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예배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기도 모임이 꾸려진 것이다.

모임을 통해 성도들은 매주일 중

국을 품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또한 9월 29일 중추절 행사 및 10월 초에 진행된 야외 예배 등 다양한 집회를 통해 많은 유학생들과 교제·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중국어예배팀이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었다.

이 날 말씀을 전한 정용규 목사(중국어예배 담당)는 “많은 유학생들을 섬기며 중국 복음화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한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1

노스시카고

간증



니카라과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 “선교에 대한 열정 샘솟아!”

지난달 셋째 주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니카라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니카라과는 1972년 대지진으로 인해 90%의 건물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많은 지역이 그때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당시 나라를 다스렸던 소노조 왕조는 해외로부터 많은 빛을 지고 막대한 양의 국제보조를 받았으나 그 돈을 개인소유로 돌렸다. 그 결과 니카라과는 중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가 찾아간 학교 까라조 크리스천 아카데미는 해발 275m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에는 100여명의 아이들이 주변도시인 디리암바, 지노 페페에서 차를 타고 등교한다. 등록비는 한 달에 50불(한화 54,000원)로 니카라과에서는 비싼 편이어서 주로 중산층이 오지만, 장학금제도를 통해 가난한 계층에게도 배움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까라조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니카라과에서 가장 수준 높은 학교 중에 한 곳이라고 했다.

까라조 크리스천 아카데미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선교관에서는 4명의

선교사들이 지내는데, 2년 전 IN2 온누리교회가 지어주었다고 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학년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이 통역을 해주었고, 고학년 아이들은 통역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동행한 차경선 집사와 차정인 집사는 음악수업에서 악기로 같이 연주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목요일에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까모야빠 마을로 출발했다. 처음 까모야빠 마을에서 들른 곳은 까모야빠 공립초등학교(Agustina Miranda de Quesada)였다. 까라조 크리스천 아카데미에 비하면 열악한 환경으로 모든 문과 창문에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문은 한군데 밖에 없어 비상시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선교사님과 나는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비전의 불꽃이 제 마음에 옮겨져 저의 마른 마음을 지펴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 최정수 성도

02

TV 추천 프로그램



▷ 충성! 은헤로軍 (아이티 단비부대)

- 12/7(금) 오전 9시 40분

아이티 재건사업을 하며 희망을 심고 있는 단비부대원들의 간증입니다.



2012 CMN을 되돌아보다

# 평신도 사역의 꽃 ‘의료선교’

CMN, 올해만 14,309명 진료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은 의료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2006년 11월 온누리 의료선교팀과 의료선교회가 통합하며 발족한 CMN사역팀은 긴급의료 구호, 국내 블루오션 지역(외국인근로자, 탈북자, 농어촌, 도시빈민, 소년소녀가장 등), 선교지 등에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봉사활동을 해왔다.

2012년 CMN은 200여 명의 의사를 비롯해 약 500명의 의료진과 비의료진들이 매월 국내 아웃리치를 통해 1,425건, 해외 여류아웃리치를 통해 12,884건의 의료봉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사로 섬겼다. 또한 선교사들이 건강상의 문제나 안식년을 보내기 위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들의 건강을 케어하고, 복지관, 외국인 근로자, 탈북자의 건강관리도 해주고 있다.

CMN은 발로 뛰는 ‘현장사역팀’, 어디든 함께 하는 ‘지원팀’, 파송부터 은퇴까지 ‘선교사케어’ 등으로 의료선교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2012 CMN의 활약상이다.

### 발로 뛰는 ‘현장사역팀’

현장사역팀은 의료선교 현장을 감당하기 위해 조직된 8개 팀(마하나임, BEE, 마노아, 드림, 라파, 토브, 여호수아, 살롬)이 있다. 국내에서 마하나임팀은 넷째 주에, 마노아팀은 셋째 주에 농어촌 의료선교를 간다. BEE

팀은 둘째 주에 사회복지관에 가서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드림팀은 둘째 주에 조선족근로자를 돕는다. 라파는 매주일 서빙고와 안산 M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여호수아팀은 의정부 네팜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다. 살롬은 첫째 주에 안산 M센터로, 토브팀은 넷째 주에 조선족근로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해외 의료선교도 풍성하다. 2012 해외 여류아웃리치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케냐 등 6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총 12,884명을 진료했다.

### 어디든 함께 하는 ‘지원팀’

지원팀은 의료사역이 진행될 때 자신들의 은사로 복음을 전하는 수기치료팀, 효도사진팀, 어린이사역팀, 캠퍼팀, 발마사지팀, 미용팀, 중보기도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현재 170여명의 성도가 지원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의료가 아닌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 지원팀은 비의료인이라도 누구든지 의료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아이스쿨에서 발마사지 스쿨(8주), 미용스쿨(8주), 수기치료(12주)를 개설해 실시하고 있다.

### 파송부터 은퇴까지 ‘선교사케어’

선교사케어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도와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기 위해 돕는다. 이를 위해 CMN 사이버병원(www.cmn21.org)을 운영중이며, 이곳을 통해 해외 한인선교사 사이버 건강 상담, 온누리 파송선교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의료선교 아웃리치가 아니어도

섬김을 실천하는 장도 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CMN사역이다. 현재 CMN 사이버병원에는 약 70여 명의 각 과별 전문의가 상담과 진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 황지연 기자 hcy@onnurio.org

### 2012년도 CMN 활동내용

국내아웃리치 지역	활동내용
공릉종합사회복지관 (6월, 11월)	80건
온누리 안산M센터외국인근로자 (1월-12월, 월2회)	100건
포천송우교회, 우림교회외국인근로자 (3월-4월, 9월-10월)	70건
한중사랑교회 조선족근로자 (1월-12월, 월2회)	180건
안디옥교회 인도네시아외국인근로자 (3월-4월, 6월, 10월)	150건
인천이카페교회외국인근로자 (3월, 6월, 9월)	150건
강원도 고성송경교회 (11월)	50건
DMZ해마루대성교회 (5월)	95건
충남예산계성교회 (9월)	120건
부여칠성교회 (5월)	90건
에버그린교회외국인근로자 (4월)	140건
평택온누리교회외국인근로자 (5월, 10월)	130건
화성아름다움교회 (11월)	70건

해외아웃리치 지역	활동내용
인도네시아족자카르타 (8월 8-12일)	360건
필리핀 마닐라 (7월 17-22일)	3000건
필리핀 보홀섬 (7월 18-23일)	1170건
캄보디아헤브론병원 (8월 10-15일)	4780건
아프리카사메리안 (7월 28-8월 4일)	500건
아프리카케냐 (7월 21-30일)	1200건
아프리카탄자니아잔지바르 (8월 25일-9월 1일)	710건
캄보디아프놈펜 (7월 21-26일)	1174건

### 인터뷰

## “의료진들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CMN은 온누리 평신도 사역의 꽃입니다. CMN은 전도의 중요한 통로이자 선교의 수단입니다. 의료선교회로 시작한 CMN은 국내외, 재단 북구 지역 등 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열기에 좋은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도와 사역의 길을 열었고, 사람의 몸을 만져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CMN사역에 의료선교사들의 헌신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의료인은 청년(487명)포함 2727명입니다. 그에 비해 CMN소속 의료인은 비의료인 포함 457명으로 실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인원은 소속인원에 비해 소수입니다. 의료진이 있어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빠질 경우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진들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의료선교는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뿐만 아니라 이·미용, 어린이 사역, 찬양 사역 등 모든 분야에서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진료가 있으면 중보기도도 있어야 하고, 찬양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의료진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청년의료팀과 성인의료팀이 팀을 이루어 의료선교를 이끌었지만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성인의료선교사들의 노후와 청년들의 열정이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 분명합니다. 의료선교 사역에 동참할 청년들이 그립습니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사역이 의료선교입니다. 의사들만 하는 일이 아닌 누구나 관심 있는 분은 모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의료선교'입니다.

문의: 사별원 간사(02-3215-3786)

/ 안태환 장로(CMN 대표)

### 간 증

## “교육인력과 의료진이 필요한 이 땅”



아프리카 잔지바르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위로와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잔지바르는 무슬림교의 기도 방음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청·중년층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어 길에 앉아 있고, 여성들은 일부다처제와 에이즈, 어린이들은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 능력을 시험하려고 출발한 아웃리치였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잔지바르 여성들, 그리고 마래가 찬란한 아이들의 눈빛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잔지바르를 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교육인력과 의료진들이 필요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아프리카, 특히 탄자니아 잔지바르에 뜻을 품으시는 많은 의료진들과 교육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김정연(CMN 여호수아)

### 온누리교회 의료인 현황

전체 의료인 2727명  
CMN 사역 의료인 457명

### CMN 의료인 현황

약사 196명  
간호사 49명  
의사 38명

01

## 서빙고 여성, 하반기 훈련 마쳐

### 시편묵상, 무릎기도 종강 ... 기도는 계속

“예수님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높은 분이라는 통속적인 관념을 깨고 이제 친근하게 내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빙고 여성사역에서 주관하는 시편묵상 종강예배에서 이숙희 성도가 간증했다. 그는 시편묵상 과정을 이끈 강사들의 강의를 통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더니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고백했다.

시편 묵상을 주제로 독서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묵상하는 학교인 ‘시편묵상’은 10주 동안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30일 종강했다. 시편묵상의 강사로 는 유해룡, 이강학, 유재경 목사가 나섰다. 지난 12월 6일(목)에는 무릎기도중보자학교 종강예배가 두란노홀에서 열렸다. 이번 과정에서는 209명 중 185명이 수료했다. 종강예배에서는 A선교사가 ‘말씀과 기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A선교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점인 이스라엘이 회복 중인 때다. 이때에 우리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도움이 아닌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권면했다.

2012 하반기 무릎기도중보자학교는 12주 과정으로 진행됐다. 여성사역에서는 매년 상, 하반기에 걸쳐 무릎기도중보자학교, 시편묵상 등 여성들의 영성을 위한 다채로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정지은 기자

02



### 현지 리더십 ‘새마을교육’ 수료

####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 세네갈 라크로즈 마을의 족장아들 아주마가 NGO ‘더 멋진 세상’의 도움으로 새마을운동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실시한 새마을운동 연수 프로그램에 아주마를 참여시켰다.

지난 주일(2일) 이재훈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아주마는 “한국에서 보

고 들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다. 새마을운동 연수에서 배운 농업기술을 고국에 적용해 볼 것”이라고 방문소감을 밝혔다.

한편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세네갈 뽀나바 지역에서 1년 동안 보건 및 교육을 담당할 봉사단원을 모집 중이다. 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항공비, 현지 체제비가 전액 지원된다. 문의: 02)2271-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대 련

# 하나님 백성으로 서약

## 16명 세례 받아

지난달 11일 대련 온누리교회가 주일 2부 예배에서 세례식을 거행했다. 이날 세례식

에는 16명(유아 2명, 입교 2명, 성인 12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서약했다.

/ 정성애 통신원

##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그렇게 싫어하고, 옳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기 바빴던 제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지했던 제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미

움과 질투, 시기로 매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하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큰 명철이 있지만 성질이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잠언 14:29).” 앞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말씀과 함께 이겨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 김혜원 성도



02

야치요



## “첫 아웃리치 다녀오다”

야치요 온누리교회가 지난달 23일 ~24일 처음으로 우에다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번 아웃리치는 바쁘게 달려 온 2012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013년

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41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에다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 황치연 기자

03

## 미전도 종족 입양 사례발표

에쓰네(Ethne Seoul Korea 2012)국제선교대회

지난달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에쓰네 국제선교대회(Ethne Seoul Korea 2012)가 열렸다. 지역별 미전도 종족 선교모임의 총집합체인 에쓰네 선교대회에서 온누리가 미전도 종족 입양 사례를 발표하는 교회로 선정됐다. 해외 43개국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수) 저녁집회에서 온누리 입양사례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했고, 이어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29일

(목)에는 두란노해외선교회 A선교사가 타키사역의 성공 사례를 알렸고,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가 미전도 종족 입양사례를 발표했다. 온누리는 1996년부터 15개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여 공동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다.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며, 기독교인이 5%미만, 혹은 거듭난 복음주의 교인의 비율이 2%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에 포함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지난 1일(토) 오후 3시, 수원 캠퍼스 비전홀에서는 '블레싱 인도네시아' 집회가 열렸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인도네시

아 유학생들과의 추억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색소폰 4중주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저녁식사 ▷마이나힘팀 특순

## 인도네시아에 복음의 씨앗 심다!

### 블레싱 인도네시아

'SUM' ▷간증 ▷찬양 ▷선물 증정 및 환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 온누리교회 선교팀은 블레싱 집회를 위해 지난 8월부터 기도로 준비했다. 수원에 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40여 명이 모임을 갖는 '인도네시아 셀터'가 있는데, 이를 통해 인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을 이번 집회에 초청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크리스천 유학생들간의 연합을 위한 자리를 제공하기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석한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준 관

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받은 그 사랑을 고국에 돌아가 또 다른 이에게 전할 것을 다짐했다.

집회에 참여한 정태혁 집사는 "낯선 땅에 온 학생들에 대한 우리의 조그마한 관심이 그들에게 전해졌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 결실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단순한 하루 동안의 행사가 아니라 한국에 찾아온 한 영혼을 품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02

TV 추천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6편)  
- 12/11(화) 오후 4시20분  
미국인 마이카가 전하는 아랍에미리트의 경제발전과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03

TV 추천프로그램

▷ [드라마] 꿈을 쫓는 아이들  
- 12/13(목) 오전 8시  
우간다 출신 고아, 마가렛과 데릭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떠난 여행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 단기 선교는 은혜의 첫걸음!

온누리의 선교훈련은 다양하다. 그 중 단기선교사 훈련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FA훈련(6개월)과 2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는 TP훈련(2년 이상)이 있다. 훈련을 받고 현지에 나가 있는 온누리 단기 선교사들의 근황이 어떠한지,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답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TP선교사 선교일지

### 축복의 초대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또 지불하기 위해 ‘선교’란 열차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열차에 오른 것은 은혜이고 축복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요즘 M국의 평균기온은 영하 30도입니다. 1년 8개월이 겨울인 이곳은 겨울나기가 큰 과제입니다. 어느새 M국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도 4번째입니다. 저는 올해 3월 초, 이곳으로 단기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M국으로의 2번째 파송은 작년 여름 다녀간 것이 계기였습니다.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인 중심의 달라진 교회를 보게 되었고 선교사님을 통해 M국의 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었습니다.

직장과 결혼, 부모님을 생각하면 또 다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면 선교사님을 통해 들었던 비전들이 그려졌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싶어서 건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기선교를 결심했습니다.

#### 매일 복음의 열매

이곳에서 이뤄지는 일들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꿈꾸었던 일들이 눈앞에 하나 둘씩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만해도 알코올 중독이던 몽골인 아저씨가 을 초 교회를 개척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평범한 학생이던 몽골인 청년은 담임목회자가 되어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인 시골목회자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다른 리더에게 이양하고 또 다시 개척을 위해 떠났습니다. 현지인이 복음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교회개척을 하고, 현지인들이 주제가 되어 리더를 양육하고 이끄는 일들이 시작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리더들을 위해 훈련을 계획하고, 진행되도록 돕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복음의 열매들을 대합니다. 자격 없는 저를 추수 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추수하는 기쁨을 맛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파송지는 흡사 60년대 한국을 떠



올리게 하는 시골마을이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환경이 아닌,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인에 닫혀있는 시골에서 종교 활동은 일체 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만 같았습니다. 주님은 2년 넘는 시간동안 그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기경하는 작업을 시키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장기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시키셨고,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발견토록 하셨습니다.

선교는 은혜의 자리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의 초대임을 이제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 초대가 비전을 발견케 하시며

는 것인지, 추수 때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또 다른 계획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요 축복임이 확실합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곳에 항상 있기를, 나의 일생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 M국에서 김미영 선교사

#### <기도해주세요>

- 자립, 자치, 자전하는 건강한 교회, Acts28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도록
- 찬양사역과 어린이 예배 정착을 위해 선 거주실 주님의 일꾼을 찾을 수 있도록

## FA선교사 선교일지

###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

“함께 생활하면서 한 마음으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FA3기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도착해 언어 훈련과 현지 적응을 하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언어의 고통을 나누며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 주일, 이곳에서의 첫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난 포도로 FA팀이 직접 담근 포도즙과 9개의 빵으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나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감동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10월 중순에는 홈커밍데이 시역을 진행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ODO지역에서 만난 자매 등 관계가 형성된 현지인들을 집

으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중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개 팀, 14명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찬양과 기타 반주로 그들을 축복할 때 마음이 열리고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들의 영과 육이 풍성히 채워지길 바라시는 마음, 그들을 만나기까지 기다리시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 영혼이 주님께로...

지난달에는 현지인 자매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의 민족은 무슬림이었지만 그

녀는 알라가 아닌 진짜 자신을 구원해주실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악몽 때문에 밤을 눈물로 보낸 시간들과 28년의 삶에 걸친 힘들었던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울고 웃었습니다. FA선교사들은 그 자매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먼저 예수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죄에서 자유해지고 사람으로 치유 받고 다시 살게 된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 자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듣고 자신의 속안에서부터 알 수 없는 기쁨의 눈물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듣기 원하니”하고 물었을 때 자매는 “네”라고 망설임 없이 말했고, 자신이 오랜 시간 한국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며 3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국어 공부에 힘쓴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했

습니다. 답했다.  
/ 동아시아 A국에서 FA 3기 선교사

#### FA선교사들의 일주일의 생활은 이렇습니다!

##### (주중)월~금

- 7시 기상: 세안, 식사, 큐타나눔
- 8시 50분: 언어훈련을 위한 학교 등교
- 9시 20분: 출석, 수업 시작
- 13시 10분: 수업 끝
- ~19시까지: 방과 후 자습
- 19시 이후: 예배, 리서치, 강의 수업과 단어시험

##### (주말)토, 주일

- 예배와 공동체 생활에 집중



01



## 2012 선교 감사의 밤

### 블레스사하라 등 10대 뉴스 발표

선교 감사의 밤이 2천 선교본부 주관으로 지난 11일(화) 오후 7시 서빙고에서 열렸다. 선교사, 선교사 부모, 후원자 등 300여 명이 함께 해 올해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함께 식사교제로 시작해 찬양, 이재훈 담임 목사 설교, 감사영상 상영, 선교본부 10대 뉴스 발표, 선교사 자녀 특송, 감사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훈 목사는 숨어계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때로는

숨어계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 열방이 우리에게 넘어올 것이다(사 45:14)"고 말했다.

선교감사의 밤 행사에 3번째 참석 중인 윤준석 선교사의 아버지 윤충식 성도는 "선교사 자녀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이 모임을 통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전했다.

이날 선교 본부는 온누리 선교사

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는 하나로 의료재단의 이경률 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선교본부 관계자와 선교사, 성도 등에게 올해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블레스사하라를 첫 번째 순위로 뽑았다. 그 외에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선교대회, 비타민-C집회, 여성선교사 리드잇, 신임선교사훈련 TFO, 하비스트 2012, H2H 훈련 등을 10대 뉴스로 발표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CMN, 독감예방접종 실시

의료선교팀 CMN이 지난 7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안식 중인 선교사와 예비 선교사, 선교사 자녀 52명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했다. 11일에는 교회직원들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했다.

한편 CMN 송년의 밤 행사가 오는 21일 오후 7시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 김남원 부장

03

###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 OSOM 20기, 22명 수료

장기선교훈련 프로그램 OSOM에서 22명의 장기선교사들이 배출됐다. 3개월의 훈련 과정을 모두 마친 수료생들과 훈련 스태프들이 모인 가운데 지난 12일(수) 서빙고에서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일정에 없었던 이재훈 담임 목사가 깜짝 방문해 수료생들을 격려하고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 목사는 격려사에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OSOM 20기는 9가정과 남자 1명, 여자 3명, MK 13명이 참석했다. 한편 현재까지 OSOM을 통해 장기 선교사 570명이 파송됐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4

### "선교적 삶 살겠습니다"

#### 와이미션 2기 종강

지난 8일(토) 인천 온누리의 와이미션 2기 수료식이 진행됐다. 10월부터 7주 동안 진행된 와이미션을 통해 34명이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을 결단했다. 와이미션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 ▷선교 역사 ▷양화된 선교사 묘지 방문 ▷안산 M센터 방문 ▷세계선교 현황과 선교전략 ▷온

누리 선교 현황과 비전 등으로 진행됐다. 수료자 박영미 성도는 "짧은 일정이었지만 선교를 한눈에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와이미션은 내년부터 임직자 필수 과정으로 정해졌으며, 안수집사를 받기 위해서는 와이미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 감동 선물한 이종상 어르신

#### CGNTV에 700만 원 현금

때 이른 한파가 기승을 부린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종상(82) 어르신이 CGNTV에 700만 원을 현금했다. 그 추운 날 CGNTV를 위해 땅 밟기를 하고 싶다면 파주에서 서울까지 두 시간여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가며 찾아왔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가 어르신을 반겼다. 어르신은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

니다.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파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CGNTV를 곁에 두셨다고 한다. 아내와 함께 날마다 CGNTV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한다. CGN뉴스, 말씀강해, 세미나 프로그램까지 챙겨보는 어르신은 CGNTV의 열혈 팬이다. CGNTV에는 이종상 어르신처럼 감동을 주는 후원자들이 많다. 더욱 힘차게 방송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낸 예수님의 선물이 분명하다. / 김남원 부장

02

### NGO '더 멋진 세상', 출범 2주년

#### 홍보대사 배우 강석우 위촉

지난 17일 양재 믿음홀에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출범 2주년 감사예배 및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과 더불어 살겠다는 비전을 재확인한 이날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리더십들이 참석해 출범 2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NGO '더 멋진 세상' 이 할렙고, 굶주리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NGO '더 멋진 세상' 은 홍보대사로 배우 강석우를 위촉했다. 그는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적극 참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3

### 키비, 송년의 밤 개최

KIBI는 오는 27일(목) 오후 7시 서빙고 시온홀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한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대인 귀환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키비는 이날 한해 사역을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사와 권혁승 교수의 말씀(서울신학대학원), 사역 보고 및 간증, 특순, 송만석 대표의 내년 계획 및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은실 기자

# 날마다 선교비전 키워가는 '양지 온누리'

## 10번째 캠퍼스, 250여 성도 출석

올해 6월, 경기도 양지에 캠퍼스가 생기면서 국내 캠퍼스가 9개에서 10개로 증가되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묘지가 있는 곳에 세워져 선교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곳이다. 날마다 선교비전 키워가는 양지 온누리교회를 소개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양지온누리교회 리더십

지난 9일(주일) 양지 온누리에서 각 리더십과 성도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강예배였다. 올해 '양지 온누리교회' 명칭으로 정식 캠퍼스 승인을 받은 감사거리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쌀 나눔 사업, 전교인 여름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노방전도사업, 이웃과 함께 하는 음악회 등 한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양지 온누리는 김영배 담당 목사를 필두로 9개 순이 있다. 올해 6월 정식 캠퍼스로 승인돼 250여명의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양지 온누리는 여러 다양한 교회에서 온 성도들과 이천, 여주, 원주 등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오는 기존 온누리 성도들의 조화 속에서 양지 온누리만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양지 온누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ING공동체이다. ING공동체는 재수기숙사원과 연계되어 있는 재수생 예배공동체로 지역적 특

성을 고려한 공동체이다. 둘째로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시안홀이다. 양지 온누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큐티운동과 여성전도팀 역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다. 가장 먼 거리 원주에서부터 출석중인 이승혜 집사는 "원주에서 서빙고로 다니다 보니 너무 멀어 공동체 활동을 못했는데, 양지에 캠퍼스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뻐했다"며 양지 캠퍼스 소식을 받았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직 큐티, 일대일 등 온누리 정체성이 확립된 리더십이 부족하다. 김영배 목사는 "서빙고나 양재 캠퍼스의 가까운 공동체에서 1~2년이라도 순장으로 섬겨주신다면 양지 성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보내든지 가든지'란 온누리 표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성

도가 있다. 마라타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유선에 권사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유 권사는 2010년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 때, 김영배 목사에 양지 온누리 성가대를 부탁받았다. 캠퍼스를 옮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순종하고 섬기다보니 배운 것을 나눠주는 기쁨을 깨달아 갔다. 매주 50분 거리를 차로 이동해야하지만 외국 아워치 경험이 많은 유 권사에게 그 거리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다. "섬기는 자체가 너무 좋고, 그동안 훈련받은 온누리 DNA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아직은 미약하나 비전빌리지 선교센터라는 선교적 배경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양지 성도들의 씨앗이 언젠가 선교의 열매로 맺힐 것이라 믿는다" 유 권사가 말한 선교의 그 첫 번째 열매가 별

써 머물고 있다. 공동체 총무인 신동진 집사는 서빙고 캠퍼스를 출석하다 비전빌리지 선교센터가 함께 있는 양지 온누리로 옮겼다. "1년 동안 시간을 예배를 다녔다. 선교에 비전이 있어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경험을 듣고 선교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좋다. 앞으로 양지 온누리가 지역을 품고, 교회만이 가지는 특별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향해 가면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령과 기도의 바람이 양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을 믿는다" 선교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머물어 가는 '양지 온누리'. 그 속에서 성장하는 성도들의 또 다른 열매들을 기대해본다.

### 인터뷰



김영배 담임목사

##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양지 온누리의 첫 번째 비전은 지역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뿐 아니라 독거노인과 결혼가정 등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내에는 주변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돕는 공익사업인 BM(Bridge Ministry)사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티, 일대일 등을 통해 질적인

성장을 채우고,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큐티 나눔방과 일대일 양육자반이 진행되면서 말씀으로 채워진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지 온누리에는 양지 원주민, 전원주택으로 이동해 온 이주민, 한국인 이주 노동자 등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양지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온누리 시스템 양육 받으신 성도들이 선교지 간다는 마음으로 다락방이나 순장과 같은 리더십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 온누리가 세워지기까지...

1975년 추계리에 낙원 뱀엘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온누리교회 이상규 목사가 파송된다. 이상규 목사를 파송하면서 낙원 뱀엘교회는 '온누리 뱀엘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 후 1996년 그곳에 온누리 이천만훈련원이 세워졌고, 2010년 Acts29비전빌리지가 개원하면서 비전빌리지 안에 소속되어 있던 'Acts29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가 올해 6월 당원위원회를 거쳐 '양지 온누리교회'로 정식 캠퍼스가 되었다.

### 섬겨주세요

차세대 교사 모집 대상: 청년 모집부문: 예꿈, 꿈방, 파워웨이브, ING 문의: 031-331-8171

### 찾아오는 길





# 2013 선교헌금 작성!

**1월 6일, 13일**  
**목표금액 125억**

2013년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교회가 오는 1월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선교헌금 작성행사를 연다. 2013년 목표액은 125억 원이다. 2013년 선교헌금은 880명의 선교사(100명 신규파송)를 후원하고, 40여 개국에서 교회개척, 금홍사역, 교육사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선교사들의 복지 및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 선교사 안식관을 건축하고, 두란노해의 선교회 본부 건축과 통일을 대비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불러 닥친 2012년에도 온누리교회의 선교열정은 식지 않았다. 2만 8천 여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했다. 귀하게 모인 선교헌금은 68개국 764명의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었다.

장단기 선교사 95명을 신규로 파송했고, 선교사를 위한 제 2안식관



‘온누리하우스’를 개원했다.

스리랑카에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온누리국제학교가 내년 5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몽골과 니과라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들을 위한 베이스캠프가 확대됨으로 안정된 선교사역의 기반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국내의 선교단체를 지원했고, 선교지 신학교와 목회자들을 돕는데 선교헌금을 사용했다.

한편 2전선교본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 여름 아웃리치인 블레싱사하라 선교현장을 담은 선교사진전을 연다.

사진전은 서빙고를 비롯해서 모든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아웃리치 공모전에 수상된 작품과 신미식 사진작가의 선교현장 사진이 전시된다.

▶관련기사 9편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선교는 행복입니다

# 2012 선교헌금 이렇게 썼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나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단일교회로는 가장 활발하게 선교할 수 있는 원동력은 선교헌금이다. 지난해 선교헌금이 열방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였는지를 정리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1. 후원비 증액과 의료혜택

27기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의 후원비가 증액되었다. 기수별로 후원비가 증액되어 현장에서 나아진 행편으로 장기사역을 할 수 있었다.

“올 해 제 아들이 심장 질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선교사 의료지원 혜택으로 무사히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동아시아 C국 - 최00선교사

그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후쉬푸르 지역에 '사바즈 바티 비전센터(Visionary Center)'를 건축했다.

“많은 악조건 속에도 올해 6월 13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마을에 크리스천 리더가 세워지고 후쉬푸르 이름의 뜻처럼 행복한 마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 감발립 선교사

고몽골을 복음화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까지 몽골 전역에 300개의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 몽골 이철희 선교사

## 6.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신축



온누리국제학교(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는 교육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독교 차세대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남아 선교 베이스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비전을 품고 있다. 현재 360여 명의 학생이 있지만, 내년에는 5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4층 규모의 교실동 증축이 시작됐고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ANIS는 스리랑카 선교사들의 새로운 지역 리서치를 위한 교두보로서, 신입선교사 현장적응훈련인 TFO(TIM Field Operation)를 통한 선교사 훈련의 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신원석 선교사

들과 함께 'All Nations Vision Center' 개척에 배를 드렸다. 네팔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부모의 아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차세대 사역이 중요하다.

“센터 오픈과 함께 교회개척과 건축, 지방사회 사역자훈련, 차세대사역, 여성사역, 아버지학교 등 많은 사역들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센터를 통해 차세대 사역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가 두란노 해외선교회 네팔사역의 서부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경근 선교사

## 2. 온누리하우스(제2안식관)



선교사를 위한 처소 'TIM하우스'에 이어 선교사 제2안식관 '온누리하우스'가 개원했다. 지난 28일(주일)에는 개원예배를 드렸다. 온누리하우스는 선교사들이 단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총 16개의 원룸이 있다.

“저는 선교지에서 자라고 공부한 MK(선교사 자녀)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한국에 돌아와 '온누리하우스'에 묵고 있습니다. TIM하우스는 장기로 머무시는 선교사 가족들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저같은 MK나 싱글 선교사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원룸형태의 숙소가 필요했는데 마련해서 기쁩니다.”

/ MK(선교사자녀)

## 4. 인도네시아 Acts 29 센터



온누리교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있는 람퐁족을 품고 섬겨왔다. 많은 선교사들의 노력과 기도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수마트라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이 현지 교회와 공유되기 시작했다. 2012년, 온누리교회는 수마트라 섬의 중심부 P시에 Acts29 전방개척센터를 세웠다.

“센터는 1층에 한국식당, 2층에 사무실, 기도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췄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훈련받고 전방개척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영적 충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 P시 사역팀

## 8. 긴급구호와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은 긴급구호, 재난구호, 지역개발 등을 통해서 Acts29의 비전을 이루고자 2010년 12월에 출범했다. 올해는 일년, 미얀마, 시리아 난민, 터키 지진 피해 지역 등에 긴급구호 활동을 통해서 고된 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섬겼다.

“긴급구호와 더불어 블레시 사하라를 통해서 연결된 아프리카의 세네갈, 르완다 등지에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5세 미만 어린이들의 유아 사망률이 말라리아나 기생충 등으로 인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약품 지원과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실시해 유아사망률을 낮추고 보건의로 서비스와 마을 재건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NGO 더 멋진 세상

## 3. 파키스탄 비전센터 준공

지난 2010년 교회 창립 25주년 행사에 파키스탄의 국가 지도자 중 유일한 기독교인 '사바즈 바티' 장관이 참석했다.故하용조 목사는 그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런데 바티 장관이 2011년 3월 과한의 총격으로 순교했다. 온누리교회는

## 5. Acts 29 Ministry Mongolia

몽골에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에 의해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 2011년에는 브리야트족 교회를 현지 지도자들에게 이양했고, 올해는 교회 개척을 낳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교회개척학교 'Acts29 Ministry Mongolia'가 설립했다.

“자부왕 아이마크에서 열린 1기 스쿨을 통해서 20명의 현지인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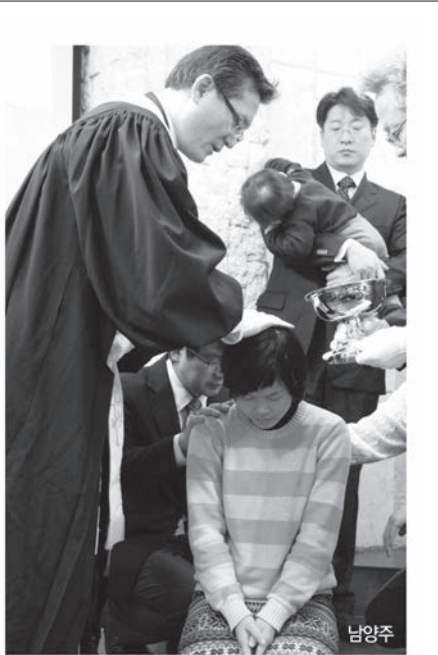
## 7. 네팔 All Nations Vision Center



올해 1월, 네팔의 서부 간지 포탈람의 중심가에 상가건물 4층을 임대하여 300여 명의 아이



01



**<남양주> 성탄 또 하나의 기쁨, 세례식**  
 “오늘 저 세례 받았어요” 지난 25일(화) 남양주 크리스마스예배, 베트남에서 온 탄티투흐엉 자매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날 탄티투흐엉 자매 외에도 성인 3명, 유아 7명이 세례를 받았다.

02

## 기쁨의 축제 함께 즐겨요

### 인천, 몽골인 전도 축제

인천 온누리가 지난주일(23일) 몽골인 전도 축제를 열었다. 이는 드림플러스 성탄예배에 20명의 몽골인을 초대해 진행한 것으로, 성탄축제를 위해 아기 성도들부터 성인까지

울동과 뮤지컬, 탭댄스, 난타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예배 후에는 초청한 몽골인들과 청년들과 함께 뷔페를 나누며 교제를 나눴다.

/ 조은실 기자

The background features several overlapping, curved bands in shades of light gray and white,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A vertical timeline is represented by two thin lines with circular markers at the top. The left line is white and ends in a white circle, while the right line is dark gray and ends in a dark gray circle. The text for the years 2012 and 2013 is positioned below these markers.

## 2012년

2012년 1월 1일~2012년 12월 30일  
883호~931호

## 2013년

2013년 1월 6일~2013년 12월 29일  
932호~981호





01

## 6일, 1일, 2013 선교헌금 작성

### CMS, 현금봉투, 이체 가능

2013년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오늘(6일)과 다음 주일(13일) 국내 캠퍼스와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올해 선교헌금 작성 목표금액은 125억 원이다.

올해 드리는 선교헌금은 860명의 선교사 후원(100명 신규파송), 40여 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회개척 사역과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집중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선교사들의 복지 및 선교사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양지에 선교사 안식관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두란노해외선교회의 본부 건축을 위한 기금 적립과 통일을 대비한 기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교헌금 작성에 참여하는 방법은 헌금이 자동이체 되는 CMS방식과

오늘(6일)과 다음 주일(13일) 예배시간에 배포되는 선교헌금 봉투를 이용하는 방식,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 중에 선택하면 된다. 교회 측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CMS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선교헌금 작성행사에는 2만 8천여 성도가 참여해 68개국 764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사역비를 지원했다. 95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신규 파송했다. 선교사 안식관도 마련했다. / 조은실 기자

02

## 온누리 선교사 안내 받으세요

### ‘1일 오리엔테이션’, 19일 묵상의 집

올해부터 온누리 선교사 후보들을 대상으로 1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이는 장단기, 후원/협력, 전문인 자비량 등 모든 유형의 선교사 후보생, 선교에 비전을 품은 성도 등 선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온누리 선교정책, 선교 훈련 프로그램 소개, 현재 선교사 요청 지역, 온누리 선교 실무자 및 리더십과의 만남 및 개별 상담

등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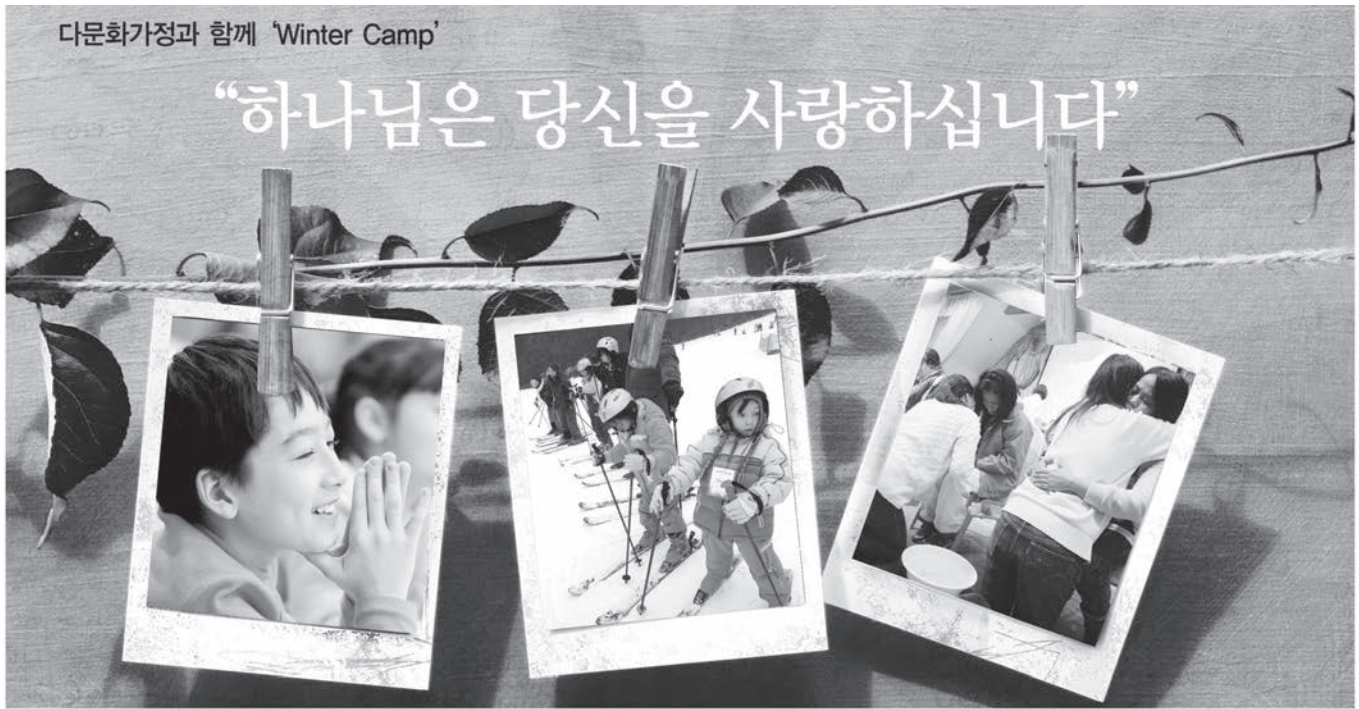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남한산성 묵상의 집에서 진행되며, 교회 출발자는 서빙고 주차초소에서 8시에 셔틀을 이용하면 된다.

온누리 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은 매년 1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이다.

문의: 오천병 간사 02-3215-3679,  
TIM 김신화 간사 02-794-1063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기획연재〉

이웃에게 사랑전하는 대학청년부

1. 사랑을 배달해드립니다
2. 오산면에 울려 퍼진 "메리크리스마스"
3.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유난히 추운 올 겨울, 온누리 청년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온기를 전하고 있다. 대청은 지난해 12월 이웃들에게 사랑을 배달하는 '사랑의 팔 나눔', 지역교회와 소외된 이웃과 성탄절을 보내는 '크리스마스 블레싱'에 이어 다문화가정과 떠나는 'Winter Camp'를 다녀왔다.

지난 29일부터 1박 2일 동안 양지파인리조트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 한 겨울캠프 이야기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대학청년부는 지난해 여름 한부모가정을 위한 캠프에 이어, 다문화가정을 위한 겨울캠프를 마련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겨울캠프에는 안산 M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받은 36가정이 참석했다. 캠프에서는 꼭 한번 스키장과 가보고 싶었다는 참가자들을 위해 스키 강습과 아이들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다문화가정 맞춤형 부부세미나, 부부 편지 읽어주기, 세족식 등의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캠프 참가자들은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은혜를 만끽했다.

‘섬김’으로 전하는 예수님

겨울캠프에서 청년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 있었다. 참석자 90% 이상이 크리스천이 아닌 다문화 가정을 위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보다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미션이었다. 청년들은 영상팀, 데코팀, 내부팀, 외부팀 등으로

나뉘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겼다. 겨울캠프의 첫 번째 일정은 다문화가족 사회활동이었다. 영상팀은 참석한 36가정을 찍고 편집하고 프린트해 액자에 넣기까지 1박 2일의 바쁜 일정을 가운데 완벽히 수행했다. 또한 마지막 날 세족식에 감동을 더해줄 가족영상을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그들의 섬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의 세족식이었다. 첫째 날의 스키와 레크리에이션으로 가족의 단합과 연합을 이뤘다면, 세족식은 깨어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청년들은 어떤 일정보다 기도로 준비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순간 상처가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에 빛이 가득할 것 같았다.

세족식 통한 사랑의 메시지

싱글인 다문화 여성과 남성 앞에 청년들이 무릎을 꿇었다. 발을 잡고 바닥에 온전히 엎드렸

다. 그것을 지켜보는 참석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으나, 이내 자신의 발을 잡고 엎드려있는 청년들의 등을 잡으며 눈물을 떨어트리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세족식과 함께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했다. 그 기쁜 소식을 알리며 그들은 함께 얼싸안고 울기도 하고 함께 웃음을 짓기도 했다. 싱글 가정에 이어 부부 세족식이 이어졌다. 서로 부끄러워하며 발을 내미는 것이 아쉬웠지만 최영민 목사의 인도에 따라 그들은 한발자국씩 예수님께 다가왔고, 닫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저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문화적·경제적·가치적인 갈등으로 깨어지는 다문화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온누리 성도들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으로 이 캠프가 생겼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참가자 가족

“외국인 남편 덕에 행복했어요”



남편이 외국인이라 이런 자리에 초청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이 이 캠프를 통해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사랑을 많이 받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고 가족이 단합되고 자녀들이 너무 행복해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스키하면서 넘어지고 영달방아

도 쯤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다문화 가정들을 만나면서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인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았습니다. / 아내 이정자

“가족과 함께한 시간”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부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아이들과 남편에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세족식이 가장 감동이었습니다. 남편 발 씻길 때, 남편의 발을 보고 하루하루 우리를 위해 일 해주는 것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아

들이 너무 즐겁게 스키를 탔고, 아들이 써준 편지도 너무 감동하였고 가족끼리 함께한 이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른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 민지원(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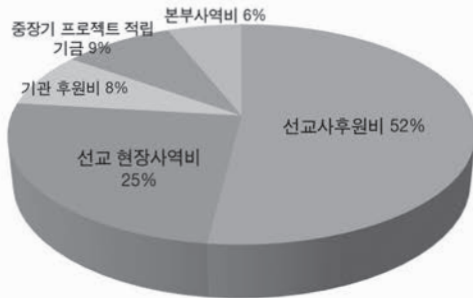
선교는 감격입니다

# 2013 선교헌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오늘(6일)과 다음 주일(13일), 2주에 걸쳐 2013 선교헌금 작성행사가 진행 된다. 2013년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과 선교현장 지원에 집중된다. 선교사 후원은 장·단기선교사 후원, 선교사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내용으로 사용되고, 선교현장 지원은 선교지 교회개척과 프로젝트, 금출사역과 교육사역 등에 사용된다. 협력기관과 선교소를, 동원사역 등을 적극 지원하고, 은퇴선교사 안식관 건립 등의 중장기 프로젝트에도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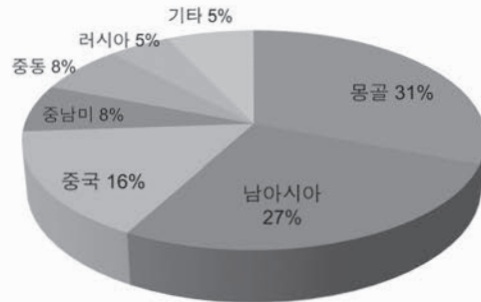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3 선교헌금



선교사 후원비(52%): 장기선교사, 단기선교사 후원과 협력 선교사, 선교사 자녀 장학금 등  
선교현장 사역비(25%): 선교지 교회개척, 프로젝트, 금출 사역, 교육 사역 등  
중장기 프로젝트 적립 기금(9%): 은퇴선교사 안식관 적립금, 통일선교 대비 기금 등  
기관 후원비(8%): MIU, SWIM, KIBI 등과 같은 은누리교회 대외의 협력 선교기관 후원  
본부 사역비(6%): 선교소를, 동원사역, 국내행정, 캠퍼스 선교 지원 등

2013 현장사역비



몽골(31%): ECC센터 운영 및 관리비, 교회개척, 학교지원 등  
남아시아(27%): 이슬람 국가 1국, B국, 캄보디아, 네팔, 리오스 등 청소년 공동체 지원비,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한 Acts29센터, 문화센터 임대료 및 운영비, 현지교회 사역지원, 두란노 및 큐티 사역 등  
중국(16%): 현지인 훈련, 장학 사역, 교회 임대료, 미전도 종족 사역비 등  
중남미(8%): 도미니카, 나카라과, 멕시코 등 현지인 신학교 운영, 교회운영, CCA학교운영 등  
중동(8%): 이슬람 국가 U국, A국, Z국에서의 문서사역, 현지 교회 지도자 대상 세미나, 교회 개척 및 센터 운영 등  
러시아(5%): 교회 사역비, 현지 두란노 큐티사역 및 현지 교회 지도자 훈련  
기타(5%)

## 선교헌금을 드리며



이재훈 담임목사

은누리교회가 창립된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켜오는 아름다운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 두 주일에 작성하는 선교헌금입니다. 하용주 목사님은 병약하여

# “선교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강단을 잘 지키지 못하시면 때문에 선교헌금 때만은 직접 오셔서 작정을 독려하셨습니다.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는 새해가 되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새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첫 주일은 강단으로부터 복과 은혜만이 선포되어 지킬 기 대합니다. 그 좋은 일만 들고 나누고 싶어 하는 첫 두 주일에 헌금을 강조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은누리 공동체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교를 선택하였고, 선교하는 한 해로 드리겠다는 결단을 해 온 것입니다. 지난 2012년에도 은누리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비전을 신실하게 계승하여 왔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는 표어대로 이 웃고 열방의 문제를 우리의 무릎 위에 두고 가슴에 품으며 섬겨 왔습니다. 이 일에 즐거이 헌신하여 동참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교는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은누리교회를 지속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주는 에너지도 선교입니다. 선교야말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며 부흥의 파도입니다. 우리는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선교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013년에도 우리에게 배푸신 은혜와 기회를 따라 무엇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 선교헌금 작성방법

1. 봉투 : 본당 헌금함에 헌금
2. CMS : 작성서 제출 후 매일 자동으로 이체(이체일: 25일)
3. 직접이체 : 하나은행/은누리교회 573-810034-09105  
\*CMS 신청방법 : 작성 후 본당 헌금함에. \*문의: 02-3215-3616, 3209

2013년 1월 6일 932호

• 01- 2013년 선교헌금 사용자 및 현장사역비 안내(11면), • 02-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인터뷰 : 이재훈 담임목사(11면)  
• 03-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선교헌금 작성 방법(11면)



\*

### 서빙고

02.793.9686

**기초 중국어 성경 모임**  
 매 주일 오전 10:30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문기 팀장(010-4369-3317)

**하카마타마키 목사반(일본어반)**  
 일시: 1월 20일~5월 5일 매주 주일  
 오전 8:20 선교관 402호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30  
 장소: 본관 1층 Shining Glory  
 문의: 민문기 팀장(010-4369-3317)

**스타트리아카데미 봉사자 모집**  
 모집부분: 바디워싱  
 장소: 인사 스타트리아카데미  
 시간: 토요일 오전 10:30~ 오후 12:30  
 문의: 박정진(010-5131-1224)

**중국어예배 봉사자 모집**  
 분야: 성가대반주, 찬양팀신디반주  
 문의: 하리유끼꼬(010-2313-0457)  
 이화(010-7756-8611)

**몽골예배 찬양팀 교사 모집**  
 분야: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문의: 박상명 간사(02-3215-3514)

### 양재

02.570.7430

**무류선교 기도모임**  
 대상: 무류선교사로 섬기기 원하는 모든 여성  
 매주 목요일 오전 10:00, 화평홀  
 회비: 3만원(점심포함)  
 문의: 김주혜 간사(02-570-7277)

**햇불트리니티 아랍어강좌 안내**  
 일시: 12월 20일~2013년 2월 21일  
 시간: 매주 목, 저녁 7:00~9:00  
 장소: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스라엘홀  
 문의 및 등록: 02-570-7563  
 E-Mail: ttcis@ttguackr.

**국내 방문 선교사용 중고핸드폰 후원**  
 내용: 선교사들이 국내 거주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3G 이상 중고 핸드폰  
 문의: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정민 (011-9114-2310)

**양재 의료선교팀원 모집(토브팁)**  
 매월 4째 주 주일 오후 1:00 양재 출발  
 지역: 오후 2:00~6:00  
 장소: 한중사랑교회 (중국동포 가리봉동)  
 내용: 미용(금), 양향방, 치과 진료, 기타  
 대상: 미용, 금수,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약사, 기타 봉사자(전공불문)  
 문의: 이학일 팀장(010-4421-6776)

### 남양주

031.565.9686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 매주 월 저녁 8:00 사이닝글로리

### 인천

032.437.9686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 2:20 3층 나눔실

### 양지

031.335.9686

**주중예배**  
 시안열방예배 화~토 오전 10:30 시안홀

### 재정

입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헌금 2차 작성

## 125억 원 목표, 1차에서 39.8%작성

지난 주일(6일)에 이어 오늘(13일) 2차 선교헌금을 작성한다. 1차 선교헌금 작성에는 10,423명의 성도가 참여해 목표액 125억 원 중 39.8%를 작성했다.

1차 선교헌금 작성 행사에 동참한 성도들의 감동적인 사연들이 밝혀져 감동을 주고 있다.

암 투병을 하며 받은 1억 원이 넘는 보험금 전액을 헌금한 성도, 타교회 성도가 낸 선교헌금, 해외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선교헌금 작성행사

에 동참한 사연 등 곳곳에서 선교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내왔다.

선교헌금은 CMS 또는 현금 봉투, 직접이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교회 측은 지속적인 후원을 위해 CMS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CMS후원은 자동연장 되지만, 작성서 연장란에 체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작성방법: 현금봉투(헌금함), CMS(작성서), 이체(하나은행/온누리교회 573-810034-09105)







잃어버린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부터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버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머리와 가슴이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요나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

요나는 니느웨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순종을 배웠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을 듣든지 말든지 신경쓰지 않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의 예언을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결단한 순종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지 않았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이만 그곳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곳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나처럼 머리와 마음이 분리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악하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선교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데 복음을 전한 사역자의 마음에는 미움과 분노 같은 게 가득한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동생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형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들은 머리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지만 마음

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는 형처럼 요나도 매우 기분이 상하고 화가나 있습니다.

**주님 뜻이 기쁘지 않은 요나**

요나가 몹시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가슴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작은 것에 쉽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싫어하면서도 자신을 시원하게 해주는 넉넉하냐에 심히 즐거워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지 못하면서 자신에게 이로운 한 가지에는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분열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이유**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폭풍, 큰 물고기, 넉물, 벌레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넉물을 벌레가 먹게 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화가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자 그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그 넉물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4절).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넉물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9절).

이 때 요나는 선교를 마치고 성 도편에 올라가서 앉아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넉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넉물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이상한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모든 종류의 분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사람에게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분노도 많습니다. 지금 요나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사역자가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지 못하면 살속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우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넉물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 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족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1-12절).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냅니다. 요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도 침묵했고, 마지막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 육신에 시원함을 주는 무엇인가의 유무에 따라 감정이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나라와 내 살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진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질문으로 믿고 답변해야 합니다.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멀리 떨어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악한 성읍일수록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끼는 영혼들을 우리도 아끼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종족과 영혼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끼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는 음성 듣고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온 열방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일러스트 윤종은 janehome@naver.com



# 선교로 시작해 선교로 끝났다

## 2013 패션

2013 패션은 선교사적 삶을 결단하는 도전의 장이었다. 국내외에서 모인 2,600여 청소년들이 선교 비전을 가슴에 품는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지난 5일 경기도 파주영산수련원에서 시작된 2013 패션(Passion)이 9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13일) 막을 내린다. 2013년도 패션집회 현장을 담았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 2013 패션 강사 어록



“청소년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선교사로 파송받는 꿈을 꾸십시오.”  
/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우리의 깨진 마음을 빚어 가는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 박길호 목사(지구촌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이성호 목사(문미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 김연약 선교사(인터뷰)



“꿈과 비전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 박승재 목사(파워웨이브)

## 2,600여 청소년에게 선교 비전 제시

### 뜨거웠던 집회 현장

지난 8일 2차 패션집회 현장. 집회장 입구부터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집회가 시작되기만을 기다리는 청소년들의 표정에는 부푼 기대감이 엮여 있었다. 강추위 속에서도 누구하나 흠여짐이 없었다. 집회에 함께 참석한 자제들이 느끼는 추위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다. 패션(Passion)이 시작됐다. 두 손을 들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소년들은 전국 각지에서 초청된 농어촌교회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의 찬양 열기가 얼마나 뜨겁던지 집회장은 삼시간에 열광의 도가니로 변

했다. 청소년들의 기도는 강렬하면서도 애절했다. 뜨거운 집회 열기는 속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쉽사리 식지 않았다.

### 선교를 말하고, 선교를 듣다

2013 패션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선교에 대한 꿈과 열정을 심어주는 것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혔을까. 집회 현장에서 패션에 참가하기 위해 중국에서 온 이효진 이사장(중국정주국제학교)과 최하은 학생을 만났다.

“패션집회에 참석한 것은 올해가 4번째입니다. 집회의 매력에 흠뻑 빠져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매년 패션에 참석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는 이효진 이사장(정주 국제학교). 그에게 패션집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물었다.

“패션은 청소년들을 변화시킵니다.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매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패션집회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최하은 학생이 패션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싶으며 거든다.

“이번 패션에서 또래친구들과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야기 할 수 있어 무척 좋았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2013 패션에서 청소년들은 선교를 말하고, 선교를 들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동안에도 청소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02

## 인터뷰



노희태 목사 (차세대 본부장)

### 2013년 패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2013년 패션은 선교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선교의 방향과 하나님의 선교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선교'가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 “선교와 양육에 힘쓰겠습니다!”

차세대가 현장(학교, 교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선교는 큐티모임, 중보기도모임, 예배모임 등을 만들어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역자-선생님-학생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양육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한명의 학생-선생님-친구들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번 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2013년 차세대 시역 방향은 무엇입니까.

“2013년 차세대의 비전은 돌봄 목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100명의 선생님이 있고, 1명의 아비가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중에도 아이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아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는 한해를 보낼 것입니다. 차세대는 선교공동체입니다. 2013년도에는 선교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이전 시기(초등학교 3-4학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시역을 진행할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수요어머니기도회를 확대해 청소년 이전 시기의 부모님들이 청소년기를 준비할 수 있게 도움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교사 양육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수 많은 아이들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교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질의 교사를 양육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양질의 교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사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과정을 통해 교사들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게 할 예정입니다.”

01

**TV 추천 프로그램**



▷ GMAN 선교포럼  
- 1/18(금) 오후 5시30분  
농축산 선교와 에이즈환자 전문 선교라는 주제로 태  
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전문인 선교포럼입니다.

02

**〈후원방법 안내〉**

2선교지안테나설치 후원  
선교지에안테나설치 후원을 통해 영적 양식을 선물합니다.  
-문의: 02-796-1118



01

## 선교헌금 73억 6천만 원 작성

### 선교사 후원, 사역비 지원 등에 사용

2013년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1만 5,925명의 성도가 참여해 73억 6천만 원을 작성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선교헌금 작성행사에 참여한 성도 중

71.2%가 CMS방식을 선택했다. 헌금 봉투에 비해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작성된 선교헌금은 선교사

후원, 선교현장 사역비, 중장기 프로젝트 적립기금, 기관 후원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선교헌금은 CMS와 봉투,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계속할 수 있다. 문의: 3215-3616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 선교사 파송

- 정준모/정혜진(장기) - 니카라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예배자가 되기를
- 천주영(장기) - 동북아시아 A국  
-기도와 말씀묵상을 통해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 유경민/유재한(갈렙) - 아이티  
-아이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 존임/그레이스함(전문인자비량) - 동남아시아 C국

- 넓는 땅마다 주님의 것이 되기를
- 윤석왕/이은미(전문인자비량) - 프랑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 이영훈/김복녀(전문인자비량) - 일본  
-문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 ■ 일반사역자 파송

- 서미란 - 동아시아 A국  
- 날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깨닫기를

01

산타모니카



## 선교의 선한 열매 맺혀

### 쥬빌리 일본인교회 선교헌금 전달

산타모니카 차세대(꿈팡, 파워웨이브)가 지난해 12월 2일 토론토에 위치한 쥬빌리 일본인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본인교회로의 아웃리치는 교제를 통한 섬김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파워웨이브는 찬양인도로 예배를 돕고, 꿈팡은 교

사들과 함께 준비한 특훈을 선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배 후에는 일본인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아웃리치팀은 차세대들이 손수 제작한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 수익금을 쥬빌리 일본인교회에 선교헌금으로 전달했다.

카타노 미노루 목사(쥬빌리 일본인교회 담임)는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의 아웃리치는 성령안에서 언어의 높은 장벽을 허무는 선교운동이라며 선교헌금을 유익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혜 전도사(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는 “아웃리치를 통해 선교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주상 통신원

02

## 아이티 아웃리치

### 전교인 선교사 꿈꾼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18명의 성인과 청년들이 중남미 아이티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아이티 아웃리치는 성탄절 시즌을 맞아 성탄의 참 의미를 전하는데 주력했다.

아웃리치팀은 아이티에 있는 은혜고아원을 찾아 고아원 외벽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앞으로 고아원에서 자라나게 될 아이들에게 소중한

선물을 선사했다. 또한 여름성경학교(VBS)를 개최해 하루 평균 250명의 아이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참 의미를 찬양과 율동, 미술활동과 놀이 등을 통해 배웠다.

아웃리치팀은 여름성경학교(VBS)를 마치고 주변 지역의 가정을 방문해 간단한 의사소통과 티셔츠, 스낵 등 선물을 전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현지인들을 섬겼다.

/ 전다영 통신원

2013년 1월 20일 934호

- 01-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차세대팀 쥬빌리 일본인교회 아웃리치(11면)
- 02-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아이티 아웃리치(11면)



## “그물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현장”

보스톤 온누리와 뉴저지 온누리 아웃리치팀이 요르단으로 향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약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마프락시. 그곳에서 시리아 내전을 피해 피난 온 15가정을 만났다. 아웃리치팀은 4개 조로 나뉘어 음식을 들고 그들을 찾았다. 구제를 겸한 방문이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했다. 짧은 일정 탓에 다음 날 떠나게 되었지만 피난민들이 잊히지 않았다. 다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떠나 질 않았다. 피난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지내던 중 유럽 출장이 생겼다. 이때 다 싶어 시리아 피난민들을 섬길 계획을 세웠다. S선교사님께 연락을 드려 3일 동안 피난민 100가정을 방문하겠다고 했다. 짧은 시간동안 100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들을 향한 열정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중에 피난민을 위한 사역자를 세워 시리아 내전이 끝날 때까지 피난민 300가정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고, 양육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요르단 모처에 피난민들을 합숙훈련 시킬 선교센터도 확보하였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재정 도움을 줘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 피난민 사역 현재 진행형

현재 시리아 피난민선교팀이 전도 중인 피난민 100여 가정에 이른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했고, 크리스마스에 시리아 피난민을 대상으로 3일



동안 겨울 성경학교도 열기로 했다. 드디어 지난해 12월 17일 뉴욕/뉴저지 온누리 성도 8명, 보스톤 온누리 성도 4명이 한달 전 파송된 사역자들과 함께 요르단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피난민 가정 방문, 영화상영, 성탄선물 나누기, 어린이 200명과 성인 30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사역의 열매도 풍성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영접기도를 했다.

기도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기적과 같은 일이 말이다. 성인들도 우리가 준비해간 아랍어로 된 찬송가를 들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하나님은 그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셨다. 아직도 시리아 피난민 사역은 진행 중이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피난민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 K 성도(뉴저지 온누리교회)

오사카

##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다

### 안수집사 임직예배

지난해 12월 14일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번 임직예배에서는 총 8명(일본인 3명, 한국인 5명)이 하나님을 주신 직

분을 받고 헌신할 것을 서약했다.

이날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임직자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메시지를 전했다.

/ 김지연 통신원

### “일본복음화 위해 섬기겠습니다”

2007년 동생 부부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들은 설교가 많은 저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화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의 말씀은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해 6월, 세례를 받고 매일 새벽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안수집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특히 일본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나가오카코코 자매(長岡京子)



## 내가 찾던 바로 그 선교

### 선교사 후보생 위한 오리엔테이션

여호수아공동체 김현정 자매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고 싶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19일(토) 두란노 빌딩에서 진행된 온누리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이 자매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었다.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가 되려면 성도 2명 이상을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반기에 OSOM훈련을 받고 싶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후보자 50여 명이 모였다.

6시간 동안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교부서 리더십들이 온누리교회 선교정책에 관한 강의를 하고,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가 되는 과정을 안내했다.

선교사 후보자 이주희 권사는 “전문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 선교에 대한 비전이 희미했는데 이제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 이주민 위한 수련회 섬기자!

## 온누리미션, 자원봉사자 모집

설 연휴를 맞아 이주민들을 위한 수련회가 진행된다. 방글라데시에 배의 16개 예배공동체 소속 이주민 8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수련회는 오는 9일(토)부터 11일(월)까지 진행된다. 수련회는 각 예배의 영적부흥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네팔 예배공동체는 네팔인 새신자 300명을 초청해 전도집회를 연다. 설 연휴동안 이주민들의 영성 회복과 섬을 위해 펼쳐지는 수련회를

위해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중보기도와 예배 섬김, 워십댄스, 레크리에이션, 안내, 운전, 주방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양욱진 사역자 (010-3937-3927)  
후원: 하나은행 573-810031-74605, 온누리교회온누리미션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 온누리미션 수련회 일정 및 자원봉사 분야 ■

공동체	일시	장소	봉사 영역
미얀마	2월 9(토)-10(일)	온누리M센터1	
플러스 동티모르	2월 9(토)-10(일)	Star tree	식사준비(2명)
중국	2월 9(토)-10(일)	Star tree	
태국	2월 10(일)-11(월)	대부도 펜션	운전(1명)
베트남	2월 9(토)-10(일)	대부도 펜션	운전(2명)
캄보디아	2월 9(토)-10(일)	온누리M센터	주방봉사(3명)
러시아	2월 8(금)-11(월)	살롱 유스호스텔	
필리핀	2월 10(일)-11(월)	대성리 펜션	
스리랑카	2월 9(토)-10(일)	대부도 펜션	운전(1명)
방글라데시	2월 10(일)-11(월)	온누리M센터2	워십댄스 스킷드라마(8명)
몽골	2월 9(토)-10(일)	팀수양관(불광동)	어드벤처도우미, 예배섬김, 워십댄스(10명)
아랍	2월 10(일), 11(월)	서울	
네팔	2월 9(토)	동대문 초원교회	안내, 예배섬김, 배식봉사(10명)

02

## 당회소위원회 명칭 변경

당회소위원회 명칭이 변경 되면서 12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게 되었다. 신설된 분과위원회는 선교, 대외협력, 미래성장, 사역조정, 디자인건축이다.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명/위원장/위원)

- ▷인사/박종길 / 반태효, 신기섭, 명영찬, 문창호, 정문규, 정학영, 정과중, 최득린
- ▷비전교회협력/강신익 / 박종길, 도육환, 허원희, 나영욱, 송일섭, 신무환, 윤영섭, 윤형주, 이길수, 이석일, 임호열, 장우진
- ▷재정/정진호/신기섭, 남상길, 남상욱, 박상송, 박형민, 송영범, 유형, 이동희, 정운오, 한규중
- ▷장학/김석인/이기원, 김철주, 문성기, 문영기, 박영태, 유병진, 한양희
- ▷제도개선/정운섭/신기섭, 강의선, 김명현, 김용기, 우승구, 윤현덕
- ▷감사/정운오 / 김종성, 박흥균, 배기영, 성창섭, 신무환, 심길섭, 유형, 임광순, 조창구, 하성기
- ▷캠퍼스협력/정학영 / 박종길, 신기섭, (부천:홍기명), (수원:김기호), (대전:김승열), (남양주:박덕현), (평택:김명중), (인천:김기영), (강동: 이무웅), (양지:정영열)
- ▷선교/정대서 / 도육환, 이상준, 강신익, 강철호, 김광동, 김병순, 김재일, 박대호, 신현승, 이광형, 이승배, 이재규, 전영수, 차준환, 홍덕표
- ▷대외협력 / 송일섭 / 권영석, 김효구, 남명현, 백남인, 송영범, 심창구, 양호승, 이동희, 정병균, 홍범식
- ▷미래성장 / 박순길 / 박태영, 노흥규, 박현규, 배기영, 심희돈, 윤영각, 이관수, 이기증, 임병수, 홍성호
- ▷사역조정 / 양유식 / 강영재, 권오습, 권오혁, 신학철, 심길섭, 오성훈, 이백용, 이은일, 이해달, 장규환, 정영기
- ▷디자인건축 / 김종성 / 김석인, 박흥균, 유재홍, 유형, 한백진, 조영상, 김복균





지난달 26일 선교 리더십들이 Acts29 비전빌리지에 모여 2013년 2천선교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 2013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 10대 선교과제 선정 및 선교방향 발표

“온누리교회의 심장은 선교입니다” 선교 리더십 28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2013년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에서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장)가 온누리교회의 정체성을 힘주어 말했다.

지난 1월 26일(토) Acts29 비전빌

리지에서 열린 비전컨퍼런스에는 국내 10개의 캠퍼스 및 선교 5대 기관 및 협력단체들이 참석했다. 2013 온누리 선교 방향을 이해하고 선교동역자로서 정체성을 재인식하고 연합하는 자리였다.

이날 선정한 2013 선교 10대 과제

는 전방개척 및 미전도종족 선교확대, 복음통일시대의 선교준비, 블레싱 코리스포라, 비전빌리지 선교종합센터화, 선교복지제도의 확대, 선교적 교회화, 함께하는 선교운동, 맞춤형 선교 동원, 온누리선교 국제화, 선교현장 기지 구축 등이다.

/ 조은실 기자 ces@onniri.org

01

■ 선교사 파송 ■

류은유/김겸손(동북아시아 A국)	JANET(서남아시아 B국)
김하빈(동북아시아 B국)	문하사(서남아시아 B국)
김시몬/고은유(캄보디아)	이주안(서남아시아 B국)
다니엘/한나(동북아시아 A국)	도론(서남아시아 B국)
바나바(서남아시아 A국)	JENICE(서남아시아 B국)
장드보라(동북아시아 A국)	조사랑(동남아시아 A국)
박로데(서남아시아 B국)	오정모(동남아시아 A국)
정라헬(니카라과)	신다윗(동남아시아 A국)
루디아(북아프리카 A국)	다니엘(동남아시아 A국)
손시안(북아프리카 A국)	최크로스(동남아시아 A국)
KAYLA(서남아시아 B국)	두란노(동남아시아 A국)
조은비(서남아시아 B국)	한여름(동남아시아 A국)
김사랑(서남아시아 B국)	

02

아부다비

## 청년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 시리아 난민 캠프 비전 품고 돌아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청년부가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 캠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청년부 아웃리치팀은 아부다비 CGNTV에서 방영한 마이키의 중동이야기, 윤창근 장로의 시리아 난민 캠프 가족 아웃리치 간증을 통해 아웃리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특별 헌금과 난민들을 위한 의류 후원 등으로 출발 전부터 아웃리치의 열기는 달아올랐다. 아웃리치팀은 4박 5일간의 일정 속에서 요르단 현지의 선교사들, 시리

아 난민들, 요르단의 고아와 과부, 요르단 한인교회 입당예배를 위해 특송<그 사랑이>과 아랍어 찬양(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감동, 도전을 심어주었다. 또한 그림그리기, 기타 가르쳐 주기, 핸드크림 발라주기 등을 통해 시리아 난민아이들과 친구가 되었다. 여행을 좋아해 참석한 최슬비 청년은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만끽했으며, 안혜은 자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가수가 되고 싶다는 비전을 품었다. / 최서우 통신원



강 동

# “먼저 받은 사랑 나눠드립니다”



## 다문화가정 초청, 설맞이 나눔 잔치

“미소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2일(토) 강동 캠퍼스는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 50여 명을 초청해 설맞이 나눔 잔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23일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미소가족과 함께하는 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꾸며졌다. 미소가족이란 바라만 보아도 미소가 나오는 아름답고 소중한 가족이란 뜻으로, 다문화 가족을 부르는 강동 은누리만의 표현이다. 참석자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교제를 나눈 뒤 성인들은 꿈아이홀에 모여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율

놀이 등으로 친목을 다졌다. 어린이들은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놀이 프로그램(놀이 치료)을 통해 동대문 놀이, 솜 공 붙여 떨어뜨리기, 로션 발라주기 등을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오후 4시부터 열린 행사는 이후 저녁식사, 어린이 장기자랑, 환송의 순으로 마무리되었다.

초청된 다문화가족들은 “놀이 치료와 장기자랑 순서 등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교회에서 꼭 다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원준 목사(강동 캠퍼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사랑에 빛진 자이다. 먼저 주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랑의 빛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인터뷰

## “사랑 전하는 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해서 강동 은누리교회를 알게 되었고, 지난 성탄절 행사와 이번 설맞이 나눔 잔치에 모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힘들고 아픈 마음을 풀어주고 진정으로 보듬어주는 곳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지만 기회가 된다면, 저 또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지영옥 자매(중국)



01

네이퍼빌시카고

이재환 선교사 초청  
선교컨퍼런스

지난달 4일부터 6일까지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가 이재환 선교사 (Acts29 비전빌리지)를 초청해 선교 컨퍼런스를 열었다. '선교는 미스테리아다'를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수현 자매는 "선교사로 준비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 전희동 통신원

02

Pole2-대만

“대만 친구들 열정 최고예요”

대만에 오게 되었는데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낯선 친구들과 영어, 중국어도 못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와줄 일이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됨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되는 영어로 어떻게든 우리가 대화하려 할 때 신기하게도 의사소통이 조금씩 됨을 느꼈습니다. 사역 가운데서도 기쁨이 가득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는 것을 힘들어하던 제가 '你好(니하오)' 하면서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광전도 했던 분이 전도 집회인 코리아나 나이트에 온 것도 감동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보니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습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준 것보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믿음, 아이같이 깨끗한 믿음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지체가 허리가 아파서 서있는데 모두 그녀에게 가서 손을 올리고 계속 5-10분 동안 기도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열정을 계속 간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 아웃리치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받았습니다. 찬양을 실력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새로웠고 매순간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 정



말 감사드리고 동행해주신 예수님, 인도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Ignite 집회 때도 650명이 안 모이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근심과 걱정,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와 간구하는 것만이 답임을 느꼈습니다. 하루 하루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워십도 예배고 주를 온몸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감으로 느껴졌

지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재물잔치를 한 것인데 정말 제가 은혜롭게 기쁘게 주님을 즐거워하며 해야 한다는 것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워십, 이렇게 놀랍고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매순간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로운 내 영혼 주 안에서 뛰놀리!

/ 한경훈(Pole2공동체)



01

이스라엘 비전트립

## “하나님이 준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19일(토)부터 27일(주일)까지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비전트립 모집공고를 봤을 때는 마음이 반신반의 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직접 봄으로써 성경을 좀 더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녀왔다고 자랑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후 바쁜 일정 때문에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패선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후에 한국을 떠난다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가다니, 전날 짐을 챙기는 동안에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9일 오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명한 하늘을 향해 이륙할 때에야 비로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동안 비행해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자 뜨거운 열기가 성령 다가오자 여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가이드 분께서 주의해야 점과 이스라엘의 특징을 이야기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코사뻬에 의해 육류는 발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섭취할 수 있으며 어류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성지와 교회, 그리고 유적지를 방문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성 안나 교회, 마사다 요새, 가이사라, 텔 단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아 돌로로사(십자가의 길)에서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걸었던 길을 다시 밟을 내던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 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가는 길마다 상술이 넘쳐났고, 마지막 성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몸만 닿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소문이 퍼져 향유를 바르고 향을 피우며 키스를 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성전의 판매대를 뒤집고, 재찍을 휘둘러 상인들을 내쫓은 것처럼 이런 모습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텔 단과 고

라신이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멸망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사람이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이 세상의 신인 양 평평거리고 살면 분명 재앙이 내려올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국에 도착해 다시 세상에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이스라엘이 많이 그립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알게 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찾은 사람들이 순례자의 시선이 아니라 여행자의 시선으로만 성지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아쉬움이 컸습니다. 순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면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이스라엘 비전트립을 통해서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례자의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명령과 언약에 대해 사명감을 갖게 된 비전트립이었습니다.

/ 홍예지  
(서빙고 중등 2부)



02

Passion

## “방언과 성령충만 받았어요”

처음 파워웨이브 예배를 드린 날 처음으로 패선집회에 갈 수 있게 됐다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소그룹 모임에서 선생님께서 패선 집회 갈 사람을 물어보셨고 저는 등록이 됐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엄마는 “때론 갈 수 있는 일이니 다음 번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꼭 참석하고 싶어서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패선에 꼭 참석하는 것이 유일한 것이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O, X”로 가르쳐 달라고 기도드렸고 “O”가 나와서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패선에 참석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고 낯설었습니다. 둘째 날은 설교도 재밌었고 반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식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선생님들께서 속수로 오셔서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많은 아이들 중 저 혼자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집회 때 먼저 방언 받은 하영이 언니와



민이가 2층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운데 무릎 꿇고 앉게 하고 선생님들과 하영이 언니, 민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언을 받았고 곧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저의 기쁨은 맑고 시원한 파란 가을하늘이 마음에 가득 들어온 것처럼 시원했고 지금 죽어도 천국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만 계속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연약한 저를 선택해 주시

고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주심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방언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지 이삼일 만에 방언과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새벽 4시가 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는데도 몸이 부-웅 떠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자고 일어나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잘못도 방언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방언 기도를 드렸더니 방언 기도가 잘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방언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Sena 큐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 배아연  
(인천 중등부)



2013년 2월 17일 937호

- 01- 이스라엘 비전트립 보고 : 홍예지 자매(서빙고 중등2부)(10면)
- 02- (2013 Passion) 집회 보고 : 배아연 자매(인천 중등부)(10면)

01

**후원방법안내**

**1.CGNTV방송사역후원**

- 1) 정기후원
  - CMS자동이체: 매달 5일, 15일, 25일 중 택일하여 결제
  - 문의: 02-796-2243
- 2) 일시후원
  - givecgntvnet에서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후원이 가능합니다.

- ARS 후원: 060-700-1660 한 통화에 5000원이 후원금으로 결제됩니다.

**2.선교지안테나설치후원**

선교지에 안테나 설치 후원을 통해 영적 양식을 선물합니다.  
- 문의: 02-796-1118

\*

**서빙고**

02.793.9686

**화요선교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20 한동홀

**온누리미션(외국어예배)**  
**인산 온누리M센터-주일예배**  
오전 11:00 열광 다민족 예배(1층)  
오전 11:00 다문화 꿈방 예배(3층)  
오전 11:00 캄보디아예배(4층)  
오전 11:00 러시아 예배(처소 2층)  
오전 11:00 몽골 예배(처소 4층)  
오후 2:30 스리랑카 예배(4층)  
오후 4:00 필리핀 예배(처소 2층)  
오후 5:30 방글라데시 예배(처소 4층)

**서빙고**  
오후 1:00 한글학교 (본관 B101호)  
오후 2:30 네팔 예배 (선교관 402호)  
오후 2:30 몽골 예배(선교관 401호)  
오후 2:30 러시아 예배 (선교관 302호)  
오후 2:00 아랍 예배 (본관 B102호)

**평택**  
오전 11:20 몽골 예배 (지하1층교육관)  
**인천**  
오후 2:20 몽골 예배(기쁨홀)

**기초 중국어 성경 모임**  
매 주일 오전 10:30 선교관 1층 커피숍  
문의: 민문기 팀장(010-4369-3317)

**홀스테이 모집**  
내용: 일본인 신학생(남성)이 온누리 교회 일본어예배 파트교역자로 체재하는 중 홈 스테이를 제공해 주실분  
문의: 박민경 간사(02-3215-3702)

**두란노해외선교회 재정/영상 담당 간사 모집**  
모집인원: 재정간사 1명, 영상간사 1명  
업무: 선교회 재정관리/영상제작  
규정: 주5일 근무(월~금), 4대보험 적용  
제출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02-794-1063)

**온누리미션 간사 모집**  
내용: 1명  
업무: 행정 및 기획  
규정: 교회내 간사 규정에 따름(4대 보험 적용 등), 6일 근무(화-주일)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교회양식)  
문의: 김동희 간사(02-3215-3730)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일시: 매주 일요일 오전 10:30  
장소: 본관 1층 Shining Glory  
문의: 민문기 팀장(010-4369-3317)

**스타트리아카데미 봉사자 모집**  
모집부서: 바디워싱  
장소: 안산 스타트리아카데미  
시간: 토요일 오전 10:30~ 오후 12:30  
문의: 박정진(010-5131-1224)

**중국어예배 봉사자 모집**  
분야: 성가대반주, 찬양팀신디반주  
문의: 하라유끼꼬(010-2313-0457)  
이화(010-7756-8611)

**몽골예배 찬양팀 교사 모집**  
분야: 드럼, 베이스, 어쿠스틱 기타  
문의: 박상명 간사(02-3215-3514)

**양재**

02.570.7430

**OPMS 3기(온누리전문인선교후련학교)모집**  
일시: 4월13일~6월 29일, 8월 31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4:00~9:30  
장소: 두란노서원 101호  
후련비용: 50만원(여름 아웃리치 비용은 별도)  
접수기간: 2013년 3월30(토) 까지  
후련문의: 070-7118-4810

**남양주**

031.565.9686

**주중예배**  
온누리미션예배 매주 월 저녁 8:00 사이닝글로리

**대전**

042.825.3642

**외국어예배**  
러시아어예배 오후 2:30 꿈방 303호

**인천**

032.437.9686

**주일 예배**  
몽골어 오후 2:20 3층 나눔실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 2층 비전홀

**양지**

031.335.9686


**주중예배**  
시안열방예배 화~토 오전 10:30 시안홀

**재정**

십일조 계좌 :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의땅 현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우리은행 011-023811-02-201 온누리교회  
신한은행 398-03-013049 온누리교회  
외환은행 010-33-23153-5 온누리교회  
국민은행 803337-04-000162 온누리교회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00선교본부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예멘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오후 7:00  
서빙고 B102  
문의: 김재영 집사(010-7404-2114)

**온누리전문인선교 중보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6:00 미션홀  
문의: 김중익 집사(010-6364-8423)

**네팔 중보기도 모임**  
매월 셋째주 주일 오후 2:00 강서구 가양동 한터  
문의: 박진영(010-6336-7723)

**과학기술선교 중보기도 모임**  
매주 주일 오후 4:00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류완철 집사(010-7227-3623)

**외국인 유학생 선교팀 중보기도 모임**  
매월 2, 4주차 월요일 오후 7:30 선교관 201호  
문의: 김준연 총무 (010-2277-6106)

**파키스탄을 위한 기도모임**  
매월 둘째, 넷째 (토) 7:30  
서빙고 신관 202호  
문의: 최영재 집사(010-2271-4898)

**마그레브 선교 기도 모임**  
매월 둘째, 넷째 (월) 오후 7:00  
아론홀, 홀홀  
문의: 박찬명 형제 (010-9667-0406)

**화요 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 오후 7: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2000선교본부 (02-795-9085)

**Why Mission?을 위한 기도모임**  
매주 토 오전 6:50 서빙고 401호  
문의: 허은아 간사(3215-3644)

**인터넷 중보기도 모임**  
매주 수 오후 6:00 서빙고 홍보실  
월례모임: 토 오전 6:30 서빙고 B102호  
문의: 민문기 집사(010-4369-3317)

**선교를 위한 월요 중보기도모임**  
매주 월 오후 1:0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주형 집사 (010-2723-1689)

**선교를 위한 목요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 오전 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이수연 집사(010-3243-8786)

**이스라엘 선교 중보모임**  
매주 금 오후 7:00 서빙고 Acts29홀  
문의: 이희준(010-2739-3086)

**소아시아 중보기도모임(터키)**  
매주 월 오후 7:30 서빙고 Acts29홀  
문의: 선우혜정 (010-8706-6892)

**아프가니스탄 중보기도모임**  
매주 화 오후 1:00 서빙고 선교관 201호  
문의: 유정경 집사(010-3341-8778)

**티벳 중보기도모임**  
매주 월 오후 1:00 207호  
문의: 이인희 집사(010-5082-1758)

**몽골 우루무치 중보기도모임(몽우모)**  
매월 둘째주 오후 2:00 김포 디래옥  
문의: 강호중 집사(010-9912-9934)

**남아시아 중보기도모임(SAM)**  
매월 셋째주 월 오후 7:00 서빙고 옮기도실  
문의: 홍범식 장로(011-278-0466)

**멕시코 |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 화 오전 6:00 서빙고 옮기도실  
문의: 김철주 장로(010-8980-6167)

**필리핀 보홀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 월 오후 7:00 서빙고 옮기도실  
문의: 조오현 집사(010-5526-2227)

**하니족 중보기도모임**  
둘째주 월 오후 7:0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김윤식 집사(011-793-9772)

**이수공동체 선교사 중보기도모임**  
셋째주 토 오전 10:0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예상욱 집사(010-6533-3314)

**아프리카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토 오후 2:00 서빙고 순형홀  
문의: 김태환 집사(010-2242-0516)

**러시아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주 월 오후 7:30 서빙고 201호  
문의: 김선(010-2356-8932)

**중동 중보기도모임**  
마지막주 월 오후 7:00 서빙고 아론기도실  
문의: 전병제 집사(010-5249-7056)

**인도네시아 람퐁족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화요일 아론, 옮기도실  
문의: 김진환 집사(010-9001-7312)

**아제르바이잔 중보기도모임**  
매주 토 오전 6:00 서빙고 꿈터  
문의: 양의천 집사(011-228-3833)

**인도 중보기도모임**  
매월 둘째주 월 오후 7:30 양재2층 꿈터  
문의: 조영철 집사(010-8793-9921)

**아천선교CHE(지역개발선교)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전 6:40 서빙고 미션홀  
문의: 장기홍 집사(010-6285-4382)

■ 두란노 해외 선교회(TIM)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매월 셋째주 목 오전 10:30 서빙고 302호  
문의: 김은정 선교사(010-2996-6902)

**TIM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  
월요일 오전 10:00 서빙고 선교관 302호  
문의: 이수연 집사(010-3243-8786)

■ 키비 (792-7075,6 www.kibi.or.kr)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0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 온누리미션  
**국내이주민선교 중보기도모임**  
매주 목 오후 7:00 서빙고 선교관1층 미션홀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337-3927)



01

서빙고 마포공동체

# “맑은 눈동자, 선한 미소의 그곳을 품다”

어쩌면 아니 진심은 그랬다. 아웃리치라는 이름으로 잠깐의 휴식을 갖고 싶었다.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도우러 가는 것보다 이 같은 일(선교)을 하러 간다고 하면 며칠간 회사를 쉬면서 머리를 식히는 것이 조금은 땀땀할 줄 알았다.

아내가 작년에 다녀온 JDS의 쿤빙 아웃리치가 내게는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멋진 무용담으로만 들렸던 것 같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서 도피하여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궁금했다. 부끄럽게도 아이들을 만져 생각한 것이 아닌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택한 것이 라오스 아웃리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받아주시고 더 큰 비전을 보여주셨다.

### 아무런 정보 없이 떠난 아웃리치

라오스 사실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던 나라였다.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수준과 정치, 종교가 어떠한지 무지한 상태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다. 다만 떠오르는 것은 국제적 최대 마약재배지인 골든트라이앵글이라는 곳이 위치한 나라라는 것이 전부.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나라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선뜻 자원을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19명의 마포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1월 29일(화)부터 2월 3일(주)



일까지 4박6일 동안 라오스로 보내주셨다. 라오스에 도착한 순간, 나의 나약하고 나태한 마음이 무장해제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 오며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주변 환경과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 경제적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까지... 한없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 선한 사람들의 미소와 여유로움을 통해 우리가 찾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우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미개하고 더럽고 교육 수준도 낮은 그들이었지만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경고(전)로 넘쳐났던 한국전쟁 이후의 우리나라의 모습도

보게 하셨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생각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학교와 병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셨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세기 이후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유례 없이 빠르게 도달한 나라가 되었다.

### 복음 전하는 사도 되는 꿈

라오스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다. 나의 시간과 경제적 능력을 쫓아 아이들이 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결국 거기에 나의 길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만으로 달려 나가지는 않겠다. 지금의 굳은 마음을 갖고 일단 나를 돌아보고 준비할 것이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고 증거할 지 내 안에 있는 달란트를 갖고 닦을 것이다.

나를 둘러싸고 관계한 모든 것들은 티끌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한다.

나의 것이기 보다 잠시 맡아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받은 과분한 그 사랑을 그들에게 다시 나눌 것이다. 먼저 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도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영육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어디에서 부르시고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시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도록 간구한다.

/ 안세훈 성도(서빙고 마포공동체)



02

은누리M미션

# “물밀듯 찾아온 네팔지체들”

평소에 가족이 다 함께 봉사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은누리신문에서 본 설날 전도 집회에 가 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가족 모두 가길 원했지만 다들 바빠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전도집회 전날 다들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렇게 설날 네팔 전도집회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

동대문 창신시장 근처에 위치한 집회장소인 초원교회는 빌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의 아주 좁은 땅 위에 위치해 있어서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곳이었다. 은누리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에 많이 가보지 못한 나로서는 이런 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메마른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땅 같은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도착하니 성인들과 청년 봉사자들을 포함해 모두 스무 명 정도가 모여 있었고 안산 은누리 M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네팔 형제들이 집회 후에 있을 저녁 식사를 위해 주방에서 분주히 요리를 하고 있었다. 많은 네팔 이주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국내 선교지라 할 수 있는 동대문 지역으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사역을 위해 모인 스무 명



가림의 봉사자들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 모인 선교사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침 10시에 모인 봉사자들은 은누리M센터의 김영철 목사님과 함께 기도도 집회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성인 봉사자들과 몇 명의 청년 봉사자들이 동대문 지역으로

나가 네팔 형제들을 전도집회로 부르기 위해 길거리 전도를 했다. 나머지 소수의 청년 봉사자들은 공연 진행을 맡았고 처음 보는 각종 조명과 음향기기를 다루는 일을 맡았다. 나와 다른 두 명의 청년들, 그리고 네팔 사모님은 교회 로비에서 들어오는 네팔 지체들의 명단을 적는 일을 맡았다. 정말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물밀듯이 들어오는 네팔 형제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도 타자의 명절날에 갖 길이 없어 이곳을 찾아온 이 분들에게 연민을 느꼈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느낌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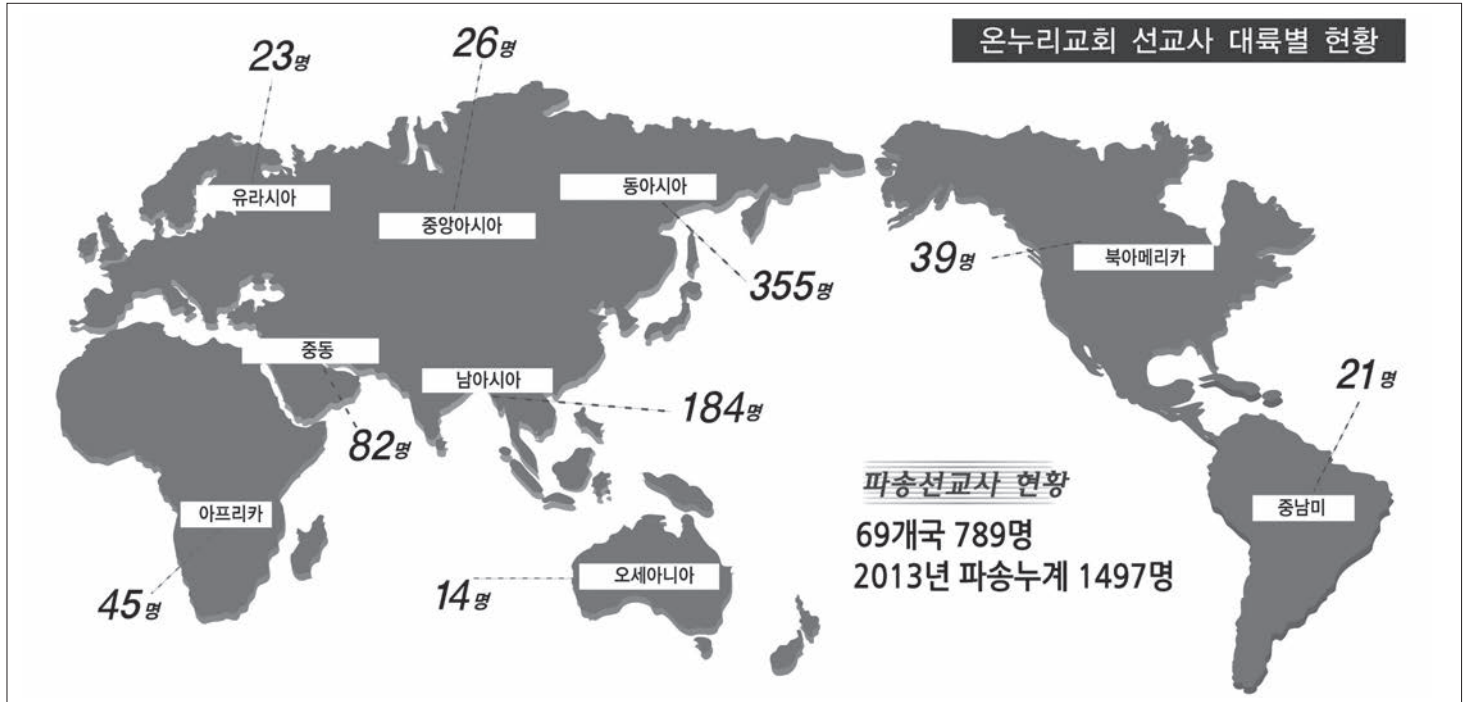
집회가 시작하고 2시간이 지난 4시까지 계속 네팔 분들이 들어오셨고 우리가 계획했던 300명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다. 또한 놀라운 일은 조명과 음향기기를 맡았던 봉사자분들도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인원으로 문제없이 공연을 진행하셨다고 한다.

정말 이번 집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충분히 모든 것들을 준비해주셨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가족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고 곳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했다. 앞으로 더 꾸준한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다.

/ 김지현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도육환 목사와 함께



# 통일 한국 시대의 세계선교를 준비하는 '이천선교'

- 지난해 이천선교 사역을 평가해 주십시오. 양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질적으로는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요.

양적으로는 100여 명의 신규 장·단기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또한 '블레싱 사하라'를 통해 서부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온누리교회의 성도들이 중보 기도의 깃발을 꽂고 예배자로 그 땅을 밟았다는 것 자체로 질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온누리교회 2기가 시작되었는데 1기에 진행되었던 선교비전(이천선교의 비전)을 돌아보았습니다. 선교비전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시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서남북 선교정책 실시**

- 2013년 온누리교회 선교사역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013년 선교사역의 방향은 이천선교의 네 가지 축인 동서남북 정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향은 '찾아가는 선교'입니다. 잃

어버린 영혼들, 즉 미전도종족을 위한 사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향은 '맞이하는 선교'입니다. 한국에는 점점 이주민과 탈북민들로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는 다양한 130만 명의 이주민들을 섬기는 사역이 바로 '맞이하는 선교'입니다. 남향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온누리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양한 선교 자원을 공유하며 '종합적 선교', 즉 '함께하는 선교'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종합적 선교는 CHE, 지역사회개발, CGNTV, SWIM 등 선교에 도구화 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최대한화시키는 사역입니다. 북향은 '통일 선교시대의 한국 선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 남북이 함께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블레싱 코리안 디아스포라'

를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블레싱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모든 선교자들이 세계선교를 함께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리바이벌 코리아(Revival Korea)'를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온누리교회의 선교가 글로벌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해 선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미전도종족선교에 집중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땅 끝까지 영혼 구령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선교 위한 기도와 사랑 당부**

-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우선 항상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금에 동참해주시고 아웃리치에 함께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선교헌금에 27,620명이 동참해주셔서 총 126억이 작성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올해 목표액인 125억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작성된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에 아낌없이 헌신하고 동참해주신 것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항상 선교를 위해 기도도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공동체의 책임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온누리 선교방향 '동서남북'**

- 동 - '찾아가는 선교'
- 서 - '맞이하는 선교'
- 남 - '함께하는 선교'
- 북 - '통일 선교시대의 한국 선교'

로, IMB(International Mission Board:남침례교회개척운동)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온누리교회가 글로벌한 선교단체들과 함께 선교비전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해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6일에도 한국교회 선교지도자들과 조찬미팅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모범적인 교회답게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한국교회와 공유하면서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Acts29 / 'Acts29센터 개원'

# '주의 손이 함께 하니 수많은



1. 수마트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기도회와 회심자들의 청소년 자녀들과 사역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공간으로 쓰일 Acts29 센터. 예절을 섬기는 전사 한 분이 센터 건립을 위한 종자돈을 헌금하였고 수원 은누리를 섬기는 한 자매가 자원해서 설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헌신했다.
2. 이경원 선교사와 인도네시아 목사가 운영하는 고아원에서 인도네시아 차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고 모두들 한 자리에 모였다.
3. 현지인 사역자들이 'Acts29 센터 개원 감사예배'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각 종족의 전통복장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레이 반도 옆에는 '향신료 제도'라고 불리는 몰루카 제도와 인도네시아가 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그렇게나 밟고 싶어 했던 '소망의 땅'이다.

인도네시아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에메랄드 목걸이다. 지금까지 1만 8108개에 이르는 크고 작은 섬들이 징검다리처럼 이어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를 '적도에 걸린 에메랄드 목걸이'라고 부른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이 넘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다.

수많은 섬만큼이나 다양한 인도네시아 종족 중에 170여개가 넘는 종족이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 이 미전도 종족 가운데 52개 종족이 수마트라 섬에 있다.

지난 6세기에 수마트라 섬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인 수마트라 섬에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복음화 섬'이다.

### '이람국에 잡혀 온 하녀'가 되어 뿌린 복음의 씨앗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한 사람을 부르셨다.

"인도네시아가 문을 열면 전 세계 이슬람 국

가가 열립니다."

자카르타 안다유국제교회 박관주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다.

지난 1991년, 하나님은 박관주 집사를 은혜 주재원으로 자카르타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슬람 복음화'란 꿈을 주셨다. 국내에 돌아 온 그를 신학공부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품게 하셨다.

박 집사는 은누리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키웠다.

1995년 6월 25일, 형제 13명과 함께 첫 예배를 드리며 경기도 안산에 '안다유국제선교회'가 문을 열었다. 18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부어 주신 그 꿈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다수 무슬림들이 회심하며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다. 은누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발렘방, 람퐁, 자카르타, 반둥, 보고르에서 '이람국에 사로 잡혀 온 하녀'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군대장관 나이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아람국가에 복음이 전해진 그 열매가 이제 약속의 땅인 수마트라 섬에 Acts29센터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었다.

### Acts29 비전 이뤄갈 '아름다운 공간'

Acts29센터가 너무 예쁘다.

3층에는 미전도종족 사역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연합 중보기도와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영성 함양을 위한 중보기도실과 일대일, 큐티 모임을 위한 카페,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위한 드림 키즈가 있다. 2층에는 세미나실과 사무실이 있다. 무슬림을 위한 전도자 훈련, 교회 개척자 훈련, 목회자 재교육, 내적치유, 아버지학교, 성경대학이 열리는 공간이다.

1층은 레스토랑이다. 회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2, 3층 사역공간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된다.

"이곳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기도 공간과 이곳 회심자들의 청소년 자녀들과 사역 후보생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공간을 놓고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김홍주 선교사를 비롯한 현지인 사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2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절과 대청을 보내 회복세미나를 갖게 하셨다. 예절을 섬기는 전사 한 분이 센터 건립을 위한 종자돈을 헌금하였다. 수원 은누리를 섬기는 한 자매가 자원해서 설계부터 마무리 작업까지 헌신했다.

이렇게 수마트라 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Acts29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뤄갈 아름다운 공간, 'Acts29센터'를 세워 주셨다.

###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전센터 되길'

교단과 교파를 뛰어 넘어 수마트라를 섬기는 선교사들과 서울에서 달려 온 성도들, 그리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늘찬사를 열었다.

'Acts29 센터 개원 감사예배'.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배를 진행하였다. 각 종족의 전통복장으로 찬양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은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이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바울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세워진 비전센터가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특별새벽기도회에서 3일 동안 말씀으로 하늘 문을 연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에 힘이 넘친다. 은혜가 풍성하다.

"한국에서 많은 불교 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무슬림이 있는 인도네시아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Acts29센터가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 센터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선교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saksiKU sampai ke tuju



4.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말이 되기를 기도해요" 선교사 자녀들이 이재훈 담임목사에게 사인을 받고 있다.  
5. 안산에 문을 연 '안디옥국제선교회'의 열매가 풍성하다. 다수 무슬림들이 회심하여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다.

## 인도네시아를 가슴에 품은

### '인선회'와 '안디옥선교사역'

인도네시아 선교에 남달리 열정을 쏟는 두 단체가 있다. '인선회'와 '안디옥선교사역'이다.

인선회는 1991년 당시 정부 및 기업체에서 인도네시아로 파견된 약 20여 가정이 모여 시작한 기도모임이다. 근무지가 선교 현장이다 보니 기도뿐만 아니라 후원, 선교지 방문, 선교사 수련회 참가 및 선교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의 일을 기꺼이 했다.

3-4년 후 해외 근무기간이 끝나면서 인선회 주력 멤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기도모임을 서울에서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모임은 22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인선회는 온누리교회의 토대인 한남동 기도모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안디옥사역은 1995년 인선회 멤버였던 박관우 목사(당시 신대원 학생, 현재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안산에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위한 예배 및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사역이다. 1996년 인선 연구에 예배처소를 마련하였고 수월과 평택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사역을 했다. 이 사역은 전도와 예배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 임금 체불 문

제, 불법체류자 추방 문제, 쉼터와 식사제공 문제 등 손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사역이었다. 명절에는 수련회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18년 동안 안디옥사역을 통해 2500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20여 명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목회를 하고 있다. 이곳을 거쳐 간 많은 형제자매들 중 '싼토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절단되었다. 이 형제는 그 어려운 역경을 견디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목회를 하고 있다.

인선회와 안디옥사역을 섬기던 지체 11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고, 매년 명절마다 진행되는 수련회에는 온누리교회 청년 20-30명이 봉사자로 섬기고 있다. 이들처럼 모범적인 신앙인들의 헌신이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박용국 장로

"새 영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센터, 기도하는 센터,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안디옥교회처럼 수마트라 모든 지역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센터가 되길 기도합니다." 현직인 목사들과 당회를 대표하여 정대서 장로가 축복의 메시지를 심었다.

#### 온누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

수마트라 이 지역 선교의 축은 '비즈니스 사역'이다. 대부분 모슬렘 전방 개척지는 목회자나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다. 비즈니스 사역은 전방 개척지에서 사역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자립 선교와 내부자 운동 기반을 마련한다. 그동안 민물가재 사업, 우물 사업, 양어와 양계사업, 커피 루아 사업, 고무농장 사업을 해왔다. 이제 Acts29센터를 통해 레스토랑 사업도 시작된다.

이경원 선교사와 안드레아스 목사가 운영하 는 고아원을 나와 고무 농장으로 향했다.

번잡한 시내를 벗어나자 무시(Musi)강이 나왔다. 이곳 사람들의 젖줄이다. 차장을 열자 후덥 지근하지만 산들산들 강바람이 제법 시원하다. 강을 건너 수마트라 남쪽 끝 항구까지 도로가 잘 닦여져 있다. 도로 주변에는 수세기 동안 원주민들이 강 위에서 살아온 피라미드 형태의 리

마스(limas) 양식의 집들이 즐비해 서있다.

농장에는 고무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다.

하나님이 주신 Acts29 비전이 열매 맺고 있었다.

불교계의 스리비자야 왕국이 번영하였고, 한 때는 수마트라 섬의 힌두왕국인 스리비자야의 수도였던 수마트라 P지역에는 온누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활짝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고 있었다.

오늘 개원예배에서 이재훈 목사가 선포한 '주의 손이 함께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행12:21)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현지 사역자와 선교사, 그리고 서울에서 달려 온 성도들의 한 마음을 담은 기도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센터를 개원합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집이 되게 하소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집이 되게 하소서. 이곳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편집국장 정선철 장로





하늘과 땅에서 열린 축제 현장 - 네팔 동행취재기



#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다

‘올네이션스 비전센터’ 개원 및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지만, 세계 10대 빈국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 네팔. 수만 가지 신(神)을 섬기는 이들의 영혼은 육신보다 가난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척박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리 Acts29 비전을 실현하고 계셨다. 네팔 복음화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있는 ‘올네이션스 비전센터’ 개원예배 및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예배이야기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영혼이 가난한 나라 ‘네팔’

약 800km의 히말라야 산맥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네팔은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고 있다. 경이로운 자연경관을 바라보노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다. 네팔은 석가모니의 탄생지로 불교문화의 모태이고, 불교와 힌두교의 성지이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긴다. 개, 원숭이, 소, 코끼리... 심지어 이빨과, 공부의 신도 존재한다. 그들의 나약한 육신과 영혼은 헛된 우상을 찾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희망의 불빛은 반짝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스편지처럼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올네이션스 비전센터 개원식

조경근 선교사 부부(TM소속)가 사역하는 네팔 서부 지역으로 가기 위해 카트만두에서 네팔간지로 이동하는 국내선 비행기를 탔다. 30명 남짓 탈 수 있는 경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히말라야 산맥이 경이로운 자태를 뽐냈다. 아름다운 광경에 낮을 잃고 있었더니 어느새 네팔간지 공항에 도착했다. 속도로 이동하며 본 마을 풍경은 평온했다. 넓게 펼쳐진 푸른 논밭과 짙은 밭에 덮여있는 초가집, 바구니에 아채를 내어놓고 파는 상인들, 내전에서 빨래하는 여인들. 그 정겨운 풍경을 보는 내 마음도 평온해졌다.

네팔 서부지역의 꼬랄푸르(Kohalpur)는 서부의 중심지역이다. 이곳에 지난해 1월 조경근, 브리다 선교사 부부가 Acts29비전을 이어가기 위해 ‘올네이션스 비전센터(ANVC)’를 오픈했다. 목회자 훈련과 청소년 전도집회, 지역사회 교회 개척, 어린이 사역, 불레신 꼬랄푸르, 네팔 집회 등으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다.

지난 2월 12일, 온누리교회 선교 리더십과 꼬랄푸르 지역의 현지교회 리더십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네이션스 비전센터(ANVC) 개원식이 진행됐다. 비전센터를 가득 메운 성도와 리더십들의 찬양과 기도가 40여분 동안 이어졌다. 이어 황재익 장로(온누리미션)의 대표기

도, 특순, 도육한 목사의 말씀, 김창욱 전도사의 축사, 넬 바들 목사(꼬랄푸르 지역 목회자연합회장)의 축사, 찬양, 축도, 비전센터 오픈 커팅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도육한 목사(이천선교)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개척됐다. 2012년에는 네팔 서부 친주(Chinchu) 지역에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가 세워졌다. 네팔의 가장 동쪽과 가장 서쪽에 교회가 세워져 Acts29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의 과거 예배당

하며 기도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다. 크리스천 CEO포럼(이하 CCF)에서 주최한 바자의 수익금과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가 세워졌다.

지난 2월 13일, 교회 헌당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500여 명의 마을 교인들이 모였다. 찬양과 경배로 시작한 헌당예배는 성도들의 환영의 시간. 이흥선 장로(CCF)의 기도, 특순, 김창욱 전도사의 말씀, 도육한 목사의 축사, 수룩트 지역 대표 목회자 축사, 넬 바들 담임목사 감사의 말씀, 찬송,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네팔 일정에 동행한 조은실 집사는 한국에서부터 공수한 음향기기를 후원하며 배의 은혜를 누렸다.

헌당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뒷마당에는 또 하나의 천국잔치가 열렸다. 교회 리더십과 마을 주민들이 음식을 나눴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눈빛과 표정에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네팔사람들은 낮은 이방인들에게도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건네고 함박웃음을 보였다. 경비행기로 이동하는 중에 히말라야 산맥의 여러 봉우리를 가드던 청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차를 대접한 부부 등 쉽게 마음을 여는 네팔사람들을 보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행을 집으로 초대할 부부의 남편은 과거에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마을 종교가 불교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부부는 우리에게 90세가 훌쩍 넘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일행은 손을 얹어 한 영혼과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산 속에 자리 잡은 마을에 드디어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마 9:37-38).



1. 지난 12일(화) 네팔서부 꼬랄푸르 지역의 올네이션스 비전센터(ANVC)개원예배가 열렸다. 네팔 현지 리더십들과 온누리 선교 리더십들이 함께 자이머사(송리하세요)로 인사하고 있다.

2. 13일(수), 온누리미션과 온누리성도가 후원한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예배 후 새 예배당 앞에서의 커팅식.



- 수도: 카트만두(수도권인구 약 250만)
- 공용어: 네팔어(약 120개 종족어)
- 종족: 47개, 36종족, 120여개 방언
- 정부형태: 공화정
- 면적: 147,181km<sup>2</sup>
- 인구: 2,900만
- GNP: 약 450불(아시아의 3대 빈국)

이 함께 힘을 모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 비전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식

2007년 네팔 동부 올라리리 지역에 헤브론

은 200명이 겨우 들어갈 공간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새 예배당에 대한 필요함이 간절해져 성도들은 헌금을 했고, 과거 예배당 옆에 약 50평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었다. 논밭을 경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에 대한 재정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도들은 금식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순전히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숙소는 북향이라 CGNTV 위성 신호를 잡기 어렵습니다. CGNTV를 즐겨 시청하는 저희로서는 사무실에서 잠깐 보거나 KGAM 선교 센터에 가서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기도 제목은 집에서 CGN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이사한 집도 북향이라 CGN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태국 CGNTV 책임자가 집에서 CGNTV를 시청할 수 없다는 사실은 비극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파트 매니저를 만나 위성방송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약속을 하고 얼마 후 위성 수신기 업자를 불러 손을 봤으니 TV를 틀어보라고 했습니다.

TV를 틀자 CGNTV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파트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미스터 양을 위한 것입니다.”

태국에서 외국인 선교사를 위해 재정을 들여 위성 안테나 수신 장비를 설치해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 입주민들 TV에 CGNTV가 방송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기도제목이 멋지게 이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덕훈 선교사 드림



01

## 오늘, 3월 비전헌금

오늘(3일) 서빙고와 양재에서 드리는 3월 비전헌금은 예수원(삼수령센터, 생명의 강 학교)과 기도연합회에 전달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나머지 캠퍼스에서 드린 헌금은 부천 탈북자 후원, 수원 군선교, 대전 탈북민 사역,

남양주 독거노인 및 청소년 가정지원, 평택 인도네시아 쉼터 사역 돕기, 인천 구월여자중학교에 장학금 전달, 강동 다문화가족 후원, 양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정에게 반찬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서빙고 여성사역 모집

■ 무릎선교기도학교

일정: 3월 15일~6월 14일 매주 금요일

시간: 오전 10시~오후 2시

장소: 서빙고 드림홀

문의: 이미령 사역자(02-3215-3677)

03

## 서빙고 · 양재 권사회 개강

### 서빙고, 와이미션

서빙고 권사회는 오는 3월 12일(화) 월례예배를 시작으로 힘차게 상반기 사역을 시작한다. 3월 19일(화)에는 Why Mission? 권사스쿨이 개강한다. 이번 권사스쿨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30~12시30분까지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되며, 회비는 2만원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4

### 남양주

##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

### 터키 선교사 후원 바자회

지난달 24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터키 선교사 현지교회이전 후원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바자회를 진행했다. 이번 바자회는 남양주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여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뻐했다.

판매된 바자회 품물은 멀치, 구두, 청바지, 국수, 파래전, 쏘세지, 휴리스 등 개인 애장품, 기타 생필품 등을 모아 마련됐다. 이날 바자회에는 많은 성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뤘다.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1



손수 만든 인형 선교지에 보내는

## ‘한땀 사역’에 동참하세요

하니 박 권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손재주가 남달랐던 박 권사는 여러 활동을 해왔다.

OMC(온

누리사역축제)무대장식 1기 멤버로 활동하면서 배운 솜씨로 1,000개가 넘는 코사지를 만들어 해외비전교회의 전도용품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웃교회 선물로 작은 자갈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지금은 선교사 자녀를 위한 인형을 만들며 자신의 은사를 통해 귀

한 섬김으로 이어가고 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선교지에서 생활하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타국에서 외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형을 만들어 선물을 보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해주셨고 지금은 지속적으로 만들어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인형을 손으로만 만들다 보니 어깨나 손에 무리가 올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섬김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런 박 권사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제목이 있었다.

“앞으로는 성경인물이나 노아 방주에 나

오는 동물들을 만들 계획이에요. 아이디어는 계속 떠오르는데 혼자 만들다보니 요즘에는 동역자를 붙여달라는 것이 기도제목이 됐어요. 만들고 보내고 받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 동역자를 보내주시길 믿어요.”

하나의 인형이 만들어지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한땀한땀 정성을 다해 만든다고 해서 박 권사는 스스로 한땀 사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박 권사는 앞으로 이 한땀 사역을 통해 동역자와 함께 더 많은 선교사 자녀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낼 것을 기대한다.

문의: 박경희 권사 (010-4788-056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지난 3년 동안 선교사 자녀를 위해 손수 제작한 인형을 선교지에 보내는 박경희 권사(울산공동체)를 2천선교본부에서 만났다. 박 권사는 선교지에 보내지기 전 인형들을 최종점검하고 있었다. 인형의 매부새를 다듬으며 선교지에서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

02

## 2013 CMN은 힘차게 도약 중

치료가 아닌 ‘복음’ 중심으로

“아름다운 팀워크와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뤄나가십시오”

지난 25일(월) ‘2013 스프링데이’에서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선포와 함께 올해 CMN 사역의 출발을 알렸다. 온누리 의료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CMN(Christian Medical Network)은 올해 선교사 케어를 강화하고 예방과 건강진단을 도입하는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역으로 도약할 것을 전망했다.

봄을 맞이하며 도약과 연합의 의미로 마련되는 스프링데이는 현장사역팀, 지원팀, 선교사 케어팀 등 70여 명이 참석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황중연 목사는 “우리 사역은 치료가 중심이 아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이 중심이다”라며 “2013년에는 CMN이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3년 CMN의 사역방향은 ‘연합’, ‘섬김’, ‘동역’ 이 세 가지 키워드다. 이는 8개의 현장사역팀과 7개의 지원팀의 ‘연합’, 온누리 선교사 ‘섬김’, 공동체와 함께 팀을 만들어 활동하는 ‘동역’을 뜻한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지난 3월 1일(금) 양재 이천선교 안에 소속된 스포츠선교팀 OPM(Onnuri Pingpong Mission)의 주최로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일원초등학교 강당 4층에서 제1회 온누리선교 탁구대회가 열렸다. 온누리선교 탁구대회는 선교지에 탁구대를 보내는 것을 주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선교팀은 현재 3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오후에 모인다. 또한 매번 모임 때마다 회원들로부터 모아진 회비로 탁구라켓의 나무대를 사고, 탁구레버는 후원을 받아 탁구라켓을 만들어서 탁구대와 함께 선교지로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날은 서빙고, 양재, 인천 캠퍼스 등지에서 탁구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참여해 함께 게임을 하며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

## “스포츠는 하나님의 선물”

양재 이천선교, 제1회 온누리선교 탁구대회 개최

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 만난 박명근 장로(강남C공동체)는 “탁구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봉 장로(안양평촌공동체)는 “보통 사 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탁구 경기를 하면 마음 문이 쉽게 열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할 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양재 이천선교본부는 바지현 선교사(현 국가대표탁구주니어감독)를 멘토로 세워 스포츠선교에 관련된 도움을 받고 있다. 경기를 마친 후 바지현 선교사가 탁구선교에 대한 간증을 내었다. “스포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게 스포츠(탁구)로 다가갔더니, 그들이 훨씬 빨리 마

음 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스포츠라는 도구를 우리만 즐기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한다면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탁구를 통해 성도 간의 교제가 이뤄지고 연합되어 이 ‘연합의 힘’이 선교지까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탁구대회에서 마련된 기금으로 Acts29 비전빌리지에 오는 선교사를 위해 탁구라켓과 탁구대를 보내는데 사용한다. 그리고 일부는 이천선교본부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낼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i@onnuri.org

문의: 고길범 팀장(010-3772-3686), 홈페이지: Daum카페,온누리리빙

2013년 3월 3일 939호

- 01- 손수 만든 인형 선교지에 보내는 ‘한땀 사역’에 동참 독려하는 ‘박경희 권사’(10면)
- 02- CMN(의료선교부) : ‘2013 스프링데이’ 개최(10면), • 03- 양재 이천선교 : 제1회 온누리선교 탁구대회 개최(10면)

01

### Tv 추천 프로그램



▷ CGN 비전특강 <정제순 선교사 편>  
- 3/5(화) 오전 11시  
<로베아를 찾아서>의 저자 정제순 선교사가 전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 의미입니다.

0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줄기 빛과 같은 CGNTV”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고 있는 CGNTV 애청자입니다. 중동에 위치한 이곳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입니다.

한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던 저희 가정이 15년 전 이곳에 정착할 때는 영적으로 많이 놀리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성방송을 통해 CGNTV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CGNTV의 팬이 되었습니다. 특히 심장병과 갱년기 증상으로 외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힘들 때마다 CGNTV가 유일한 친구가 되어 줍니다.

CGNTV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평신도사역입니다. CGNTV를 통해 일대일 제자훈련을 받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고단한 일상 속에서 한줄기 빛과 같았던 CGNTV.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슬람 국가에서 저희 가정이 굳건히 설수 있는 것은 CGNTV 덕분입니다.

CGNTV는 친절한 말동무이자, 훌륭한 멘토입니다.





01

## CGNTV, 동일본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동일본 대지진 2주년을 맞아 일본 CGN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우즈쿠시마(아름다운 섬) 후쿠시마 After 311’을 제목으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는 대지진 이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감동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 제작진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된 원전 인근

30km이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새로 교회를 세우고 있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구슬땀 흘렸다. 이 감동적인 다큐는 3월 중순경에 한국CGNTV로도 볼 수 있다. 오는 6월에는 후쿠시마 지역의 회복을 바라는 콘서트도 열릴 예정이다.

02

## 러브소나타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온누리교회 사론회 데코팀이 러브소나타 집회에서 사용 할 화관 제작을 도울 봉사자를 모집한다.

류석인 권사(사론회 데코팀 팀장)는 “러브소나타에서 구원 받은 영혼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울 때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가슴 벅찬 감격으로 화관을 직접 만들고 있다”면서 “꽃 장식에 재능이

있고 자신의 그 재능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분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화관 제작 첫 모임은 오는 3월 15일(금) 오후 2시부터 서빙고 미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접수: 정현주 간사 02-3215-3713  
010-2523-3770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3

차세대

## 수요어머니기도회, 특별강사 초청

### ‘선교’ 주제로 5월까지 진행

차세대가 선교를 주제로 5월까지 특별강사를 초청해 ‘수요어머니기도회’를 진행한다.

초청된 강사들은 강의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들로 자라나도록 도울 예정이다.

초청 강사는 3월 김언약 선교사(인

터담), 4월 윤길중 목사(대전 온누리교회), 김현미 목사(중보기도), 5월 박길호 목사(지구촌교회 교육목장)이다. 노희태 목사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기도회에 많은 어머니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526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4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

기존 화요중보기도학교가 무릎선교기도학교로 변경되었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임으로, 오는 3월 12일부터 12주 동안 진행된다.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을 원하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다.

문의: 김혜경 전도사(010-8743-3944)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선교단체장 조찬모임

## 총 34명 참여, 선교사역 및 선교근황 공유

“여러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선교의 중요한 과제들 중 은퇴 선교사님들의 노후 대책, 선교사님 자녀들 학자금 문제, 선교 훈련생들의 고령화 등 이런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교회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지난 3월 6일 (목) 서빙고 순흥홀에서 열린 선교단체장 조찬모임에서 한 말이다.

선교사역 및 선교근황을 공유하며 세계선교 과업 완수를 위한 온누리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조찬모임에는 담임목사 및 선교리더십 선교단체장 총 34명이 참석했다.

먼저 도육환 목사(이전선교본부장)가 이곳에 초청한 선교단체장을 소개하며 모임의 시작을 알렸다. 각 선교단체장들은 사역에 대해 소개하며, 현재 선교단체에서 직면한 문제점에 대해 나눴다. 각 선교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은퇴선교사들의 노후대책, 선교사 자녀들의 학자금 문제, 선교 준비생의 고령화 등의 문제



가 심각하다”며 이에 따른 해결책 및 미래 선교방향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교제 후 도육환 목사는 올해 온누리의 선교방향을 소개하며, ‘블레싱 디아스포라 코리아’에 대해 강조했다. 도 목사는 “올해는 통일을 준비하는 세계선교를 모토로 디아스포라 사역에 중점을 두고 아웃리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교본부에서 선교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면 그동안 막혔던 담들, 아직도 한국 교회의 선교가 필요

한 곳에서 한국 선교단체들과 함께 사역을 열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전선교본부에서 오는 5월 11일, OMO(Onnuri Mission Orientation)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OMO는 온누리 선교사로 지원을 하는 분들 중 교회내 구나 선교사 허입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 3월 17일 안산 관산중학교

“인종과 국적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를 외치며 드리는 온누리M미션 연합예배가 오는 3월 17일(주일) 안산에 소재한 관산중학교에서 열린다. 열방예배는 분기마다 온누리M미션 내 14개 예배공동체의 500여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연

합예배다. 인종과 국적은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는 연합예배는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히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CMN챔버팀이 특순을 섬기며, 예배 후에는 나라별모임과 교제 나눔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1

## NGO 더 멋진 세상

# 청년인턴 · 전문 해외봉사단 모집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이 공적개발원조(ODA) 청년인턴과 전문 해외봉사단을 모집한다.

청년인턴 모집기간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만 18세 이상 남·여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파견 국가

### 청년 14일, 해외봉사단 16일까지

는 세네갈이고, 파견 기간은 채용 계약 후 1년 동안이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http://oda.incruit.com>)에서 ▷ 상단 채용안내 ▷ 22번 '더 멋진 세상' 에 들어가서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문 해외봉사단 모집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국제협력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남·여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국제협력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영어 가능자를 우대한다. 파견 국가는 르완다이고, 파견 기간은 채용 계약 후 1년 동안이다. 주요 업무는 PCM (Project Cycle Management)에 의한 사업계획 및 수립, 지역자원 연계 및 개발,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피드백 등이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http://www.abetterworld.or.kr))에서 ▷ 전문해외봉사단 배너 상단 채용안내 ▷ 지원서 작성 클릭 후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betterworld@gmail.com](mailto:betterworld@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사항은 왕복 항공료와 생활비, 주거비, 물품지원, 역량강화교육비, 예방접종비 등이 지원된다. 문의: 02-2271-2246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mailto:hcy@onnuri.org)

02

## 파키스탄 유학생 초청

NGO '더 멋진 세상' 이 파키스탄 후쉬푸르 마을 청년리더십을 초청해 전주비전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

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파키스탄 현지 청년 리더십 2명이 입국했다. 교육내용은 올해에는 한국어 과정을 배울 예정이고, 2014~2015년까지는 전주비전 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배우게 된다.

/ 황치연 기자

01



## 후원자에게 감사패 수여 기부와 나눔, 희망의 씨앗

지난 5일 NGO 더 멋진 세상(회장 이재훈)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후원자들은 더 멋진 세상을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해외 식수개발, 국내외 아동 의료지원 등의 후원 활동을 지속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초청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김광동 대표, 김창욱 본부장, 김석인 장로(더 멋진 세상 실행위원장), 최진혁 실장 등이 참석해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NGO 더 멋진 세상 회장)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 어린이 등을 위해 중보기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자들은 “우리들의 작은 기부와 나눔이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GO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은 긴급구호,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국내외 아동보호 사업, 국내외 장애아동 의료지원, 해외 식수개발 등을 통해 지구촌 모든 이웃들과 함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있다.

후원문의: 02-2271-2246

/ 황치연 기자

02

오사카

## “문화차이 뛰어 넘는 선교”

### 박용관 집사 초청 리더십 스쿨

지난달 1~2일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박용관 집사(오사카 산업대학) 초청 리더십스쿨이 열렸다. 일본 선교와 전도에 헌신한 리더십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열린 리더십스쿨은 양국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차이를 뛰어 넘어서 선교 방법에 대해 배운 유익이 있었다.

이날 리더십스쿨은 1부는 ‘한· 일

문화차이를 뛰어 넘는 선교’와 2부는 ‘성경적 리더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춘향전(한국 고전)과 충신전(일본 고전)을 비교해보며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문화차이를 뛰어 넘어 선교할 수 방법에 대해 배웠고, 2부에서는 차세대 리더십 양육에 초점을 맞췄다.

/ 황치연 기자

03

##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 3/13(수) 오전 9시 40분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나섬공동체 유해근 목사의 인생스토리입니다.



01

## 인도 기독교 방송, CGNTV 연수

### 4월초까지, 방송선교사 사명 전수

인도 나갈랜드 지역 기독교 방송국 (Highland Dawn Media) 관계자 3명이 CGNTV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연수생들은 4월초까지 CGNTV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방송제작 및 편집은 물론 방송국 운영과 후원모델 개발, 방송선교사의 사명 등을 전수 받는다.

1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도

나갈랜드는 복음화율이 90%가 넘어 미국 남침례교에서 선교의 대표적 성공모델로 손꼽는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이번 CGNTV 연수를 통해 전수받은 전문성은 인도에 방송선교라는 새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 강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온누리 공동체, 순선교 사역 실시

### 선교사 위한 중보 및 돌봄, 아웃리치 참여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 순에서 순선교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순선교사역의 첫 번째는 각 순에서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순선교 중보기도사역이다. 즉 선교현장에서는 선교사가 사역하고, 후방에서는 순에서 선교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며 전후방이 모두 힘을 합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교하고자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순선교 중보기도는 각 순의 순장이 인도한다. 순장은 iCare 시스템의 선교를 통해 자신의

순에 결연된 책임선교사와 기도제목을 확인하고 이를 순예배 중보기도 시간에 순원들에게 알려 순원 모두가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두 번째는 '선교사 돌봄' 사역이다. 순에서 기도하는 책임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경우 순에서는 선교사를 순예배에 초청해 함께 순예배를 드리며, 선교지의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선교사의 경조사 발생 시나 입원 시 문안하는 등 선교사들을 직접 섬기는 일을 하는 사역이다. 세 번째는 공

동체에서 선교 아웃리치에 참여하는 사역이다. 공동체 아웃리치 때 각 순에서는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해 모두가 함께 하는 아웃리치가 되도록 한다.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장)는 "순 안에서 책임선교사를 케어하는 순선교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선교활동이다. 이 순선교를 통해 선교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될 것"이라며, 각 순에서는 자발적으로 순선교 사역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화관 제작 ... “함께 해요”

#### 서빙고 사론회데코팀

오는 5월 15~16일에 진행되는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이번 러브소나타 집회의 론칭(24일)에 앞서 사론회데코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띄워주는 화관 제작 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 15일(금) 서빙고 미션홀에서는 화관 제작 봉사자들의 첫 모임이 있었다.

류석인 권사(사론회데코팀 팀장)는 “러브소나타 참석자들이

사랑의 면류관인 화관을 쓰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서 “손재주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다음 모임은 3월 20일(수) 낮 12시 서빙고 신관 101호에서 진행되며,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화관 제작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02-749-1149

/ 조유진 기자

02

## 제3기 과학기술선교학교 개강

### ‘적정기술과 선교’ 주제, 5주간 진행

제3기 과학기술선교학교가 지난 3월 12일(화) 서빙고 시온홀에서 개강했다. 이번 스쿨은 ‘적정기술과 선교’를 주제로 5주간 물과 선교, 재생에너지 적정기술, IT지역 및 기술소개, 농업선교와 CHE, 건축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선교학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문화명령(창 1:28)과 예수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를 세우는 스쿨이다.

또한 선교 현지 지역에 필요한 IT, 자연 에너지, 농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지원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나누는 학교다. 스쿨을 섬기는 과학기술선교팀(이하 과기선)은 복음을 통해 선교지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과학기술 문명의 온전한 조화를 통해 그 땅과 지역공동체를 총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선교를 목표로 한다. / 오은지 기자

03



## 열방을 살리는 기도학교

###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무릎으로 열방을 중보 하는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가 지난 14일(목) 개강했다. 이날 오전에는 주누가 선교사의 이슬람 사역현장과 간증을 듣고, 오후에는 북한, 이스라엘, 아프리카 등 나라별 중보기도 시간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매주 다른 선교사를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선교현장의 이야기를 들

을 수 있어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 성도들이 참석한다.

윤치연 전도사는 “무릎선교기도학교는 선교지에 대한 무지가 깨지고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준다. 선교지와 교회의 기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재 화평홀에서 열린다.

/ 조은실 기자



부천

## 무릎선교학교 개설

### 54명의 무릎팍 선교사들, 선교지 위해 뜨겁게 중보

“당신은 무릎팍 선교사입니다.”  
 지난 3월 12일 부천 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는 54명의 무릎팍 여성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서로에게 ‘무릎팍 선교사’라고 이름을 붙이며, 인사를 나눴다.  
 부천 온누리에서 신설된 무릎선교기도학교에 참석한 여성들은 온누리 파송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오향 목사(부천 여성사역)는 “무릎, 선교 기도, 학교 모두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이 자리는 결코 부담을 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면서 “무릎선교기도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거침없이 일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특별히 도육한 목사(이천선교본부)를 감사로 초청했다. 도육한 목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향하여(행 1:6-11)’를 주제로 첫 강의의 문을 열며, 이 세대가 온누리교회 선교비전을 어떻게 감당해야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도 목사는 “초대교회는 선교공동체였기 때문에 복음의 파괴력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가 하나의 사역으로 전락했다”면서 “온누리 5대 핵심가치인 공동체, 말씀과 성령의 균형과 선교와 섬김의 균형을 유지해야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방개척선교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세상이 부천 온누리 성도들의 무릎 위에서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들은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지만 무릎을 꿇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며 복음의 사명에 참여하도록, 단려있는 모든 복음의 문들을 열리도록,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땅 끝까지 가는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부천 여성들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무릎선교기도학교의 첫 시작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한편 무릎선교기도학교는 11주 과정으로, 선교사들의 특강 및 조별모임으로 진행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무릎팍선교사’를 소개합니다 ■

### “하나님 음성만 듣고 달려가겠습니다”



“무릎선교팀장을 맡아 달라고 했을 때 기도했는데 뜻이 붙잡혀 갔을 때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싸울 대상은 네 개의 연합군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기르던 용사인 318명만으로 네 개의 연합군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천 여성들도 이번 무릎선교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 영적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지위관의 호령소리만 듣고 가는 군마처럼, 칼과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달려 나가는 군마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주 동안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강하게 훈련 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대에 하나님의 영역에서 쓰임 받는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노선빈 팀장

## 꿈과 희망 담아 자전거 보낸다

### 캄보디아 어린이 위한 3월 비전헌금

대전 성도들이 캄보디아에 사랑의 자전거를 보낸다. 지난 주일(10일) 드려진 대전 온누리교회 3월 비전헌금은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선물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대전 성도들은 캄보디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캄보디아 최북단 뽀레이 지역 오지마을에서 사역

하는 김복음 선교사는 “이곳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뽀레이마을에 초등학교 분교가 하나 있는데 산골 속에 있는 학교가 너무 멀어 아이들이 다닐 수 없다”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전거가 있다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번 비전헌금은 차세대에서부터 시작됐다. 부활절을 맞아 차세대 어린이들이 한 끼를 금식하고 그 비용을 모아 자전거를 캄보디아로 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교인으로 확장된 것. 이번 비전헌금을 통해 모아진 사랑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게 됐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1

■ 양지에서 알려드려요!

시안홀에서는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만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24시간 기도 로 오픈한 장소, 시안홀에서는 열방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 송하는 특별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열방예배 뿐 아니라 선교사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매일 업데이트 되는 선교소식이나 성도들이 열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 하는지 등을 볼 수 있다. 지난해 9월부터 매달마다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자도, 중보기도, 기독교 세계관, 예배 등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었다. 오는 3월 26 일에는 온누리교회 비전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가 한다.

02

# 미소가족 돕는 비전헌금

## 48M 사역, 다문화 가정에 집중 지원

강동 온누리교회에서는 3월 비전 헌금을 '미소가족(다문화 가정)'을 위해 사용한다.

강동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48만원의 기적(하나님께서 허락하 신 가나안 땅인 강동지역을 말씀과 섬김으로 변화시킨다는 비전)'을 올 해에도 계속해서 이어간다. 강동은 48만원의 기적을 '48M' 이라는 타이 틀로 내걸고 다문화 가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강동 온누리교회의 48만원 의 기적은 둔촌고 등하교 길에 벽화 그리기, 나비쇼핑몰 패션쇼, 설날 다

문화 가정 초청행사 등 강동 지역 주 민과 함께하는 여러 사역을 진행해 왔다.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는 "궁핍한 마음으로 섬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마음으로 이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역을 상시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오는 3월 31일(주일)에는 부 활절 전도축제를 연다. 강동 성도들 은 1만5천여 개의 달걀과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설 계획이다. 이 행사 에는 강동 모든 성도들이 함께한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3

#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 “다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거주하는 성도입니다. 매일 새벽예배를 CGNTV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열린새신자예배, 수요일은 목양예배 등 말씀에 굶주린 이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으로 매일 채워주시다니 기적입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수입의 일부를 CGNTV에 보내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노래로 버는 수입이 늘어나서, 자주 CGNTV에 송금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 니다. CGNTV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절묘한 방법으로 굶주린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 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건 독일어 예배가 있으면 여기 친구들에게도 생명의 만 씀을 접하게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CGNTV 가족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04

#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우츠쿠시마 후쿠시마 after 3.11 - 3/22(금) 오후 9시 40분  
일본대지진 이후 2년, 후쿠시마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2013년 3월 17일 941호

- 01- 양지 온누리교회 : 선교 관련 기사판(8면), • 02- 강동 온누리교회 : 3월 미소가족(다문화가정) 위한 비전헌금(9면)
- 03- CGNTV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 무명 (오스트리아 비엔나)(13면), • 04-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우츠쿠시마 후쿠시마 after 3.11(13면)



# ‘리바이벌 오키나와!’

##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시작 5월 15~16일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러브소나타가 일본 전역을 돌아 처음 태동했던 오키나와에 재상륙한다.

오는 5월 15-16일 18번째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지는 장소는 2007년 처음 러브소나타가 개최되었던 오키나와다. 오키나와에서 다시 한 번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성도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2007년 당시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던 우에하라 나오미(시로이)에 펠

로우십(차)성도는 당시 집회를 떠 올리면 눈물부터 흐른다고 했고, 마에도마리 유메지(나하 밤테스트 교회) 성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을 부르며 감회에 젖었다.

오키나와 성도들이 기억하는 러브소나타는 성령 충만함이 느껴지고, 열정적 기도가 돋보이는 대단한 집회였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어서 오세요”라며 환영해 주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쿠니요시 마모루 목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오키나와의 부흥을 위해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 [참가 접수방법]

www.lovesonata.org 등록  
하나은행 573-910011-71705  
(접수비 20만 원)

예금주: 온누리교회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문의: 02-749-1149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Love Sonata 2013 Okinawa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LOVE SONATA 沖縄

2013. 5. 15(수) 16(목) 7:00PM /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 5/15(수)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오키나와 · 5/16(목)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Main Speaker  
YOSHIYUKI KUNIOYOSHI (온누리교회 대표목사) / YOSHIYUKI KUNIOYOSHI (온누리교회 대표목사)

특별목회사: 김남원(온누리교회), 신성우(온누리교회), 송홍남(온누리교회), 심수봉(가나사 목회연구원) / 주 시로이: 우에하라 나오미(시로이)에 펠

문의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

| 주최 |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실행위원회 Onnuri | 협찬 | CGNTV & ouranno

## 오늘, 양재 3부예배 햇불 장학금 수여식

오늘(3월 24일) 양재 3부예배에서 햇불 트리니티 장학금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장학금은 12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햇불 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를 지원한 분들 중 선발된 8명에게 주어진다. 올해 신입생 8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CGNTV, 8주년 특집다큐 방영

### 살아 숨 쉬는 선교현장이야기 담아

CGNTV가 개국 8주년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특집 다큐멘터리는 ‘은혜의 강, 아마존 과 ‘시리아에 핀 무지개’ 다. 은혜의 강, 아마존은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서 20여 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김철기, 허윤석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송은 3월 28일 오전 9시 40분, 재방송은 3월 29일 오후 10시 40분.

지난 3월 2일 제작센터 오픈 1주년을 맞은 아랍 CGNTV가 제작한 ‘시

리아에 핀 무지개’도 방영된다. 다큐멘터리는 시리아 소요사태를 피해 요르단으로 망명한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아웃리치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방송은 3월 27일 오후 12시 10분, 재방송은 3월 29일 오후 7시 40분.

한편 선교사들과 소통하는 선교사 SNS 프로젝트와 CGNTV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실시된다. / 김남원 부장

## 선교를 알면 하나님 마음이 보인다!

### 서빙고 권사스쿨 '와이미션' 개강

“선교에 관한 ‘깊은 진리’를 알아 가는 시간, 와이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 19일(화)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한동홀에는 160여 명의 서빙고 권사들이 모였다. 이날 2013 상반기 권사스쿨 와이미션(Why Mission?) 첫 강의를 진행했다. 찬양으로 시작한 와이미션은 ▷동영상 및 오리엔테이션 ▷축복과 환영 ▷강의 안내(이종실 목사) ▷말씀(이재환 선교사) ▷식사 및 교제 ▷조별 나눔 ▷광고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재환 선교사는 이번 와이미션을 통해서 모두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강의의 서두를 열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 선교사는 “선교라는 매개체가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선교는 구약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구약을 읽으면서 선교에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선교적 흐름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제대로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한 권사들은 강의가 끝난 뒤 조별 나눔을 통해 함께 식사를 하며 선교에 대해 비전을 나눴다. 앞으로 와이미션은 선교에 대한 강의, 스리랑카 아웃리치, 야외예배 등을 진행하며, 다음 주부터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강의를 시작된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01



## 무릎선교, 새바람이 분다~

### 확 달라진 2013 무릎선교기도학교

3월 22일(금)오전 10시 서빙고 드림홀. 무릎으로 열방을 품는 '무릎선교기도학교'에 150여 명의 여성 성도들이 모였다. 지난 15일 개강한 무릎선교는 오는 6월 14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무릎선교는 선교지와 각 나라를 위해 더 세분화되고 전략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 52개, 아프리카 58개, 유럽 47개, 아메리카 51개, 오세아니아 28개 등 총 236개국을 세분화하여 30개의 조가 각 8~10개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또한 한 사람당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직접 기도문도 작성한다.

기도뿐 아니라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전한다. 봉사 필수 과정으로는 Acts29 비전빌리지를 방문해 시안예배를 드리고 청소 및 꽃 심기 등을 도우며, 황금종교회(탈북자 사역), MK NEST(선교사님 자녀들 호스트), GMTC 한국선교훈련원(장기선교사 훈련센터) 중 한 곳을 선택해 작은 섬김을 실천한다. 앞으로 무릎선교는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 뜨거운 기도와 섬김을 이어갈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02



기·도·제·목

- 3월 25일(월)  
러브소나타를 알리는 귤기대회와 교회부흥세미나가 지역교회들 잘 준비되도록
- 3월 26일(화)  
가스펠 나이트로 러브소나타를 위한 협력교회들 은혜 받고 한 마음이 되도록
- 3월 27일(수)  
준비하는 스태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 3월 28일(목)  
출연자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특수를 잘 감당하도록
- 3월 29일(금)  
일본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 3월 30일(토)  
담임목사의 메시지에 기쁨 부으심이 넘치고 일본을 향한 사랑이 전해지도록
- 3월 31일(주일)  
일본과 한국에서 모이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충성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03

## 아웃리치 위한 적정기술 세미나

### 전문인 선교 결단

지난 3월 22일(금) 양재 화평홀에서 열린 적정기술세미나에 133명의 대학청년 지체들이 참석했다. 적정기술은 제3세계의 지역적 조건에 맞는 기술로, 자원·에너지 절약형의 친환경 기술이다. 이날 '국제환경협약과 대인'을 주제로 강의한 황진솔 컨설턴트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이

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 선교 토론회에서는 김건호, 이지숙, 문지현 자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과 비전에 대해 간증하며, 적정기술, 통합 선교 및 아웃리치 비전 등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모잠비크 전문인 선교를 위한 결단의 시간에서 45명의 지체들이 중보기도 및 전략세미나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 오은지 기자

04

대 련

##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예배 꿈꿔

대련 온누리교회가 지난 6일 순개강예배를 드렸다. 순개강예배에서 송대현 대련 온누리교회 담당목

사는 순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목사는 "모이기에 급급한 순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

예배를 드려야한다"면서 "올해는 순원들의 영적 유대감 형성에 주력하자"고 권면했다. / 정성에 통신원



## 열방을 향한 뜨거운 외침

###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 504명 참여

지난 주일(3월 17일) 안산 관산 중학교 대강당에서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의 막이 올랐다. 이어 김두진 장로의 기도, CMN 챔버팀의 특송, 레비 전도사(필리핀 어예배)의 말씀, 합심기도, 헌금, 장학금수여식, 기도 및 축도, 새신자 환영 등으로 예배가 진행되었다.

이날은 온누리M미션의 14개 공동체에서 총 504명의 이주민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또한 서초B공동체에서 40여 명의 지체들이 예배를 섬기며, 봉사했다.

히브리서 11장 24~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레비전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초대하고 구주로 영접할 것”을 권면했다.

김영철 목사(온누리M미션)가 인도한 기도회에서는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소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내 마음에 빛을 비취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를 마친 후, 김창욱 전도사(온누리M미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한 12명의 지체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 오은지 기자

## “함께라서 행복해요”



김관식 장로  
(서초B공동체)

오전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M센터 주변과 안산역을 돌아다니며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또한 연합예배 안내와 도시락 전달, 정리 등을 함께 도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서초B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온누리미션을 도울 예정이고, 이외에도 올 여름에 통영, 일본 등의 아웃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

# 우리는 중보기도의 한 퍼즐

## 여성 무릎선교기도 개강

“개인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중보기도하면 개인적인 기도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됩니다.”

수원 은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 주관하는 무릎선교기도가 지난 3월 15일(금) 개강했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이성숙 권사는 여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하는지에 대

해 중보자의 자세와 태도를 설명했다. 이 권사는 “우리 모두는 중보기도의 한 퍼즐”이라고 강조하며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한사람으로 인해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요구하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강의와 함께 영상도 상영됐다. 영상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부여하신 은혜와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이 담겨 참석자들이 지금 이 시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되새길

수 있었다. 개강예배였던 이날은 다른 커리큘럼보다도 기도에 집중했다. 유영순 목사(수원 여성사역)는 참석자들이 영적 상태와 나태함, 게으름에 대해 기도할 것을 권면했다. 기도 후에는 점심식사와 권역별 모임이 진행됐다. 이번 과정에 참석한 120여 명은 12주 동안 아프리카, 동북아, 서남아, 북한, 중앙아시아 등 15개 권역으로 나누어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계획이다. / 정지은 기자

## 양재 이천선교 중보기도회, “공동체가 모여 선교 위해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마 18:20).

이 말씀처럼 혼자보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힘이 있다. 양재 이천선교에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체별로 모여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선교 중보기도회를 연다.

지난 19일(화)에는 그 첫 번째로 강남 B공동체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했다. 60여 명의 공동체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을 다해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했다.

이충구 탐장은 공동체가 모여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느낀 은혜를 나눴다.

“순이 모이고 공동체가 모여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임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의 기도제목이 나의 기도제목이 되었고, 기도로 준

비한 선교 사역자들의 기도회 인도로 공동체 지체들에게 더 도전이 되고 기도의 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중보기도회에는 다락방별로 임명한 선교 사역자가 나와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다락방 선교사역자는 기존에 공동체마다 한 명의 선교팀장이 있는 시스템에서 각 다락방별로 10명의 선교 사역자를 세우는 것으로 변화시킨 강남B공동체만이 지닌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다락방마다 한 명의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어 선교사 케어와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고, 이날 중보기도회에서처럼 자신들이 책임진 선교사를 더욱 마음으로 품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의 중보기도회는 참석한 지체들에게 선교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뜨거운 중보기도회의 바람을 일으켰다. 이 집사의 고백처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속에 선교의 씨앗이 생기고, 기도의 바람이 불어옴을 느낀다.

01

## 선교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해준 '와이미션'

선교는 나에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다. 연중행사로 선물보내기를 하면 내 뒤통의 헌금이 나 연초 선교헌금 작성시에도 크게 감동 없이 의무적으로 작성하곤 했다. 유명 선교사님들의 강의와 간증에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자리에 서 일어설 때면 신기하고 많이 놀랐다.

하나님께서서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와서 우리, 나에게까지 전해진 것과 같이 나와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해야 되는 최우선적인 일은 선

교여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와이미션을 하기 전까지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해외 아웃리치도 별 관심이 없었고, 선교는 무조건 다른 나라로 그것도 오지로 선교사로 가야만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와이미션을 통해 선교는 반드시 보내는 선교사, 동원사역자, 기도와 재정, 물질로도 후원하는 분들도 있어야 함을 알았다. 선교는 타문화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도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조기훈 팀장

02

###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은혜의 강 아마존  
- 3/26(화) 오전 9시 40분  
아마존에서 인도어들과 함께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철기, 허운석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03

###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시리아에 핀 무지개  
- 3/27(수) 낮 12시  
내전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시리아.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 CGNTV 개국 8주년

### 직원 4명 선교사 헌신

CGNTV가 개국 8주년 감사예배를 지난 29일 서빙고 경찬홀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CGNTV 직원 4명(일본: 이철원, 인도네시아: 윤영준, 태국: 박재용, 아프리카: 박미진)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러져 뜻 깊었다.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유재건 대표이사, 당회서기 양유식 장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예배

는 CGNTV 홍보영상 상영, 선교 헌신자들의 간증, 이재훈 목사의 설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교사로 헌신한 직원들의 간증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CGNTV 가앞으로도 시도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만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 8-9면)

/ 김남원 부장

CGNTV 개국 8주년 기념

# “CGNTV는 하나님의 꿈, 멈출 수 없습니다”

Interview \_ 이재훈 목사



-태동이 궁금합니다.

“CGNTV는 하나님의 비전이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선교지로 나가지 못했던 하용조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위한 방송, CGNTV를 주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은누리교회 ACTS29제전의 참여역할을 CGNTV가 해주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결과 2005년 3월 29일 전 세계 2만

4000여명의 한인선교사와 850만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위한 선교교육전문방송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개국 8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울러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 후원자들의 도움

현재 CGNTV는 5개 위성을 통해 전 세계 174개국에 복음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해외지사에서 현지어로 365일 24시간 동안 방송을 직접 제작·송출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선교교육전문방송’으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이재훈 목사를 만나 지난 8년 동안 맺은 열매에 대해 들어보았다.

/ 대담 함태경 (CGNTV경영기획 본부장, 은누리신문 운영위원)

의 결과입니다. 현재 전 세계 174개국에 5개 위성을 통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지사에서 1400여명의 직원들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 채널에 필요한 365일 24시간 방송 분량을 직접 제작, 편집, 송출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맺은 열매도 풍성할텐데요.

“특히 일본을 비롯한 해외지역 목사님과 성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올해로 7년째 ‘10분 강단’에 출연하고 있는 일본복음주의 관서지역 대표 시미즈 목사는 CGNTV 덕분에 본인의 설교가 딱딱한 신학적 설교에서 전도메시지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변에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평소 왕래가 없었던 다른 교단, 교파 목회자들 간의 일치와 연합이 CGNTV가 가는 곳마다 이뤄지고 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CGNTV의 국내외적 역할과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보다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교사들의 영적 건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CGNTV는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처입니다.

셋째, 현지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24시간 맞춤 방송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현지화 된 프

로그램을 선교지교회와 함께 제작하고 방송할 것입니다.

-후원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이 후원자들의 헌금에 의존하다보니 어려움이 적잖습니다. 하지만 일절 프로그램을 매개로 헌금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우신 ‘CGN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CGN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셨는지 지난 8년간 재정이 부족해 제작이나 송출이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귀한 헌신자들을 보내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해외지사와 제작센터를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자, CGNTV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헌금을 아낌없이 방송선교를 위해 보내주신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CGNTV 직원들이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며 하나 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CGNTV 개국 8주년 기념예배에서 4명의 직원을 선교지로 파송하기 위한 선교헌신예배를 드렸는데 헌신자들의 간증에 참석자 모두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헌신에 힘입어 CGNTV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매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GNTV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 해외지사 2개 설립 (미국, 일본)
- 제작센터 3개 open (태국, 대만, 아부다비)
- 해외위성 5개 송출 통해 174개국 시종가능
- 연간 7,400여편 제작프로그램 제작

History / 주요연혁

2005년 3월	CGNTV 개국
2005년 8월	미주 CGNTV 개국
2006년 10월	일본 CGNTV 개국
2008년 6월	중문 CGNTV 개국
2010년 11월	태국 제작센터 오픈
2012년 3월	아랍 CGNTV 오픈
2012년 12월	유재건 대표이사 취임

2013년 3월 31일 943호

- 01- CGNTV 개국 8주년 기념 인터뷰(Interview) : 이재훈 담임목사(8면)
- 02- CGNTV History 및 주요연혁(8면)



CGNTV에 온 편지

축하메시지

“첫 월급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살면서도 교회에 갈 수 없었던 제게 CGNTV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산후우울증으로 힘들 때마다 CGNTV에서 방영하는 말씀 강해와 세미나를 시청하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CGNTV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첫 월급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포에서 후원자 장경미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입니다”

프랑스는 무슬림의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들의 포교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기독교가 국교였던 프랑스가 이제는 치열한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매주일 제 주변의 한인들이 CGNTV를 통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 집에 모입니다. 황폐한 이 땅에서 저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은 CGNTV 덕분입니다. / 프랑스에서 후원자 황호경

“바로 CGNTV였습니다”

대학시절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은둔생활과 외로움에 자살 시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해지는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미션스쿨에 다닐 때 들었던 찬양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CGNTV입니다. CGNTV를 보면서 저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정에 대한 부정적이던 제가 훌륭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CGNTV에 감사드립니다. / 도쿄에서 미유키(가명)

“없어서는 안 될 방송”

CGNTV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유용한 통로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유일한 예배처소입니다. CGNTV는 없어서는 안 될 방송입니다. / 당회서기 양유식 장로

“열렬한 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CGNTV를 시청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CGNTV를 통해 매일 공급받은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때부터 CGNTV의 열렬한 팬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CGNTV를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 이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대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CGNTV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도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CGNTV가 복음전파를 위해 열방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강석우, 윤유선 (하늘빛 향기 진행)

“어느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선교지에 가보면 CGNTV가 얼마나 귀한 방송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CGNTV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CGNTV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TV만 틀면 CGNTV를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교영희 권사 (온누리교회)

“북한에서도 볼 수 있기를”

CGNTV는 통일을 준비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방송입니다. 북한에도 CGNTV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방송 CGNTV 개국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김정금 (탈북민, 자유북한방송 기자)

“크리스천들의 활력소”

세상의 때를 씻어내려면 CGNTV를 시청하면 됩니다. CGNTV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가 삶의 활력소가 되듯이 CGNTV는 크리스천들의 삶에 활력소가 됩니다. / 이민욱 (연출가)

#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CMN의료선교팀 몽골인 화상환자 수술 도와

선교란 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성을 담아 케어하고 있는 CMN 의료선교팀이 지난 3월 21일(목) 몽골인 화상환자 차스커 자매의 수술을 도왔다. 이날 차스커 자매는 이재화 성형외과에서 약 4시간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다.

이에 지난 주일(3월 24일) 양재 3부예배에서는 수술을 잘 받고 회복된 몽골인 화상환자 차스커 자매와 보호자인 아노 자매, 김우영 선교사(WEC국제선교회)가 참석해 후원해준 CMN과 은누리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차스커 자매는 1년 전, 엄마가 일하는 식당을 따라 갔다가, 주방에서 끓고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온 몸에 큰 화상을 입게 되었다. 화상흉터로 팔, 다리의 움직임의 제한 때문에 성장에 장애를 줄 수 있어 수술이 절실하던 차에 김우영 선교사를 통해 CMN을 소개받았다. CMN 본부 측은 “화상 조직은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때 수술을 하지 않으면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뼈가 딱

바로 자라지 못해 체형이 뒤틀어진다. 차스커 자매의 경우도 성장하면서 2, 3차 수술이 필요하다. 이 자매가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수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아노 자매에게 몽골어 성경책을 선물로 전달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이주민 장학금 수여 12개국 19명 학생 전달

지난 주일(3월 24일) 양재 3부 예배에서 이재훈 담임목사가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를 지원한 8명의 이주민들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교회는 해외선교를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다.

특히 아시아에 있는 많은 현지인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와 연계해서 후원하고 있다. 이들이 헛볼 트리니티에서 잘 훈련받고 현지로 재파송되어 쓰임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은 해외 선교 헌금 가운데 일부 금액에서 지원되고 있다.

올해에는 12개국에서 온 1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 오은지 기자

02

## “생명수가 흘러 마을 전체가 복음화 되길!”

### 서대문 공동체, 캄보디아 아웃리치



지난 3월 7일(목)부터 14일(목) 6박 8일간 서대문 공동체가 캄보디아 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모여 기도회 준비한 이번 아웃리치는 공동체 식구들이 캄보디아 현지에 전달할 옷, 신발, EM베누, 문구류, 헤어용품, 의약품, 칫솔치약세트, 풍선 막대사탕 등 여러 가지 물품도 후원했다.

김형철 목사(서대문 공동체)와 10명의 성도로 구성된 아웃리치 팀은 8일(금) 목적이인 ‘쁘레이우

히어’에 도착했다. 이곳에는 선교사 부부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매주 일 어린이예배 80명, 청년예배 35~40여 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어려운 가정에서 모인 고등학생 14명이 교회에서 생활하며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는 ▷미용봉사 ▷노방전도 및 가정방문 전도 ▷주일예배 섬김 ▷오지마을 우물준공잔치 ▷고아원 방문 ▷선교후원금 및 선물 전달 ▷양코르와트 땅 밟기 등이 진행되었

다. 미용봉사는 교회 앞뜰에서 진행되어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국경 오지마을 ‘쁘라키’를 방문해서는 집집마다 전도를 하면서 그곳 우물을 파주고 현지인들과 함께 우물준공기념 예배를 드렸다.

준비한 선교후원금 및 선물은 12일(화) 방문한 마하필 고아원에 전달했다. 또한 주일예배에서는 서대문 공동체 집사가 간증을 통해 “할머니께서 하나님을 영접한 뒤 5대째 신앙을 이어가며 자손들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서 “캄보디아 땅 모든 가정이 변화되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웃리치에 참석했던 강은철 다락방장은 이번 사역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고백하며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느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것”이라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아웃리치 후 선교사님이 전해온 소식\*

“아웃리치 팀의 도움의 손길로 만들어진 새로운 우물의 물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30가구가

이곳을 찾아가 매일 물을 길러

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바가지로 그 물을 퍼다가 생수를 마시듯 마시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01

### 4월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주제 '선교'

차세대 수요일어머니기도회가 특별강  
 사를 초청해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자녀로 자라나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빙고는 4월 10일 윤길중 목사(대전      수요일어머니기도회는 지혜로운 어머  
 온누리교회), 양재는 4월 3일 박종길      니가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장으로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초청된다. 초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고  
 청된 강사들은 자녀들이 선교의 비전      있다. 문의: 02-3215-3526  
 을 품고 학교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 황치연 기자 hcy@onnuri.org

02



### 기·도·제·목

- 4월 1일(월): 이재훈 목사의 강건함과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 4월 2일(화):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행사에 영적인 휘방과 공격이 없도록
- 4월 3일(수): 기획팀과 실행위원회가 영적인 세심함으로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 4월 4일(목): 양국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 4월 5일(금): 예비 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기를
- 4월 6일(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방해 하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 4월 7일(주일): 가스펠 나이트 준비팀과 강사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01

## 오늘, CGNTV 개국 8주년 행사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풍성

CGNTV가 오늘(7일) 개국 8주년 기념행사를 연다.

지난 8년 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성원해준 성도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온누리의 복음을 땅 끝까지'를

주제로 진행된다. 서빙고와 양재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CGNTV 출연자와 시청자가 함께 참여하는 '오픈 스튜디오',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어 붙이는 'CGNTV

에 바란다', 시청자 참여뉴스 '시청자 기자', 온라인 이벤트, CGNTV와 사진촬영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또 홍보부스와 어린이들을 위한 게임도 진행된다. 서빙고에는 CGNTV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관련기사8-9면>

/ 김남원 부장

02

## 전문인 선교사 모집

### 'OPMS 3기 27일 개강

개인의 은사와 전문성을 살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온누리 전문인 선교학교(OPMS)' 3기가 오는 27일 시작된다.

OPMS는 선교이해와 역사, 전문인 선교의 이해와 역사, 비즈니스 선교 등의 강의와 현장훈련(여름 아웃리치), 공동체 훈련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 1년 2학기제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훈련 후 소

정의 절차 후 온누리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홈페이지(www.opms.or.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지원서와 추천서를 본부로 발송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50만 원.

문의: 070-7118-4810

(두란노해외선교회)

/ 조은실 ces@onnuri.org

03



기·도·제·목

- 4월 8일(월):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 4월 9일(화): 현지에서 준비 중인 동역자들이 하나 되어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 4월 10일(수): 준비된 영혼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 4월 11일(목): 모든 스태프들의 영육간에 강건함과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도록
- 4월 12일(금): 간사님들과 통역봉사자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4월 13일(토):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에 영적인 공격이 없도록
- 4월 14일(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2013년 4월 7일 944호

- 01-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1면), • 02-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3기 개강(1면)
- 03-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8-14)(4면)



# “이런 방송! 흔치 않습니다”

## Interview \_ 유재건 장로(CGNTV 대표이사)

개국 8주년을 맞은 CGNTV가 해외선교와 더불어 치유가 필요한 한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방송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에게 앞으로 CGNTV가 나아갈 방향과 포부를 들을 수 있었다.

/ 대담 김남원 편집부장

-개국 8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GNTV는 그동안 ‘선교교육 전문방송’을 통해 미디어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을 비롯해 전 세계 174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2만여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를 위해 ‘영적 서포터스’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일반 무목교회의 경우 CGNTV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CGNTV는 봄 개편에 따라 그 지경을 해외 선교지 뿐 아니라 국내 곳곳으로 넓혀가려고 합니다. 낙담하고 지쳐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힐링과 회복, 그리고 희망 콘텐츠’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교 심일조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최하용 목사님이 생전에 강조한 ‘보내든지 가든지’의 정신을 계승한 것입니다. 선교교육 전문방송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보내는 방송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방송선교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 139명 중 11명이 자원했고, 심층 면접을 통해 4명의 직원이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9일 CGNTV 개국 8주년 감사 예배가 선교사 헌신예배로 이루어졌는데 예배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직원들의 간증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더욱 비상할 CGNTV가 기대됩니다. 포부를 밝혀주시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한 CGNTV가 지난 8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선임 대표이사들과 후원자들, 또 임직원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수익사업 하나 없이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

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앞으로 CGNTV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수 복음방송으로 자리매김하고, 소액 후원자 4만 명 달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또 후원자들에게 CGNTV가 맺은 열매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희망과 기쁨을 전하고, 아울러 한국 사회에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는 방송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통계적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CGNTV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 ■ 선교헌신예배

CGNTV는 지난달 29일 ‘선교교육 전문방송’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개국 8주년 잔치를 ‘선교사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선교사 심일조 프로젝트에 자원한 직원 11명 중 본격적으로 훈련에 돌입하는 선교헌신자 4명의 간증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 호흡이 멈추는 그 날까지



4년 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엿보려고 중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에게 선교사는 헌신, 희생, 죽음이라는 단어로 다가왔기 때문에 참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언할 수 없는 사랑과 계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에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선교사는 헌신, 희생, 죽음이 아니라 기쁨과 축복,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호흡이 멈추는 날까지 삶의 목적을 기억하며 저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만 선포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 박미진(편성기획팀)

####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작은 교회 목사가들로 태어난 저는 짧은 시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보냈습니다. 전역 후 우연히 환원이 일치하는 어린이에게 저의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백혈병 어린이에게 골수기증을 위해 입원한 3일 동안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저를 회복시킨 하나님 때문에 울고,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 온 세월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골수기증을 통해 저를 생명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고, 마음을 품고 헌신할 나라 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시작도 결과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태국인들이 영원히 살아 있는 진리와 목숨을 맞바꾸는 믿음이 되길 기도합니다. / 박재웅 국장(경영기획국)

#### 하나님 일에 실패 없음을



CGNTV 입사 1년 차였던 시절 방송국이 세계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 받게 된다면 1호 지사를 개척하여 전문인선교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10년이 넘게 기다린 저에게 하나님은 인도네시아를 품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책임져야 할 아내와 세 딸이 있습니다. 막내 딸은 이제 8개월입니다. 부담도 크고 질할 수 있을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패가 없음을 인정하고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열방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길에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 윤영준 국장(기술국)

#### 불혹, 흔들리지 않는 비전



CGNTV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GNTV에서 사역 한 지 10년쯤 되었을 무렵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을 때 일본의 크리스천들과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일본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본을 품었습니다. 나이 40을 불혹(不惑)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품고 일본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날까지 복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이철원(제작팀)





2013년 4월 7일 944호

• PHOTO NEWS(사진 기사) : CGNTV 개국 8주년 기념예배 단체 사진(9면)

# 선교사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 1 선물 준비

###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아래 선교 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 5)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의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 일을 고려하여 4월 중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을 준비합니다.

- ①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5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②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백, 게임 S/W,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 3) 참고 인터넷 쇼핑물 : <http://mall.duranno.com> (두란노몰)

##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 보안지역이란?

-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함.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목사님 → 사장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기독교 용어 (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기금적 피할 것.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 - 중국

모슬렘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 - 인도, 네팔 등 (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에 현지 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 : 김민규 간사 02-3215-3208  
2000mandu@gmail.com

## 4 우편요금

###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b>서빙고 캠퍼스</b>			<b>한강공동체</b>			<b>양천공동체</b>			<b>서대문공동체</b>		
<b>● 김촌공동체</b>			<b>● 노치오/김지오</b>			<b>● 윤정오(정봉오)</b>			<b>● 고진우/해현</b>		
주승길/주누가 U국 예수전도단 김해진, 여, 20070805 김다인, 여, 20091024			노현준, 남, 20080621			정길원, 남, 20020515			J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진우, 남, 20010217		
<b>● 김창오/정문오</b>			<b>● 문열림/전세경</b>			<b>● 이도오/오은오</b>			<b>● 김복음/김치유</b>		
R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다나엘, 남, 20090331 김사무엘, 남, 20120901			S국 중동 선교회 전지현, 여, 20040816 전소연, 여, 20061112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성, 남, 20011226 이 불, 여, 20050101 이빛, 남, 20070620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115 김이사, 남, 20050528		
<b>● 임정오/손은오</b>			<b>● 존/그레이스</b>			<b>● 강현오/김경오</b>			<b>● 이사람/김평화</b>		
일본 WEC 선교회 임은혜, 여, 20100313 임시은, 여, 20130212			F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나라, 여, 19980618			중동 WEC선교회 강진취, 남, 20060528 강에스터, 여, 20080101			T국 예수전도단 이석은, 남, 19971123		
<b>● 서빙고공동체</b>			<b>● 관악공천공동체</b>			<b>● 이수공동체</b>			<b>● 여의도공동체</b>		
<b>● 김강렬/차현나</b>			<b>● 김보아스/최그레이스</b>			<b>● 소리엘/소리셀</b>			<b>● 김스데반/조희</b>		
F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김신, 남, 20001107 김의, 남, 20020418 김간, 여, 20031101			F시 BEE KOREA 김다현, 여, 19970410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원, 남, 20040816 박지수, 여, 20060418			한국 Inter-CP 김하진, 여, 19980815 김하원, 여, 20021212 김하경, 여, 20041023		
<b>● 최선/이름</b>			<b>● 최비율/김현나</b>			<b>● 돌길지우/김종리</b>			<b>● 이생령/이성물</b>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신, 남, 20040305 최술, 여, 20051026 최강, 남, 20080405			B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예향, 여, 19960301 최예경, 여, 19960322 최예광, 남, 20000328			소아시아 DN 김지나, 여, 20011106 김하나, 여, 20030405 김사무엘, 남, 20051006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예준, 남, 20080610		
<b>● 용산공동체</b>			<b>● 박사무엘/이현오</b>			<b>● 앙리천/김나록</b>			<b>● 김바니버/김드보라</b>		
M국 GO 권능/오성령 권연애, 남, 19950530 권경영, 남, 19970410			B국 GP 선교회 박준용, 남, 19960802 박주영, 남, 20010511			시 FMnC선교회 양다원, 여, 20090626 양우림, 남, 20110111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805		
<b>● 김루이스/강현나</b>			<b>● 김반석/성성물</b>			<b>● 박조나단/강진오</b>			<b>● 이예복/aysata Lee</b>		
G국 BEE KOREA 김예지, 여, 20070206 김예성, 남, 20100303			T국 WEC 선교회 김윤서, 남, 20010227 김서진, 남, 20050502			피지 두란노 해외 선교회 박이레, 여, 20120905			세네갈 GMP 이예림, 여, 19960602 이예람, 여, 19980807		
<b>● 김스데반/린</b>			<b>● 방경오/김귀오</b>			<b>● 김경오/이지오</b>			<b>● 송바롬/소현나</b>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하일, 남, 19981219 김하성, 남, 20040207			H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방하민, 남, 20060825 방은승, 여, 20080616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보라, 여, 20070605 김소라, 여, 20100303 김길, 남, 20120226			C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송바롬, 남, 19960222		
<b>● 서련능/김정오</b>			<b>● 아글라/브리스가</b>			<b>● 토마스/세라</b>			<b>● 다니엘/예레미</b>		
베트남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준하, 남, 20020316 서순하, 남, 20040417 서은하, 여, 20070224			O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전유빈, 여, 20060913 전유진, 여, 20090106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문에스터, 여, 20020812 문에스터, 여, 20061113		
<b>● 하길/유진리</b>			<b>● 이영생/박은혜</b>			<b>● 정재오/정봉오</b>			<b>● 제프/로즈</b>		
모잠비크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하요한, 남, 20020729 하예은, 여, 20040419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강배, 남, 19970120			동남아 GP선교회 정세람, 남, 20060728 정세희, 여, 20080430 정영림, 남, 20101125			O시 IMB 자스틴 왈리교라, 남, 1996 카사이 왈리교라, 여, 1996 예릭 왈리교라, 남, 2003		
<b>● 이촌공동체</b>			<b>● 구리빙스턴/김미리아</b>			<b>● 서오/양혜오</b>			<b>● 동대문중앙공동체</b>		
U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류다윗/송안나 류시연, 여, 20051102 류기연, 여, 20080302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구유진, 여, 20051113 구분훈, 남, 20070411 구해진, 여, 20090224 구하진, 여, 20100709			한국 인터콤선교회 서유진, 남, 19980922 서유민, 남, 20031210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환능/윤예지 최요한, 남, 19990720 최세라, 여, 20040319		
<b>● 최요셀/최현나</b>			<b>● 김오오/최오오</b>			<b>● Rachel/이현 카비오</b>			<b>● 고엘리사/하에스터</b>		
K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사프란, 여, 20081104 최사론, 여, 20081104			O시 GBT 김사훈, 남, 20121008			필리핀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수아, 남, 20030912 니코, 남, 19981222			M국 Inter-CP 고성주, 남, 19950921		
<b>● 한태오/정/최/필</b>			<b>● 노여호수이/정미리아</b>						<b>● 탁광복/조기쁨</b>		
US시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지우, 여, 20110721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노하린, 여, 20011123 노하연, 여, 20110420						S국 HOPE선교회 탁예경, 여, 19981015 탁은란, 남, 20000223		

2013년 4월 7일 944호

·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12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지 선교지 주소	소속단체	선교단체	주소	연락처
<b>북누리공동체</b>			아브라함 L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영안, 남, 20020606	스대반/에스터 카스, 여, 20020906	주누기/최화선 주주영, 남, 19971209	박익음/함은혜 박소연, 여, 19961108					
정운우/최열매 정하준, 남, 19960716	N국 정하운, 여, 19980311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미기/송두리 김환희, 여, 19950624	한국 GO							
<b>노원공동체</b>											
이훈/오지영 이아현, 여, 20030314	필리핀 이시현, 남, 20040511	GMP 이찬, 남, 20071017									
조경오/브린오 조물림, 남, 20050423	네팔 조물순, 남, 20070728	두란노 해외선교회									
<b>성동광진공동체</b>											
김일오/명유오 김규, 남, 20040407	네팔 예수전도단										
한영오/홍관오 한정민, 여, 20010807	시 한정현, 여, 20021009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영호, 남, 20040424											
<b>성북공동체</b>											
김지아별/피아황 김주영, 여, 19980623	S국 김주은, 여, 20000101	예수전도단									
김지선, 남, 20031223	한국 김진우, 남, 20000419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일일/이광강 최예미, 여, 20000616	Y국 최예성, 남, 20020718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예진, 남, 20040220											
전생령/구원혜 전영광, 여, 19951004	E국 전승리, 남, 19990904	FmNc									
<b>중종로공동체</b>											
Cho오오 Reuben Om Ngai, 남, 20020910	A국 Holy Blak Tha H, 여, 20041224	두란노 해외선교회									
20080123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바나바/최시바 이희창, 남, 20040320	A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별/백합화 김유비, 여, 20060421	C국 김유민, 여, 20120415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양재 캠퍼스</b>											
<b>■ 강남A공동체</b>											
조중오/임미오 파푸아뉴기니 조서아, 여, 19970323	T국 조예림, 여, 20030201	GBT 선교단체									
백두/원라 이하준, 남, 20010116	E국 이하민, 남, 20041010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하은, 여, 20060301											
서요셉/황보즈 서희원, 여, 20060902	Y국 서예원, 여, 20081119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찬오/송이오 이윤아, 여, 20011208	R국 InterServe										
<b>■ 강남B공동체</b>											
손충성/송이래 손수아, 여, 19981208	T국 손수빈, 여, 20021211	두란노 해외선교회									
<b>■ 강남C공동체</b>											
이꽃 김요한, 남, 20020907	L시 김우현, 남, 20070106	두란노 해외선교회									
롯데/김향한 표하을, 남, 19970216	J국 표단비, 여, 20000314	Inter-CP									
표현, 남, 20030806											
아이작/사만다 박시아, 여, 20060926	P국 박시우, 여, 20090820	두란노 해외선교회									
아글라/브리스가 윤은서, 여, 20081219	D국 윤슬아, 여, 20100818	두란노 해외선교회									
아글라/브리스가 선주연, 여, 20010326	C시 선하진, 여, 20020603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하진, 남, 20050610											
박주만 박유원, 남, 20000101	한국 박소원, 여, 20020901	Inter-CP									
<b>■ 서초A공동체</b>											
강중만/김신실 강인경, 여, 20050903	A시 강윤진, 여, 20070514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빛/윤다진 진유빈, 남, 20111009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위진오/홍성오 홍신익, 남, 20040307	H국 홍예은, 여, 20051006	예수제자선교회									
이브라함 L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서영안, 남, 20020606	스대반/에스터 카스, 여, 20020906	주누기/최화선 주주영, 남, 19971209	박익음/함은혜 박소연, 여, 19961108								
<b>■ 서초B공동체</b>											
심다윗/김미소 심하민, 남, 20050110	D시 심하진, 남, 20080125	FmNc 선교회									
김관오/우중오 김하범, 남, 20030705	F국 김하민, 남, 20050303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하준, 남, 20060101											
양희재/유우스 양하려, 여, 20120527	H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서초C공동체</b>											
이오/김승오 이한나, 여, 20050701	F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요셉/박재현 박진우, 남, 20000419	한국 자진민, 남, 20030911	두란노 해외선교회									
바사르 살람, 남, 20090627	F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바나바/김조세민 강산길, 남, 19981104	한국 강예주, 여, 20110729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사람/김은혜 박지혜, 여, 19990420	말레이시아 BEE KOREA										
<b>■ 송파공동체</b>											
박지오/김자오 박소윤, 여, 20050625	D국 박소망, 여, 20081031	두란노 해외선교회									
신원오/오수오 신영은, 여, 19991118	스리랑카 신영욱, 남, 20010501	두란노 해외선교회									
신하연, 남, 20081116	신하림, 여, 20090222	두란노 해외선교회									
정재오/홍정오 정예현, 남, 19960529	한국 GBT										
<b>■ 분당A공동체</b>											
김현오/홍성오 김도연, 여, 19951204	T국 김소정, 여, 19980612	WEC 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제지은/김세라 제가은, 여, 20091227	S국 제래미, 여, 20121103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경순/정혜스터 박세아, 여, 20040609	F국 박로이, 남, 20070528	두란노 해외선교회									
<b>■ 분당B공동체</b>											
김순준/최시랑 김미래, 여, 20040707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토마스/미셀 윤서연, 여, 19950607	D시 윤혜련, 여, 19970905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진오/최애오 김진영, 여, 19960427	한국 GBT										
<b>■ 산본안산공동체</b>											
박찬오/박은오 박진, 남, 20040425	C시 박준, 남, 20060601	예수전도단(YMCA)									
제이름/오유희 박순, 여, 19980102	B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안양명촌공동체</b>											
민바울/최윤숙 민주희, 여, 19950801	D국 민시원, 남, 19980127	두란노 해외선교회									
민형선, 남, 20010829											
김성오/임정오 김상진, 남, 20000208	P국 김환, 남, 20040620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하오/박정오 이상주, 여, 20070226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류모세/김사라 류찬영, 남, 19960905	S국 류현지, 여, 19990420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시오/고영오 김하은, 여, 19990921	D국 김하민, 남, 20050105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양재공동체</b>											
이빛/이성 이소라영, 남, 20060702	S국 이다나엘, 남, 20081107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길엽/김혜리 오하림, 남, 20080911	S국 오노람, 남, 20100819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길, 남, 20121017											
한시원/새상 이수훈, 남, 19940121	이수진, 여, 19980407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혜인, 여, 20040308											
<b>■ 부천 캠퍼스</b>											
이철오/원은오 김준수/아를라 김예영, 여, 20010510	M국 김준영, 남, 20020528	두란 해외선교회									
이선용, 남, 19950922	이혜인, 여, 19980212										
김시영, 남, 20080612											
박석 사리, 여, 20040601	E국 사무엘, 남, 20061011	두란노 해외선교회									
사영, 여, 20120516											
양아브라함/천시라 양경주, 여, 19960502	M국 양한결, 남, 19971205	두란노 해외선교회									
양한성, 남, 20020417	양한빛, 남, 20070922										
요한/조은오 요하사, 남, 20000129	T국 요요성, 남, 20011029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한/해지오 김진우, 남, 19990506	D국 김진성, 남, 20010423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진아, 여, 20090719											
박승오/김호오 박시원, 남, 20110915	B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신오/최인오 박시현, 남, 20100713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수원 캠퍼스</b>											
하드슨/안하리 하진석, 남, 19970218	T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기쁨/문하나 이윤석, 남, 20060309	D국 이윤아, 여, 20090731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바울/김연오 김현식, 남, 19971031	D국 김현서, 여, 20010222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길/일사랑 황해연, 여, 19991020	Q시 황아경, 남, 20021015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은샘 서정파, 남, 19980501	D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기오/김정오 최예찬, 남, 20050317	F국 최예림, 여, 20060815	두란노 해외선교회									
노향 나다나엘, 남, 2001	F국 Bao Tran, 여, 2006	두란노 해외선교회									
<b>■ 대전 캠퍼스</b>											
방갈렐/홍수아 방예민, 남, 20030915	U시 방예진, 여, 20051117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정오/박은오 조진현, 여, 19950430	스리랑카 조세연, 남, 19961115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성현, 남, 19980904											
John/Esther 강은혜, 여, 20030219	C시	경배와 찬양									
최아식/박유니스 최시은, 남, 2012.12.05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b>■ 남양주 캠퍼스</b>											
김엘리사/최마리아 김혜원, 여, 20010508	D국 김현현, 남, 20040517	FmNc 선교회									
김예을, 여, 20061208	김혜자연, 여, 20090509										
최원오/김연오 최혜순, 여, 20011017	최현순, 남, 20031003	OM 선교회									
최희순, 남, 20050418											
김은영 요셀, 남, 20040910	일본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홍오/정일오 김자수, 여, 19960417	F국	가성(OMC)									
<b>■ 인천 캠퍼스</b>											
요한/오수정 한성민, 남, 20010802	M국 한성결, 남, 20020828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성원, 여, 20080222											
가나 Gan-Olgon Bayer, 남, 20010412	M국 Gan-Olgon Bayer, 남, 20030122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서오/전미오 박종민, 남, 20060627	불가리아 박종하, 남, 20080423	WEC 선교회									
방생물/김은우 방하연, 남, 20050907	E국 FmNc 선교회										
박관오/정수오 박주은, 여, 19971218	한국 박준호, 남, 20000525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하은, 여, 2008.10.04											
<b>■ 광택 캠퍼스</b>											
김다윗/최사라 김예스더, 여, 20060220	E국 김하연, 여, 20100313	두란노 해외선교회									
<b>■ 강동 캠퍼스</b>											
장예카/사시 다니엘, 남, 20000312	스리랑카 조영, 남, 20011230	두란노 해외선교회									
유진, 여, 20080717											
한시원/김소광 한성은, 여, 19990803	L국 한상일, 남, 20010324	두란노 해외선교회									
<b>■ 서산 온누리교회</b>											
송바울/장예스더 송주은, 여, 20031116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b>선교단체 주소록</b>											
TIM (두란노 해외선교회) 02-794-1063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96번지 두란노빌딩 202호										
경애와 찬양 02-796-9700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180 경애와찬양										
바울 선교회 063-254-6418	(561-602)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6-6 바울빌딩 2층										
빌리온 선교회 02-679-1191	(151-65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86-10번지 2F										
알타이 선교회 02-576-8503, 070-7114-0266	(133-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우체국 사서함 48호										
중동 선교회 02-3436-3307	(138-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55-3 한영빌딩 선교회교회 4층 401호										
창조과학회 02-419-6465	(135-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BEE KOREA 02-822-9480, 내선 102번	(156-630)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47길 28										
Come Mission (한국선교회) 070-8250-3985	(156-679) 서울시 동작구 사당5동 213-27 3층										
Cornerstone(모이름) 02-796-8946, +902323648028	(135-660)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우체국 사서함 8호										
Destination 02-848-6251, 070-7500-6241	kdestination@hanmail.com										
FmNc 선교회 02-598-5324	(137-6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 오산빌딩 2층										
GBT 선교회 02-2653-4270~1	(156-6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GMF 선교회 02-337-7191	(158-6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163										
GMP 개척 선교회 02-2649-3197, 070-4066-0114	(120-65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8-15 연희 꽃밭길 15										
GMTC 선교회 02-400-9182	(158-6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188										
GO 선교회 02-443-0883	(314-080)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73-1 세종빌딩 A동 2층										
GP 선교회 070-4006-5300	(138-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당로 82길 17 2층										
HOPE 선교회 070-8787-8807	(135-6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사서함 1032호										
Inter-Coop 070-4352-6510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동리 산 40번지										
InterServe 선교회 02-2695-1451	(463-943) 강도 성서사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타워플러스 A동 1206호										
ITM 선교회 02-792-7075~6	(158-07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81-12호 2층										
KIBI 031-713-5775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4-108 대왕빌딩 1층										
OM 선교회 02-455-0261	(463-674) 강도 성서사 분당구 장지동 66-5 현대빌딩 5층										
OMF 선교회 050-5315-1993	(137-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63-32 호안빌딩 2층										
UPMA 선교회 02-529-4552	(153-6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5-132 4층										
WEC 선교회 021 322-0563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65-7 송진빌딩 4층										
YWAM (예수전도단)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241-34번지 5층										

2013년 4월 7일 944호

•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13번)



# 지구촌 이웃에게 사랑을!

## 헌금, 콘서트 등 나눔과 복음 전하는데 앞장

교회가 나눔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 동공고 난민 긴급구호

지난 주일(7일) 서빙고 1부 예배에 온누리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심야예배를 드리며 하루 한 끼 이상 급식하고 봉헌한 헌금 1억3천1백6십8만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헌금은 내전을 겪고 있는 동공고 난민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으로 사용된다.

### 4월 비전헌금 '허그콘서트' NGO 더 멋진 세상 '자선콘서트'

오늘(14일) 봉헌하는 4월 비전헌금

은 님 부이치치가 한국과 일본 차세대들에게 전하는 희망메시지 '허그콘서트'를 위해 사용된다. 님 부이치치 초청 허그콘서트는 일본에서 5월 15일, 한국에서는 6월 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은 지난해에 이어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자선콘서트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5월 8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자선콘서트 티켓은 4월 21일부터 주일은 서빙고와 양재 로비에 설치되는 안내데스크 평일은 목회지원실에 서 구입할 수 있다.

굿윌스토어 · 온누리복지재단

오늘부터 장애인주일인 다음 주일(21일)까지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는 굿윌스토어 도봉점에서 서빙고와 양재에 기증함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벌인다.

지난해 온누리교회가 기증함과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굿윌스토어에 기증한 물건은 5만3천2백7십 7개다. 굿윌스토어 직원들의 손을 거쳐 9천3백 2십2만6천 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 금액은 장애인직원과 탈북민, 생활이 어려운 직원 130명의 월급으로 지급되었다.

지난 4월 9일에는 우리은행에서 온누리복지재단을 통해 이웃과 사회에 사랑을 전하고 싶다면 4천만 원을 기부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재훈 목사가 온누리 성도들이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봉헌한 헌금을 동공고 긴급구호 기금으로 새달라며 월드비전 양호순 회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우리은행에서 온누리복지재단에 기부금 4천 만원을 전달했다.

## 터키에서 전방개척 전략회의

### 리더십, 소속 선교사 참석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소속 장기선교사 20여 명과 이재훈 담임 목사,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장) 등 선교본부 리더십들이 참석한 가

운데 지난 4월 1~6일 터키에서 전방개척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선교사역 소개 및 중장기 선교 전략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눴다. >관련기사 4면

/ 오은지 기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선교하고 봉사하며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 열 1:1~6

가장 어렵고 큰 시험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시험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라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시험을 당하면 건디기 힘들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보여주는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CS루이스는 '교회는 바다처럼 깊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바다처럼 깊은 교회일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교회입니다.

###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학자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조직, 제도, 교파, 프로그램, 건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등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순수하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은 보이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이는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추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이 본질이 아

닙니다.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때 비로소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가 위됩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 본질 깨닫는 것이 최우선

에베소서 말씀에는 교회의 문제들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15개의 교회 이름이 등장하는데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만 교회의 문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교회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디모데는 사도바울 이후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보낸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서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쓰여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족보에 집착 하고, 헛된 가르침에 집착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말다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조언이 적혀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문제가 디모데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오랜 사역 경험을 통해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 보이지 않는 교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교회가 회복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교회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영광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뿌리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1-2절).

사도바울의 인사에서 원숙한 신앙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알리는 내용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전하는 것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은혜와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거꾸로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지하교회 성도가 한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찬양, 송축, 경배합니다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에 대해 불평을 하거나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갇혀있었지만 마음은 갇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긴장하거나 다급해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사도바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한 단어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이 있고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많은 단어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문장을 써내려간 것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서의 모든 문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얼마나 잘 설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8절).

3절을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어로 문장이 시작되었지만 원문은 '찬양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복을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올려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을 더 복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며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그런데 늘 복주시는 하나님도 단 한 가지 사람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이복받으십니다. 이것을 찬양 또는 송축이라고 합니다. 경배라고도 표현합니다.

### 큰 복을 받은 사도바울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14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합니다로 시작해서 찬미로 끝났습니다. 이 문장에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들을 보면 얼마나 압축적인지 모릅니다. 해석하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용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 문장에 여러 개의 별명을 붙인 이유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웅장한 대문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수많은 고리들을 이어놓은 황금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페라 서곡과 같다고 했고, 어떤 분은 산에서 굴러 내려오는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모든 단어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면 논리적으로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감격의 순간을 경험하면서도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이유가 무



엇일까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 구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3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은 성령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복을 누리십시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으로 인해 기뻐하십시오.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행안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또 받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다른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4절).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복은 선택의 축복입니다. 선택은 가장 어려운 교리 중 하나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선택은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 이후 예수님의 마귀선택을 이야기했고 예정론의 대가 요한 칼빈도 구원에 대한 설명을 후 선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때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 과거를 되돌아보는 고백입니다. 미래에 누가 선택받았느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미래가 기준이 되면 구원 받은 사람들은 미리 정해진 것 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택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겸손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선택 받은 사람들의 능력**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할 때 창조가

있기도 전에 선택 받았다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선택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이 있기도 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존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세우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에는 거룩하지 못

하고 흠이 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도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고, 십자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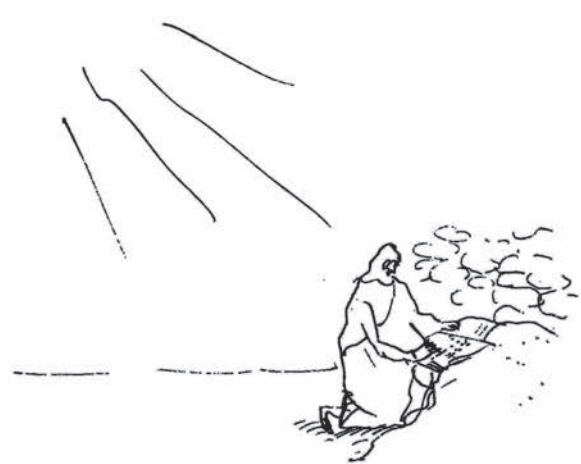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더욱 거룩하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선택 받은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죄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전에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로써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선택의 목적 '선교'**

왜 양자입니까.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시대에는 법적으로 친자나 양자의 대우가 똑같았다고 합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동일한 축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법적인 상속도 똑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선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무엇 때문에 선택의 교리가 교리적 사변과 논쟁에 휩싸였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교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혼자만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편협하고 잔인한 교리로 오해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창세 전에 선택 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십시오. 선교하고 봉사하며 축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일러스트 윤종은 janehome@naver.com





## 두란노해외선교회, 전방개척 전략회의

4월 1~6일 터키, 장기선교사 20여 명 참석

지난 4월 1~6일 터키에서 북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및 유라시아 지역에 파송된 두란노해외선교회(이하 TIM) 소속 장기선교사 20여 명이 모여 전방개척 전략회의를 실시했다. 전방개척 전략회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장), 정대서 장로(당회선교분과위원장) 그리고 박대호 장로(이천선교)가 참석해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진행되었다. 이어 참석한 선교사들이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SWOT분석을 통해 사역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명의 FC(Field Coordinator)선교사를 통해 각 지역의 중장기 선교 전략을 나누기도 했다.

2일(화) 저녁집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를 이야기했다. 이목사는 이 자리에 모인 선교사들에게 “부르심을 입은 사역에 헌신하되 자신을 불태워 재가 되도록 소진하여 탈진하는 선교

사가 되지 않을 것”을 권면했다.

특강 시간에는 코트디부아르와 레바논에서 온 강사들을 초빙하여 복음전파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최근 급속도로 교회개척이 이루어지게 하는 CPM(Church Planting Movement:교회개척운동) 강의를 했다. 마지막으로 이생명 선교사(우즈베키스탄/TIM 전략팀장)는 “두란노해외선교(TIM)의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이 복음전파가 어려운 지역일지라도 교회개척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이 자리에 모인 선교사들을 격려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바자회로 사랑과 위로를 전해요!

무릎선교기도학교가 지난  
금요일(12일) 서빙고 선교관 3  
층에서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  
번 바자회는 아프가니스탄 전  
쟁 미망인들에게 하나님의 사  
랑과 위로를 전달하자는 취지  
에서 마련되었다.

바자회 물품은 성도들의 기  
증품으로 마련되었다. 작은 정  
성으로 마련된 물건들은 옷,  
신발, 모자, 그릇, 꽃, 가방, 어린  
이용품 등 다양했다. 꽃과 예  
쁜 소품, 깨끗한 옷들은 인기  
가 좋아 순식간에 팔리기도 했  
다. 얻어진 수익금은 아프가니  
스탄에 있는 미망인들에게 학  
교를 세워주고, 재봉틀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데 사용  
된다.

한편 이날 무릎선교 오후 프  
로그램에 참석한 성도들은 어  
린이날 해외에 있는 선교사 자  
녀들에게 보내질 선물을 함께  
포장했다.

/ 조유진 기자

02



기·도·제·목

- 4월 15일(월)  
이재훈 목사님과 통역자에게 기쁨 부으심이 임해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 4월 16일(화)  
러브소나타가 오키나와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 4월 17일(수)  
이은일, 김성목 장로님의 강의에 은혜로 참가자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 4월 18일(목)  
가스펠 나이트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감사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4월 19일(금)  
집회 당일 좋은 날씨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 4월 20일(토)  
러브소나타 참가자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 4월 21일(주일)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집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를

# 소개합니다!

“선교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닌 '나를 부르신 자'의 뜻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전문인사역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사역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 밖에 없습니다. 이번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2기 첫 강의에서 이재훈 목사는 “전문인선교훈련을 나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OPMS는 2000선교본부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함께 주관하여 전문인자비랑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훈련학교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선교환경에 적응하고, 남다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교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OPMS의 주목적은 모든 성도가 Acts29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성품과 사역의 전문성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타 문화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선교훈련학교에서는 텐트메이커(자비랑선교인) 사도 바울처럼 사도행전적 자비랑 선교사를 양성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직업을 성경적(복음적) 가치관으로 사용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전방개척지역의 선교현장에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효율적인 사역을 하고, 모든 훈련생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팀 사역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27일(토) 두란노서원 101호에서 전문인선교사로 훈련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를 위한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3기의 문이 열린다.

훈련은 1, 2학기로 진행되며, 1학기는 4월 27일 ~ 6월 30일, 2학기는 8월 31일 ~ 11월 23일까지다. 이 외에도 7-8월 중에는 현장훈련(F.O: Field Outreach), 학기 중 3회 정도 Acts29 비전발리지에서 1박2일 공동체 훈련이 실시된다.

지난 2기에 참석한 유광종 집사는 현장 사역 후 OPMS의 강점 및 사역에 대한 간증을 했다.

“아버지학교에 몸을 담고 있던 터라 아버지학교와 선교를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끝에 타 문화권에서 현지인 아버지학교 할 수 있도록 전문인선교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구정연휴에 OPMS와 아버지학교 연합으로 피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교민들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 1기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인선교를 통해 현지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선교했던니 막힌 답이 무너짐을 경험했습니다. OPMS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도구임을 틀림없습니다. 꼭 지원하십시오!”

아시아 D국에서 선교활동 하고 있는 한 데이비드 선교사도 OPMS에 대해 간증했다.

“훈련을 통해 전문인·자비랑 선교사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이 세워졌습니다. 또한 사역지에서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의 방향, 다른 사역자와의 관계, 재정사용 등의 방향을 잡는 데

중요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강의하시는 훌륭한 강사들의 선교사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미리 알려주셔서 실제로 그러한 어려움이 닦혔을 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전문 기술만 가지고 현장에 가려고 했던 저는, 선교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까지 바꿔 놓았던 OPMS 훈련을 못 받고 현장에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혜숙 선교사는 선교현장에서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선교지에서는 선교사의 신분으로는 감동을 많이 겪게 되지만,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해소되고 더 효율적으로 폭 넓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블루오션입니다. 체계화된 선교 훈련을 받고 나가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에서는 “다양한 은사와 전문성을 가진 사역자와 성도들이 Acts29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전문성을 하나님 나라 확장과 전방개척 선교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 훈련생 접수 및 모집안내

- 인원: 50명 이내
- 신청기간: 4월 21일까지
- 신청자료: 신청서 1부, 추천서 1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opmstim@gmail.com
- 훈련비용: 50만원(아우터치 비용 별도)
- 문의: 한권초 선교사(070-7118-4810), 홈페이지: www.opms.or.kr

### ■ OPMS 2기를 마치며 ...

##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한 훈련”

2011년 봄,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라는 웹플랫폼을 우연히 손에 쥐게 되면서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론, 기독교세계관, 세계적도해, 선교와 영성, 성경속의 선교 등의 강의를 통해 진리 안에 있는 우리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 은혜로운 OPMS 일정

6월 29일 이재환 선교사님이 강의하신 ‘Mission Possible’은 선교사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게 해주었고, 제 가슴에 강한 터치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강의 후 저는 몇 달 동안 사모하던 방안을 하게 되었고, 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안산M센터에서 진행된 지역 리서치 방법론에 대한 수업과 실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이주민들이 해외 선교의 대상자들인데 그동안 선교를 생각해왔다고 하면서 정작 선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름방학에는

FO(Field Outreach)팀으로 재편되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국내와 해외 교회로 아우터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팀에 소속된 저는 처음 밭이본 이슬람권 지역과 무슬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을 만나다면서 이웃처럼 느꼈습니다. 카프카즈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에는 한국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게 보는 것을 경험하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비즈니스로 이곳에 오는 한국 전문인들을 대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미전도종족의 대부분이 선교사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지만, 비즈니스나 전문가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활동을 보장받기도 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모하는 것과 그것에 대한 훈련은 접근제한지역으로 선교를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훈련인데, 이 부분을 OPMS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님이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갖게 된 것, 이른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벅찬 감동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명훈 형제(이수공동체)

2013년 4월 14일 945호

- 01-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소개(5면)
- 02-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간증 : 김명훈 형제(이수공동체)(5면)

01

### NGO 더 멋진 세상 정경화 자선콘서트

일시: 5월 8일(수)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입장권: 서빙고 양재 로비(주일)  
서빙고 양재 목회지원실(평일)  
목적: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기금마련  
문의: 02-2271-2246, 2248

02

### 열방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져

#### 대청 FA 단기선교사, 수료자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열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FA(Frontier Agency:전방개척선교단체) 단기선교사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4월 12일(금) 서빙고 콘서트홀에서 26명의 FA 1, 2, 3기 단기선교사가 함께 모여 식사교제, 찬양, 예배, 기도를 드렸다. 이날 참석한 자체들은 FA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영혼들을 회상했다. 또한 현재 FA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다.

2년 전,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탄생된 FA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세워졌다. 이날 말씀을 전한 양재경 목사(W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세상의 심판자로 오셨지만 한 명의 중보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땅을 향한 중보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란다”며 하나님 나라에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FA 청년들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기도회에서는 오는 6월에 열릴 카운트다운 집회에서 200명의 FA 단기선교사가 탄생하기를, 현재 터키, 인도네시아에 있는 FA 선교사들의 사역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한편 FA 수료자 기도모임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며, 오는 5월 31일(금)에 두 번째 기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대학청년 “예배의 카운트다운”

### 1,008명의 리더십 · 교역자 참여

“내 안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대청의 리더십들이 영적인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사랑과 진실로 가르치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 하는 정직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4월 18일(금) 1,008명의 대학청년 리더십과 교역자들의 기도의 합성소리가 양재 사랑홀에 울려 퍼졌다. 이 자리에 모인 청년 리더십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간구하며 기도했다.

이번 카운트다운 연합기도회는 오는 6월 28일부터 대학청년부 주최로

열리는 카운트다운 집회를 예배와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모임이다. 이날 이상준 목사가 ‘예배의 카운트다운(요 4:23-24)’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마지막 때(카운트다운 시대)에 남는 것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참 하나님이신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가치 뿐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신령과 진정함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강조했다.

말씀을 마친 뒤, 이 자리에 모인 리더십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삶의 습관, 내면의 거짓된 감정,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하며 뜨겁게 기도했다. 또한 이 시대를 위해,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해, 예배와 선교와 부흥을 위해 중보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기 · 도 · 제 · 목

- 4월 22일(월)  
이재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4월 23일(화)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 영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 4월 24일(수)  
현지 실행위원회와 한국 본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도록
- 4월 25일(목)  
모든 봉사자들과 스태프들이 지치지 않고 섬기도록
- 4월 26일(금)  
러브소나타를 통해 현지교회와 일본교회에 부흥이 임하기를
- 4월 27일(토)  
좋은 날씨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 4월 28일(주일)  
강사들과 출연자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도록

03

### 마지막 주 수요일 선교헌신예배 드린다

4월부터 강동의 수요일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Acts29의 비전을 재선포하는 날로 정해졌다. 오는 24일(수)부터 강동 온누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예배는 ‘선교헌신예배’로 드린다. 이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김복음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해 선교현장에 관한 이

를 고백한다. >5월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나섬공동체(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유해근 목사가 초청한다. >6월에는 보은 예수마을 공동체(보나콤)를 섬기는 강동진 목사가 초청돼 농어촌 선교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2013년 4월 21일 946호

- 01-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위한 연합기도회 개최(4면)
- 02-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22-28)(4면), • 03- 강동 온누리교회 : 마지막 주 수요일 ‘선교헌신예배’로 지정(6면)

소개합니다!

# 선교사 준비생들을 위한

# OMO

(Onnuri Mission Orientation)

“남들처럼 특별하거나 신비한 체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선교’를 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부르신 것이 맞나요?”

“비즈니스 때문에 해외출장이 잦아서 해외 사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느끼고 지금까지 전도와 제자양육훈련을 착실히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나요?”

“저희 부부는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과 한국에 남게 될 가족들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선교사로 준비하는 선교준비생들이 흔히 물어보는 질문들이다. 온누리교회 이천선교분부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선교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선교사를 꿈꾸거나 현재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장단기, 후원/협력, 전문인자비량 등)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오는 5월 11일(토) 서빙고동에 위치한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온누리선교사오리엔테이션(OMO: Onnuri Missionary Orientation)을 실시한다.

지난 1월 19일 OMO에 참가한 이창수 성도는 “OMO를 통해 선교 준비를 어떻게 하며,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어떤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무척 좋았다. 선교를 준비하는 훈련생들이라면 꼭 한 번 들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온누리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웬

지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노크를 하기는 어렵다. OMO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선교가 쉽고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선교사의 부르심부터 준비까지 세세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돕기 위

해 마련된 모임이다. OMO에서는 ‘선교사의 부르심’, ‘선교사 준비’, 선교 실무 및 정책, 연령·직업·은사에 맞는 프로그램 및 선교사 유형 추천, 온누리 선교를 위한 사역기관 및 단체 소개, 관계 등에 대해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 혹은 높은 수준의 신앙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OMO를 통해 이런 유형의 선교준비생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도 선교사로 동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또한 선교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선교사 선배들로부터 들으며, 기초적인 영성훈련부터 관계훈련, 전도 훈련, 제자양육 등 선교사로서 필요한 준비 및 점검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온누리교회가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준비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릴 예정이다.

도육원 목사(이천선교)는 “온누리교회 역사는 곧 선교역사와 같다.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온누리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사로서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MO는 매년 5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선교사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필요와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GNTV 볼 수 없는 생활은 어둠입니다”

저는 미국 앵커리지에서 온 홍은덕 선교사입니다. 온누리 전문인 선교 훈련(OPM)을 받고 앵커리지로 온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 최근, 앵커리지에 3일 동안 정전이 있었습니다. 전화나, 전기가 끊기는 것은 참을 수 있는데 CGNTV를 볼 수 없는 것은 참기 어렵더군요. 매주일, CGNTV를 통해 새벽예배부터 9시에 뜨는 별까지 시청했었는데, GNTV를 볼 수 없는 생활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아닙니다. 일대일사역이 없던 이 교회에 일대일 사역을 뿌리 내리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초신자가 오면,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 오히려 양육을 부탁할 정도입니다. 처음에 저희 부부는 앵커리지에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직원 대상으로 전도사역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대학교수로 은퇴한 남편과 함께 각종 노동으로 땀을 흘리고, 밥을 지어 먹이고, 양로원 노인들을 모셔다 수제비를 끓여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일대일 사역으로 세밀하게 터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배를 타고 건너온 레스토랑 물품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한국에 다녀갔을 때에는 CGNTV를 찾아갔습니다. CGNTV는 앵커리지의 ‘전도왕’ 인데, 직접 만나본 ‘전도왕의 외모’는 열악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젊음의 시절을 내어드려 헌신하는 직원들과 CGNTV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옷자락으로 CGNTV를 두루 덮어, 가장 아름다운 기쁨 부으심이 곳곳으로 흘러가도록 말입니다. / 홍은덕 선교사(가명)

01

## 5월 1일부터 '카운트다운' 접수

### 예배 · 선교 회복 위한 컨퍼런스

오는 6월 28일에 열리는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한 1차 접수가 오는 5월 1일(목)부터 대청 공동체 및 인터넷 [www.count-down2013orkk](http://www.count-down2013orkk)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대학청년부 주최로 열리는 카운트다운 집회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2년 전부터 시작된 집회다.

이 집회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예배'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

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청연합본부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예배와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길 소망한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등록신청: 5월 1~28일(1차접수), 3만원

문의: 오기현 간사(570-7523)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mailto:oej@onnuri.org)

02



기 · 도 · 제 · 목

- 4월 29일(월)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 4월 30일(화)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의 모든 스태프들이 끝까지 하나 되도록
- 5월 1일(수)  
이재훈 목사님의 메시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 5월 2일(목)  
모든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은혜와 감동이 가득하기를
- 5월 3일(금)  
행사당일 맑은 날씨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 5월 4일(토)  
러브소나타 이후에 일본현지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 5월 5일(주일)  
모든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경험하도록



01

##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 선천성기형환아 특별 환송회

지난 4월 18일(목)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연세의료원이 선천성 기형 몽골어린이를 위한 특별 환송회를 열었다. 이번 환송회는 선천성기형환아들이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송회에서는 치료와 수술에 잘 응한 세 명의 환아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외국인 환자들도 초청해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며 교제를 나눴다.

이날 선천성기형환아들의 수술을 의뢰한 음영진 목사는 세브란스와 연결되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 되새기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선천성기형환아들이 눈에 선해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연세대학교 병원장님께 ‘이런 사정이 있으니 도와주시시오’라는 내용으로 무조건 편지를 썼습니다. 세브란스를 선택한 이유는 세브란스 미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에서 구한다’는 내용 때문에 세브란스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 수술 수속까지 밟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람은 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모두 인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도와주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세브란스에서 이렇게 귀한 사업을 펼쳐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픈 영혼들의 영과 육이 고침 받고 회복되어 장차 온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TIM몽골지부에 소속된 몽골 ACTS29회원교회 뿐만 아니라 전 몽골지역에 진료사역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몇몇의 성도들에게 즉각적인 처방을 해 호전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처방과 수술, 치료 후유증이 생겨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6일, 신촌연세의료원 의료원장실에서 열린 선천성기형환아돕기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선천성기형환아돕기 행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와 연세의료원이 몽골의 낙후된 의료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3명의 선천성기형환아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다. 선천성기형 환아 3명은 선천성안면종양환자인 히식바이르, 선천성홍곽기형환자인 사라, 선천성장기형환자인 투먼이다. 이들은 본 단체가 개척한 ACTS29 회원교회 성도 자녀들이며, 1회 한국방문 수술로 완치에 준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수술은 한국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연계해서 진행, 환자 운송은 국내 온누리미션 몽골어예배와 연계해 통역 등 필요한 인력을 협조했다.

선천성 안면종양을 앓고 있던 히식바이르는 종양제거 및 안면 재건 수술을, 선천성 홍곽기형환자인 사라는 홍곽복원 수술을, 선천성 장기형 환자인 투먼은 결장루 복원수술을 받았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아웃리치 위한 자선장 열려

### 음식, 의류, 도서 등 판매

지난 주일(21일) 대전 온누리교회 5층 사이닝홀에서 여성사역 자선장이 열렸다. 이날 자선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됐으며, 국수, 주먹밥, 분식 등의 음식과 의류, 도서 등이 판매됐다.

자선장의 모든 물품들은 대전 성도들의 자비로 준비됐으며, 수익금으로 400여 만 원이 모였다. 자선장의 수익금은 대전 성도들의 아웃리치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01

**강동** **수요선교헌신예배 시작**

**4~6월 매달 마지막 주**

선교지향 공동체를 꿈꾸는 강동 온누리교회가 세 달 동안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은 수요선교헌신예배를 드린다.

지난 24일(수) 저녁 7시30분 수요선교헌신예배의 첫 단추가 켜졌다. 이날 캄보디아에서 11년간 사역하고 있는 김복음 선교사가 교회를 방문해 ‘본받지 말아야 할 리더십’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동은 지난해 캄보디아 브레이위하여 지역을 방문해 예배사역과 노방전도, 기능스쿨(영어, 미술, 음악 등) 등을 진행하기도 해 김복음 선교사와는

끈끈한 인연이 있다. 이날 김 선교사는 캄보디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간증들을 나눴다.

오는 5월 15일에는 서울의국인근로자선교회인 나섬공동체를 이끄는 유해근 목사가 방문하며, 6월 26일은 충북보은예수마을 대표 강동진 목사가 놓어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

강동 온누리교회는 매년 여름 국내외 20여 개 지역을 돌며 이웃리치를 진행한다. 올해 여름에도 15여 곳을 방문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계획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로스앤젤레스**

**“주님 제가 평생 선교사입니다”**

**예비 선교사 17명 배출**

지난 14일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이 종강했다. 참가자 17명이 예비 선교사가 되었다.

와이미션에 참석한 이기진 권사는 “선교라고 하면 두려움부터 앞섰는데 이제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섬겨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고”, 서재경 자매는 “선교는 어려워야 하고, 선교지로 나가야 하고, 순교해야 하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내 삶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매일 선교사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평신도 선교훈련학교 와이미션은 현재 삶 속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교육의 장으로 ‘구약과 신약 교역사’, ‘세계 선교 현황과 전략’, ‘타문화 이해’, ‘선교의 도전과 참여’, ‘선교 헌신 예배’ 등의 커리큘럼으로 3주 동안 진행됐다. / 김병찬 통신원



01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참가자교육

### 서빙고 두란노홀

열여덟 번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를 준비하는 참가자, 스태프 그리고 일본 현지 교회들도 러브소나타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에 러브소나타 본부에서는 두 차례 걸쳐 참가자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1차 참가자교육이 지난 5월 2일(목) 서빙고 두란노홀에 열렸고, 오는 5월 9일(목)에는 양재 화평홀에서 2차 참가자교육이 열린다. 100여 명의 참가

자들이 함께한 1차 참가자교육은 ▷ 러브소나타 홍보영상 ▷환영 ▷설교 ▷참가자 일정 및 봉사팀 안내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말씀을 전한 반태효 목사는 “일본인들은 우리들의 작은 섬김과 헌신에 감동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모든 프로그램과 참가자, 주강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선교사 준비생 OMO 실시

선교사 준비생들을 위한 일일 오리엔테이션 ‘OMO(Onnuri Missiary Orientation)’가 5월 11일,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열린다. / 오은지 기자

03



기·도·제·목

- 5월 6일(월)  
한국의 실무자들과 일본 현지의 실행위원회가 하나가 되도록
- 5월 7일(화)  
이재훈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심과 통역의 탁월함을 위해
- 5월 8일(수)  
362명의 한국참가자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 5월 9일(목)  
준비된 많은 영혼들이 큰 은혜 받도록
- 5월 10일(금)  
러브소나타 이후에도 오키나와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부흥하도록
- 5월 11일(토)  
모든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지치지 않고 잘 섬기도록
- 5월 12일(주일)  
일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04

### ■ 수원에서 알려드려요!

와이미션(온누리선교학교) 수원 8기

기간 : 5월 19일-6월 30일(7주간)주일 16:00-18:30

장소 : 수원 온누리교회 4층 비전홀

회비 : 3만 원

대상 : 모든 성도

01

# 전문인선교사로의 ‘부르심’

## 두란노해외선교회, OPMS

지난 4월 27일(토) 오후 3시경 두란노서원 101호 온누리 전문인선교사를 꿈꾸는 47명의 훈련생이 한 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전문인선교학교(OPMS)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주최로 열린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개강예배에서 수강생 강어수 성도와 이흥호 장로를 만났다. 그들에게 온누리 전문인선교학교를 오게 된 계기 및 이 스쿨을 통해 본인이 펼치고 싶은 선교사역 방향에 대해 물어보았다.

복음의 빛을 감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는 강어수 집사. 그녀는 전문인선교사로서의 열정과 뜨거운 기쁨을 가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돌봐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의 빛을 쬐어오. 그러던 중 우리도 한국의 50년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에 이 복음의 빛을 감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네팔이나 그런 나라를 갔더니 자연스레 울면서 기도하게 되고 ‘이제껏 복음의 빛을 감지 못했던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발을 내딛고 헌신할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온 이흥호 장로도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 참석하게 된 소감에 대해 밝혔다.

“저희 가족은 모두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선교사역을 파송하는데 지원 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나가서 선교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기보단 내 생각, 의지, 감정 등을 모두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받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미션 비전에 따라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미션을 받고 싶어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처음은 미약하여도 나중에 큰일을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선교현장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모인 전문인선교사 훈련생들은 손원민 집사를 통해 MBIG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다. 손 집사는 “전문인선교훈련에서는 선교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목회적 선교사들과 NGO단체와 연계해서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자세, 선교적 목적으로 세워지는 기업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힘들어졌다.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서는 해외로 나가야한다. 기업가적인 달란트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천선교위원회에서는 MBIG 조직 강화를 위해 정보 공유 및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오는 6월 양재 사랑홀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포럼 ‘IBA2013’을 개최한다.

이날 ‘부르심(장 11:27-12:3)’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목사는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시간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 스스로 왔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시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할 수 있는 은사를 덧붙여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그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전문인선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여년간 큐티를 해오면서 깨달은 큐티의 영성, 실제, 적용 그리고 간증을 나누며 큐티 세미나를 진행한 허성기 장로는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에 반드시 큐티 영성을 가지고 경건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큐티는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하는 경건훈련이다. 큐티의 삶은 개인에배의 삶이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의 일대일관계다.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 여성선교사 리트릿

이번 여행은 결혼 후 13년 만에 찾아온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떠나는 ‘특별한 선물’이었다. 원래는 3박4일 일정이었지만, 항공 노선과 시간표를 맞추다보니 중간에 동아시아A국에서 머무르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6박7일 일정 되었다.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진정한 쉼’은 자진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회복의 시작

조OO 사모님의 강의를 통해 사역 현장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때로 자치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자신을 다그치고 더 헌신을 강요하며 주어질 것도 마음껏 누리지 못한 모습들도 돌아보았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ья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린 채로 자신과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조차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강해지고, 더 사역을 잘하고, 더 낮아지지 못했다고 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죄책감과 그에 따라오는 우울함 등을 돌아보며 ‘나 자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사랑해야겠다고 깨달았다. 특히 함께 자신의 문제들을 나눌 때는 비슷하거나 동일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자제들을 통해 자신이 위로받고 함께 아파하며 기



도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빛 처럼 만나지 있는 동역자들이었지만 그때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교제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를 알고 이해하며 한층 마음이 가까워질 수 있었다. 피곤하지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교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주님에 대해 다시 아는 시간

조OO 선교사님의 기도예 관한 말씀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듣고 알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여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역현장에서의 경험과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쉬운 교만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는 마음에 대해 점검했다. 더불어 내가 비록 실수할지라도 혹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때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히려 나아갈 것을 결단했다.

여성 건강이나 마음에 관한 강의는 예상도 못한 내용이었는데 이 특강들은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알찬 시간이었다. 특히 마음 강의를 하신 교수님의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다.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탁이 되

도록 가르쳐주시는 표정 관리들이 마음에 남는다. 데카레이션과 식사시간의 서빙, 장기자랑 등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하고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늘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밝은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신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를 바라보며 눈가가 축축해져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던 모습,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는 스태프들의 마음이 지금도 느껴진다. 그리고 이 모임을 계획하고 진행한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드린다.

주부가 된 여성선교사가 가족을 놔두고 혼자서 단기에 내 이름으로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였고 감사했다.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훌륭한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의 자제로서 교제하고, 동역자들과 마음껏 이야기하는 등 그렇게 귀한 시간과 재정, 귀한 분들을 보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여성선교사의 하루하루는 딱히 해놓은 일도 없이 후딱 지나간다. 지금도 OOOO의 모임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분들과 교회와 생각한다.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동일한 여성으로 선교사로 부르심 받고 뜻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지금의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동행을 전하게 느끼며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브리스길라 선교사(중국 A국)

2013년 5월 5일 948호

- 01-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개강예배(9면)
- 02- 여성 선교사 리트릿 보고 : 브리스길라 선교사(중국 A국)(9면)



01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김해영 지음 | 두란노  
252쪽 | 11,000원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의 약한 곳에 가 있다. 그 사실을 알고 내 삶은 늘 하나님으로 가슴이 뚫린다. 그 사랑이 오늘도 나의 장애를 뛰어 넘는다.”



134cm 척추 장애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국제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를 품은 작은 거인, 김해영 선교사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있다.

02

## 후원자스토리

### ▷ 첫 월급 CGNTV에 드린 이야기 (홍희란(가명))

청소년 집회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약속부터 했습니다.

어느덧 20대 여대생 조교가 되어 한 학기 장학금, 제 생의 첫 열매를 받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고, 예쁜 옷과 구두며 가방을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행여 마음이 흔들릴까봐 액수조차 세보지 않고 CGNTV에 드렸습니다.

오래 전 주님과 약속을 했으니까요.

영상은 단시간에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금이 세대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CGNTV를 모세로 쓰시는 하나님.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도울 동역자인 아론과 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점점 메말라 가는 이 땅, 꺼져가는 이 시대에 희망과 등불이 되어주세요. 그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 “다시 한 번 울려 퍼지는 사랑 노래”

Again 오키나와, 이재훈 목사, 닉부이치치 주강사  
100개 일본 교회 협력, 1,700명 규모

2007년, 온누리교회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복음의 문을 열었던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6년이 지난 2013년 5월, 이곳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진다. 6년 전, 오키나와와 후카오카에서 열린 러브소나타에는 총 4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360여 명이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 이 반응에 힘입어 이번 행사에서도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

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1,700여 명의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15일(수)에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메인 행사가 열리는 16일(목)에는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가 이어진다. 이재훈 담임목사와 닉부이치치가 주강사로 나선다.

오키나와는 일본 남서부 최남단인 류큐 제도에 있는 지역이며, 역사적으로는 메이지 시대의 류큐의 본토 병합까지 일본과 청나라 양쪽의 문

화가 혼합된 곳이다. 이 때문에 다른 문화와 풍속을 유지하고 있다. 류큐제도에는 60여 개의 섬들이 있는데, 그 중 주도(主島)인 오키나와섬이 총면적의 53%, 총 인구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는 아열대 계절풍기후로 열대식물이 무성해 여름에는 태풍의 진로가 되어 그 피해가 극심하다. 주요 관광지는 나하국제거리와 슈리성 등이 있다.

일본 현지에서는 다시 한 번 오키나와 땅에 부흥의 불을 붙일 이번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기대감을 입증하듯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100개의 일본 교회가 기도로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며칠 전에 미야코지마섬의 작은 교회가 기도로 동참하기로 하면서 100개의 협력 교회가 생길길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되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 러브소나타를 위한 목요 기도모임 진행되던 3주차에, 중부지역의 고야밤 테스트교회로부터 가스펠나이트에 참석하는 한 자매의 고백을 전해 들었다. 이 자매는 러브소나타를 함께 준비하면서 비전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이렇듯 러브소나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 이 지역에 또 다시 불어올 성령의 바람을 기대해본다.

/ 오온지 기자 oej@onnuri.org



01



## 더(The) 멋진 세상과 함께한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가 지난 5월 8일(목)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독주회는 지난해 8월에 열린 독주회와 동일한 목적인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씨가 자선 콘서트에서 모은 기금은 말라리아와 기생충으로부터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기·도·제·목

- 5월 13일(월)  
이재훈 목사님 말씀에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5월 14일(화)  
영적 흐름과 프로그램이 잘 연결되도록
- 5월 15일(수)  
감사들과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넘치도록
- 5월 16일(목)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 5월 17일(금)  
러브소나타 이후에도 현지교회들이 하나 되어 부흥하도록
- 5월 18일(토)  
행사 당일 좋은 날씨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도록
- 5월 19일(주일)  
362명의 한국에서 참석하는 362명의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03

TV 추천 프로그램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 5/18(토) 오후 9시50분

일본 오키나와에서 다시 한 번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노래,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실황입니다.



러브소나타 오키나와가 풍성한 은혜기운데 막 내렸다.

# “오키나와에 뿌려진 부흥의 단비”

2007년 은누리교회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이곳에서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며 일본 각지에서 러브소

나타의 향연을 이어갔다. 지난 5월 16일에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가 가장 먼저 울려 퍼진 축복의 땅 오키나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을 지폈

다.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에는 총 2419여 명이 참석해 122명이 결신하는 영적 추수를 거뒀다.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의 시작이 되었던 오

카나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적 부흥의 단비를 흠뻑 뿌렸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복음 앞에 바로 서는 CGNTV

#### 직원 아웃리치 발대예배

CGNTV 직원들이 여름 아웃리치 시작을 알리는 '아웃리치 발대예배'를 드렸다.

CGNTV 직원들은 지난 5월 11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실시된 직원수련회에서 드린 아웃리치 발대예배에서 복음 앞에 바로 설 것을 다짐했다.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되는 CGNTV 직원 아웃리치에는 국내

4개 팀과 해외(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서남아시아, 러시아, 중동 등)10팀에 110여 명의 직원들이 참가한다.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는 CGNTV 직원 아웃리치는 네트워크 확장과 복음전파라는 두 가지 사명을 고루 감당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mailto:one@onnuri.org)

02

### 2013 2차 선교사 파송

오늘(19일) 서빙고 1부 예배와 양재 3부 예배에서 총 11명의 선교사가 파송된다. / 오은지 기자

- 유성근/허귀재 (장기) 일본
- 김한수/배지연\_김진우, 김진성, 김진아(장기) 남아시아 N국
- 양파리아 (장기) 남아시아 J국
- 최예녹/강드보라\_
- 최예찬, 최예림 (장기) - 남아시아 J국
- 박승일/김효정\_
- 박시원 (장기) 동아시아 B국
- 한관조/홍린희\_
- 한정민, 한정원, 한영호 (장기) 동아시아 B국



# “은혜의 단비로 오키나와를 흠뻑 적시다”

##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진정한 자유' 선포, 122명 결신

2013년 5월, 오키나와 땅을 흠뻑 적신 바처럼 이 땅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다. 오키나와 땅에서 또 다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바로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영혼들의 가슴을 적었다. 러브소나타 집회 기간이 내내 장마철이라 하루 종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총 1,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인 집회장에 1,700여 명을 훌쩍 뛰어넘는 영혼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했다. 그중 122명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했다.

이날 이재훈 목사가 선포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통해 집회에 참석한 스태프, 봉사자, 참가자들은 일본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오키나와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의 불길기 타오르는 것을 경험했다.

### 부흥의 열기가 가득한 집회장

5월 16일(목) 오후 7시, 여기는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극장동 앞. 계속해서 거센 비가 강하게 쏟아짐에도 집회장 앞과 안에는 줄지어 서있는 일본인들로 북적였다. 집회가 시작되자 모든 좌석은 물론 집회장 바다 곳곳까지 매운 사람들로 인해 열기가 가득했다.

오프닝 영상으로 러브소나타의 문이 열렸다. 이어 ▷박진아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 ▷테너 배재철의 솔로 및 간중 ▷가수 심수봉의 노래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의 연주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의 찬양 ▷러브소나타 주재영 ▷이재훈 목사의 메시지 ▷결신 등의 순서로 집회

가 진행되었다.

### 집회 분위기를 압도시킨 공연 및 간중

첫 오프닝인 샌드애니메이션 공연부터 일본인 참석자들을 압도시켰다. 숨죽인 채 공연에 집중하며 공연을 관람한 참석자들은 샌드애니메이션 장면이 하나하나가 지나갈 때마다 감탄하며,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테너 배재철 씨가 감상선암 수술로 한때 목소리를 잃었지만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간중과 노래로 감동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러브소나타에 처음 참석한 가수 심수봉 씨는 자신의 히트곡 '백만 송이 장미'를 일본어로 부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일본어로 간증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플루티스트 송솔나무는 세 개의 플루트 악기를 번갈아가며 '내 고향'과 '(이산)의 주제곡' '약속'을 연주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늘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렸던 김영미 권사가 이번 집회에도 변함없이 일본어로 '눈물이 주룩주룩하다 소우소우'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다. 공연을 통해 한 마음이 된 참가자들은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다.

### 이재훈 목사, '진정한 자유' 선포

러브소나타의 주강사로 나선 이재훈 담임목

사는 오키나와 참석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직접 오키나와 전통의상을 준비해 전통의상을 입고 설교하는 열정도 보였다. 이날 이 목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매여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할 때 자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와 함께 한계(규칙)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잘못 선택하면 선택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유의 법칙을 누리려면 진리(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 은혜와 단비와 함께 거둔 영적 결실

메시지를 머지않아 3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에이코 메이츠(EMC) 어린이 합창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가운데 러브소나타 피날레를 장식하는 세리모니가 진행되었다. 결신의 시간에는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가 결신카드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로에게 화관을 씌워주며 축복했다.

마지막으로 소원이 적힌 종이배를 천장을 향해 힘껏 던지자 모든 출연진들이 무대에 올라와 참가자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기쁨을 누

렸다.

이번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에는 총 2,419명(일본인 참가자 1,880명) 중 122명이 결신했다. 이 중 장로사관학교팀, CEO포럼, 대전 은누리교회에서 총 276명의 봉사자가 이번 집회의 준비부터 마지막 인사까지 충성스럽게 섬기며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도록 도왔다. 특히 이들에 걸쳐 준비해 온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의 행사마다 참석하신 아초코 상은 크리스천으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지 못했던 불안감 때문에 최근 10년 동안 잠을 못자고 힘들어 했다는 고백을 하며, “교회에서 친구들이 집회사 행사가 있으면 초대해 했지만 예에 예는 아무리 초대를 받아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러브소나타 포스터와 초대권을 우연히 교회에서 발견하고는 웬지 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 마카 상과 함께 러브소나타에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러브소나타를 통해 마음속에 울리는 감동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찼다. 러브소나타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고백했다. 이외에도 일본 현지 협력교회 102개 교회의 목회자 및 성도들과 러브소나타 집회를 위해 중보기도로 힘쓴 모든 이들이 이번 러브소나타의 숨은 주역들이었다. 이렇게 은혜의 단비로 적신 오키나와 러브소나타를 통해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석한 일본 참가자들과 한국 스태프 및 봉사팀 등은 하늘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만끽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동양의 하와이, 아름다운 섬 오키나와

동양의 '하와이'라고 불리우는 오키나와는 북위 23도, 동경 127도를 중심으로 광대한 해역에 점재하는 크고 작은 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는 일본에서 유일한 아열대해양성기후에 속하며 여름에는 남동풍, 겨울에는 북동풍이 많이 분다. 연간 평균기온은 22도다. 쿠로시오(해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도 따뜻하고 10도를 밑도는 일은 거의 없다. 주요관광지역으로는 오키나와의 메인 거리

인 나하 국제거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슈리성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메이지 시대의 류큐와 본토 병합까지 일본과 청나라 양쪽의 문화가 혼합되었다. 이 때문에 본토의 도도부현과는 다른 문화와 풍속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슈리성터**

옛 류큐왕국의 성터, 창건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 1소씨가 류큐를 통일한 후에 왕성으로 확립, 그 후 제 2소씨인 쇼신왕에 의해 확장 정비되었다. 중국, 일본, 류큐의 건축양식을 모두 볼 수 있다. 오키나와 현 당시 소실되었지만 일부가 1992년 '슈리성 공성'으로 복원 정비되었다. 2000년 12월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나하 국제거리**

전쟁 후의 급속한 복구를 통해 눈부시게 변화한 국제거리는 '기적의 1마일'이라고도 불리운다. 국제거리 메인 거리에는 기념품 가게, 쇼핑몰, 음식점 등이 즐비해 있다.



**만자모**

단애절벽위에 천연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푸른 바다가 눈에 띄게 아름다운 오키나와 제일의 관광 명소.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맑은 날에는 본성 북부 지역과 이이제마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오키나와 컨벤션센터**

전시장, 회의장, 극장으로서의 다기능을 가진 오키나와 최대의 대형 컨벤션 시설로 많은 국제회의와 국제학술제가 개최되고 있다. 리조트, 비치, 요트 및 모터보트, 해변공원, 야외극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인접해 있다.



■ 인터뷰

##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러브소나타!”



**쿠니오시 마모루 목사**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2007년에 열린 지난 오키나와 러브소나타는 온누리교회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다 기획하고 준비하여 섬겨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러브소나타

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온누리교회를 돕고 협력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러브소나타에는 협력교회가 70여 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0개의 협력교회를 목표로 해서 102개의 교회가 함께 러브소나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원에 힘입어 집회 시작 전부터 러브소나타 초대권이 부족해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을 정도로 그 열기와 기대감이 대단했습니다. 준비과정을 통해 한국교회와 일본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과정 하나 하나를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선교와 부흥 향한 초석이 되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몸소 실천하여 교단과 교파 그리고 나라를 초월해 모든 민족을 품고 서로를 묶어주는 끈이 바로 러브소나타입니다. 일본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히 선택하여 사명을 주신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담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용주 목사님의 뜻을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어받아 제2기 온누리교회와 러브소나타의 정신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의 꽃은 '문화전도집회'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기독교의 근본적인 영적 토대를 쌓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일대일이나 큐티와 같은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이것이 일본선교의 뿌리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가 한 번의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런 양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오키나와를 변화시키고 일본 땅 전체에 선교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성감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

부흥은 예수님의 목숨과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소나타를 통해 우리가 이처럼 함께 기도하며 배움의 장이 만들어지고 한일간의 연합의 열매가 맺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는 쉽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믿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러브소나타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집회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의 실천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선교의 정신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정성어린 기도와 뜨거운 성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진행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연합과 사랑을 이룬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러브소나타 집회 하루 전날에는 오키나와 102개의 교회리더십들의 영적교류를 위한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가 열렸다. 교회부흥세미나에서는 이은일 장로(한국장 조과학회)와 김성목 장로(아버지학교 본부장)가 >창조와 복음 >가정의 회복과 자녀 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쵸준 키요나 목사는 이은일 교수의 강의를 통해 "창조의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서 좋았다"고 고백했다. 가스펠 나이트에는 다투어치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닉 부이치지는 팔, 다리가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간증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병, 고통,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진정한 하늘나라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러브소나타에는 참가자 A팀, B팀, C1, C2 CEO포럼, 장서관, 대전 온누리교회팀이 현지교회 일곱 곳을 방문했고 오키나와 땅의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경험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1. 가스펠나이트 집회를 뜨겁게 달군 다투어치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 한일 크리스천CEO포럼에 일본 리더십들이 참여해 말씀을 듣고 있다.  
 3. 러브소나타 집회를 앞두고 봉사자들이 줄서 있어 선물 패키지를 하고 있다.  
 4. 러브소나타의 감동을 친구와 함께 나누고 있다.  
 5. 에이코메이즈 어린이합창단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며 축복했다.  
 6. 가수 심수봉 권사가 러브소나타에 처음 참석해 간증 및 노래를 불렀다.

2013년 5월 19일 950호

•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교회부흥세미나 및 가스펠 나이트(6면)



■ 인물스토리 ■



러브소나타 가스펠 나이트 행사를 위해 140여 명의 일본인으로 구성된 파이어 팀이 만들어졌다. 각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매주 일 모여 연습을 했고, CD를 만들어 각자 집에 돌아가 최선을 다해 연습했다. 교파, 교단, 다니는 교회도 다르고 10대에서 60~70세 어르신까지 연령 또한 모두 달랐지만 러브소나타 집회를 향한 마음가짐은 똑같았다. 그들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나라, 지역 사람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바로 그것이었다. 러브소나타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일본인 파이어 팀의 지휘를 맡았던 나나 자매의 간증을 통해 들어보았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러브소나타로 주님 만난 그 때의 느낌 살아났어요!”

러브소나타 가스펠 나이트 행사 전날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껏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많은 시간동안 연습을 했고 준비를 해왔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혼자서 못하기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중학교시절부터 주님의 곁을 떠나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가운데에 어렴풋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세상 속에서 헤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

시다면 이런 저를 다시 교회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열린 전도 집회에 참석했고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마디로 저를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무대 위에 섰고 최선을 다해 노래했습니다. 러브소나타 행사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 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

절히 바랬습니다. 부르는 찬양과 몸짓 하나에 주님의 사랑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정열과 사랑이 반드시 전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과정을 준비해주신 온누리교회와 러브소나타의 집회를 위해서도 전심을 다해 일본인 준비팀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오키나와 러브소나타는 제게 있어 주님을 통해 구원받은 그 때 그 시절의 기본으로 되돌아가게 해 준 너무나 고마운 집회였습니다. 그런 첫사랑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카시마 나나

■ 참가자 인터뷰

“창조론, 전도의 도구로 사용”



교회부흥세미나 - 초준 키요나 목사

“일본인들은 매우 이성적인 편이라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오늘 배운 창조론은 전도도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전할 수 있는 좋은 ‘전도 도구’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 분야를 더 공부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는 모임 기대”



CEO포럼 - 오오타 마사히데전 오키나와현 지사

“온누리교회에서 주최해주신 CEO포럼을 통해 이렇게 허물없이 한일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에 감동했고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나라를 넘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군마에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도 기회가 된다면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깨닫는 계기”



러브소나타 - 카미야 마코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이재훈 목사의 자유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독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



봉사자 - 김원경 집사(대전 온누리)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을 부여주셨습니다. 집회를 섬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을 이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재훈 목사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역의 힘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재훈 목사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죄와 두려움과 죽음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도서관법 전문에 있는 한 문장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고백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진리가 우리를 진리케 한다는 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한다는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천년 전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도 새장에 갇혀 있다가 날 수 있도록 새장을 열어줘도 하늘을 날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져다주는 먹이와 안락한 새장에 갇혀서 자기가 날 수 있는 새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참된 자유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진정 자유로울까요. 결혼한 부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자유일까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계와 규칙이 주어집니다. 한계와 규칙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에게 있어 자유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위한 규칙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의 존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존하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유와 함께 한계를 주셨습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개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도록 한계를 주셨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인간이 규칙을

지킬 때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이 규칙이 있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가 자유하려면 이 규칙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도 어길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규칙을 깨뜨리는 것이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잘못 선택하면 선택하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뛰어내리는 순간 자유롭지 못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깨뜨리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깨뜨리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했지만 정반대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치적인 자유만 있다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한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법적으로만 된다면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몸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습니다. 성에 중독되어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열등감과 자만심에 사로잡혀있었습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마음은 얽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닌 말에 얽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 행해도 그냥 묵인합니다. 이런 집회에 와서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도 집에 가면 다른 가족이 만지 않아서 나도 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은 자유롭게 마음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 자유로운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중단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릴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돈에 대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면 돈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을 버릴 수 없다면 다른 사람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관습에 얽매어있으면 그 또한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포기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멈출 수 없고 버릴 수 없다면 자유가 아니라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된 모두에게 자유를 누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닌 진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분의 인격도 진리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67가지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 6가지 진리법칙

첫 번째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린 종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땅의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드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건이라는 진리입니다. 여섯 번째 진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려면 진리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오기나와 올 때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못 탑니다. 중력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무서운 중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중력은 마음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죄라는 중력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중력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중력을 이겨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법칙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죄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러분이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자유케하신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 11:25-26).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누리 이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죄, 두려움, 죽음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드리면 이 지리를 나가는 순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드리시길 바랍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예배 부흥과 선교 사명 이루는 카운트다운

## 오는 6월 28~29일 30일(주일)은 잠실집회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40일(1개월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카운트다운은 예배와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선교명령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다.

마지막 때를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청년들과 모든 세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참된 예배의 부흥과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청년본부에서 2011년 6월,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을 개최했다. 대학청년본부측은 "이 땅의 청년들이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으로, 예배와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변화되길 소망한다"며 "이번 집회에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선교적 헌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카운트다운 첫째 날(6월 28일)에는 카운트 10부터 6까지 총 다섯 번의 집회 및 강의가, 둘째 날(6월 29일)에는 카운트 5부터 0까지 총 5번의 집회와 강의와 다채로운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6월 30일(주일)에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체집회가 열린다.

올해 카운트다운 메인 강사는 온누리교회 2기를 이끌어가는 이재훈 담임목사, 크리스천 아성회복을 강조한 책(코볼스 교회가 온다)의 저자 어런 매네니스 목사(LA 모자이크교회)가, 스페셜 강사는 열정의 설교자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최근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대표),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도육한 목사(두란노해외선교본부), 이상준 목사(대학청년연합본부)가 메시지를 전한다. 선택식 강의에서는 그 밖의 예배와 선교에 대해 국내외에서 잘 알려진 강사진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대학청년부 순장 이상 리더십들은 지난 4월 18일(목) 카운트다운 연합기도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8,000여 명의 온누리교회 젊은

이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 열방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집회에 참여해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 땅에 드리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카운트다운을 통해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남과 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도록,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200명의 청년선교사가 온누리로 파송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의 열기를 이어 오는 5월 23일(목)에도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해 기도하는 카운트다운 프리워십이

열릴 예정이다. 이상준 목사(대학청년연합본부)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가장 귀한 두 가지 축복인 예배와 선교를 나누는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을 초대한다"고 초침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의: 오기현 간사(02-570-7523)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이상준 목사(대학청년연합본부)

## “예배와 선교의 축복을 나누는 카운트다운에 초대합니다”

청년 세대에서 영적인 부흥과 새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움직임들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 <레디캡>, <Not A Fan>과 같은 책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돌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 성공론이 아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영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한국교회가 살 길은 선교적 헌신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카운트다운 집회를 개최한 후, FA(Frontier Agency: 전방개척선교단체)에서 70명의 지원자를 받고, FA 1차에서 두 곳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올해는 그때보다 세 배가 많은 200명의 선교사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로만 끝나는 집회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집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지난 카운트다운 집회의 결실이 있다

면? 현재 그 열매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2년 전 카운트다운 이후 FA를 4기에 걸쳐 진행하고, 일곱 개의 팀이 단기선교를 다녀온 것이 가장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팀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훈련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의 예배생활과 선교사로서의 헌신이 많이 약한 것을 볼 때 그 다음 한국교회의 전망이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예배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선교에 대한 헌신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 카운트다운 집회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세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카운트다운을 통해 영적인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좋겠습니다. 세상

에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복신앙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헌신한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무언가로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승리, 성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헌신하는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카운트다운을 위한 기도제목은 나눠 주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은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성인이든지 청년이든지 혹은, 온누리 성도든지 지역 성도든지 간에 모두 갈급한 부분은 똑같이 때문에 예배와 선교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에 부여하신 가장 큰 두 가지 축복은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카운트다운을 통해 온누리교회 지체에서도 예배가 강력해지고 선교적 헌신이 많아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대담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인터뷰



2 0 1 3 예 배 선 교 컨 퍼 런 스  
 WORSHIP & MISSION CONFERENCE

# Countdown

2013. 6. 28 Fri - 29 Sat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Main Speakers •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어원 맥매너스 LA모자이크교회

Special Speakers •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다니엘김선교사 예수세대운동대표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도육환 목사 두란노해외선교본부장  
 이상준 목사 온누리교회

예배 선택석 강사 •



박철순 심삼종 강명식 장광우  
 Worship Builders 색소폰연주자 예배인도자 PK워십팀단장

선교 선택석 강사 •



변성우 박보영 임은미 신현원  
 여의도순복음교회 인천방주교회 케냐선교사 영화감독

Guests •



FL Ministry 송솔나무 지미선 박진아  
 워십댄스팀 플룻티스트 CCM 가수 샌드메이커이션

주최 | Onnuri 문의 | 02-570-7523

회비 | 1차 (5월 28일까지 30,000원), 2차 (6월 19일까지 35,000원), 3차 (당일 40,000원)  
 등록 |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www.countdown2013.or.kr](http://www.countdown2013.or.kr) ※ 당일 환불 및 취소는 안됩니다.

01

### 회개 통한 거룩 회복!

####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1,527명 참석

“10,9,8,7,6,5,4,3,2,1,0”  
 지난 5월 24일(목) 양재 사랑홀에서 카운트다운을 외치는 청년들의 합성과 함께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집회가 시작되었다. 대청 리더십들은 카운트다운 집회 35일을 앞두고 집회를 위해 전심을 다하며 기도과 예배로 준비하는 프리워십을 열었다. 먼저 1,527명의 청년들이 뜨거운 찬양을 부르자 집회의 문이 열렸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예배와 선교가 회복되도록, 강사와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해 중보했다.  
 이날 ‘미스바의 회개(삼상 7:1-6)’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는 “예배와 선교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자리다. 먼

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한다. 거룩, 영광, 예배,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란다. 거룩은 구별하는 것이 라면 회개는 선택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은혜를 되찾고 거룩으로 나가기 위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해야한다. 우리의 은혜, 영광, 축복이 떠나간 것 같다면, 회개하는 길 밖에 없다.  
 이 시간 우리가 드러지는 회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 세상, 사회 가운데 거룩을 되찾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마치 막으로 이곳에 모인 청년들이 하나님만 붙잡겠다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평택

## 치료하시는 하나님 손길 느껴지길



CMN 연합 의료봉사

평택 온누리교회에 ‘여호와 라파(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다.  
 지난 주일(19일) 온누리교회 의료선교팀 CMN이 평택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의료 봉사에는 CMN팀과 함께 평택 온누리교회 성도 2명이 참여해 진료 및 이미용, 사진 등을 도왔다.  
 교회를 방문한 이들은 대부분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주민들. 이들은 평택 온누리의 몽골어예배와 인도네시아어예배의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방문했다.

“이주민들은 비자가 없는 분들이 많아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CMN 의료선교팀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평택 선교팀장 유승근 집사가 말했다. 몽골, 인도네시아어예배 성도들을 위한 한글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종갑 집사는 이주민들과 한글공부를 하다 그들의 아픔을 알게 됐다.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 또는 재정 문제로 치료받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유승근 집사와 서흥근 집사, 이종갑 집사가 나서서 버킹고 의료선교팀에 도움을 청했다. 의

료봉사 몇 주 전부터는 기도모임을 열었고 몽골과 인도네시아어예배 때 광고를 해 주면 이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승근 집사는 “이번 의료선교팀 방문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됐다”며 “평택에서도 자체적으로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단계를 밟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 평택에서는 이미용반이 개설돼 진행 중에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 평택에서 알려드려요!

- 함께 웃는 공동체, 전교인 야외예배  
 일사: 5월 26일(주일) 오전 10시30분  
 장소: 평택대학교 야외음악당 및 잔디구장  
 1부 야외예배, 2부 체육행사
- 공흥사역, 구제봉사팀 모집  
 지역: 한부모기정 이동 섬김, 다문화가정 섬김, 이주민 섬김 등  
 <구제봉사팀 모집>  
 매월 마지막 주 1부 예배 후 기도모임  
 연락처: 조계진 팀장(010-8233-3415)  
 <공흥사역 봉사자 모집>  
 미용봉사: 김중숙 팀장(010-5044-8618)  
 라빙밴드: 김중표 팀장(010-5303-8178)





# “선 아이 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 중국유학생 전도운동 'CHISTA LOVE TOUCH' 개최

“선 아이 니(神愛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중국인들을 위한 러브소나타, 'CHISTA LOVE TOUCH' 전도집회가 지난 5월 17일(금) 서빙고 본당에서 막을 열었다. 이날 참석한 중국인 유학생 기신자 및 비신자들은 모두 600명. 이중 138명의 (영접61명, 관심 77명) 참석자가 하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신의 고백을 내놓으며, 본당 천장 높이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 모두가 하나님의 대사

“환영니(歡迎你, 환영합니다)”

오후 1시30분, 집회 시작 한 시간 전 하얀색 셔츠를 입은 중국어예배팀 봉사자들이 교회를 방문하는 참석자들을 반겼다. 봉사자들과 함께 중국어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렘문홍 목사도 안내를 서며 속속히 도착하는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번 차이스타(CHISTA) 전도집회는 코스타와 같은 전도운동입니다. 이번 전도집회를 계기로 한국에서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집회에 앞서 렘문홍 목사가 기대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오후 2시30분, PK(Promise Keepers)의 역동적인 워십댄스로 전도집회의 막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국어 찬양에 맞춰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인 PK팀에 환호를 보내며 호응했다. 이어 CCM 가수 지미선의 공연과 탤런트 윤유선의 간증이 있었다. 지미선은 종풍의 대표적 영화의 주제가 <산불로정>과 <You Raise me up>을 열창했고, 탤런트 윤유선은 ‘이 자리를 엄마처럼 참석자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며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전했다.

2부 순서는 유학생들의 고민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시작했다.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유학하

고 있는 중국 유학생 4명이 나와 자신의 삶과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이 상영됐다.

영상에서 나온 >어떻게 한국어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한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을까? >취직을 위해 한국에 남아야 할까? >중국으로 가야 할까? >졸업 이후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주제로 20여 분 동안의 토크소도 이어졌다. 이날 특별강사로는 김하중 장로(전 주중한국대사)가 초청됐다. 김하중 장로는 자신의 가족과 중국과의 끈끈한 인연을 위트 있게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지난 6년 반 동안 중국대사로 일할 때 기도응답을 받은 극적인 사연들을 전하며 참석자들이 기도를 명으로 삼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덧붙여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복음과 연합과 전도운동 불길

“이 자리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초창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결신에 앞서 렘문홍 목사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앞서 나눠준 선물꾸러미에 담긴 종이비행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전도집회의 대미를 장식할 세리머니를 기다렸다. “이, 일, 썬(하나, 둘, 셋)”

축복송과 함께 색색깔의 비행기들이 분당 하늘 저편으로 날아갔다. 이번 전도집회는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팀과 한국의 23개 교회 중국어예배팀이 연합한 가운데 이뤄진 첫 열매다. 그동안 중국어예배팀에서 연합예배는 두 번에 걸쳐 드려왔지만 전도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도집회의 명칭인 CHISTA LOVE TOUCH의 ‘차이스타(CHISTA)’는 차이니스 스튜던트 올네이션스(Chinese Student All nations)를 줄인 말로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운동의 비전을 품고 시작했다.

렘문홍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더 많은 유

학생들이 복음을 듣길 바라고, 한국에서 중국유학생들에 대한 전도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면서 “중국유학생들에게 기독교가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전교회의 연합의 축복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했다.

/ 정지은 기자 jj@onnuri.org

## 02

### ■ 참가자 인터뷰

##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성서대학교 중국참가자 일동

저희는 성서대학교에서 왔습니다. 15명이 함께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 “장로님의 설교, 마음이 감동돼”



장덕몽(찬정교회)

이곳에 오니 중국유학생 친구들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 기쁩니다. 설교는 조금 긴 듯했지만 장로님의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는 장로님의 믿음을 보며 저도 다시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어로 설교해주셔서 더욱 의미 있고 좋았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했습니다.



01



## “영적인 비타민 C를 공급 받았어요”

### 비타민C집회, 온누리교회 비전·핵심가치 공유

지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싶었던 순간을 그리워한 160여 명의 영혼들이 Acts29 비전빌리지에 모였다. 그동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없었던 동아시아국 35개 지역 60여 교회의 영적지도자들을 초청해 비타민 C 집회를 열었다. 비타민 C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Change Church를 꿈꾼다'는 의미와 육에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C를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에 필요한 비타민 C인 말씀을 공급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비타민 C는 온누리 국제부 중 특별히 동아시아국에 대한 비전을 가진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시작된 집회다. 현재 동아시아국의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다. 이에 온누리교회가 교회의 비전, 핵심가치를 나누고자 이들을 초청했다. 또한 동아시아국에서 선교적 사명을 깨우기 위해 이번 집회를 마련했다.

세미나에서는 온누리 목회철학과 비전, 선교, QT, 일대일, 대청, 차세대, 양육, 전도, 예배, 가정사역 등 온누리교회 핵심가치를 전수했다. 강의를 이재환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 반태효 목사(서빙고 캠퍼스), 도육환 목사(이전선교)

들이 했다. 특히 선교집회에서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환 선교사는 “동아시아국의 장점은 주변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다. 동아시아국을 깨워주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교지다. 이렇게 온누리교회가 핵심가치를 전수하므로 하나의 컬교회라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비타민 C 집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모인 동아시아국의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한국보다도 100배, 1000배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아시아를 부흥시키는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OSOM 21기 수료식

### 총 29명 수료, 기도로 후원할 것 당부

지난 5월 22일(수) 수요목양예배에 OSOM 21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9명의 훈련생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열창하며, 수료식의 문을 열었다.

이재환 선교사(Acts29 비전빌리지)는 Acts29 비전빌리지 소개와 선교사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기도다. 우리들의 무릎기도가 없이는 예비 선교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이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과 부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장기선교사 훈련을 잘 마친 최정현 자매가 훈련 받기까지의 과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했다. 반태효 목사가 모든 수료생들을 대표해서 최정현 자매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해 중보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선교를 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배웠습니다”

장기선교사로 준비하던 중 림프절로 전이된 유방암 3기에 갑상선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재발방지치료를 다하고 한껏 검사에서 재발되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재발했고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를 권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치료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 40일 특수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주시면서 장기선교사 훈련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암환자로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닫혀버린 저의 마음을 12주간의 강의와 예배,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또한 선교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소망하

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절로 전이된 유방암 3기에 갑상선암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항암치료, 수술, 방사선치료, 재발방지치료를 다하고 한껏 검사에서 재발되었고 이후로 두 차례 더 재발했고 병원에서는 계속 치료를 권했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 치료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 40일 특수를 통해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불러주시면서 장기선교사 훈련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넘는 시간 동안 암환자로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닫혀버린 저의 마음을 12주간의 강의와 예배,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또한 선교에 대해 막연히 알고 있던 것들을 분명하게 정리 해주셨습니다.

제 몸에는 아직 암으로 남아 있고 암으로 남은 통증과 증상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12주 동안 함께 기도해오면서 저에게 또 다른 자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치유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치유를 저의 몸에 나타내주시고 이 무약한 중을 통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 최정현 자매 (21기 수료생)





01

##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식

272개의 교회, 2,240명 선교사 지원

세브란스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식이 지난 5월 20일(월) 연세대학교 일련관 무학홀에서 열렸다. 이번 건강지원 협약식은 총 272개의 교회에서 파송된 2,240명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이철 원장은 일련관이 세워진 배경 및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배경, 의료선교센터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 원장은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지내는 해외선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후원금전달식에서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누리교회를 대표해서 도육한 목사(이천선교본부)가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어 이곳에 모인 모든 목회자



들이 한 목소리로 선교사들이 영육간의 강건하도록, 연세의료기관이 하나님의 병원답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했다.

선교사 건강 지원 협약식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해외 선교사들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좋은 의료진에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02

### TV 추천 프로그램



▷ [특별대담] 비즈니스와 선교협력의 장  
- 5/31(금) 오전 11시  
전문인 선교 시대, 비즈니스와 선교의 협력의 방법을 알아보는 특별대담입니다.

03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GNTV는 우리가족의 생수터



안녕하세요? CGNTV 설치 이후 아침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본래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10년 넘는 20인치 TV가 있긴 했지만, 몽골의 TV출력 방식과 달라서 부품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둘째 치더라도 굳이 케이블을 연결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 한국 등지에서 송출되는 채널을 보면 경건생활이나 사역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판단해 5년 동안 집안 한구석에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GNTV를 설치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TV를 켜놓게 되었습니다.

CGNTV의 설교 강좌는 선교지 특성상 전하고 가르치기만 했지, 배우거나 듣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팠던 심

령에 영적 포만감을 줍니다. TV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은 기쁨과 평안을 선사해 줍니다. 특히 타선교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눈으로 볼 수 있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나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들이 모두 동역자가 되어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일하는 것을 보면 위로가 됩니다. 또한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CGNTV는 집 안에 은밀하게 파놓은 우물과도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수가 흐르는, 영과 육을 건강하게 하는, 때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필요한 쉼터가 되어주는 우리 가족의 생수터입니다. 다시 한 번 CGNTV에 감사드립니다. /몽골 L 선교사

01

### 6월 비전헌금 '여름 아웃리치'

6월 9일에 봉헌하는 6월 비전헌금은 단기선교 및 여름 아웃리치를 위해 사용된다.

02

## 이주민 위한 선교사 되세요!

“한국에서 열방을 선교하십시오”

이주민을 위한 선교학교 8기가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8기는 오는 6월 8일(토)~29일(토)까지 4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3~6시 서빙고 캠퍼스 비전홀에서 열린다.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국내 이주민들을 위한 선교 강의와 종교권역별 문화와 예배 소개가 진행된다. 선교강의는 1주차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과 국내 이주민 선교를 시작으로 >2주차 다문

화와 이주민 선교의 감동 스토리

>3주차 열방을 제자 삼으라 >4주차 한국에서 열방을 선교하라 순으로 진행된다. 종교권역별 문화와 예배 소개는 카톨릭권 필리핀 예배, 이슬람권 방글라데시 예배, 불교·힌두권 네팔예배, 공산권 몽골예배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의: 양옥진 사역자

010-3937-3927

/ 조유진 기자



## 오키나와 땅에 내린 복음의 장대비

6년 전 하나님의 사랑노래가 울려 퍼졌던 땅에서 다시 한 번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에 깊은 감동을 받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사론회 데코팀이 2개월에 걸쳐 2,300개의 화관을 만들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을 비롯해 지금은 모두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비행기에 올랐다. 행사장에 도착하니 먼저 온 행사 봉사팀들이 질서정연하게 환한 얼굴로 맞이해주는 모습을 보며 공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신비람이 났다.

가스펠나이트 집회에서 닉부이치치의 설교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주었다. 날씨도 감명을 받았는지 철쭉같이 캄캄한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뇌성이 치며 빗줄 같은 강한 빗줄기에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집회가 끝나고 귀가 할 때에는 비를 멈춰주실 것이라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잠으로 평온한 가운데 귀가할 수 있었다.

러브소나타 집회 당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렇게 비가 와서 행사장의 좌석이 비게 되면 어쩌나, 초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한참 패킹작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일본팀의 봉사



사론회데코팀이 화관을 만들고 있다.

자 한 분이 나를 보더니 이 아름다운 화관을 만드시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수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건넸다. 나는 답례로 화관의 의미를 설명했다.

화관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보라색), 모든 죄가 깨끗케 되고 (흰색),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에 열매 3개 (성부, 성자, 성령)를 맺게 됨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는 눈가에 이슬이 스치며 이토록 일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러브소나타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다고 포옹을 했다.

집회 장소를 보니 3층까지 2200석이 모두 차있고 밖에 까지 사람들이

슬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키나와를 사랑하시는구나”, “일본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선교하기를 바라시는구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뜻 깊은 화관을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의 머리에도 씌워지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다.

온누리교회 사론데코팀원들!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더욱 힘차게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류석인 권사  
(사론회데코팀)



# “지금은 카운트다운 시대입니다!”

## 카운트 10~0까지 강의 및 공연으로 진행

오는 6월 28-30일에 열리는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은 메인강의 및 선택식 강의, 뮤지컬 공연 등의 특순으로 카운트 10~0까지 진행된다. 집회를 여는 카운트 10은 이상준 목사(대청연합본부장)가 ‘예배를 드리라’로, 카운트 9은 어윈 맥매너스 목사(AA모자이크교회)가 ‘열정을 드리라’로, 카운트 8은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가 ‘눈물을 드리라’로, 카운트 7은 ‘마음을 드리라’를 주제로 예배 선택식 강의를 진행한다. 카운트 6은 어윈 맥매너스가 ‘생명을 드리라’로, 카운트 5는 박종길 목사(양재은누리교회)가 ‘사랑을 품으라’로, 카운트 4는 다니엘 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가 ‘영혼을 품으라’로, 카운트 3는 ‘세상을 품으라’를 주제로 뮤지컬 〈Until the day〉 공연이, 카운트 2는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장)가 ‘복음을 품으라’로, 카운트 1은 ‘사명을 품으라’를 주제로 선교 선택식 강의



대청 카운트다운을 위해 지난 6월 5일 양재화평홀에서 중보기도모임을 가졌다.

가 진행된다. 카운트 0은 이재훈 담임 목사가 ‘열방을 품으라’를 주제로 대미를 장식한다. 이렇게 카운트 10~0까지 다양하고 임팩트 있게 진행되는 컨퍼런스인 만큼 대학청년부 모든 단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집회를 준비 중이다. 지난 6월 5일(수) 양재 화평홀에서 카운트다운을 위한 첫 중보기도모임을 가졌다. 김승수 목사(4U)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먼저 감사고백하기, 선교, 믿음의 선포”라고 강조하며, 이 자리에 모인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카운트다운 집회와 이 시대의 영적부흥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다. 한편 카운트다운 중보기도모임은 지난 5일(수)에 이어 6월 12일(수), 19일(수) 저녁 7시30분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됐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영적 부모로 선교 위해 힘쓸 것”

### 서빙고 장로, 권사 와이미션 1기 종강

서빙고 온누리 장로 및 권사들을 위한 와이미션 1기가 지난 5월 20일, 6월 4일에 각각 종강했다.

총 60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장로 와이미션 1기는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비전의 땅 전시관에서 진행된 탐방, 안산M센터 방문, 종족 리서치 등을 하며 실제적인 선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한 장로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아버지’로서 선교와 기도를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총 114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권사 와이미션 1기는 지난 3월 19일을 시

작으로,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지난 5월 28일~ 6월 2일에는 총 9명의 권사들이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와 직접 선교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종강예배에서 다니엘 박선교사가 한국교회 권사들에게 한국교회의 영적어미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세를 받은 권사들이 영적 어미로 바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드리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서빙고 온누리 장로, 권사들을 위한 와이미션 1기 종강했다.

02

## 제7회 IBA포럼 개최

### 28개국 목회자 및 선교사 참석

‘내가 선 곳, 거룩한 땅’을 주제로 진행된 제7회 IBA(International BAM Alliance) 서울포럼이 지난 6월 5~8일까지 양재 기쁨홀에서 진행되었다. 2007년부터 중국 상하이에서 시작된 IBA 포럼은 비즈니스와 선교, 교회를 연결하려는 취지로 6년 동안 진행해왔다. 이번 IBA에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목회자 및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환영 및 축사에

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BAM(Business As Mission)의 큰 숙제다. 이 포럼을 통해 물질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 가길 바란다”고 말하며, 제7회 IBA 포럼의 문을 열었다. IBA 포럼은 4일 동안 ▷비즈니스 세계와 하나님 나라 ▷타문화권에서의 BAM활동 ▷예배와 결단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오은지 기자

미소의 나라 스리랑카에 가다

# 교회와 학교,

##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 NGO 더 멋진 세상, :

한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  
곳은 인도 동남부 인도양 해상에 떠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모양으로 붙어 있다고 해서 '인도의 눈물'이라고 불린다.  
차(Ceylon Tea), 천연고무, 코코넛 등이 유명하다.



빈곤의 본거지가 있던 스리랑카 북쪽 몰라티브 지역에 몰라티브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가 있다

유난히 많고 큰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지대인 스리랑카는 한 쪽의 수채화 같다.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열대과일이 탐스러움을 뽐냈고, 거대한 나무 아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응하며 살아오고 있는 현지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거리에서 마주한 사람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해맑았다. 생김새나 피부색이 달라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만나서 반갑다는 환영의 인사였다. 이곳 사람들의 표정을 볼 때마다 어린이가 같은 순수함을 엿볼 수 있었다. 열대지방에 속하지만 비교적 온화한 기후가 사람들의 정서에도 영향을 준 것일까. 스리랑카의 첫인상은 포근했다.

### 핏빛으로 물든 아픈 역사

스리랑카는 불교국가다. 그런데 살생(殺生)을 금기시하는 불교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혈전을 벌인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스리랑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74%)과 힌두교계 타밀족(18%) 간의 내전이 27년 동안이나 이어졌다. 두 종족간의

갈등은 스리랑카가 '실론(스리랑카의 옛 이름)' 일 때부터 시작되었다.

1815년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편입되었던 실론이 1948년 독립한 이후 보낸 평화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싱할라족의 탄압 및 차별 정책에 반발한 소수 타밀족의 분리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45년 동안 비상사태와 27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궁핍한 삶을 살아왔다.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십만 명의 부상자와 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내전지역을 둘러보면 중 전쟁 중에 부상당해 다리를 잃은 여자를 만났는데 내전의 참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비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부군(싱할라족)에 맞서기 위해 반군(타밀족)이 자행한 자살폭탄테러, 암살, 납치, 인간 방패 등의 인권유린 사태가 보고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잔혹하고 폭력적인 분쟁을 겪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반군이 사용한 무기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가 보니 1인용 어뢰, 1인용 잠수함 등의 구식무기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자살테러를 시도하기 위한 무기들이었다.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임상부름 인강병패로 세우 정부군에게 대항했다는 것이다. 핏빛으로 물든 아픈 역사 앞에 할 말을 잃었다.

### 내전에 지진해일 대참사까지

눈앞에 초원이 펼쳐졌다. 소들이 뛰놀고 탁 트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상쾌함을 만끽할 수 있었다. 행복도 잠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던 초원이 2004년 발생한 지진해일 사망자들의 무덤이란다. 당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초원에 매장했다는 것이다. 무려 천여구나 되는 시신을 한꺼번에.

스리랑카는 열대지방이지만 비교적 온화한 기후에 속한 나라다. 지진과 태풍이 없어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다고 했었다. 때 묻지 않는 해변, 빼어난 풍경, 풍성한 자원,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 유럽인들은 최고의 여행지로 스리랑카를 손꼽았다. 그런데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던 스리랑카에 엄청난 시련이 닥쳤다.

2004년 12월 26일, 90분 동안 발생한 지진해일이라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3만5천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10만 채의 가옥이 전파되었다. 6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말았다. 말 그대로 대참사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서쪽에서 발생한 해중지진이 강력한 지진해일로 변모해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해안을 초토화 시킨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보고되고 있다.

당시 스리랑카 전역이 지진해일 피해를 입었다. 내전의 고통에 지진해일까지. 무슨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했다.

### 치유와 회복 넘어 미래를 향해

그럼에도 스리랑카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았다. 2009년 내전이 종식되고, 지진해일 피해도 상당부분 복구가 되었다. 그들은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견디고 성장해 준 것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 올네이션스 국제학교(All Nations International School)가 있다.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400여 명의 학생들이



# 스리랑카의 소망을 노래하다

## 증축, 하용조출 봉헌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설립

사람들의 표정이 해맑다. 미소로 화답하자 수줍은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웃어댄다. 이 땅의 정식 명칭은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공화국이다. 지리적으로 인도의 공무니에 눈물 다. 인구는 2천여 만 명, 면적은 한반도의 1/3, 고온다습한 열대성 기후다. 사파이어와 홍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NGO 더 멋진 세상이 몰라티브 지역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리서치를 했다. 권사 와이미션팀은 내전지역 한 복판에서 스리랑카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 오름했다.



이번에 증축한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교육공간. 공사 시작 14년 만에 강당(하용조출), 교실, 도서관 등을 완공하고 봉헌예배를 드렸다.

공부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학생들이 늘어나 교육이 더 필요하게 되어 증축공사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완공하고 봉헌예배를 드린 것이다. 새로운 교육공간의 이름은 하용조출이다. 강당, 교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이 증축되었다.

뜻 깊은 자리를 빛내기 위해 한국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를 비롯해 도육환 목사, 김창욱 전도사, 김광동 장로, 권사 와이미션팀이 현지를 찾았다. 현지인들과 교육관 증축을 축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자리를 빛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현지 대서관과 지역 유지들도 하용조출 봉헌예배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곳은 꿈과 희망이 샘솟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스리랑카를 넘어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심하고 자녀를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 보내면 스리랑카를 넘어 세계를 이끌어갈 리더가 세워질 것이라고, 한국에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라

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자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이끈 역사로 신음하는 스리랑카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 몰라티브 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스리랑카 북쪽 몰라티브 지역으로 이동했다. 몰라티브 지역은 스리랑카 반군의 본거지가 있던 곳으로 내전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다.

올네이션스 국제학교에서 몰라티브까지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거리가 만만치 않다. 가는 길에 하루를 뚫어 가야하는 일정이었다.

숲속에 지어진 호텔이 숙소다. 숲속에 있어서인지 고온다습함을 잊을 만큼 상쾌했다. 이 호텔은 건물을 짓고 나서 조경을 한 것이 아니라 숲속에 호텔을 지은 것이다. 스리랑카의 참 멋을 고스란히 담아낸 작품이었다. 일행 중에 산책 중 야생코끼리를 목격한 이도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스리랑카의 매력이었다.

북쪽 지역으로 이동 할수록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반군이 활동했던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분확인이 필수라며 여권검사를 했다. 한

나라에서 두 번의 여권검사라니. 아찔한 아직도 경계가 삼엄했다. 한 시간이 더 걸렸을까.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지어준 몰라티브교회 가 보았다. 현지인들의 환영이 대단했다.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를 드렸다. 한국어, 심할리어, 타밀어, 영어로 통역을 해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지만 천국진자가 분명했다.

“교회가 몰라티브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석 달이 걸렸다고 한다.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해냈다고 말하는 현지인에게서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자신감이 모여 몰라티브 지역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몰라티브교회는 주말에는 교회로, 평일에는 교육문화센터로 활용된다. 현지인들이 몰라티브교회의 문턱이 낮도록 출입하며 복음에 빛나는 자로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내전지역을 둘러보았다. 적십자에서 지어준 빨간색 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큰 웅덩이가 보여 무엇이라고 물었다. 포탄이 떨어진

곳이란다. 벽에 난 총탄 자국, 무너진 기둥 등 아직 내전의 상처가 깨끗하게 자취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스리랑카에는 아직도 지진해일과 내전의 상처가 남아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의 상처가 몸에 남아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었다. 몰라티브 해안가에 위치한 Church of Prayer Mission의 조셉 목사는 지진해일이 일어났을 때 기둥을 잡고 살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아들과 성도 10명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순수하고 맑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스리랑카. 그 순수함 뒤에 감춰진 눈물이 가슴 아팠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그들이 겪었을 아픔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다.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이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 교회와 학교를 세워 상처 입은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게 하셨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다.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얼마나 아름다운가.



양재 스포츠선교팀

## “숲속의 천막탁구장 설치했어요”

지난 5월 22-26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삼복지역 숲속으로 개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포장도 되지 않은 숲속, ‘밀림’이라 불리도 무방할 것 같은 길을 20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에는 어윈 목사님 부부와 남미선 선교사님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는 처소였다.

내가 가져간 탁구대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집 앞 마당에 비를 막기 위한 천막과 더불어 설치되었다. 에어컨이 뱅뱅하게 나오고, 고급 목재로 깔려 있는 바닥이나 리커를,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한국의 그 어떤 탁구장보다 맨땅 위에 세워진 탁구장이 훨씬 더 좋아보였다. 공중의 천막과 더불어 탁구대가 설치되는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내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격스러우면서 감사하기까지 했다. 그 감동을 혼자만 느끼기에 아끼워서 몇 장의 사진과 더불어 아웃리치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주셨던 은누리 탁구선교회 팀원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숲속의 천막탁구장’이 세워졌다.

### 제회 은누리배 숲속 탁구대회 개최

탁구대가 설치되자 현지 청년들이 탁구를 하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생전 처음 잡아보는 탁구라켓이 어색할 것 같은데도 모두들 공을 잘 넘기며 즐거워했다. 시간이 점점 지나고 한 게임, 두 게임을 하면서 슬슬 재미를 붙여갔다. 공중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여들어 탁구게임을 구경했다. 점심식사 후 ‘제회 은누리배 숲속탁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시합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자 신고 있던 슬리퍼까지 벗어던지면서 맨발로 게임에 몰두하는 모습도 보였다. 수상자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수여했고, 탁구대회일정은 어윈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모든 장면과 순간들을 직접 경험해보니 무척이나 즐거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 탁구, 전도와 선교의 훌륭한 도구

문화적,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을 지배하는 현지 종교로 인해 이곳 사람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남미선 선교사님이 이번 탁구대 사역을



보여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는 현지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탁구대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확신한다”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계기로 이곳에 탁구대가 한 두 개씩 늘어나서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경험하기를,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지에도 탁

구대가 선교와 전도의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그 땅의 젊은이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항상 나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준비하시고 거룩한 사역에 보잘 것 없는 나를 가까이 사용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한다.

/ 김영욱 집사(양재 스포츠선교팀)



# 예배와 선교로 선교행진 써 나간다!

선교에 목숨을 건 온누리 공동체가 국내 캠퍼스별로 진행된 무릎선교기도학교, 와이미션 등 선교스쿨과 열방을 품고 기도한 여성기도부흥운동 마리아행진에 이어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으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한다. 이 예배와 선교의 열정을 이어 '블레싱 한반도'로 열며, 선교행진을 계속 써 나갈 예정이다.

## 6월 28~30일, '카운트다운'

11일 후, 양제 사랑홀에서는 예배와 선교에 열정을 품은 청년들의 합성과 함께 카운트다운의 막이 오른다.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타내는 카운트다운 집회는 다윗처럼 예배하는 5,000명의 예배자와 사도바울처럼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200명의 선교 헌신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현재 집회를 위해서 카운트다운 중보기도팀인 '아브라함 318명'과 그 외의 청년들이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며 준비하고 있다. '아브라함 318명'은 매일 밤 11시에 10분 동안 이 시대의 영적 부흥 및 카운트다운을 위해서, 매주 한 끼 금식하며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인 '111 기도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 318명'은 지난 6월 5일부터 시작된 카운트다운 중보기도모임에 참석해 기도에 불을 지피고 있다. 현재 대형 9개 공동체와 성인, 그 밖의 외부 교회에서도 카운트다운을 위해 금식 요일을 정해 금식기도를 하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과 아웃리치 발대식 블레싱 한반도로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한다. 사진은 2011년 카운트다운 집회

고 있다.

## 7월 4일, '올여라, 한반도여'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열기를 이어 7월 4일에는 '올여

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블레싱 한반도' 발대식이 열린다. 발대식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리며, 공동체 종강예배와 함께 진행된다. 이날 공동체별로 45인승 버스가 두 대씩 지원된다.

'올여라 한반도여!'는 7~8월에 진행되는 '블레싱 한반도' 일정의 시작을 선포하며 문을 연다. 이어 7월 둘째 주 수요일부터 '블레싱 한반도'의 시작을 알리는 수요복한선교 집회가, 한반도 행진 및 DMZ 자전

거 투어 등이 진행된다. 8월 31일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노래하라 한반도여!'를 주제로 아웃리치 해단식 겸 보고대회를 하며,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선교사역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 “그 은혜와 감동 잊지 않겠습니다”

## 일본 현지,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감사예배

지난 6월 9일(주일) 오후 5시 나하밥 테스트교회에서는 오키나와 러브소나타에 대한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감사예배는 지난달 15, 16일에 진행된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집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를 통해 받은 은혜와 감격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협력교회가 함께 모여 드린 예배에는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가스펠나이트에 출연했던 가스펠과이어와 힙합댄스팀의 특순과 메시지, 보고 등이 이뤄졌다.

이 날 특순을 섬긴 가스펠과이어와 힙합댄스팀은 러브소나타가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면서 감사예배를 통해 뜨거운 찬양과 위임을 선보였다. 또한 보고를 통해 힙합댄스팀에서 어릴 때 골반 수술을 했던 소년이 10분 이상 춤을 추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기뻐했고, 나하린진교회에서는 3-4명이 결신하는 열매가 생겼으며 그 열매는 한국 봉사자들이 약천 후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감동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사진은 지난 5월에 열린 2013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현장.

쿠니요시 마모루 목사(나하밥 테스트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교회의 사랑이 러브소나타라는 열매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길 바란다”면서 “온누리교회의 헌신과 희생, 구체적인 사랑으로 러브소나타가 가능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것

이 한 번의 집회가 아니며 이제부터 가시적임을 잊지 말자”고 말했다.

한편 올 여름에는 일본어예배부와 청년부가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한번 오키나와를 찾아가며, 오는 27일(목) 열리는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러브소나타 이후 지속적인 후속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1



## “골방에서 열방을 품습니다”

### 상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열방 가운데 복음의 불기둥이 세워져 나가길 뜨겁게 기도합니다.”

2013 상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이하 무릎선교)가 지난 14일(금) 종강했다. 서빙고 캠퍼스 드림홀에서 열린 종강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시작해 격려사, 대륙별 프레젠테이션, 식사교제, 봉사활동 PPT, 수료 및 시상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종실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역이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랑 때문에 열방을 품고

울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신부와 같다”고 전했다.

대륙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무릎선교를 진행하며 기도한 5대륙 235개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이스라엘의 순서로 사회·문화, 환경, 교회 동향 등을 함께 살펴보고 각 나라를 위한 기도제목을 나누며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유진 기자

02

## 양재는 기도로 아웃리치 준비 중!

### 공동체별 자선장 열려

매주일 양재 은누리 사랑을 앞광장에서는 아웃리치 자금조성을 위한 자선장이 열린다. 각 공동체마다 한 주씩 돌아가며 진행되고 있는 자선장에는 악세사리, 농수산물, 먹거리 등 다양한 품목들이 판매된다. 자선장과 더불어 각 공동체는 아웃리치를 위한 사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양재공동체는 매주일 오후 7시 전라북도 김제 모산교회 아웃리치를 위

해 준비모임을 하고 있으며, 송파는 매주일 오전 8시30분 국내아웃리치를 위해, 9시30분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안양행촌은 7월 11일부터 알대일전도법, 중보기도, 큐티나눔 등의 내용을 가지고 아웃리치 스쿨을 열 예정이다.

박종길 목사(양재)는 “아웃리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라며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조은실 기자



##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습니다!”

### 일대일사역팀, 호주 아웃리치

지난 6월 3일(월)부터 10일(월)까지 일대일사역 본부팀 주관으로 서빙고, 양재, 수원, 부천의 일대일사역

팀이 연합하여 첫 해외 아웃리치를 떠났다. 14명의 아웃리치팀은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5월 26일, 6월 2일

두 번의 준비모임을 가졌고, 이를 통해 대외사역에 임하는 양육자의 자세 및 양육 포인트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기도를 진행했다.

호주에 도착한 아웃리치팀은 골드코스트 푸른파도교회를 방문, 입학예배를 시작으로 3박4일 동안 일대일 양육을 진행했다. 입학예배에서 송영동 목사(분당B)는 ‘부르심(요한복음 1:35-45)’을 제목으로 “예수님은 제자 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일대일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귀한 사역”이라고 전했다. 이번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수요예배 함께 드리기, 간증, 화관을 씌워주는 축복의 시간 등을 가졌고, 동반자과정 11명, 양육자과정 7명이 수료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 무릎선교기도학교를 마치며 ...



### “기도로 어느 선교지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무릎선교를 통해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데 발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자칫하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무릎선교기도학교를 시작했는데 이 학교를 시작으로 무릎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권오향 목사(부천 여성사역)

01

■ 간 증

### “무릎선교사로서의 소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관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교헌금을 할 때 기도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무릎선교학교에서 목사님과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저의 신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회개하면서 무릎선교기도학교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신교를 섬기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故) 하용조 목사님이 시작한 러브소나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했던 터키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공교육에서 이슬람을 배운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알라를 섬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은 무릎선교학교를 통해 왜 기도하는 곳에 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과 열방을 향한 기도와 더불어 소아시아를 품으며 기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과 설렘이 제 안에 소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체가 되도록 무릎선교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 고은희 집사

02

#### ■ 강동에서 알려드려요!

■ 선교

- 6월 8일: 와이미션 종강
- 6월 23일: 6주간 아웃리치 바자회
- 6월 30일: 아웃리치 발대식  
(2부예배시 - 오전 11:30)

03

#### ■ 대전에서 알려드려요!

■ 대학청년부 아웃리치 스쿨

- 일시: 6월 22일~7월 13일(매주 토)
- 오후 2시



**강동**

#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소서”

## 다문화 1기 어머니학교 수료식

지난 5월 25일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다문화 제1기 어머니학교' 수료식을 열었다.

수료식에 앞서 이날 '어머니의 영향력'이란 주제로 강연한 강미영 강사는 과거에 힘들었던 자신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됐으며 '권위자로서의 어머니', '공감하고 소통하는 어머니', '굳건한 믿음으로 선 어머니'를 강조했다. 또한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이 아닌 아이들 스스로 큰 꿈을 그릴 수 있게 돕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상이다"고 덧붙였다.

### 지혜, 행복, 사랑 넘치는 엄마로

오후 시간 강연자로 나선 이현진 강사는 '대화'를 주제로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어폭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전했다. 그

는 "건강한 가정에서의 대화는 좋은 청중이 되어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감과 긍정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부모가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실천하게 하라"고 말했다. 강의 후 참석 한 어머니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적어 서로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너 참 멋지다',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우니 몰라', '네가 내 딸이라 기뻐' 등 듣기 좋은 말들이 터져 나왔다.

마지막 수업은 소감문을 쓰고 단상에 올라가 자신이 쓴 글을 읽는 시간이었다. 어머니들은 지치고 힘들었던 삶 속에서 단비처럼 만난 이 시간을 감사하며 '지혜로운 아내, 행복한 엄마, 사랑스러운 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어머니들이 쓴 서약서를 함께 소리내어 읽고 맹세하고, 각 조 조장들은 화관을 씌워주며 축복했다. 특히 3주 동안 중보와 섬김으로 애쓰



강동 미소가족 어머니들이 지혜로운 아내, 행복한 엄마, 사랑스러운 딸이 될 것을 다짐했다.

15명의 스태프들도 함께 주님의 축복과 사랑을 전하며 기뻐했다.

### 미소가족 향한 사랑 계속될 것

미소가족 어머니학교 수료식에는 아쉽게도 처음 함께 했던 모든 참석

자들이 아닌 4명의 어머니만 무사히 졸업을 마칠 수 있었다. 강동 온누리 측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 하리라"는 말씀처럼 처음으로 시작한 다문화 1기 어머니학교가 각 지역에서 부흥의 바람이 불어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강동에서는 미소가족을 향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강동의 미소가족 어머니학교는 지난 5월 11일부터 3주 동안 진행됐다.

/ 김효정 통신원

## ■ 남양주에서 알려드려요!

### ■ 본부공동체 터키 아웃리치

일시: 6월 21일~7월 2일 10박11일

01



## 열방이 하나 되는 열방연합예배

### 온누리M미션, 14개 공동체 연합예배

14개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해서 드리는 온누리M미션 열방연합예배가 오는 6월 23일(주일) 안산에 소재한 관산중학교에서 열린다.

열방예배는 매분기마다 온누리M미션 내 14개 예배공동체의 500여 지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연합예배다. 비록 인종과 국적은 다르지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을 강조하는

열방연합예배는 교회라는 한 예배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연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히 이번 연합예배에서는 온누리M미션 소속 서빙고 러시아어예배 담당인 한알렉산드리아 전도사가 설교를 전한다. 또한 봉사자로 크리스천CEO포럼과 이주민선교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예배를 섬길 예정

이다.

연합예배 후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린다. 현재 이 바자회를 위해 물품(산발, 가방, 지갑, 의류, 액세서리) 등을 모집 중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축구, 농구)을 하며, 연합과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문의: 안산온누리M센터(031-491-9660)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GNTV는 은혜의 호사”

대만은 이상승배에 깊이 물든 나라입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온해보이지만 이방에서 온 선교사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영적인 공격과 놀림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기도가 열리고 영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지만 대만에서는 부르짖어도 가슴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지교회들이 영적으로 미숙합니다. 문화적, 언어적 한계도 있지만 현지교회의 영적 미숙함으로 영적 충만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 탓에 선교사 개인의 영성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현지TV를 시청하지 않고 영성회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CGNTV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주제 강의와 설교는 천상의 젓줄같이 충만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누리는 은혜의 호사입니다. 아울러 중문 CGNTV는 대만에서 사역하는 저에게 사역의 적용과 언어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CGNTV에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선교지 주민을 살리고 선교사를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 대만 C선교사

2013년 6월 16일 954호

- 01-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안내(9면)
- 02-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 선교사 (대만)(14면)



#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사진은 2011년 카운트다운 집회

## 6월 28~29일 양재 사랑홀, 30일 잠실실내체육관

“다윗처럼 목숨걸고 예배하는 5,000명의 예배자 그리고 사도바울처럼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갈 200명의 선교 헌신자를 기대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회복을 위한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청년부는 카운트다운 집회를 위해 아브라함 318명 중보기도팀을 세워 세 번의 중보기도모임 및 기도회 집회를 준비하는 등 집회

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참가를 신청한 김바론 자매(여호수아공동체)와 김성연 형제(허브공동체)에게 집회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보았다. 김바론 자매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제가 먼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잠들어 있는 이 세대가 예배하는 세대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김성연 형제(허브공동

체)는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예배와 선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되길 기대합니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집회 첫날인 28일에는 ‘예배’를 주제로 예배 선택식 강의 및 특순 등을 포함한 카운트 10-6까지, 다음 날인 29일에는 ‘선교’를 주제로 카운트 5-0까지 선교 선택식 강의 및 특순 등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30일(주일) 오후 2시에는 온누리 모든 캠퍼스와 공동체가 함께 잠실실내체육관에 모여 주일연합예배를 드린다. 주일연합예배는 ▷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1부: 어원 맥매너스 목사) ▷ 청년이여, 열방을 향해 가라(2부: 이재훈 담임목사) ▷ 아웃리치 발대식(3부)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날 예배에서는 샌드 애니메이션 공연(양라경 자매), 송정미 사모가 특순을 선보일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주일연합예배(잠실집회)**

- 주일연합예배는 별도의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캠퍼스 및 성인공동체의 자리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오후 1시30분까지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실(11, 12 Gate)과 안내데스크(13,14 Gate)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4차 선교사 파송식

오늘(6월 23일) 서빙고 1부예배와 양재 3부예배에서 4차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4차 선교사 파송식에서는 장기선교사 1명, 전문인자비랑 선교사 한 가족이 파송됩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조에스더(장기) - 중동 H국**  
 현지적응과 언어습득에 지혜 있도록  
**김태훈/김희연(전문인자비랑)**  
 서진, 하진, 채진 -  
 아프리카 V국  
 보건의료 사역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2013년 6월 23일 955호

- 0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1면)
- 02- 4차 선교사 파송식 : 조에스더(중동 H국), 김태훈-김희연(아프리카 V국)(2면)



2 0 1 3 예 배 선 교 컨 퍼 런 스  
WORSHIP & MISSION CONFERENCE

# Countdown

- 주일연합예배 -

2013.6.30 (주일) 오후 2시  
잠실 실내체육관

• Main Speakers •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어윈 맥매너스  
LA모자이크교회

• Guests •

양라경 송정미

1부 | 14:00-15:40 |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

2부 | 15:40-16:30 | 청년이여 열방을 향해 가라

3부 | 16:30-16:45 | 아웃리치 발대식

| 카운트다운 집회 및 등록안내 |

주최 | Onnuri 문의 | 02-570-7523 일정 | 6월 28-29일 양재 사랑홀  
회비 | 1차 (5월 28일까지 30,000원), 2차 (6월 19일까지 35,000원), 3차 (당일까지 40,000원)  
등록 |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www.countdown2013.or.kr](http://www.countdown2013.or.kr) ※ 당일 환불 및 취소는 안됩니다.





양재 사랑홀을 가득 메운 3961명의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 지난 6월 28~29일 청년들이 카운트다운에 모여 예배하며 선교적 결단을 헌신했다.

#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 ■ 주일연합예배(잠실집회)

### 오늘 오후 2시, 잠실 실내체육관

"Come to worship! Go to the nations!"

지난 28~29일 열린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예배와 선교의 회복을 외치는 청년들의 합성이 사랑홀을 가득 메웠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 여러 강사들이 예배의 부흥과 세계 선교의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며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의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심어줬다. 이렇게 이틀 동안의 집회를 통해 예배를 사모하고 선교적 헌신을 결단한 청년 3961명의 열정과 합성이 오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주일연합 집회'에서도 이어진다.

카운트다운 집회는 총 3일에 걸쳐 진행 중이며, 첫날(28일)에는 '예배'를, 둘째 날(29일)에는 '선교'를, 마지

막 날인 오늘은 '헌신'을 주제로 진행된다.

2년 전에 처음 열었던 카운트다운에서는 70여 명의 청년들이 단기선교를 다녀왔으며, 올해 카운트다운에는 200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배·선교 컨퍼런스의 대미는 오늘(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주일연합집회'로 장식된다. 이번 주일연합집회에서 아웃리치 발대

식도 함께 진행된다.

주일연합예배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1부: 어윈 맥매너스 목사) ▷청년이어, 열방을 향해 가라!(2부: 이재훈 담임목사) ▷아웃리치 발대식(3부)의 순으로 진행되며, 샌드애니메이션 공연(양리경 자매), 송정미 사모가 특순을 선보인다.

/ 온누리 기자 oej@onnuri.org

- 주일연합예배는 별도의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캠퍼스 및 성인공동체의 자리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오후 1시30분까지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실(11, 12 Gate)과 안내데스크(13,14 Gate)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 ‘Stop Malaria!’

##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냅니다!

NGO 더 멋진 세상이 ‘Stop Malaria!’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장을 보내는 운동이다. 목표처는 아프리카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에 보낼 모기장 천장(개당 15,000원)이다. 후원은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 접속하거나 네이버 기부포털 사이트 해피빈, 스마트폰 어플 (생명의 삶



국제보건기구에서 성능을 인정한 퍼마넷 모기장.

LITE)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7, 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KIBI,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디아스포라 유대인 위로공연 및 기도회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Shalom Jerusalem, Brooklyn Festival)’ 대회가 오는 8월 13~16일까지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88만 명의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개최

되었다. 이 대회를 위해 지난 6월 25일 (화) 양재 사랑홀에서는 ▷아르곤댄스컴퍼니(한국선교무용예술원) 공연 ▷오페라 ‘이삭과 리브가’ 공연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을 위한 중보기도회 등 행사를 위한 다양한 공연 및 기도회를 열었다.

/ 오은지 기자



# Countdown



## 부르신 곳에서 예배와 선교로 살겠습니다!

### 청년 3,951명 참여, 예배·선교 회복 경험

“예배는 회복입니다. 찬양 속에 호흡하고, 말씀을 통해 생명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보이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였고,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헌신하는 자리였습니다.”

“섬기는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회의 봉사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비위가 상할 때도 많았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제가 청소한 화장실을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자제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 기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한 김미림 자매(길공동체)와 부르신 자리에서 열정을 품고 섬기며 헌신하는 헌신자 조명희 형제(Pole2공동체)가 집회 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전심으로 예배와 선교의 회복을 갈망하는 대

학청년들의 거룩한 열정 ‘2013 카운트다운’이 이틀간의 은혜로운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지난 6월 28~29일까지 양재 사랑홀에서 열린 카운트다운에는 서울을 포함한 지방에 있는 지역교회와 해외 등지에서 3,951명의 대학청년들이 참석했다. 대학청년연합이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한 ‘카운트다운’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와 선교 회복을 부르짖으며 부흥의 불을 지폈다.

#### 6월 28일, '예배 컨퍼런스'

6월 28일, 오전 9시 여기는 양재 사랑홀 앞 원형광장. 수많은 청년들이 줄지어 집회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예배의 시작을 알리자 청년 3,951명의 거룩한 의침과 동시에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의 막이 올랐다.

카운트 10-6까지 진행된 첫날 집회는 ‘예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메시지를 전한 강사

들은 모든 강의를 ‘진정한 예배’의 의미에 대해 말하며, “예배는 바로 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Count 7 ‘마음을 드리라’ 로 열린 예배 선택식 강의를 예배 인도자로 유명한 강사들이 각각 워십빌딩(박철순 간사), 삶의 예배(심상종 교수), 예배 회복(강명식 교수), 합함 워십(장광우 단장)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강조했다.

#### 6월 29일, '선교 컨퍼런스'

6월 29일(둘째날)에는 Count 5 ‘사랑을 품으라(변종길 목사)’ 로 집회의 문이 열렸다.

‘선교’를 주제로 진행되었던 Count 5-0에서 모든 강사들은 한 목소리로 “사랑과 영혼, 세상, 복음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헌신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특히 이날은 점심시간부터 저녁까지 집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이 한 끼 금식으로 동참했다. 한 끼 금식으로 모인 화제는 북한의 병원과 교육

시설에 전달된다. Count 1 ‘사명을 품으라’ 를 주제로 진행된 선교 선택식 강의에서는 각각 청년 선교(변성우 목사), 금융 선교(박보영 목사), 개척 선교(임은미 선교사), 영상 선교(신현원 감독)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각자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삶,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카운트다운 집회의 대미를 장식한 Count 0 ‘선교는 교회의 생명이다’ 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 위기의식이 없으면 가정, 시대, 열방을 구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미션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것이 선교다. 우리 마음에 이 선교의 열정이 끌어 올라야만 카운트다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를 동안 열린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참석한 청년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열방을 품는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예배’를 주제로 진행된 집회 가운데 매너스 목사님의 메시지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서 크리스천이라면 한 번 드리는 예배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김형준 형제(전주예그린교회)



####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자로 서길”

“오랜만에 마음에서부터 뜨겁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무척 좋았습니다. 특별히 예배 선택식 강의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고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들어서 좋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배를 통해 회복과 도전을 받고 돌아가게 되어 기쁩니다.”

/ 최지원 자매(Pole2공동체)

2013년 6월 30일 956호

• 예배·선교 컨퍼런스(카운트다운) 현장 스케치 및 참석자 인터뷰(6면)



01

Count 0

# 선교는 교회의 생명이다

마 28:16~20

우리가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때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임재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교의 출발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선교사는 참된 예배공동체에서 배출됩니다. 예수님께서서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자만이 선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비전은 무엇 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경배의 모습으로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 만물이 보좌에 계신 주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이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배하는 그 제자들 속에 의심하는 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경배를 드리지 않았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경배 속에는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배에는 의심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에게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지상명령은 오늘 본문 18절의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포

포로 시작됩니다. 선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네 개의 동사 즉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기르며 지키게 하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19절에서의 명령형 동사는 단 한 단어뿐입니다. 바로 '제자를 삼으라(matheteusate)'입니다. 그 외의 다른 세 단어들은 이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입니다. 선교의 명령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제자삼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의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 예수님의 약속

마지막으로 지상명령의 세 번째 부분은 예수



이재훈 목사

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 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I will be with you'가 아니라 'I am with you always'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약속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육체적인 임재를 떠나시려고 하기 직전인데, 이제는 육체적인 임재가 아니라 영적인 임재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

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명령을 붙잡고 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시도하고 드리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사실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나갈 때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임재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카운트다운의 시대에 불잡을 마지막 가치인 예배와 선교, 그 예배와 선교에 관한 컨퍼런스 '2013 카운트다운' 집회가 지난 28~29일 양재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참여한 3951명의 젊은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이 시대를 돌고 나갈 진정한 예배자, 중언이 될 것을 뜨겁게 선포했다.

## Count 1 "사명을 품으라"



박보영 목사(인천방주교회)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를 진짜로 만나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속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변성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부르신 그곳에서 살아갈 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신현원 감독(정글의법칙, TV동물농장 제작)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왜 저를 방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했는데 우연은 없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때문이었습니 다."



임은미 선교사(케냐 선교사)

"우리 모두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얻는 자들입니다. 사명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2013년 6월 30일 956호

- 0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① 이재훈 목사 말씀(7면)
- 02-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① 초대강사 주요 어록(7면)



01



이상준 목사

**Count 10** 예배를 드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서 배우라.” 마 11:28~30

세상이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세상의 영혼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을 찾으려면 '절대적인 선'을 만나야 합니다.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과 깊이를 체험하는 삶을

살십시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갈망과 쓰임 받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갈망은 바로 자녀로의 부르심, 하

나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아처럼 인간은 사랑을 가질 때 그 인생에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자랑을 뛰어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보면 세상에서도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은 예배자와 선교자로 사는 인생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어원 맥매너스 목사(LA모자이크교회)

**Count 9** 열정을 드리라 행 7:20~22

모세가 태어날 무렵, 바로 왕은 모든 유대 민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부모가 모세를 나일 강에 띄웠고,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합니다. 모세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5살까지는 어머니의 존재를 몰랐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나중에 만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머니가 재혼한 아버지는 조지에서 무서운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이쯤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하지만 내적으로 다 무너져있을 지 모릅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이자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희망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안든 사람들은 생각이 사탄의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은사가 많은지 망각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길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리면서 간혹이고 창의적이지 않게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갇혀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비범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해 돌진한다면 우리 안에 창의력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고스란히 우리의 영혼에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j@onnuri.org

03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Count 8** “눈물을 드리라” 마 5: 1~4

애통하다는 것은 세상적 기준에서는 '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며 애통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입니다. 삶으로 가슴과 가슴으로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지 못하는 것'을 애통해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애통해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적인 믿음'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애통해 하십니다. 자신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총체적인 죄악의 권세, 죄의 심각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는데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애통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위로, 유쾌한 비람, 회복과 치유,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애통해 하는 백성이 될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비람으로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4

# Count Down

**Count 7** 마음을 드리라



박철순 간사(워십빌더스)

“예배사역은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내가 그 통로로 쓰임 받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인도자는 먼저 하나님과의 사귄(교제)을 이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강명식 교수(CCM 아티스트, 예배인도자)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배에 대한 정의를 수백 가지 안다고 예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상종 교수(색소폰 연주자, 한양대학교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동행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참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장광우 단장(Promise Keepers 단장)

“하나님만을 위해 춤추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무대에서 춤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자신만의 춤추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2013년 6월 30일 956호

• 0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⑩ 이상준 목사 말씀(8면), • 02-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⑨ 어원 맥매너스 목사 말씀(8면)  
• 0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⑧ 김승욱 목사 말씀(8면), • 04-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⑦ 초대강사 주요 어록(8면)



01



어린 맥매너스 목사(LA모자이크교회)

### Count 6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사람들'

히 11: 1~3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것을 할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에 관해 꿈을 가지고 상상하고 계획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에 대해 미래를 알 뿐 아니라 지대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강하고 담대히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알 수 없는 경지까지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만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는 공간을 상상해보십시오.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력을 도모해서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각자에게 소명과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 꿈들이 실제로 보이는 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미래를 여십니다. 예수님이 사적인 혁명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꿈은 우리의 인생에 상상력을 펼칠 때 그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력 속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꿈을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원합니다. 상상력에 펼쳐진 하나님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위대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탄복하기 원합니다. 주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 미래를 내어 드리십시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박종길 목사

### Count 5 사랑을 품으라

막 12:28~31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특징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을 완성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또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웃을 입히는 사랑입니다. 웃을 통해 벌거벗음(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우리

의 수치심, 두려움을 가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로 인해 영원히 가릴 수 있는 웃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인해 수치스러움 가운데 살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 수치심으로 인해 웃을 입히신 그 사랑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확증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증거하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삶으로 나누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i@onnuri.org

03



다니엘김 선교사(예수세대운동 대표)

### Count 4 영혼을 품으라 '부르심'

마 1:14~20

한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돌파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모집되는 과정, 두 번째는 전부를 내려놓는 과정, 세 번째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지속적인 과정, 네 번째는 잠잠히 따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과정에서는 은혜와 회개와 신뢰를 살

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부를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따를 때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떠남과 지금의 떠남은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도 나오듯이 '누구의 아들이다'였습니다. 그 당시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정제성을 버린다는 것이었

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그 지리까지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세워져가는 지속적인 과정, 네 번째는 잠잠히 따라오라는 음성을 듣는 과정입니다. 오늘 나의 삶속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주님의 부르심 안에 허용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4



### Count 3 세상을 품으라

희원극단 'Until The Day' 팀

"막이 올라가는 순간부터 이미 통일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출신 연출자와 남한 배우가 작품을 만들면서 어떻게 소통할까를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통일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땅 끝,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할 세상의 끝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지하교회와 정치범수용소, 탈북자 복송 등을 다룬 창작뮤지컬 '언틸더데이(Until the day)'를 통해 다시금 북녘 땅을 복음으로 품게 될 것입니다.



### Count 2 복음을 품으라

롬 10:9~15



도육환 목사

복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복음을 두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존재로 품들거리며 내 삶과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존재와 과거를 보게 되고,

내 현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 보는 의의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를 회개로 안내해주고, 가슴을 두드리는 새로운 열정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누군가 보내야만 하고 누군가 전파해야 하며 누군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게 해야 합니다. 믿으면 부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없는 자들의 외침과 하나님의 탄식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소유했습니다. 최상의 주님이신 하나님나라를 위해 최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려의 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산이 모든 산으로부터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귀길 축원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5

2013년 6월 30일 956호

• 0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⑥ 어린 맥매너스 목사(9면), • 02-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⑤ 박종길 목사(9면), • 0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④ 다니엘 김 목사(9면) • 04-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③ 희원극단 "Until The Day" 팀, • 05-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② 도육환 목사(9면)



01

남양주

## 6년째 이어가는 수기치료 사역

### 나고야 하베스트교회 아웃리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지난 2007년 동경 리브스나타 참석을 위해 처음 방문했던 나고야 하베스트교회에 올해 6년째 수기치료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아웃리치는 박윤현 목사(남양주 선교 담당)의 인솔로 남양주 캠퍼스 성도뿐만 아니라 서빙고와 양재에서도 5명이 참석해 총 12명이 함께 했다.

수기치료 사역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만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에는 복음 전파도 함께 할 수 있어 이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감사를 드렸다.

지난 16일(주일)에는 수기치료를 받기 위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3박4일 나고야 하베스트교회 아웃리치 기간 동안 수기치료 사역을 통해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된 가족이 있었다. 이를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하베스트교회는故김사무엘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작은 지역교회다. 지금은 약 80-90명

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하베스트교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기뻐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선교팀의 수기치료 아웃리치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역

이다. 오는 9월과 12일에도 나고야 하베스트교회를 재방문하여 수기치료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계속될 예정이다.

/ 김기환 객원기자

02

## 천국백성 모두모여 주님을 찬양!

연합예배에서 만난 사람

### 열방연합예배 14개국 500여명 참석

“각 나라와 민족, 언어는 다르지만 한 입술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신현승 장로의 기도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지난 23일(주일) 경기도 안산 관산중학교에서 온누리M미션이 주최하는 열방연합예배가 열렸다. 네팔, 러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14개 나라 500여 명이 모여 인종과 국적은 다르지만 각자의 언어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번 연합예배는 서빙고 러시아 예배공동체가 찬양과 특순, 설교 등을 섬기며 전체 예배를 진행했다. 말씀을 전한 한 알렉산드라 전도사는 “만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마 6:33)”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한 전도사는 힘들고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서부터 회복되어 천국백성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간증을 고



지난 23일(주일) 경기도 안산 관산중학교에서 13개국 5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열방연합예배가 개최됐다. 서빙고 러시아 예배공동체 지체들이 워십으로 특순을 선보이고 있다.

백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상황이 변화되고 모든 적이 친구가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배 후에는 각 나라 예배공동체별로 모여 식사와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2시부터는 크리스천 CEO포럼이 주관하는 바자회가 열렸

다. 이날 판매 수익금은 온누리M센터 건립을 위해 쓰여 질 예정이다. 또한 이후 3시부터는 나라별 토너먼트 스포츠 활동이 진행됐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스포츠로 다함께 연합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보냈다.

/ 조은실 기자

###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



디네쉬(28 사진)는 한국에 온지 3년이 되어 간다.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한국에 와서 동차 부품 만드는

일을 하게 됐다. 한국 생활은 언어와 직장에서 어려움 등으로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고향의 가족들만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안산M센터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 M센터에 한국어교실이 있다는 소식에 ‘안녕하세요’ 밖에 할 줄 몰랐던 그는 방문하게 되었고, 방문한 후로 한번을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다. 지금 그는 한국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하다. 그는 M센터에 다니면서 한국말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도 자라났다.

지난해 그는 대부도에서 열린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스리랑카 예배공동체 리더와 통역으로 섬기고 있다. 현재 그는 아버지 빚을 다 갚은 상태이고 작년에는 본국에 돌아가 결혼도 했다 고 한다. 특히 스리랑카 예배 공동체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즐겁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이다.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린 하나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따뜻한 한국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2013년 6월 30일 956호

- 01- 남양주 온누리교회 : 나고야 하베스트교회 아웃리치(10면)
- 02- 온누리M센터 <열방연합예배> 개최 및 참석자 ‘디네쉬’ 이야기(11면)



노원공동체가 지난 6월 15일~22일 인도네시아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16명의 아웃리치 팀은 다양한 봉사과 섬김으로 현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했다.

## 인도네시아에 심고 온 ‘복음의 씨앗’

### 노원공동체 해외 아웃리치 다녀오다

노원공동체가 지난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서재범 목사(노원공동체)를 포함해 16명이 참가했다. 아웃리치 팀은 자카르타 안디옥교회 성도 10명과 함께 쪄바라 지역과 족자카르타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세미나와 봉사활동을 통한 섬김을 실천하고 돌아왔다.

지역 교회에서는 ▷찬양과 집회를

통한 ‘러브쇼타’ ▷가정방문 ▷의료사역 ▷지역주민들과 함께한 운동회 ▷숨사탕 기계 기증 ▷리더십 세미나-십자가 목걸이 증정 등의 사역을 진행했다. 이번에 방문한 두 곳의 지역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왔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우로,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와 교역자가 되어 교회를 개척했다. 특히 현지 목사들은 “안산M센터와 박관구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 “우리가 고국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기쁘다. 또한 한국 성도님들이 아웃리치로 여기까지 찾아와 주어 감사드린다”고 고백했다.

현재 노원공동체는 책임선교사제도를 통해 5명의 선교사 가정을 섬기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체 성도들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각 선교지와 선교사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복음의 능력 선포할 것”

## 300여 군사들, 아웃리치 발대식



강동 성도들이 울여름 해외 7개 지역, 국내 7개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강동 온누리교회 300여 성도가 울여름 아웃리치를 떠난다. 지난 주일(30일) 오전 11시30분 예배에서는 아웃리치를 떠나기에 앞서 발대식이 열렸다.

“울여름 해외 7개 지역과 국내 7개 지역에 가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갈 수 없는 분들은 기도하는 선교사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가 발대식에 앞서 강동 성도들에 선포

했다. 이날 강동 아웃리치 발대식은 일본, 모잠비크, 캄보디아, 스리랑카, 러시아 등 깃발을 든 기수들의 합창 입장을 시작으로 아웃리치 현황 보고, 특수 아웃리치 선서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 11층에서는 강동A공동체의 아웃리치를 위한 자선장도 진행됐다. 올해 강동의 아웃리치 주제는 ‘복음의 능력(Power of Gospel)’이다. 강동 프라미스U와 프라미스 대학청년 및 성인 300여 명은 일본,

모잠비크, 캄보디아, 스리랑카, 키르키스탄, 강원도 평창, 충북 보은 등 총 14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한편 강동 온누리교회는 매년 여름 아웃리치 이후 보고회를 갖고, 아웃리치의 소중한 간증과 사진 등이 담긴 소책자를 발간한다. 지난 2011년에는 ‘Arise’, 2012년에는 ‘HUG’를 주제로 아웃리치 소책자가 발간됐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해외 여름 아웃리치

지역	일정	사역내용
일본 아치요	7/25~30	어린이 성경학교
일본 아미기타	8/10~14	캠프, 전도집회, 노방전도
캄보디아	7/25~30	어린이 / 전도집회 / 전도
키르키스탄	7/30~8/6	어린이 / 일대일, 큐티
러시아	8/4~11	예배 / 전도
모잠비크	8/8~18	유치원, 상업학교 섬김, 평발기
스리랑카	8/9~16	어린이 / 지역, 의료사역





#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 30일 주일연합예배, 215명 선교사로 헌신

다윗처럼 목숨 걸고 예배하는 5000명의 예배자와 사도바울처럼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길 200명의 선교 헌신자가 세워질 것을 목표로 열린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지난 주일(30일) 잠실실내체육관 주일연합예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카운트다운은 '예배(28일)'의 회복을 시작으로 열린 첫날 집회에 이어 둘째날에는 진정한 '선교(29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에는 '헌신(30일)'을 결단하는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이번 카운트다운 집회를 통해 215명의 청년들이 단기선교 및 장기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결단했다. 또한 집회에 참석한 4000여 청년들은 예배와 선교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21세기의 나실인으로 살아갈 것과 바울과 같은 선교사와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설 것을 다짐했다.

### 주일연합예배

1부예배는 ▷오프닝영양 ▷찬양 ▷노홍규 장로(대청연합 대표멘토)의 대표기도 ▷어윈 맥매너스 목사(A.모자이크교회)의 메시지를 ▷봉헌을, 2부예배는 ▷샌드아트(양리장 작가) ▷송정미 사모의 특송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기도 ▷가수 주리의 부르심(세리모니) ▷헌신을, 3부 발대식은 ▷아웃리치 보고 ▷선서 ▷찬양 ▷도육한 목사(이전교회) 축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우리 사이의 공간(The space between us: 행 17:16-34절)'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어윈 맥매너스 목사는 "존재하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매력적인 곳이 바로 너와 나의 사이, 우리 사이에 있는 공간이다. 우리는 일차적인 공간을 떠나 이차적인 공간을 발견해야 하고, 이차적인 공간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모험할 준비를 하고,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예배에서 '요나 선교사의 참회(요나 4:1-11)'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께서서는 요나처럼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하는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니느웨를 품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특송 시간에는 양리장 사모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샌드아트(메이선 공연)을 선보여 성도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로 특송을 선보인 송정미 사모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고 품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만든 <오 대한민국>을 노래하며,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 발대식 및 세리모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카운트다운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의 시간

이었다. 처음 입장할 때 나눠준 배턴 안에 있는 헌신서약서와 세계지도를 꺼내 선교사로 헌신할 나라를 결정하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대학청년부에서 대표들이 각각 나와 아웃리치 현황보고 및 발대식 선서를 했다.

아웃리치 보고시간에 이상준 목사(대학청년부)는 "올해 대청은 해외 18개국 49개팀 800명, 국내 47개 지역 83개팀 3000여 명이 여름 아웃리치로 파송 받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이재훈 담임목사는 3일 동안 카운트다운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이 시대와 민족,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신체를 드러내, 우리가 시간을 드러서 매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만남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각자 삶의 영역 가운데서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게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인생의 십일조”



모든 강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역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웃리치도 중요하고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예배로 인생의 십일조를 드리기로 작정했고, 십일조 외에도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서 살고 싶다고 헌신했습니다.

/ 최은비 (여호수아공동체)

## “대한민국을 품는 시간”



제 안에 있는 믿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얼마나 연합한지 솔직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아웃리치 국내로 가게 되는데 아이들 사역 캠프 탐방을 맡았습니다. 보은이라는 지역에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전 담당 눈에 보이는 것도, 보는 제 모습에 스스로 안타까웠습니다. 그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표시했습니다.

/ 이지완(프라임공동체)

##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것”



올해 진행된 카운트다운 집회에는 사정상 주일 연합예배에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오늘 잠실집회가 너무 뜨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되어서 기쁩니다. 특히 어윈맥매너스 목사의 말씀 '우리 사이의 공간'이라는 주제가 무척 인상에 남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더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단원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번 아웃리치가 진정으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우경철 형제(W공동체)

2013년 7월 7일 957호

•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스케치 및 참석자 소감 및 헌신(6면)



01

2013 아웃리치 발대식

# 선교 사명 들고 떠난다!

132개팀 3천 여 성도 참가 예정

2013년 뜨거운 여름, 이 시대와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아웃리치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름 사역에 나선다.

카운트다운 집회의 피날레인 아웃리치 발대식이 지난 주일(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인 3천여 명은 선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은 ▷아웃리치 현황 보고 ▷헌신서 작성 ▷이재훈 담임목사의 격려사 ▷발대식 ▷도육환 목사의 축복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헌신서 작성 시간에는 총 215명의 대학청년이 FA, TP, OSOM, 전문인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여름 아웃리치는 해외 18개국 49개팀 800명, 국내 47개 지역 83개팀 3천여 명이 떠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아웃리치 선서문

은누리교회 2013년 국내의 아웃리치팀으로 파송받은 박준모, 박아람 외 3,000명은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나라 확장에 힘을 결집하며 아래와 같이 선서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전도하고 봉사하며 주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 같이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의 지도에 성실하게 따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서로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은누리교회 Acts22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여 일평생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여 열방을 고치소서!

03



이재훈 목사

## 요나의 참회록 '내 안에 있는 장벽'

온 4:1~11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하냐?'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넉살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기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 넉살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들면서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또 질문하십니다.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니느웨 성민들은 무너져도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시대에 그 도사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의 장벽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장벽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 있었던 장벽, 즉 내 안의 장벽입니다. 하나님은 보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선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4



어린맥매너스 목사(LA모자이크교회)

## 우리 사이의 공간(The Space between Us)

행 17:16~34

존재하고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매력적인 곳은 바로 너와 나의 사이, 우리 사이에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사람들과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가치관과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배에 세상친구를 데려왔을 때 교회가 찬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

에게만 우리에게만 익숙한 곳이 아니라 처음은 사람에게도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도전하고 모험하고 있다면 세상이 지식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차적 공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다면 모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불

잡고 모험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설득해 어떤 선교지를 향해 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노라 자신있게 이야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는 멋진 청년들이 되십시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2013년 7월 7일 957호

- 0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2013 아웃리치 발대식(7면), • 02-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아웃리치 선언문(7면)
- 0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이재훈 목사 설교(7면), • 04-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어린 맥매너스 목사 설교(7면)

네이퍼빌 시카고

## 인도 북델리에 사랑 나눔

다운타운 캠퍼스 대학·청년 자체 14명이 인도 북델리에서 H선교사와 함께 어린이사역 및 의료사역을 했다. 하루 200여 명이 넘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200여 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이 진

행되었다.

사역팀 이은혜 팀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고, 양근태 형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 인터뷰 / CGNTV가 만난 사람 -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CGNTV는 ‘영혼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고 (故) 하용조 목사님의 당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CGNTV사역을) 포기할 수 없다는 하 목사님의 유지를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상건(76) 장로의 CGNTV 운영위원장 취임 일성이다. 정 위원장은 50여 명의 운영위원 마음을 하나로 모이는 마중물이 되고 싶다고 했다. “은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CGNTV의 비전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운영위원 배가운동과 섬김의 비전 공유에 우선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조모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 슬하의 1남 3녀에게 자신의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시시켜왔다. 1937년 평안북도에서 출생한 그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공산당의 압제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 고 한경직 목사가 담임하던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는 앞서 한 목사가 담임하던 신의주제(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몸소 실천해온 한 목사를 지근거리에서 온 가족이 보고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대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잠깐 직장생활을 한 뒤 다양한 종류의 산업용 공구를 공급하는 사업(주)미진(상사)에 뛰어들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돌보기 위해 창업 때부터 월요 직장예배를 드려왔다. 신앙생활을 통해 사업 아이템 아이디어가 생겨나고 남다른 노하우도 쌓아갈 수 있었다.

‘한대자동차’가 생겨날 때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그는 2002년 일본과 기술제휴 합작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2005년 산하 회사들의 정예화와 전문화도 이뤄냈다.

“1997년 말 IMF금융 구제 시절 저도 힘들었죠. 사업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온 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사업체(주)미진 시스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 ‘세계선교의 벽돌’을 쌓아가는 CGNTV



정 위원장은 미진시스템을 하나님의 위탁을 통해 일궈냈듯이 CGNTV 운영위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세계선교의 벽돌’을 쌓아가는 섬김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용조 목사님은 참 묘한 매력에 있으세요. 2006년 어느 날 하 목사님이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시 하 목사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위성방송, CGNTV를 통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동분서주하고 계셨어요.”

1999년부터 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던 터라 그는 하 목사의 방송선교의 열정에 남다른 감동을 받게 됐다. 교적을 은누리교회로 옮겨온 뒤 자연스럽게 CGNTV 운영을 위해 지성한(한성실업 회장) 장로를 도와 총무 역할도 담당했다.

“방송선교의 결과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과실을 책임을 주주세요. 은누리교회의 선교문화집회인 리브신(나)나 선교비전트립에 참여하다보면 방송선교 결실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가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직접 해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정 위원장은 목회자가 없는 일본의 무목교회가 CGNTV 위성안테나를 달아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는 일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대하면서 CGNTV의 사역이 결코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18차례나 이뤄진 일본 리브신(나)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현상’을 목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족의 즐거움은 가정이 비로 소고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데 있다고 믿기에 그는 1년여 전부터 클라리넷, 하모니카, 오카리나, 기타 등을 배웠다. 가족이나 순모임을 위해 연주자가 되고 한다. 은누리교회 정모합창단 교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좀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조용하면서도 확신에 찬 말을 이어가는 정 위원장의 고백과 함께 역동적인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시나어선교’의 또 다른 모델을 보는 것 같았다.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01

## 일본 CGNTV 직원 아웃리치

일본 CGNTV 직원들이 지난달 27~29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타이라그리스도복음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회복을 선물한 이번 아웃리치에는 일본 CGNTV 출연진들과 일본 CCM 가수들도 동참했다.

일본 CGNTV에 따르면 이번 아웃리치의 백미는 콘서트였다고 한다. 아웃리치팀원들은 콘서트를 보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온 어르신들을 소개하며 감동적이었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전했다. 콘서트 실황은 7월 중 일본 CGNTV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02

##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냅니다!

### ‘Stop Malaria!’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

‘NGO 더 멋진 세상’이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Stop Malaria!’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캠페인은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한 모기장을 아프리카(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에 보내는 운동이다. 목표는 모기장 천장(개당 15,000원)이다. 말라리아 퇴치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나 네이버 기부포털 사이트 해피빈, 스마트폰 어플(생명의 삶 LITE)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7~8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9-09905 (예금주: 사단법인더멋진세상)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3

## 1,008명의 영적군사, 생명 전하러 출발!

### 대청 여호수아 아웃리치 특새, ‘Life Giver’

2013 온누리 여름 아웃리치 시즌에 맞춰 여호수아 청년 지체들이 국내외를 향해 ‘거룩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 7월 8~13일 양재 기쁨홀에서는 대청 여호수아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Life Giver’를 열었다. ‘열방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Life Giver)’를 주제로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에서 국내 25개, 해외 16개 아웃리치팀에 속한 청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올해 아웃리치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마음이 집으로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13일(토)에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서 최영민 목사(여

호수아공동체)는 아웃리치 현장으로 향하는 지체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한 주 동안 진행된 특새에 개근한 지체들에게 스포츠 타월을, 최다 특새를 참석 한 팀을 뽑아 아웃리치 후원비용 300,000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한 주 동안 새벽예배에서 기도의 불을 지피고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1,008명의 여호수아 영적 전사들이 아웃리치 현장에서 바울처럼 그 땅을 향한 마음을 품고, 그 땅에 필요한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했다.

문의: 064-260-1991~4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예배 8월 2일 Acts29 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관 및 기념도서관 개관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가 열린다.  
하용조 목사 기일인 8월 2일 오전 10시30분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추모예배, 하용조 목사 기념관 기공식 및 기념도서관 개관식 등의 추모행사가 열린다.

추모예배에서는 고인의 절친한 친구였던 홍정길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동원 목사가 추모사를 할 예정이다.

이전선교본부에서는 사진전을 준비했고, 다음 주(29일-8월 3일) 새벽예배에서는 하 목사가 생전에 설교한 세븐터치 시리즈가 영상으로 상영된다.

교회 측은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준비했다. 서빙고역과 양재 세브란스레본 편의점 앞에서 8월 2

일 오전 9시에 행사장으로 버스가 출발한다.

추모행사에 참석을 원하는 성도들은 행사 당일 행사장 인근 차량 흐름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전 10시30분까지 Acts29 비전빌리지 김사무엘홀로 오면 된다.

고인이 꿈꿨던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계승·유지하자는 취지로 오픈하는 하용조 기념도서관에는 고인이 생전에 목숨 걸고 사역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사진, 저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6세의 나이로 뇌출혈로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천했다. 문의: 02-3215-3234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故)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립습니다.



추모예배

8월 2일(금) 오전 10:30

01

## 예배로 섬긴 은혜로운 아웃리치!

### 서빙고 금요철야팀 요코하마 온누리 방문

서빙고 금요철야예배 사역팀이 지난 7월 12일~15일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금요철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진수 목사를 포함한 39명의 스태프들은 3박4일 동안 ▷요코하마 온누리의 첫 금요철야예배 및 주일예배 섬김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성도들과의 큐타나눔 및 교제 ▷김철희 목사(요코하마 온누리)의 일본역사 강의 및 야스쿠니 신사, 동경지역 땅 밟기 등을 진행했다.

금요철야팀은 떠나기 전부터 금식 기도와 중보기도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웃리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요코하마 온누리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열린 금요철야예배를 통해 현지 성도들과 아웃리치 팀은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뜨거운 시간을 가졌다.

공진수 목사는 “이번 아웃리치를



서빙고 금요철야 사역팀 39명이 일본 요코하마 온누리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며 일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 통과 아픔이 얼마나 큰 지 실감했다. 또한 좋은 팀워크를 가진 사역팀이 얼마나 소중한 지 깨닫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박영미 성도는 “일본을 향한 가장 위대한 행동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다. 계속된 기도로 일본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전해질 수 있음을 가슴 깊이 깨

달았다”고 고백했다.

한편 대학청년부 금요철야기도회 ‘Ignight’이 오는 28일 양재 온누리 기쁨홀에서 밤 10시~새벽 5시까지 진행된다. 전현규 목사(히브공동체)는 “이번 금요철야는 말씀과 예배, 기도로 연결해 더 많은 사랑을 기도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2

## 선교사로 헌신한 아름다운 청년들

### 254명 헌신, 오리엔테이션 통해 훈련 안내

지난 6월말 예배·선교 컨퍼런스인 카운트다운 집회가 끝난 후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 잠실 집회현장에서 청년 215명이 헌신자로 결단했으며, 이후 화요성령집회와 여러 예배를 통해 현재 254명의 청년들이 온누리 선교훈련 및 NGO 더멋진세상에 지원했다. 집계된 바로는 FA(청년단기선교훈련) 76명, TP(단기선교훈련) 39명, OSOM(장기선교훈련) 13명, OPMS(전문인선교훈련) 46명, 더멋진세상(온누리소속 NGO) 55명, 중복지원 25명 등이 각각 선교훈련프로그램에 신청했다.

지난 7월 6일과 10일에 양재와 서빙고에서 각각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으며, 예배와 각 선교훈련 프로그램 소개,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지원자들은 부르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FA57기는 27일(토) 최종 면접이 끝난 후 8월 15일부터 훈련이 시작되고, TP와 OSOM, OPMS, 더멋진세상은 2천선교본부의 훈련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원 목사(GL공동체)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며 기도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조은실 기자

2013년 7월 21일 959호

- 01- 서빙고 금요철야팀 :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4면)
- 02-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헌신자 254명 선교훈련프로그램 신청(4면)



평택

# 대청, 아웃리치 앞두고 '선교 특강' 중

## 오늘 마지막 특강, 김다윗 선교사 초청

평택 온누리 대학청년부 메이커스(Makers)공동체가 7월 한 달을 '선교의 달'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선교 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서귀능 선교사, 김태완 목사, 김다윗 선교사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선교의 실제와 선교지 소식, 마음가짐 등을 듣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 특강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시 66:5)'. 첫 시간(7일)은 서귀능 선교사가 강의했다.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서 선교사는 아웃리치를 앞두고 설교를 듣는 청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강의 후에는 서 선교사와 오는 25일 베트남으로 아웃리치를 가는

청년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엔 아웃리치를 가는 청년들은 베트남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서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박해 지수가 높은 베트남 지역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둘째 주인 14일(주일)에는 김태완 목사(2000선교 본부)가 강사로 나섰다. 이날 설교에서 김 목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임을 강조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땅에서 그 통치를 경험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청년을 대상으로 한 평택 선교 특강은 오늘(21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아제르바이잔 선교사인 김다윗 선교사가 강사로 나선다.



평택 메이커스 청년들이 7월을 '선교의 달'로 선포했다. 사진은 평택 해외 아웃리치 사진.

조현수 목사(평택 대청)는 "작년에 이어 아웃리치와 연결된 선교 특강을 진행했다"면서 "이번 시간들을 통해

청년들이 성령충만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평택 대청에서는 아웃리치 이후 성령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1

■ 펑택에서 알려드려요

■ 베트남 하노이 아웃리치

대상: 펑택 대학청년부  
일시: 7월 25-30일 / 인원: 10명  
지역: 현지교회 방문, 격려 및 축복, 땅밭기사역 등

02

남양주 아웃리치 / 터키

# 이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터키는 초대교회의 배경이 되는 곳이자 요한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역이 바로 터키 서부이다. 그래서 터키에 다녀오는 것을 성지순례라고까지 얘기한다. 그만큼 넓은 터키 도처에는 기독교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유물과 유적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그에 따른 경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 이전에 도나는 터키를 한차례 방문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처음의 여운이 잊히지 않아 가정을 꾸리면서 아내와 함께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던 차에 1년차 결혼기념일 일정과 아웃리치가 겹치는 것을 보며 아내를 설득해 함께 팀에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원하고 나서 비행기를 타기까지 망설임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긴 일정으로 인한 업무의 부재, 답이 없는 재정, 아내의 육체적 연약함 등에서부터 집안의 대소사와 심지어는 터키의 반정부시위 기사까지 갈등을 키웠다. 결국 아웃리치를 포기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백상욱 목사의 부드럽지만 영향력 있는 권유와 설득, 지원에 힘입어 터키행 비행기에 막바지로 탑승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와 선교는 혼자 지는 집이 아닌 가족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고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하는 내가 속한 이곳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 두 번이나 보내신 목적

이번 아웃리치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 바울이 형제들을 다시 방문하려는 마음으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남양주 소속이었다가 선교사로 파송된 이영광, 이진양 선교사님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성지순례를 통해 초대교회의 흔적과 발자취를 밟으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 땅의 무너진 신앙의 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땅밭기사역이 두 번째 목표였다.

선교사님들은 에스키세힐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진 하늘광장 교회를 삼기고 계셨다.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건물도 인상적이었지만 더욱 은혜가 되었던 것은 현지인 성도와 현지어로 진행되는 예배. 비록 가사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느낄 수 있었고 백상욱 목사의 통역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몰입과 진지함 속에서 마치 초대교회의 열심이 재연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지교회지원 사역이 끝나고 진행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지역 땅밭가는 버스도 그 이동거리와 시간이 상당했다.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옛날 복음의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광활한 지역을 맨발로 이동했을 선조들의 열심이 느껴졌다.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지역과



온누리 5분 전도 스쿨을 수료한 남양주 전도특공대 성도들.

관련된 성경말씀을 찾고, 배경을 배우면서 이천년 동안 성경 위로 켜켜이 쌓인 만지를 한 겹 치우는 것만 같았다. 언어의 현장감은 다소 약하게 느껴졌던 성경말씀이 다시 이천년 전으로 돌아간 듯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초대교회를 향한 찬가와 책망의 말씀들이 여전한 권위와 생명력을 갖고 선포되었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 동굴과 지하로 숨어들면 사까지 신앙을 지켰던 선조들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정작 오늘날 터키 기독교의 현주소는 너무 미약한 것을 보며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흘린 사도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가 허망하게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허망함은 허무함과는 달랐다. 절망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자극이라 믿는다. 그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는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해서 실천하기 어려운 바로 그것이 허무함을 채우는 길이며 나를 터키 땅에 두 번씩이나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끝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에서 선교사님의 마지막 인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선했다. 부디 이곳에서의 경험을 오랫동안 잊지 말아달라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분주한 일상이 시작되었지만, 선교사님의 당부처럼 일상에 치여 그곳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기억이 오랫동안 일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 정진만 간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구치소 사역 현장을 찾아가다

# 구치소에서 찾은 참 자유



## 주님이 찾으신 6명의 영혼을 만나다 복음 전하고, 상담으로 영혼 치유하고

양재 온누리 여성사역의 좋은이웃모빌팀은 이곳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구치소 사역을 시작했다. 매달 첫째 주 목요일마다 8명의 팀원들이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에 있는 여성 수감자들을 찾아가다. 20세 이하 내국인 여성과 다양한 연령층의 외국인 여성들이 있는 이곳에서 찬양과 말씀 선포, 기도, 일대일 상담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하나님을 누구인지 궁금증을 안고 나오는 여성 수감자들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의 현장을 전하기 위해 서울남부구치소에 동행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장맛비가 세차게 내리치던 지난 11일(목), 좋은이웃모빌팀과 함께 구치소를 가기 위해 오전 일찍 예수의 전당 앞에서 만났다. 사역에 참여한 지 두 달째 되어가는 새 식구 소현숙 집사의 차를 타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을 뚫어 서울 남부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 도착하니 사역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주혜란 교도관이 미소를 띠며 팀을 반겼다. 서로 인사하며 모두가 통과기를 거쳐 건물 내로 들어갔다. 대기실에 들어가 교도관의 안내에 따라 핸드폰, 카메라 등 수감자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소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맡기고 신분증을 제출해 확인증을 옷소매에 달았다. 팀은 간식과 성경책, 한국어 공부 책 등 허가된 물건만 들고 교도관을 뒤를 따랐다. 여성 수용동의 긴 복도를 따라 걸어 가다보니 종교실이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명의 여성 수감자들이 직사각형으로 세팅되어있는 테이블에 앉아 팀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정란 사역자는 앉자리에 앉아 한 명 한 명 이름을 확인하며 눈을 마주쳤다. 그동안 다른 팀원들은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 빵, 초콜릿 등 간식거리를 준비했다. 수

사라고 했다. 고국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에 팀원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눈물 흘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장원원 뿐이었겠는가. 다른 수감자들 역시 그리움과 말 못할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나눴다. 이날의 말씀은 사편 121장이었다. 오사역자는 "지금 이 곳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이 시간들은 이곳에서 나가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질문 뒤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게 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갔다. 영접기도를 따라하는 그들의 속눈썹 속에 망울망울 눈물이 맺혔고 가지런히 가슴에 모은 두 손이 퍼르르 떨렸다. 그들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예배 후에 나누는 일대일 상담에서 팀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면서 위로가 되어 주었다.

### Interview

## “통역을 통한 나의 신앙고백”



중국여 통역을 섬기면서 평소엔 한국어로 잘 못하는 정도를 중국어로는 부끄러움이 없어 지면서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수감자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통역해서 전달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전하면서 다 시한번 내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

일 소외되고 상처 받아 범죄를 저지른 친구들을 만났을 때, 누리고 가진 자 입장에서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다같이 낮아져서 마땅히 전해야 할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동일하게 내 자신한테 선포할 수 있어 내 신앙고백이 동시에 되는 것 같습니다. 섬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 임지현 자매(요셉공동체)



감자들 사이사이에 팀원들이 앉아 함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했다. 자기소개 시간에 '어렵다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이 함께 주어졌다. 베트남 여성인 온티란부터 시작되면서 신유년 권사, 중국 여성 문혜민, 강정례 권사, 중국 여성 장원원, 임지현 자매, 홍콩 여성 리와이린, 소현숙 집사, 연변교포 순영, 김은 권사, 소년수 송희, 오정란 사역자 순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눴다. 그 중 장원원 여성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은 바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통역을 섬기고 있는 지현 자매를 통해 들은 이유로는 바다에 가면 멀리서나마 중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상담을 마치고는 수감자들을 안아주며 함께 울고 함께 미소지었다.

죄수복 속의 그들의 육은 비록 강한 자였으나, 주님을 영접한 그들의 영은 참 자유를 누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표정에서 평안해 보이는 얼굴빛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모든 과정을 통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팀원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가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다.

구치소 사역 문의 02-570-7457

## 베트남 여성 온티란 이야기

수감자 6명 중 유독 얼굴이 환한 여성이 있었다. 베트남에서 온 여성 온티란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팀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해 받은 수감자였다. 곧 있으면 구치소에서 나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 마지막으로 팀을 보기위해 나왔다고 했다. 한국어 공부를 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팀은 베트남

남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과 한국어 공부 책 몇 권을 선물했다. 그리고 본국에 돌아갈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함께 선물했다. 그녀가 돌아갈 때 입을 옷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선물로 주셔서 너무 놀랐고 감격스럽다며 베트남에 돌아가면 호치민 온누리교회에 꼭 방문할 것이며 신앙생활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환한 웃음을 보였다.

서빙고 상담실, 필리핀 안티폴로 다녀오다

# ‘상담 아웃리치’ 통해 하나님 사랑 전해요!



지난 7월 1일-5일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팀이 필리핀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강미향 목사 와 6명의 팀원이 참가한 이번 아웃리치는 특별히 상담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아웃리치로 그 의미가 컸다.

상담실 아웃리치팀은 ‘힐링 타임 with Freedom’을 주제로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을 대상으로 예배와 다양한 상담사역에 집중했다. 또

상담뿐만 아니라 예배시간마다 찬양과 테이블 장식, 건반 등을 섬기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선교사들을 섬기고 돌아왔다.

정체성, 부부, 자녀를 주제로 한 강미향 목사의 깊이 있는 메시지와 전문지식을 갖춘 상담실 팀원들의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 현지 선교사들은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으며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했던 팀원들은 “앞으로 교회 내 상담 뿐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나가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 얼굴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우리 또한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시간이었다”며 아웃리치의 감동을 전했다.

한편 서빙고 상담실에서는 교회 상담사로 섬기기 위한 인턴 1년, 레지던트 1년의 프로그램을

미련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올해 상반기 과정은 7월 말까지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는 훈련과정을 통해 유명한 상담 전문가들의 질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는 오는 9월에는 특별히 아동정신병리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간증

## “크신 사랑과 은혜 경험한 아웃리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빌 2:5).”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상담하고 위로 하리라는 계획으로 7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 상담실의 첫 아웃리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준비과정에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선교사님을 만나면서부터 필리핀 아웃리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지원하여 섬기는 선교사님 부부의 열정과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정은 사흘 동안 강미향 목사님의 강의와 부부상담, 집단상담, 개인 상담으로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의 애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통로를 통하여 그분들을 위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대기후라서 한낮의 더위는 팀원들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망고나무 아래, 수풀 속, 주차장, 베란다 등지에 테이블을 깔고 더위와 땀과 날아드는 벌레와 함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우기라 간간히 쏟아지는 굵은 소나비와 밤새 쏟아지는 비가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강 목사님 강의는 정체성과 부부, 자녀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죄책감, 부부문제, 자녀문제, 관계문제 등을 안고 온 선교사님들은 강의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게 살아온 사모님들의 갈등과 자침마음들로 인해 마음과 몸이 힘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론 같이 울어주고 또 같이 웃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그분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마다 팀원들에게 찬양으로 연합하게 하였고 각자에게 주신 역할들에 은혜를 부여주셨습니다.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의 초청으로 수요일 저녁예배에서 강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잠시 담임목사님의 부재로 성도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형통의 미를 설교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었지만 갈급한 분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애잔을 모두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감시함으로 베풀어 나눌 수 있는 잔치를 나누었습니다. 8월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꼭 만나야 할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힐링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웃리치가 선교사님들께 또한 우리 상담실에 은혜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고와 헌신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 늘 기억하며 건강과 사역과 평강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 이희영 권사



01

송파공동체 아웃리치 / 스리랑카

# 스리랑카에 펼쳐진 Acts' 29

8시간의 비행 끝에 새벽 3시30분에 도착한 스리랑카. 신원석 선교사님을 따라 온누리 국제학교에 도착해 이번에 신축한 14개 교실과 도서관, 컴퓨터실, 강당을 둘러보았다. 380명의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180권의 영어책과 도서 구입 후원금을 학생회장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김장렬 장로님의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바로 타밀족이 사는 NUWARA ELIYA의 차밭으로 이동했다. KANDY를 지나 펼쳐지는 3시간 동안의 풍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줬다. 800-2500m에 이르는 모든 산이 차밭이었고, 사이사이의 폭포와 호수는 그림 그 자체였다.

다음날 현지교회의 가미니 목사님과 함께 현지교회를 방문했다. 신자들 가정방문, 차밭 노동자 노방전도와 가정방문 전도를 시작했다. 맨 처음 방문한 밭라 형제는 근육이 위축되어 가는 병과 피부병을 15년 정도 앓고 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움직이지 못하면서도 하루에 5시간 이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밭라 형제의 간증을

듣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렸다. 병이 있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사는 밭라 형제를 보면서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매일 애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여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은혜를 나누어 주러 왔다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가는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다.

차밭에 도착하여 18명의 타밀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그중 남자를 제외한 12명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 그중 관절염을 앓고 있던 할머니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기운이 자기를 통과했다는 간증과 몸이 계속 아위어가서 불편한 표정으로 오셨던 젊은 자매도 많이 좋아졌다며 웃음 띤 환한 얼굴로 돌아갔다. 이를 본 다른 타밀인들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찬장을 비롯한 6명이 하나님을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곳 스리랑카에도 시작되고 있었다.



### 그 땅에 보내신 이유

오후에도 다른 차밭을 방문하여 25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10명이 영접하여 이곳이 정말 추수하는 지역임을 확인했다. 저녁 8시가 넘어 함께하는 사역을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가미니 목사님은 전도하지 못한 곳이 있다고 남은 치약과 칫솔, 비누세트 2개를 가방에 넣어 산길을 올라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스리랑카에도 사도행전 28장을 쓰는 현지 목회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며 그러한 목회자들과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믿음을 했

다. 주일에는 약칼라 현지교회에서 150명 정도가 예배를 봤고 50여명이 안수기도를 받았다. 사만 목사님 역시 가미니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노동자로 일하러 왔다가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접하고 스리랑카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됐고 안수멘터가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도 새삼 느꼈다.



/ 나점두 성도 (송파공동체)

02

## TV 추천 프로그램



### >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 주제강의 7/23(화) 오후 5시30분  
 저녁집회 7/27(토) 오후 9시50분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모여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께 헌신한 예배현장입니다

2013년 7월 21일 959호

- 01-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나점두 성도(송파공동체)(12면)
- 02- CGNTV 추천 프로그램 :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COUNTDOWN(13면)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가 오는 8월 2일 오전 10시30분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 추모행사

추모행사는 추모예배를 시작으로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기공식, 기념도서관 개관식 순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의 인도로 드리는 추모예배에서는 윤희영 주창로가 특송을 하고 홍정길 목사가 설교를 한다. 이 동원 목사, 이어령 교수는 추모사를 한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기공식에서는 이남식 장로가 진행보고를 하고, 기공식 시삽을 한다.

기념도서관 개관식에서는 기념사, 개관식 커팅식 등이 진행된다.

### 새벽기도 및 특집 다큐멘터리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벽예배는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새벽기도회로 드린다.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설교한 세본터치 시리즈가 온누리 모든 캠퍼스에서 영상으로 상영된다. 1부는 오전 5시, 2부는 6시 30분.

CGNTV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를 주제로 특집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를 방영한다. 하용조 목사의 설교의 특징이 무엇인지, 삶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켰는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은 8월 2일 오후 1시, 9시, 8월 3일 오후 3시 20분, 8월 4일 오전 10시40분.

서빙고와 양재에는 하용조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손글씨로 쓴 내용과 하용조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가 현수막으로 제작되어 설치되어 있다.

교회 측은 유가족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행사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준비했다. 서빙고는 서빙고역 앞, 양재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앞에서 오전 9시에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된다.

문의: 김경렬 간사(3215-3234)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5차 선교사 파송식

- |  |  |
|--|--|
| <p>신바나바/최안나(갈렙)남아시아 K국<br/>- 성령충만함으로 주 안에서 항상 한마음이 되도록</p> <p>황옥심(갈렙) 스페인<br/>- 파송 전 준비가 순조롭게 되도록</p> <p>브르고로/빅토리아(단기) 남아시아 F국<br/>- 현지 언어를 잘 익힐 수 있도록</p> <p>이생명수/강물(단기) 중동 C국<br/>-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입재와 역사를 보도록</p> <p>레베카(단기) 중동 A국<br/>-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늘 평안하고 강건하도록</p> | <p>주오실(단기) 아프리카 D국<br/>- 예배자와 복음전도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p> <p>길예비(단기) 아프리카 D국<br/>- 이곳에서 만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p> <p>유순종(단기) 중동 A국<br/>- 하나님께 잘 쓰임 받는 그릇 되도록</p> <p>그레이스(단기) 중동 G국<br/>-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p> <p>김한나(단기) 필리핀<br/>- 성령충만함으로 내용이 충실한 강의를 하도록</p> |
|--|--|

02

### ‘Stop Malaria!’ 캠페인 종료

#### 모기장 1,200장 모금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어린 이 생명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한 ‘Stop Malaria!’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에 모기장 1,200장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을 모금했다.

Stop Malaria! 캠페인은 지난 7월 7일부터 3주 동안 온라인 모금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넷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젊은 세대들의 참여가 활발했지만 목표치인 모기장 1000장을 후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NGO 더멋진세상 이사진과 온누리 장로합창단이 후원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각각 모기장 300장과 500장을 후원했다.

귀하게 모인 모금액으로 모기장을 구입해 아프리카 3개 지역(세네갈, 기니비사우, 르완다)에 전달할 예정이다. 모기장 후원은 더멋진세상 홈페이지에서 계속 동참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mailto:one@onnuri.org)



01

## 청주 교도소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 서빙고 좋은이웃모빌팀 섬김

지난 7월 5일(월) 청주 외국인여자 교도소 50대 카자흐스탄 고려인 여성 이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교도소 안에 마련된 예배공간에 들어왔다. 그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고요하게 그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는 벌써 4년이 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중년의 여자 재소자는 중형선고를 받고 청주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녀는 이가 없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먹는 것조차 불편해 소화도 잘 하지 못한다. 또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눈물 속에 지내고 있다.

종교는 없지만 교도소 내에서 진행되는 예배 시간에 우연히 참석한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치과비용을 후원받아 이 치료도 진행 중이다. 서빙고 좋은이웃모빌팀이 한 달에 한번씩 진행하는 교도소사역을 간 이 날 이 재소자를 위해 러시아 통역이 가능한 봉사자가 함께 자리했다. 온누

리교회 러시아어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유학생 자매였다. 그런데 우연히 동역한 통역 봉사자는 알고 보니 고국에 남아있는 고려인 재소자의 두 딸과 친구사이였다.

한국에 있는 교도소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이들이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 이 기적을 통해 말수 없던 재소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한참 동안 그 자매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봉사자 자매를 데려와주어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이진이 전도사(서빙고 여성사역)는 “하나님이 고려인 자매님과 늘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하나님의 기적같은 스토리를 시작으로 언젠가 반드시 이분이 자신의 입술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02

## 일본 아웃리치 위한 바자

### 야치요, 야마가타 위해 쓰인다

지난 주일(21일) 강동 온누리교회 11층에서는 일본 아웃리치를 바자가 열렸다.

이번 바자에는 액세서리와 문구용품, 먹거리, 음료 등이 준비됐다. 바자의 수익금은 일본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다.

강동의 일본 아웃리치는 지난 25일(목) 시작된 야치요 아웃리치와 오는 8월 10일 시작되는 야마가타 아웃리치가 있다.

오는 30일에는 키르키즈스탄과 8월 1일에는 평창으로 복음의 깃발을 들고 떠난다.

/ 정지은 기자

01

# 일만사역자 파송

## 윤복기, 심은진 집사 파송

강동 주일(21일) 2부 예배에서 일만사역자 파송식이 열렸다. 주인공은 윤복기, 심은진 집사부부. 이들은 미국 덴버에서 2년 동안 지역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윤복기 집사는 '예배, 사역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길', '형제 가정의 구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길' 등을 기도제목으로 내놓으며 강동성도들이 기도의 후원자로 동역해주길 당부했다.

최원준 목사(강동 온누리교회)는 "선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강동 목회자 및 리더십들에게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윤복기 집사 부부.

02

### ■ 평택에서 알려드려요

#### ■ 아웃리치

##### 2. 안산M센터

일시: 8월 17일(토)~18일(일) 1박2일

장소: 안산시 원곡동

내용: 이주민 전도, 미용봉사, 거리청소, 다문화 음식체험 등

참가비: 2만 원(예상)

##### 2. 블레싱 캄보디아

일시: 8월 1일~7일 5박6일

내용: 평택 책임선교사 강희자 선교사 및 스와이쯔롬 교회 방문



01

# “꿈과 비전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립고 생각나는 귀한 영적 지도자를 저희 목사님으로 모시고 함께 동역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오늘 2주기 추모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름다운 삶과 신앙과 교회에 대한 꿈과 선교에 대한 비전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추모예배는 여는 말씀에서)

02



추모사

## 당신은 불꽃



이동원(지구촌교회원로목사)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청초의 불꽃  
아무도 부르지 않던 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의 선두에 서서  
새 길을 열고 새 일을 하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모험의 불꽃  
삶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믿었던 당신  
그래서 쉬지 않고 comfort-zone에 도전한 당신  
그래서 저수평선 너머를 보게 한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선교의 불꽃  
오늘 이 땅에서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각되어  
그 타오르던 동력을 상실한 안타까운 선교 전선을 바라보며  
선교의 엔진이었던 당신의 존재가 다시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평화의 불꽃  
비판을 받아도 비판하는 이들을 비판할 줄 몰랐던 당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화해시키겠다고

내 팔을 끌고 그 땅의 행진에 앞장서던 철없던  
당신의 순수가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강단의 불꽃  
병들어 거동이 힘들어도 강단이 행복이었던 당신  
당신의 골방의 목상이 빛나는 통찰의 언어로 바뀌던 순간  
말씀과 함께 주일마다 부활하던 당신이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당신은 열정의 불꽃  
우리의 8월 휴가철까지 빼앗아 간 당신이지만  
당신의 공상 같은 비전이야말로 우리를 각성시키던  
당신의 열정적인 매직 터치가 한없이 그립습니다.

이제 저 나라에서 한국교회의 겨울을 여름으로 바꿀  
밤 하늘의 불꽃이 되어 주소서

당신의 불꽃으로 화상 입은 친구가  
/ 주후 2013년 8월 둘째 날에

03



# (故)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그립습니다.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7~10면

01

## 캄보디아 청년 도움시다!

### 통역, 케어, 재정 지원 절실

NGO 더멋진세상이 선천성 발목기형으로 고통 받고 있는 캄보디아 청년 쏘반 나린을 통역, 케어, 재정으로 도움 손길을 아타게 기다리고 있다.

올해 17살인 캄보디아 청년 쏘반 나린은 서대문공동체 지체들이 아웃리치를 갔다가 만나게 되면서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가 되었다.

이번 의료지원 사업은 NGO 더멋진 세상이 초청, 서대문공동체가 항공비

및 수술비 지원, 순정형외과 후원으로 전개된다. 지난달 31일 한국에 입국한 쏘반 나린은 검사와 수술, 회복 등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 약 10주 동안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후원문의: 최진혁실장 (010-2289-1159)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 예금주 더멋진세상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8월 비전헌금

다음 주일에(8월 11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해외중국유학생복음연합회(CHISTA)를 위해 사용된다.

03

## 두란노, 추모 도서전

두란노서점이 오늘 양재 사랑성전 앞 광장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를 맞아 추모 도서전을 연다. 고 하용조 목사의 저서를 30%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조은실 기자

04

## 내 아이 선교비전 키워주세요

### 양재 세품아 3기 추가모집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3기가 가을학기를 앞두고 수강생을 추가 모집한다.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세품아는 오는 8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비전홀 A에서 진행된다.

말씀과 선교교육, 내적치유, 해외 아웃리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양승순 전도사는 "선교와 공동

체 훈련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10명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면접 후 참가할 수 있다. 면접은 17일(토) 오전 11시 비전홀 A에서 진행되고, 접수는 오는 16일(금)까지이며, 화비는 25만원(해외 아웃리치 별도)이다.

문의: 유마라 코치(010-8211-7900)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엘바인

##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를”

### 멕시코 아웃리치

낙천적인 나라라는 막연한 생각은 삼엄한 국경을 통과하고 달리졌다. 한국의 60-70년대 시골 같은 풍경이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평화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도착한 곳은 이동훈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작년 완공이라지만 아직 손이 가야할 곳이 많아 보였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식사봉사, 의료봉사, 페이트칠, 전기시설 점검, 미용 봉사 등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의 섬김에 마을 주민들이 미소로 화답해줬다.

봉사하는 모든 팀원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기쁘게 만든걸까. 생명을 던져 우릴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이다. 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밀알 같은 헌신과

기도가 이 땅에 생명수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란다.

/ 엄영기 성도

02

밴쿠버

## 올 여름 선교에 집중!

### 원주민 선교의 모델 제시

밴쿠버 온누리교회가 올 여름 선교에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원주민 선교를 비롯해 중국선교, 이스라엘 성지순례, 페루 아웃리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선봉은 원주민 선교가 맡았다. 지난

7월 15일~19일까지 3박4일 동안 밴쿠버 북쪽 파월리버지역에 살고 있는 슬라이아몬이라는 부족을 섬겼다.

밴쿠버 온누리교회 인광복 목사는 “가장 좋은 선교의 모델을 보여준 팀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원주민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01

앵커리지

### 책임선교사 축복 및 파송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지난 7월 첫 주 책임선교사를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다.

책임 선교사인 니카라과 정진모 선교사 가족, 두란노해외선교회 송순동 목사를 초청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송순동 목사는 '축복의 통로 디아스포라'를 제목으로 열방을 향해 섬기는 선교사적인 삶에 대해 말씀을 전했다.

선교팀장 송용구 집사는 "앵커리지 온누리가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 전현란 통신원

02

교토

### '윤형주의 사랑 노래'

#### 서초B공동체 아웃리치

지난달 25일 양재 서초B공동체 지체 43명이 아웃리치를 왔다.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윤형주 장로가 콘서트 겸 전도집회를 열어 더욱 뜻 깊었다. '윤형주의 사랑 노래'를 주제로 열린 집회에는 160여 명의 성

도들이 참석했다.

한편 교토 온누리교회는 8월부터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교토 온누리 담당 아미나가 목사는 "새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교토 지역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나리 통신원





# 하용조 목사 소천2주기 추모행사

## 기념관·채플 기공식 및 도서관 개관식

지난 2일(금) 오전 10시30분, 양지 Acts29 비전 빌리지에서 고(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 예배가 드려졌다.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하늘은 개끗했다. 고인의 무덤인 야외 동산에서 진행된 추모예배에는 유가족과 일본, 대만에서 온 해외 추모객 80여 명이 함께했고, 비전빌리지 내부 각홀에서도 580여 명이 CGNTV 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렸다.

### 추모예배

추모예배를 인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추모 2주기를 맞이하여 하 목사의 꿈과 비전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추모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양유식 장로의 대표기도에 이어 상영된 선교에 목숨을 걸었던 고인의 생전을 담은 추모영상은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복음을 전하던 청년전도사 하용조 목사가 몇 번이나 반복해 부르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그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고인과 함께했던 기억을 꺼내놓으며 윤희주 장로는 하모나가 연주와 함께 찬양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을 불렀다.

하용조 목사의 추모 설교가 너무 고통스러워 몇 번이나 거절했다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는 ‘나그네의 길(히 11:13-16)’을 제목으로 설교하며 나그네 길을 걷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 전했다.

홍 목사가 강조한 나그네 길의 축복은 ‘좋은 동반자’, ‘적은 짐’, ‘돌아갈 집’ 세 가지. 그는 세 가지 축복과 함께 “추모 2주기를 맞아 우리가 하

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추모사 시간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가 추모시 ‘당신은 불꽃’을 낭독했고, 이어령 교수(전 문화부 장관)가 고인과의 추억담을 읊었다. 이어 가족대표로 고인의 아들 하성석이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축도는 김인중 목사(온산동산교회)가 맡았다.

### 기공식 및 개관식

예배 후 오후 12시부터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 및 채플 기공식이 진행됐다. 기념관은 벨엘 온누리교회가 있던 자리로, 벨엘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장소를 제공받게 됐다. 이재훈 목사는 “사람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아내는 공간이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면서 “이 공간을 통해 선교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리더십들이 함께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삽이 진행됐고, 비전빌리지 내 1층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개관식이 열렸다. 도서관의 오픈을 알리는 커팅식에는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온누리교회 장로들과 이동원 목사, 김인중 목사, 이어령 교수, 하스태만 선교사 등이 함께했다.

하용조 목사의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정과 사명, 정신이 담긴 도서관에는 성경, 선교, 말씀, 예배를 주제로 한 사진전과 기독교 주석 및 관련 서적, 하용조 목사 설교사전, 잡지, 신문 등이 전시되어 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가족대표 인사

02

### “조그만 위로가 되길 희망합니다”



장남 하성석 형제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저에게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 알지 못했던 감사를 조금 배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한 반지리를 때로 느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반지리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어느 날 부인이 CGNTV

를 보라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지라도 저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또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말이 아버지의 설교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다른 모양으로 저희 아버지와 기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날의 기쁨은 당연히 가족분들, 친한 분들과 나누시겠지만 지치고 힘든 날이 오게 된다면 저희 아버지와의 기억 혹은 추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그만 위로가 되길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운 날 참석해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설교

# 나그네의 길

히 11: 13~16



홍정길 원로목사(남서를 은혜교회)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그냥 목재가 되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고 말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영원히 살아야 할 땅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하 목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와서 주께서 주신 복을 증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그 목숨을 드렸습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하용조 목사. 하 목사가 살았던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나그네 길의 축복

첫째, 나그네 길의 가장 귀한 축복은 '좋은 동반자'입니다. 하 목사와 더불어 45일 동안 세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걸었던지 신발이 너털 되어서 오자마자 구두방부터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니 그 여행의 최대 축복은 하 목사와 함께한 45일 동안의 기억입니다. 지금도 아저처럼 그때의 즐거움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좋은 유한함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 목회 현장에서 동반자로 살아온 것, 이것이야말로 생애 가장 귀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좋은 동반자가 있습니다. 그 동반자의 이

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꼭 찬 공반자, 내 마음 전체가 그에게 주어지고, 그분의 전체가 저에게 밀려오는 동반자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하 목사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동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 목사님의 위대함은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생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위대했습니다. 하 목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동반자, 하 목사의 생애의 그 연약함과 부족을 넘치게 채워주신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 온누리교회 위해 가장 귀한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여행길에 있어서 참 지혜는 짐이 적은 것입니다. 인생길에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근심, 걱정, 염려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마 11:28). 또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마 11:30).

하 목사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짐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는 짐입니다. 목숨마저 투자해서 불잡아야 했던 사명의 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 목사 생애의 모든 짐을 자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내 짐을 모두 져 주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이라는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그 짐을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 목사 나그네 인생길에 놀라운 지혜는 그 짐을 주님 앞에 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무겁고 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짐을 그는 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셋째로 나그네 길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요 14:3).

주께서 영원히 살 공간을 주셔서 예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황금보석으로 꾸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집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가림이 있습니다.

### 가장 큰 소망, 예수그리스도 만나는 것

천국은 제게 있어서 신기루가 아닙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상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하용조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 목사 만나는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내 생애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분이 달려 나와 이 세상에 살면서 담뭍던 슬픔의 눈물, 억울한 눈물, 고통의 눈물을 먼저 씻어주심으로 천국에 입장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곧 주님을 만납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클라임입니다. 나그네 인



추모사



이여령 교수(전 문화부 장관)

저를 제가 하 목사님을 만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들 세미나가 있는 한 연수원에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자 하셔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 대표로 참석했었습니다. 그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때 하 목사님이 제게 걸어오시더니 "예수님 왜 안 믿느냐고 누가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첫사랑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는 것인데'라고요. 그 첫사랑을 해보셨습니까?'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재치 있는 이야기로 누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결혼해서 평생 살지 못한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신부가 되지 못한다는 역설을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첫사랑 하셨습니까?' 라는 그 한마디 말에 저는 광경이 당황했고 맛있는 말을 하기 위해 사랑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첫사랑했다고 한 얘기에 대해서 마음이 광경하 무거웠

습니다.

### 하 목사님의 인연

작년에 딸 민아를 통해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굉장히 반가워하며 자기가 갑상선암을 앓고 있었는데 하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고통과 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난 후부터 명랑하게 즐거운 생활을 하니까 남편이 '당신이 만난 그 목사님이 맞아' 라고 물을 정도였다 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하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딸의 요청에 의해서였습니다. 워낙 바쁜 신 분이라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전화를 걸어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승낙하셨고 만나서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은 "이민자 자매가 평생 소원하니 두 부모님께서 한번 따님을 위해서라도 주님을 영접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용조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돌아가시기 열흘 전 즈음, 딸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아프신 몸을 끌고 음식점에서 식사했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





생길 줄이 가면서 동반자이신 예수그리스도 그 분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봅시다. 내 모든 짐을 대신 재주신 예수그리스도께 내 근심, 걱정, 염려의 짐 다 맡기기도 살고 있는지, 그분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다시 지고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지, 그분을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 자리 모인 성도님들 생애 속에 아름다운 결실으로 맺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송고한 꿈과 비전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을 섬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故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일을 맞이하여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 목사님**을 환방 중에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은 흘러도 떠나가신 **하 목사님**에 대한 추모의 정은 더욱 더 간절하게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예지력과 통찰력과 실천력으로 28년이란 세월 동안 오늘의 은누리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기 위하여 온몸을 바쳐 애쓰고 수고하신 목사님.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삼기 위한 Acts 29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남아있던 한 방울의 진액까지 쏟아버리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가신 목사님 너무나 그립습니다. 고인께서 가지셨던 그 송고한 꿈과 비전을 남은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지 못한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시인은 임종을 맞이하여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고인께서는 잠시 왔다 가는 소풍과 같은 인생, 들의 풀과 같



양유식 장로(당회서기)

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짧은 세상 살이 동안 수많은 역살이 이루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켰습니다. 고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추도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그네 삶을 마치면 떠날 없이 떠나야 할 이 세상, 이 땅에 정착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두 놓고 가야 할 이 세상 것들을 옮겨 주고 분주히 살아가기보다 영원히 쉬지 않을 하늘나라를 위해,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좀더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홍정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는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하는 유가족과 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이동원 목사님과 이어령 교수님의 추모사를 통하여 그리운 고인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게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때 하 목사님은 "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좋지 않았는데 굉장히 추위하시면서 담요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추위하시는 것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하 목사님의 고통을 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저를 축복해주시는 분이로만 알았지 본인이 저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기억납니다. 팔이 눈을 떠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남들이 말할 때 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맞이하시겠지요" 그때 저는 "내 팔만 눈을 뗐다고 되겠습니까. 전 세상 앞을 보지 못하는 팔이 앞을 봐야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걸걸 웃으면서 "파

님이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못 믿으시겠군요. 우리가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파님이 세상을 떠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겠군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포기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바로 다음 달에 딸보고 하용조 목사님 만나면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씀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 죽음이 알려주는 '진짜 사랑'

사랑은 곧 죽음입니다. 죽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랑을 사랑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 하 목사님의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뜻을 아시는 분은 하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는데 하전함과 후회,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진

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손자를 잃었고 제 딸을 잃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떠나고 보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지 않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고 저는 웃고 있었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좋은 기억은 있지만 정말 아팠던 때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나 기쁨은 같이 했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을 모른 채 했습니다. 제 자신도 하 목사님이 그렇게 추워서 떠시는 모습을 한번도 생각하지 않은 채 하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 십자가 죽음을 통한 예수님 사랑

마지막 담요를 쓰고 그렇게 떠시고 아파하셨던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추모사를 하면서 감히 그분을 사랑하고 의손자와 딸을 사랑했지만, 진짜 사랑한 것은 그들이 내 곁을 떠난 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모이고, 내 곁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 슬픔 가운데서 다시 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가진 것은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마지막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정리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3년 8월 4일 961호

- 01-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흥정길 원로목사 설교 : 나그네의 길 1-2(9면), • 02-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양유식 장로 대표기도 : 송고한 꿈과 비전 잊지 않게 하소서(9면)
- 03-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이어령 교수 추모사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2(9면)



기공식, 기념도서관 개관

# 고(故) 하용조 목사 선교 열정을 담다

## 기공식 및 기념도서관 개관식

생전에 고(故) 하용조 목사가 걸어온 길과 목회철학, 그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담겨있는 공간인 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과 기념관. 이중 하 목사의 설교영상과 책, 사진, 은누리교회 역사 등의 자료가 보기 좋게 잘 정리된 기념도서관이 지난 2주기 추모예배 후 개관했다. 그리고 이날 고(故) 하용조 목사 묘역 바로 아래 공간(이전 벨엘교회 타)에서는 하용조 목사 기념관·채플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유가족 및 목회자, 은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참석해 사삼을 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고 원치 않았던 하용조 목사는 항상 예배의 공간이 사람의 명성과 명예, 지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공간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뚜렷했다. 이에 그의 목회철학과 영성에 적합한 건축가인 이문 탄(RAD대표)과 김준성 교수(건국대학교 건축대학원)가 이곳 설계를 맡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모두 자연의 축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이 공간을 통해 하 목사의 선교 비전을 공유하며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할 계획이다. 이곳이 선교하다 지친 선교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힘을 얻는 벨엘로, 새로운 도전이 되는 공간으로,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지난 8월 29일(목) 고(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예배 후 기념관·채플 기공식 및 기념도서관 개관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도서관 개관식을 위한 테이프 커팅식에는 유가족 및 하용조 목사 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친구, 동역자, 장로 리더십 등이 참여했다. 기념도서관에는 하용조 목사가 집필한 도서, 설교집, 동영상 그리고 추억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은누리교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비치되어 있다. 또한 소천 3주기에 완공될 기념관·채플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기공식에는 유가족과 은누리 교역자 및 장로 리더십들이 참석해 사삼을 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이 공간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념관과 채플, 자연친화적 설계 통해 내년 8월 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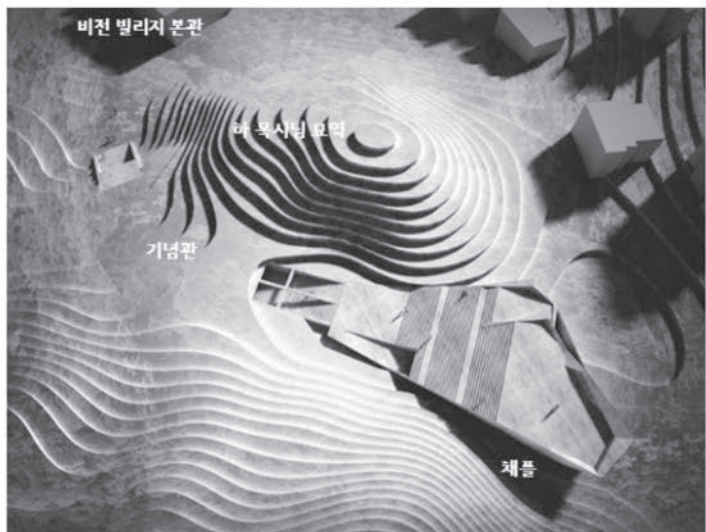
## 기도·묵상·예배하는 아름답고 경건한 공간



**이남식 장로**  
(기념관·채플 추진 위원장)

고(故) 하용조 목사님의 선교 비전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과 채플이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에 건축됩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선교사 양성을 위하여 세워진 비전빌리지에 평소 하용조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세계

적인 건축가 이문 탄(RAD대표)과 김준성 교수(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가 자연 친화적인 설계를 통하여 선교사를 꿈꾸는 이들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답고 경건한 공간을 건축합니다. 4,000㎡(1,200평)의 대지에 약 660㎡(200)평의 기념관과 330㎡(100)평의 채플이 마련되며, 특히 기념관은 지형을 이용하여 경사터널을 만들어 채플까지 연결됩니다. 또한 하 목사님의 묘소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된 순환로(passage)도 형성됩니다. 이 기념관은 Acts29 비전빌리지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하 목사님의 선교 비전과 은누리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기념 공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묵상 기도의 공간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채플이 내년 8월 3주기가 지 안공을 목표로 건축될 것입니다.



고(故) 하용조 목사 기념관은 대지 4,000㎡ 에 기념관 660㎡, 채플 330㎡ 규모로 건축된다.

2013년 8월 4일 961호

- 01- 고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공식 및 기념 도서관 개관식 스케치(10면)
- 02- 고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념관과 채플 건축 계획 설명 : 이남식 장로(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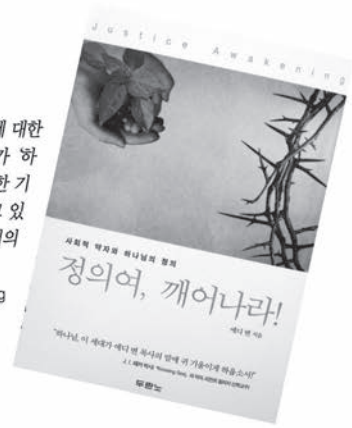
# “이 시대 불의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

## 정의사역, 주님이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

8조마다 한 명씩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간다. 한국에서만 성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백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신매매, 성매매의 처참한 현장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 심각성을 간과하며 살고 있다. 지난 7월 30일(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에디 변 목사를 만났다. 현재 온누리 영어예배(OEM)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 변 목사는 오랫동안 'HOPE Be Restored' (희망이여 회복되라)는 정의사역에 힘써왔으며 한국과 세계 전역의 인신매매 종식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책<정의여, 깨어나라>를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급한 기도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비롯한 불의한 사회악들에 대항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외침을 들어보았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 인터뷰



에디 변 목사 (OEM 담당)

2010년 11월 <누가 꽃들의 입을 틀어막는가 Not for Sale> (일마)책을 읽고 인신매매와 현대판 노예제도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상품으로 판매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존엄성과 위엄을 박탈당하는 그런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과 아이디어로 2011년 1월

부터 'HOPE Be Restored(이하 HBR)' 라는 정의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은 중보자를 세우는 기도팀, 인식을 바꾸는 홍보팀, 인신매매 사례 연구에 헌신해 자료수집을 하는 리서치팀, 불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너들과의 관계형성을 돕는 네트워크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희망을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돕는 회복팀, 구조 및 예방(아웃리치 팀) 등 여섯 가지 핵심영역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우리 시대의 큰 악에 대항하는 이 싸움에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와 정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를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정의 운동은 교회가 이끌어가고, 이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뿐입니다. 인신매매나 성매매와 관련해 우리들은 그들이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90%이상은 강요에 의한 것이며 이 문제는 정말 생각보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시십시오. 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도 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들이 정의사역에 앞장서서 현대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적극적으로 자유와 정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사역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기대합니다.

/ 조유진 기자, 박석현 객원기자

### HOPE Be Restored

HOPE Be Restored는 온누리교회 영어예배(OEM)의 국제 자유·정의사역 단체다. 돕고 섬기는 사역으로서 H: Helping, 억압된 자 O: the Oppressed, 불의로 갇힌 자 P: Prisoners of injustice를 놓아주고 E: Escape, 회복시키고자(Be restored)함을 의미한다.

\*참고 사이트: [www.hopeberestored.org](http://www.hopeberestored.org), [www.facebook.com/justiceawaken-ingkorea](http://www.facebook.com/justiceawaken-ingkorea)

### 여의도공동체 / 남태평양

## 축성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널리 퍼지길

여의도 공동체가 지난 7월 2일부터 3박 5일 동안 축(Chauk)섬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유수열 담당목사를 포함 2명의 팀원들은 의료 봉사팀, 성경학교팀 등으로 나누어 곧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 10명과 협력했다.

축성에 머무는 3일 동안 각기 다른 세 곳의 교회에 총 6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사출신인 이춘주 권사의 호루라기 리더십이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곧 온누리팀의 찬양을 시작으로 신나는 풍선놀이, 그림색칠, 성경CD도 보여주었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태권도는 아이들이 사범을 따라하며 환호하며 엄청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복음 목걸이를 직접 만들며 복음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방역으로 교회주변을 정리하고 사진킴은 포토존을 만들어 아이들 사진을 찍어 예쁜 액자에 넣어주니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나눠 준 어떤 선물보다 진짜 선물인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서 쑥쑥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는 내과, 외과, 안과, 한방 등 의료진들의 진료가 이뤄졌습니다. 총 4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적합한 치료와 약품이 제공되었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여의도공동체가 3박 5일동안 축섬에서 은혜로운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사진은 현지에서의 의료사역 모습.

님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하는 의료진들의 섬김은 매우 아름답고 진지했습니다.

유수열 목사님은 아픈 이들을 위해 우리말로 기도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봉사 장소가 워낙 더위 고생이 되었으나 교회에서 우려되는 아이들의 환호성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저녁시간에는 현지인 목사들과 사모들을 속으로 불러 사영리, 회복사역, 큐티세미나성이나 권사, 성주명 장로, 감지홍다부방장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극히 작은

자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며 목사님의 인도로 40일을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떠나기 10일 전부터 찾아온 허리 통증으로 괴로웠지만 “너려히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있기로 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힘입어... 허필우 장로님 손의 젊은 형제 4인방은 해외아웃리치가 처음이었으나 순장님의 건유에 전적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일을 도우면서 보람과 새

로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처음 현장에 가보니 생명력이 느껴지고 아이들이 열심히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무언가 더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자주 아웃리치에 동참하고 싶다”(이춘주권사), “약국팀에 처음 합류했는데 의료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감복했으며 약을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생각되었다”(김효숙집사), 식사를 담당한 성인복 권사는 “자연을 담은 순수한 그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까웠고 처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당시를 그려보며 예수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며 우리의 미미한 족적이지만 회개 없이 복음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축성에서의 사역을 끝낼 무렵을 돌아켜보니 제 허리 통증은 씻은 듯 사라졌고 팀에 어려운 난제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또한 중보기도로 물질로 동역해 주신 여의도 공동체 식구들과 곧 온누리교회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 홍혜선 권사(여의도공동체)

2013년 8월 4일 961호

- 01 - (HOPE Be Restored)국제 자유와 정의 사역에 힘쓰는 영어예배 담당 '에디변 목사' 인터뷰(12면)
- 02 - 남태평양 축섬 아웃리치 보고 : 홍혜선 권사(여의도 공동체)(12면)

## 하용조 목사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고(故) 하용조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 영상을 유튜브(www.youtube.com/hayongjo)와 팟캐스트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게 됐다. CGNTV는 고(故) 하용조 목사의 소천 2주기를 맞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 이와 함께 기존 팟캐스트의 콘텐츠도

더욱 강화했다. 보다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이 담긴 수준 높은 영적 콘텐츠를 보급하고, 스마트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보다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하용조 목사의 설교 시리즈와 묵상 프로그램 그리고 추모 다큐멘터리 등이 업로드 돼있다. 시청 방법은 스마트폰과 PC, 스마트TV 등 기기에 관계 없이 유튜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유튜브 APP, 팟캐스트 APP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유튜브나 팟캐스트 검색창에 'CGNTV 하용조'를 검색하면 더욱 쉽게 시청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팟빵(www.podbang.com)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하용조'를 입력하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2주기 추모예배와 특집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는 CGNTV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시청문의: CGNTV 콘텐츠전략팀 02-3275-9440〉





온누리교회가 국내외 아웃리치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 사진은 강동 온누리교회 보은 아웃리치.

# 이제는 풍성한 열매 맺도록 기도할 때

## 식 못 올린 부부 위한 결혼식, 최북단 백령도 아웃리치 등 가는 곳마다 천국잔치 ... 10월 3일까지 이어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간구하며 복음 들고 열방으로 떠난 아웃리치 열기가 뜨겁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중동, 소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미주 등 33개국 7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외아웃리치에는 166개팀 2449명이 참가한다. 현재(9월 11일 기준) 111개팀 1504

명이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고, 43개팀 609명이 현지에서 사역중이다. 앞으로 10월 3일까지 246명이 해외 아웃리치를 떠난다. 공동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아웃리치는 인천 백령도, 강화도, 전남 금오도, 강원 강릉, 전북 김제, 경남 사천, 충북 보은 등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인공동체 국내 아웃리치팀은 현황과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고 대학청년부는 47개 지역에서 83개팀 3천여 청년들이 구슬땀 흘리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 대부분이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아웃리치팀은 의료, 이마용, 일손 돕기, 마을청소, 어린이사역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열매도 풍성하다. 강동 캠퍼스 아웃리치팀은 충북 보은 사도교회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부부를 위해 결혼식을 열어줬다. 당사자인 부부는 물론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다. 남양주 아웃리치팀은 한반도 최북단 백령도에서 통일을 간구하며 부르짖었다. 곳곳에서 아웃리치팀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을 받았다는 인사가 전해오고 있다. 간사 아웃리치팀이 농촌봉사활동을 한 김제 고사교회 안중수

목사와 성도들이 헌신적인 섬김을 잊지 않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캄보디아에서 사역중인 김복음 선교사도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는 국내 10개 캠퍼스와 30개 비전교회가 하나 되어 열린 아웃리치의 땀방울이 가을을 맞아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온누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다. <관련기사 8-11면> / 김남현 부장 one@onnuri.org

01

## CGN 추모다큐 '더 메시지'



### 하용조 목사 설교 조명

CGNTV가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를 맞아 제작한 추모다큐멘터리 '더 메시지'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특집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의 주제는 설교다.

다큐멘터리 '더 메시지'에서는 하용조 목사의 설교 특징을 살펴보고, 그가 신앙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실천했는지, 2005년 한국교회 10대 설교가로 선정된 하용조 목사의 설교가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집중 조명했다. 추모다큐 '더 메시지'는 CGN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KCSI 주관, 8월 13~15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연합(KCSI, Korea Christian for Shalom Israel)이 주관하는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Shalom Jerusalem, Brooklyn Festival)' 대회가 오는 8월 13일(화)~15일(목)까지 뉴욕 맨해튼 홀로코스트 박물관, 브루클린 Kings bay Y, 퀸즈 플라싱 유대인 회당에서 각각 열린다. 이 대회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고 있는 88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이재훈 담임목사, 권혁승 교수(서울신대), 김인식 목사 (LA웨스트힐장로교회) 등이 강사로

오늘 13일~15일 뉴욕 맨해튼을 비롯한 브루클린 지역에서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대회가 개최된다.

나선다. 또한 문화행사시간에는 금단제 한복패션쇼와 전통악기공연, 아르곤선교무용단, 태권무공연 등을 선보인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2013년 8월 11일 962호

- 01- CGNTV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다큐 '더 메시지' (1면)
- 02- KCSI주관 'shalom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4면)



01

■ 수원 기사판

■ 아웃리치 해단식  
일시 : 8월 25일(주일) 저녁 7시  
장소 : 수원 온누리교회 본당

02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 성인 30명, 유아 5명 세례받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전개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주일) 오후 2시 30분 안산 대부도 해수욕장 앞에서 열린 온누리M미션 연합세례식 현장. 하늘을 향해 목소리 높여 외치는 35명의 고백이 잔잔한 바다 물결처럼 이곳에 울렸다. 이번 세례식을 위해 가족 및 성도들이 꽃다발을 들고 한 자리에 모여 세례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연합세례식의 문이 열렸다.

이날 온누리M센터 목회자들이 성인세례자 30명(캄보디아14명, 러시아6명, 니팔2명, 중국2명, 파푸아뉴기니2명, 몽골4명)과 유아세례자 5명(몽골3명, 한국2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이번 연합세례식 예배를 위해 CMN 챔버가 찬양을, 서초B공동체가 간식준비를 하며 섬겼다.

### 하나님과의 연합

세례식에 앞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로 결정한 부안 형제(네팸)와 소완나 형제(캄보디아)가 간증을 했다.

불교와 힌두가 혼합된 환경 가운데서 자란 부안 형제(네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에는 죄인 된 존재였

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연합하는 존재로 살게 된 것에 감사드린다. 어둠에서 구출해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 용하셔서 지금은 가족들에게 전파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 하는 일을 계속할 것 이라고 고백했다.

소완나 형제(캄보디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변화 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 복음을 가족, 친척, 친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계속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고백했다.

### 세례의 진정한 의미 선포

이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마 3:16-17)’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창욱 전도사는 예수님께 서 이 땅에 처음 선교사로 오셔서 공생애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전도사는 “세례의 세 가지 의미는 물에 잠기는 것, 물로 씻는 것, 출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씻는 행위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에 동참하는 자로 새로워지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이어 김두진 장로(서초B공동체)가 “성스러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나라, 민족,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세례식의 순서가 다가오자 만조시간에 맞춰 바닷물이 가득 찼다. CMN 챔버의 찬양소리와 함께 세례자들은 한 명씩 바닷가 한 가운데로 향했다. 바닷물에 잠겼다. 나온 세례자들의 얼굴은 새 생명을 얻은 듯 빛이 났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은 세례자들은 기뻐하며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들은 “세례를 통해 옛 사람을 없애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인생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이 땅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시간을 통해 물질, 힘이 아닌 인격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살 것”을 결단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축복을 하러 온 성도들과 봉사자들 모두 세례를 받은 35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CGNTV 선교헌신자 아웃리치



#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 인도네시아 전문인선교 현장 방문

지난 3월 선교심일조 프로젝트에 헌신한 CGNTV 직원들이 지난달 19-26일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선교심일조 프로젝트에 헌신한 CGNTV 직원들은 다양한 종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 바로 이것이 전문인선교

10년 동안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만났다.

현재는 한국인도 거의 없고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런 곳에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역하고 개신 선교사들이 존경스러웠다.

선교사들에게 무슬림 사역에 대한 비전과 접근방법에 대해들은 후 사역지를 직접 방문했다. 차로 10시간을 이동해야하는 긴 여정이었다. 이곳에서는 교회 건물을 세우기 보다 현지인들과의 다양하게 만나면서 복

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한다고 한다.

전문인선교답게 고무농장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었다. 전문인선교를 현장에서 직접 보니 어떻게 적용할지를 목상할 수 있었다.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막연했던 비전이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지를 보고 느끼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곳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것을 바탕으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 인터뷰

## “인도네시아 CGNTV를 위한 첫 걸음”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마다 곳곳에서 비즈니스 선교의 모델들을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지 선교사들의 도전이 큰 감동을 줬다.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선교를 위해서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음을 듣게 해주는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선교지에 와서 선교사들의 귀한 헌신과 열매들을 보는 것이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지를 가슴에 품

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개척하게 될 인도네시아 CGNTV를 위한 첫 걸음이 되었다고 믿는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기술국 윤영준 국장

## “세상에 예수님 전하는 도구”

OFMS아웃리치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단기선교와는 달랐다. 선교사로써 어떤 도구를 가지고 선교지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선교지에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목상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와 동행한 현지 선교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농장, 고아원, 비즈니스, 현지인 사역 등 선교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안내해주셨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사용하셔야만 선교사로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나의 역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나는 그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았다.



/편성기획팀 박미진 자매

02

일본 CGNTV 태국 아웃리치

# “역시 CGNTV는 축복의 통로”

## 선교사 외로움 달래줄 안테나 설치

오직 일본선교만을 생각하던 내가 CGNTV에 입사 이후 생각이 달라졌다. 하나님은 분명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고 싶어서 태국 아웃리치를 갔다.

태국 아웃리치에서 세분의 선교사님을 뵈게 되었는데 태국 소수민족인 아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개신 이영기 선교사님과의 만남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 이영기 선교사님은 태국의 소수 민족 중에서도 인구가 적은 아카족에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하고 계신다. 우리가 방문한 첫 날 정전이 되었는데 선교사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다. 익숙한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이 있어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아무도 없어서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서 외로움을 느꼈다. 선교사님이 외롭지 않도록 CGNTV 안테나를 설치했다. 생각보다 어렵고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지만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견딜 수 있었다. 드디어 CGNTV 채널이 나오자 선교사님이 무척 기뻐하셨다. 될 듯이 기뻐하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CGNTV는 선교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CGNTV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직접 보게 하셨다. 무엇보다 비좁지 않은 귀한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뜻 깊은 경험을 잊지 않고 CGNTV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제작팀 나가무네 카이



일본 CGNTV직원들이 태국 오지 선교사를 위해 위성안테나를 설치했다.

2013년 8월 11일 962호

- 01- CGNTV 선교헌신자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 윤영준 국장, 박미진 자매 인터뷰(8면)
- 02- 일본 CGNTV 태국 아웃리치 보고 : 나가무네 카이(제작팀)(8면)



대청 여호수아

## 피폐해진 땅에 활짝 핀 복음의 꽃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엡 3:18-19).

여호수아 청년부 선교그룹(Yes)이 지난 7월 21~27일까지 스리랑카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7년 동안 청년부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같은 지역을 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받은 은혜 때문이었는지 다시 한 번 스리랑카를 향해 발길을 옮겼다.

지난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스리랑카 북쪽지역(켄디노치)에서 전도사역을 했을 당시를 회상했다. 주님의 은혜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양육해 줄 교회가 없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아웃리치를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팀원들과 함께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중보했다. 그 결과 올해 이 지역에 몰라피브라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설레는 마음으로 다시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준비할 수 있었다.

### 눈물의 세족식

먼저 현지에 세워진 몰라피브교회로 이곳 마을 주민들을 불러 모아 문화전도사역을 하고, 은혜의 세족식으로 사역을 마무리 지었다.



대청여호수아 선교그룹에서 지난 7월 21~27일까지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특히 이번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세족식의 원래 계획은 몰라피브교회에 온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기도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몰라피브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까지 발을 씻겨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가 발을 씻겨준 것에 감동을 받은 현지인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싶다고 하시며 세족식을 거행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몇 번이나 거절했는데도 계속 권하셔서 결국 발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다.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마음으로 인해 눈물이 나기 시작

했다. 세족식을 받는 중 예수님 앞에서 세족식을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생각났다. 급기야 평평 소리를 내어 울었다. 이렇게 복음의 불모지인 스리랑카의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며, 교회를 섬기러 왔다가 도리어 섬김을 받은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감동이었다. 그 순간 '내가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서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시길 원하시고 정결해지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은혜의 고백도 잠시였다. 세족식이 끝나고 땀 새나고 더러운 스리랑카 화장실 안에서 수건을 빨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어려운 마음이 들었다. 지체들 모두 아무렇지 않게 수건을 빨는 모습에 나도 할 수 없이 그곳에서 수건을 빨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땀새가 심하고 더러운 이곳 화장실에서 아웃리치 기간 동안 씻을 수 없다는 현실이었다. 그래도 온전히 섬기러 왔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한국에 돌아가 씻으면 된다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순간 '만약 이곳에서 선교사로 지내라고 하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도 잠시 참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니 너무도 부끄러워졌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내 자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한다.

/ 박지현 자매  
(여호수아공동체)





강 동

01

# 캄보디아에서 누린 천국의 삶 “우린 자유해요”

## 브레이위이어에서 만난 기적

올봄, 나는 세상과 좋은 하나님께 한발씩 걸치고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 몸을 살짝 트는 작은 결심을 했다. 올해 강동 지역으로 전근을 왔고 새 교회를 찾던 중 강동 온누리를 소개시켜주시던 귀한 선생님을 따라 5월에 등록하면서부터 여름 방학은 나만을 위한 여행보다 꼭 단기간교회를 가고 싶다고 결심했다. 다른 지역 팀보다 뒤늦게 구성된 캄보디아 팀에서 나는 어린이 사역팀을 돕게 되었다. 직장에서 힘들다가도 토요일에 주일 저녁에 준비해가는 과정이 참 기쁘고 감사했다.

드디어 떠나는 7월 25일 인천공항 1터미널에 모인 우리는 어린이팀이 지난 한 주간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한 번 그 능력에 감탄했다. 캄보디아 씨애플에 도착하니 오랜 사역으로 현지인같은 걸모습을 갖게 되신 김복음 선교사님과 사모님이신 김치유 선교사님, 팀원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9살 김이삭 선교사님이 기다리고 계셨다. 다음 날 앙코르와트에서 사원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 나라가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는기도를 드렸다. 씨애플에서 세 시간 기량 차를 타고 드디어 브레이위이어에 도착했다. 멀리서 일대일로 찍기도를 하던 캄보디아 제자들과 첫 만남! 조금은 낯설고 말도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았지만



강동 대학 청년들이 캄보디아 브레이위이어와 오지마을을 방문해 하나님 사랑을 전했다.

우리는 얼싸안고 만남을 기뻐했다. 어린이 전도전자는 200명을 예상했던 우리의 생각을 엮고 400명 가까이 가 왔다. 준비했던 레크리에이션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헌신과 기쁨 가운데 마쳤다. 저녁마다 캄보디아 제자들과 영성예배를 드렸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지 1년 정도 된 친구들 이라고 말할 수 없을만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 오지마을에서 드린 아름다운 예배

주일(28일) 아침에는 브레이위이어에서 차로

한 시간 걸리는 오지마을로 향했는데 그곳은 사복음서가 녹음된 라디오를 우연히 듣고 그것만 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밍 할머니가 사시는 곳이었다. 할머니는 귀신들렸다는 주변의 압박에 시달리며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기적적으로 선교사님을 만났다. 그 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이 흘러나오는 우물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지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망설였던 내게 큰 부끄러움을 주었다. 오지마을로 가면서 봉고차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기대감에 가득 찼다. 밍 할머니가 교회 마당에 앉혀놓은 수십 명의 아이들을 보자 감동과 감격으로 내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다. 같은 마음이었다던 팀원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스킷 드라마, 핸드페인팅, 페이스페인팅,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었다.

주일 아침부터 캄보디아에서의 하루하루는 처음 느낀 천국의 삶이었다. 강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길을 가든 밥을 먹든 입에서 찬양이 나왔다.

캄보디아로 떠나기 이틀 전, 이민자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느끼고 나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떠났다. 여러 사역들로 마음이 무거웠다면 피곤하고 지쳤겠지만 나의 혼인전처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주님께서 그곳 캄보디아 브레이위이어에서 내게 새 삶의 방식을 주셨다. 이렇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고 그동안 인생의 부담과 걱정을 지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었고, 하나님께 나의 찬양하고 비참한 삶이 천국의 삶으로 바뀐 것, 그 바뀌어진 힘이 오직 당신의 완전한 사랑임을 고백한다.

/ 고도경 자매



평택

02

# 베트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 하나님 마음 품은 하노이 사역

먼저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과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을 가기 전에 나는 팀 미팅에 여러 번 불참했다. 일을 하기 때문이었는데 평일에는 참석을 못해서 개인적으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 또한 팀원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시간이 지나 아웃리치 일정이 다가왔고 전날까지 밤을 새며 워싱턴과 물품 등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약 4시간에 걸쳐 베트남에 도착했다. 베트남에 도착해 선교사님과 만났고, 베트남에 대한 짧은 브리핑을 들었다.

이곳은 기독교 박해 국가 2위 정도 되는 나라다. 지금은 박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박해 국가 5위 안에 들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 팀은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장소에 공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하게 되면 선교사님께 피해가 가게 되어 행동의 제한이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땅밭기 기도뿐이었다. 이후 베트남에 공식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곳을 방문했다. 교회에서 몇 분이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싶었지만 시간관계상 교회를 위해 기도만 하고 나왔다. 이곳 저곳에서 땅밭기 기도를 하며 느낀 것은 '정말 베트남에는 우상이 많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베트남 사람들이 우상



평택 메이커스(Makers)공동체가 베트남 하노이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했다. 셋째날 우리는 허통베이에 갔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고 정말 감탄밖에 할 수 없었다. 이 자연을 만드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니 찬양이 흘러나왔다. 또 하노이 공식교회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 현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준비한 댄스와 찬양을 하고, 그들을 축복했다. 그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우리들에게 다기와 축복을 해주는 것이었다. 놀

랐을 뿐만 아니라 감동스러웠다. **노방전도 통해 만난 한 자매** 다음 날은 주일이라 또 다른 공식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찬양 특수를 하고, 오후에도 외국 안예배(한국어예배)에 참석해 또 한 번의 특수를 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언어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표정이 너무 좋았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은 노방전도였다. 2명이 한 팀이 되어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를 하

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어떤 베트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이동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도록 걸어 다녔지만 비가 와서 현지 분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이동하다 잠깐 멈춰 섰는데 그때 한 베트남 자매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식사를 하고 초대를 했다. 그 자매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작지만 큰 사건이 생겼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금액보다 비싼 음식을 먹게 된 것이다. 다행히 그곳 선생님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그 자매님과 선생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됐다. 그 자매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친구 때문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시간이 된다면 교회에 가보겠냐는 얘기까지 듣고 우리는 헤어졌다. 그 자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후 모든 팀원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모두가 느낀 것은 돌아다니는 동안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었다. 이런 마음을 품고 돌아온 나는 하나님께서 베트남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됐다.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아웃리치였다.

/ 김예겸 형제



2013년 8월 11일 962호

- 01- 캄보디아 브레이위이어 & 오지마을 아웃리치 보고 : 고도경 자매(강동 온누리)(10면)
- 02-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김예겸 형제(평택 메이커스 공동체)(10면)



01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저희 집에 성령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니제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백형철 선교사입니다. 이곳에서 CGNTV를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콘텐츠들 속에 녹아있는 깊은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는 하루 종일 CGNTV를 켜놓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날마다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경부터 갑자기 CGNTV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파수가 달라진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들 집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TV 프로그램들은 나왔지만 CGNTV가 아니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저희는 TV를 켜지 않았습니다. CGNTV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CGNTV에서 수리를 해주셨습니다. CGNTV를 다시 시청하던 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프로그램들을 낮 놓고 시청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들이 저희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CGNTV 덕분에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CGNTV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니제르 백형철 선교사

02

### 드림온 캠페인



## 선교지에 심는 하나님의 꿈

세계 170여 개 나라 선교사님들께 CGNTV 위성안테나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07-69605

〈예금주: (재)온누리선교재단〉

드림온 후원 문의: 02-796-1118

## 여성들의 예배는 계속된다!

### 풍성한 하반기 사역 시작

여성사역에서는 상반기에 진행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어 하반기에도 여성들을 위해 예배와 스쿨, 기도, 큐티 등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서빙고 여성사역에서는 8월 29일 묵상과 사랑나눔학교가 개강하면서 하반기 사역의 시작을 알린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묵상과 사랑나눔학교'는 이번이 두 번째로 1기를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열리며 오는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빙고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이 외에도 무릎으로 열방을 품는 '무릎선교기도학교'가 30일(금)부터 개강해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며(드림홀), 매주 수요일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인 마리아행전의 기도모임이 오후 1시~2시30분 드림홀에서 이어진다. 한편 안수집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예수님의 생애 묵상학교'가 오는 9월 26일~12월 12일 두란



예배와 기도모임 등 여성사역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진다. 사진은 지난 2013 상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 모습.

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재 여성사역에서는 성경일독학교 구약편과 무릎선교기도학교가 진행된다. 성경일독학교는 하나님의 말씀 읽기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성도를 위한 것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화평홀에서 진행되며 오는 9월 6일 개강한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9월 5일부터 시작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화평홀에서 열린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주중 큐티나눔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주중큐티나눔방은 월~금요일까지 숙소동 지하1층 큐티나눔방에서 진행되며, 아이와 함께하는 큐티방은 월요일 오전 11시 자모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한편 12월 18일(수)에는 수요일여성전도예배 'Christmas for you'가 서빙고, 양재에서 진행된다.

/ 조유진 기자, 조은실 기자



# “스포츠는 복음의 도구입니다”

## 특별세미나 ‘Sports As Mission’



2년 전, 우연히 어느 전문인 선교사(현 탁구 여자 국가대표코치 박지현 코치)를 만나게 되면서 스포츠선교의 개념을 듣게 된 것으로부터 출발한 스포츠선교 스포츠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사방과 OPM이 스포츠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다.

오늘날 스포츠는 세상에서 너무도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스포츠 선수들과 감독들이 양심마저 버리고 돈 때문에 경기 조작을 하는 등 하나의 문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온누리교회는 교회 내 스포츠를 선교의 도구로 사

용하기 위해 ‘스포츠선교’를 세워, 선교지에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현재 한국 교회에서도 성도간의 교제를 위한 취미 활동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분명히 스포츠를 통해 서로 친밀감을 형성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하는 정신을 통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 특별세미나 양영자 선교사, 박지현 코치 간증

온누리교회에서 오는 8월 20일(화) 저녁 7시 양재 화평홀에서 SPORT FOR MISSION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스포츠자체가 선교와 예배라는 인식이 먼저 온누리교회 내에서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스포츠가 교회 내에서는 대부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미 활동이나 친목 정도로 인식되어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가 선교의 귀한 도구라는 것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알리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스포츠선교 측은 “스포츠선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은혜 받고 후원 및 기도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초청세미나에서는 88올림픽 탁구



박지현 감독(가운데)이 오는 8월 20일(화) 스포츠선교 세미나에서 선교현장의 생생한 간증을 들려준다.

복식 금메달리스트인 양영자 선수가 강사로 나선다. 양 선교사는 화려한 선수생활을 하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과감히 선교사 신분으로 몽골로 떠났다. 그곳에서 스포츠와 삶을 통해 생생한 간증을 하며 선교활동을 벌였다.

이번 특강에서도 양영자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스포츠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간증을 한다. 또한 몽골과 예멘에서 탁구국가대표감독을 했던 박지현 코치도 간증한다. 가장 열악한 환경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이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 스포츠선교 실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두 선교사 모두 사랑의교회에서 파송한 전문인 선교사며, 현 국가대표 탁구 감독이다. 고길범 팀장(스포츠선교는 “이분들의 강의를 통해 자신의 직업과 달란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현재 온누리교회 내 스포츠선교팀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사방과 탁구를 치며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OPM(onnuri pingpong mission)이 있다. 공사방은 매주 토요일에 축구경기 장소를 임대하고 그곳에서 모여 운동을 통해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며 활동하고 있다. OPM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인근 초등학교 및 문화센터 등에서 탁구를 치며 교제하고, 평소에는 SNS를 통해 선교지 소식 및 말씀을 나누며 아름다운 스포츠선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의 비전은 스포츠선교의 올바른 모델이 되는 것이다. 즉 선교지에 축구공을 보내고 탁구용품 보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낸 그곳에 매년 한 차례 이상 아웃리치를 섬기며 현지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직원들의 특별한 여름 나기

# 젓과 꿀이 흐르는 땅 만드는 CGNTV



## 선교지 향한 방송 꿈꾸며 9년째 직원 아웃리치 지구촌 곳곳 누비며 선교사에게 영의 양식 제공

CGNTV 직원들의 여름은 특별하다. 선교지를 향한 방송을 꿈꾸며 CGNTV가 방송되는 지구촌 곳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시기이기 때문. 올해도 어김없이 CGNTV 직원 100여 명의 7개국 9개 팀, 국내 3개팀이 현지 선교사들과 직접 호흡하며 열방을 누리고 있다.

### 지구촌 곳곳 누비는 CGNTV

CGNTV 직원 아웃리치는 7월 초 태극팀을 시작으로 현재(8월 17일 기준) 해외는 대만, 일본(오카야마), 국내는 전라남도 조도, 전북 군산 무녀도를 다녀왔다.

2006년부터 시작된 CGNTV 직원 아웃리치는 올해로 아홉 번째다. 지금까지 방문한 선교지만

도 100여 곳이 넘는다. CGNTV 직원 아웃리치는 선교지에는 위로와 격려를, 직원들에게는 방송 선교사로서 새 힘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현지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CGNTV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때문이다.

###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아웃리치에서 행하는 사역의 모습은 다양하다.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 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CGNTV 위성안테나를 설치한다. 영의 양식이 매미론 선교지를 젓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토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다음은 CGNTV 카메라로 생생한 선교

현장을 담는다.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현장을 담은 영상은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영된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하시는 모습을 CGNTV를 통해 보고 또 볼 수 있다.

선교지에 제작센터를 오픈하기 위한 정보조사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제작센터를 오픈했고, 인도네시아 제작센터를 열기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국내 아웃리치팀은 섬을 찾았다. CGNTV 안테나를 설치하고 교회청소, 도배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 지사 직원들도 아웃리치에 참여한다. 일본 CGNTV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콘서트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태국, 대만 등지로 단기선교를 다녀왔다.

CGNTV 직원들의 여름 아웃리치는 9월 초까지 이어진다. 요르단, 러시아, 알반(오비히로, 오사카), 인도네시아, 네팔 등지에서 방송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되새기는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 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CGNTV 직원 아웃리치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난다. 아웃리치 팀이 꾸러지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 아무리 바빠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않는다. 아웃리치 비용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하기도 한다.

아웃리치만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전 직원이 모여 수요기도회를 한다. 기도회에서는 업무, 직원들의 건강, 교회, 선교지를 위한 기도제목을 내놓고 뜨겁게 부르짖는다. 정기후원행사 등 회사 전체가 기도회 멤버일 때에는 전 직원 릴레이 금식기도를 한다.

모든 일을 행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아는 CGNTV 직원들. 불발다위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있다.

/ 김남현 부장 one@annuri.org





## “하나님 사랑을 맛봤습니다”

### 부천 화평공동체



부천 화평공동체가 남아시아H국에서 7박8일 동안 어린이캠프 및 원주민교회 등의 사역을 하며 섬겼다.



박병량 성도  
(부천 화평공동체)

지난 7월 31~8월 7일 7박8일 동안 복잡한 여건들을 내려놓고 19명의 화평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돌팻날 오전 선교사님 안내로 선교센터로 이동해 예배를 드린 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셋팻날에는 부탄장경마을과 히말리아를 방문했다. 원주민마을을 심방한 넷팻날 오전에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새로운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될 1983㎡(600여 평)의 대지를 직접 보았다. 이곳에 선교센터가 속히 건축되어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고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또한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되기를 기도했다. 성경캠프 준비를 위

해 팀원들은 서둘러 현지 교회에 도착했다.

#### 어린이 성경캠프, 원주민교회 ... 예배의 열정 보여

뒤편아래 천막을 치고 1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울망줄망 모여 앉아 현지어로 찬양을 부르면서 어린이 성경캠프가 시작됐다. 콧등과 이마에 맺힌 땀을 연신 닦아내며 울동과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대견스럽고 예배 보였다. 마술시연에 놀란 토끼눈으로 바라보며 함성을 지르는 아이들, 레크리에이션 지도에 맞춰 함께 몸짓을 따라하며 연신 즐거워하는 아이들, 'You are special' 연극을 보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모두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자녀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소그룹활동에는 제기차기, 물총놀이, 단체 줄넘기놀이, 카드놀이 등에 참여하면서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다섯팻날 오전, 원주민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섬겼다. 잠깐 앉아 있어도 숨이 턱 막히는 흠타닥 위에 대나무와 나뭇잎으로 지어진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머리에 수건을 올려놓고 더위를 극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다. 이런 아이들의 간절한 눈망울 덕분에 스킨드라마, 워십, 힌디어찬양, 탐장님의 간증, 식사대접, 중보기도, 현지성도심방 등 다소 뻘뻘한 일정들을 소화하는 것이 힘들 법도 했지만 불평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흠추며 찬양하는 예배의 열기가 교회울막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점심식사를 파우면서 비록 우리는 재료부족으로

굶었지만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다. 식사봉사를 마친 후, 교회에 찾아온 원주민 세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 황달에 걸려 누렇게 들뜬 어린아이들 안고 있는 어머니, 오랜 두통으로 힘들어 하는 아버지, 한 쪽 어깨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여섯팻날, 침대열차를 타고 캠퍼터에 도착해 캠퍼터 풀과 마더 테레사 사역지, 테레사 수녀의 무덤이 있는 곳을 방문했다. 그 후에 둘러본 테레사 수녀의 무덤에 바치된 그녀의 생애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붙들려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구출될 수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 모든 사역 순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내내 전기 한 번도 끊기지 않고 비 또한 내리지 않았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능숙하게 통역하는 청년을 보내주시고, 차량 대여 업체 의 파업에도 큰 어려움 없이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19명의 팀원들과 화평공동체 23개 순이 기도과 특별헌금, 아웃리치 바자회 그리고 사역 중 끊이지 않는 릴레이 기도로 동참했다. 함께 아웃리치를 섬긴 성순 성도는 아웃리치 후에도 여전히 '이슈머씨' 찬양과 원주민 교회 울막에서 드렸던 예배의 열기가 갯가를 아지도 가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이 은혜의 고백처럼 부천 화평공동체가 이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이 땅을 향한 기도를 이어가기를 소망한다.



01

# 복음의 깃발 쫓는 보병 되어

## 수원 일대일사역팀



부부 6명이 참여해 부부 힐링캠프에도 갔었던 남 아시아 F국 아웃리치.

수원 일대일 사역팀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4박6일간 남아시아 F국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역팀은 특이하게 6쌍의 부부와 유영순 목사님, 그리고 홀로 참석하게 된 여 집사님 한 분까지 모두 14명이 함께 한 '부부 힐링캠프' 와도 같은 독특한 아웃리치였다. 처음 경험하는 선교지의 모습이 너무 힘들면 아떡하 나 싶던 걱정은 기우였다. 이새벽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통해 비춰진 현장의 모습은 재미있고 활기차고 즐거웠다. 무지개처럼 각기 다른 일곱 빛깔의 커피로 구성된 우리 팀은 아웃리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비전과 기쁨을 맘껏 누리며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선교사님은 그동안 진행해 오셨던 남아시아 F국에서의 선교 활동을 재미있는 두더지 게임에 비유하셨다. 선교사인 두더지가 살짝 고개를 내밀고 땅치로 두드



전정호, 김현숙 부부

려 맞기 전에 얼른 숨고, 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조금 더 기다려보다 다른 두더지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현지에 지하교회가 있음을 알게 된 후 비전을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선교사님이 더 멋지게 보였다. 그리고 헌신과 더불어 비즈니스적인 역량도 선교 현장에서 필요함을 알게 됐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며 선교사는 깃발을 쫓는 보병의 역할을 감당하면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됐다.

### 해맑은 미소의 땅 남아시아 F국

노광전도를 나가기로 한 토요일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2~3명씩 나누어 시내 각처로 흩어져 나갔다. 준비벨기 결과, 나는 유영순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선교사님이 정해준 장소인 백화점으로 향했다. 택시 기사를 흥포로 바가지요금을 내고 목적지를 훨씬 지나서 내렸다. 아찔함직으로 방향을 잡아 백화점으로 걸어가는 중 갑자기 닢 부이치치 사진이 눈앞에 보였다. 그때 서야 왜 목적지를 지나 내려야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다.

공산국가에서 어떻게 닢 부이치치가 말씀을 전했을까? 자연스럽게 발걸음은 안으로 향했고 남아시아 F국 신문 1면을 장식하는 유명한 사진작가를 만났다. 그는 지난 여름 닢 부이치치가 한국을 방문한 다음, 남아시아 F국의 H지역과 I지역을 다녀갔고 그때의 사진들을 전시하는 중이라며 자신도 크리스천이라고 했다. 전시된 사진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의 콘서트 장을 떠올리게 했다.

수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앉아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강연을 듣고 심지어 닢 부이치치의 얼굴이 들어간 단채 티셔츠를 입고 있기도 했다. 우리가 만난 작가는

몸은 불편하지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빛나는 장면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작품에는 손이 불편하거나 발이 없거나 몸이 정상인들과 다르게 생긴 이들의 빛나는 순간이 담겨 있었다. 이후 다른 남아시아 F국 사람들을 만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빈곤 속에서의 따뜻함과 비좁은 속에서의 여유로움과 부족함 속에서의 넉넉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영혼이 아름다운 이 나라 사람들을 하나씩 사랑하 실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했다. 전도를 나간 우리 팀은 도리어 그들에게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 일대일 사역팀은 현지 본부인 카페 3층에서 매주 열리는 문화강좌에 참여해 오카리나 연주를 들려 주고 준비해 간 소품으로 팔찌와 예쁜 필통을 만들었다. 장욱이, 장성수 집사님의 강의로 만들기 진행될 때 애아칸이 작동되지 않아 실내는 사우나 같았다. 예상보다 2배나 되는 약 40명이 참가했고 넉넉히 준비해 간 60명분의 재료는 거의 다 쓰였다. 너무나 열심히 만들고 해맑게 즐거워하던 남아시아 F국 청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미남 현지인 힙스터의 인도와 현지인 동역 목사님의 말씀으로 진행된 주일예배는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경배와 찬양, 말씀과 성령,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은누리교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선교사님은 남아시아 F국 사람들이 정규 음악교육이 없어 노래를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 열정만큼은 수원 은누리의 2시 예배 찬양에 뒤지지 않았다. 그들의 순수함과 열정에 사랑과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졌고, 그 지경이 확장되며 우리의 기도와 동역으로 동남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02

# 다시 보내신 그 땅에서 찾은 하나님 마음

## 수원 살롱팀



수원 살롱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도 남아시아 N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이명자 권사

나는 우리 수원 은누리 살롱팀이 2년 연속 남아시아 N국으로 아웃리치를 정하게 된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결국 "나에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골 4:13)는 말씀이 의지하여 아웃리치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

그동안 나 스스로의 신앙생활이 침체되었고, 영적상

태와 건강상태도 아주 좋지 않은 날들이었다. 작년에는 수원 JCS팀으로 기대와 설렘을 갖고 남아시아 N국 땅을 밟았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응답과 내 삶의 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올해 또한 연속적으로 그 땅으로 발걸음을 정하게 된 것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깨달았다.

### 교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다

공항에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다. 만바울 선교사님과 최윤숙 사모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원한 날씨가 우리를 맞았다. 겨울에도 그런 날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환영해주시는가를 느끼며 주일예배를 드렸다. 현지에서는 암혈교회의 완공된 건물 못지않게 교회 멤버들의 영적인 성장을 보게 되었고, 안정감과 평화로움 그 자체를 마음껏 느끼고 왔다. 루용교회의 울타리와 넓은 땅, 넓디란 다락방에 예배처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실들을 보게 하시려고 우리 팀을 다시 보냈구나' 하고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이 밀려왔다.

그기운데에서도 내가 염려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확실한 증거와 치료를 체험하게 되었다. 만바울 선교사님의 열정과 수고, 흘린 땀이 그 땅 가운데에 큰 부흥의 물결이 되어 파도처럼

남아시아 N국 땅에 번져 나가리라 확신한다.

###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 기회를 통하여 너무나 믿음 없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됐다. 새로운 결단으로 남아시아 N국 땅을 품고 특히 다나엘하우스의 학생들, 우리가 만난 신학생과 선교사님들 또한 무엇보다 암혈교회의 아이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느꼈다.

특히 세 사람이 중요한데 완사울(43세), 여과 석우리(46세, 여), 우리가 방문한 피파야농장의 아들 리크(20세, 남)의 이름을 계속 불러가며 중보기도를 쉬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나니 우리 살롱팀원들 개개인 모두에게 너무나 감사했다. 팀원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의 본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들이 대단하고 부러웠다.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아 이제 나도 손자와 손녀들과 온 가족이 이러한 모습으로 아웃리치를 떠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간증을 마무리한다.

2013년 8월 18일 963호

- 01-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보고 : 전정호-김현숙 부부(수원 일대일사역팀)(8면)
- 02- 남아시아 N국 아웃리치 보고 : 이명자 권사(수원 살롱팀)(8면)



## 골든 트라이앵글,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그곳!

양천공동체

양천공동체 16명의 아웃리치 팀원은 지난 7월 28일 ~30일 남아시아, J국과 D국 국경지역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미약을 사기 위해 부모가 팔아버린 아이들,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출생 신고도 되지 않았다는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리는 사뭇 긴장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떠났다.

40명이 넘는 그곳 아이들을 위해 두어 달 준비한 선물들이 버스에 가득했지만 그보다 엄마아빠의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소망과 기대로 가득했다. 상처 많은 아이들이기에 작은 스킨십도 조심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기에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서먹했다. 더듬더듬 몇 마디 아는 모든 현지어를 동원해서 인사를 하고 몇 개월간 준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다. 권사님들과 여 집사님들은 현지에서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으로 이미 익숙해진 열악한 주방으로 재빠르게 달려갔고,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은 마치 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어둡고 칙칙한 아이들의 방과 화장실을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 페인트와 커튼을 들고 출동했다. 또한 아이들과 지칠 때까지 놀아주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놀이팀이 서먹해 하는 아이들과 놀이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서먹함도 잠시, 태어나서 물총을 처음 가져본 아이들은 놀이팀 집사님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환호성을 질렀고 그 아이들의 웃음 소리는 오랜 비행시간으로 지쳤던 권사님들의 식사 준비에 활력소가 되었다. 물풍선, 페이스 페인팅, 단체 모자이크 만들기, 비닐연 만들기 등 쉴 틈 없이 뛰어다니던 아이들에게 한국식 불고기 만찬이 준비되었고 태어나서 소고기를 처음 먹어본 아이들의 그 행복한 웃음은 준비로 지친 우리의 마음을 녹이기

에 충분했다. 페인트 칠에 지쳤을 장로님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수하고 축복하며 음식을 나눠줬다. 누군가가 자신을 섬겨준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이내 그 섬김을 받으며 행복해 했다. 장로님들과 순장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아이들의 방은 밝고 명랑한 그림들과 색채들로 가득 채워졌고, 공부방과 침실, 화장실이 아이들의 꿈을 키워 주는 곳으로 변해 있었다.

둘째 날, 우리는 남아시아 D국의 국경을 넘어서 쓰레기 터미 위에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다. 생필품을 전달하고 복음을 적은 사탕봉지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 중보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아시아, J국, B국, D국 이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는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팔려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다. “Not for Sale” - “아이들은 팔기 위험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새겨야만 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에서의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눈광을 보며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함께 울었던 시간이었다. 준비해온 600여벌의 옷과 박스에 가득 채운 책들을 아이들에게 선물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소개하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었다. 어렵게 구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동영상은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 때 서울에서는 모바일 대신저로 연결된 양천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중보했다.

중보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동영상은 본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도 있었다. 마치



양천공동체가 지난 7월 28~30일 남아시아 J국과 D국의 국경 지역에서 해외 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사진은 현지 어린이들의 방을 새롭게 꾸미고 있는 아웃리치 팀의 모습.

막 날, 짧은 일정을 마치고 작별하는 파티에서는 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고깃고깃 접은 편지를 선물해주었다. 짧은 여정과 아무리 쏟아 부어도 여전히 부족했을 그 섬김에도 감사를 표하고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을 보면서, ‘베짱이 주기 위해 간 Outreach’가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에 조금 더 가까이 가게 된 축복의 Outreach’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귀국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이들의 작은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양천공동체 아웃리치 팀원 모두의 마음 한 켠에 선명 한 흔적으로 남았다.



조혁래 순장 (양천공동체)

# 일본에서 이어진 Acts29

## 서초B공동체



서초B공동체는 일본 교토와 오사카에서 땅밭기 사역과 윤형주 장로의 찬양 전도집회를 진행했다.



유우선, 이미경 서기 (서초B 공동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서초B공동체에서 양성민 목사님 외 40명이 일본 교토, 오사카(교사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일본날씨는 너무 뜨겁고 습했지만, 우리의 일본에 대한 열정은 그보다 더 뜨거웠다. 허리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운 날씨에 몸은 지쳤지만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3박4일의 일정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이번 교사카 아웃리치의 주요사역은 러브소나타 형식으로 진행된 '윤형주의 사랑노래' 찬양사역과 강진아 선교사님의 격려와 응원, 일본의 영혼구원을 위한 땅밭기가 주된 목적이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사카 아웃리치 떠나기 전 3주간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마지막 준비모임 때 양성민 목사님께서 일본 아웃리치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고전 1:26-31)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 말씀은 아웃리치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일본어 찬양이 외워지지 않아 힘들었으나 모두 합심하여 연습하다 보니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다. 특히 일본 버스 안에서의 일본어 찬양은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으로 남아있고 지금도 귓가에 들려오는 것 같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우상이 많은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한 채 오사카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강진아 선교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이번 아웃리치 목적 중 하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일본을 두루 다니며 친분도 쌓고 일본 선교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것이었다. 선교사님은 우리 팀이 일본에 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첫째 날 우리는 아름다운 고베항이 있는 메모리얼파크를 찾았다. 1995년 1월에 발생한 지진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 대지진의 교훈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했다. 둘째 날은 아침부터 33도로 무더웠다. 절벽 위에 세워진 청수사, 헤이안 신궁, 금각사 등 역사 유적지에 오마모리, 에마, 오미

쿠지 등 다양한 부적들이 눈에 띄었다. 비좁은 주방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주신 교토 은누리교회 성도들의 환영민찬과 서로를 향한 축복송, 통성기도는 감동 그 자체였다. 저녁에는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 전도집회에 참석하여 안내와 유철준 순장님의 유창한 통역 등 여러 모양으로 섬겼다. 윤 장로님은 어깨 안대 손상에도 불구하고 붐대를 들고 기타를 치시는 모습에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찬양선교의 소명이 느껴졌다. 셋째 날에는 교토 은누리교회 야마나카 토모요시 목사님, 조수정 사모님의 배움을 받으며 나라현 동대사로 땅 밭기를 한 후 오사카 은누리교회로 향했다. 문봉주 목사님의 환영을 받고 서로를 위해 축복송을 불렀다. 윤형주 장로님의 찬양집회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 마지막 날 오사카성을 방문하면 서어느덧 3박4일의 일정이 끝이 났다.

### 일본 사랑하라'는 주님의 마음

하용조 목사님, Acts29, 일본 러브소나타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고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함께 따라 다닌다. 교사카 아웃리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건 '일본 사랑하기' 마음 일 것이다. 교토, 오사카 은누리교회에 걸려있는 'Acts 29' 현판 앞에서 우린 다짐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었다. 모두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에 대한 뜨거움으로 울려 했으리라 생각한다.



01

## 추석연합집회 봉사자 모집

### Harvest 2013, 9월 18~29일

온누리M미션은 매년 가장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민 추석연합집회를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추석연합집회 사역의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추석이 한국의 고유 명절이다 보니 자원봉사자모집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온누리M미션에서 오는 9월 18~2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되는 추석연합집회에 함께할 소중한 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추석집회는 'Hunger for God'으로 진

행되며, 현지인 예배책임자들이 감사로 서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집회에는 600명의 외국인과 한국인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연합과 섬김의 시간이 될 전망이다.

온누리M미션 측은 "집회를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별로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다. 가족 없이 보내는 아주민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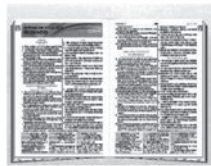
문의: 양옥진 사역자

(010-3337-3927, 070-8671-8092)

/ 오enzi 기자 oej@onnuri.org

02

## '불한성경' 출간



두란노와 사단법인 한국불어권 선교회가 협력해 <불

한성경>을 출간했다. 불한성경은 불어를 사용하는 불어권 50여 개 국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출간하게 되었다. 불어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는 한국불어권선교회에 이메일을 보내면 <불한성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문의: icmf@hanmailnet, 02-409-2287

01



## 하나님 마음 품고 영적 결실 맺은 전도집회

2013 블레싱 캄보디아

### ‘Joyful Purpose’, 부흥의 물결 넘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3:16).

이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번 캄보디아 전도집회에 참석한 현지인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캄보디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킬링필드, 지뢰, 가난, 문맹 같은 주로 부정적인 단어이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캄보디아는 축복의 땅이다. 사사시절 따듯한 기후로 옷 걱정 없이 꼬르마 한 장이면 족하고 비옥하고 나른 평야의 곡식들과 지천으로 열린 열대과일들, 풍부한 매경강물과 민물고기로 그들의 식탁은 늘 풍성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복음에 열려있는 땅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천혜의 환경을 가졌음에도 이곳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

난과 질병에 노출된 삶을 살았고, 크메르루즈 정권의 킬링필드 시절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을 잃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는 일환으로 모든 면에서 문호를 개방하여, 복음의 물결 또한 이 땅에 밀려들고 있다. 캄보디아는 이상적인 농촌사회를 꿈꿨던 폴포트 시절(1975-1979)에 모든 자식인이 죽어야만 하는 비극을 맞았다. 인구의 3분의 1을 잃어갔기 때문에 현재 인구의 70%가 25세 미만인 가능성이 무한한 젊은 나라이기도 하다.

#### ‘영생-하나님의 선물’

온누리교회는 매년 캄보디아로 의료선교 아웃리치 및 전도집회 등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데 힘

쓰고 있다. 이번 ‘블레싱 캄보디아’는 2년 전 열렸던 ‘캄보디아 러브소시티’에 참석했던 주향한성 가대가 2년 후 재방문을 약속했고, 그 결실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노력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집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캄보디아 땅을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지난 15일(목) 저녁 6시 프놈펜 대학 내 CKCC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2013 블레싱 캄보디아 전도집회 ‘Joyful Purpose’에는 477명이 참석했다. 물론 이들 대부분이 기신자이지만 이번 전도집회를 통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더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집회는 D오프닝 영상 DFL Ministry의 특별공연 D광채타 가수 후진의 특송 D오보에 연주자 이수현의 특송 D주향한성가대의 합창 D반태효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의 말씀 D결신서 작성 D축복의 세리머니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영생-하나님의 선물(골 6:23)’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반태효 목사는 죄에 대해서 설명하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

원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선포했다.

집회 후에는 여기저기서 은혜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다. 또웃모이 형제는 “주님의 축복을 많이 경험한 예배였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기회를 갖게 된 계기가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나카리 자매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기쁨이 넘쳤고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캄보디아인들이 죄에서 돌아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율타 자매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심을 다시금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마지막으로 송카 형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에 대해 알게 되었다. 캄보디아 땅에 이번 전도집회와 마찬가지로 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드러지기를 기대한다”고 고백했다.

이 은혜의 고백처럼 이 땅에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한다.

02

## 복음의 물결이 밀려오는 축복의 땅, 그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다

8월 17일, ‘쁘라엣 엄뵐교회’ 헌당식

지난 17일(토) 뿌라엣 엄뵐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전도집회를 연 이후 이곳 성도 및 주민 250여 명과 한인 선교사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뿌라엣 엄뵐교회 헌당식이 진행되었다.

뿌라엣 엄뵐교회 헌당식이 이어진 계기는 특별하다. 민성기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선교활동을 하러 와서 언어훈련을 받고 2년이 지난 뒤 교회개척을 생각하며 지역 정탐에 나섰다. 그러던 중 크리스천 인제양성을 하는 ‘다나엘 하우스’에서 일하는 T자매로부터 자기 마을에 교회가 없어 매년 배를 타고 프놈펜으로 나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2009년 3월 29일, 현지인 52명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52명과 그

집에 세를 들어 옷을 만드는 K자매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망고나무 그늘로 예배 장소를 옮기게 되었고 망고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 초에 교회 건축을 마쳤다.

올해 여름에도 변함없이 이곳에 단기팀들이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영어캠프를 열고, 의료선교를 통해 마을을 섬기는 귀한 수고를 해준 덕분에 교회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이곳 예배장소인 망고나무 부지가 프놈펜 부자에게 팔려 버리자 다른 예배 장소를 모색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T자매가 내놓은 땅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서 뿌라엣 엄뵐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지난 6월에는 매립도 마쳤고, 단기팀들을 통해 평탄작업과 경계선 작업도 끝났다. 땅 면적이 12\*28의 좁고 기다란 땅이라 옆까지 생각했는



데 그 땅도 한 교회의 후원을 통해 살 수 있게 되었다.

매강강 건너에 있는 시골 마을인 이곳에는 모든 시설이 전무하고, 오직 사람만 많은 지역이지만 다시 한 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 없는 이들에게 민 선교사 가정일대와 교회 사역을 동참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기대한다. 뿐만 아니

라 모든 크리스천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제지화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낳고 낳는 것이기 때문에 민 선교사가 가정과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크스킨 달군에 있는 18개의 면에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곳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인 뿌라엣 엄뵐교회가 모교회가 되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대해본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2013년 8월 25일 964호

- 01- 2013 블레싱 캄보디아 전도집회 (Joyful Purpose)(10면)
- 02- 캄보디아 (뿌라엣 엄뵐교회) 헌당식(10면)





# “당신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지난 20일(화) 양재 캠퍼스 사랑성전, 형형색색의 티셔츠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북적였다. 이날 JDS(예수제자학교)의 DISCIPLES DAY 행사가 열렸기 때문. 올해 JDS는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총 2주 동안 열리며, 이번에는 서빙고 양재, 수원, 인천의 4개 캠퍼스 6개의 학교로 진행되고 있다.

행사는 합창 찬양유승아 전도사(오른쪽)의 문을 열었고 ▷대표기도 ▷수원 JDS팀의 SUM '레미제자날' 공연 특선 ▷아웃리치 보고 ▷아웃리치 영상 ▷말씀 ▷중보기도 ▷각 학교 리더십 영상소개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진호 장로는 대표기도를 통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합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삼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

JDS 아웃리치는 해외 42개, 국내 5개 팀으로 나누어 27개국 33지역으로 총 537명이 다녀왔다. 그 생생한 이야기를 남아시아 C국과 중앙아시아 A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온 두 명의 성도가 대표로 간증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이훈 목사는 '제자의 길(속 10:1-6)'을 제목으로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는 것"이라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우리

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비밀, 성령의 위로를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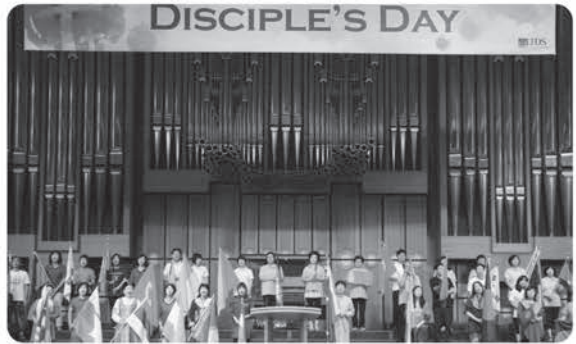
뜨거웠던 중보기도 시간에는 김종민 목사, 이해영 목사의 인도로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교회, 나라와 민족, JDS를 위한 기도제목을 갖고 통성으로 부르짖었다.

참석한 JDS 학생들은 이날 행사를 통해 여름 아웃리치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하반기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끝까지 제자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 조유진 기자 ujjin@onnuri.org

## 포토스토리

뜨거운 기도와 찬양, 아름다운 예배로 하모니를 이룬 '2013 DISCIPLE'S DAY'. 이 날 수원 캠퍼스의 아름다웠던 SUM 특선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한 '레미제자날' 연극 공연은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 간증

### “내 인생의 목적, 주님 알아가는 것”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의 분주함과 더 이상의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기도로 준비해 왔던 남아시아 C국을 향하여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열심이 부족하다고 나를 자책할 때가 많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못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시아머님께 맡기고 떠나오는 것부터가 아이들을 향한 집착과 수고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같음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짐작하던 내가 9박 10일 동안 거의 아이들을 잊어버리고 지냈고 정말 마음이 편했다. 오로지 남아시아 C국 상황만 보고 오고 하러 돌아오는 날은 그곳을 떠나오기가 아쉬울 정도였다. 정말로 육체적인, 영적인 짐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팀에서 씬을 담당했던 나는 우리 팀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온 것 같아 너무 감사하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씬을 하며 정말 격려스러웠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것 같았다. 가장 감동이 되었던 것은 남아시아 C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씬을 한 순간이다. 그 땅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던 향구가 그 교회에서 마주 보이는데 그 향구를 향해 서서 참람자의 종교교로 기독교가 들어왔기에 이 민족이 그렇게 기

독교를 거부하게 된 것에 대한 회개와 무슬림의 땅이 되어버린 이곳의 회복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그 곳에서 그 땅의 복음전파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선교사님과 함께 그 나라의 헛된 신과 우상이 파헤쳐져서 사탄을 물리쳐 또 땅 밟기를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헛된 신이 아니고 나의 몸짓 하나하나에 반응하시며 인도하시고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참 살아계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를 통해 내가 받은 선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선물을 많이 받은 것 같다. 영적인, 육체적인 짐, 안식을 허락하신 것과 이제는 전보다 사람들의 영혼을 더욱 생각하게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평소엔 절대로 못할 것만 같았는데 내가 정말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안에서 힘 수 있는 사람임을 알았고,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인도해주심도 감사드린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임을 감히 고백해본다.

/ 심혜영 자매



### “하나님 뜻이라면 그 땅으로 나아가리!”

아름도 생소한 중앙아시아 A국이라는 나라로 떠나게 된 나의 첫 아웃리치. 평소 전도와 선교에 대해 큰 도전과 의욕이 없었던 내겐 기도와 사역 준비가 쉽지 않았다. 특히 예배인도와 SUM, MK 여름성경학교 기획과 진행이라는 여러 직임을 맡게 되어서는 너무나 바쁘고 지쳐가는 준비기간이었다.

전체 준비기간 내내 내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돌아켜보면 순종의 자세였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기도였다. 하지만 내겐 기도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진정한 무기임을 강력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꾸역꾸역 준비해서 떠난 아웃리치지만, 역사나 여러 일들이 원만히 준비되지 않은 채로 떠나게 되었다.

여름성경학교 당일 첫 시간을 여는 찬양을 들으며 전혀 반응이 없는 아이들 앞에서 나는 얼어붙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기도로 붙잡아주시는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순조롭게 순서를 바꿔 분위기를 바꿨고 시니어 형제님들이 준비하신 그림자극이 진행되는 15분 내내 기도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책임을 넘겼다. 비록 준비한 성경공과는 단 1분도 진행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기도해주고 같이

즐겁게 공놀이, 비밀지키 놀이, 물놀이를 하며 깨달았다. 내가 이 아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를 받고 있구나 하고 2일차 마무리 시간으로 준비했던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에서 즐겁게 같이 찬양하고 울동하시는 그 땅의 선생님들을 보고 더욱 확실히 깨달았다.

내가 가히 이 분들과 아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러 왔다고 교만했구나... 내게 부족한 믿음과 헌신의 열매가 저런 모습이나 하는 진정한 배움과 미래의 내 모습도 저렇게 되리라는 소망을 한 가득 담고 오게 되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아쉬운 점과 깨달은 것들은 많지만 나의 연약함과 교만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제자됨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순종이고 기도가 나의 힘이 됨을 알게 하였다.

평소 가정사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붙잡고 그 길로 돌아가기 위해 시작한 JDS에서 난 제자나 의 열심이 어디로 향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 땅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가겠다. 그 날을 기대하며 나는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 길을 밝히실 주님께 의지하리라.

/ 윤석호 형제





## 삿포로에서 열린 가나의 혼인잔치

남양주 캠퍼스

삿포로 아웃리치에 동행할 김정희 목사님이 이번 아웃리치의 주된 사역은 '코리안 나이트'라고 발표하는 순간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대감이 생겼다. 작은 러브소나타를 위해 15명이 준비하는데 시간도 인원도 부족했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 주말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 부채춤, 드라마, 워십, 일본어 찬양 등을 열심히 연습했다. 그리고 보니 내가 가장 연장자였지만 편안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드라마도 참여하고, 워십도 하고, 요리 재료들을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도 무장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일을 통해 그 곳에서 있을 은혜를 생각해보니 사단이 분명히 공격할 것이라 알게 해서 새벽기도로 무장한 것이다. 15명의 일본인들에게 한국음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식사 재료 준비하라, 한국적인 교회 장식과 테이블 세팅할 재료 준비까지 하면서 우리 팀들은 함께 연합하여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더운 날씨도 이겨가며 섬기며 역시 힘을 합하면 안 되는 일도 못할 일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하게 됐다. 출발 전날 집사님 한 분은 응급실에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으셨다.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우리는 무사히 일본 삿포로에 도착했다. 이전 러브소나타 집회에 참석했을 때 다녀갔던 곳이라 그런지 내겐 이 동네가 점점게 느껴졌고 기대감이 생겼다. 그동안 일본을 위해 기도해왔던 까닭인지 마음도 평안했다.

작은 기적 일으킨 코리안 나이트

도착하니 은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인 김은영 선교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우리는 ICF 교회에 도착해서 첫날 저녁은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했다. 교회의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일본에 철야예배가 있구나... 우리 모두 놀랐고 예배의 자유함과 뜨거움이 다시 한번 우릴 감격하게 했다.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는 눈물이 나면서 '삿포로 지역에 심자기를 세워 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왔다. ICF교회도 교회가 없는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는 기도제목과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 저녁에 있을 '코리안 나이트' 행사 홍보와 전도를 위해 전철을 타고 오도리공원에 갔다. 부채춤과 워십을 한 후에 전도지를 돌리며 전도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났다.

일본말로 배운 찬양을 부르고 전도하며 그들의 표정을 보았다. 무표정하고 조용한 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하나님 없는 삶속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여타한 교통을 하는 것일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저들이 주님을 만나고 삶의 두려움과 아픔을 주님께 고하고 위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한 여자가 서투른 영어로 말을 걸어 왔다. 그 아이 엄마는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고 내게 사과하고 있었다. 내 가슴에는 다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드디어 코리안 나이트 시간이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끝내고 한국식사를 제공하자 비빔밥과 떡볶이, 빈대떡, 불고기, 감자가 곧 동이 났다. 마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생각났다. 모두가 즐겁게 교제했고 일본



15명의 남양주 성도들이 일본 삿포로로 떠났다. ICF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온 성도들.

인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즐거워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한국인들의 사랑을 전하고 동시에 문화가 전달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작은 무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3박4일 동안의 아웃리치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인숙 집사



온누리 2013 아웃리치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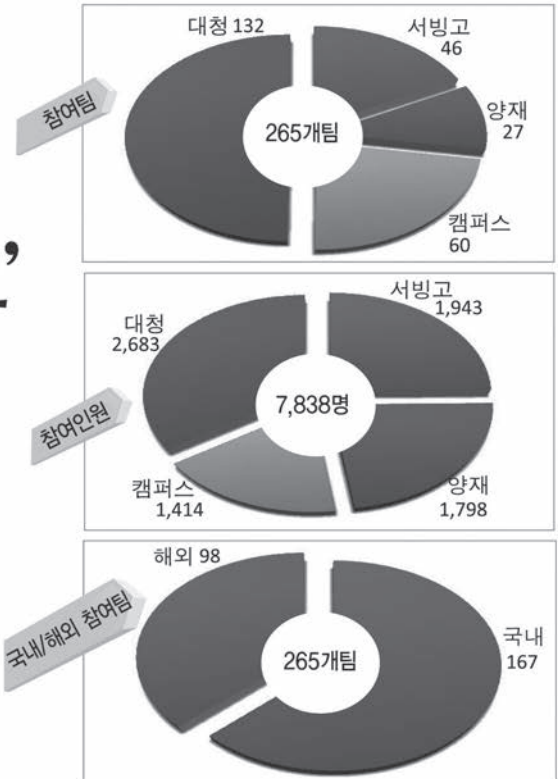
# 산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가르치고·고치고'

국내외 265개 지역에서 7,838명이 흘린 선한 수고의 땀방울이  
전도·의료·교회학교·봉사·예배사역으로 풍성한 열매 맺어

201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 합산 265개 팀 7,838명의 성도들이 참가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다. 국내외 265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아웃리치에는 대청 2,683명, 서빙고 1,943명, 양재 1,798명, 캠퍼스 1,414명

등 총 7,838명이 참석했다. 아웃리치 지역은 국내 강원도(37팀), 경기도(20팀), 전남(19팀), 해외 동남아(48팀), 동북아(21팀), 중동·유럽(10팀) 순으로 나타났다. 예년과 같이 2013년 아웃리치에서도 전도, 의료사역, 어린이사역(교회학

교) 등을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했다. 한편 금오도, 교동도, 석모도, 사랑도 등 도서지역에서도 아웃리치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8-9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

### 9월 15일 약정서 작성, CMS 방식

은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는 9월 15일 국내 10개 캠퍼스와 30개 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NGO 더 멋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과 발전을 돕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약정행사에는 9월 15일 1~7부 예배에서 나누는 약정서를 작성

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후원은 CMS 방식이며, 기간은 1년이다.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세네갈, 가나, 비사우, 르완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북한 등지에서 어린이 생명 살리기, 식수개선, 태양열 전기보급, 환경개선, 의료개선, 지도자 양성, 자립 기반 조성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문의: 02-2271-2246

02

## “몽골 복음화 위해 중보할게요”

### 서초C, 몽골 아웃리치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온 서초C공동체는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학교, 벽화 그리기 등의 사역을 했다.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는 은누리교회에서 개척한 12개 몽골 현지 교회 리더십 부부 22쌍이 참여해 목회와 사역에 부부가 함께 새롭게 결단하고 열정으로 헌신하도록 격려했다. 벽화는 높이 약 25미터, 길이 50여 미터 면적의 벽에 노아의 방주를 주제로 그렸다.

한편 이번 아웃리치에 참석한 흥현성 집사는 “몽골 땅에 선교 23년 만에 2%의 복음화를 이룬 선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앞으로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중보할 것”을 밝혔다.

03

##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 ‘위로와 회복’ 선물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그중에서도 뉴욕 브루클린지역은 88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유대인 밀집지역으로 꼽힌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는 말씀을 주제로, 유대인 형제들을 위로하는 행사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이 지난 8월 13~16일까지 뉴욕에서 열렸다. 1000여 명의 유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브루클린 태버네클교회에서 한인들을 위한 찬양과 말씀 집회가, 저녁에는 맨해튼 홀로코스트 박물관과 브루클린 킹스 베이 와이, 퀸즈 플라싱 등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한 한국문화행사가 열렸다.



01

## 수원 아웃리치... ‘아버지 마음 깨닫는 시간’

### 아웃리치 해단식 14개팀 465명 참여

지난 주일(25일) 수원 온누리교회에 서는 올해 여름 사역을 마치는 아웃리치 해단식이 열렸다. 이날 수원 JDS와 4개 공동체 아웃리치팀 등 여름 사역에 헌신했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배 순서는 아웃리치팀의 특순과 간증 등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주를 이뤘다.

아웃리치 보고 영상이 상영된 후 JDS팀의 SUM 특순과 소은선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다. 소은선 자매는 캄보디아 아웃리치에서 진행된 여름성경 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후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 한 나라를 품고 사역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두 번째 특순은 일대일 사역팀의 오카리나 연주. 연주 후에는 의료선교팀장 김형태 집사의 아웃리치 보고가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함으로 막을 내린 수원 아웃리치 해단식.

있었다. 김 집사는 프놈펜 땅에 지어진 선교센터와 학교 부지를 방문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현지 선교사로 자라나고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목도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또한 “아웃리치를 일상생활의 연속으로 생각하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꿔야겠다고 결단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선식 목사는 “아웃리치

는 아버지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며, 우리가 선교하고 돌아온 것은 은혜”라고 강조하며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와 ‘교회’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올해 여름 수원에서는 국내 8개팀, 해외 6개팀 총 14개팀, 465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 〈여성사역 세미나 안내〉

■ 무릎선교기도학교

일시: 9/13-11/29 매주 금 오전 10시

장소: 4층 비전홀 / 회비: 3만원

문의: 김금신 사역자

(010-8306-8094)



# 한 눈에 보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질병과 악함을 고쳐 주셨습니다”(마 9:35).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눅 9:6).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매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신 후 제자들을 여러 지역에 보내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모델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지상사역을 통해 복음을 이웃에게 전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범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따라야 한다. 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머문 곳에서의 복음전파로 그치지 않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온누리교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하나님께서 택해주시는 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돌아와 중보자가 되는 첫 아웃리치를 지난 1986년 의도, 탄벌도에서 시작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아웃리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3 온누리 국내 아웃리치는 ‘블레스싱 한반도’를 외치며 나라와 민족을 축복했다. 전쟁 위험에 휩싸일 정도로 불안했던 한반도의 위기를 기도로 극복하자는 의지와 통일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였다. 한편 해외 아웃리치는 아직도 어둠이 짙은 영적인 불모지에 섬김과 나눔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갔다. 국내, 외국의 26개 지역에서 7888명이 열린 선한 수고의 땅방울 이전도·의료·교회학교·봉사 예배사역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온누리 2013아웃리치를 결산하였다.

## 1. 어디에서

2013 아웃리치 장소는 [그림1], [그림2]와 같다. 국내는 강원도(37팀), 경기도(20팀), 전남(19팀), 경남(18팀), 파주(17팀), 전북(15팀), 광주(15팀), 제주(11팀), 경북(8팀), 인천(4팀), 광주(2팀), 세종(1팀)

## 2. 무엇을

2013 아웃리치 주요사역은 [그림3], [그림4]와 같다. 국내는 전도(83팀), 어린이(85팀), 의료(20팀), 예배(18팀) 등의 순으로, 해외는 동남아시아(48팀), 동북아시아(21팀), 중동·유럽(10팀), 아프리카(6팀), 오세아니아·태평양(3팀) 등의 순이었다. [그림1], [그림2]는 열방을 품고자하는 온누리교회의 열정을 잘 보여준다.

## 3. 국내외 팀별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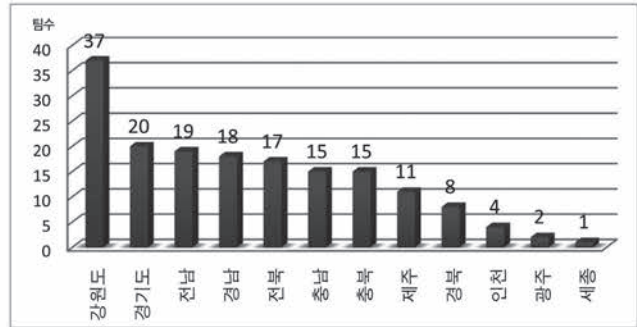
국내의 아웃리치 팀별 참여인원은 [그림5], [그림6]과 같다. 국내는 10~30명(83팀), 30~50명(54팀), 50~70명(9팀) 등의 순으로 해외는 10~30명(72팀), 10명 미만(21팀), 30~50명(4팀) 등의 순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개팀이 100명 이상, 1팀이 2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아웃리치를 향한 온누리 성도들을 뜨거워 열정을 보여줬다.

## 4. 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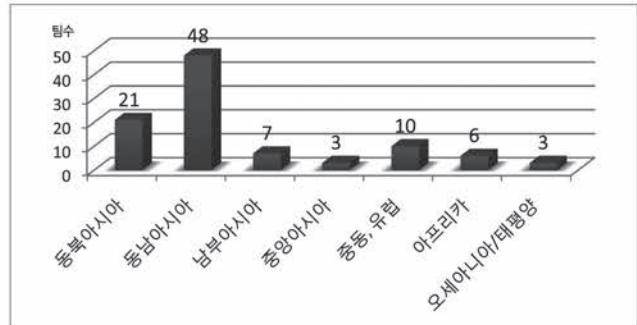
아웃리치 일정은 [그림8], [그림9]와 같다. 국내는 3박 4일(51팀), 2박 3일(48팀), 1박 2일(35팀), 4박 5일(13팀), 5일 이상(11팀) 등의 순이었고 당일 아웃리치도 9팀이 다녀왔다. 해외는 7일 이상(43팀), 5박 6일(22팀), 6박 7일(21팀), 4박 5일(8팀), 3박 4일(4팀) 등의 순으로 아웃리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리치 출발 요일은 [그림9], [그림10]와 같다. 국내는 목(44팀), 금(44팀), 토(30팀)요일에 주로 출발하였고 해외는 금(24팀), 토(22팀), 화(15팀), 수(15팀)요일에 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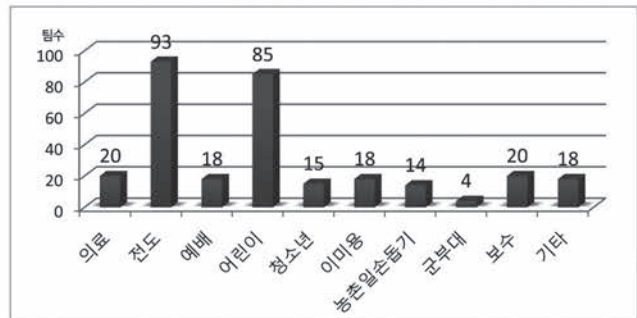
아웃리치 시기는 [그림11], [그림12]과 같다. 국내는 7월 넷째주(63팀), 8월 첫째주(42팀), 8월 둘째주(32팀) 등의 순이었고 해외는 7월 넷째주(35팀), 8월 둘째주(23팀), 8월 첫째주(13팀) 등의 순으로 아웃리치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는 국내의 온누리 아웃리치 대부분이 7월 넷째주와 8월 첫째주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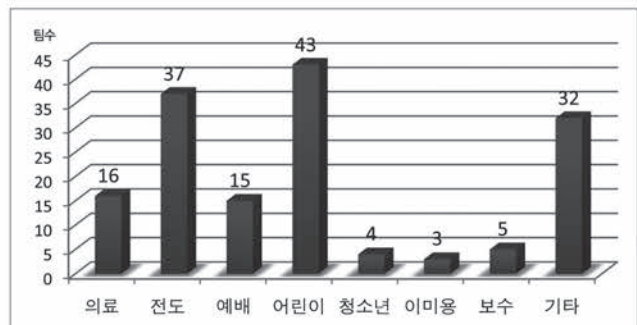
[그림1] 국내 아웃리치 장소



[그림2] 해외 아웃리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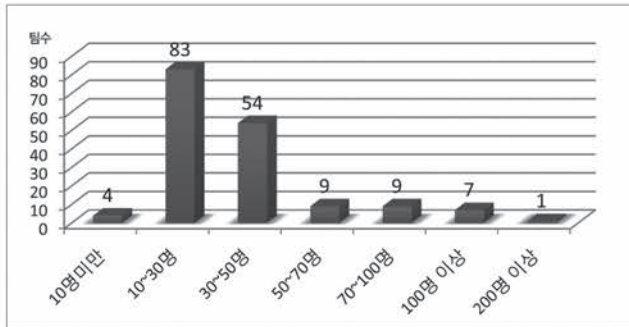
[그림3] 국내 주요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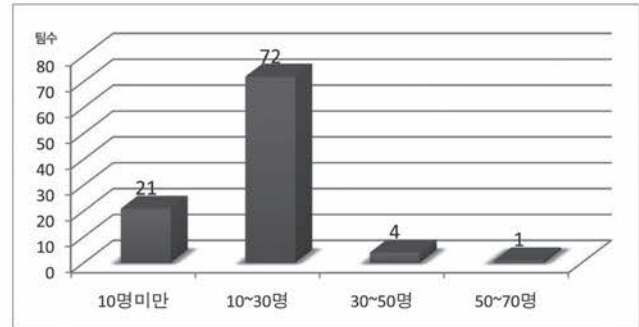
[그림4] 해외 주요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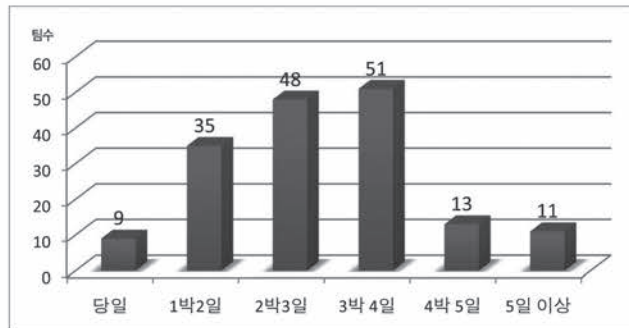
# 2013 여름 아웃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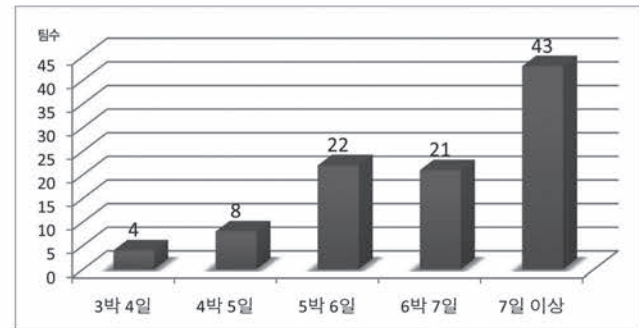
[그림5] 국내 아웃리치 팀별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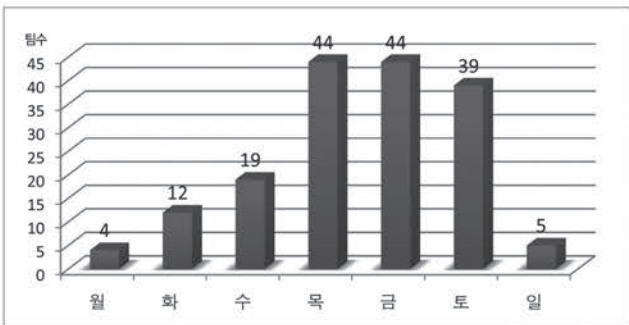
[그림6] 해외 아웃리치 팀별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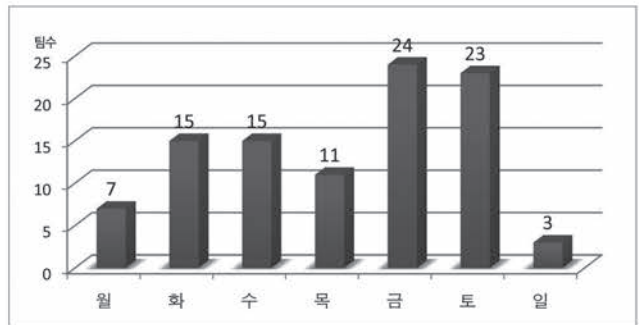
[그림7] 국내 아웃리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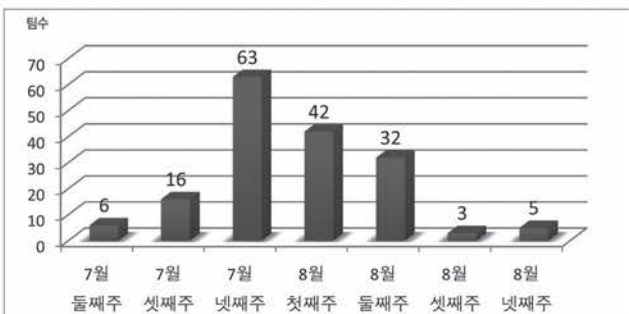
[그림8] 해외 아웃리치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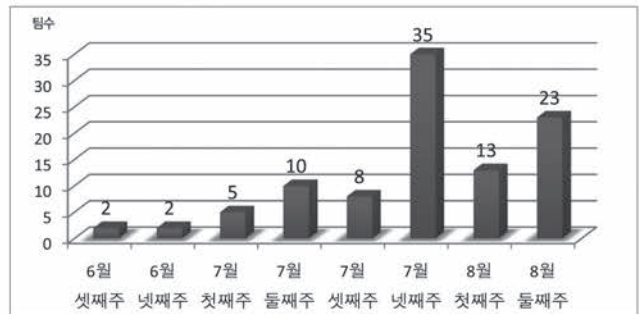
[그림9] 국내 아웃리치 출발요일



[그림10] 해외 아웃리치 출발요일



[그림11] 국내 아웃리치 시기



[그림12] 해외 아웃리치 시기

2013년 9월 1일 965호

• 2013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1-2(9면)

일산공동체



▲ 지난 6월 29~7월 7일 일산공동체는 아프리카D국으로 아웃리치를 떠나 의료사역, 현지인 섬김, 중보기도 등 다양한 사역을 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다.



▶ 일산공동체의 남아시아국 아웃리치에서는 의료사역 및 어린이 사역, 중보사역, 예배사역 등을 진행했다. 사진은 아웃리치 팀이 현지인 어린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난 6월 29~7월 7일까지 아프리카D국 아웃리치가 진행되었다. 총 3명의 의료사역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역부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10명의 팀원들, 선교사님과 가족, 통역자 간에 손발이 척척 맞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음에도 웃음과 감사가 끊이지 않았다. 두 번째 사역은 M지역 국경에서 7km 떨어진 마을 보건소에서 현지 NGO단체와 협력해 진

행되었다. 사역 마지막 날 들었던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 지부에서는 지금까지 접했던 아프리카 사역과 다른 모습, 방향을 볼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다. 며칠 동안의 사역에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며 먼 훗날 우리가 만났던 무슬림의 후대이라도 그 결실이 맺힐 것을 확신한다.

### 은혜의 종합선물세트

올해 남아시아국 아웃리치는 특별히 의료사역팀이 함께 해 미지립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예배를 통해 이해영 목사님의 능력있는 말씀선포와 현지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중보기도, 부채춤과 워십 등이 이어졌고, 고아원과 어린이 사역을 통해 현지 아이들과 함께 천국을 밋보는 은혜를 누렸다. 8월 3일 13명의 아웃리치팀이 출발해 첫째, 둘째 날은 GPKI 교회를 섬겼다. 셋째 날은 D지역으로 이동하여 6일 아침 일찍부터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을 시작했다. 7일

저녁에는 라미단 금식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끄러운 폭죽소리와 오토바이 굉음, 잦은 정전으로 영적 방해가 심한 느낌을 받았다.

8일 오후에는 전방개혁선교센터에서 이곳의 선교 현황과 전방개혁선교 비전에 관한 선교사님의 특강과 토론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고 아웃리치팀이 어떻게 그 큰 퍼즐에서 한 조각을 담당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다.

9일 오후에는 고아원을 방문해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했고, 저녁에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기 위해 깜짝 이벤트를 마련하며 아웃리치의 감동적인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박지영 성도



김성현 성도



남양주

# 필리핀에서 드린 아름다운 예배



강소희 자매

7월 30일 필리핀 아웃리치를 떠나는 날, 모두 필리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었던 참된 예배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 주셔서 감사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워십 연습을 할 때마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나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고쳐지지 않는 마음에 답답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려 갔던 딸락교회의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우리의 워십 순서가 다가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것 같았다.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특별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맘껏 소리쳤다. 주일날 갔던 리파스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리핀 아이들이 특수를 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의 외모나 춤 솜씨보다 워십을 하며 목에 핏줄이 서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인상 깊었다. 예배드리기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

핀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감사했다.

딸락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별들이 있는 밤하늘을 보며 첫째 날 밤에 보았던 마닐라의 화려한 네온사인과의 불빛에 둘러싸인 밤하늘이 생각났다. 이곳 원주민 마을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깜깜하지만 화려한 마닐라의 밤하늘에는 없던 예쁜 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필리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다. 팀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 힘들었지만 잘 도와주고 따라준 팀원들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한국으로 오는 마지막 날까지 학생들을 잘 섬겨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지역교회에서 만난 눈이 맑았던 아이들.

강동

## 메이저리그냐? 아웃리치냐?



고예나 자매

아무런 기대도 없이 떠났던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 사실 나는 야구를 참 좋아한다.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좋은 시험거리를 주셨던 건지 좋은 기회가 생겨 메이저리그(LA다저스와 신시네티 경기)에 갈 기회가 생겼다. 모든 여정을 포함해 120만 원이 든다 했다. 개인적으로 움직이려면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여정이었기에 무조건 가겠노라고 답변을 해두고 주일 2부 예배를 드렸다. 광고 시간에 어김없이 아웃리치 광고가 나왔고 내가 속한 다락방의 날짜를 보게 되었다. 보은 창성, 날짜가 메이저리그 여정과 같은 일정이었다. 예배를 마친 후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못가겠다고 연락을 했다. 그렇게 국내 아웃리치가 결정되고 며칠 후 강진영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에 함께 가자는 거였다. 8월 3일부터이며 금액은 120만 원 가량 된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여정 비용과 동일했다. 120이라는 숫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결정한 아웃리치이지만 사실 A국에 가서도 여전히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웃리치를 가겠다고 결단한 것이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고 들었지만 나는 유라시아A국 땅을 밟고 그 땅의 아이들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 여기에 제가 왜 온거죠? 여기에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다. 밤에 있던 집회 기도시간이었다.

회중들이 기도하다가 누군기는 무릎 꿇고 누군기는 누워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맡기는 가운데 목사님을 도와 그들을 중보하게 되었다. 그들과 나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손에 손을 포개어 기도했다. 그들은 마치 내 기도를 다 알아듣

는 것처럼 울음을 터트리며 기도했다. 엔지니어로 섬기는 것보다, 현장을 기록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그 땅 가운데 전 세계 면적 중 가장 큰 유라시아A국 땅. 그 땅을 하나님은 다시금 살리길 원하시는 것을 느꼈다.



각국의 언어로 쓰인 성경말씀을 들고있는 청년들.



#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3. 데이터로 보는 CGNTV
4.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방송선교의 새 지평을 연 CGNTV의 역할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선교지에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 탈진한 선교사들의 목마름을 해소하고,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등 CGNTV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교도구다.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CGNTV가 어떤 존재이고, CGNTV를 통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았다. / 편집자주

## 우리교회, 우리 목사님 CGNTV

카타르에서 일하던 남편이 카타르 이민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중동에 있는 낯선 나라 카타르에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것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망설였고 주위사람들도 반대했습니다. 특히 친정 식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집을 떠나 나가 내게 자서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며 저의 걱정을

기다려주셨습니다. 2009년 8월 6일, 1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카타르의 외곽지역인(시내에 위치한 한인교회까지 약 120km) Al Khor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낮 기온 50도에 습도 98%라는 무서운(?) 날씨 때문에 잦은 배탈, 락피로 고생하는 아이 등 어려운 일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외로움과 우울함이었

습니다. 외국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높게 쌓은 담과 작은 창이 감속처럼 느껴질 정도였지요. 그렇게 적응하기 위해 애쓰던 중 TV를 설치해 주던 관리자가 한국 방송 채널이 하나 있다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채널이 바로 CGNTV였습니다. 그 날부터 CGNTV는 저에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주일에배부터, 치유집회, 경배와 찬양, 복수리요 형제, 생명의 삶, 요리경좌, 심지어 예수님이 좋아 요까지 CGNTV의 모든 채널을 시청하면서 위로

움과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힘든 과정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주옥같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CCM 찬양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CGNTV는 단순히 TV 채널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친구였습니다. CGNTV에게 큰 빛을 쬐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CGNTV의 수고와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아부다비 이무지 성도



##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CGNTV”

“많이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CGNTV를 보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CGNTV를 통해 선교사들과 교류하고 한국의 소식을 들을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를 지을 때 외형적으로 보여 지는 건물이나 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산골짜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곳에 교회를 지을 때 현지 사람들도 이곳에 오지 않는데 누가 오겠냐면서 다들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CGNTV가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교회 지을 때만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CGNTV의 방문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지에서 사역하는 저희가 CGNTV를 통해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예수님의 문화를 흠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CGNTV가 이곳보다 더 열악한 지역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동아시아 J국에서



##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교도구”

우연한 기회에 CGNTV를 보게 되었습니다. CGNTV를 통해 한국어로 듣는 말씀, 함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혼자보기가 아까울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CGNTV를 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가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변의 자매에게 CGNTV를 소개했더니 그자매도 큰 은

혜를 경험하고는 또 다른 사람에게 CGNTV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렇게 CGNTV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CGNTV는 위성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국경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교도구입니다. / D국에서

## CGNTV 1기 모니터단 모집

하나님의 꿈을 선교지에 심는 CGNTV가 제1기 시청자 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니터단은 CGNTV를 시청 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단 활동 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다. 접수는 9월1일부터 9월30일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CGNTV홈페이지([www.cgntv.net](http://www.cgntv.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5-9518, 9535



01

##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3'

### 9월 18~20일, 예배 섬김, 간식 준비 등 봉사자 모집

고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외로운 이주민에게 쉽고 위로를 주는 온누리 M미션 이주민 추석연합집회가 오는 9월 18-20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Hunger for God(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제로 열리는 집회는 >예배 >나라별 모임 >연합세례식 >Adventure >예배개척 축하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네팔, 러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등 600여 명의 이주민과 함께 예배 섬김, 식사/간식 준비, 안내/청소, 어린이지역, 접수, 의료, 버스, 어드벤처 등을 섬길 봉사자를 찾고 있다. 또한 이번 집회에서는 연합세례식, 태국어예배, 미얀마어예배 개척을 위한 특별순서도 마련되었다.

한편 온누리M미션은 매년 열리는 추석연합집회를 통해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역자로 헌신하는 영적추수를 거뒀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문의:  
양옥진 사역자(010-3937-392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02

## "지구촌 이웃을 도웁시다!"

###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는 9월 15일 실시된다.

지구촌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 NGO '더 멋진 세상'을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다음 주일(15일) 예배에서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재능기부도 가능하다. <관련기사9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3

##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 9월 22일, 서빙고 양재

19번째 러브소나타가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군마 현민회관에서 옮겨 피진다. 론칭은 9월 22일에 서빙고와 양재에서 한다.

군마는 도쿄에서 약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으로 면적의 3분의 1이 산지다. 인구 200만 명, 124개 교회가 있다. 바다에 면해있지 않은 내륙지(분지)로 기온이 높고 습하다. 온천과 레저 스포

츠시설(스키장, 골프장), 곤약(일본곤약의 90% 생산), 양배추가 유명하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고향이기도 하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실행위원장 아리카와 마사오 목사(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11차 실행위원회를 마쳤다고 한다. 오는 9월 23일에는 장재윤 목사(동경 온누리교회)가 GT세미나를 인도하고, 10월 14일에는 광기대회가 열린다.

04

## 오늘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다목적홀 준공예배

오늘(9월 8일) Act29 비전빌리지에서 다목적홀 준공예배를 드린다. 준공예배에서는 >찬양 >기도 >준공식 경과보고(재단사무국) >말씀 >공로패 수여 >테이프 커팅식 >축도 >식사 및 다과 등을 하며, 교제를 나눌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2013년 9월 8일 966호

• 01-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및 봉사자 모집 안내(1면)  
• 02-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1면), • 03-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행사 일정 안내(1면), • 04- ACTS29 비전빌리지 다목적홀 준공예배 안내(1면)



01

### 2013 6차 선교사 파송식

- 밀알(단기) - 중동 E국 : 예배가 없는 땅의 예배자가 되도록
- 김루디아(단기) - 중동 A국 : 언어의 기름부으심과 지혜가 있도록
- 김안나(단기) - 남아시아 H국 : 차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 FA(중동A국)- 김소망, Jecidiah, 샘물, 아레, 열매, 이사람, 주보배, 이사람 :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발견하도록
- FA(프랑스)- 황샘, 안나, 배카라미, 김시온, 바나비진, 백복자 : 하나님 마음 품고 사역하도록
- FA(남아시아M국)- Joy, 이루라, 김시안, 레이킴 :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로 늘 깨어있도록
- FA(남아시아E국)- 오정모, 최라엘, 윤이나, 김빛나, 백루아 : 이 땅에 예배가 세워지도록

02

## 기도의 용사 다시 출격!

### 열방과 선교사 위한 기도의 자리

“많은 중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열방의 선교지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많은 생명이 일어나고, 기도의 용사가 일어나는 복된 기도의 자리 되게 하소서”

열방과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가 개강했다. 무릎선교기도학교는 매주 목요일 선교사를 초청해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는 오전 예배와 각 나라별로 나뉘어 기도하는 권역별 기도모임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개강 첫날인 지난 5일(목)에는 100여 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찬양, 환영, 정마태 선교사의 말씀, 기도, 나라별 기도 등의 순으로 기도의 불을 지폈다. / 조은실 기자

# “스포츠 달란트, 복음을 위해 사용합시다!”

지난 8월 20일 양재 화평홀에서는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주관으로 할렐루야교회,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포츠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1997년 몽골 선교사로 떠나 16년 동안 하나님을 전한 양영자 선교사, 선수생활시절 국제대회 기간 중에도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했을 정도로 전도의 열정이 대단했던 그녀가 선교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간 증

## 내 삶의 소망,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양영자 선교사(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부부가 몽골에서 15년 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

“저는 어려서 입은 팔뚝부상과 간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선수권 대회가 중국에서 열렸는데 지금처럼 중국과 왕래가 지금처럼 자유롭지 않을 때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탁구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구’라는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997년, 저희 부부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진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다른 언어, 문화를 익히며 그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을 계약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 나기도 하고, 한국 후원교회에서 택배를 보내

줬는데 우체국 직원들이 내용물을 모두 빼고 빈 박스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6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고, 내몽고로 사역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몽골 사람들과 달리 고유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번역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이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구약과 신약이 완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심으로 내몽고와 몽골에서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제 평생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양육하신 두 딸

사역 가운데 어느새, 딸이 초등학교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국제학교와 한인학교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수학교사한 자매를 보내

주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이 자매 덕분에 초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홈스쿨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WEC 선교단체에서 저희의 기도제목을 듣고, 영국인 현지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은 9년 동안 초등학교교사 생활을 한 자매였는데 저희를 위해 시작하고 큰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헌신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을 중학교에 보낼 시기가 다가오자, 적합한 학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대전에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국제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선교사 자녀는 가지고 있는 만큼만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학비만 내고 중1~고3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라는 이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양영자 선교사 (88서울올림픽금메달리스트)



#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데이터로 보는 CGNTV
4.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전 세계 174개국에 365일 24시간 동안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국어 복음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CGNTV. 한국 본사를 비롯해 미주지사, 일본지사, 대만, 태국, 아랍 등지에 제작센터를 세워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4개의 위성과 5개의 위성빔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선교방송을 방영하고 있다. 이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CGNTV 직원들, 무엇보다 방송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하는 후원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목마른 선교사들에게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방송을 통한 복음전파를 위해 열방에서 굶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CGNTV의 하루를 들여다보았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대만 타이페이 제작센터\_PM 12:00



저기 보이는 '타이페이 101 빌딩'

타이페이 거리 풍경을 담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나왔다. 멀리 타이페이의 상징 '타이페이 101 빌딩'이 보인다. 타이페이 제작센터에서는 현지 모습과 소식을 담기 위해 날마다 구슬땀 흘리고 있다.

아랍 에미리트 아부다비 제작센터\_AM 8:00



한 장면도 놓칠 수 없어!

시청자들이 중동 지역을 마음에 품고 중보자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촬영하고 있다. 현지PD가 은혜의 현장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

CGNTV 본사\_AM 00:00



CGNTV는 잠들지 않는다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에도 선교자에 원활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 송출팀 직원들은 365일 24시간 동안 방송상태를 점검한다.

미주지사\_PM 15:00



미주 CGNTV! 지경을 넓혀라!

한인교회에서 대담 촬영 중. 미주 CGNTV는 한인 성도들이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접할 수 있도록 미주지역 한인교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일본 지사\_PM 19:00



아픔을 함께 나누는 CGNTV

일본 CGNTV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대지진 피해지역인 후쿠시마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봉사하고 있다.

태국 제작센터\_PM 22:00



CGNTV 알리고, 교제도 나누고

캠프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CGNTV를 알리는 시간. 캠프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SNS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NGO '더 멋진 세상' 과 함께



## '더 깨끗한, 더 건강한, 더 풍요로운 세상' 만들기

전 세계에 하루 125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절대적 빈곤층이 17억 명 존재한다(WHO 2007). 그 중 90% 이상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인류의 6분의 1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애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의료혜택과 교육의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NGO '더 멋진 세상' 은 인종, 종교, 지역, 아픔을 초월해 지구상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1년부터 사역을 시작한 은누리교회

소속 NGO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 10여 개국에서 재난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구호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더 멋진 세상' 이 전개하고 있는 사업은 일회성이나 단발성 구호활동이 아니다. 지역을 선정한

다음 중장기적 목표를 바탕으로 의료, 보건, 교육, 의사개혁운동, 적정기술 도입 등의 사업을 통해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더 멋진세상 사역

지역	사업	내용	연혁
세네갈 본나비마을 기니비사우 불롬마을 르완다 르와마가나마을 파키스탄 후쉬푸르마을 스리랑카 몰라티브마을 네팔	어린이생명살리기 어린이양육 차세대 지도자 양성 해외아동초청치료 식수환경개선 태양열 전기보급 학교환경 개선 태양열 전기보급 학교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의료환경 개선 자립기반 조성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전염성 질병(말라리아, 수인성질병, Dengue) 예방 모자보건사업 기초보건 시설 제공 교육용품(교재, 학용품 등) 제공 영양 개선 사업 청년 초청 교육기회 제공, 유학비 지원 환우초청 수술비 지원 우물, 정수기 등 식수시설 설치, 관리법 전수 태양열 전기, 가로등 설치 학교, 운동장, 도서관, 책상 등 낙후시설 개선 부엌, 화장실, 하수도, 지붕, 쓰레기 처리장 등 개선 진료소, 조산 설비 등 설치, 의약품 제공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예방접종, 지역보건센터운영, 건강검진 및 진료) 보건 교육 및 훈련 생산성 증대 및 주요 농작물 증산기술 연구 및 전수 농업생산성 향상 훈련 현지 사정에 적합한 기술 연구 및 양계, 양봉, 봉제 등 기술 전수 직원 및 지역 담당자의 능력 배양, 마을주민 역할 확대 마을주민 대표단 조직, 인식개선 교육	2010년 12월 22일: 창립총회 12월 29일: 법인허가 (외교통상부) 2011년 3월: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원 사업 6월: 파키스탄 홍수 피해 지역(후쉬푸르)지원 사업, 지역개발 12월: 터키 지진피해 지역(VAN) 긴급구호 사업 2012년 3월: 태국 홍수피해 구호사업 4월: 세네갈 본나비 지역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사업 일본 쓰나미 피해지역 2차 지원 사업 5월: 미얀마 난민 인도적 지원 사업 6월: 파키스탄 후쉬푸르 지역개발사업 (비전센터 완공식) 9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정경화 자선 콘서트 11월: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사업 2013년 1월: 르완다 르와마가나 어린이 생명 살리기 프로그램 사업 3월: 기니비사우 사업지 개척 5월: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정경화 자선 콘서트 스리랑카 몰라티브 지역 전후복구사업(몰라티브 어린이 교육센터 건립) 7월: Stop Malaria!! 모기장보내기(아프리카) 캠페인 8월: 해외장애우 초청수술 (캄보디아 소반나린)

더 멋진 세상이 찾아 준 행복

###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사람이 꿈이에요"



차세대 공동체가 이웃리틀을 가서 만난 소반나린은 브레이워 하이로 부터 60Km 떨어진 농촌마을에서 아라지 르은(40세) 어머니 안신(38세)의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발에 약간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2008년에 아버지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떨어져 장애가 있는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못한 소반나린의 다리는 더욱 불편해졌고 친구들의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

소반나린이 NGO '더 멋진 세상' 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도착했다. 더 멋진 세상 스태프들이 소반나린을 데리고 김병순 장로가 운영하는 순병원으로 향했다. 몇 차례 진단과 검사를 마치고 8월 5일 소반나린은 수술대위에 올랐다. 수술결과가 좋아 건강한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반나린은 고국에서 영어공부와 성경공부를 열심히 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2013년 9월 8일 966호

• NGO '더 멋진 세상' 사역 안내 및 발목 장애 소년 '소반나린' 수술 지원(9면)



## 일본 열도 횡단한 러브소나타,

# 본토 중심부 '군마' 상륙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

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列島)를 횡단한 러브소나타가 본토의 중심부 군마에 상륙한다. 일본에서 19번째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행사가 다음 주일(22일) 열린다.

군마 러브소나타는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군마 현민회관)에서 교회부흥세미나(13일), 가스펠나이트(13일), CEO포럼(14일), 러브소나타(14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가 주강사로,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신상우(피아니스트), 송솔나무(플룻 연주자), 심수봉(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니지마학교성가대, 박진아 작가(샌드에니메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군마 현지는 지금 러브소나타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벌써 12차 실행위원회를 준비 중이고, 9월 23일에는 QT세미나(장재윤 목사), 10월 14일에는 골기대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군마는 분지지형으로 기온이 높고 습하다. 온천과 빼어난 자연경관 때문에 레저스포츠 시설이 발달했다. 일본 근약의 90%를 생산하고, 양배추가 많이 나기로 유명하다. 또한 군마는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고향인데 그의 기념비가 신사(神社)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영적회복이 필요한 곳이다.

문의: 02-749-1149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07년 일본 최남단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최북단 홋카이도까지 횡단한 러브소나타가 이번에는 일본열도 중심부 군마에서 열린다.

### 역대 러브소나타가 열린 지역

<p><b>최남단 오키나와</b></p> <p><b>큐슈지역</b>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고시마</p> <p><b>시코쿠지역</b> 다카마쓰</p>	<p><b>본토(본섬)지역</b> 히로시마, 고베,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도쿄, 나가노, 센다이, 니가타, 아오모리</p> <p><b>홋카이도 지역</b> 삿포로, 아사히카와</p>
---	---

##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오늘(15일)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국내 10개 캠퍼스, 30개 비전교회에서 실시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는 1~7부 예배에서 배포되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도들이 작성한 정기후원금은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 서부 아프리카 지속적사업 개척, 긴급구호사업 등에 사용된다. <관련기사11면>

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1

## “교회는 사회의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 에디 변 목사, 패밀리라이프 라디오 출연



지난 8월 30일 (금) 영어예배(OEM)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 변 목사가 라디오 프로그램 ‘패밀리라이프 투데이(FamilyLife Today)’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는 에디 변

목사 외에 진행자 밥 레핀(Bob Lepine), 패밀리라이프 대표인 데니스 레이니(Dennis Rainey) 그리고 ‘Hope for Orphans’를 이끌고 있는 폴 페닝턴(Paul Pennington)이 참석했다. 라디오를 통해 에디 변 목사는 고아에 대한 문제와 이에 따른 교회(기독

교)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디 변 목사는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고아, 과부, 아비 없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자들이기에 우리 교회가 고아와 가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9월 29일자 신문에 자세한 내용 게재)

▷에디 변 목사 출연 라디오 바로가기(아래 링크 클릭)

<http://www.eddiebyun.com/1/post/2013/08/radio-interview-family-life-today.html>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mailto:ujin@onnuri.org)

02

## “선교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 양재 권사스쿨 ‘와이미션’ 첫 시작

양재 온누리 권사를 위한 와이미션이 지난 10일(화) 양재 드림홀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200여 명의 권사들은 ▷찬양 ▷환영 ▷강의 안내(조호영 목사) ▷이승제 선교사(CCC선교국장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특강을 통하여 모여 하나님

의 약속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그려나갔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시작되는 양재 권사 와이미션 프로그램은 선교에 대한 강의, 안식당센터 방문, 영성수련회, 특강 등으로 진행된다. / 조은실 기자



양지

# “영적 추억의 공간으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예배

지난 9월 8일(주일)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식이 열렸다. 오후 5시, Acts29 비전빌리지 지하 1층 박승철홀 앞에서 이재훈 담임목사와 박성호 형제(박승철 선교사의 아들), 이재환 원장(Acts29 비전빌리지), 도유환 목사(이천선교), 김창욱 전도사(온누리미션) 등을 비롯한 장로 리더십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을 했다. 준공예배는 ▷찬양 ▷박대호 장로(이천선교의 대표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경과 보고(김종성 장로) ▷감사패 수여(도유환 목사) ▷축도(이재환 목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레위기 2장 1-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이재훈 목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다섯 가지 제사 중 두 번째 제사인 소제(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변함없는 유향, 향기를 풍기는 섬김이 이곳 공간을 통해 드러지길 바란다. 이곳을 방문하고 떠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 추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교사를 위한 안식처로 지어진 Acts29 비전빌리지에 있는 모든 홀은 선교의 열정이 남달랐던 선교사들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이중 박승철홀은 온누리교회 300호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의 이름을 붙인 공간으로, 2천1만 비전의 첫 순

교자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다. 본래 박승철홀은 고(故)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위치에 있었다가 이번에 이전 준공되었다.

박승철홀 내부는 넓은 무대와 3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규모의 좌석, 안쪽으로는 자모실, 방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성호 형제는 외진 곳에 이렇게 예쁜 홀을 만드시기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과 관련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생전에 아버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대표기도를 하실 때 우리 가족을 음악선교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곤 했다. 이번에 지어진 장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당과 같은 곳이라서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Acts29 비전빌리지에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공간으로 사용될 박승철홀에 예배를 위한 키보드, 드럼, 기타 등의 악기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Acts29 비전빌리지 측은 “많은 성도들의 바램처럼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며, 영광 돌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공간을 아름답게 시공한 디지털 건축연구소 위드웍스 대표 권혁찬과 가감 디자인그룹 대표 석주한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지난 8일 오후 5시 양지 Acts29 비전빌리지 지하1층에서 열린 박승철홀 준공식에서 참석한 온누리교회와 선교재단 리더십 등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01

# 왜 NGO '더 멋진 세상' 인가?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한 온누리교회에는 선교를 담당하는 5개의 기관(2000선교, TIM, 온누리 미션, Acts29비전빌리지, NGO 더 멋진 세상)이 있다. NGO 더 멋진 세상은 인종, 종교, 지역, 이념을 초월해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기 위해 2010년 12월 29일 설립되었다. 온누리교회에 많은 선교기관이 있는데 NGO '더 멋진 세상' 을 설립한 이유가 궁금하다.



### 효율적 선교전략

전방개혁 선교지역은 교회이름으로 선교할 수 없다. 이슬람 국가같은 전방개혁 지역은 교회의 이름을 내걸고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음전파와 교회 개척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故 하용조 목사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선교할 수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NGO 기관을 설립하도록 지시했다. 중립적 색채를 띤 선교라기보다 효율적인 선교 전략이었다.

### 영적 전쟁터 선봉에 서다

NGO는 영적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울 수 있다.

이슬람은 중동의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금전공세를 퍼부으며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슬람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아프리카 이슬람의 분포도를 보면 중동과 지중해에 닿아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 분포가 적은 편이지만 심각성은 커지고 있다. 벨저 소말리아, 지부티, 에티오피아, 수단, 차드 등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슬람화되었다. 아프리카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굶주린 아프리카 사람들이 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GO '더 멋진 세상' 은 영적전쟁의 최전선에 직접 뛰어들어 사역한다.

###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

NGO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분야와 활동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과 협력해 지역개발을 통한 선교를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 개발요원을 파송하는데 용이하다. 재

원 조달도 선교단체보다 유리하다. NGO는 자체자금 50-80%를 정부기관의 교부산하 KOICA, 보건복지부의 KOFI, 교육부의 국제교육진흥원 등과 민간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의 자선재단 등)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다양한 NGO 사업을 통해 전방개혁 선교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어쩌면 먹고 입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보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밥 한 끼,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이 더 시급할지도 모른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더 멋진 세상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에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재능과 시간을 나눌 인재를 모집

### 모집분야

홍보 / 홈페이지 관리 / 현장 취재 및 영상 제작, 기사 작성 뉴스레터, 소식지 등 제작

### 후원자 관리 및 행정

우편물 발송, 데이터 정리 / 프로그램 및 후원행사 지원

### 국제협력

번역 및 통역(영어, 불어 등)

### 자격

국제개발협력 활동에 소명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 해당 분야 전문 기능을 소지한 사람

### 활동

사무실 방문(주1~2회, 본인 희망시 확대) / 온라인상 홍보(메일, 홈페이지) / 해외사업현장 답사 / 해외사업현장 이웃리치 / 정기 모임

### 신청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http://www.abetterworld.or.kr)) 참여계시판

### 혜택

NGO 더 멋진 세상 각종 행사 우선 초대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VMS 봉사활동 인증) NGO '더 멋진 세상' 자료제공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시 우선 선발

03

## Donation

한 달의 행복, 생명을 선물합니다.

### 개인후원

프로젝트별: 어린이생명살리기, 해외지역개발, 대학지원, 의료지원 등 국가별: 세네갈, 르완다, 기니비사우, 파키스탄 등

### 맞춤식 후원

학교, 회사, 교회 등의 팀에서 일정 금액을 일시 또는 정기적으로 사업대상지나 학교에 학습 품, 식수개선 프로젝트, 가족 등을 후원

### 기업일기부

생일, 돌, 결혼, 입학, 졸업 등 나와 가족, 친구들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NGO '더 멋진 세상' 에 기부

### 재능기부

사무, 행정, 홍보, 리서치, 국제개발협력 등의 봉사활동으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기부

### 후원방법

Facebook: [www.facebook.com/abetterworld](http://www.facebook.com/abetterworld)

### get

인터넷 후원: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http://www.abetterworld.or.kr)) 참여계시판

### 후원을 하시던

기부금 영수증과 소식지를 보내드립니다.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념일 기부를 하실 경우, 후원자님의 사진과 메시지를 담은 감사패 또는 기념증서를 드립니다.

2013년 9월 15일 967호

- 01- NGO '더 멋진 세상' 설립 배경(11면), • 02- NGO '더 멋진 세상' 인제 모집 안내(11면)
- 03- NGO '더 멋진 세상' Donation(후원) 종류 및 방법 안내(11면)



01

#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4.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되어주세요

CGNTV를 후원하는 든든한 삼각편대가 있다.

주인공은 MVP(Missionary Vision Partners) 후원자, 운영위원회, CGNTV 중보기도모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CGNTV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최연소 후원자 최지율 가족

“복을 축이는 생수에도 돈을 지불하는데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CGNTV를 후원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의 작은 후원이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된다는 건 참 기쁩습니다.”  
CGNTV에는 1만8000여명에 달하는 정기후원자가 있다. 그중 유난히 눈길을 끄는 후원자가 있다. 태어난 지 15개월 된 최지율의 가족. CGNTV의 최연소 후원자인 지율이와 CGNTV의 인연은 얼마 전 강소영 씨의 작은 소망에서 시작됐다.

“CGNTV는 지율을 위한 양육교재입니다. 우리의 열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죠. 이 때문에 저는 CGNTV를 늘 틀어놓아요. 찬양과 말씀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의상실 겸 커피숍 'Hicah( hicah )'을 운영하

## MVP(Missionary Vision Partners) 후원자

### “CGNTV를 후원하는 건 당연하죠”

는 강 씨는 CGNTV의 열렬한 사랑자다. 한 때 'CGNTV에 취직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할 정도였다. 5년 전 CGNTV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큰 감동을 받은 그는 CGNTV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나림의 하늘 빛 향기> <독수리5월제> 등의 프로그램에 복길 이 등 액세서리와 의상 등을 열전했다. <정주호의 뽀뽀뽀> <최신예의 행복한 식탁> 등을 통해 선 운동, 요리를 배우고 결혼 새나기도 준비할 수 있었다.

남동생으로부터 체크카드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운영하던 숭에서 첫 손님에게 판매한 금액, 37만원을 체크카드를 위한 CGNTV 위성안테나를 담도록 후원했다. 일본

교회를 위한 위성안테나 후원도 하였다. 강 씨의 CGNTV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남편 최영진 씨에게도 전염되었다. 다니는 회사에서 참가한 국제대회에서 받은 상금 2500달러 전액을 CGNTV에 후원한 것

“예전에는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드러냈다면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기로 했어요. cafe Hicah에도 종일 찬양음악을 틀기로 했어요.”

“숨이 왔던 믿음이 없는 누군가가 CGNTV를 통해 성령의 타격을 느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강 씨의 고백을 듣다보니 불현 듯 1만8000여 CGNTV 후원자 마음이 모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밀려왔다.

## CGNTV 운영위원회

###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전 세계 교회와 아낌없이 나눈다

“어떤 경우에도 ‘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CGNTV 운영위원회는 CGNTV와 선교사의 가교라는 소명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CGNTV의 모판이라면 운영위원회는 뒷줄이다. 온누리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면 운영위원회는 아버지와 같다. CGNTV 운영위는 고(故) 하용조 목사의 ‘한 영혼을 위해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다’는 유지를 받들어 나가는 데 분초를 아끼고 있다. 지난 4월 정상권 장로가 위원장에 취임한 이래 운영위원 배기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위원이 50명에서 87명으로 늘었다. 이재훈 담임목사 등을 통해 새롭게 합류한 다양한 직군에 속한 위원들은 CGNTV 설립 초기부터 하 목사를 통해 함께 한 위원들과 ‘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분기별 모임 외에도 각 조별로 나누어 CGNTV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고성도간 ‘코이노니아’도 열리고 있다. 다음달 6일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 기념 주일에 CGNTV 정기후원행사를, 11월 20일 CGNTV 후원을 위한 심수봉 콘서트를 개최하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11



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군마리브스나타 참석, 무복(無佛)교회 방문과 위성안테나 설치 등 운영위원 아웃리치를 통해 미디어선교의 사명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정 위원장은 “현재 운영위원회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지만 교회나 교회를 한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CGNTV 비전에 공감하고 이를 확산시키려는 뜻을 가진 분들이라면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온누리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한국 교회(선교사) 및 세계 교회와 아낌없이 나눈다는 점에서 우리교회 어린이들을 비롯 모든 구성원들이 CGNTV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면서 “10월 6일 정기후원행사가 그 비전의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CGNTV 중보기도 모임

### “부르짖으면 땅 끝까지 전해지리라”

10월 6일 CGNTV 정기후원행사 위해 기도 중



류석인 권사는 2008년 기도하던 중에 십자가 모양의 환상을 세 번 봤다. 환상을 본 후 여성에게 갔는데 CGNTV 중보기도팀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 류 권사는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CGNTV를 위한 중보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일년에 두 번씩 CGNTV 중보기도팀 이름으로 CGNTV 안테나도 설치하고 있다.

고영희 권사는 올해 1월 CGNTV 대표이사 유재진 장로로부터 기도 요청을 받고 CGNTV를 위한 월요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20명 내외의 인원이 참석하는 기도모임에서는 CGNTV 직원 한 사

람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

요즘 월요 기도모임과 금요 기도모임 모두 10월 6일 진행될 CGNTV 정기후원행사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통해 땅 끝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 《월요기도모임》

일시: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CGNTV 본사 1층 집결실  
(금요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신관 미션홀

2013년 9월 15일 967호

- 01 -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MVP 후원자(12면)
- 02 -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회 & 중보기도 모임(12면)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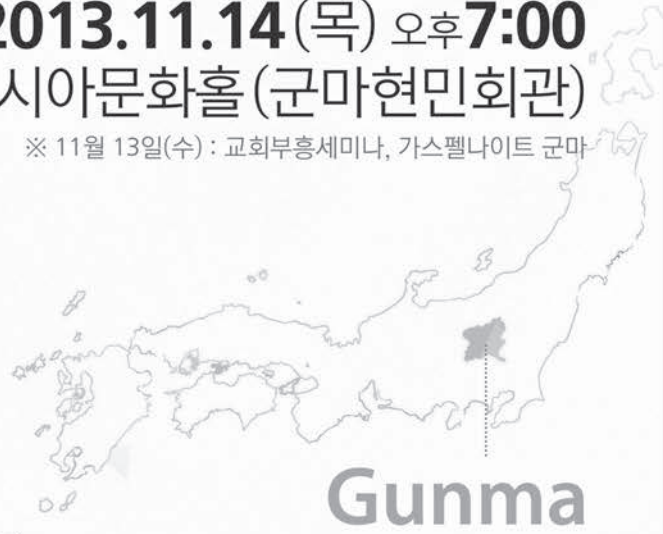


# Love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배재철  
(테너)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시마치교성가대  
(찬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01

## 러브소나타 앞둔 군마 벌써 ‘부흥열기’

러브소나타 군마를 40여 일 앞둔 가운데 군마 현지는 벌써부터 부흥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러브소나타 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세자키그리스도교회에서 열린 큐티세미나에 이례

적으로 많은 인원인 59명(14개 교회)이 참석했다고 한다. 교회가 적은 군마 지역에서 열린 세미나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 경우는 드물다. 그만큼 러브소나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이

다. 러브소나타 한국본부도 지난 22일 론칭행사를 갖고 본격적으로 행사준비에 돌입했다.

참가신청: 02-749-1149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기도제목



- 9월 30일(월): 말씀 전하시는 이재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소서.
- 10월 1일(화): 일본 성도들에게 러브소나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소서.
- 10월 2일(수): 행사에 2000명의 일본인이 참석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 10월 3일(목):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 10월 4일(금): 가스펠 나이트와 CEO포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 10월 5일(토):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도록.
- 10월 6일(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 교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02

##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하겠습니다”

### 4,951명 약정행사 참여

지난 9월 15일 국내 10개 캠퍼스와 30개 해외비전교회에서 일제히 실시된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4,951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연 11억6천7백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NGO 더 멋진 세상 CEO 김광동 장로는 성도들에게 “보내 준 귀한 사랑

을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를 했다.

앞으로도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나 전화로 약정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271-2248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가장 연약한 자들을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

###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출연, 에디 번 목사의 메시지



영어예배(OEM)를 담당하고 있는 에디 번 목사가 지난 8월 30일(금) ‘패밀리라이프 투데이(FamilyLife Today)’ 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아사역의 필요성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전했다. 패밀리라이프 투데이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목적의 비영리 기독교 단체의 방송으로 1959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주에서 개국했다. 총 24개 언어로 방

송되며 청취자가 백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에디 번 목사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진행자 밥 레핀(Bob Lepine), 패밀리라이프 대표 데니스 레이니(Dennis Rainey) 그리고 ‘Hope for Orphans’를 이끌고 있는 폴 페닝턴(Paul Pennington)과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봤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발:** 한국에서의 입양은 어떤 것입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에디:**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교회 안이던 밖이던 입양은 그리 환영받지 못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가 없다면 고아이든지 입양아이든지 안타깝게도 그들을 향한 많은 선입견들이 있게 됩니다.

**데니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입양의 개념은 받아들여지지만 실제 고아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나 위탁보호를 하고 아이들 입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참 답답하네요... 자 이제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교회(영어예배부)와 고아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생기셨는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에디:** 한국에 수백 수천의 고아들의 있고 또한 수백만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마음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추구하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국인이 품도록 도전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외국인 신분으로 살고 있는 공동체를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일하고 있기도 하구요.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훨씬 더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국에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입양을 할 수 있는 법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희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국의 변호사들과 그와 관련되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며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작년 8월에 한국인들(교포)이 한국에서 사는 동안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한 한국분이 국내입양절차를 통해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분들로서는 이 국내입양절차를 통해 입양하는 것이 정말 엄청난 혁신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 년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외국인 신분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디:** 참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한국 동역자들과 나눌까 그리고 왜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성경적 쟁점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제가 성경말씀을 통해 고아, 과부, 아비 없는 자들에 대한 큰 맥락을 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취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의 더 취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더욱 깊이 소중한 자들입니다. 만약 힘없고 약한 자들이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지역에서 힘없고 약한 자들인가?”

**데니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교회의 훌륭한 이야기들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가정들은 궁극적으로 고아들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언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시작했나요?

**에디:** 한 미군 가정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고 한국여성교 결혼했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낳아진 아들과 딸, 두 명의 자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입양에 대한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가정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이것이 복음의 하나님이라고 설교시간에 나누었을 때 그들은 적어도 입양에 대해 기도해야 할 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그때 각각 10살, 12살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분들은 이끄심을 느꼈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봉사하고 있는 입양기관과 고아원 몇 곳을 방문해 봅시다. 그리고 누가 가장 연약한 자인지 직접 봅시다.” 그들은 누가 가장 연약한 자들인지를 보고 싶어 했고, 두 명의 여자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자매거나 친척 관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10살 12살 정도였습니다. 고아들은 나이가 많아 질수록 입양의 기회가 적어집니다. 그들 중 한

아이는 혼혈이었습니다. 혼혈인 친구들은 더 많은 편견을 갖게 되고 입양의 기회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입양기관을 통해서조차 더 적은 기회를 갖게 될 이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입양하겠습니다.’ 입양절차를 밟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달 전이 되어서야 그 여자 친구들은 정식으로 그들의 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미국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모든 시간 안에 함께하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역들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한국으로 보냈고 두 아이들이 그들의 합법적인 딸들이 되었을 때 다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데니스:** 고아들을 위한 국제적인 투사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목사님과 목사님의 교회에 함께해서 고아와 입양에 대해 문화를 바꾸게 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전문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ww.onnuri.org)

\*영어대화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 다소 오역과 의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01

# “지상명령 따라 제자된 삶 살라”

## 수원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수원 여성사역에서 무릎선교기도 학교 가을학기 과정을 오픈했다. 지난 13일(금) 오전 10시 4층 비전홀에서 첫 강의가 시작됐다. 이날 초대된 강사는 전 중앙아시아A국 선교사 이자현 GO(Global Operation)대표인

주누가 선교사. 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기다림’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누가 선교사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되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 등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무릎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제자된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무릎선교기도학교는 Acts29 비전과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한조에 5-6명씩 16개 그룹을 이뤄 초청된 강사의 말씀을 듣고, 권역별로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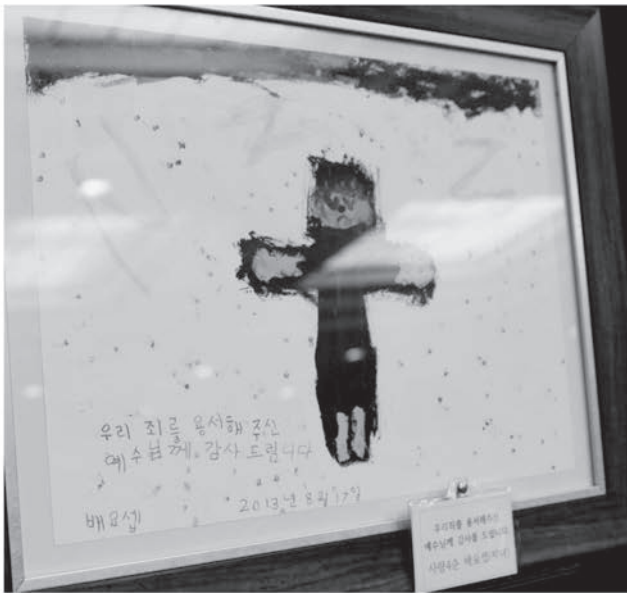
# 강남A공동체, 아웃리치 시화전

〈최우수작〉

## 예수님 전상서



어린이 사진전 / 우수작 사랑 4순 배요셉(자녀)



기쁨4순 신정자 권사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이 짧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남은 날 이리 살고 싶습니다.

제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의를 소중히 지켜주며 사는 삶 되게 하소서

과장과 포장된 인행을 버리고 진솔함으로 살게 하시고 이주 작은 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같은 아홉살은 기억의 잣대로 누구도 재려말게 하소서

사랑의 줄로 사방을 훑어도 걸림이 없는 매일의 삶 되게 하소서

경험의 고집과 조급함, 틀에 갇힌 사고로 답답함 없이 상황의 분별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이나 설치고 앞장서기보다 은밀한 곳 찾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삶의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것보다 가슴으로 안고 가는 것이 감사로 가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만나는 새벽을 마지막 날도 달려가게 하시고 정신이 혼미해져 고운 만남들을 모른다 하는 안타까움 없는 그런 건강으로 살게 하소서

이 바람들이 제 욕심이라 하시면 주님 뜻 안에서 다 내려놓겠나이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전부였던 주님을 명징하고 또렷한 의식 속에서 그 손잡고 떠나는 기쁜 날 될 수 있기를……

# “하나님의 타임스케줄 따라살아요”

## 부르고, 채우고, 새 길 여는 하나님 만나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이 시대의 성경 선생 되는 것이 사명이자 꿈



류모세 선교사

부드러운 목소리에 힘이 넘치고,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포근함이 묻어났다. 이 사람 누가 봐도 호감(好感)이다. 그의 입술은 오직 말씀, 성령, 예수, 선교, 다음 세대를 노래한다.

류모세 선교사.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저자로 저명하다. 식물, 동물, 절기, 성전 등을 주제로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변신한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 같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저 하나님의 타임스케줄에 따라 살았을 뿐이라는 그의 고백이 은혜롭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심화과정’ 개강을 앞두고 류 선교사를 만났다. 10월 7일 개강하는 아카데미가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가 궁금해하였다.

### 예수 만나 모세 된 이야기

류 선교사는 와이들이다.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만났다.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신임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대학생성경암기선교회(UBFA)가 던진 “성경공부를 해 볼 의향이 있으냐”는 질문에 무심코 ‘Yes’라고 답한 것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류 선교사는 한 학기 동안 성경공부를 하고 여름방학에 떠난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때부터 8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아들이 한의사로 성장하기를 바란 부모님과 의견이 생겼던 것이다. 날마다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아들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급게 불리가 없었다.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다. 급기야 한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역자로 살겠다는 아들의 선언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다.

“한의사를 포기하고 사역자로 살겠다는 아들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당시에는 가족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진로, 리더십과

이 의견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확실한 부르심이 필요했어요. 그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지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히 11:24-25).

당시 제가 소속되어있던 선교회에서는 거의 매일 큐티 나눔을 했는데 제가 받은 말씀과 사역자로 헌신하겠다고 선포하자 이름을 모세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제 이름이 모세가 되었어요.”

### 이스라엘 선교 눈뜨게 한 아내와 만남

성경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유진소 목사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가 제게 한 첫 마디가 ‘저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예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조금씩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 한의사에서 선교사로 ...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사람은 1985년 결혼했다.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위해 한의원을 오픈했다. 그때부터 5년 동안 돈을 모아 2000년 이스라엘로 떠났다. 류 선교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에서 세포생리학(MA)과 약리학(FHD)을 공부했다. 여기서도 한 번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에서 가져 간 돈이 바닥난 것.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남들보다 빠르게 공부를 마치게 하셨고, 남들보다 많은 장학금을 받게 하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공부를 마치는 시간이 남들보다 빨랐고, 장학금도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간 것이 야기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불가능이 없었어요.”

### 열린다 성경 시리즈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

류 선교사의 저서 (열린다 성경) 시리즈의 탄생 비화가 재미있다. 이스라엘의 환경, 시대적 배경, 역사, 문화 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열린다 성경)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등 떠밀림’이었다.

“길놀이 워낙 아드워요.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아웃리치팀을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스위스로 가버렸어요. 아웃리치팀을 안내할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아내가 당신이 아내를 누가 하겠느냐고 등을 떠밀었어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고 머리 싸매고 이스라엘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고시 준비하듯이 말이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연구는 무척 재미있었다고 한다. 메마른 삶에 생수를 붓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대학시절 8년 동안 이어온 성경공부가 뼈대가 되고 재미있는 이스라엘 연구가 살이 되어 ‘이스라엘 전문가’가 되었다.

### 이재훈 목사와의 만남

이재훈 목사와의 인연으로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린다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후 이재훈 목사를 통해 2008년 3월 은누리교회에서도 ‘열린다 성경 세미나’를 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투대이 제작을 하면서 폐간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때 이재훈 목사님께서 장모님들을 모시고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연구

했던 것과 대학시절 공부한 성경공부 덕분에 성지순례로 생각했던 일정을 ‘살아 숨 쉬는 성경공부’로 인도할 수 있었어요. 이재훈 목사님께서 뉴저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은누리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를 통해 후원자와 구독자를 찾게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투대이)가 폐간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 새로운 길, 한국교회를 섬겨라!

재정, 사람, 사역을 통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던 류 선교사에게 청춘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010년 아내가 유방암 판정을 받은 것. 돌아보니 이스라엘에서 자란 10년 동안 한번도 쉬지 못했다. 고민할 이유도 여지도 없었다. 2010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류 선교사는 아내의 치료가 끝난 후 하나님이 새길을 열어 주신 길에 순종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기관을 만들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었다. 대학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중 받은 부르심, 이스라엘 선교를 가기 전 받은 부르심에 이어 세 번째 부르심이었다. 두 손 무릎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올해 12월 햇볼트트리신학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노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시대에는 올바르게 가르치는 성경 선생이 필요해요. 제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타임스케줄을 따라 그동안의 경험을 모두 모아 한국교회를 섬길 거예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요, 비전입니다. 헌정성이 살아 숨 쉬는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이 살아지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담: 편집국장 정선철 장로  
글: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스라엘 청소년 바이블캠프

일정: 12월 24~31일

문의: 010-4902-1022

www.openbible.kr

2013년 9월 29일 968호

• Acts29 류모세 선교사 인터뷰(8면)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 1

# ‘바로 그 교회의 꿈’

1960년 연예인교회를 섬기던 하용조 목사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 사역을 내려놓고 쉬라는 의사의 권고에 영국으로 떠났다. 영국으로 건너간 후 거의 6개월 동안은 하루 12시간씩 잠을 잤다. 하용조 목사는 영국에서의 생활이 “미처 열리자마자 로렌나무 밑에 있었던 시간과 같았다”고 회고한다.

하용조 목사는 영국에서 두란노서원과 온누리교회에 대한 그림을 확인하는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 존 스토틀 목사를 만나면서 알게 된 런던인 스티튜트는 두란노서원의 모델이 되었다. 짐 그레함 목사의 교회에서는 온누리교회의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조그만 예배당에 입주의 여자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손을 들고 찬양을 했다. 예배 시간에 제한이 없어 설교도 1시간을 넘었고 설교가 끝나면 바수를 치며 춤을 추었다. 눈물로 드리는 성찬식도 큰 감동을 주었다.

1963년 영국에 있던 하용조 목사에게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 신동아건설의 최승영 장로와 이형자 사모가 땅의 일부를 해 나쁘게 드라기로 했으니 목회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한 것이다. 하 목사 부부는 이 일을 위해 1년간 기도했다. 당시 하용조 목사는 한국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서빙고 인근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놓고 갈등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 주셨다. 그러나 ‘2년이나 지난 지금도 주님이 의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보여 주셨던 그 교회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사도행전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2년이나 지난 지금도 가능하다.’

이후, 하 목사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었고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삼는 교회’라는 5가지 목회 방향을 설정했다.

귀국 후, 하 목사는 과학원아파트에서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했다. 소그룹 성경공부는 점차 자신의 집을 내어 놓고 밤늦게까지 성경을 공부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로 발전해 갔다. 그렇게 모인 127명에게 하용조 목사는 사도행전의 교회 모습을 지속적으로 전했다. 이들은 점차 사도행전의 역사를 몸으로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헌신과 열정이, 온누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자라는 초석이 되었다.

###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1964년 귀국한 하용조 목사는 과학원아파트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면서 구체적인 온누리교회의 그림을 그려 갔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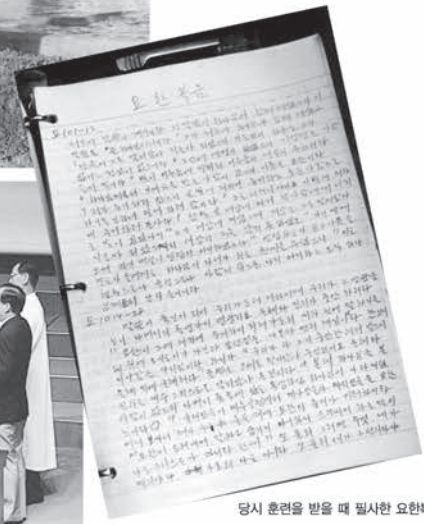
1964년 10월, 한남동 햇빛화관한국기독교선교관에 127명이 모였다. 이들 모두가 처음부터 신실한 신앙인들은 아니었다. 죽음을 눈앞에 둔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던 한 부인이 하 목사를 만났고, 그 남편의 친구들과 몇몇 부



건강 문제로 연예인교회를 내려놓고 영국으로 떠난 하용조 목사. 이곳에서 하 목사는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하는 짐 그레함 목사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 예배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



당시 훈련을 받을 때 필사한 요한복음.



한남동 햇빛화관에 모인 127명은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내장 요약, 일주일에 책 3권 읽고 독후감 쓰기 등 디스 힘든 훈련과정을 마치고 2기, 3기 훈련생들을 양육했다.

인들이 모였다. 하용조 목사는 3개월간의 성경공부를 제안했고 모두들 하 목사의 말을 따랐다.

성경공부는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빠박하게 진행되었다.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은 후 내용을 요약하고 주제를 정해 리포트를 제출했다. 또 일주일에 약 2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그렇게 3개월간의 성경공부는 끝났고 병을 앓던 이는 하나님 나라로 갔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 후 성경공부 모임은 2기, 3기로 이어졌고 1기 성경공부를 마친 사람들이 2기 성경공부 멤버들을 도왔다. 그들이 각각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자, 하용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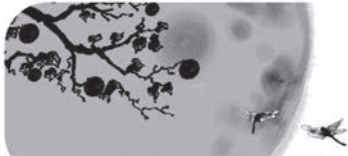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일을 평신도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주일에는 아침 10시 성경공부로 시작해 예배와 성찬식, 식사와 교제, 또 다시 성경공부... 오후 5시가 되어야 일과가 끝나곤 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들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지향한다. 바로 그 교회가 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1년 정도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면서 기도로 준비한다. 등 두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얼마 안 되는 멤버들 간에도 신앙의 차이가 컸고 신앙 배경도 천차만별이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는 이제까지의 직분이 무엇이었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

작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 대신 모두 형제, 자매라 불렀다. 수요예배는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드렸다. 자연히 예배 후에는 교제가 이어졌고 각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지도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각 가정의 순례객 개수까지 알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교회의 모습과 방향을 놓고 새벽 1-2시까지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1965년 10월 6일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127명은 다른 한 가정씩 영입하여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갔다. 그렇게 78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준비했다.





온누리M미션

## ‘Harvest 2013’ 650여 이주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지난 9월 18~20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Hunger for God(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제로 온누리M미션 추석연합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22개국에서 온 650여 이주민들과 128명의 한국인 봉사자들이 참석해 다윗처럼 춤추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

네 번의 예배와 나라별모임, 연합세례식, 팀별로 진행되는 레크리에이션(어드벤처), 바비큐 파티 등을 통해 22개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19일(목) 저녁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 가지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우리 영혼의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기 위해 울듯이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게 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8~20일,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열린 ‘Harvest 2013’ 추석연합집회에 650여 이주민들이 참석해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 태국어, 미얀마어 개척예배

추석연합집회의 피날레는 태국어, 미얀마어 개척예배였다. 미얀마와 태국에는 85%이상이 불교신도다. 복음의 불모지인 태국과 미얀마에서 한국으로 온 형제, 자매들에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지난 9월 20일에 미얀마어, 태국어예배 공동체를 개척했다.

김창욱 전도사는 “온누리M미션에

는 17개의 예배공동체가 있다. 이 17개의 예배공동체 안에는 현재 20개국 40인종의 이주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오늘 태국어와 미얀마어 공동체가 개척을 했다. 이 예배공동체 개척을 계기로 태국과 미얀마 현지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더 많은 예배공동체가 세워져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산본안산공동체



## 타국에서 보낸 특별한 추석나기

### 서남아시아 복음의 등불을 밝히다

산본안산공동체는 지난 추석연휴 기간 동안 남아시아E국에서 뜻 깊은 추석을 보내고 돌아왔다. 김형희 목사(산본안산공동체)를 비롯해 공동체 리더십과 성도 등 4명이 팀을 꾸려 10년 이상 공동체에서 중보해온 선교사를 격려하고 선교사역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된 아웃리치다. 이번 방문에서 김형희 목사는 선교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 신학생들에게 선교의 관점으로 요한삼서를 강의했고, 팀원들은 그 지역의 땅을 밟으며 현지어로 된 전도지를 전했다. 빈민가 학교 사역 현장에도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준비해 간 학용품과 여러 가지 선물을 어린이들과 함께 나누었다. 특별히 이번 남아시아E국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사역이었다.

금요일에 주일예배를 드리는 이 나라 문화에 따라 오전 8시 모슬렘 개종자 예배에서 주일예배를 섬겼고, 또 다른 현지 교회 영어예배에서는 찬양 특수를, 저녁에는 세 번째 방문한 현지교회에서는 설교와 간증과 특수를 섬겼다. 그날 밤에는 현지 교회 목사 가족과 선교사 가족, 현지 교회 선교사 후보생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 기획연재

1.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2.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3.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4.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일본무국교회에서 CGNTV를 시청하고있는 성도들

## 땅 끝까지 이르러 열매 맺고 있는 CGNTV

한 사람이 있었다. ‘종합병동’이라 불리던 그의 쇠잔한 육체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아마존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갑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부름을 받고 뛰어 들어간 그 사람, 목숨을 걸고 뛰어 들어간 그 한 사람을 위해 CGNTV가 (전 세계에서) 방송된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고(故) 하용조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보다 강력한 ‘성령행진’을 써내려가기 위해 CGNTV를 세웠다. 그의 비전은 1만8000여 장기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생명력을 이어왔다. 다음 주일 교회 창립 28년을 맞아 CGNTV는 더 많은 후원자들과 더불어 온누리교회의 선교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정기후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태국 치앙라이 깊은 산속에 CGNTV 안테나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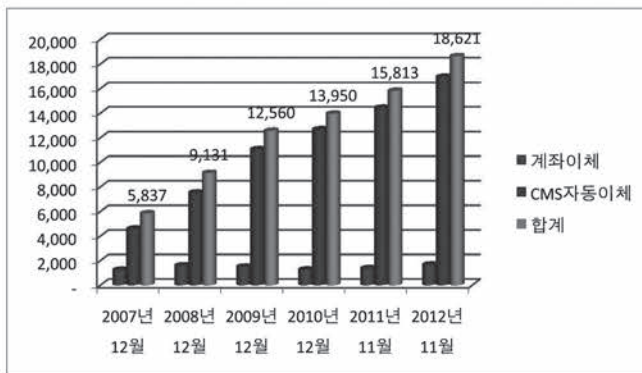
조경근 선교사, 브린다 머릴전부부(한국인 선교사와 결혼한 사모로 CGNTV에서 마리아행진 집회를 하고 사모 연합기도모임을 만들었다.)

“아마존에서 CGNTV를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CGN 사업은 예수님이 아흔이홉 마리 양을 우리에게 놓고 한 마리 양을 위해 오신 것과 같습니다. CGN은 곧 선교이자 동료선교사입니다.”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

CGNTV는 외롭고 갑갑한 선교사들을 위한 영적 생명수와 같다. 열대 우림의 아마존에서도 깊은 산속의 태국 치앙라이에서도 현지인들조차 기기를 꺼려하는 네팔 서부 코히람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되고 있다. 고국의 언어로 24시간 방송되는 CGNTV를 통해 선교사 가족들은 영적 해갈과 감동을 함께 느끼고 있다. CGNTV는 선교지 교회의 기도모임 태동의 계기도 제공한다. 네팔인 브린다 머릴전은 1년 전 CGN을 통해 전 세계에 중계된 마리아행진 집회에 참여했다가 현지 30여개 지역교회 사모들의 연합기도모임을 만들게 됐다. 그동안 전혀 상호 교류가 없던 현지 교회 사모들에게 CGNTV가 사랑방이 된 것이다. 브린다 사모는 “네팔에 있는 4000여개 교회 대부분이 미지급 교회로 주일학교 프로그램 및 영육 콘텐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CGN의 다양한 콘텐츠는 네팔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고백했다.

**한국 선교사 4명당 1명이 CGNTV로 영적 재충전**

### 연도별 정기후원자 수 추이(2013. 9. 23)



2007년 정기후원 런칭 후 꾸준한 증가 추세. 1만 8천명이 넘는 후원자들의 손길을 통해 CGNTV의 사업이 확장되고 선교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 세계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달려있는 CGN 위성안테나는 6800여대. 이는 전 세계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약 2만 4742명의 4분의 1을 넘기는 수치다. 한국 선교사 4명당 1명이 CGN을 통해 영적 충전을 받고 있다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캐나다 등 174개국에서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일본 CGNTV의 경우, 미디어 선교의 현지화와 교회연합이라는 이정표를 남기고 있다. 일본 전국 47개도현의 교회 네트워크가 완성됐다. 교단 교회의 벽이 높은 일본 목회자들이 CGN 때문에 교류와 일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전국 148개 교회, 1800명의 목회자가 일본 CGN에 출연하고

있다. 7년 전 CGNTV 진출 초기, 경계의 시선을 보내던 일본 목회자들이 어느덧 CGN이 ‘친구(Friend)’를 넘어 이제는 ‘가족(Family)’이 됐다고 평가한다. 또한 CGNTV는 목회자가 없는 700개의 일본 무국교회에서 예배가 지속적으로 드러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가와 츠키미치(아미토 갈보리교회) 목사는 “CGN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이자 선물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막힌 답이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CGN 프로그램은 일본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있다.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CGN을 시청한 뒤 교회를 다시 찾고 있다”면서 일본교회는 CGNTV에 빛진 지라고 했다. 유재건 CGNTV 대표는 “전 세계에서 들려오

### 선교지 설치 위성안테나 대륙별 분포

아시아	91.50%
아프리카	2.28%
북미	0.10%
중남미	1.24%
오세아니아	0.94%
유럽	2.83%
중동	1.11%
합계	100%

CGNTV 안테나는 일본 무국교회, 중국 가정교회의 설치 증가로 특별히 아시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중남미, 중동, 유럽, 아프리카권에 더 많은 안테나가 설치되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는 CGN의 열매는 온누리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있었기에 맺힐 수 있었다”고 밝혔다. CGNTV의 온 직원은 릴레이급식을 하면서 이번 정기후원 행사에서 최소한 신입 후원자 3000명, 중역 후원자 2000명이 늘어날 것을 기도하고 있다.

“하용조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CGN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선교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까지 말씀을 전하는 CGN은 ‘땅 끝 선교사’입니다.”

유 대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며 “이 비전에 함께 해주시는 성도 여러분 역시 ‘땅 끝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후원참여를 호소했다.

/ 함태경 CGNTV 기획경영본부장



**동역자모집**

★2013 CGNTV 정기후원 기념이벤트★

# 온 누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도 참여한다!!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찍어주세요!★

[땅 끝 선교사] [정기후원] [CGNTV]

**이벤트 참여방법**

- Step 1 CGNTV 방송을 보시다가 [땅 끝 선교사] [정기후원] [CGNTV] 문구 중 하나를 찍어주세요!
- Step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참여해주세요!

**온라인 참여**

촬영한 이미지를  
**Facebook에 올린다!**  
[www.facebook.com/cgntv](http://www.facebook.com/cgntv)

**오프라인 참여**

촬영한 이미지를 **10월 6일**  
행사 당일 **온누리 교회**에 가져온다!  
(온누리교회 전 캠퍼스에서 시행)

온라인 선물 선착순 30명\*

하윤조 목사  
40일회강론  
CD세트(30명)

CGNTV  
수입세트(30명)

참존 콘트롤  
크림(100g/20명)

\*이벤트 당일 온라인 참여는 선착순 30명입니다. 이벤트 당일 행사장에서도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선착순 30명

참존 콘트롤  
크림(100g)

\*이벤트 당일 행사장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니다

# 10월 6일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10월 6일은 CGNTV의 정기후원행사가 있는 날입니다.

"한 영혼! 아미존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CGNTV를 만든거예요"  
(브라질 하윤조 목사님 말씀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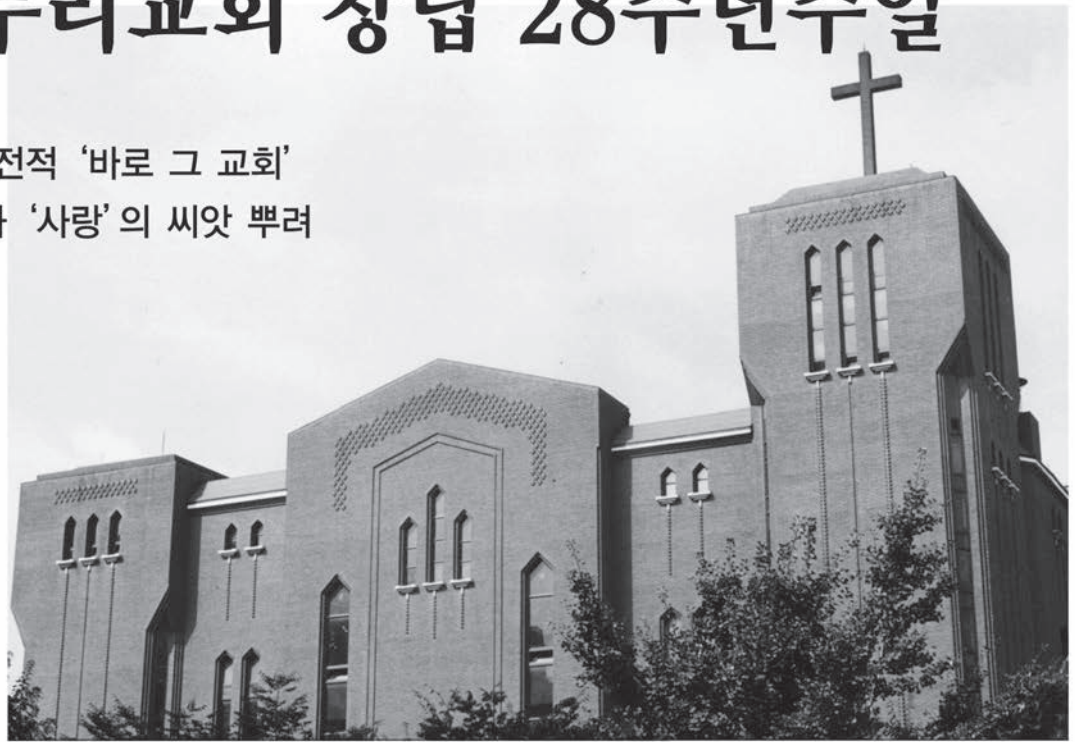
| [www.cgntv.net](http://www.cgntv.net) | 후원문의. 02)796-2243

01

# 오늘,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주일

이 땅에 세워진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교회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 뿌려

28년 전 오늘, 이 땅에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오늘이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창립 1985년 10월 6일)이다.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답게 일본에서 18회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개최, 선교사들의 영적 젖줄이 되어 주는 CGNTV 개국 등 28년 동안 온누리교회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다. 온누리교회는 국내외 교회와 세상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입당예배를 드리기도 전인 1987년 7월 12일 탄불도교회 기공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왔다. 세상에도 선한 영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1994년 결성된 '예수향기회'가 효창공원에서 한 식사봉사를 시작으로 1999년 8월에는 온누리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섬기는 7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온누리교회가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았다.

또 온누리간급재난구호팀(이후 램프온)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2010년 아이티 지진, 2011년 일본, 타기 지진 등 국내외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자원봉사로 참석해 피해 복구는 물론 재난 당한 사람들을 위로 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군마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집

일본에서 19번째로 올려 피자는 '러브소나타 군마'를 한 달가량 앞두고 러브소나타 본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군마는 오는 11월 13-14일 군마 베이시야 문화홀에서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CEO포럼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목사가 주강사로, 심수봉(가수), 김영미(소프라노), 배재철(테너), 신상우(피아니스트), 송솔나무(플룻연주자), 온누리장로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문의: 02-749-1149

03

##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땅 끝선교사 됩시다!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오늘(10월 6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된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에는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참여하면 된다.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는 CGNTV 후원안내 데스크가 마련된다. 이벤트도 실시된다. 오늘 방송, 신문, 배너 등에서 '땅 끝선교사', '정기후원', 'CGNTV' 중 문구 하나를 카메라로 찍어서 후원안내 데스크에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참존 콘트럴크립'을 증정한다. CGNTV는 매년 1회 정기후원 약정행사를 열고 CGNTV와 함께 할 '땅 끝선교사'를 찾고 있다. 문의: 3275-9212 <관련기사 12-13면>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3년 10월 6일 969호

- 01-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 주일(1면)
- 02-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집(1면), • 03-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1면)



## “탁구로 세계선교 갑시다!”

###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 23개 교회 연합

지난 10월 3일(목) 할렐루야교회에서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가 열렸다. Acts29탁구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23개 교회가 연합한 가운데 2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해 주님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예선, 예배, 본선, 결선 등으로 진행되었다. 결선에는 갈보리교회와 사랑의교회가 올랐으며, 갈보리교회가 우승했다.



Acts29 탁구연합회에서 주관한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23개 교회가 연합해 열심히 탁구경기에 임하는 모습.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는 개회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가 연합하기를 원하신다. 이곳에서 이뤄지는 교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연합’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신현규 목사(할렐루야교회 복지공동체)는 ‘영혼과 육체의 연합’, ‘교회간의 연합’, ‘선교지의 연합’ 등 세 가지 연합에 대해 강조했다. / 오은지 기자

#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1985년 10월 6일 한남동 기독교 선교원에서 드린 창립예배에는 8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 예배도 그 전 예배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창세기 일대일 공부' 부터 시작했다. 창세기 일대일 공부 후 예배와 성찬식이 이어졌고 식사와 교제를 했다. 그 후 가건물로 옮겨 오후 3시부터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조성목, 황재규 등 2명의 협동장로와 김정욱의 11명의 남자 집사, 허명희의 17명의 여자 집사가 임명되었다. 일주일 뒤인 10월 13일에는 첫 제직회가 열렸다. 10월 27일부터는 가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오후 7시 30분 주일 저녁예배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은누리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창립예배를 드린 후부터 새신자들이 매주 두 배씩 늘어났다. 이들을 위해 12월부터는 12주 과정의 새신자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 교육은 △새신자반 △구원반 △성령반 등으로 나누어 각 4주간 진행되었다. 새신자반에서는 사영리, 성령충만한 삶의 비결, 훈련, 은누리교회의 비전 등을 나눴고, 구원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반에서는 성경한 삶을 강조했다. 새신자 교육을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했던 까닭은 초신자가 다른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교회의 사역과 비전 등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교회를 선택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정의한 하영조 목사는 은누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떠날 것'을 강조했다. 예배나 집회에서 성도들에게 "건 된 교인은 떠나라"고 압박처럼 말했다. 따라서 은누리 성도들은 초창기부터 자신의 삶을 선교와 연관이 생각하는 데 익숙했다. 이것은 예수님과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교회론을 펼치고 있는 하 목사의 목회 철학에서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공동체, 둘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공동체, 셋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넷째, 천국의 열쇠를 가진 공동체이다.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교회는 첫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 둘째, 양육하는 공동체, 셋째, 그 안에 참여하는 공동체, 넷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 따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은누리 성도의 삶 자체가 선교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은누리교회는 창립예배를 드린 지 2개월 만인 1985년 12월 김여성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했다. 교회는 아직 가건물이었지만 11월 30일에 열린 당회에서는 1986년 700명 성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을 때였다. 1985년 1월 9일에는 본래 창립 선교사를 일본으로 파송했고, 그 해 9월 21일에는 정만영(피푸어뉴기니) 선교사와 김정환(영국)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했다.

은누리 성도들은 국내선교에도 힘을 모았다.



2천/1만 비전을 따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 파송이 잇따랐다. 1996년 3월 박종길 선교사 파송식 장면.



은누리교회는 입당예배도 드리기 전인 1987년 7월 12일, 탄복도교회 기공을 도왔다. 이렇듯 Acts29 비전은 창립 초기 때부터 썩고 있었다.



서빙고 은누리교회에 있는 머릿돌.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을 품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담긴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을 기록했다.

지금도 매립지가 된 시화공단에 예전에는 작은 성당이 있었다. 그곳에 있는 형도교회를 창립하기 전(85년 7월)부터 섬겼다. 성경공부 모임 4기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협력 사역은 1986년 이후 더 확장되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던 성도가 실제로 전도해 보기로 작정하고 그곳으로 간 것이 시작이었다. 그 지역을 돌면서 전도했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모임 회회가 없자 '새누리교회' '탄복도교회' '어도교회'를 탄생시켰다.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이 '7년'과 '떠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은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는데 7년이 걸리고 이 훈련을 다 마친 성도는 남아있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자연히 은누리교회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섬기게 되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

가 그랬던 것처럼...

'아이를 낳는 것보다 잘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 이 말들은 은누리교회의 양육 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탄생한 것이 큐티(말씀 묵상)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127명 모임 때부터 현재까지 은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두 양육 체계는 '떠남'이라는 은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예배 때 큐티 간증을 하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창립예배 후, 성도가 늘어나면서부터 체계적인 큐티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1988년 4주간의 큐티 훈련이 처음 시작되었다. 창립예배 이후, 큐티 간증은 주일 저녁예배나 수요일 저녁예배 시간에 계속되었고, 이것은 큐티나눔방의 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졌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통로가 큐티라면,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

화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하 목사는 교회 초기부터 일대일을 강조했다. 이는 일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의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산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은 은누리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큰 힘이 되었다. 1985년에는 일대일 지도자반이 시작됐다.

1985년 9월 28일부터 시작한 주일 성경공부에 큐티와 일대일이 포함된 이래, 이것은 새신자 양육을 위한 필수과정이 되었다. 큐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천만 명의 성도가 큐티를 하자라는 '천만큐티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두란노를 중심으로 큐티 전문사역자를 키우고 지역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여는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큐티와 일대일은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은누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져 헌신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큐티와 일대일이라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아 온누리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 40일 특별사역부흥집회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하용조 목사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선포했고, 온누리교회에는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감동함이 가득 넘쳤다. 이때 온누리교회는 일본을 주목했다. 2008년 10월, 일본 CGNTV 개국 때 일본 교회들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온누리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이다. 일본인을 위한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는 당시 일본에 한류열풍을 일으킨 ‘겨울연가’ 일본에서는 ‘겨울소나타’로 방송에 편성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리라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열란예배, 맞춤전도집회, 온누리축제 등을 진행하면서 문화전도집회를 진행할 수 있는 노후가 쌓여 있었고, 일본 CGNTV는 일본 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러브소나타는 조금씩 구체화되었다. 일본 요도바시교회의 마네노 다츠히로 목사가 한국을 방문해 하용조 목사와 비전을 나누면서 러브소나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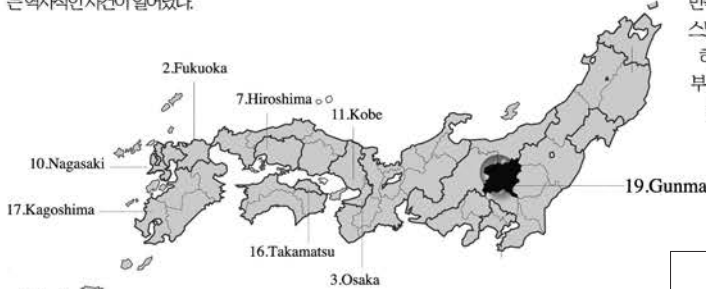
일본 현지에서는 ‘이런 대형집회가 가능한가? 연합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랑으로 다가가자 서서히 모든 장애물이 하나씩 걷어지기 시작했다.

러브소나타 집회를 준비하면서 복음과, 성령과, 장로교 개신교 성공회 등 일본의 교회들이 연합하기 시작했다.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부흥에 대한 갈망으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집회를 진행하면서 개교도 안 된 나라였던 한국과 일본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007년 오카나와를 시작으로 일본의 18개 도시에서 막 오른 러브소나타. 하용조 목사는 일본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러브소나타로 표현했다. 온누리교회 2기 사역에서도 러브소나타는 이어지고 있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 사진은 오카나와 러브소나타.

2007년 오카나와를 시작으로 막 오른 러브소나타는 일본의 최남단, 쿠슈지역, 시코쿠지역, 본토(본섬)지역, 홋카이도 지역, 18개 도시를 횡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수 놓았다. 현재까지 일본의 1,964개 교회가 협력했고, 일본인 참가자가 무려 53,171명에 달한다. 2506명이 결신하는 열매도 맺었다. 이번엔 인구 200만 명이 살고 있는 군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이 우치무라 간조의 가넨비가 신사(神社)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영적허탈이 필요한 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온누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참여에 함입은 러브소나타뿐이다.



러브소나타의 열매

No	지역	협력교회	일본참가자	한국참가자	총참가자	결신자
1	오카나와	76	2,075	422	2,497	173
2	후쿠오카	78	2,100	447	2,547	192
3	오사카	208	3,700	622	4,322	158
4	도쿄	380	15,684	5,007	20,691	339
5	삿포로	71	2,580	522	3,102	153
6	센다이	74	1,830	430	2,260	139
7	히로시마	86	1,862	265	2,127	112
8	요코하마	209	5,260	727	5,987	264
9	아이오리	62	1,440	316	1,756	34
10	나가사키	49	1,690	446	2,136	101
11	고베	141	2,097	329	2,426	130
12	나고야	130	2,400	492	2,892	139
13	아사히카	55	1,310	400	1,710	71
14	니가타	56	1,683	282	1,965	70
15	나가노	69	1,660	362	2,022	66
16	다카마쓰	67	1,891	292	2,183	113
17	가고시마	52	1,862	367	2,229	130
18	오카나와	101	2,047	366	2,413	122
합계		1,964	53,171	12,094	65,265	2,506

## 일본 CGNTV 개국행사 하용조목사 메시지

“일본 전도는 일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본을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일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민족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대안입니다.

하나님, 일본에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삶의 부흥을, 교회의 부흥을 주옵소서. 일본이 비참하기 원합니다. 오카나와에서 삿포로까지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 군마에서 온 편지

## “소망이 현실이 되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군마에서 2006년부터 개척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일본을 위해 수차례 러브소나타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척 감사드립니다. 군마에서도 러브소나타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계기로 군마지역의 교회가 하나 되고 군마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군마 러브소나타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습니다. 현지에서는 가스펠나이트 집회에 참가하는 연합전담팀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군마의 각 지역별로 매주 월요일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러브소나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위원 / 뉴와인스틴 그리스도교회 카나이 쿠미에 목사 드림



## 기도제목

- 10월 7일(월): 이재훈 목사의 말씀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 10월 8일(화): 한국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 10월 9일(수): 일본 현지에서 많은 협력교회들이 동참하도록.
- 10월 10일(목): 러브소나타에 출연진들이 성령충만하도록.
- 10월 11일(금): 교회부흥세미나를 통해 일본교회가 부흥하도록.
- 10월 12일(토):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10월 13일(주일): 일본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2013년 10월 6일 969호

- 01- 일본 러브소나타 소개(9면), • 02- 군마에서 온 편지: 카나이 쿠미에 목사(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위원)(6면)
- 03- 군마 러브소나타 기도제목(10.7-13)(9면)



정기후원 약정의 날-이재훈 목사와 함께



이재훈 목사

# “CGNTV는 온누리교회 선교의 결정체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일이자 CGNTV 정기후원 약정의 날이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됩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기후원 행사에 앞서 가진 대담을 통해 “CGN은 곧 온누리교회 선교의 결정체”라며 “CGN사역은 포기할 수 없는 선교적 과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각지의 후원액수의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선교에 동참한다는 공동체적 고백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목사로부터 CGN사역의 가치와 미래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교회 창립기념일에 CGNTV 정기후원행사를 갖는데요.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CGNTV의 가장 중요한 운영원칙은 복음의 메시지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기독교방송의 주 수입원은 설교방송을 내 보내는 대신 거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설교자나 교회에게 부딪시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이런 운영방식을 거부합니다. 첫째, 말씀 전달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증거는 재정적 거래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메시지의 질적 컨트롤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은 메시지는 결코 방송하지 않습니다. 셋째, 믿음선교(Faith Mission)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재정으로 선교를 하는 게 중요하기에 후원자들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고 자발적인 후원을 통해 CGNTV에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CGN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 꿈은 무엇 일까요. CGN에 대한 한국 선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데요.**

“하용호 목사님이 CGNTV를 설립하신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립돼있는 선교사들은 영적 재충전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영의 양식에 대한 갈급

함이 늘 있게 됩니다. 그라기에 CGN에 대한 선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제가 야마존을 방문했을 때 만난 선교사는 CGNTV를 통해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고 감사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외롭게 사역하는 선교사도 사하라 주변 국가들에서 위성방송이 가장 발달했기 때문에 필수 사역이라고 격려해주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선 선교사들이 후원금을 모아 방송국에 보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선교사 자녀들은 CGNTV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하기도 영적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 자녀들이 계속 지를 따라다니는 적이 있었어요. TV에서 본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더라구요(웃음).”

**-날이 갈수록 CGNTV 선교방식이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는데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채널이 필요하죠. 직접선교, 문화선교, 구제선교, 문서선교 등. 위성방송선교는 앞서 열거한 방법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채널입니다. 비자를 받기가 용이치 않은 이슬람권 지역과 선교사가 거주하기엔 너무나 열악한 지역에까지 위성방송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성방송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땅끝의 한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고 고백한다면 이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게 마땅하고 진정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GN의 효과는 날이 갈수록 선교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본 CGNTV 7주년 기념 감사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일본 CGN은 현지화 된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5년 만에 전국 47도현, 160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CGN을 통해 일본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GNTV의 외연 확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CGN은 순수성을 철저히 지켜나기면서 점진적으로 후원기반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온누리교회가 튼튼한 기초석이 되고 건강한 한국교회와 CGN의 비전과 사역철학을 공유해나기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보시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요. 보다 강화되기를 바라는 게 있으시다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그 다음은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피드백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제 자신의 영적 재충전을 위해서입니다. ‘하늘빛향기’ ‘반갑습네다’ 등도 주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현지어 방송들은 더 많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CGNTV는 다른 국내 기독교방송과는 달리 해외선교에 방점을 두고 있기에 현지어 방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게 매우

적절하고 적실합니다. 재정 부담이 더 많이 요구되겠지만 땅끝 선교를 위해 배움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당부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선 중보 기도자가 돼주세요. CGNTV 전 직원이 흔들림 없이 땅끝 선교의 비전에 온전히 충실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손길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현재 1만8000여명의 소액후원자에 의해 적잖은 재정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CGNTV에 추가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단지 재정 부담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부담을 함께 걸머지면 좋겠습니다.”



CGNTV의 또 다른 도전

#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되는 '러브 스토리'



단기간 내 일본 전국 47개도현 1600개 교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일본 선교역사에 있어 커다란 족적을 남긴 CGNTV의 새로운 기록한 도전이 준비되고 있다. '한인 선교사와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에서 '선교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방송'으로, '자민족 복음화를 넘어 지구촌 크리스천들과의 연대를 통한 세계선교의 완성'이라는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곳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고려하고 있다.

단일국가로는 최대 무슬림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적으로 전도가 금지되었던 이곳을 향한 CGN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에 기독교 방송이 있지만 시설과 인력 등 상황이 열악하고 양질의 콘텐츠가 절대 부족해 현지 크리스천들의 수요조차 맞추지 못하는 사전 리서치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이슬람권을 향한 새로운 미디어모델을 만들어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중인 적잖은 한국 선교사들이 CGNTV 인도네시아 진출을 내심 반기고 있

다. 김학진(자카르타한인연합교회) 목사는 "CGNTV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복음에 소외된 영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데 매우 적절한 선교매체"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이윤규 선교사는 "이슬람권 방송사역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며 "이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야말로 가운데 위성방송 때문이라는 간증을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게 반증"이라고 했다. 또 다른 선교사는 "CGN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때 미진 선교관에서 인도네시아 신학교 졸업생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명의 인도네시아 신학생들이 CGN을 통해 한국 교회의 예배 모습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다"며 "인도네시아어로 방송되는 CGNTV가 생기면 기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공고해지고 복음 전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CGNTV가 인도네시아 복음화는 물론 현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체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교회가 오순절 계통으로 이적과 은사 운동 등을 통해 성장해왔다. 최근 현지 사역자들 중 교회가 성장할수록 은사가 아닌 순전한 복음만이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미디어선교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엠시 라빈(예제기이 코린 예배당 시드르조교회) 목사는 "CGNTV가 인도네시아에 직접 진출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지 교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며 CGN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른 교회 지도자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다른 이슬람권 복음화를 위해서도 주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미래교회 지도자로 양성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선교사들이나 양질의 말보에 목말라하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CGN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페트로스 아궁(가스펠오브킹덤교회) 목사는 "더 많은 기독교 방송국들이 생기면 기독교인

나비가독인 모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GNTV는 기존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제작센터를 기반으로 해 이슬람의 영향력이 지대한 중동과 북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사역도 조신스럽게 확장해 나가기로 한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만혁명 이후 아랍의 이슬람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동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현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길 원하고 강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을 틈타 이슬람근본주의세력이 이슬람교에 의한 통치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선교사가 활동하기가 더욱 용이치 않다. 다양한 언어 사용(아랍어, 불어) 문제로 선교사들이 쉽게 자원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탓인지 인구 50만 명당 1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CGNTV는 이러한 제한을 뛰어넘어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보다 많은 위성안테나를 쉽게 볼 수 있다. 현지인들은 수백 개의 위성채널에 노출돼 있다. 방송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무슬림들의 안방까지 깊숙이 파고들어가고 있다.

CGN은 이런 상황을 심본 활용에 위성안테나 설치가 간편한 이들 지역에서 자체 안테나 보급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기존의 아부다비 제작센터를 통해 걸프만 지역 교회의 연합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아랍지역 중동과 아프리카 복음화의 전진기지로 삼아 아랍어 방송사역을 확대해나가기로 한다.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북서부 아프리카 국가와 기독교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영적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세력의 남진을 막고 유럽의 이슬람화를 제어한다는 세계 선교계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CGNTV 이적극동참할 계획이다.

CGN은 후원자들이 보다 늘어나면 현지화 된 프로그램이 더 많이 제작하려고 한다. 한인 선교사뿐 아니라 현지 사역자들에게 공히 탁월한 콘텐츠가 절대 필요하다. 아랍트, 요르단 등지에는 오랫동안 박해와 압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크리스천 그루터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양질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평신도를 교육할 만한 시설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CGNTV는 남미 지역 목회자를 위해 위성신학교를 운영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슬람권 현지 사역자와 평신도들을 위한 건강한 교회와 신학 정립에도 기여하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역중인 인도인 로렌스(뉴스) 목사는 "CGNTV는 삶의 올바른 가치를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갈거리 썩지 않는 믿음에 CGN이 참된 희망과 미래가 돼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와 사회에도 확장돼 CGNTV가 없어서는 안 되는 지식과 영성, 감성의 원천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정기후원 약정행사

| 정·기·후·원·약·정·의·날 |

# 오늘은

## CGNTV 정기후원의 날입니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 CGNTV 정기후원 기념이벤트

**참여 방법.** CGNTV 방송을 보시다가 '땅끝선교사' '정기후원' 'CGNTV' 문구 중 하나를 찍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참존 콘트롤 크림 (100g)

① 선착순 지급  
② 1인 1회 참여

[www.cgntv.net](http://www.cgntv.net)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01

## CGNTV 정기후원자 2만 명 돌파

### 정기후원 약정행사 3,849명 동참

CGNTV 정기후원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다.

온누리교회 창립 주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실시한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3,849명의 성도들이 참여해 신규후원 약정을 하거나 후원금을 증액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에 참여한 이병태·이금희 부부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후원행사에 참여했다”고 했고, CGNTV 개국 때부터 후원해 온 고덕훈 집사는 “CGNTV를 통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CGNTV 유재건 대표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땅 끝 선교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과 40일 릴레이 금식기도로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CGNTV 홈페이지(www.cgntv.net)나 전화(02-796-2243)를 통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 김남원 부장one@onnuri.org

02

## 온누리 핵심 가치 나누는 ‘비타민C 컨퍼런스’

### 동아시아A국 목회자, 리더십 160명 참석

지난 10월 9~11일 양재 드림홀에서 동아시아A국 목회자, 리더십을 위한 비타민C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에는 160명의 목회자 및 리더십이 참석해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교회론’을 주제로 강의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말하며, “교회에 대한 공격이 많은 동남아시아A국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사역해 열광으로 뻗어 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이번 집회에서 반태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목회철학을, 도육환 목사(이전선교)가 선교비전을, 이 외에도 온누리 핵심가치인 일대일과 큐티, 온누리 양육체계,



10월 9~11일에 열린 비타민C집회에서 동아시아A국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누리교회 핵심가치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CGN, 두란노, 아버지·어머니학교, 창조론 등의 사역을 소개했다.

한편 비타민C 집회에 참석한 목회자 및 리더십들이 부흥축제 기간 동

안 오전과 저녁집회에 참석해 데이비드 플랫폼 목사와 프랜시스켄 목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Love Sonata 기도제목

- 10월 14일(월): 일본 권기대회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참여하도록.
- 10월 15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 10월 16일(수): 모든 팀들과 스태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소서.
- 10월 17일(목): 러브소나타가 진행될 때에 좋은 날씨를 주소서.
- 10월 18일(금): 러브소나타의 모든 출연진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 10월 19일(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10월 20일(주일): 이재훈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02

정기후원 약정행사

## CGNTV와 함께 “땅끝 선교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지의 한 영혼을 살리는 방송,  
온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CGNTV가 되겠습니다.

Christian Global Network Television **CGNTV**

2013년 10월 13일 970호

- 01-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0.14-20)(4면)
- 02-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 후원 약정 감사 인사(13면)



01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지난 9일(수)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열렸다. 미주, 중국, 일본, 본부(시드니, 아부다비, 호치민) 등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 목회자 등 130여명이 모여 비전을 나눴다.

## 목회의 유일한 자원은 오직 '복음'

지난 9일(수)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온누리 부흥 축제 일정에 맞춰 열린 비전컨퍼런스에는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교회 목회자, Acts29협력위원회 장로, 자매결연 공동체 대표장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길 목사(Acts29본부장)는 30개 해외 비전교회와 장로, 국내 캠퍼스

포스, 본부장 목사 등을 소개하며 Acts29 비전컨퍼런스의 문을 열었다. 박종길 목사는 "해외 비전교회가 세워진지 10여년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귀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훈 담임목사가 '비전 나눔'

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어떤 곳에 있던 복음이 전해지면 그곳은 천국이 된다"라며 "어디에서든지 복음의 자원을 가지고 사역할 것"을 당부했다.

/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기자

02

## '비전 나눔'

온누리 해외 비전교회와 국내 캠퍼스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의 자원은 '복음'입니다. 온누리교회의 문화가 온누리의 자원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문화를 뛰어넘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비전교회는 온누리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고 국내 캠퍼스 또한 서울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전하는 교회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힘든 문화적 상황에 있더라도 복음을 전한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의 유일한 자원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의 성도들로 교회가 출발할지라도 복음만 잘 전달한다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유일한 자원이라는 생



이재훈 목사

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각도를 다지며 사역해야 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력 있는 성도, 도울 수 있는 청년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자원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축제에서 프랜시스 쉐넬 목사님과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초

청한 이유는 이분들에게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은 결국 '복음'입니다. 이곳에 모인 온누리 목회자와 리더십들이 이 부흥 축제 기간에 이 복음의 자원을 가지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03

### 해외비전교회 현황

비전교회	담당교역자	창립년도	창립일
대련	송대현	1996	10. 22
단둥	손신국	1999	04. 04
오사카	문봉주	2000	04. 23
동경	장재운	2001	04. 07
우에다	야마구찌 키요타카	2001	10. 27
야치요	권영환	2002	07. 03
얼바인	권혁빈	2002	10. 13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2003	01. 18
보스톤	정인홍	2003	05. 11
뉴질랜드	유현목	2003	06. 08
요코하마	김철희	2003	06. 10
밴쿠버	안광복	2003	12. 21
포틀랜드	곽성환	2004	05. 30
노스시카고	이기진	2004	06. 27
상해	이기복	2004	08. 29
괌	최용준	2004	11. 27
앵커리지	이민욱	2005	02. 17
시드니	이기훈	2005	05. 07
샌디에고	김성원	2005	07. 31
북경	강부호	2005	10. 16
뉴욕IN2	마크최	2005	11. 06
정춘	박시형	2006	05. 04
청도	노치형	2008	03. 03
나고야	요시하라 마나부	2008	05. 15
네이퍼빌시카고	이중재	2008	11. 23
아부다비	노규석	2011	06. 03
호치민	이중훈	2011	08. 21
산타모니카	김재석	2012	04. 28
뉴저지	마크최	2012	05. 06
교토	야마나카 토모요시	2012	05. 06

2013년 10월 13일 970호

- 01-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10면)
- 02-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말씀 : '비전 나눔' (10면), • 03- 2013년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 현황(10면)



# 온누리 순교열전

2000년 새해 첫날, 온누리교회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1993년 학원 선교와 제과제빵 사업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으로 파송된 박승철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박모세 선교사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온누리교회 첫 순교자가 되었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에 가족은 물론 온누리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순교의 이름을 온몸으로 느꼈다.

2004년 2월 21일, 온누리교회는 또 다른 순교자로 인해 슬픔에 젖었다. 김사무엘 선교사때문이었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2003년 9월 18일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아리크 땅에 들어가 그 해 10월 10일에 '아리크 한인 연합교회'를 세웠다. 김사무엘 선교사는 이 교회에 머물며 한인들과 현지인들을 돌보던 중 하루에 통증을 느껴 12월 한국에 돌아와 검사를 받던 중 혈액암 진단을 받고 곧바로 미국 조지타운병원에 입원해 투병했다. 수술 후에도 김사무엘 선교사는 바그다드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 늘 바그다드를 염려했지만 생전 소망대로 발립보서 1장 20-21절 말씀으로 천국환송예배를 드려야 했다. 김사무엘 선교사의 뜨거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온누리교회와 일본, 아리크, 중국 등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주었다.

1993년부터 1995년 6월까지 중국선교사로 언어 훈련과 교회 지도자 훈련을 해온 김사무엘 목사는 1995년 7월에 온누리교회 선교 목사로 부임해 온누리교회의 사역을 총괄했다. 1993년 C&MA 교단으로부터 일본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후 東京에서 시브이(教會)를 개척했고, 이후로도 吉川(Yoshikawa)복음교회(1993년), 市川(Chikawa)복음교회(1998년), 센겐다이교회(1998년), 成田(Narita)복음교회(1999년), 八千



2004년 6월 8일 몽골 도르노트 도립병원 2층에는 고 심재학 형제를 기념하는 도서관이 마련됐다.



1993년 4월 파송받아 2000년 1월 57세의 나이로 그가 품었던 중국에서 눈을 감은 박승철(박모세) 선교사



마지막 순간까지 바그다드를 떠올리며 선교의 열정을 불태웠던 김사무엘 선교사.

대(Yachiyo)복음교회(1990년) 岐阜(Gifu)열라이언스교회(1991년) 등을 개척했다.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교회 개척은 계속되어 온누리교회에 일본에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었다.

국내 선교지에서도 첫 순교자가 생겼다. 2004년 8월, 고 이태화 형제가 경남 하동 화개체일교회에서 아웃리치 팀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로 온누리 순교열전을 이어갔다. 고 이태화 형제는 선교사로 파송된 적은

없지만 순교자 반열에 올랐다. 2005년 6월에는 중국에서 사역하던 권소광 선교사가 교통사고로 소천했다. 권 선교사가 치료 받던 군인병원 복도에서는 하루 세 번 예배가 이어졌고,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찾아온 중국 현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같은 달, 창조과학회 1호 선교사이자 온누리교회에서 파송된 전광호 선교사의 소천 소식도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학원 선교를

하다 지병 치료차 들어왔는데 생을 마감한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인도네시아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창조과학회 요청을 듣고 육신의 안병을 과감히 뒤로했던 그였다. 한 일의 밑일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진리처럼 그들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밑일이 되고 있다.

## 당신의 뒤 따르겠습니다



김사무엘 선교사

김사무엘 선교사님, 그분은 예수님처럼 아담담고 감동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능력도 뛰어났고 성격도 강직하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 성령 세례를 받아 바로 주변을 정리한 후 41세 때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교 졸업 후 목회를 시작하지만 그분은 졸업하던 날, 하나님께서 주신 '7개 일본교회 개척'이란 비전에 순종하여 곧바로 선교지로 뛰어내리셨습니다.

**신학교 민학도, 선교의 젊은 열정 품고**

이제 와서 깨닫는 것이지만, 'ACTS 29'는 그

분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으로 달려간 그분은 시브이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7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시브이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일본 현지인 300여 명이 모여 경배와 찬양을 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하면 모두 5백명 정도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일본에서는 굉장한 큰 모회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김 선교사님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일본 사역을 접고 북한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북한, 중국으로 가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그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떠나 온누리교회 선교팀을 이끌고 북한으로, 중국으로 다니며 선교지경을 넓혀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명 좇아 아리크로**

아리크전쟁이 끝난 직후, 선교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리크로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내 주십시오"

그분은 청년들과 팀이 되어 아리크로 떠나셨고 곧 NGO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아리크는 반발하는 테러로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에게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지시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리크로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하리에 통증을 느끼고 귀국하셨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병원 2차 정밀 검사에서도 결과가 같아 곧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은 후 두 달 만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ACTS 29 비전 꽃피운 밀거름**

저는 고인을 추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9년 동안 김사무엘 선교사님은 인식년에도 이랑곳 않고 생명을 걸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복음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이려면 무조건 뛰어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순종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셔서 저와 교회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선교 사역도 많은 차질을 빚게 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이들을 영광중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순교는 ACTS 29 비전을 꽃피우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온누리 3만 성도는 그분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2천7만 비전을 꽃피우기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분을 좇아 금면류관을 바라며 죽기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하용조 목사

온누리신문 477호(2004.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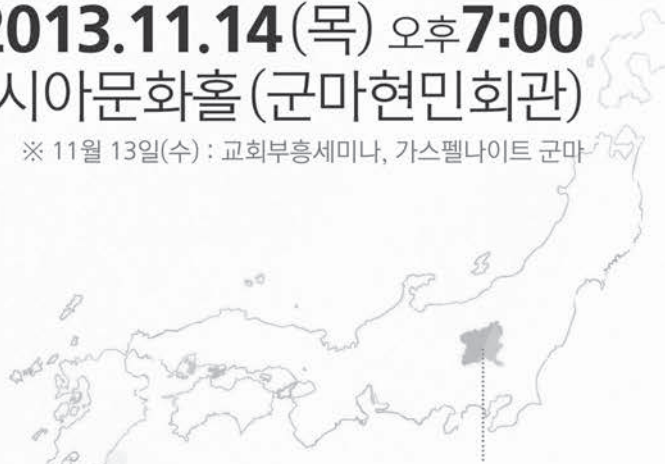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群馬

# Love Sonata 군마

2013.11.14 (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배재철  
(테너)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지마학교성가대  
(천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CGNTV Duranno

# 변화의 바람 불게하소서



## 과거 일본 기독교의 중심지... 지금은 영적회복 절실 오늘부터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추가모집

러브소나타 군마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천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를(최남단, 큐슈지역, 시코쿠지역, 본토지역, 홋카이도 지역) 횡단하고 본토의 중심부 군마에서 열리는 이번 러브소나타는 영적인 의미가 크다. 군마는 기독교 자치단체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의 활동이 왕성했던 곳이다. 일본에 기독교의 바람이 불게 한 지역이었다. 일본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준 믿음의 선배들도 많다. 일본 기독교 대표로 활동하며 공장제도 폐지, 여성교육 활성화에 앞장선 유야사 지로 장로가 출생한 곳이고, <회심기>의 저자로 잘 알려진 성서학자

우찌무라간조의 기념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유야사 장로는 1914년 조선을 황민화(皇民化)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인을 전도하라는 총독부의 지시를 교회가 제국주의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일화는 큰 감동을 준다. 유야사 지로 장로는 최초 한글성서번역을 한 한국 기독교의 선구자인 이수정 선교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날 군마는 우찌무라 간조의 기념비가 신사에 모셔져 있을 정도로 영적침체가 심각하다.

러브소나타를 준비하면서 변화의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일본 현지 스태프에 따르면 군마지역에서 열리는 교회 행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등 부흥예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오늘부터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금이야말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꽃과 꿀이 흐르던 군마의 영적회복을 위해 함께 가자. <관련기사 11면> 문의: 02-749-1149

/ 김남원 부장one@onnuri.org



01

### 7차 선교사 파송

**뵈뵈(갈렙) - 남아시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보아스나오미(아삭(장기) - 남아시아E국**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도록

**유애늑/사에스터(사랑, 믿음(장기) - 남아시아E국**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 하도록

**다윗/한나 선(준(장기) - 남아시아A국**  
 자녀들의 건강 및 적응에 어려움이 없으며, 예배자로 바로 설수 있도록

**정직함/정결한(한음(장기) - 아시아A국**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장기) - 남아시아E국**  
 사랑받고 존경받는 선교사가 되도록

02



## 청진기 들고 피지섬으로

### 시드니 온누리, 의료선교

시드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지난 10월 2일 피지로 의료선교를 갔다. 사역지는 비포장도로를 달경거리며 달리는 버스를 타고 3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한 초등학교. 이곳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 당뇨, 충치, 양성 종양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교실에 마련된 접수대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차례대로 치료를 했다. 한쪽에서는 두 명의 팀원이 아이들을 모아 놓고 성경이야기를 해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500개의 치약과 750개의 칫솔을 나눠줬고, 1,012개의 구충제도 전달했다.

디모디 추장은 “매년 큰 사랑을 베푸는 시드니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말했다.

/ 홍관희 집사

01

# 이곳이 우리가 섬길 선교지!

## 양재 권사스쿨, M센터 방문

양재 권사스쿨에서 진행 중인 와이미션에서 지난 15일(화) 온누리M센터를 방문했다. 146명의 양재 권사들은 손창남 선교사의 타문화 이해에 관한 강의와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의 M센터 시역소개, 주변지역 탐방과 각 나라별 음식을 체험했다. 손 선교사는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

라 M센터와 같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 곧 선교이다”라고 말하며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 김은 권사는 “이론으로만 듣다가 직접 와서 경험하니 이주민 선교에 대한 중요함이 더욱 와닿았다.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기도제목들을 세워 계속해서 중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부천

# 사도바울의 흔적 찾아 떠나다

## 여성사역 아웃리치

부천 여성사역에서 지난 9월 23일~10월 2일 9박10일 동안 중동A국과 그리스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사도바울의 흔적을 따라 시간을 거슬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16명의 아웃리치 팀원들은 이번 일정을 통해 사도바울의 눈물과 열정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 한 눈에 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신앙

이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현재 97%가 무슬림인 중동A국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어 살았던 지역 및 지하 5미터 깊이의 8층 규모의 지하도시를 탐방했다. 성도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았고, 해가 뜨지 않는 지하 동굴에서 일생을 보낸 신앙고백의 흔적을 엿보기도 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에베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시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던 지역도 방문했다. 과거에 가장 화려했던 도시였지만 지

금은 무성한 잡초 위에 남아 있는 돌무더기와 로마시대 양식의 기둥들만 남겨진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스에서는 온란한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고린도의 옛 유적지를 방문했다. 고린도의 화려함과 타락한 도시의 일상을 한 눈에 보면서 사도바울이 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교회를 바라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아테네에서 난민사역을 하는 한 선교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오페라 이후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리스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상당수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감탄했다.

아테네에서 출발해 베뢰아와 테살로니카를 거쳐 빌립보를 방문했다. 유럽 선교의 출발지이자 바울이 루디아에게 세계를 베풀 빌립보간기 테스(Cangies) 강가에서 성찬식을 했다. 소박한 강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진행된 성찬식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박하게 서 있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스쳤다.



부천 여성사역이 지난 9월 23~10월 2일까지 9박10일 동안 중동A국과 그리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 선교사 가족과의 교제

마지막 방문한 지역에서는 이제 막 사역을 위해 발을 내디딘 선교사 가족을 만났다. 매일 스피카에서 흘러나오는 애잔(무슬림들의 기도소리)과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는 수많은 모스크에 둘러싸인 무슬림 지역 선교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두 분의 긴장된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팀원 중 한 분이 후덕한 웃음을 지으며 세빛돈을 주듯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용

돈을 쥐어주는 장겨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바울의 흔적을 더듬어 본 짧은 아웃리치 여정을 통해 고목처럼 버려진 땅에서 움트는 생명의 씨앗을 보았고, 그곳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또한 복음의 빛진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문난희 자매 (부천 여성사역)



2013년 10월 20일 971호

- 01- 양재 권사스쿨 와이미션팀 : 온누리M센터 방문(5면)
- 02- 중동A국& 그리스 아웃리치 보고 : 문난희 자매(부천 여성사역)(7면)



# 세상과 함께 눈물 흘린 온누리

## 가시밭에 날린 예수항기 '그옥함 영원히'

1989년 하용조 목사와 장로 몇 사람이 미국 맨해튼을 방문했을 때 천주교 수사들이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았다. 귀국 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던 중 한 성도의 헌금으로 '예수항기회'가 탄생했고 몇 년 뒤 어느 부부가 이 사역에 적극 나서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원봉사자들의 지원도 쇄도하였다. 장소는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효창공원으로 택했다. 그리하여 94년 8월 28일부터 노인 200여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첫날 버스에 밥을 싣고 갔을 때는 "교회 밥은 절대 안 먹겠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노인들이 상당수였다. 봉사자들은 "저희는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밥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라며 설득했고 이후 몇 개월간 밥값 없이 밥만 대접했다.

사역 초기 이른바 '컨테이너 사건'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자되고 있다. 94년 11월 중순쯤 밥을 먹기 위해 노인들 200여 명이 추운 날씨에도 담벼락에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던 당시 진용환 집사는 용산구 청장울 찾아가 컨테이너를 놓게 해 달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구청장은 불가 입장이었다. 며칠 후 진 집사는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을 받고 이제는 시장질로 가서 눈물로 호소했다. 그날 저녁 구청장이 직접 찾아와 하락을 했다.

예수항기회의 활약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다. 1995년 6월 30일 일어난 삼중백화점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화재 중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도 있어 교인들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다. 무려 500명이 사망하고 837명이 부상당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삼중백화점 참사가 '부패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타락한 세상에 기인한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하지만 온누리교회는 밖으로 향한 손가락질을 거두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하시는 뜻에 먼저 초점을 맞췄다.

온누리교회는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달려가 주지 않은 믿음의 징표를 나타냈다. 당시 구조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 중의 하나가 구조대원들의 식사 제공이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온누리교회에 협조 요청을 해왔고 이에 따라 온누리교회는 대책회의를 가진 후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을 '삼중 사고 봉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나섰다.

이 기간 동안 23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2개의 대형 천막 아래에서 20여 명분의 식사와 간식, 약식 등 하루 24시간 제공했다.

예수항기회는 2001년 7월 천사의 날개를 접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항기회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예수항기회가 모래가 되어 온누리복지재단변인이 탄생했다. 온누리복지



2003년 2월 대형 교역자들은 대구 지하철 참사로 슬픔에 잠겨 있는 희생자들을 방문해 위로했다.



1994년 8월 28일 효창공원 노인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한 예수항기회. 7년 동안 2만 여 자원봉사자가 40여 만명의 식사를 섬겼다.



▲온누리복지재단은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예수항기회의 뒤를 이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 온 세상을 위한 교회를 표어로 내건 2005년 1월, 대학청년연합은 스리랑카를 돕기 위해 쓰나미지역을 방문해 방역,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재단은 2002년 4월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원을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중증 치매 노인들을 위한 동부노인전문요양원, 2008년 중증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양지 온누리요양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2009년 4월에는 청파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하면서 용산구 사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 및 장애인을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2002년 11월 학업 및 가정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군포 하나로 청소년 센터를 개원했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 변동 코어노니의 문을 열면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온누리 희망밥차,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자연치료센터 및 농림실습지, 온누리 가족 나무동산 등을 운영하며 예수항기를 흠뻑하고 있다.

### 램프온(LAMP ON), 세상에 희망의 빛 비추다

2003년 7월 18일 새벽 하용조 담임목사는 성인사역, 여성사역, 대청연합, JCS, 의료선교팀 등 온누리교회 모든 사역팀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온누리긴급재난구조팀 출범의 당위성

을 설명하고 행동 양식과 비전을 선포했다. 하 목사는 "재난이 일어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긴급하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온 세상을 향한 교회' 온누리교회 당회운영위원회는 온누리긴급재난구조팀을 상설기구로 출범시켰다.

온누리긴급재난구조팀은 이후 'LAMP ONNURI' (이하 LAMPON, 램프온)로 거듭난다. LAMP(Love And Mercy, Peace) ON은 Acts 29 비전에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인내가 겪고 있는 재난을 돕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 온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의 재난구조팀을 의미한다. 램프(LAMP)는 온 세상을 향해 비추는 등불을 의미하고, 긴급재난을 상징하는 사이렌과 같은 비상 신호의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지구촌 어느 곳이든 긴급 구조가 필요한 곳을 향해 신속한 구조의 손길을 내민다는 LAMPON의 전략을 담고 있다.

램프온은 2010년부터 긴급재난구조기구에 서 삼사시역제로 전환하면서 명실상부한 대사회 봉사기구가 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위한 준비로 2009년 12월 12일 강원도 정선 하늘문교회에서 '카지노 장기체육자와 함께하는 사랑 콘서트'가 개최됐다. 램프온

은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와 협력해 카지노 지역인 강원도의 도박중독 장기체육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봉사에 주력하기로 결정했다. 영적재난상태인 강원도 땅에 사랑의 콘서트의 의료선교를 통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강하게 선포되었다.

2010년에는 램프온의 사랑의 빛은 해외로 비추어났다. 1월 12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섬 나라 아이티에 70의 강진이 발생했다. 확인된 사망자 수만 17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이티 땅에 세계 각국의 구조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램프온도 현지에서 파견된 구조활동을 펼쳤다. 1월 24일은 의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의 의사, 약사로 구성된 램프온 긴급구조팀이 아이티에서 매일 3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램프온의 출범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은혜였다. 의료는 선교의 접촉점이다. 선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온누리교회는 21세기 사회봉사 없이 선교할 수 없다. 램프온은 이 두 가치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선교의 접점이다. 사회봉사와 의료를 통해 온 세상에 '어호와 리파(지유하시는 하나님)'를 의치는 램프온의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01

결기대회

# 군마는 지금 러브소나타얏이 중

## 현지 성도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 10월 14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에서 러브소나타군마결기대회가 열렸다. ‘힘차게 일어난다’는 뜻을 가진 결기대회인 만큼 대회에 참석한 21개 교회, 114명의 성도들의 각오가 결연하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위해 뜨겁게 부르는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집회에 대한 기대, 군마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갈망이 엿보인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한 달여 앞둔 군마 현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군마지역 교회 행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있고, 러브소나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집회에 대한 설렘에 가슴이 부풀어 있다.

실행위원회를 비롯한 현지 스테프들은 날마다 눈물을 뿌리며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다.

이날 결기대회에는 송승남우 형제가 특별게스트로 참석했다. 송승남우 형제의 연주와 간증을 들은 현지 성도들이 신성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카나이 타츠오 목사이세시키키리도교회/부실행위원장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 누구라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이토 요코 성도(뉴와인스킨그리스도교회)는 연주와 간증에 마음을 빼앗겨 주변 사람들에게 러브소나타에 함께 가자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정현주 통신원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 군마 현지 실행위원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러브소나타를 기대하고 있다.

02



### 기도제목

- 10월 21일(월): 일본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 10월 22일(화): 2000명의 일본인이 참여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 10월 23일(수): 스테프와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 10월 24일(목): 교회부흥세미나로 일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 10월 25일(금): 러브소나타 출연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 10월 26일(토): 일본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 10월 27일(주일): 이재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 결기대회를 마치고

#### “멈추지 않는 감동의 눈물”

“하나님께서 군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동안 군마지역의 교회들은 교단과 교파의 벽이 높아 초교파적인 교제와 중보기도모임 등이 없었는데 러브소나타 군마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다. 군마를 넘어 일본 구원을 위해 러브소나타를 개최해 준 한국의 은수리교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 오제키 키요코(안디옥가스펠처치 마에바시)

#### “가족에게 러브소나타를”

“아름답고 멋진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에 참석하면서 행복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평소 드리던 예배와 다른 분위기의 말씀도 좋습니다.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러브소나타를 소개할 것입니다. 저도 함께 러브소나타를 준비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진 모릅니다.”

/ 토베 알레(마에바시그리스도교회)

03

### 군마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

## 이수정 선교사와 유아사 지로 장로



이수정 선교사

지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쓰다(津田)와 친분을 쌓았다. 어느 날 쓰다의 방에 걸려 있던 한 문으로 쓰인 족자 가운데 성서에 나오는 산상수훈(山上勸諭)을 읽고 감명을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

1883년 4월 29일 동경 노월정교회(露月町教會)에서 야스기와 목사(安川)의 집례로 세례를 받고 일본에서 세례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

세례를 받은 뒤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중

이수정(李樹廷, 1842-1886)은 개척최초의 한글성서 번역자의 한 사람이다.

1881년 신사유람단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갔다가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

심으로 ‘신앙고백서’를 발표. 윤치호의 ‘신앙고백서’와 함께 한국 기독교 초기 신자의 신앙 양태를 대표해 주고 있다.

한글성서 번역사업에 착수해 <현토한신약전서>를 간행했고, 순한문성서인 <신약마가전복음서>를 번역했는데, 이 한글성서가 1885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언더우드(Underwood, HG)와 아펜젤러(Appenzeller, HG) 선교사에게 주어졌다.

유아사 지로(鵜飼治郎, 1850-1931) 장로는 이수정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다. 일본 군마현(群馬縣)에서 식품공업업을 하는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나 정계에 진출 군마현 의원, 중앙원 의장을 역임했다.

1914년 일본 조합교회(組合教會)는 총독부로부터 조선을 황민화(皇民化)하기 위해 전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때 일본 조합교회는 유아사 장로를 중심으로 이 일을 반대했다. 교회가 제국주의의 도구로 전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는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일에도 앞장섰다.



1885년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기독교대회에 참석한 이수정 선교사(앞줄 오른쪽 네번째) 그가 예수님을 영접 하도록 영향을 준 쓰다 센오른쪽 다섯번째) 그리고 유아사 지로 장로(앞줄 오른쪽 세번째)와 유명한 성서학자 우치무라 간조(앞서 두번째줄 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참석했다.

이 일로 일본 최초로 군마현에는 공창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또한 여성교육에도 발 벗고 나

섰다. 당시 일본에서는 여성교육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2013년 10월 20일 971호

- 01- 러브소나타 <군마> 결기대회& 결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 간증(11면)
- 02- <군마> 러브소나타 기도제목(10.21-27)(11면), • 03- 군마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 : 이수정 선교사와 유아사 지로 장로(11면)



# 끝나지 않은 'Blessing Sahara'

## NGO '더 멋진 세상' 아프리카에 새 생명을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

세네갈에서 머문지 30년. 하나님께 이끌려 다카르 한인교회에서 사역한지도 벌써 12년째다.

2012년 여름, 서부 아프리카에 붙어온 'Blessing Sahara'의 비행을 타고 세네갈에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던 이재환 선교사님이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님 일행을 모시고 오신다는 소식이였다.

이게 얼마만인가?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그분이 오신다나...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 1978-79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알게 된 김광동 장로가 NGO '더 멋진 세상' 사업을 위해 세네갈에 온다는 소식이였다. 김 장로님과 33년 만에 재회다. 서로 너무나 달라진 모습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것도 세네갈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다. 그렇게 NGO '더 멋진 세상'의 사업이 세네갈에서도 시작되었다.

###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본나바마을'

NGO '더 멋진 세상' 이 세네갈에서 사업을 전개할 곳은 본나바 마을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동역자를 준비해 두셨다. 우리와 동역할 주인공은 파울로와 루시 선교사 부부다. 그들은 어린이들 미구엘과 함께 본나바 마을에 들어와 현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와 함께 본나바 마을에서 질병퇴치, 주거환경 개선,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등을 하기로 했다.

2013년 3월 NGO '더 멋진 세상' 서울 본부에서 두 명의 사역자를 현지로 파송했다. 이제 세네갈에서 사역 중인 NGO '더 멋진 세상'의 팀원은 다섯 명으로 늘었다. 파울로와 파울로, 루시 프로젝트 매니저, 손희원 보건팀장, 김수영 교육팀장. 본격적으로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세네갈 본나바 마을은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랠리가 끝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정밀 및 소금 호수 'Lac Rose'가 유명하다. 호수와

대서양 사이를 비집고 들어선 모래톱 위에 3개 마을이 있다.

마을을 다스리는 제1촌장은 Mamouna, 제2촌장은 Baye Bala, 제3촌장은 Assane이다. 이들이 마을의 어른이자 관리자다. 사실 이 세 명의 촌장들은 BA씨 성을 가진 형제들이다. 본나바(Bonaba) 마을은 담수가 흐르는 지역에 사는 BA씨 집성촌이다.

### 생명 살리는 사업... 첫 열매 '우물'

바다와 소금호수 중간에 위치한 본나바 마을 한



우물공사 전

구석 모래땅에서 생수가 흘러 나와 작은 개천을 이루고 있다. 주민들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

본나바 마을은 호수와 해변 사이에 격리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행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4월말 면장을 만나서 본나바 마을 자원과 관련된 MOU를 체결했다. 이



NGO '더 멋진 세상'의 지원으로 위생적인 시설에서 식수공급을 받게 된 주민들.

후에는 상급기관으로 찾아가 군수에게 마을지원 사업을 약속받았다. 그들은 아구동성으로 우리에게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본나바 마을에는 2천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전기도, 수도도 없다. 물은 마을 군데군데 우물을 파서 마시고 있는데 수량이 적어 두레박으

에서 산다. 어린이들이 모래 바닥에서 먹고 자면서 살고 있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을 시작했다.

본나바 마을에는 정부에서 자여준 보건소가 없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보건소를 건립했다. 우리는 말라리아 예방 및 치료와 공급, 인과 질환 치료제, 배탈약, 상처 치료제 등을 구입해서 지원했다.

약품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필요했다. 그래서 마을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40여종의 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무료로 지원 봉사하는 봉사요원들의 생계도 도와주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도움으로 그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다 근본적인 질병퇴치 및 식수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우물공사, 방역, 마을 청소(쓰레기장 건립 예정)를 중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첫 열매로 우물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앞으로는 방역과 청소, 교육 사업까지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온누리교회에서 시작한 Blessing Sahara의 바람이 세네갈을 변화시키고 있다.

/ 백원경 지부장(다카르 한인교회 목사)



우물공사 후

로 물을 퍼 올린 물과 모래가 섞여서 올라온다. 그 후 탕물을 형질로 걸러 마시고 있었다.

마시는 물도 물이지만, 빨래는 어떻게 할까? 그들은 우물에서 나오는 적은 양의 물로 식수와 생활용수까지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항상 물이 부족했다. 우물 공사가 시급하다.

또 이곳 주민의 대다수는 갈대로 엮은 작은 움막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팀원들.

## "큰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후원해주고 중보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비를 내면서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은

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고 싶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캄보디아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이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 큰 사랑 받고 돌아가는 소반나린 올림

\* 소반나린은 지난 3월 서든 공동체가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가서 만난 18세 청년이다. 선천적 장애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가 심해졌다. 소반나린의 막대한 시연을 들은 NGO '더 멋진 세상'이 청년을 한국으로 초청해 건강을 되찾도록 도움을 줬다.

## 세네갈 지부 연혁

### 2012년

- 5월 : NGO '더 멋진 세상' 리더십 세네갈 방문 (김광동CEO, 김창욱본부장)
- 7월 : NGO '더 멋진 세상' 회장 세네갈 아웃리치 / 세네갈 지부 설립
- 11월 : 본나바마을(촌장)과 '더 멋진 세상' 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본나바 현지리더십(아주마) 초청 새마을교육 연수

### 2013년

- 3월 :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봉사단원 출국 (2명)
- 4월 : 연장 Mr. Diop과 본나바 마을 지원사업에 관한 MOU 체결
- 5월 : B/W 현지사무소 & 봉사요원 숙소 완공
- 10월 : 우물워터탱크 완공

2013년 10월 20일 971호

- 01-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우물 공사(12면)
- 02- 캄보디아 선천적 다리 장애 소년 '소반나린' 감사 인사(12면), • 03-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연혁(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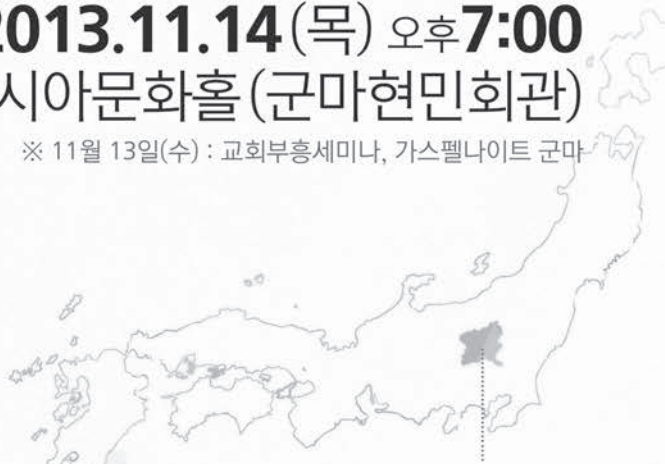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 Love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사

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은누리장로합창단  
(은누리교회)



나지마학교성가대  
(천양·핸드벨)



박진아작가  
(샌드애니메이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 | 협 찬 |



01

##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 OMO

11월 16일 두란노빌딩 101호, 예비 선교사 대상

예비선교사(후보생, 관심자 등)를 위한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Onnuri Missioary Orientation)이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열린다. OMO는 매년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온누리 선교사로서 허

입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선교 리더십 과의 만남 및 상담을 통해 선교에 대한 헌신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문의: 오찬영 간사(3215-3379)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KIBI, 특별 세미나

KIBI가 주관하는 요셉술람 목사 초청 세미나 '예레미야 강해', '유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둘'이 28-31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 ■ 요셉술람 목사 초청 세미나 '예레미야 강해'

28(월) 오후 2시, 저녁 7시30분, 본당  
29(화)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30분, 비전홀  
30(수) 오전 10시, 오후 2시, 시온홀

#### ■ 유대인이 들려주는 이야기 둘

- 하나 '유대인 자녀 교육법'  
31(목) 오전 10시, 선교관 301호  
- 둘 '이스라엘 땅의 성경적 의미'  
31일(목) 오후 2시, 선교관 301호

#### ■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Beyond Expectation'

일시: 2013년 11월 8일 저녁8시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문의 및 예약: (주)CMI 02-547-5694  
온누리교회 성도 20% 할인

03



### Love Sonata 기도제목

10월 28일(월): 이재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주소서  
10월 29일(화): 준비하는 모든 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10월 30일(수): 일본 교회가 러브소나타를 통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10월 31일(목): 러브소나타로 많은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11월 1일(금): 가스펠나이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11월 2일(토): 교회부흥세미나의 강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소서  
11월 3일(주일): 일본에 우상들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게 하소서

01

##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

### 육신과 영혼의 진정한 회복 경험



지난 10월 19~20일 진새골 이삭의집에서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가 열렸다.

아름다운 자연과 청명한 가을 날씨,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가 지난 10월 19-20일 진

새골 이삭의집에서 열렸다. 힐링캠프는 선교사들이 현장 사역가운데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이천선교본부

주관으로 열린 힐링캠프에는 한 팀 (team)이상 사역하고 안식년으로 들어온 선교사 16가정과 싱글5명, 선교사 자녀 17명 그리고 선교사 케어부원들이 참석했다.

첫날(19일)에는 웃음치료 '가위 비위보' 게임을 통해 두 시간 동안 마음껏 웃으며 서로 친근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손인경 집사(사랑채버) 간증 및 사랑채버의 감동적인 연주를 감상하며 마음까지 치유되는 것을 경험했다. 주일예배(20일)에는 도육환 목사(이천선교본부)의 말씀 선포 이후 성찬식을 가졌다. 예배를 마치고 보물찾기와 한방 치료로 육신의 고단함이 치유되는 회복을 경험했다. 오후에는 온누리 연합채버의 아름다운 연주, 가수 노사연 집사의 간증 및 찬양등이 이어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양지캠퍼스 TP(단기선교사)모집

단기선교사 TP(Turning Point) 24기가 내년 1월 13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에 지난주부터 모집이 시작되었으며, 12월 15일에 접수가 마감된다.

TP는 온누리 Acts29 비전에 따라 선교지에서 1-2년간 장기선교사역자와 협력하면서 선교적 진로를 탐색하기를 원하는 예비 선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선교지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 남아시아 H에 Nave 카페 오픈, 물품 후원 모집

남아시아 H국에서 Nexus사역을 하고 있는 조수아 선교사가 크리스천 카페 'Nave'를 오픈 준비 중이다. Nave카페는 아시아 58장 11~12절과 창세기 1장 7절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물건을 통한 동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졌다. 또한 카페를 통한 사역의 Platform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고용 창출을 위한 커피 직업 및 창업 훈련을 통한 지역사회 개발과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이 사업을 사용하고자 열게 되었다. Nave 카페에서 얻은 수익은 지역사회 환원과 지역 내 기독교 공동체의 후원 구조를 돕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Nave카페는 지역 사회에서 사역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아웃리치 및 사역의 참여를 홍보하는 모임 장소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 Nave카페는 현재 남아시아 H국 C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법인등록을 마친 상태다. 카페오픈에 앞서, 카페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모집하고 있다. 조수아 선교사는 “선교지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며 후원해주시는 무릎 선교사들이 있어 큰 힘이 된다. 선교사역에 함께 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던 물품 및 새로 교체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게 된 물품이 있으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현재 필요한 물품은 로스팅기, 카페용 에스프레소커피머신, 냉동테이블, 냉장테이블, 제빙기, 그라인더, 쇼케이스, 오븐기 등이다. 문의: 070-8638-6455(현지), 010-2181-3522(한국:10월 30일 이전) / 오온지 기자 oej@onnuri.org

02

##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

###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 등 참여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가 Acts29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되었다.

CPM(CHurch Pioneer Movement)은 ‘교회개척운동’으로 현재 장기선교사를 준비하는 OSOM 훈련생 및 안식선

교사 등이 참여해 훈련받고 있다.

오는 11월 1일까지 진행되는 CPM 훈련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개척 ▷재생산하는 교회 모델링 ▷재생산하는 전도단계 ▷성경적 모델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개척 전략 등의 교회개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오온지 기자

01

송파공동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이주민 선교, 공동체가 앞장서겠습니다!

## 아웃리치 받은 은혜 실천하는 '송파공동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예배공동체 섬겨

네팔 NCC교회 '비루 목사', 네팔 헤브론교회 '라이 목사', 스리랑카 뿌야빠디아교회 찬양 리더 '타랑가, 인도 '마크 선교사' ... 이들은 모두 한국 이주민 근로자였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힌두교 불교 출신의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들었고, 온누리

M미션에서 양육, 지원받아 지금은 각국에서 복음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기까지는 온누리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 이들을 각 나라로 역파송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현재 활발히 사역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후원이 연결되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수가 150만 명을 육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주민 선교는 더 이상 특수 사역이 아니다. 모두가 품어아할 사명이 되었다. 이 사명을 품고 이주민 선교에 앞장선 공동체가 있다. 송파공동체는 지난 여름아웃리치에 책임선교사가 있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예전에 한국인 이주민 근로자였고 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사실을 보고들은

송파공동체는 이주민 선교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에 돌아와 김요성 목사(송파공동체)와 리더십이 의논해 송파 자체들과 함께 이주민 선교에 앞장서기로 결단했다. 송파 자체들은 다락방월로 나눠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서부터 그 실천을 시작했다. 지난 13일과 20일 이주민들과 함께 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예배 현장 이야기다. / 조은실 기자 ces@annuri.org

02

축복의 시간, 스리랑카 예배

## 현지 사역 후원, 리더십 위해 중보 할 것

4개의 다락방(양선, 사랑, 소망, 충성) 40여 명의 자체들이 스리랑카 예배를 섬기기 위해 온누리M센터를 방문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감동으로 지체들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윤용국 목사(스리랑카예배)는 "공동체 단위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것은 처음이다"라며 "관심 가져주시고 섬겨주셔서 스리랑카 형제들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예배 후에는 서로를 축복하고 조를 나눠 다과와 함께 형제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생활의 어려움,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송파공동체는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만난 생활이 어려운 발터 형제를 위해 재정 후원을 하고 있으며, 현지 사역자인 가미니 목사의 사역활동에 힘을 실기 위해 차량 지원하고, 온누리M센터 스리랑카 예배 리더십을 각 다락방에서 입양해 지원 및 후원 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송파 자체들과 함께 스리랑카 예배를 섬길 예정이다.

■ 인/터/뷰 ■

### "이주민 통해 스리랑카에도 복음 흘러가길"

한국 이주민 근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스리랑카로 돌아가 놀랍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주민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스리랑카 형제들을 만나 함께 예배하게 돼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제가만 난두 형제 모두 집안이 불교라서 교회 나오는데 쉽지 않은데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

심을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이 형제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나라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 가지 못한 송파 자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 힘이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이광 성도



2013년 10월 27일 972호

- 01-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 · 인도네시아 예배공동체 섬김(6면)
- 02-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 예배 섬김 및 이광 성도 인터뷰, • 03- 송파공동체 : 인도네시아 예배 섬김 및 나점두 성도 인터뷰(6면)

03

자연에서 하나 된 인도네시아 예배

## 선교 사역자 배출을 비전으로

인도네시아 책임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온유, 희락, 화평 다락방이 안디옥 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와 함께 남한신성 목사의 집에서 예배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50여 명의 자체들과 35명의 인도네시아 자체들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자연을 만끽했다. 김요성 목사는 인도네시아 형제들에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이 한분임을 고백하는 것이다"라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을 섬기겠다"고 전했다. 이어 감동될 대 표장로는 "여러분이 한국에 온 것은 국가를 위해 온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 지금 함께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올 거라 믿는다"고 격려했

다. 예배 후에는 도시락으로 식탁교제를 나누고 야외에서 인도네시아 팀과 송파공동체 팀을 나눠 축구경기를 펼쳤다. 또한 이날 송파공동체 책임선교사가 그 자리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형제들과 송파 자체들은 곧 새로운 사역지로 나갈 선교사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카리스마 형제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고 섬겨주신 온누리 성도들을 통해 격려가 되었고 축복을 넘치게 받았다"고 감사를 전했다. 송파공동체는 현재 섬기고 있는 인도네시아 책임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안디옥 교회 인도네시아 공동체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중보 지원해 선교지로 역파송할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 "이주민들은 미래 하나님 일꾼들"

피부색은 다르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체육활동하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외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면 그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활동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함께한 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지

체들이 마음을 합하여 이주민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송파공동체 각 자체마다 이주민 선교에 마음을 쏟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나점두 성도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 신학, 교사론, 기독교 교육 등 온누리교회 교사들은 차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고된 교육과 훈련과정을 받아야했다. 사진은 1990년 여름 고등부 여름성경학교.

▶ 일대일 제자양육은 '교사와 제자'가 아니라 영적 유언을 나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강조한다.

▶▶ 초창기에는 예배시간에 각자가 큐티한 내용을 나누었다. 점차 성도가 많아져 오후 큐티 모임이 예배로 대체되었고, 이는 큐티 나눔을 위한 '큐티나눔방'으로 재탄생했다.



▲순예배는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써, 순예배를 인도하는 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순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점차 늘어났고 현재는 순장사관학교가 일차게 운영되고 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7년 된 교인은 떠나라" 이것은 온누리 성도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다. 이 '7년'과 '떠남'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온누리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훈련받는데 7년이 걸리고, 이 훈련을 다 마친 성도는 남아있지 말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다. 당연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섬기게 되었다.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낳는 것보다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목사는 코치, 성도는 선수다.' 이 말들은 온누리교회의 양육 체계를 잘 설명해 준다. 양육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후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탄생한 것이 큐티(말씀 묵상)와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127개 모임 때부터 현재까지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오고 있는 이 두 양육 체계는 '떠남'이라는 온누리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 변화되는 통로가 큐티라면, 일대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서로 변화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또 목사는 교회 초기부터 일대일을 강조했는데, 이는 일대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양육자가 성경과 정보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 영적 유언을 나누는 부모가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일대일은 온누리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로 묶는 끈이 되었다.

큐티와 일대일은 평신도가 주인공이다. 온누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해 전국, 세계 각처로 흩어져 헌신하고 있다. 이 중심에는 큐티와 일대일이라는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 순,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공동체는 '순'이다. '순'이란 문자적으로 줄기가 될 작은 싹을 뜻하는 것으로 성경공부와 교제 등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온누리교회는 1985년 10월 5일 창립되기 전부터 '순'을 가장 작은 단위로 삼아 교회를 준비했고, 그 순이 지금까지 온누리교회의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순을 포함하는 상위 단위는 어떻게 변천되어 왔을까. 온누리교회도 창립 당시에는 여는 장로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역' 조직으로 성도들을 배치했다. 그런데 1985년 이후, 교회는 교구 개념을 도입, '순구역(교구)'의 형태로 구성했다. 여러 순을 묶어 운용해 오던 '구역'은 1992년에 '다락방'으로 그 이름이 바뀐다. 이에 따라 교회는 새롭게 '순(다락방)교구'의 모습을 갖춘다.

1985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는 성도 1만 명 시대를 맞았다. 94년 성령사역을 선포한 이후, 온누리교회는 평신도 사역의 비중을 더욱 강화하며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좇아가는 '아래로부터의 목회'를 견지해 오던 중이었다. 97년에는 '아래로부터의 목회' 측면에서 '공동체' 개념을 도입하는데, 이 '공

동체' 개념은 '지역 교회'를 말한다. 이후 목회는 지역 교회에 해당하는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다.

각 공동체를 맡은 담당 교역자, 담당 장로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들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

담당 장로는 공동체에 속한 다락방을 담당 목사들과 함께 돌보며 운영하는 한편, 공동체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각 공동체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했다. 공동체의 사역들을 격려하고 점검하며, 공동체 내의 경조사를 담당하는 것도 담당 장로 몫이었다. 권사는 각 공동체 안에서 권사회를 구성하고 목회자의 심방을 돕는 역할을 했다. 또 경조사에 참여하고 공동체 내의 여성 리더십연찰 혹은 집사들과 함께 기도회도 임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평신도가 중심이 된 '아래로부터의 목회' 개념 차원에서 적극 추진된 것이며, 이때 갖춰진 '순(다락방)공동체'의 형태와 내용은 상당 부분 지금까지 그 골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온누리교회가 부흥기를 보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평신도 사역이 날로 변창하자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역할이 다양해졌다. 그것은 맞춤 목회의 시작이었다. 예를 들어 영적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성도를 위한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탈북민을 위한 한터공동체, 33-44세 청년을 위한 브릿지33+공동체, 코리아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

를 위한 15세공동체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누리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에도 공동체가 발 벗고 나섰다. 1999년 도입된 공동체 책임 선교사 제도를 올해 업그레이드 새롭게 발표했다. 업그레이드된 공동체 책임 선교사 제도의 골자는 >선교 사케이 강화 >공동체 선교 영상 확대 >공동체 내 다양한 선교 동원 등이다.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학교 교육

1985년 교회 창립 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주일 학교 학생들을 위해 헌신의 힘을 쏟았다.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등 다양한 성인 양육 과정이 있었지만 훈련 과정이 가장 길었던 것은 교사 교육이었다.

차세대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름사역이다. 차세대 사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부모교육, 교사교육 등을 한데 묶어 열방의 교사, 부모 차세대에게 전수하는 교사강습회와 영역별 캠프가 주인공이다.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를 표방하며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수요어머니기도회, 새 학기 종말 기도모임, 이외에도 어머니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와이즈마더링(Wise Mothering) 등이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매년 겨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소년이 되겠다는 거룩한 비전선포의 장 '패션(Passion)집회'도 차세대를 대표하는 주요사역이다. 패션의 또 다른 이름은 세상 문화를 선도하는 크리스천 문화축제다.



#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 구순 재미 원로목사 CGNTV에 후원금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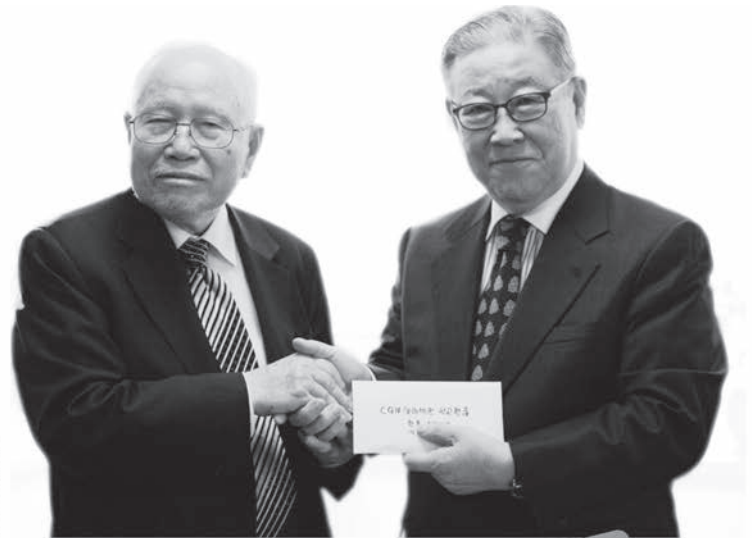
“저는 하용조 목사의 제자입니다. 하 목사는 세계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셨죠. CGNTV에서 접한 하 목사의 설교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죠. 제가 평생 견지해온 설교방식이었습니다.”

구순의 재미(在美) 노목회자 한은우 목사가 지난 29일 CGNTV를 찾아 심상치 않은 말을 건넸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로 다른 목회자를 감동케 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 아니다. 구순의 목사가 직접 대화를 한 적도 없는 후배 목회자를 스승이라고까지 하는 건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한 목사는 “CGNTV가 하 목사의 설교를 더 많이 전 세계와 나눠주기를 바란다”며 하 목사의 설교에 영감을 받아 최근 고국에서 구순 회고록 ‘예수의 사랑, 아! 예수의 사랑’과 설교집 ‘십자가의 도(상, 하) 등 3권을 출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그 고마움을 표하

기 위해 겨자씨선교회 제자들과 함께 CGNTV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겨자씨선교회는 2010년 한 목사의 목회적 영성과 비전을 계승하기를 바라는 제자(목회자)들이 장학 사업 등을 하기 위해 결성한 것

한 목사는 ‘강화 교동섬의 길에 다니는 사도행전’으로 불렸다. 1969년 서울동산교회 개척을 시작으로 국내 27개, 해외 6개 교회를 세우는 등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을 보냈다. 1981년 도미, 나성동산교회를 개척한 그는 한 평생 집 한 채 개인이름으로 가져보지 않았다. 은퇴 후 목회자 사택과 은퇴금 조차 교회에 바치고 가진 재산 모두를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젊은 시절 폐결핵 4기까지 갔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죠. 하 목사도 폐결핵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하 목사는 오직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강단에서 부르셨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둘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한 목사를 수행하고 CGNTV를 방문한 겨자씨선교회의 최홍욱(서부동산교회) 최대용(서부중앙교회) 박용배(강화벨레교회) 박승원(충만교회) 목사는 얼마 전 선교회에 들어온 미화 5000달러, 한화 500만 원을 한 목사의 제언에 따라 이날 유재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들 목회자는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있는 영혼을 위한 복음의 통로라는 CGNTV의 사역가치와 순수성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목사 일행은 CGNTV를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다. “CGNTV가 가는 곳마다 많은 심령들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 열흘 앞둔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 열린다

## 한국은 막바지 준비에 한창 7일 저녁 7시30분 두란노홀

러브소나타가 열흘 남았다. 그동안 군마에서는 실행위원회 모임과 큐티세미나, 결기대회 등 러브소나타를 위한 준비에 힘써왔고, 군마 지역교회 행사에도 이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등 현지는 이미 부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7일(목) 오후 7시30분 서빙고 두란노홀에서는 군마 러브소나타 참가자를 위한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이 열린다. 이날 박종길 목사양재 은누리교회가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러브소나타 본부는 “일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헌신하며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11월 13-14일 군마 베이스아 문화홀에서 열리는 ‘군마 러브소나타’는 일본에서 19번째로 올려 퍼지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다. 13일에는 교회 부흥세미나와 가스펠 나이트가, 14일은 CEO 포럼과 러브소나타 문화전도집회가 열린다. 문화전도집회 당일은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김영미 소프라노, 배재철 테너,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루티스트, 가수 심수봉, 은누리장로합창단, 니지마학교성가대, 박진아 작가(샌드 애니메이션) 등이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 참가자팀은 은누리 장로합창단과 CGNTV



일본에서 올려 퍼지는 19번째 사랑의 노래 ‘군마 러브소나타’. 11월 7일에는 러브소나타 참가자 모임이 진행된다.

운영위원회, 은누리복지재단이 함께하기로 했다. 천 개 이상의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군마. 군마는 유야사 지로 장로, 우찌무라 간조 등 일본 기독교 대표들로 잘 알려

진 곳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 만 쿠사츠, 미나카미, 아카호온천 등 손꼽히는 온천으로 유명한 집합처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Love Sonata 기도제목

- 11월 4일(월) 이재훈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11월 5일(화) 러브소나타에 일본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 11월 6일(수) 교회부흥세미나의 강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 11월 7일(목)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 11월 8일(금) 러브소나타에 가장 적합한 좋은 날씨를 주소서.
- 11월 9일(토) 준비하는 봉사팀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 11월 10일(주일) 일본교회에 하나 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01

# 외국인 피해여성 쉼터, 두레방 돕는 온누리영어예배

### 매달 한 번, 식사와 교제·나눔 가져

서빙고 온누리영어예배(OEM:Onnuri English Ministry) 인신매매사역팀 청년들이 지난 10월 26일(토) 두레방을 방문했다. 두레방의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쉼터로 평택에 위치해 있다. 두레방의 피해여성들을 섬기는 사역은 영어예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역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역에는 5명의 청년들이 피해 여성들을 만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두레방 쉼터,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레방 쉼터는 한국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쉼터입니다. 본 시설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특수한 지원 활동은 법률 지원과 귀국 지원입니다. 이외에도 의료, 직업/훈련, 치료 회복 프로그램 지원들을 통해 입소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에 못 이겨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 여성들을 직접 구조해 내기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한국인 성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들 피해자들이 한국 사회로부터 '이주민', '성매매 여성'이라는 차별과 낙인에 의해 더 이상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주위의 이웃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정확한 정보가 대중들에게 전달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한층 신장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성산업 현장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인신매매되어 괴로움을 당했던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탈출하거나 구조된 이후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범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극복하고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법적 시스템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신고 의지를 독려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그들의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지원활동에도 함께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수미 소장(두레방 쉼터)

후원 및 동참 문의  
mysisterhome@hanmail.net, 031-611-9025

02

간증

## “고통받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사랑을...”



지난 10월 26일 온누리 영어예배공동체(OEM)가 매달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마다 섬기는 두레방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두레방은 평택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곳을 마련해, 두레방 총사무실과 성매매에서 구조된 외국 여성들이 지내는 쉼터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문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즐거운 시간을 나눔으로 잠시 위안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면 삶의 혼란과 상처와 고통은 진정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방문할 때마다 외국인 자매들의 상황과 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 필리핀 여성들을 만나다

여성들이 외국 땅에서 겪는 외로움과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 소송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 공동체에서는 잠시나마 그들을 달랠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매달 방문해왔다. 외국 여성들이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하여 이번 달에는 특별히 목은지 감치와 함께 삼겹살을 먹기로 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그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길 소망하며 그들을 찾았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출석하시는 박석현 집사님도 같이 동참해주셨다. 집사님은 두 자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그때나 자신도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는데 한 필리핀 여성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터치하셨다고 고백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두레방 사역의 소망을 듣게 됐다. 앞으로 재정후원이 생길다면 소송으로 인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 여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보석 기술을 가르치는 수업처럼 기술을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단기로 체류하는 여성들에게는 커피숍과 같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다.

### 섬김의 손길 더 많아지길

한국에서 가수를 만들어주겠다는 사업가의 말을 믿고 비자를 받아 왔지만, 그 꿈이 썩고 그리 밋밋하고 성매매로 넘겨진 자매들, 지울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는 외국인 자매들이 한국에서만도 수천 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수천 명 중에 두레방과 같은 곳에 구조되어 오는 경우는 극히 소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 사역을 통해 만난 두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번 만남에는 피해 여성 두 명이 참여했는데 그들은 필리핀 여성들이었다. 한 여성의 자매는 고국에서 자매가 인신매매로 팔려가 행방불명했다고 했다. 그는 아직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여성은 두 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 있는데, 따로 떨어져 지내다가 벌써 2년이 다되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힘들어하고 있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섬기는 두레방 아웃리치는 작은 섬김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이나마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섬김의 손길이 더 많아지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상처와 고통의 해결이 절실했다. 우리 공동체 청년들이 방

/ 제이미노 자매



03

## OEM 자전거축제, 함께 달리면 후원금이 2배 고아·국제정의사역팀 후원 행사 열려



온누리 영어예배 청년들이 고아들을 위한 후원행사 '자전거축제'에 참여했다.

고아들을 위한 아름다운 후원행사가 열렸다. 지난 10월 29일(토) Cycle for Hope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3 가을 아라뱃길 자전거축제'가 열렸다. 한강 아라뱃길 자전거코스에서 모인 400명의 참가자는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아우라졌고, 각자가 선택한 16km, 40km, 80km의 자전거 코스로 주선했다. Jubilee, New Philly 등 서울 지역 영어예배성도들도 이번 행사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했다. Oak Tree는 후원 대상 청소년들을 행사에 조

대해 함께 자전거를 타며 축제를 즐겼다. 특히 이날 행사는 참가자들의 주행거리 1km당 500원을 적립하여 고아들을 위한 장학금재단 Oak Tree와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부의 국제정의사역팀(Hope Be Restored)에 후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Hope Be Restored에서는 국제인신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실태에 대해 알리고 관심을 높일 것을 촉구하는 부스를 개설하고, 참가자와 가족들에게 습시팅과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호응을 받았다. / 정지은 기자

2013년 11월 3일 973호

• 01-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및 두레방 쉼터 박수미 소장 인터뷰(7면), • 02-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간증 : 제이미노 자매(7면)  
• 03- 영어예배(OEM) 고아·국제정의사역팀 후원 위한 '아라뱃길 자전거 축제' 참가(7면)





## 선교지에서 온 편지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전세계 열방 각 선교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들은 목숨의 위협과 내전의 위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쳐가도록 몸을 바쳐 헌신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중앙 아시아 D국, 남아시아 B국, 동아시아 A국, 중동 B국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보내온 편지를 실었다.

### “프0000 마을에서 누린 연합의 기쁨”

국가명: 중앙아시아D국  
기후: 고산기후  
종교: 이슬람교, 러시아정교

무슬림 명절날 이곳 관습대로 식탁을 차려놓고 마을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했는데 반갑게 대 해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마당에 자라는 살구 나무와 자두나무, 산딸기, 블루베리를 따서 잼을 만들고 뒷밭에서 탄 채소들로 병절임을 해놓는 일을 이곳 마을주민과 함께 하다 보니 친밀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만난 친구 M의 고향에 다녀왔는데 해님 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삼각지,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보았습니다. 매주 목요일 M의 집에서 갖는 모임에서 T에서 사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기쁨

또한 감사합니다. 아내와 저는 지난 9월부터 매주 수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언어연수를 다니고 있습니다. 강사가 문화인류학에 관심이 많아서 언어를 배우면서도 이곳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편 조만간 한국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실은 컨테이너가 선적될 예정인데 선적에서 현지 통관과 설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중앙아시아D국에서 김OO, 영OO 선교사

#### 기도제목

- 현지어를 잘 배우고 익히도록
- 비닐하우스 자재의 운송과 통관, 설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정확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

국가명: 남아시아B국  
기후: 열대몬순기후  
종교: 불교(95%), 가톨릭, 개신교

지난 6월 29일-7월 8일에는 한국 대학생 해외 봉사단이 이곳을 방문해서 현지학교 세 군대를 선정해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프로젝트 2대를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한류문화 인프라를 각 학교에 구축해주었습니다. 이들의 주된 사역은 현지학교 보수와 천장, 지붕교체 페인트 벽화 그려주시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가장 큰 문화홀에서 한국과 현지의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27일-8월 2일에는 요셉청년부에서 총 14명이 방문했습니다. 또한 8월 10-15일에는 서빙고 JDS에서 9명도 방문했습니다. 이들이 저

희 사역자인 북쪽마을과 중학교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JDS팀은 중학교와 북쪽 마을에 빈 프로젝트를 이용해 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 신기해하며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에서도 이 두 팀의 값진 땀방울과 기도가 빛을 비췄습니다.

이들 방문 후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에 필요한 시설비와 임대비를 온누리교회에서 지원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남아시아B국에서 썬피, 정OO 선교사

#### 기도제목

- 홀리스타 태권도 사역장 허가서류와 비자를 잘 받도록
- 썬피 선교사의 눈에 영증이 속히 치료되도록

###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의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국가명: 중동B국  
기후: 지중해성기후  
종교: 이슬람(65%), 기독교(34%), 기타(1%)

시리아 내부 정세는 수도 다메섹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외곽의 기독교 지역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람어를 사용하는 마을인 마알 툴라가 반군의 공격을 받는 등 시리아의 기독교 지역들이 표표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에게 친정부성향이라는 것이 가장 큰 위협요소입니다.

이곳 현지 내에 난민이 2백만을 넘고 있고 그 중에 시리아 난민이 1백만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아로부터 난민들은 들어오고 있지만 중동B국 정부에서 UN난민기구를 통한 시리아 난민케어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강도나 도둑으로 이곳 치안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NGO 청소년 캠프와 여성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난민지원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매주 여성모임에 아내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여성들이 모여 복음을 통해 그 삶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온 아이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갈 나이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도록 인도 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장과 저희 부부의 하나 됨으로 삶과 사역이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 중동B국에서 이빛, 이섬, 라엘, 대니 선교사

#### 기도제목

- 현지 내각, 치안이 바로 세워지도록
- 아내와 자녀들의 거주지가 신장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 “북방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국가명: 동아시아A국  
기후: 대륙성기후  
종교: 라마교(90%), 이슬람교(5%)

기도해주신 덕분에 W가 동아시아C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를 듣고 정말 동아시아C국을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여행객은 전혀 없고, W에게도 안내인이 계속 따라 다녀 자유는 전혀 없었고, 사진도 모두 검사를 받아 통관된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C국 방문은 그 땅을 밟고 다녀온 것으로 감사해야 했습니다.

예정보다 오래 있을 수 없었고 동아시아C국 측에서 빨리 나가라고 해서, 인터넷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것을 꺼려해 빨리 내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NGO사역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후 1시간씩 바이블 칼리지 (전교인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

도들이 말씀으로 잘 준비되고,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청소년 비전스쿨을 시작합니다.

OOO교회 중교등부가 주축이 되어 이 도시안에 있는 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준비 중입니다. 10월 26일부터 8주 동안 진행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차세대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동역자들의 지속적인 중보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동아시아A국에서 한샘을 선교사

#### 기도제목

- 겨울 난방 및 보육시설을 위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도록

2013년 11월 3일 973호

• 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OO-영OO 선교사(중앙아시아 D국)(8면), • 02- 썬피-정OO 선교사(남아시아 B국)(8면)  
• 03- 이빛-이섬 선교사(중동 B국)(8면), • 04- 한샘을 선교사 (동아시아 A국)(8면)



#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

##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 등 40여 명 참여

지난 10월 22일~11월 1일까지 교회개혁운동(CPM) 세미나가 Acts29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열렸다. OSOM(장기선교사훈련)에 처음으로 도입된 CPM(Church Pioneer Movement: 교회개혁운동)은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으로, 198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미남침례교회 국제선교부(IMB)가 전세계 여러 선교 현장에서 특이한 교회들의 증가 현상을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CPM 전략의 주목표는 선교지에서 현지인 지도자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지도력을 이양하고, 교회가 빠른 속도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0월 22~11월 1일까지 은누리교회와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 CPM 전략을 도입해 선교사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교회개혁을

돕는 운동을 할 것을 권면했다.

CPM 전략 세미나 기간 동안 이곳에 모인 40여 명의 OSOM 훈련생, 안식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개혁 >재생산하는 교회 모델링 >재생산하는 전도단계 >성경적 모델이 되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개혁 전략 등 교회개혁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현장에 대해 좀 더 실질적으로 아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희 선교사는 "CPM 전략은 현지에서 전도 대상자 및 이웃들과 접촉을 한 다음 전도, 양육, 교회개혁 그리고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접촉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선교지 상황에 따라 접촉할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선교지 상황에 맞게 접촉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선교사들은 강의



비전빌리지 언더우드홀에서 개최된 교회개혁운동 세미나.

와 토의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접촉방법 및 전도방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이철희 선교사

### ■ 인터뷰 ■

## CPM, 사도 바울의 방법 적용하는 전략

CPM이 무엇인가요?(정의, 개념)

CPM은 'Church Pioneer Movement'의 약자로, 선교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해 교회개혁운동을 일으켜 폭발적으로 교회개혁을 이루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CPM의 과거: 배경 및 목적

두란노해외선교회(TIM)의 목표는 '교회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교지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교회개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어떤 전략과 방법을 통해 교회개혁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끝에 선교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전략을 알아보다가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에서 시작했던 CPM 전략이 현장 선교사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CPM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가 1980년대 이후, 선교전략훈련으로 가장 적합한 CPM을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현재 미남침례교단 국제선교부(IMB)에서는 5000명의 선교사들이 CPM 전략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CPM 세미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런 선교전략으로 교회개혁을 해야겠다는 예비선교사들이 적용하며 선교 사역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개혁운동'은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필요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모이고 기초양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준비 되는데도 빨리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전도하고 토착화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CPM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교사는 현지에서 '교회개혁'을 돕는 역할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목회는 현지인에게 맡기고 선교사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방법들을 적용하는 전략이 바로 CPM 전략입니다. 초기부터 현지인들이 전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양육 단계를 거쳐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고 또 다시 전도하고 개척하게 하면서 현지인들에 의해 교회개혁운동을 장려시키는 사역인 만큼 선교사들에게 필요한 사역입니다.

CPM의 미래: 앞으로의 방향

OSOM 22기에 CPM 선교전략을 도입해 훈련생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 이후, 이 선교전략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CPM 전략만큼 원리적, 실제적인 부분을 선교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개혁매뉴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정, 보완할 부분만 고쳐서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 보완할 부분에서는 CPM이 한국선교사에 의해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회 개척자마다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맞게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와 양육 시스템은 한국선교사들이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잘 개발해 적용하면 될 것 같

습니다. 은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비전이 있는데 CPM 전략이 Acts29 비전을 세워가는데 가장 가까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인/터/뷰

## “전도사역”에 큰 도전 받아

선교를 나가는 가운데 실금 자매인 경우에는 '교회개혁'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어렵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몰랐는데 이번 CPM 세미나를 통해 실금자매도 '교회개혁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개혁'이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전에는 전도, 양육, 교회

개혁이 모두 별개의 사역인 줄 알았는데 CPM을 통해 하나의 큰 그림처럼 그려졌습니다. 이번 선교훈련을 통해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를 나갈 때, 한 영혼을 반드시 전도하고 제자양육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김신화 훈련생(OSOM 22기)



하 나 님 의 사 랑 의 노 래 러 브 소 나 타

群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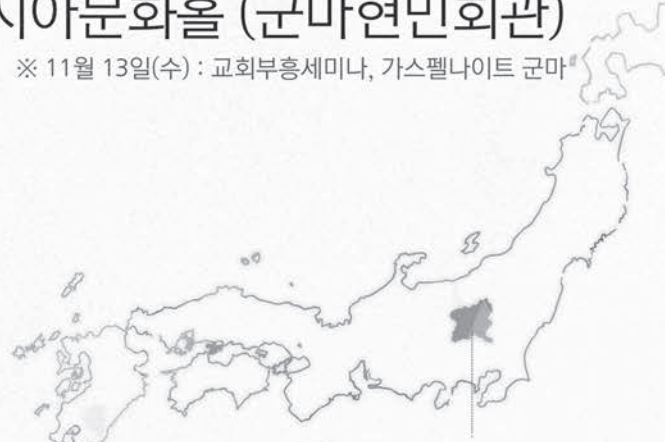


# Love Sonata 군마

2013.11.14(목) 오후 7:00

베이시아문화홀 (군마현민회관)

※ 11월 13일(수) :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나이트 군마



## Gunma

Main Speaker

이 재 훈 목 사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김영미  
(소프라노)



신상우  
(피아니스트)



송솔나무  
(플룻연주자)



심수봉  
(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온누리교회)



니지마학교성가대  
(찬양·핸드벨)



로봇다리세진이  
(수영선수)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참가자관리팀)

TEL. 02-749-1149 FAX. 02-749-0669 [www.lovesonata.org](http://www.lovesonata.org)

| 주 최 | 러브소나타 군마 실행위원회 [Onnuri](http://Onnuri.org) | 협 찬 |

01

# “하나님의 꿈 전하고 오겠습니다”

## 러브소나타 군마 11월 13~14일 60개 일본 교회 협력, 3200장 초청장 발부

지난 7일(목), 서빙고 두란노홀에 간절한 기도소리가 가득했다. 군마 러브소나타 참석자 모임이었다.

일본 땅이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석자들의 고백이 군마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다.

박종길 목사(양재 은누리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나눠지길 바란다며 말씀을 전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이동현 성도(성동광진 공동체)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웃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13일~14일, 일본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에서 19번째 러브소나타가 열린다.

13일(수)에는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14일(목)에는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인 ‘러브소나타’가 이어진다. 문화전도집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김영미(소프라노), 송솔나무(플루티스트), 심수

봉(가수), 은누리장로회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에는 봉사자 A팀과 B팀, CEO포럼, CGNTV아웃리치팀, 은누리장로회합창단, 복지재단 등이 참가한다. 각 참가자팀은 러브소나타 행사 일정 외에도 현지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A팀은 12일(화) 이세시키 그리스도 교회, B팀은 15일(금) 안디옥 가스펠 교회, CEO포럼팀은 14일(목) 오지마 그리스도 교회에 방문한다. CGNTV팀은 운영위원회 아웃리치로 진행되어 현지교회에 방문해 CGNTV 안테나를 설치한다.

군마 현지에서도 한국팀을 반길 준비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60개의 교회가 협력했고, 3200장의 초청장이 발부되었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베이시아 문화홀에는 3천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들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고 있다.

02



## 기도제목

- 11월 11일(월) 이재훈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소서.
- 11월 12일(화) 교회부흥세미나를 통해 일본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 11월 13일(수) 가스펠 나이트와 CEO포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 11월 14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 11월 15일(금) 일본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 11월 16일(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11월 17일(주일) 모든 일본 교회에 예배 부흥과 선교 부흥을 주소서.

2013년 11월 10일 974호

- 01-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임’ 및 개최 준비 보고(1면)
- 02-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1.11-11.27)(4면)



## “일본 곳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자”

### TIM Japan, 일본 선교전략 회의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 각각 양일간 일본 고베에서 두란노해외선교회(TIM) Japan 전략회의를 열었다. 고베는 1938년 수해, 1945년 미군의 대공습, 1995년 한신고베 대지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훌륭하게 복구된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다. 고베는 한신대지진 이전까지 일본최대의 항구이자 아시아 최고 항구 중에 하나였다.

이번 회의는 본부 및 일본에서 총 13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비전교회, 러브소나타, CGN 그리고 두란노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선교지역 안에서 TIM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개회예배에서 장재윤 목사(TIM Japan 본부장)는 사도행전 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목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셨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고 구원을 얻은 자나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일본선교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두가 발립처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들은 후, 이준총무(TIM)는 TIM의 설립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교회개척을 향해 매진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교회개척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s)을

예시로 들며,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단순한 모델이 선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도육환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는 “작더라도 급속한 세포분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되, 무교회 지역에 이런 운동을 시도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서구 선교사들이 모두 일본을 떠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CGN과 러브소나타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이 용단폭격을 했다면, TIM 선교사들은 지상군이 되어서 일본 곳곳에 교회,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교사들은 CGN과 러브소나타 등 그동안 온누리교회가 보내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일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체감하며, 일본교회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본선교를 넘어 선교일본의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모임을 마무리했다.

/ 양판석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TIM)

01

## ‘더 멋진 세상’ 만드는 따뜻한 손길

### 필리핀 보홀섬 지원 답사

온누리NGO ‘더 멋진 세상’ 에서 지난 11월 5-8일까지 필리핀 보홀섬 긴급 지원을 위해 답사를 다녀왔다.

지난해 10월 15일 필리핀 남부지역 세부섬과 보홀섬에서는 진도 7.2도의 지진 피해로 33회의 여진이 일어나 이곳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보홀섬은 온누리 선교사 사역지로 00 선교사가 1995년 5월에 파송된 지역이다. 이번 피해로 인해 183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실종되

었으며, 583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34,5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22곳의 교량이 붕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 멋진 세상(온누리NGO)이 현지 선교사로 부터 긴급 지원 요청을 받고 비상식량 및 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식량은 6명을 기준으로 한 가구 당 1pack(2일분)으로, 쌀 2kg 라면 3개, 통조림 3개, 식수 4L 정도를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1일 오리엔테이션

###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일 오리엔테이션 OMO(Onnuri Missioinary Orientation)가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열린다.

예비 선교사들을 위해 열리는 OMO는 매년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온누리 선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OMO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로서 허입 되는 과

정을 이해하고, 온누리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선교에 대한 헌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온누리 선교정책 및 선교 단체와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등을 한다.

\*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03

## TV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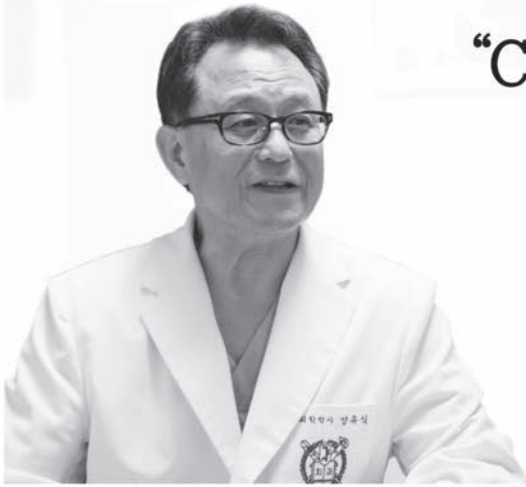


### ▷ 군마 러브소나타

- 11/16(토) 오후 9시50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일본 군마 현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러브소나타 군마' 실황입니다.





CGNTV가 만난 사람 / 당회 서기 양유식 장로

## “CGNTV는 하나님의 꿈나무입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후원 대열 합류하기를

“콘텐츠 면에서 CGNTV가 타 기독교방송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데도 한국 교계와 크리스천들에게 아직 덜 노출돼있는 것 같아 아쉬워요. 현재 IPTV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지역 케이블TV에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회 서기인 양유식(서울 스타일치과 원장) 장로는 바른 일과 속에서도 CGNTV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며 CGN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거 프로그램 가운데 이무석 교수가 진행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세미나를 재미있게 봤다는 양 장로는 요즘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등 알찬 프로그램에 흠뻑 빠져 더 많은 애정이 생겼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지난달 교회 창립주일 CGNTV 후원 약정행사를 통해 후원자 2만1000명 시대를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은누리교회 교인이라면 어린이들까지 모두 CGN 땅끝(후원)선교사가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후원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로는 초창기 은누리교회의 2인 멤버이다. 교회가 정식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에 1984년 10월 한남동 햇불회관(한국기독교선교관)에서 시작된 127정, 성경공부 1기에 이어 2기로 합류했다. “초기 하용중 목사님 설교는 평균 1시간 정도였어요. 오전 예배를 드린 뒤 그룹별 모임을 갖고 전 성도가 함께 점심식사와 교제를 나눴죠. 오후에도 성경공부가 이어지고...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 모임도 따로 있었어요. 그야말로

은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유기적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였죠” 양 장로는 “당시 하 목사님이 ‘이제까지의 직분이 무엇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생활을 하자’고 제안해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 대신 모두 형제, 자매로 불렀다”고 회상했다. 초창기부터 하 목사와 함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설명이다.

양 장로는 “교회의 성정에 따라 정형화, 조직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와 교인, 목회자와 목회자, 교인과 교인 간격을 보다 좁혀나가는 소통과 공감, 실천의 장을 조성하는데 은누리리더십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달 전교인 의식조사를 한 이유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 교회 차원에서 최초로 이뤄진 의식조사 결과는 표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나올 것 같다”면서 “시대와 세대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복음의 원초성과 은누리교회의 사역가치에 보다 충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장로는 “2015년 교회 창립 30주년에 앞서 하 목사의 영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2기 이재훈 목사의 창조적 사역에 맞도록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회 비전과 실천 방식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회 내 인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선교위원회, 미래성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소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 장로는 은누리교회 밖에서는 의료선교전문가로 불린다. 특정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은 없지만 치과의료선교회, 한국기독교의



의료선교회 등을 통해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인 프리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1961년 미국 남장로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20여 년간 한국에서 치과의로 선교사역을 감당한 유수만(Dr. Dick H. Nieuwma Jr.)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1982년 3월에 설립된 치과의료선교회 회장으로 10년 넘게 봉사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7개 의료선교단체가 가입돼있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한 뒤 광주기독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유수만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 치과계는 일본식 교육 영향을 받은 터라 대학병원조차 서양식 의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명문의 미시간대학교 치과대 출신의 유수만 선교사는 저에게 선진 의술을 전수해준 은사일 뿐 아니라 의료선교에 눈을 뜨게 해준 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유수만 선교사는 수련받기 위해 내려온 제자를 교회로 인도했다. 찬송가도 잘 모르는 그를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했다. 소년원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심적 부담감을 느꼈었지만 병원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몸으로 구현해내는 스승의 전인적인 삶을 목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게 됐다.

1986년 스승이 미국으로 떠나자 치과의료선교회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감당하게 됐다. 치과의료선교회는 설립 초기 10년간 난지도 저소득 주민 이동진료 등 국내활동에 주력했다. 양 장로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해외 현지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선교회원과 함께 음악선, 추석 연휴 단기의료팀을 보내 진료사역에 나서는 등 국외로 눈을 돌려 ‘전민인 해외선교’에 앞장섰다. 치과의료선교회는 현재 10가정의 선교사를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미전도 지역에 파송했다. 67가정의 선교사역자와 협력과 후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 의료선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1994년 6월에 치과의료선교센터를 개원했으며 부설 사랑의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자들을 위한 진료도 도외시 하지 않았다.

양 장로는 인터뷰 말미에 “CGNTV가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꿈나무라고 믿는다”면서 “은누리교회가 물을 쥐 뿌리를 공고하게 내리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한국 크리스천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 기독교아스포리가 썩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동역자로 합류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대지진 그 후

##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한다”

후쿠시마현

이와카시를 다녀와서

지난 2010년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다. 그날 이후 일본을 위한 기도의 관점이 달라졌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다 매주 화요일에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는 중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지역을 직접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후쿠자와 목사님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준비했다.

지난달 27일 후쿠시마현 이와카시 침례제일교회와 가설주택을 방문했다. 아침에는 좋지 않던 날씨가 사역지에 도착하자 구름 한점 없는 화창한 가을 날씨로 바뀌었다.

그곳 사람들도 동경과 별반 다른 것은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흩어져 살면서 생기는 갈등으로 이혼율이 급증했다고 한다. 마음이 아팠다. 물자들은 채워졌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고독함과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 하루 하루를 살고 있다는 현지 사람의 이야기가 가슴을 때렸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한다. 사람들

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는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긴다. 그들이 생명의 하루를 보내기를 간구한다.

/ 장은임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01

##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더 멋진 세상,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지난 11월 9일, 사상 최악의 슈퍼태풍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하면서 1만여 명의 사망자와 95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은 지진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인 보홀(Bahol) 섬의 칸다비드(Candavid) 마을에 비

상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파괴된 주택 106채를 신속할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3일 뒤, ‘하이옌’이 필리핀 중부를 강타해 도로는 잿더미로 변하고, 전기, 물 등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이곳에 태풍의 피해 규모와 범위가 점점 더 크게 확대되면서 ‘더멋진세상’이 긴급구호팀 파견을 검토 중

이며,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지에서 보고되는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도로 표지판을 볼 수 없게 되었고 바람에 날려 갈 정도로 태풍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하다.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곳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온누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10면으로 이어짐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풍성한 열매 맺힌 ‘러브소나타 군마’

지난 13일~14일, 기독교의 중심지라 불렸던. 그러나 지금은 영적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마 땅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셨다.

군마 러브소나타에는 일본 참가자 1,750명, 한국 참가자 216명, 한일 스텝 190명 등 총 2,156명이 참석했다. 이번 러브소나타에서는 254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304명이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살

겠다고 재결심 했으며, 3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 11명이 성경공부에 관심을 보이는 등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거두었다.

또한 군마현의 63개의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온누리장로회합창단, CGNTV실행위원, CEO포럼, 복지재단 등이 참석해 러브소나타가 더욱 빛났다. ▶5-9면으로 이어짐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3

## 더멋진세상, 몽골환우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지난 11월 14일(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초청한 몽골 현지인 나랑토야(49, 여) 성도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인천 공항에 입국했다.

나랑토야는 2년 전 현지 CCC 간사로 봉사하던 남편과 함께 전도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동행한 간사 3명이 사망하고, 그녀와 남편, 자녀들 역시 부상을 당했다. 그 당시 운전을 했던 남편은 과실치사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나랑토야성도는 분당 순병원으로 옮겨져 왼쪽 다리 금속고정술 및 골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2차 치료를 마칠 때까지 약 2개월 정도 한국에 머물 예정이다. 더멋진세상본부는 “치료기간 동안 몽골어가 가능한 자원봉사자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오희종 집사(010-2244-1500), 더멋진세상 02-2271-2246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희망의 등불, 군마 땅을 밝히다



## 선교의 시작 러브소나타, 일본전역에 복음의 바람 일으키소서!

일본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군마'. 일본 중 심부에 위치한 군마 땅에 희망이 빛이 비추졌다. 방사능 피폭 위험과 영적 침체라는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희망의 등불이 밝혀졌다.

13일~14일, 군마 베이시안 문화홀에서 열린 러브소나타는 일본교회의 연합과 군마 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군마현의 63개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로 하나 되었고, 1,700여 명의 일본인 참석자 가운데 254명이 러브소나타 집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44명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했다. 또한 304명이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기로 재결심하는 귀한 열매가 맺혔다.

### 하나님의 평화 흘려넘친 러브소나타

이틀 동안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졌다.

예수님이 주신 되시는 교회, 아름다운 가정, 복음과 창조와 메시지로 함께 비전을 나누는 '교회부흥세미나, 찬양과 기도로 물든 '가스펠 나이트', 한일간의 연합을 다진 'CEO포럼', 일본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은 "한국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회생을 치르며 군마 땅까지 찾아와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

회에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넘치길 바라며, 군마의 변화가 일본 전역에 복음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것을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재훈 목사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통스런 과거는 은혜로,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변할 것이다"라며 함께 미래의 희망을 그려갔다.

### 사랑의 노래, 사랑의 고백

러브소나타 일본 참석자들의 고백으로 러브소나타가 더욱 아름답게 물들었다.

사촌이 전도해서 오게 됐다는 이노우에는 "집회가 너무 아름다웠고, 목사님 말씀처럼 후쿠시마 방사능 지역의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고, 교회 처음 왔다는 유키야마 미코는 "나자마 학교의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에 감동받았고, 예수님을 전혀 몰랐는데 어떤 분인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며 믿음의 마음을 열었다.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왔다는 이나후쿠 다이시는 "한국 사람이 이렇게 일본사람을 사랑하는지 처음 알게 되었고 너무 인상적이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확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라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것을 다짐한번 다짐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 고통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고 포기할만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들은 희망을 봅니다. 진정한 희망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 절망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곳 군마 한에도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호시노 도미히로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체육교사로 일하다가 사고로 얼굴을 때고 온몸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절망이 그분을 덮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후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며 수많은 일반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절망, 슬픔, 불행 속에서 사랑과 진실,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도미히로 선생님이 불행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 진실을 발견한 비결을 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세진이가 절망 속에서 희망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영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 과거가 은혜로, 미래가 희망으로

세진이나 도미히로 선생은 절망하는 과거를 넘어 희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과거가 주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행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기억을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과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믿음을 더하면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믿음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불행한 과거 속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런 과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은혜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불행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셔서 사는 것입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을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믿음을 더하면 그것은 '희망'이 됩니다. 미래+믿음

은 희망입니다. 하버드대학의 엘렌 랭어(Langer)라는 유명한 학자가 1979년에 신기한 실험을 했습니다. 70-80세의 어르신들을 시골의 한 집에 모았습니다. 그 집에는 20년 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분들은 20년 전의 나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20년 전으로 고정시키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단 일주일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분이 더 건강해지고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고 3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87세의 사람에게 50대라고 이름붙이고, 30년 전의 사진과 뉴스를 보게 했습니다. 몸이 좋은 약을 먹거나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실험 집에 들어올 때는 걸을 때 혼자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험 결과 의사들이 어르신들의 몸을 감진해보니 모두가 더욱 건강해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시계를 20년, 30년 전으로 돌렸을 때 육체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마음의 시계를 미래로 돌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마음의 시계를 '영원'이라는 시계에 초점을 맞추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스런 과거는 은혜로,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희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도 그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진짜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을 넘어 영원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놀라운 능력과 결과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영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롬 8:24-25).”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희망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no pain no gain)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말입니



이재훈 목사

다.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는데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 최고의 희망되신 예수님

사람은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 건강, 사회적 지위 등에서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희망을 준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그분이 세상의 희망입니까?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죽음을 이

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뒤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다”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내가 죽을 가운데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역사상 죽음 가운데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드리고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죽지는 않지만 서서히 죽게 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없다면 절망에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든다면 우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도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미래는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은 인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무엇이 일어날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닌, 날마다 희망으로 활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시계를 영원에 고정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재앙이 와도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여주세요.

여러분의 불안과 절망이 희망과 은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아무런 값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 정리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 Love Sonata

## 이틀간의 축복의 현장

일본 군마 땅에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교회 리더십을 초청해 열린 '교회부흥세미나', 러브소나타의 전조를 알린 '가스펠 나이트', 한일 사랑과 우정을 다진 'CEO포럼', 문화전도집회로 하나님의 사랑 전한 '러브소나타' 등 13~14일 이틀 동안 열린 러브소나타 축복의 현장을 담았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13일(수)

- 1 **주남께 영광 가스펠 나이트**  
군마 찬양팀과 니자마 재단의 단기대학 성가대의 찬양, 블루티스트 송솔나무 연주는 참석자들의 영혼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가스펠 나이트 마지막에는 러브소나타와 일본 교회와 복음화를 위해 일본 성도들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
- 2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일본 교회 리더십 99명이 참석해 열심히 메모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비전을 나눴다. 교회부흥세미나에는 '교회론과 목회철학(박종길 목사)과 가정의 회복과 자녀교육(김성목 장로), 청교와 복음(이은일 장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졌다.



14일(목)

- 3 **교제와 연합의 장 'CEO포럼'**  
일본과 한국 사회 각 분야의 리더십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제와 연합의 장을 이뤘다.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건넸고, 이재훈 목사는 "한일 간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아름다운 나눔을 이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것이다"라며 CEO포럼의 사명을 밝혔다.



사랑의 빛으로 물든 '러브소나타'

- 4 **군마현의 크리스천 재단인 니자마 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핸드벨 연주가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 5 **러브소나타 집회의 파날레를 장식하며 이재훈 목사와 아라카와 마사오 실행위원장이 손을 맞잡았다.**
- 6 **로봇다리 세진이의 간증을 들은 때부터 눈물이 터져 나온 일본인 참석자, 이날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 은혜를 갈망했고,

## 바람의 도시 군마에 분 따스한 성령의 바람 귀한 손길 러브소나타 봉사자, 기쁨의 섬김

“모든 위험을 뛰어넘고 이곳에 와 주신 한국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일본이 하나 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러브소나타가 끝났다. 군마에서 열린 이틀 동안의 교회부흥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가 은혜 속에 막을 내렸다. 한국인 봉사자 수 60여 명, 부족했던 봉사의 손길에 힘을 더한 30명의 온누리복지재단 직원들, 28명의 CGNTV 운영위원회, 40명의 정로함장단 등 한일 정부의 관계 악화, 방사능의 공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으로 마무리됐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은혜를 갈망했고 복음이 간절했던 곳. 그곳이 군마였다.

### 일본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11월 12일 오전 6시 CGNTV와 러브소나타 스태프, 양재 온누리 교역자, 참

가자, 봉사자들이 인전공원에 모여 바쁘게 짐을 부쳤다. CGNTV 방송장비, 무대장식 등의 짐이 많아 러브소나타 측이 사전에 공지한 대로 봉사자 팀은 가내로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짐만 들고 일본으로 떠났다.

나리타공항에 도착해 3시간 30여 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자 한적하면 서도 평화로운 도시가 몸을 드러냈다. 그곳은 일본 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대자연의 혜택을 받은 도시이자 아카기야마 산기슭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부는 바람의 도시 군마였다. 군마에 도착한 스태프들이 처음 방문한 곳은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 군마 러브소나타의 실행위원장 아리카와 마사오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다.

“러브소나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군마 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땅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마는 일본의 배꼽과도 같은 곳입니다. 군마가 중심이기 때문에 군마가 변하면 일본이 변할 것을 믿습니다.”

아리카와 목사가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예배 이후 진행된 패킹 작업에서도 따뜻함은 계속됐다. 긴 이동으로 고단한 몸이었지만 다음 날부터 있을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후끈 달아오른 마음이었다.

### 바꿀 수 없는 섬기는 기쁨

13일(수) 오전 8시, 오전 10시부터 있을 교회부흥세미나를 준비하는 스태프들과 참가자 A팀이 한자리에 모여 서둘러 봉사를 시작했다.

군마 러브소나타를 섬기는 손길은 참가자 A팀과 B팀, CGNTV 운영위원회, 정로함장단, 온누리복지재단팀들이다. 지난 12일, 일본에 도착해서 교회

부흥세미나를 섬길 참가자 A팀은 30명, A팀을 이끄는 안중복 팀장을 만났다.

“저는 사실 이번 러브소나타가 두 번째 러브소나타입니다. 오사카 러브소나타에는 참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팀장으로 섬기게 되어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됐습니다.”

안중복 집사는 일본어 예배를 섬기다 봉사자로 함께하게 됐다. 그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계 일본을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 23년 전 저는 일본 동경에 유학을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 특별히 일본어를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 일본어예배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일본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게 올해나 내년에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러브소나타를 이번에 참여하게 됐고 팀장으로 섬기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소속한 A팀은 첫날 일본에 도착해 이세사키시 오에마치에 위치한 이세사키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했다.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를 하고 헌금을 전달했다.

“예배를 드리고 나와 교회를 다시 보니 주차장 수보다 교회가 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차장이 교회의 10배나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다음 날 13일, 문화전도집회를 앞두고 안중복 집사를 만났다. 그는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기쁨에 대해 말했다.

“한번 러브소나타를 섬기게 되면 다음에도 꼭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한번 느낀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 반드시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노래



13일 저녁 7시 30분 배시어문화를 소홀에서 열린 가스펠 나이트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어느 때보다 가족적 이고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가스펠 나이트의 안내 봉사를 섬긴 참가자 B팀은 25명. 그중에는 최고령 89세의 봉사자 김정은 권사(노원공동체)도 있었다.

오카나와, 후쿠오카, 샌다이, 아사카 외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섬기는 러브소나타라는 김정은 권사는 일본어도 능숙했다.

“저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일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본어로 일대일을 했지요. 그래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고 했을 때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러브소나타를 위한 선물 패킹 작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며 무언가 쓰임받을 때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러브소나타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러브소나타 봉사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13일 저녁 7시 30분 배시어문화를 소홀에서 열린 가스펠 나이트는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어느 때보다 가족적 이고 따뜻했던 시간이었다. 가스펠 나이트의 안내 봉사를 섬긴 참가자 B팀은 25명. 그중에는 최고령 89세의 봉사자 김정은 권사(노원공동체)도 있었다. 오카나와, 후쿠오카, 샌다이, 아사카 외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섬기는 러브소나타라는 김정은 권사는 일본어도 능숙했다. ‘저는 언제나 일본을 위해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소 일본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일본어로 일대일을 했지요. 그래서 러브소나타가 열린다고 했을 때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러브소나타를 위한 선물 패킹 작업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며 무언가 쓰임받을 때 얻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러브소나타에 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러브소나타 봉사는 기쁨 그 자체입니다.’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싶다는 김정은 권사. 그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러브소나타는 절대 끝이 나서는 안 되는 사역입니다. 러브소나타는 반드시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노래(러브소나타)입니다.”

고령의 나이,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섬기는 김정은 권사의 뒷모습에 젊은 청년과도 같은 열정이 뿜어져 나왔다.

### 내 몸으로 하나님 나타낼 수 있다면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정호욱 목사는 봉사와 헌신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신들이 할 일이라며 러브소나타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복지재단이 하는 일은 어렵고 힘든 곳에 도움을 손길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복지재단 각 시설에서 우수사원을 추천하여 일본의 복지시설을 방문했고 군마 러브소나타의 봉사자로도 섬기게





# 복음이 간절했던 땅을 밟다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번동코이노니아에서 두 명의 장애인도 참여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은 몸으로 함께한 이범남 형제는 “예수님 마음을 전하려 왔다”고 수줍게 말했다. 그는 몸은 아프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몸이 불편해도 어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더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올해 처음 CGNTV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군마 러브소나타를 참석하게 된 이호영 집사는 CGNTV 안테나 달기, CEO 포럼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은누리신문 통역 봉사자로도 섬겼다.  
 이호영 집사와 28명의 CGNTV 운영위원의 성도들은 이번 일정을 3월 4일 동안의 아웃리치로 보냈다. 오지마 그리스도교회와 뉴라이프처치, 시부가와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해 CGNTV 안테

나를 달고, 나지마교회를 세운 나지마 선생의 생가와 나지마학교, 일본 CGNTV를 방문했다.  
 이호영 집사는 “CGNTV 안테나를 달아주었을 때 감동하는 무목교회 성도들을 보며 풍성한 나눔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그는 방사능의 위험 등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봉사자 수가 줄어든 것을 안타까워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방사능 문제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 처음에는 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적극적으로 섬겨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라는 인식에 어느 때보다 봉사자가 부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품은 봉사자들이 모인 군마. 그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군마는 일본의 가장 중앙이면서도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러브소나타가 일본 구석구석으로

널리가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귀한 열매 맺은 군마 땅**  
 14일(목) 저녁 7시 30분 문화전도집회 러브소나타. 마지막 피날레인 세리머니의 앞 순서인 결산카드 작성 시간에 온누리 장로들이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온누리장로합창단 40명이 결산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에 특순으로 찬양을 불렀다. 머리가 백발이 된 장로들이 열정을 다해 부른 찬양에 일본인들은 박수를 보냈다.  
 일 년 동안 연습했던 노래를 러브소나타 무대에서 선보이게 돼 기쁘다는 김석인 장로(온누리장로합창단 단장)는 처음 섬기게 된 러브소나타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합창을 통해 받는 가장 큰 기쁨은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러브소나타 섬김은 그동안 저희가 장로로 부름 받았지만 새삼 느끼지 못했던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군마 러브소나타에는 56세부터 88세의 장로들이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비량으로 참석했다. 지난 13일(수)에는 동경 은누리교회 수요예배에서 1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합창 4곡을 선보이고 돌아왔다.  
 “군마 러브소나타는 특별한 집회가 될 것이라 믿고 일 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찬양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김석인 장로의 소망이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3월 4일의 여정이었다. 이를 동안의 집회를 통해 30여 명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다. 적은 수이지만 그 어떤 물질과 시



간을 들여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열매다.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리타공영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다. 감사하게도 돌아가는 길에 주룩 주룩 비가 내린다. 멀리 보이는 야카기야마 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문득 아라카와 마사오 목사의 말이 가슴 속에 메아리 친다.  
 “민 한국 땅에서 이곳 군마까지 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 정지는 기자 jji@onnuri.org



필리핀 지진 긴급구호

# “하나님 손길로 변화될 ‘더 멋진 세상’ 꿈꿉니다”

국제개발 NGO '더멋진세상' (Better World)은 지진과 슈퍼태풍 '하이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중부지역 피해 현장을 방문해 그곳 주민들에게 긴급구호품을 전달했다. 삶의 타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더멋진세상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울 예정이다.

지난 10월 15일 필리핀 중부 보홀섬을 강타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과 33회의 여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실상기상으로 지난 11월 9일, 슈퍼태풍 '하이옌' (Haiyan)이 보홀섬을 포함하여, 북쪽에 위치한 레이테(Leyte)섬과 세부(Cebu)섬을 지나면서 중부지역의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 지진과 태풍의 상처 남긴 필리핀 현장

지진 발생 직후 '더멋진세상'은 피해가 집중된 필리핀 보홀섬에 현지 협력파트너인 Erwin, 남미선 2명을 긴급 파견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답사 결과 47개 도시로 구성된 보홀섬에서 가장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인 마니보호(Maniboc)의 산간 지역에 위치한 칸다비드(Candavid)마을이 긴급구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6일 '더멋진세상' 본부 직원 2명, 현지 파트너 2명 및 현지 자원봉사자 6명 등이 칸다비드를 방문하여 1차 구호품 150 세트를 각 가정 단위로 전달했다. 지원된 물품은 쌀 2kg과 라면, 통조림, 과자, 차, 컵, 치약, 비누 등 식료품과 생필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긴급구호품을 받은 주민들은 연신 "살라맛(고맙습니다)"을 외치며 희망의 미소를 지었다. 과자 봉지를 쥐어 들고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 꼬마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다. 김창욱 목사(더멋진세상 본부장)는 "일회성 지원으로 그

치지 않고 이후로도 현지파트너 2명을 중심으로 지속적 방문과 구호품 전달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 주민 수가 600여 명이 되는 칸다비드 마을은 이번 지진과 태풍으로 145채의 가옥 중 105채가 무너져 내리거나 비바람의 영향으로 지붕과 벽이 날아가 버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기와 식수는 끊겼고, 피해 주민들은 조그만 비닐 천막을 임시로 설치하고 바다에 나무나 천을 깔아 한 방에서는 식구가 거거하고 있었다. 게다가 우기라 열대성 폭우가 비바람과 함께 살내도 들어닥쳐 불편이 가중되는 형편이었다. 마을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져서 공터에 임시 천막교실을 세워 수업하고 있었다. 어지럽게 널려진 건물 잔해 사이로 아이들이 사용했던 노트와 책 그리고 교실 밖에 걸려있던 표어와 그림 등이 흙먼지에 덮인 채 뒤섞여 있었다.

### 'NEW CANDAVID'를 꿈꾸며...

공터에 세워진 천막교실 앞에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온다. 'NEW CANDAVID' (새로운 칸다비드)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새로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카메라를 들



지진 및 태풍의 아픔이 남아있는 필리핀 현지 상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에서 피해를 당한 난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문의: 02-2271-2248  
후원: 우리은행 1005-602-215331 (사)더멋진세상



어대면 남의 등 뒤로 숨어버리는 수줍음 많은 아이들, 해맑은 미소를 머금은 아이들이 꿈꾸는 새로운 마을의 모습이 멋지게 표현되었다. 아이들은 이미 무너진 건물 잔해위에 새로운 마을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이제 눈에 무너진 주택이 들어왔다. 피해 지역을 살펴보면 김창욱 목사는 "주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마을을 주도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며 구호품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 가옥의 신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했다. 다행인 것은 이곳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고 마을 동장(홀리오, 35세 남)을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져 있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는 점이었다.

칸다비드 마을의 동장 홀리오는 "초기지붕과 대나무 격자무늬 벽을 이용해 전통 가옥을 짓는다면 재료비가 \$100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주택 신축에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멋진세상'은 이들을 위해 2차 지원계획으로 주택 신축에 필요한 지붕과 외벽 재료를 지원하고, 주택 건설은 현지 파트너와 홀리오 동장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주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주택건설의 의지가 있는 10가정을 선별하여 시범적으로 임시가옥 재건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여 주민들 스스로 건축을 마무리 하고, 이를 토대로 나머지 96가구의 신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돈을 쥐어주거나 일방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마을의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자신의 삶의 타전을 개선해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릴 것이다.

### '더 멋진 마을'에 대한 기대감

남미선 협력파트너는 "긴급구호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면 앞으로 이곳에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할 것"이라며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종교인 가톨릭이 토착신앙과 뒤섞여 변질된 모습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 무너진 건물들의 잔해를 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새롭게 더 나은 마을을 건설하려는 꿈으로 활기가 느껴지는 칸다비드 마을 이들에게 더 멋진 세상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더멋진세상'과 함께 만들어 갈 'NEW CANDAVID'가 기대된다.

/ 고대선 팀장(더멋진세상)



# 2013년도 크리스마스 선교사자녀 선물 보내기

## 1 선물 준비

### ·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 합니다.  
(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 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아래 선교단체 주소록 참고.)
- 3) 편지쓰기 : 편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소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적습니다.  
필히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하여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우체국에 기준하는 소포 포장으로 해야 합니다.
- 5)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동참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지 도착 날짜 일을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선물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 ①자녀는 고3 및 12학년(1995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②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 (자녀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 (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싸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장갑, 모자, 큐티책, 게임 S/W, 책 (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보안지역 제외 품목 : 음반, 서적, 비디오, 악세사리 등
- 3) 참고 인터넷 쇼핑몰 : <http://mall.duranno.com> (두란노몰)

## 2 보안지역 유의사항

-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모슬렘, 선교 및 선교사 활동을 금하거나 비자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선교사의 신분 보장하기 위한.
- \*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과 편지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기사항도 아래와 같이 해야 합니다. 간단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가능한 선교사가 소속된 해당 선교단체와 사전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선교사 → 선생님, 목사님 → 사장님, 교회 → 회사, 공동체 → 부서 등.  
기독교 용어 (하나님, 기도, 예배 등등)는 가급적 피할 것.
- 보안지역 안내  
공산권 - 중국  
모슬렘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전지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북아프리카, 동유럽 일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힌두교권 - 인도, 네팔 등 (비자 제한 지역)  
불교권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다만, 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는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에 현지 주소 문의 후, 발송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 3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 : 김민규 간사 02-3215-3208  
2000mandu@gmail.com

## 4 우편요금

-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
- \*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1588-1300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b>서빙고 캠퍼스</b> <b>강릉공동체</b> 주송결/주누가 U국 예수전도단 김해인, 여, 20070805 김다인, 여, 20091024 김창오/정문오 R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다인, 남, 20090331 김사무엘, 남, 20120901 임장오/손은오 일본 WEC 선교회 임은혜, 여, 20100313 임사은, 여, 20130212 <b>서빙고공동체</b> 김달렘/서한나 P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김신, 남, 20011107 김의, 남, 20020418 김인, 여, 20031101 최선/이름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선, 남, 20040305 최솔, 여, 20051026 최강, 남, 20080405 <b>용산공동체</b> 권능/오성령 M국 GO 권인애, 남, 19950530 권경영, 남, 19970410 김루이스/강한나 G국 BEE KOREA 김예지, 여, 20070206 김예성, 남, 20100303 김스태반/린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하일, 남, 19981219 김하성, 남, 20040207 서관능/김정오 베트남 두란노해외선교회 서준하, 남, 20020316 서승하, 남, 20040417 서은하, 여, 20070224 허길/유진리 모잠비크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하요한, 남, 20020729 하예은, 여, 20040419 <b>이촌공동체</b> 류다윗/송안나 U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류시연, 여, 20051102 류가연, 여, 20080302 최요셉/최한나 K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사표란, 여, 20081104 최사은, 여, 20081104 한태이/최필 U시 두란노 해외 선교회 한지우, 여, 20110721			노이/김희오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지선, 남, 20050616 김하진, 남, 20061001 김재진, 남, 20090418 <b>한강공동체</b> 문열림/전세계 S국 중동 선교회 전지현, 여, 20040816 전소연, 여, 20061112 <b>S브릿지 공동체</b> 존/그레이스 F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나라, 여, 19980618 하남, 여, 20010618 <b>찬양시역 공동체</b> 보이스/나오미 H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아사, 여, 19980914 <b>관악금천공동체</b> 최바울/김한나 B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예향, 여, 19960301 최예경, 여, 19980322 최애령, 남, 20000328 박사무엘/이현오 B국 GP 선교회 박준용, 남, 19960802 박주영, 남, 20010511 김반석/상성물 T국 WEC 선교회 김윤서, 남, 20010227 김서진, 남, 20050502 방경오/김귀오 H국 두란노 해외 선교회 방하민, 남, 20060825 방은승, 여, 20080616 <b>동작공동체</b> 이굴라/브리스가 O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전유진, 여, 20060913 전유진, 여, 20090106 <b>영동포구로공동체</b> 이영생/박은혜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경애, 남, 19970120 구리빙스턴/김마리아 P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구유진, 여, 20051113 구분훈, 남, 20070411 구해진, 여, 20090224 구하진, 여, 20100709 김○○/최○○ O시 GBT 김서훈, 남, 20121008			노여후수아/정마리아 A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노하린, 여, 20011123, 노하인, 남, 20031212 노하연, 여, 20110420 <b>양천공동체</b> 윤정오/정홍오 A시 코너스톤 윤신우, 여, 20000313 정길원, 남, 20020515 이도오/오은오 일본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영, 남, 20011226 이 볼, 여, 20050101 이빛, 남, 20070620 강현오/김경오 중동 WEC선교회 강진희, 남, 20060528 강예스더, 여, 20080101 <b>이수공동체</b> 스텔/소리생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지원, 남, 20040816 박지수, 여, 20060418 풀길지우/김줄리 소아시아 DN 김지나, 여, 20011106 김하나, 여, 20030405 김사무엘, 남, 20051006 <b>강서공동체</b> 임다현/김나록 시 FMnC선교회 임다원, 여, 20090626 양우림, 남, 20111011 <b>김포 공동체</b> 김경오/이지오 M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보라, 여, 20070605 김소라, 여, 20100303 김길, 남, 20120226 토마스/세라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예진, 여, 20000229 김예하, 남, 20030612 <b>마포 공동체</b> 정재오/정봉오 동남아 GP선교회 정새원, 남, 20060728 정세희, 여, 20080430 정경광, 남, 20101125 서○/양해○ 한국 인터콤선교회 서유진, 남, 19980922 서유민, 남, 20031210 Rachel/(아련 캠퍼스) 필리핀 두란노해외선교회 조수아, 남, 20030912 니코, 남, 19981222			<b>서대문공동체</b> 고진우/혜현 J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진우, 남, 20010217 김복음/김지우 D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115 김아성, 남, 20050528 <b>여의도공동체</b> 이사람/김명화 T국 예수전도단 이석은, 남, 19971123 김스태반/조희 한국 Inter-CP 김하진, 여, 19980815 김하원, 여, 20021212 김하경, 여, 20041023 이생영/이생물 한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이예준, 남, 20060610 <b>일산공동체</b> 김바나바/김드보라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김요한, 남, 20000805 이예복/aysata Lee 세네갈 GMP 이예림, 여, 19960602 이예람, 여, 19980807 다니엘/예레미 A시 두란노해외선교회 문에스더, 여, 20020812 문에스라, 여, 20061113 제프/로즈 O시 IBM 자스틴 윌리고라, 남, 1996 카시아 윌리고라, 여, 1998 예릭 윌리고라, 남, 2003 <b>동대문중앙공동체</b> 최관능/윤예지 T국 두란노해외선교회 최영환, 남, 19960821 최요한, 남, 19990720 최세라, 여, 20040319 고엘리사/헤스더 M국 Inter-CP 고성주, 남, 19950921 탁광범/준기쁨 S국 HOPE선교회 탁애경, 여, 19981015 탁은찬, 남, 20000223 <b>북누리공동체</b> 정은유/최예매 N국 두란노해외선교회		

2013년 11월 17일 975호

·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12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선교사 자녀 현황	지역	소속단체
정하준, 남, 19960716	정하윤, 여, 19980311		박민음(합은혜)	V시	HOPE 선교회	한사림/새삼	N시	두란노해외선교회	정미애/가사시	스리랑카	두란노해외선교회
김미가/송두리	한국	GO	박소연, 여, 19961108			이수훈, 남, 19940121	이수진, 여, 19980407		다니엘, 남, 20000312	조엘, 남, 20011230	
김환희, 여, 19960624			● <b>서초B공동체</b>			이혜인, 여, 20040308			유진, 여, 20080717		
● <b>노원공동체</b>			안도세유루스	H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b>부천 캠퍼스</b>					
이훈/오지영	필리핀	GMP	임하라, 여, 20120527			이철오/원은오	M국	두란 노 해외선교회	한사림/김소망	L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아현, 여, 20030314	이시원, 남, 20040511		심다윗/김미소	D시	FMnC 선교회	이선용, 남, 19960922	이혜인, 여, 19980212		한성은, 여, 19990803	한상일, 남, 20010324	
이찬, 남, 20071017			심하민, 남, 20050110			반석	E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b>서산 온누리교회</b>		
조경오/브린오	네팔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현오/우중오	F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사라, 여, 20040601	사무엘, 남, 20061011		송바울/정예스터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물린, 남, 20050423	조플슨, 남, 20070728		김하람, 남, 20030705			사랑, 여, 20120516			송주은, 여, 20031116		
● <b>성동광진공동체</b>			김하준, 남, 20060101			양아브라함/천사라	M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정지현/정은선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일오/명우오	네팔	예수전도단	다윗/하나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양광주, 여, 19960502	양한걸, 남, 19971205		정환희, 여, 20110213		
김규, 남, 20040407			양선, 여, 20040902	양준, 남, 20130106		양한성, 남, 20020417	양한빛, 남, 20070922				
한권오/홍란오	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 <b>서초C공동체</b>			요한/조은오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b>선교단체 주소록</b>		
한정민, 여, 20010807	한정원, 여, 20021009		이오/김승오	R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아사, 남, 20000129	오요셉, 남, 20011029		TIM (두란노 해외선교회)	(449-624) 강도 용인시 차안구 영지면 춘계로 62	
한영호, 남, 20040424			이하나, 여, 20050701			김한배지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해와 찬양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천로 180 경배와 찬양	
● <b>성북공동체</b>			차요셉/박재범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진우, 남, 19990506	김진성, 남, 20010423		바울 선교회	(561-602) 전라도 진주시 덕진구 금강1동 1566-6 마태빌딩 2층	
김자이널/피아황	S국	예수전도단	차건우, 남, 20000419	차건민, 남, 20030911		김진미, 여, 20090719			빌리온 선교회	(151-653)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동 86-10번지 2F	
김주은, 여, 19980623	김주은, 여, 20000101		바사르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승오/김효오	B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알타이 선교회	(02-576-8503, 070-7114-0266)	
김주찬, 남, 20031223			살람, 남, 20090627			박시은/최한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중동 선교회	(138-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5-3 한빛빌딩 4층 402호	
최일일/이광강	Y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바나바/김조세민	한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b>수원 캠퍼스</b>			창조과학회	(135-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최예미, 여, 20000616	최예성, 남, 20020718		강산길, 남, 19981104	강예주, 여, 20110729		허드슨/안마리	T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BEE KOREA	(157-8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6-18번지	
최예진, 남, 20040220			박사람/김은혜	말레이시아 BEE KOREA		허진석, 남, 19970218			Come Mission (한국침선교회)	(153-600)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동 우재로 사사빌 48호	
전생광/구원혜	E국	FMnC	박지혜, 여, 19990420			이기영/문한나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중동 선교회	(138-162)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55-3 한빛빌딩 4층 402호	
전영광, 여, 19951004	전승리, 남, 19990904		유애늑/사예스터	E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윤석, 남, 20060309	이윤아, 여, 20090731		창조과학회	(135-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39-6 강남빌딩 5층	
● <b>중흥로공동체</b>			유시랑, 여, 20080718	유임윤, 남, 20101230		김바울/김연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BEE KOREA	(157-84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6-18번지	
Cho오오	A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 <b>송파공동체</b>			김현식, 남, 19971031			Come Mission (한국침선교회)	(153-600)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29-21 2층	
Reuben Om Ngai, 남, 20020910	Holy Blak Tha H, 여, 20041124	Bawi Ram Lian T, 남, 20080123	박지오/김자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길/임사랑	Q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Cornerstone(모퉁이)	(135-66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208번지 1층	
			박소윤, 여, 20050625	박소향, 여, 20081031		황희경, 여, 19991020	황의겸, 남, 20020105		Destination (+902323648028)	kdestination@hanmail.com	
바나바/켄시바	A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신원오/오수오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황재호, 여, 20020105			FMnC 선교회	(137-824) 서울 서초구 방배동 537 오산빌딩 2층	
이희창, 남, 20040320			신영은, 여, 19991118	신영욱, 남, 20010501		조은성	D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GBT 선교회	(156-6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2길 33	
김별/백합화	C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신하람, 여, 20061116	신하람, 여, 20090222		서정파, 남, 19980501			GMF 선교회	(158-6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163	
김유비, 여, 20060421	김유민, 여, 20120415		정재오/홍정오	한국	GBT	최기오/김정오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GMP 개혁 선교회	(120-65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8-15	
● <b>양재 캠퍼스</b>			정예현, 남, 19960529			최예찬, 남, 20050317	최예림, 여, 20060815		GMTC 선교회	(158-60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231-188	
● <b>강남A공동체</b>			● <b>분당A공동체</b>			노향	F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GO 선교회	(314-080) 충청남도 공주시 금학동 273-1 세종빌딩 A동 2층	
조중오/임미오	파푸아뉴기니	GBT 선교단체	김현오/홍성오	T국	WEC 선교회	나다니엘, 남, 2001	Bao Tran, 여, 2006		GP 선교회	(138-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2층	
조사리, 여, 19970323	조예림, 여, 20030201		김도연, 여, 19951204	김소정, 여, 19980612		● <b>대전 캠퍼스</b>			Inter-Coop	(140-897)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357 202호 지원빌 MK빌	
백두/한라	E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유진, 여, 20011128			방갈렐/홍수아	U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InterServe 선교회	(463-943) 강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0 코오롱테크놀로지스 A동 1206호	
이하준, 남, 20010116	이하린, 남, 20041010		제짜은/김세라	S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방예진, 남, 20030915	방예진, 여, 20051117		ITM 선교회	(158-074)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4동 961-12호 2층	
이하은, 여, 20060301			제가은, 여, 20091227	제래미, 여, 20121103		조정오/박은오	스리랑카	두란노 해외선교회	KIBI	(140-240)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천로 4-108 대흥빌딩 103호	
서요셉/황로즈	Y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결승/김예스터	I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조진현, 여, 19950430	조세현, 남, 19961115		OM 선교회	(121-84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4-60 한신빌딩 3층	
서희원, 여, 20060902	서예원, 여, 20081119		박세아, 여, 20040609	박로이, 남, 20070528		조성현, 남, 19980904			OMF 선교회	(137-6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63-32 호원빌딩 2층	
이찬오/송이오	R국	InterServe	● <b>분당B공동체</b>			John/Esther	C시	경배와 찬양	UPMA 선교회	(153-6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535-132 한국세계선교협의회44층	
이윤아, 여, 20011208			김순중/천사랑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최이삭/박유니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WEC 선교회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22-322 4552	
● <b>강남B공동체</b>			김미려, 여, 20040707			최시은, 남, 2012.12.05			YWAM (예수전도단)	(132-322-0563) 서울시 관악구 대희동 241-34번지 5층	
손충성/송이레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트마스/미셸	D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 <b>남양주 캠퍼스</b>					
손수아, 여, 19981208	손수빈, 여, 20021211		윤서연, 여, 19950607			김엘리사/최마리아	D국	FMnC 선교회			
● <b>강남C공동체</b>			김연오/최애오	한국	GBT	김해민, 여, 20010508	김현연, 남, 20040517				
이꽃	L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진영, 여, 19960427			김해울, 여, 20061208	김혜자연, 여, 20090509				
김요한, 남, 20020907	김우현, 남, 20071006	익스우, 남	● <b>신분안산공동체</b>			최원오/김연오	OM선교회				
롯데/김향한	J국	Inter-CP	박찬오/박은오	C시	예수전도단(YMCA)	최혜순, 여, 20011017	최현숙, 남, 20031003				
표하윤, 남, 19970216	표단비, 여, 20000314		박준, 남, 20060601			최희순, 남, 20050418					
표현, 남, 20030806			제이클/윤우희	B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은영	일본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아직/사만다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승, 여, 19980102			요셉, 남, 20040910					
박시아, 여, 20060926	박시유, 여, 20090820		● <b>안양평촌공동체</b>			김홍오/정일오	F국	가성(OMC)			
이글라/브리스가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민바울/최윤숙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김자수, 여, 19960417					
윤은서, 여, 20081219	윤솔아, 여, 20100818		민주희, 여, 19950801	민시원, 남, 19980127		● <b>인천 캠퍼스</b>					
이글라/브리스길라	C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민형선, 남, 20010829			요한/오수정	M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선주연, 여, 20010326	선하민, 여, 20020603		김성오/김정오	P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한성진, 남, 20010802	한성걸, 남, 20020828				
선하진, 남, 20050610			김상진, 남, 20000208	김환, 남, 20040620		한성원, 여, 20080222					
● <b>서초A공동체</b>			이하오/박정오	D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가나	M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영(윤다진)	T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이상주, 여, 20070226			Gan-Olgon Bayar, 남, 20010412	Gan-Olgon Bayar, 남, 20030122				
전유민, 남, 20111009			● <b>양재공동체</b>			박서오/전미오	불가리아	WEC 선교회			
워진오(홍성오)	H국	예수제자선교회	이빛/이섬	S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박종민, 남, 20060627	박종하, 남, 20080423				
홍성익, 남, 20040307	홍예은, 여, 20051006		이스라엘, 남, 20060702	이다니엘, 남, 20081107		방샘물/김은유	E국	FMnC 선교회			
아브라함	L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갈렐/김세리	S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방하연, 남, 20050907					
서범민, 남, 20020606	서희, 여, 20040427		오하림, 남, 20080911	오노람, 남, 20100819		● <b>평택 캠퍼스</b>					
스대만/예스터	A시	두란노 해외선교회	오길, 남, 20121017			김다구/최사라	E국	두란노 해외선교회			
카논, 여, 20020906	아름, 여, 20081225					김예스터, 여, 20060220	김하연, 여, 20100313				
주누기/최희선	한국	GO									
주주영, 남, 19971209											

2013년 11월 17일 975호

•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13번)



# 태풍 휩쓴 필리핀에 온누리교회 구호팀이 간다

## 26일 선발대, 내달 4일 의료·구호팀 출발 의료사역 및 \$100,000 상당 구호품 전달

온누리교회가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지역에 의료팀과 구호품을 파견하기로 했다.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긴급구호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을 중심으로 의료선교팀(CMN)과 대학청년부가 선봉을 맡는다.

더 멋진 세상 소속 직원과 피해지역에서 선교를 했던 선교사가 오는 26일 선발대로 출발해 구호팀이 사역할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Iloilo)지역을 둘러보고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준비를 한다.

12월 4일에는 의료선교팀(CMN)소속 의료인 10인과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6인이 태풍 피해지역으로 떠난다. 현재 의료선교팀에서는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 대학청년부에서 파견하는 구호팀 6인은 이미 모집을 마친 상태다.

온누리교회는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에서 의료사역과 더불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지난 주일(17일) 성도들이 봉헌한 현금과 NGO 더



교회는 지진피해에 이어 슈퍼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필리핀 중부 지역에 의료팀과 구호품을 파견해 지구촌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예정이다.

멋진 세상의 후원금을 모아 \$100,000 상당의 구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필리핀 중부지역은 지난 10월1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지진으로 215명이 사망하고

가옥 3,450여 채가 파손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설상가상으로 11월 9일 슈퍼 태풍 하이옌까지 상륙해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온누리교회는 지진피해지역 긴

급구호에 이어 태풍 피해지역까지 구호활동을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온누리 선교사 필수과정, OMO

### 선교사 준비 과정 및 선교 방향 제시

‘온누리 선교사’가 되려면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온누리 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OMO: Onnuri Missiary Orientation)이 지난 11월 16일(토) 두란노 빌딩 202호에서 열렸다.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자 등 총 29명이 모인 가운데 도육환 목사(이전선교본부의 환영인사, 영화 ‘버티컬 리미트’ 시청 및 나눔 그리고 선교사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사를 준비하는 준비생과 아직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지만 선교사를 꿈꾸는 관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OMO는 온누리교회 및 두란노 해외선교회(HIM) 그리고 Acts29 비전발리지 선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역자, 선교사, 간사 등이 참여해 선교사 준비과정 및 선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매년 5월, 11월 두차례 진행된다.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교회와 나라 열방 위한 기도의 용사들

###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아웃리치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가 올해 마지막 일일아웃리치를 떠났다.

지난 21일(목) 오전, 110여 명의 기도

용사들이 온누리M센터와 Acts29 비전 빌리지 두 곳으로 팀을 나누어 출발했다. 온누리M센터 팀은 다문화특구지역인 안산 주변지역의 돌아보며 땅밧기

를 했고, 김영철 목사(온누리M센터)를 통해 온누리M센터의 소개와 비전 등을 들으며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비전빌리지 팀은 김영희 선교사가 인도하는 비전빌리지 시온홀 예배에 참석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함께 비전을 나눴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 나눴어요!”

### 공사랑, 4개 교회 연합 친선경기

같은 취미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온누리남성 사역팀, 공사랑.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축구를 통해 연합을 이루고 있다.

지난 11월 9일(토)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사랑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등 4개교회가 연합해 비전을 공유하는 친선 축구경기가 안남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친선경기는 고(故) 하용조 목사와의 목회 비전을 공유했던 4개 교회의 스포츠 선교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스

포츠를 통해 열방에 복음을 전하자’는 취지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공사랑 회원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4개 교회가 연합해 형제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뻐다”며 교제와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한편 오는 12월 21일(토)에는 한해 동안 부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념으로 ‘공사랑 송년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스포츠 선교팀 '공사랑'이 주최한 4개 교회 연합 친선 축구경기가 지난 11월 9일(토) 안남고등학교에서 진행되었다.

01

**‘러브소나타 군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감사예배**

2천명이 넘는 참가자, 34명의 결신자, 300여 명이 넘는 재결신자 등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군마 러브소나타가 막이 내린 이후에도 그 감동이 이어져가고 있다.

지난 18일(월) 일본 교회 리더십들과 현지 온누리교회 스태프들이 마에바시 그리스도교회에 모여 감사예배를 드렸다. 말씀을 전한 실행위원장 아라카와 마사오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함께 교류하면서 교단을 넘어 마음이 하나 되었고, 멋진 동역자들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다. 군마 러브소나타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니 함께 출발해가자”라며 군마 선교의 시작을 알렸다. 예배 후에는 각 위원 보고와 러브소나타에 대한 소감 발표 등이 진행됐다.

앞으로 군마실행위원회는 러브소나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후속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매월 한 번씩 실행위원들끼리 모임을 가져 연합하여 함께 군마 선교의 발걸음을 걸어가기로 했다. 또한 실행위원과 협력교회 교역자 등을 대상으로 일대일 양육 세미나를 열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2

# 부흥의 불길 타오르는 ‘군마’

**군마에서 보낸 60일**

러브소나타 군마 집회 두 달 전, 현지에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군마현으로 향했다. 그런데... 설레고 기쁜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다. 거의 매일 언론에서 방시능 공포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고,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만류에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분명 선하신 계획이 있을거야”

군마현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했던 걱정들이 부끄러워졌다. 한국에서 온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 현지 목사님, 러브소나타 군마를 기

도로 준비하고 있는 실행위원들의 모습이 그동안 무수히 했던 걱정들을 순식간에 잊어갔다. 군마현은 러브소나타 집회가 열리기 두 달 전인데도 부흥에 감이 짙어있었다.

집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현지 실행위원들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졌다. 집회 참석자들을 모집하는 홍보전단을 나눠줄 때에는 ‘전도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지 성도들의 열정이 돋보였다. 집회가 막 올랐다. 군마현에서 열린 기독교 행사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한다. 복음을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넘쳤다. 집회는 끝났다. 그러나 부흥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일본 선교의 선봉을 군마현이 맡자!”

러브소나타를 마친 군마현에는 분명 변화가 시작되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 분명했다. 군마현 현지로 파견 될 때의 발걸음과 한국으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이 다르다. 걱정으로 무거웠던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한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하시다.

/ 정현주 간사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 “메리 크리스마스!”

### 이천선교, 두란노해외선교(TIM)

온누리 이천선교본부 및 두란노해외선교(TIM)이 지난 11월 19일(화)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여 박물관 관람 및 한 해를 기념하는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특히 선교사들은 남산타워가 보이는 중심부에서 고국에서의 추억을 남기는 마음으로 사진촬영에 임했다.

이번 모임은 이천선교와 두란노해외선교(TIM)가 한 자리에 모여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및 편지에 함께 축하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mailto:oej@onnuri.org)

와이미션

# 선교적 삶을 꿈꾸며

## 양재 권사회, 와이미션 143명 수료

올해 하반기 양재 권사 스쿨은 와이미션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의 핵심가치인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와이미션을 통해 권사들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다시한 번 마음에 품었다. 총 143명의 양재 권사들이 수료한 가운데 와이미션이 끝이 났지만 각자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고백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 “선교의 빛진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2013년 가을 권사회 'Why Mission?'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떠났다가 십여 년 전에 돌아오신 순장님 부부와 사역팀에서 만난 믿음의 가정들 중 세 번째 가정을 선교사로 떠나보내며 '선교'란 단어가 점점 더 친숙히 다가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복음에 빛진 자가 바로 선교에 빛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성경뿐 아니

라 구약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선교에 대해 말씀 하셨음에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역사 강의 시간엔 27세의 나이에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웃으며 성경책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와 의료선교사로 사역하다 전염병에 감염되어 순교한 홀 선교사 가족이야기 등등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사랑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제적 선교현장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재차 있게 풀어

주셨고,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고, 복음을 선교지의 문화에 맞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신 손창남 선교사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선교 현황과 선교 전략에 관해 명 강의를 해 주신 조명순 선교사님, 온누리 선교사역에 대해 명쾌한 설명과 선교비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신 황종연 목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반부쯤 방문한 안산M센터에서의 시간은 계속 우리나라에 유입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귀중함을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진 선교미션에 대해 정리와 이해와 도전을 준 'Why Mission?'이 무척 소

중하게 느껴집니다.

'Why Mission?'을 마치며 최근에 선교지로 떠난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가까운 시일에 그곳을 방문해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날로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며, 그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되며, 그 땅과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환인 권사  
(강남B공동체)





01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 4일, 파나이섬으로 출국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18명)이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구호품 전달, 마을정리 및 의료 봉사를 위해 12월 4일(수) 파나이(Panay) 섬으로 떠난다.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은 일로일로(Iloilo)시에 베이스를 설치하고 12월 5일부터 본격적인 구호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나이 섬은 필리핀 중부서쪽에 위치한 섬으로, 지난 11월 9일 동

부 해안과 중부 산악지역이 태풍의 중심권의 영향을 받아 주택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 태풍이 지나간 지 3주째 되는 현재, 피해지역에는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동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 봉사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구호품이 전달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 고대선 부장(NGO더멋진세상)

02

## OMSC 출판감사예배

###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출간

OMSC(Overseas Ministries Study Center)출판감사예배가 지난 11월 25일(월)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렸다.

OMSC는 미국에 있는 선교연구기관으로, 선교 관련 다양한 학술 연구 및 학술지 발행,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해 왔다. 저자 조나단 봉크 박사(OMSC전원장)는 “이 책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 가정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 책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축사에서 “OMSC는 세계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느껴지는 동시에 깊은 성경, 신학적인 묵상과 철저한 검증을 거친 논리적인 부분이 잘 조화된 선교단체다. 이 책에는 앞으로 세계 선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런 귀한 책들을 통해 한국 선교와 세계 선교가 새로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지난 11월 25일(월) 서빙고 한동홀에서 열린 OMSC 출판감사예배에서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책을 발간한 기념으로, 감사예배 및 저자 사인회를 진행했다.

2013년 12월 1일 977호

- 01- 온누리 긴급구호팀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1면)
- 02- OMSC 출판감사예배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출간(4면)

01

## 르완다 해외봉사활동 단원모집

### NGO 더 멋진 세상

NGO 더 멋진 세상에서 아프리카 르완다에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해외봉사단원을 모집 중이다.

모집분야는 보건과 사회복지(지역개발)이다. 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현지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 의료정보 수집, 지역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19세 이상 성인으로 파견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능해야한다. 관련 분야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지원방법은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해 이메일(betterworld87@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인천

알림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오후7시  
장소: 2층 비전홀

03

## 대청 '사랑' 나눔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윈터캠프'

오는 12월 7-8일 1박2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인리조트에서 '윈터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윈터캠프'는 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외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50가정(150여 명)과 함께하는 스키캠프 및 부모강의, 매직버블쇼 등으로 진행된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소외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윈터캠프는 가정의 회복과 영혼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청연합본부는 2주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 참석하는 50가정의 다문화 가족들이 하나 되는 시간 및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13년 12월 1일 977호

• 01-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르완다 해외봉사단원 모집(4면), • 02- 인천 은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계시판(9면)  
• 03- 대청 <사랑'나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윈터캠프' (11면)



“윈터캠프”를 준비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길...”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눈여겨 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생각만 했지 섬길 기회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윈터캠프’ 공고를 보고 기도하는 중에 사랑이 부족했던 제 마음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용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윈터캠프’를 단순한 활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섬기고 하나님 눈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제 마음이 ‘윈터캠프’를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 이다원 자매

“영원에 가치 둔 삶을 소망”

“하나님께서 추위와 싸우는 양상 한 나뭇가지처럼 세상과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에 계신 영원에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싸워

예수님의 승리가 온전히 이뤄지는 것을 소망하며 이번 ‘윈터캠프’를 기대해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지혜 자매

‘사랑앓나눔’ 사역 위해 기도해주세요!

-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 섬기는 모든 대학청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01

# “예수 그리스도 심장 가지고갑니다”

## 2차 긴급구호팀 파견



### <긴급구호팀 명단>

선발대: 고대선 팀장, 방경훈 선교사  
본 부: 김광동 장로, 김창욱 전도사,  
양성수 간사, CMN 강민구, 김상호

김정순, 노정숙, 박성현, 윤상엽, 장동형,  
조상은, 신진철 간사  
대학부: 김민관, 김동휘, 박두홍, 박민재,  
오세원, 전민준.

02

## 더 멋진 세상, 르완다 봉사 단원모집

NGO 더 멋진 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경험과 기술을 전수할 해외봉사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보건과 사회복지(지역개발).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파견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문의: 02-2271-2246

03

### 2013 장로장립

## “Acts29 비전위해 헌신할 것”



민문기 장로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Acts29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04

### 2013 장로장립

##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



박일구 장로

귀한직분 장로로 불러 주시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성도에 본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특히 선교현장에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사랑과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의 나라와 의 구할 것”



이한열 장로

온누리 2기 사역을 장로로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연합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온누리교회에 주신 Acts29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리더십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2

## “예수님 성품과 리더십 닮길”



정영택 장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cts 29를 계속 써 가는 데 동참하게 하시고 거룩한 리더십으로 잘 준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리더십을 닮길 원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르겠습니다.

03

## “위로와 평강 주는 성령의 사람”



한중희 장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거룩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든 민족이 알도록 전하는 실천하는 크리스천이 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고 위로와 평강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04

# “하나님 뜻 따라 기도함에 감사드립니다”

###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 #서빙고

6일(금) 오전 10시 서빙고 선교관 3층 드림홀 서빙고 무릎선교 기도학교의 종강예배가 진행되었다. 드림홀을 가득 메운 성도들은 기도와 찬양으로 뜨겁게 울부짖었다.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선교사 소개 - 이미령 사역자 ▷말씀-안성호 선교사 ▷기도 ▷점심 및 교제 ▷조별기도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말씀은 신기훈 국제선교대학 교수인 안성호 선교사가 맡아 은혜로운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에서는 선교헌금을 모아 선교사와 열방을 위해 사용했고, 기출청소년들을 위한 목도리를 함께 만들기도 했다. 참석한 성도들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방학

중에도 쉬지 않을 것”이라면서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을 것을 다짐했다.

#### #양재

지난 5일(목) 양재 화평홀에서 무릎선교기도학교 졸업예배가 열렸다. 이날 모인 150여 명의 무릎선교기도학교 졸업생들은 한 한기동안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다. 마지막 강사로 이승제 선교사(CCC선교책임자)가 말씀을 전했다. 이 선교사는 차세대와 소통하는 방법, 차세대 위한 투자, 기도제목 등을 나누며 차세대 선교에 대해 강조했다. 말씀 후에는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졸업생을 축하하며 정경혜 성도가 시낭송을, 서은영 집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다.

/ 조유진, 조은실 기자



2013년 12월 8일 978호

- 01- 2013 장로장립 소감 : 이한열 장로(8면), • 02- 2013 장로장립 소감 : 정영택 장로(8면)
- 03- 2013 장로장립 소감 : 한중희 장로(8면), • 04- 서빙고&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11면)

은누리M미션

# 이주민들과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 17개 공동체, 전도집회 등 겨울캠프 진행

은누리M미션 17개 예배공동체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를 연다.

오는 12월 21일(토) 은누리M센터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어예배가 '성탄 기념 새가족초청' 및 '성탄축하예배'로 진행된다.

다음 날 (22일)에는 태국, M센터와 서빙고,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M센터·서빙고·인천몽골어예배에서 '성탄감사예배' 및 '전도집회'를 진행한다. 24-25일에는 안산M센터 몽골어예배에서 '전도집회'와 심야 성탄송 및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5일 안산M센터 스타트리에서 중국어예배가 공연 및 영화관람을 하며 '성탄예배'를, 다문화꿈팍이 '성탄발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7-28일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속한 스타트리에서 학예발표회 및 겨울캠프를 하며 크리스마스를 보낼 예정이다. M센터 러시아어예배는 28일(토)에 음악회 및 저녁 식사 교제를 나누는 '전도집회'를, 29일(주일) 서울랜드에서 통티모르, 인도네시아어예배가 '친구초청 야외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같은 날 서빙고 러시아어예배에서 '친구초청' 예배를, 팽택 몽골어예배는 '전도집회'로 진행된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1

| 부천 무릎선교학교 |

## “무릎선교사로 열방을 품겠습니다”

‘와이미션 8기’ 진행 ... 55명 수료

지난 12월 3일(화) 부천 무릎선교학교 ‘와이미션 8기’가 12주간의 여정을 마치고 종강에 배를 드렸다. 56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무릎선교학교 ‘와이미션 8기’에서는 구약,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한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기도로 어떻게 후원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웠다.

이날 종강예배에서 ‘온누리교회 선교현황과 비전’을 주제로 강의한 황종연 목사양재

이천선교사는 온누리교회와 함께 걸어온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28년간 온누리교회가 품은 선교 비전에 대해 나누며 “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이 있어야 한다. 이곳에 모인 무릎선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권오향 목사(부천 여성사역)는 “복음은 어떤 장애,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무릎선교사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자에게 나누어준 설문지와 메모지에 자신의 기도제목

적어 각자 촛불을 가지고 가운데에 있는 큰지 구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나라에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부르심에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윤정진 집사

‘와이미션’을 통해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 땅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굳어져 가는 내 심령에 처음 주신 마음은 격려였다. 이 땅에는 코

리안 드림을 꿈꾸며 동남아시아와 세계 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수도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을 이 땅 가운데 이미 보내셨다. 내가 가진 소유,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참 자녀 된 자유를 그들에게 전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진정한 선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박영숙 집사

와이미션 8기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분들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여 그분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었고, 이번 계기를 통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02

| 월요치유집회 |

## 네팔을 만지시는 강한 치유의 역사

월요치유집회 네팔 카투만두, 꼬혈빨 방문

카투만두와 꼬혈빨에 성령의 치유가 있었다. 지난 11월 20-27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치유사역자스쿨과 성령 컨퍼런스가, 꼬혈빨 올네이션비전센터에서는 월요치유집회팀과 김성진 장로의 인도로 치유집회가 열렸다.

11월 24일 가네스웰교회에서 개최된 ‘THE FIRE’ 성령 컨퍼런스에는 첫날 700명, 둘째날 1천여 명의 대학청년들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매웠다. 첫날 오전 20명이 단상으로 올라와

성령세례를 받았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자매, 부축을 받아 참석한 50대 여성 총 50여 명이 고침을 받는 등 방언과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

11월 26일 꼬혈빨 올네이션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치유사역자스쿨은 60여 명의 목회자 및 사모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어너더교회에서 꼬혈빨 연합치유집회가 열렸다. 600명을 예상한 집회에는 100명 이상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



렸다. 이날 기도 사역 이후에도 많은 치유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23명의 사역자와 김성진 장로가 다녀온 일주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 월요치유집회팀은

“성령의 만지심과 치유를 통해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은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네팔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김성진 장로

들지 못한 귀가 열렸습니다. 이는 모두 예수

작년 네팔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 주셨습니다. 앓은 병이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50년 평생 말을 하지 못했던 여인은 입이 열렸고, 10년 동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일입니다.

꼬혈빨의 목사님들은 성경으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성령사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이와 같은 성령사역을 하길 원한다고 하여 올해 첫 치유사역자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네팔에 도착하여 숙소에서 무릎이 땅에 닿

자마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와 너희를 기다렸다’. 주님이 기다리셨다는 그 음성에 저는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꼬혈빨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이미에 빨간 칠을 한 힌두교 교인들도 많이 왔었는데,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한 스피커는 단 두 개뿐이라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대다수였습니다. 스피커는 전압에 따라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하며 하울링을 내고 방해했고, 집회를 인도하기 어려운 상

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하셨습니다. ‘너희가 전하는 말이 사실임을 내가 확증해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믿음에서 해방되었고 치유가 임하며,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성령님은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네팔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13년 12월 8일 978호

- 01- 부천 무릎선교학교 : 와이미션 8기 종강예배(13명)
- 02- 월요치유집회팀 : 네팔 카투만두 & 꼬혈빨 치유사역 및 김성진 장로 간증(13명)

01

# CGN,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 캐럴 감상 유튜브도 오픈

CGNTV가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 남게 온전히 헌신할 시니어 선교단원을 모집한다.

‘CGN 청춘선교단’ 이름으로 활동하는 시니어 선교단은 협력기관에서 10주 동안 선교훈련을 받고 국내외 아웃리치를 가게 된다. 활동기간은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지원 자격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50세 이상 교인이어야 한다. 1월 4일까지 CGNTV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thinkmall@naver.com)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275-9445/9514

한편,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감상할 수 있는 유튜브 ‘CGNTV Praise’가 오픈했다. 온누리교회 예배, 집회, 콘서트 등에서 성탄 관련 음악만을 모았다. ‘Jesus loves me’ (김조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박기영), ‘징글벨’ (소울싱어즈), ‘O Holy Night’ (성악가 김동규), ‘White Christmas’ (나무엔), ‘Let it rain’ (신보라, 헤리티지) 등 25여 곡을 감상할 수 있다. 유튜브 어플 또는 구글 검색창에서 ‘CGNTV Praise’를 검색하면 된다.

문의: 02-3275-9441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뗏배잉 군의 행복한 겨울나기

## 서빙고 무릎기도, 미안마 환아 후원

지난 12월 5일(목)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미안마에서 온 소년 뗏배잉(10세)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서빙고 무릎선교기도학교(이하 무릎기도) 측은 이 소년의 구순구개열 수술과 미안마의 영혼구원을 위해 선교헌금을 모아 장철호 선교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그런 후원과기도 덕분에 뗏배잉 군은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

무릎기도 중보기도자들은 수술이 끝난 후에도 매일 오전 오후, 조별로 병원을 방문해 기도를 계속 이어갔으며, 간식과 장난감, 학용품, 옷 등도 지원했다. 그 결과 12월 9일

(월)에는 뗏배잉과 그의 삼촌 류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뗏배잉은 “지금까지 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선생님이 되는 것이 장래희망”이라고 고백했고, 중보자들은 뗏배잉 군이 미안마와 그 민족을 주님께 드리는 훌륭한 리더로 자라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다. 무릎기도 측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보다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어려운 현실만 보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 임산부 수술 의료

더 멋진 마을(Better Village) 위해 피해지역 인근 섬 입양



2013년 12월 15일 979호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1(8면)



# 봉사 · 복구, 구호품 전달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Iloilo)지역에 파견된 온누리 구호팀이 열흘간의 구호활동을 마치고 입국했다. 온누리 구호팀은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한복판에서 의료봉사, 복구, 구호품을 전달하며 구슬땀 흘렸다. 치료받지 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산모 수술과 더 멋진 마을 조성을 위해 섬을 입양하는 등 큰 성과를 냈다.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결과를 정리했다.



## 온누리 긴급구호팀 구호 활동 내용

### 누가

CMN 소속 의료사역팀 11명(의사 4명, 간호사 4명, 약사 1명 지원 2명) / 대학청년부 소속 청년 6명 / NGO 더 멋진 세상 4명 / 영상팀 1명

개,북쪽 항구마을 Carles 구호품 200개, Barotac Viejo 구호품 100개, Purok 섬 구호품 50개, 본죽 1박스, To-ong 섬 구호품 100개

### 언제

2013년 12월 4-13일

▶ 12월 12일 Afentaba 산간마을 구호품 40개 나눔, 태양열 전구 세트 40개, 본죽 1박스

### 어디서 · 무엇을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본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 지역  
 의료지역 4개 지역  
 ▶ 12월 5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279명  
 ▶ 12월 6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133명  
 ▶ 12월 7일 Town: San Dionisio, Barangay: Agtalaran 222명  
 ▶ 12월 8일 Town: Ajuy, Barangay: Pantalan, Stio: Binongan-an 120명  
 ▶ 12월 9일 Town: Tapaz 220명

### 어떻게

■ 의료 사역  
 ▶ 진료환자: 974명  
 ▶ 진료내용: 근육통, 기침감기, 열, 고혈압, 피부병 등  
 ▶ 지원액: 1,500만원

■ 임산부 수술  
 ▶ 이름: Flor Ortiz(여, 43세)  
 ▶ 병명: 자궁의 임신 및 자궁암 1기  
 ▶ 진행상황: Iloilo에서 1차 수술(6일) 후 약물치료 중

### ■ 복구 · 구호품 전달

▶ 지역: 12개 지역 구호품 2000세트 (세트 당 쌀 10kg, 칫솔 10개, 치약2개, 비누3개, 세탁비누, 통조림 3개, 라면4개, 과자, 사탕, 여성용품 등)  
 ▶ 12월 5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구호품 230개, 가정상비약 300세트, 의료지역 지원, 도로 정비  
 ▶ 12월 6일 Town: Sara, Barangay: Apusaga 의료지역 지원, 도로 정비.  
 ▶ 12월 7일 Town: San Dionisio, Barangay: Agtalaran 구호품 300개, 가정상비약 300개 세트, 의료지역 지원  
 ▶ 12월 8일 Town: Ajuy, Barangay: Pantalan, Binongan-an 구호품 50개, 가정상비약 50세트, 본죽 1박스, 의료지역 지원.  
 ▶ 12월 9일 Town: Tapaz 구호품 370개, 가정상비약 300세트, 교회 본당 장판 교체, 의료지역 지원  
 ▶ 12월 10일 Barotac Viejo 구호품 220개 / Mangorocoro 구호품 70개  
 ▶ 12월 11일 Roxas 인근 Capis 산간 마을 구호품 300

### ■ 구호 활동

▶ 지원액: 5,500만원  
 ▶ 12개 지역 구호품 2000세트 전달

### ■ 초등학교 건물 복구

▶ 지역: San Dionisio 초등학교  
 ▶ 내용: 교무실, 교실 4개동이 있는 본관 건물의 지붕 공사와 교실 천정 작업  
 ▶ 공사 기간: 2013년 12월 16일부터 한 달 이내.  
 ▶ 예산: 1,800만원 지원

### ■ 섬 마을 입양

▶ 지명: Binongan-an 섬마을,  
 ▶ 위치: Town: Ajuy, Barangay: Pantalan, Purok: Binongan-an  
 ▶ 주택 피해: 50가구 중 49채 파손  
 ▶ 선박 피해: 1척 파손, 나머지는 상태 좋음.  
 ▶ 인구: 약 300명  
 ▶ 어린이: 약 100명  
 ▶ 예산: \$30,000 지원 예정

### ■ 향후 계획

▶ 1단계 사업: 파괴된 주택을 우선 새로 건축.  
 ▶ 2단계 사업: 비전센터 건립, 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비전센터를 함께 세움.  
 ▶ 3단계 사업: 위생 환경개선 식수, 생활환경 개선

2013년 12월 15일 979호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2(9면)



01

## 용산공동체와 더 멋진 세상이 함께한 ‘사랑의 후원’

### 2년간 아웃리치로 맺은 인연, 사랑의 결실 맺어

나랑토야 자매는 남편, 일행 10명과 함께 지난 2011년 6월 28일 ‘에르드 노트시’에서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마치고 올란비토르로 돌아오던 중 남편이 운전한 차가 교통사고로 전복하여 탑승장 10명 중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큰 사고가 났었다. 그 당시 운전했던 남편은 과실치사로 3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되어 현재 수감 중에 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어려움에 처한 나랑토야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해 여름 아웃리치로 방문한 용산공동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랑토야 집사는 허벅지 대퇴부가 여러 조각으로 골절되어 1차 수술을 받았으나 결합이 잘 되지 않고 2차 수술도 하였고, 나경과가 좋지 않아 몽골에서는 치료 불가능으로 판단되어졌다. 함께한 의료선교회 소속 의사들이 현지에서 치료를 시도했지만 현지 치료가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더멋진세상’의 지원을 힘입어 초청, 치료를 지원하게 되었다. 오히려 집사(용산공동체 선교팀장)는 나랑토야 자매와 용산공동체, 더멋진세상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올해는 지난해 의료진이 그대로 참석한 가운데 17명이 샤르하드 은혜교회를 방문했어

요. 몽골 의료진이 열악했던 터라 나랑토야 자매를 그 당시의 상태로 놔두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공동체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모든 절차를 밟은 끝에 한국에서 치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특히 ‘더멋진세상’ 김광동 장로(용산공동체)가 무료병원 및 1차 수술비와 모든 입국절차, 비자관계를 ‘더멋진세상’에서 부담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2차 수술은 공동체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동체 후원모금으로 추진이 되었어요.”

또한 용산공동체에서 지체들에게 매년 순예배와 다락방 모임에서 환우들을 돕자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 많은 헌금이 모여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담은 사랑의 후원이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 2차 수술의 필요한 모든 재정이 모금액으로 충당이 되었다.

지난 11월 14일(목),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이 초청한 몽골 현지인 나랑토야(49, 여) 성도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1차 수술은 분당 순병원(김병순 장로)에서 진행되었다. 2차 수술은 주정형외과(주성대 장로)에서 용산공동체 성도들이 모금하여 마련했다. 나랑토야 집사는 1,2차



수술 및 모든 치료를 잘 받고 오는 12월 28일(토) 출국한다.

지난 12월 10일(화) 서빙고 두란노홀에서 진행된 용산공동체모임에 아웃리치로 2년 동안 깊은 인연을 맺은 나랑토야 성도가 참석해 은혜를 나눴다.

“처음에 저희 현지 교회에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단기팀이 와서 인연이 닿아 진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도와주신 분들, 공항에서부터 환영해주신 여러 교회 성도님들, 온누

리교회와 용산공동체, 후원해주신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몽골 아웃리치를 섬긴 용산공동체는 몽골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다락방에서 지속적으로 섬기며 기도도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랑토야 자매가 1-2년 후에는 현재 철심을 박아놓은 것을 빼야 하기 때문에 몽골에서 못 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대청 ‘사랑했나눔’ 사역의 첫 스타트를 끊은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윈터캠프에 49가정이 참석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다.

### 대청 윈터캠프

## ‘다문화가정’과 함께 나는 따뜻한 이웃사랑

‘고아와 과부, 이방인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소외된 다문화가정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윈터캠프’가 지난 12월 7-8일 1박2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양지파 안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윈터캠프’는 이사회에서 아직도 소외 받고 있는 다문화가정(49가정(135명))과 함께 하는 스키캠프 및 부모강의, 매직비블쇼 등으로 진행되었다. 캠프에는 33명의 봉사자와 5명

의 교역자가 참석해 다양한 게임 및 프로그램의 준비를 했다.

대청연합본부는 2주간의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 참석하는 49가정의 다문화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 되는 시간을 가지며 기쁨의 교제를 나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3

### 윈터캠프를 다녀와서

####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이번 캠프에서 스키를 처음 타서 겁이 났지만 강사님이 잘 가르쳐준 탓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높은 데에서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며 스키를 골알 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미를 붙여서 마치는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계속 스키를 타고 싶으며 스키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목사님께서 매직쇼와 비블쇼를 준비해 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신나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에게 발을 씻겨드리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캠프에서 찍었던 가족사진을 예쁜 액자에 담아 주시고, 5만원의 상품권과 USB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정우랜(다문화가정)

#### “소중한 추억 만든 시간”

윈터캠프에서 처음으로 타 보는 스키에 즐거워하는 아내와 자녀들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또 또한 그 순간만큼은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유해근 목사의 말씀은 그동안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일반가정과는 다르다는 그림자를 지워버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세족식 시간에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하고 아껴주지 못한 아내의 발을 닦아 주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아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와 다문화센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구충원(다문화가정)

#### “눈물과 함께 회복을 선물 받은 감동의 세족식”

부모님들을 위해 준비한 ‘세족식’은 감동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밤새 79개의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이 차가울까 봐 봉사자들은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며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발을 씻김 받은 분에게 눈물과 함께 회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신 봉사자들의 마음에도 성령님께서 눈물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스키를 처음 뒀는데 난 넘어졌다고 자랑하는 아이, 함께 풍선 가지고 놀아줬더니 행복한 표정을 짓던 아이, 봉사자의 얼굴을 손으로 비비고 만지던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이들이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게 비추길 기도합니다.



윤일중 형제 (여호수아공동체)

2013년 12월 15일 979호

- 01- 용산공동체 & 더 멋진 세상 몽골(나랑토야) 자매 수술 지원(11면), • 02-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대청 <윈터캠프> 개최(11면)
- 03- 윈터캠프를 다녀와서 : 정우랜 & 구충원 & 윤일중 형제(11면)



세품아

# 양재, 세계를 품은 아이들 종강

## 1년 과정, 학생 10명 수료

양재 캠퍼스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하 세품아) 과정이 14주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30일 양재 비전홀A에서 종강예배를 드렸다. 이번 과정에는 10명이 수료했다. 세품아는 봄학기 14주, 가을학기 14주로 1년 과정

으로 진행되며, 4월부터 11월까지 선교와 성경을 통해 세계를 품은 아이들로 훈련하는 교육과정을 갖고 있다. 다음은 세품아를 졸업한 학생의 간증을 실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간 증 / 스리랑카 아웃리치

## “참 행복하고 뿌듯했어요”



이해인 (양재 세품아)

나는 세품아를 시작하기 전에 세품아라는 이름을 듣고 “어? 세계를 품은 아이들? 이게 뭐지? 이상하네?”라고 생각했다. 세품아에 접수를 하고, 비전홀에서 면접이 끝난 며칠 후, 내가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다. 기뻐했다. 세품아 두 번째 모임에서는 함께 캠핑을 갔다. 사실 캠핑을 가서도 걱정이 많았다. 계속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계속 하다보니 예배가 점점 재미있어졌다. 세품아 과정을 밟아오면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이 훈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동안 나와 친구들이 선교여행을 떠나기 위해 남아서 연습했던 일, 예배시간에 떠들어서 혼나게 되었던 일 등 모두가 소중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우리가 스리랑카로 아웃리치를 간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우리 세품아 친구들은 워싱턴스와 인형극 등 열심히 연습을 했고, 엄마들은 아웃리치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스카프를 팔았다.

그렇게 준비하던 중에 나는 스리랑카 아웃리치 기간이 중간고사 일정과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시험을 치를 경우, 내가 본 시험에 70%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고 했다. 그래도 감사했던 것은 우리 가족이었다. 가족들은 다른 걱정은 뒤로하고 나에게 스리랑카에 가라고 격려해주셨다. 많은 친구들과 엄마들의 걱정 속에 나는 스리랑카로 떠났다.

### 덥고 습하지만 행복했던 아웃리치

스리랑카는 생각보다 무척 더웠고 습했다. 공항 출구 쪽에는 아주 큰 불상이 있었다. 정말 신기했다.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함께 말이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유보안(안녕하세요?)” 등 아주 기초적인 말뿐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우리가 “아유보안”이라고 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유보안”이라고 대답해주었다.

우리의 사역은 양로원과 고아원, 유치원, 학교, 그리고 아직도 전쟁의 흔적이 남



아있는 빈민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공연을 보며 사람들은 즐거워했다.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에는 색종이 접기를 해서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 서로를 향해 날려 보냈다. 그런데 그곳의 아이들은 색종이를 처음 보아서인지 그 종이 비행기가 아까워서 날리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사역 중에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다. 우리가 인형극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노래가 끊겨버렸다. 우리는 직접 소리를 내어 노래를 부르며 인형극을

끝까지 마쳤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기특하다고 칭찬해주셨다. 아웃리치라고 하면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로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중간에 쇼핑도 하고 수영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는 식물원에도 갔고 삼륜차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새 정이 든 스리랑카 사람들과 헤어지려니 서로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비록 그곳의 날씨는 덥고 습했지만 난 참 행복했다. 나와 같은 아이도 선교를 다녀왔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비행기에서 스리랑카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01

## CGNTV 시니어선교 캠페인

CGNTV가 시니어 선교동원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 캠페인은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시니어들을 일으켜 국내외 선교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CGNTV는 2014년 시니어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교회 및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시니어 선교에 관련된 기획보도, 기획대담, 특집 다큐멘터리,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방송되는 신규 문화 프로그램은 약 9개월간 시니어들의 선교훈련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CGNTV에서 방송에 참여할 시니어 선교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시니어선교단원으로 선발되면 협력기관을 통해 이론 강의, 현장실습, 국내외 아웃리치를 경험하게 된다.

이훈 목사는 “오늘날에는 사회 곳곳에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섬기는 어르신들이 필요하다”며 시니어 선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CGNTV 시니어선교 캠페인은 온누리교회, 남서울은혜교회, 시니어선교한국, 나섬공동체가 함께 한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02

## 더 멋진 세상, 해외봉사단원 모집

### 아프리카 세네갈 파견

NGO 더 멋진 세상에서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 중이다.

해외봉사단원으로 선발되면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질병예방, 보건지원, 의료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해외봉사활동이 가능한 간호사(조무사) 자격증 소유자로 파견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관련분야 봉사활동 경험자를 우대한다. 항공비, 주거비, 생활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NGO 더 멋진 세상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12월 25일까지 이메일(betterworld87@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2271-2246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13년 선교결산

# 하나님께서 이루신 2013 온누리 선교

##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한 해 마무리”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8-20).

하나님께서 올해도 변함없이 온 누리를 두루 살피시며, 온누리 선교 사역 가운데 ‘Amazing Grace(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난 12월 17일(화) 비전홀에서 선교 ‘감사의 밤’을 열었다. 이번 ‘감사의 밤’은 열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 사들에게 후원과 위로를 보내준 선교사 가족, 후원자, 공동체, 선교기도모임, 선교단체 등 320명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선교, 감사의 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라오스, 중국 우루무치, 일본, 인도, 네팔, 파키스탄, 아부다비 등지에서는 영상을 통해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올해 리브스나타 후속으로 와이미션을 진행하며 선교의 불씨를 피운 일본 고베에서는 “온누리교회와 현지가 협력해서 일본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로 인해 이곳이 세워져가고 있다. 이제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양육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그 밖의 인도, 네팔, 파키스탄에서도 성탄 인사와 함께 감사를 표하며 “이곳에 있는 수많은

은 헌도와 무슬림들이 무릎선교사들의 기도를 통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은혜로운 간증을 했다.

이번 행사에 특수를 섬긴 가수 노사연은 ‘만남’과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어 가수 이무송 집사가 연예인합창단 ACTS29를 소개하며 함께 찬양과 수화로 감동적인 공연을 펼쳤다.

### 빌립보교회처럼 세워지는 ‘온누리교회 꿈꾸

이날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빌 1:5-6)’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 이재훈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워진 빌립보교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과 감사의 고백이 있던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빌립보교회에 나타난 선교 정신(복음)이 온누리 선교사님들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선교본부를 통해 시작한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는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또 하나의 빌립보교회처럼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말씀을 마친 후, 박대호 장로(이전선교본부)가 2013년 한 해 동안 선교본부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한 ‘선교본부뉴스’를 발표했다. 이어 감사추천시간에는 10명을 추천해 감사의 메시지와 선물을, 한 해 동안 선교본부에서 헌신한 유재천 장로, 박대호 장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지막으로 MIX자녀(선교사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캐럴로 ‘감사의 밤’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 2013년 온누리 선교본부에서는 .....

## “국내,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동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했던 2013년 온누리교회 선교본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향해 기도와 물질 등을 후원하며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 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다양한 사역을 펼쳤다.

먼저 국내에서는 온누리 장로, 권사 리더십을 위한 ‘와이미션’ 스쿨을 열어 선교의 중요성 및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캠퍼스 순회선교집회를 통해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인 ‘선교’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특히 올 한해 평화통일을 위해 북녘 땅을 향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발발기를 진행한 ‘블레스 한반도’를 통해 온누리 8,100여 성도들이 한반도를 위해 울고 노래하며 기쁨의 승전기를 불렀다.

해외 선교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하용조를 임당예배부터 중동,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선교전략회의, 안산M센터 연합세례식, ‘더멋진세상’에서 주관한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 등을 하며,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 2013년 주요 ‘선교 NEWS!’ 한 눈에 보기

- ‘와이미션’ 필수과정**  
 - 온누리 장로, 권사 필수과정  
 - 온누리 국내 캠퍼스 및 해외 비전교회에서도 활발하게 진행

- 국내 캠퍼스 순회선교집회 및 순선교 진행**  
 - iCare시스템을 통해 공동체에서 선교기도제목 공유  
 - 국내 캠퍼스 순회 선교집회 실시(부천, 인천, 강동 등)

- 블레스 한반도**  
 - ‘울어라 한반도여’ 집회(공동체 증강예배로 진행 8,100여 성도 참석)  
 - 수요북한선교집회  
 - 한반도 평화대행진(15박16일, 총 436명 참가, 고성 통일전망대 ~ 임진각 320km)  
 - 자전거DMZ투어 (272명 참가, 12km 중주)  
 - ‘노래하라 한반도여’ 순장영성수련회에서 진행

- 스리랑카 온누리국제학교 하용조를 임당 중동, 소아시아(터가) 담임목사 참석, 선교사 격려, 북아프리카 전략회의 안산M센터 연합세례식(17개 예배공동체, 66명 참석) 추석연합집회 Harvest(650명 참석) 선교사 훈련 5회 진행(Acts29 비전빌리지): FA, H2H 총 120명 이상 온누리M센터 신축예정 Acts29 비전빌리지 탐클래스 구입(선교사 숙소로 사용)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더멋진세상): 세네갈, 르완다, 파키스탄 등(행복마을) ‘더멋진세상’ 정기 후원자 5,000명 이상(10억), 재능기부(60명)**



태풍 '하이옌' 이 남긴 상처와 희망

“필리핀이여 깨어나라!”

필리핀 중부지역(Visayas)의 레이테섬, 세부섬, 네그로섬, 파나이섬 등을 차례로 할퀴고 지나간 슈퍼태풍 하이옌(올란타). 순간 최대 풍속이 시속 379km를 기록한 하이옌은 강력한 바람과 해일로 온 마을을 순식간에 초토화 시켰다.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절규하는 필리핀 주민들의 눈물을 멀리서 바라보는 지구촌 이웃들의 마음도 젖었다.

태풍 피해로 아파하는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 멋진 세상은 지난 12월 4일 CMN과 청년부 멤버 23명을 긴급구호팀을 파나이섬으로 파견했다. 일로일로지역을 기점으로 열흘간 진행된 구호활동은 4개 마을에서 1,000여 명을 진찰했고, 12개 마을의 2,000명에게 비상식량과 생필품 등이 담긴 구호품 세트를 전달했다.



계속된 중부지방의 자연재해

필리핀 중부 지역은 지난 10월 15일 중부 보홀섬을 중심으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하여 많은 가옥이 파괴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었다. 하지만 지진으로 놀라고 아픈 마음을 수습하기도 전, 찾아온 초강력 태풍의 재앙으로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해일이 발생한 해안 지역은 마을이 침수되어 쓸려나갔고, 산간 마을은 수 주독원인 바나나와 망고 나무 등 과실수 등이 대부분 쓰러져서 앞으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무런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학교 지붕은 뒹굴었고, 체육관 건물의 철골 구조는 엇가락처럼 휘어졌다.

태풍 피해 현장을 이곳저곳 둘러보니 마음이 착잡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한정된 힘으로 이 많은 피해 주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다. 태풍 발생 3주째가 되는 시점이었지만 아직도 피해 가족들은 준비했고, 강력한 바람 앞에 산의 나무들도 초목을 잃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다. 폐허가 된 해변 마을 주민들은 생계수단인 배가 파손되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외부 구호단체들의 도움으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다행이었다. 섬마을은 배를 타고 가야하는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소외되고 있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손길이 미치지 못한 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찾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교회에 물러드는 주민들

구호활동 첫날은 차량에 구호품 운반을 알리는 현수막도 설치하고, 필요한 약품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가져왔기에 바빴다. 특히 구호품을 싣고 가야하는데, 그 부피가 크고 개수도 230개이므로 한 트럭 가득히



싣어야 했다. 더운 날씨에 구호품을 싣는 팀원들은 아침부터 땀으로 목욕을 해야 했다. 오전 10시 30분 쯤 첫 목격자인 사라(Sara) 인근 아부사가(Apusaga) 산간마을에 도착했는데, 도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되고 태풍으로 넘어진 전신주와 전기선이 그대로 있어서 차량이 마을로 접근할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팀원들은 마을 주민들의 오토바이를 타거나 20여 분을 걸어서 가야 했다.

의료활동 장소인 마을의 교회에는 벌써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약품을 꺼내기, 발전기의 시동을 걸어 전기 공급하기, 주민들을 번호 순서대로 접수하기 등 차례대로 해야 할 일을 진행했다. 아우리치의 경험이 많은 의료팀원들이라 일이 수월했고, 특히 현지인들과 통역자들이 열심히 섬겨주어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었다. 외과와 산부인과의 진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주민들이 계속 교회로 몰려왔다. 이곳의 가구는 227가구이고, 교인 수는 50여 명인데, 태풍으로 인해 지난 주 교회 출석인원이 150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태풍을 통해 교회가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부흥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전 11시 15분쯤 구호품을 실은 트럭이

도착해서 12시부터 가구별로 이름을 체크하며 나누어 주었다. 현지 교회에서 작성한 주민들의 리스트를 마을의 리더가 체크하면 한 가정씩 구호품을 전해주는 방식으로 천천히 차분하게 진행하였다. 주민들은 정부가 주는 2kg 단위의 쌀만 받다가 목직한 구호품 세트를 받아들자 환한 미소로 “살라맛”(고맙습니다)을 외쳤다.

더 멋진 세상이 품은 더 멋진 아일랜드

더 멋진 세상 본부는 구호활동 지역 중에서 우리의 힘을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도와주어 주민들을 복음화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아후이(Ajuy) 군청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인근 섬마을 하나를 추천 받았다. 비농안안(Binogan-an)이란 이름의 조그마한 섬으로, 망오로코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야 했다. 그곳에는 50가구와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고, 태풍으로 인해 콘크리트 건물 1채를 제외한 나머지 49채가 파도와 바람에 무너지고 마을은 온통 쓰레기 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이곳에도 학교가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 2학년까지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건물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고 허리 높이로 벽을 둘러만

든 교실 세 칸이 전부다. 흙 바닥 위에 의자 몇 개를 들여 놓고 조그만 칠판을 걸어 놓은 게 교실이었다. 전기는 발전기를 사용하고, 물은 우물을 파서 목욕이나 기타 빨래에 사용하고 식수는 생수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교회는 없고 조그마한 성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다. 리서치를 마친 후 더 멋진 세상은 이 섬을 입양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

섬에서 처음 드려진 주일 예배

비농안안섬이 입양된 후 첫 주일인 지난 12월 8일 오전, 이 섬마을에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찬양소리에 동네 아이들이 몰려오고 할머니들이 함께 예배하기 위해 들어왔다. 언어는 달라도 찬양 멜로디에 흥얼거리며 함께하는 모습이 멋진 조화를 이루며 감동적인 예배의 자리가 되었다. 몇몇 아이들은 찬양을 아는지 영어로 따라 부르기도 했다. 이 섬은 앞으로 더 멋진 세상에서 지원한 2,000만원으로 주택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2단계 사업으로 학교 건물을 비전센터로 신축해서 학교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외형적 변화와 더불어 영적인 변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섬으로 오기위해 배를 탔던 망오로코로 포구에 자리한 현지인 교회의 담당자인 플로리타(Florita, 45세, 여) 목사가 주일 오후마다 비농안안섬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 삼는 일을 진행한다. 마을 조성 사업과 제사 양육이 병행되어 진행된다면 이 마을에 교회가 들어설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에메랄드빛의 바닷물과 멀리 보이는 섬과 하늘의 구름,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에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한다.

/ 고대선 부장(더 멋진 세상)



01

# “한국어로 하나 됨 경험”

## 온누리M미션, 한국어말하기대회

지난 주일(12월 15일) 서빙고 B101호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말하기대회’가 열렸다.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는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온누리교회 한글학교 교장 이영복 장로가 주관했다.

이날 ‘한국어말하기대회’에서는 10명의 학생이 참가해 자기소개 및 고향소개 등을 주제로 그동안 배웠던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최우수상은 러시아의 두샤, 초급 1등은 이집트의 맘두, 중급 1등은 네팔의 러마와 스키파, 고급 1등은 네팔의 릴과 딜라 학생이 받았다.

또한 이번 한국어말하기대회에 참석한 7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성경암송과 함께 찬양 및 율동으로 재능을 발휘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이 함께한 ‘한국어말하기대회’가 지난 주일(12월 15일) 서빙고 B101호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한글학교는 1997년에 개교했으며 해마다 연1회 한국어말하기대회를 열어왔다. 매년 심사를 맡고 있는 원우현 장로는 “한국어말하기대회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참석해 마치 열방이 함께 드리는 예

배 같았다”며 “이국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하나 됨을 경험하며, ‘joy glory peace가 넘치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02

### CGNTV 시니어 선교캠페인

##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 1. 시니어선교단원 활동 내용

활동기간 : 2014년 2월 ~ 10월 (9개월)

활동내용 : “CGN청춘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협력기관을 통해 10주간의 선교훈련을 받고 국내외 아웃리치를 경험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멤버로 활동

#### 2. 시니어선교단원 지원방법

지원방법 : 1)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접수

2) 지원서 없이 지원할 경우-신앙고백서/답임목회

자, 지인 추천서/배우자(가족) 동의서/성함/성별/나이/은퇴 전 직업/출석교회 선교단에 지원하는 이유를 작성 후 우편접수

지원기간 : 2014년 1월 4일(토) 까지

보내실곳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85-4 CGNTV 제작국 CGN청춘선교단 제작팀 앞

\*문의 : 02-3275-9445/9514

제작1팀 경소영/정지훈PD

2013년 12월 22일 980호

- 01- 온누리M미션 : 한국어말하기대회(13면)
- 02- CGNTV 시니어 선교 캠페인 :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14면)





2014 선교헌금 작정을 1월 5일과 12일에 실시한다. 내년에는 온누리 선교 정보전략 연구소(가칭) 설립, 선교 포럼 개최 등의 사역을 진행한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블레싱 한반도를 주제로 복음통일을 준비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임진각에서 8,100여 명의 성도들이 복讎 땅을 바라보며 부르짖은 '올어나 한반도에 집회'.

## 1월 5일, 12일 ... 새해 첫 헌금 봉헌 선교지 상황 및 사역 소개 책자 배포

온누리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창립 이후 지금까지 매년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 주일에 선교 헌금을 작성해온 것이다. 2014 선교 헌금 작정을 1월 5일과 12일 두 차례

에 걸쳐 실시한다. 내년에는 교회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와 사역을 진행한다.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온누리 선교 정보전략 연구소(가

칭)'가 설립되고, 세계선교동향과 능동적 지원 방법 모색을 위한 선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선교사 리더십을 양성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십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터넷 신학교 과정도 준비할 계획이다. 은퇴 선교사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또 90여 명의 신규 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이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2만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선교헌금에 동참했다. 선교헌금을 통해 25개국 106명의 신규 선교사를 파송했고, 블레싱 한반도를 통해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했다. 인도네시아, 네팔, 스리랑카 등지에 선교베이스를 구축하고 확장했다. 이 외에도 안식년 중인 선교사 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역을 감당했다.

선교헌금 작정은 1월 5일과 12일

온누리 모든 캠퍼스 주일예배에서 진행된다. 작성서 기입과 봉투, 직접 계좌이체 방식 중 택할 수 있다. 올해는 125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오늘(29일)부터 선교지 상황과 사역을 소개하는 책자가 배포된다. 성도들은 관심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이메일 혹은 편지로 받아볼 수 있다. 문의 02-3215-3209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01

키워드로 보는 2013 온누리교회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2013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를 표어로 힘차게 달려온 온누리교회.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운동 마리아행진, 복음통일을 준비한 블레싱 한반도,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기 여름 아웃리치 등 교회와 성도, 이웃들을 섬기며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다. 하나님과 함께 보낸 2013년을 되돌아봤다.

### ■ 2013 국내외 아웃리치

#### 산 넘고 바다 건너 '전하고 · 가르치고 · 고치고'

2013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외 합산 265개팀 7,838명이 참가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수고의 땅방울을 흘렸다.

대청 2,683명, 서빙고 1,943명, 양재 1,798명, 캠퍼스 1,414명 등 총 7,838명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국내 강원도(37팀), 경기도(20팀), 전남(19팀), 해외 동남아(48팀), 동북아(21팀), 중동·유럽(10팀) 등지에서 전도,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등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02

## “MK라서 감사합니다”

MK는 선교사자녀(Missionary Kids)를 지칭하는 단어로 성장기 대부분을 선교지에서 보낸 아이들을 말한다. 지난 26일, 서빙고 한동홀에서 MK를 위한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후원자, 중보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한해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 MK들의 감쪽한 울동과 청년 MK들의 간증은 보는 이들의 마음

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예준이를 위해서는 한마음 모아 뜨겁게 기도했다.

도육환 목사(2천선교본부)는 “MK는 이 시대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답게 성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리더십이 될 것이다”고 격려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2013년 12월 29일 981호

- 01- 키워드로 보는 2013 온누리교회 : 2013 국내외 아웃리치(10면)
- 02- MK 선교사자녀 (Missionary Kids) 위한 감사의 날 행사 개최(12면)





# 찾아보기

1.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호수별 목록
2. 온누리신문 선교관련 기사 분류별 목록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883	2012.01.01	2012년 선교헌금작성 안내
883	2012.01.01	북아프리카 전방개척 아웃리치 계획
883	2012.01.01	2천선교 : 선교 사진전 개최
883	2012.01.01	2011년 온누리교회 10대 뉴스 1-1
883	2012.01.01	2011년 온누리교회 10대 뉴스 1-2
883	2012.01.01	평택 온누리교회 : 몽골어예배팀 성탄절 맞이 자국민 초청행사 개최
883	2012.01.01	인천 온누리교회 : 대학청년부 '몽골인 전도집회' 개최
883	2012.01.01	미주 비전교회&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평신도 선교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1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2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양재 캠퍼스 2000선교
884	2012.01.08	2012년 선교헌금작성 안내
884	2012.01.08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특별기획/기도> 기도와 선교편
884	2012.01.0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온누리전문인선교훈련학교(OPMS) 2기 훈련생 모집
884	2012.01.08	2011년 선교헌금 사용내역 안내 및 2012년 사용계획 안내
884	2012.01.08	지난 선교사역 평가& 올해의 계획 · 전망 : 도육환 목사 인터뷰
884	2012.01.08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현황
884	2012.01.08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1-1
884	2012.01.08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1-2
884	2012.01.08	TV 추천 프로그램 :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884	2012.01.08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884	2012.01.08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884	2012.01.0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885	2012.01.15	2차 선교헌금 작성 안내
885	2012.01.1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1-1
885	2012.01.1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1-2
885	2012.01.15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885	2012.01.1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885	2012.01.15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886	2012.01.22	2012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886	2012.01.22	온누리M미션 설날 수련회 안내
886	2012.01.22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소개 : 김복음 선교사 (캄보디아)
886	2012.01.22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소개 : 김별-백합화 선교사 (아프리카A국)
886	2012.01.22	온누리교회 선교관련 기도모임 소개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886	2012.01.22	웨스트LA 온누리교회 : 팅팍기 아웃리치 및 뉴멕시코 원주민들과 함께 성탄예배
886	2012.01.22	보스턴 온누리교회 : 원데이 아웃리치 및 대학부 볼리비아 아웃리치
886	2012.01.22	OEM : Mission Trip to Cambodia
886	2012.01.22	서빙고 -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외
886	2012.01.22	양재 - 다문화가정여성에 한글가르칠 교사 모집 외
887	2012.02.05	2월 12일 비전헌금 : 온누리미션 신입생 장학 지원
887	2012.02.05	2천선교 <비전 컨퍼런스> 개최
887	2012.02.05	故 조성록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 감사예배
887	2012.02.05	대학청년연합 멘토들 비전공유 위한 '2012 비전나이트' 개최
887	2012.02.05	iSchool(아이스쿨) : 선교 관련 강의
887	2012.02.05	재정 - 해외선교계좌
888	2012.02.12	Acts29 비전컨퍼런스
888	2012.02.12	Acts29 비전빌리지 : 조선족 성도 장인과 사위 세례식 및 간증
888	2012.02.12	괌 온누리교회 : 선교 활동 중인 퍼시픽 아일랜드 대학교 학생 2명 선교장학금 전달
888	2012.02.12	OEM : Winter Missions
888	2012.02.1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중앙아시아 기획다큐'
888	2012.02.12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888	2012.02.12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888	2012.02.1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889	2012.02.26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참가자 모집
889	2012.02.26	2012년 첫 선교사 파송식 : 권능-지혜 외 가정 1팀, FA 2기 2개국 팀(아시아A국 6명, 유럽B국 7명)
889	2012.02.26	온누리M미션 : 외국인 신학생 장학금 전달
889	2012.02.26	양재 2기 세피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889	2012.02.26	평택 온누리교회 : 2012년 선교팀 사역계획 안내
889	2012.02.26	단동 온누리교회 : 성경통독운동과 중보기도의 열기
889	2012.02.26	동경 온누리교회 : 지진 및 인플루엔자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기도요청
889	2012.02.26	시드니 온누리교회 : 대학청년부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아웃리치
889	2012.02.26	2천선교 : 공동체 '책임선교사 제도' 소개
889	2012.02.26	FA청년 단기선교사 간증 : 임하영(아시아 A국)& 손하진(유럽B국)
889	2012.02.26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109편>
889	2012.02.26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나의 선교지, 파푸아뉴기니
890	2012.03.04	3월 11일 비전헌금 :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890	2012.03.04	선교단체장 초청모임 : 올해 온누리 주요 선교정책 '아프리카 선교베이스 구축'
890	2012.03.04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연합스프링데이' 개최
890	2012.03.04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안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890	2012.03.04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890	2012.03.04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프로그램 소개
890	2012.03.04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앞둔 봉사자와 참석자 인터뷰&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890	2012.03.04	전면광고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891	2012.03.1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준비 상황 안내
891	2012.03.11	아랍 CGNTV 창립 및 본격적 활동 안내
891	2012.03.1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12-18)
891	2012.03.11	평택 온누리교회 : 1+2 예배 소개
891	2012.03.11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891	2012.03.11	와이미션(Why Mission?) 소개 및 허만호 예비 선교사 간증
891	2012.03.11	러시아 주일예배 세례식 및 '인나 유가이' 간증
891	2012.03.1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세네갈 이화섭 선교사편>
891	2012.03.11	TV 추천 프로그램 : 위클리 미션 <첫방송>
892	2012.03.18	2012 북서부 아프리카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계획
892	2012.03.18	선교사 파송 : 신원석-오수경 외 가정 6팀, 싱글 3팀
892	2012.03.18	해외 일만사역자 임명식 : 최필순(싱가포르), 박희경(싱가포르)
892	2012.03.1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19-25)
892	2012.03.18	남양주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892	2012.03.18	얼바인 온누리교회 : 온두라스 '미스끼토' 종족 선교 사진첩 발간
892	2012.03.18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아프리카 18개 국가 소개
893	2012.03.25	CGNTV 개국 7주년 특집 다큐 <블레싱 사하라> 방영 안내
893	2012.03.25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26-4.1)
893	2012.03.25	전문인 선교학교(OPMS) 2기 참가자 모집& OPMS 1기 수료 및 파송상황
893	2012.03.25	다문화가정 위한 교육프로그램 <스타트리>영어전문학원으로 개편 개강
893	2012.03.2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남아시아 선교사 전략회의
893	2012.03.25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영광-이찬양 선교사(소아시아 A국)
893	2012.03.25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양윤희 선교사(태국)
893	2012.03.25	안산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4명 성도 세례
893	2012.03.25	안산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세례자 간증 : 념 소완(Nhoem Sovann)
893	2012.03.25	OEM : Freedom and Honor Conference
893	2012.03.25	OEM : Intro to IJM Night
893	2012.03.25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블레싱 사하라
893	2012.03.25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라크의 크리스천
894	2012.04.0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위한 <총결기대회> 개최
894	2012.04.0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 (4.2-8)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894	2012.04.01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1-1
894	2012.04.01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1-2
894	2012.04.01	NGO '더 멋진 세상' 긴급구호사업 계획 안내
894	2012.04.01	2012 온누리장로수련회 : 故 하용조 목사 성묘 참배
894	2012.04.01	2012 온누리장로수련회 이재훈 목사와 함께 '비전 나눔' : Acts29 비전 함께 이룰 'AMA'
895	2012.04.0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참가자 교육
895	2012.04.08	산타모니카(구 웨스트 LA) · 뉴저지 · 교토 온누리교회를 해외비전교회 승인
895	2012.04.08	평택 몽골어예배 '아지트' 전도사 인터뷰 및 기도요청
895	2012.04.0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9-15)
896	2012.04.15	선교사 파송 : 장갈렙-홍사라(동아시아 C국), 김스데반(중동 Y국)
896	2012.04.15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및 자선장 개최
896	2012.04.15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16-22)
896	2012.04.15	아리문츠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896	2012.04.15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896	2012.04.15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897	2012.04.2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곧 개막
897	2012.04.2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23-28)
897	2012.04.22	온누리M미션 : 연합열방예배 및 자선장 개최
897	2012.04.22	일만사역자 파송 : 김원기(헝가리)
897	2012.04.2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복음을 전파하라 1-1
897	2012.04.2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복음을 전파하라 1-2
897	2012.04.22	온누리 목사안수 소감 : 박신웅 목사 (대학청년부)
897	2012.04.22	양재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유학생 장학금 수여
897	2012.04.22	동경온누리교회 : 창립 11주년 새비전 선포 및 테페르 위해 기도 요청
897	2012.04.22	야치요 온누리교회 : 기타무라 스스무 형제 세례
897	2012.04.22	대련 온누리교회 : 부활절 찬양축제 개최
897	2012.04.22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구 웨스트LA) 창립예배
897	2012.04.22	시드니 온누리교회 : AS공동체 오범석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
897	2012.04.22	미주 온누리교회 연합 : '일대일큐티세미나' 단기선교 개최
897	2012.04.22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897	2012.04.22	2012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남은 지역 참가 접수 및 안내
897	2012.04.22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의료사역 동참 요청
897	2012.04.22	여성선교사 리트릿에서 생긴 일 : 천사랑 선교사(T국)
897	2012.04.22	OEM : Intro to IJM Night
897	2012.04.22	OEM : The Grlbal Orphan Care Revival& the korean Church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897	2012.04.22	OEM : Free2 Play
897	2012.04.2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111편>
897	2012.04.22	TV 추천 프로그램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폐막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봉사자& 참가자 인터뷰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행사들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현지교회 방문기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사토 아키라' 목사 간증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이재훈 목사 메시지 : 희망의 나무
898	2012.04.29	남양주 온누리미션 '자선장' 개최
898	2012.04.29	해외 이주 근로자 섬기는 박흥규-이지희 부부 인터뷰
898	2012.04.29	온누리M미션 : '리더십 회복집회' 및 '열방연합예배' 보고
898	2012.04.29	도서안내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을 나도 사랑했습니다』 - 하용조 목사
898	2012.04.29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 '유현숙 선교사'
898	2012.04.29	TV 추천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믿음의 영웅들-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
899	2012.05.06	남양주 온누리미션팀 : 다문화가정과 해외 이주근로자 위한 자선장 개최
899	2012.05.06	강동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개강
900	2012.05.13	아웃리치 세미나 및 아웃리치 스쿨 개강 안내
900	2012.05.13	대전 온누리교회 : 이상헌 집사 가족 인터뷰
900	2012.05.13	안산M센터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별 5분 전도팀 동행취재
901	2012.05.20	김재란 선교사& 아사히카와 러브소나타팀 온누리교회 방문
901	2012.05.20	3차 선교사 파송식 : 표바나바-송사라(아프리카 T국), 어영선-박미선(인도)
901	2012.05.20	온누리교회&연세세브란스병원 :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
901	2012.05.20	모잠비크 간사 아웃리치팀 : 아웃리치 물품 후원 요청
901	2012.05.20	양재 이천선교본부 : '함께하는 선교' 강조하며 이천선교 중보기도모임 진행
901	2012.05.20	강동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1	2012.05.20	수원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주최 '선교사를 위한 바자회' 진행
901	2012.05.20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1	2012.05.20	부천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1	2012.05.20	시카고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진행
901	2012.05.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김재석 담임목사 취임
901	2012.05.20	중국교회 리더십 위한 <비타민 C집회>
901	2012.05.20	이재훈 담임목사와 본부장들 OSOM 훈련생들 위로
901	2012.05.20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김자옥의 하늘빛향기 <양유식 장로>
902	2012.05.27	故 하용조 담임목사 묘지 이장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02	2012.05.27	크리스천CEO포럼(CCF) : 특별세미나 및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학생이 보낸 편지 : 이병훈 (경배와찬양학과)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중국에서 온 편지 : 탕자매 (루이안시 광명당교회)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 중국 크리스천 리더십 CGNTV 후원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묘지 이장
903	2012.06.03	6월 10일 비전현금 : 단기선교 및 아웃리치
903	2012.06.03	축복과 교제의 〈CMN 간담회〉 개최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CMN 사역팀 의료봉사
903	2012.06.03	CMN 의료봉사 참가자 간증 : 더기·사마 자매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선교 후원 위한 바자회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몽골어예배 운녕바야르 자매 간증
903	2012.06.03	양재 일대일사역팀 : 아웃리치 기금 마련 연합자선장 개최
903	2012.06.03	뉴저지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903	2012.06.03	시드니 온누리교회 : 인도네시아 발리 고아원 '요셉하우스' 프로젝트 선포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현장 스케치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메시지 : 이동원 목사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기도 : 김종인 장로
903	2012.06.03	2천선교 : 아웃리치 세미나&기도회& 스쿨 진행 현황 안내
903	2012.06.03	1주차 아웃리치 스쿨 '이대형 선교사' 메시지 :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한 로드맵
903	2012.06.03	장기선교훈련(OSOM) 19기 수료식 및 김진경 예비선교사 간증
903	2012.06.03	대청(대학 청년부)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3	2012.06.03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다카마쓰 비전트립
904	2012.06.17	NGO '더 멋진 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904	2012.06.17	무릎선교 기도학교 종강
904	2012.06.17	대전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시작 및 아웃리치 일정표
904	2012.06.17	대전& 평택 온누리교회 : 선교후원 바자회
904	2012.06.17	보스턴 온누리교회 : 도미니카 일대일, 큐티 아웃리치
904	2012.06.17	우에다 온누리교회 : '러브소나타 나가노 네트워크' 결성
904	2012.06.17	오사카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수료
904	2012.06.17	나고야 온누리교회 : 〈지진피해지역 위한 자선장〉 개최
904	2012.06.17	OSOM 수료하고 신규 허입한 23명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904	2012.06.17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김상희 선교사(시에라리온)
904	2012.06.17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신미식 작가·오성환 PD
905	2012.06.24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 양지 캠퍼스' 승인
905	2012.06.24	동부노인요양센터&영어예배&몽골어예배 : '다문화 음식체험' 행사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05	2012.06.24	일산 공동체 주관 : 세네갈·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기금 마련 자선장
905	2012.06.24	요셉 공동체 12주년 블레싱 및 ODO지역 현황
905	2012.06.24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한진 선교사 (베냉)
905	2012.06.24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정보애 선교사
905	2012.06.24	<아오모리 러브소나타>가 맺은 인연 : 나태일-사사키 유미 부부
906	2012.07.01	2012 여름 아웃리치 본격적으로 시작
906	2012.07.01	<2012 대청 여름 아웃리치 스쿨> 폐막
906	2012.07.01	양재 2천선교 적정기술선교팀 : <적정기술 소개자료> 앱 출시
906	2012.07.01	중국 장춘 종교국 관계자 온누리교회 방문
906	2012.07.01	강동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예배
906	2012.07.01	평택 온누리교회 : 대청 첫 아웃리치 중국 청도
906	2012.07.0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6	2012.07.01	남양주 캠퍼스 : 일대일 수료 중국인 자매 감사편지 및 양육자 정인숙 집사 간증
906	2012.07.01	단동 온누리교회 : 윤형로 장로 찬양 전도집회 개최
906	2012.07.01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 제5기 와이미션 강의 시작
906	2012.07.01	대련 온누리교회 : 중국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장
906	2012.07.01	결혼 3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반동 아웃리치' 다녀온 김현태-김병희 부부
906	2012.07.01	'온누리 장학금' 수혜 외국인 학생 리트릿 개최
906	2012.07.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영섭 선교사(차드)
906	2012.07.01	더 멋진 세상 파키스탄 후시푸르 비전센터 완공식 다녀와서 : 최진혁 실장
906	2012.07.01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구호사업 소개 및 계획 안내
906	2012.07.0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버지학교'
906	2012.07.01	TV 추천 프로그램 : [기획대담] 한국 선교의 미래를 말한다.
907	2012.07.08	대청 2012 해외 아웃리치 일정 안내
907	2012.07.08	예수제자학교(JDS) 해외 아웃리치 안내
907	2012.07.08	노원공동체 요르단 아웃리치 시작
907	2012.07.08	평택&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07	2012.07.08	평택 온누리교회 : 책임선교지 첫 아웃리치 '아제르바이잔'
907	2012.07.08	대련 온누리교회 : 예배찬양 컨퍼런스 개최
908	2012.07.15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진행
908	2012.07.15	본아이에프(주) 본사랑 : 해외 아웃리치 팀 위한 죽 후원
908	2012.07.15	두바이에서 열린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스케치
908	2012.07.15	주일강단 황종연 목사 설교 : 내 양 떼를 먹여라
908	2012.07.15	CMN의료선교 아웃리치 발대식
908	2012.07.15	대청연합 : 아웃리치 위한 특별기도회 진행중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08	2012.07.15	부천 대청연합 드림 공동체 : <홍해기도회>를 통한 아웃리치 준비
909	2012.07.22	<2012 블레싱 사하라> 진행 현황
909	2012.07.22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 안내
909	2012.07.22	이재훈 담임목사님팀 : 세네갈 아웃리치 1-1
909	2012.07.22	이재훈 담임목사님팀 : 세네갈 아웃리치 1-2
909	2012.07.22	요르단 아웃리치 보고 : 박수정 자매(하늘 공동체)
909	2012.07.22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지아 교사(양재 꿈땅 소년 2부)
909	2012.07.22	블레싱 사하라 동행 취재기 : 모로코 · 모리타니 편
909	2012.07.22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보고 : 정현숙 집사(송파공동체)
909	2012.07.22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안내
909	2012.07.22	단기선교훈련 TP(Turning Point) 수료예배
909	2012.07.22	전교인 필독서 :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 케이티 데이비스
909	2012.07.22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홍렬의 꿈꾸는 자전거
910	2012.07.29	<故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 안내
910	2012.07.29	온누리교회& 우리은행 협약 <우리사랑나눔美> 홍보 행사
910	2012.07.29	선교사 파송 : 카일리(동아시아 C국), 이다윗-정빛(중동 A국)
910	2012.07.29	만남 : 비전트립의 감동을 일러스트로 나누는 작가 이준천 형제
910	2012.07.29	(故) 하용조 목사 1주기 추모 안내
910	2012.07.29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박광우-고혜영(코트디부아르)
910	2012.07.29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보람 성도(남양주 구리공동체)
910	2012.07.29	모잠비크 아웃리치 보고 : 손영은 간사(양재 목회지원실)
910	2012.07.29	TV 추천 프로그램 : [추모특집 다큐] 하용조
910	2012.07.29	TV 추천 프로그램 : 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Live)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시인 이원로 장로 추모시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스케치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홍정길 목사 설교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서빙고 성전 추모예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김진홍 목사 설교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故 하용조 목사 장남 하성석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저서 안내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이동원 목사 추모사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추모시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추모사진 및 도서전> 개최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11	2012.08.05	〈故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 참석자 인터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故 하용조 목사 행장(行狀)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최순영 장로 인터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일본을 향한 하용조 목사의 러브소나타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러브소나타관련 특별 인터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투병일지 및 비전 확장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하용조 목사 담당의사들 인터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하용조 목사가 남긴 비전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비전교회 관련 김선도 집사 인터뷰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①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②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③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④
911	2012.08.05	전면광고 : 故 하용조 목사 추모 1주기 기념 저서 안내
912	2012.08.12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정경화 자선 콘서트' 개최
912	2012.08.12	일본어예배 : 일본인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참가자 모집
912	2012.08.12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간담회〉 개최
912	2012.08.12	고베 러브소나타 그 후 이야기
912	2012.08.12	이집트 아웃리치 보고 : 홍차영 자매(Pole2공동체)
912	2012.08.12	튀니지 아웃리치 보고 : 민웅기 형제(허브 공동체)
912	2012.08.12	중국 아웃리치 보고 : 조영우 성도(고양은평공동체)
912	2012.08.12	필리핀 세부 아웃리치 보고 : 박지명 형제(브릿지33+공동체)
912	2012.08.12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보내며 : 정병두 · 홍범식 장로
912	2012.08.12	포인트5공동체 : 다문화가정 섬김 아웃리치 〈2012 케어리치〉 개최
912	2012.08.12	TV 추천 프로그램 : [특집대담]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912	2012.08.12	TV 추천 프로그램 : [블레싱사하라 특집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913	2012.08.19	서빙고 · 젊은 부부학교 연합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913	2012.08.19	4차 선교사 파송식 : 김기용-김선희 외 가정 4팀, 싱글 4팀, FA 3기 팀(7명)
913	2012.08.19	인도 · 네팔 · 부탄 아웃리치 보고 : 황민식 전도사(남양주33+공동체)
913	2012.08.19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박혜원 (하늘 공동체)
913	2012.08.19	캄보디아 아웃리치 보고 : 임수연 (GiL 공동체 선교그룹)
913	2012.08.19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신현기 교사 (차세대 양제 중등1부)
913	2012.08.19	키비(KIBI) : IBS스쿨 21기 개강
913	2012.08.19	국민일보 기사 속 책 소개 :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소나타』 - 하용조 지음
913	2012.08.19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Light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13	2012.08.19	TV 추천 프로그램 : 한국기독실업인회(CBMS) 60주년 기념대회
914	2012.08.26	2천선교& CGNTV : '여름 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실시
914	2012.08.26	예수제자학교(JDS) : 아웃리치 보고회 <2012 Disciple's Day> 개최
914	2012.08.26	온누리미션 : 연합세례식 현장 및 짜아 티나 형제 · 손춘희 자매 간증
914	2012.08.26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박지영 성도(일산공동체)
914	2012.08.26	일본 이치카와 아웃리치 보고 : 조대현 집사(양천공동체)
914	2012.08.26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임윤 자매(Point5공동체)
914	2012.08.26	필리핀 아웃리치 보고 : 장민주(남양주 J공동체)
914	2012.08.26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119편>
915	2012.09.02	공동체 다락방장 위한 '와이미션(Why Missions?)' 모집
915	2012.09.02	서빙고 일대일 사역팀 : C국 아웃리치 보고
915	2012.09.02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강정례 팀장과 오정란 사역자 인터뷰
915	2012.09.02	박영근 · 강일영 선교 목회자 인턴십 인터뷰
915	2012.09.02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콘서트 준비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인터뷰
915	2012.09.02	중국 곤명 아웃리치 보고 : 박영훈 집사(고양은평공동체)
915	2012.09.02	인도네시아 솔로 아웃리치 보고 : 조수현 집사(일산공동체)
915	2012.09.02	'블레싱 사하라' 케냐 아웃리치 보고 : 한동호-이향숙 성도(서초B공동체)
915	2012.09.02	북경 아웃리치 보고 : 남주언 성도(서초C공동체)
915	2012.09.02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
916	2012.09.09	2012 여름 아웃리치 폐막 및 선교본부 아웃리치 사진 · 영상 · 간증 공모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개막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티아트 테이블 장식 담당자 인터뷰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참석자 인터뷰
916	2012.09.09	안식년 장기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홈투홈(Home to Home)'
916	2012.09.09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이영재-최영미 선교사(탄자니아)
916	2012.09.09	몽골 아웃리치 보고 : 오희종 집사(용산공동체)
916	2012.09.09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이태열 집사(서빙고 전도폭팔)
916	2012.09.09	중국 아웃리치 보고 : 송영봉 집사(분당A공동체)
916	2012.09.09	남양주 온누리미션 아웃리치 보고 : 박지현(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
916	2012.09.09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 향기
916	2012.09.09	TV 추천 프로그램 : 일본인 전도집회 'KIZUNA'
917	2012.09.16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안내
917	2012.09.16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
917	2012.09.16	CMN(의료선교부) 해외 아웃리치 보고
917	2012.09.16	PHOTO NEWS (사진기사) :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사진전 <HUG>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17	2012.09.16	CGNTV 정기후원 약정 및 해외 후원자 간증
917	2012.09.16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 파워웨이브 선교실습훈련
971	2012.09.16	동경 온누리교회 : 이시노마키 아웃리치 보고
917	2012.09.16	보스턴 온누리교회 선교팀 : 워터 페스티벌 일일 전도행사 진행
917	2012.09.16	뉴욕 IN2 온누리교회 : 보스턴 린 리빙필드교회 아웃리치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개최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일본 CGNTV 개국 6주년
917	2012.09.16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09편)
918	2012.09.23	CGNTV 정기후원 약정 행사
918	2012.09.23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
918	2012.09.23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개최
918	2012.09.23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9.24-30)
918	2012.09.23	영어예배(OEM) : 캄보디아 아웃리치팀 간증 및 이슬람을 위한 기도행진
918	2012.09.23	전면광고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919	2012.09.30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진행 보고
919	2012.09.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20주년 선교대회> 개최 안내
919	2012.09.30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1-7)
919	2012.09.30	CGNTV 선교 및 문화 콘텐츠 강화 가을개편 단행
919	2012.09.30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보고
919	2012.09.30	<투고> 인도 난디알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김정숙 목사 (온누리 병원선교 담당)
919	2012.09.30	평택 온누리교회 : 외국인인을 위한 예배 안내
919	2012.09.30	중국 심양·단동·연길 선교지 탐방 보고 : 정순풍 장로
919	2012.09.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윤요셉-신마리아 선교사 (미국)
919	2012.09.30	TV 추천 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919	2012.09.30	TV 추천 프로그램 : [선교다큐 시리즈] 1부 카자흐스탄
920	2012.10.1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프레대회(홍보집회) 보고
920	2012.10.14	10월 14일 비전헌금 :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920	2012.10.1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15-21)
920	2012.10.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20주년 선교대회> 개최 안내
920	2012.10.14	수원 온누리교회 금홍사역팀 소개
920	2012.10.14	외국인 이주민 위한 <Harvest 2012>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920	2012.10.14	서울대 미대 김병중 교수가 소개하는 책 : 『쿠사츠의 봄』 - 이형기 지음
921	2012.10.21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20주년 기념 'TIM 선교주일' 예배 진행
921	2012.10.21	선교사& 일만사역자 파송 : 임모세-유루스 외 가정5팀, 싱글7팀& 임형규 일만사역자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21	2012.10.21	강남B공동체 : 캄보디아 형제들 초청 '전도집회' 개최
921	2012.10.21	선교 공모전(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각 부문 결과 발표
921	2012.10.21	온누리 핵심가치 전수 <제3회 비타민 C집회> 개최
921	2012.10.2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22-28)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발자취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0년)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도육환 목사 인터뷰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선교사 파송현황& 대륙별 선교현황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1년~2012년)
922	2012.10.2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교육
922	2012.10.2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29-11.4)
922	2012.10.28	2012 온누리부흥축제 '하나님의 흔적(The Signature of God)' 보고
922	2012.10.28	목사 안수 소감 : 하카마타 미키(일본어예배)
922	2012.10.28	네팔 아웃리치 보고 : 용명순 권사(월요치유집회팀)
922	2012.10.28	<2012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및 해외 비전교회 권역별 사역보고
922	2012.10.28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923	2012.11.04	CGNTV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 2012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수상
923	2012.11.04	<2012 아웃리치 공모전 시상식> 개최
923	2012.11.0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1.5-11)
923	2012.11.04	<기획연재> ② "선교는 즐겁다" I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923	2012.11.04	대련 온누리교회 :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923	2012.11.04	해외 비전교회& 국내 캠퍼스 공동체 자매결연
924	2012.11.11	서빙고 캠퍼스 성북공동체 : 안산 온누리M센터 아웃리치
924	2012.11.11	온누리교회 지원하는 외국인 장학생 리트릿 진행
924	2012.11.1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개막 안내
924	2012.11.1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1.12-18)
924	2012.11.11	미주·중국·베트남 해외 비전교회 : 일대일 사역 이야기
924	2012.11.11	평택 온누리교회 : 외국인 식구 포함 전교인 체육대회 개최
924	2012.11.1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24	2012.11.11	<기획연재> ② "선교는 즐겁다" II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 향기 <88편>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17편>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개막
925	2012.11.18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파키스탄 리더십 초청 새마을운동 교육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스케치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가스펠나이트& 교회부흥세미나& 러브소나타의 꽃 봉사자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실행위원장 인터뷰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크리스천 CEO 포럼 및 김명용 총장 인터뷰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이재훈 목사 메세지
925	2012.11.18	의료선교 숨은 주역 CMN '지원팀' 및 담당 목사와 장로의 만남
925	2012.11.18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인도네시아 발리섬>
925	2012.11.18	CGNTV 후원 감사 편지 : A선교사(인도)
925	2012.11.18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925	2012.11.18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926	2012.11.25	일본 현지 '토미 그리스도교회' 목회자 성도 한국 방문 감사패 전달
926	2012.11.25	강남B공동체 : 탁구로 선교하는 공동체 이야기
926	2012.11.25	수원 온누리교회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40명 성도 참석
926	2012.11.25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 크리스천 CEO 포럼 1-1
926	2012.11.25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 크리스천 CEO 포럼 1-2
926	2012.11.25	온누리M미션 : 네팔어 예배 창립
926	2012.11.25	온누리M미션(Onnuri Mission) 소개
926	2012.11.25	터키 아웃리치 보고 : 이영희 성도(분당A공동체)
926	2012.11.25	불가리아 아웃리치 : 최형선 사역자(인천A공동체)
927	2012.12.02	NGO <더 멋진 세상> 해외봉사단원 모집
927	2012.12.02	전문인자비량 선교학교(OPMS) 2기 수료
927	2012.12.02	청년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FA) 4기 모집
927	2012.12.02	대전 온누리교회 : 중국어예배 신설
927	2012.12.02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 니카라과 아웃리치
927	2012.12.02	2012 CMN(의료선교부) 사역보고
927	2012.12.02	TV 추천 프로그램 : 충성! 은혜로軍 <아이티 단비부대>
928	2012.12.09	2012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기도중보자학교 종강
928	2012.12.09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현지 리더십 '새마을교육' 수료
928	2012.12.09	대련 온누리교회 : 16명 세례식 및 김혜원 성도 간증
928	2012.12.09	야치요 온누리교회 : 우에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928	2012.12.09	'애쓰네 국제선교대회(Ethne Seoul Korea)' 미전도 종족 입양 사례발표
928	2012.12.09	수원 온누리교회 : <블레싱 인도네시아> 집회 개최
928	2012.12.09	TP선교사 선교일지 : 김미영 선교사(M국)
928	2012.12.09	FA선교사 선교일지 : FA 3기 선교사(동아시아 A국)
928	2012.12.09	TV 추천 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6편>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2. 12. 09 ~ 2013. 1. 20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28	2012.12.09	TV 추천 프로그램 : [드라마] 꿈을 좇는 아이들
929	2012.12.16	2012 선교감사의 밤 행사 개최
929	2012.12.16	장기선교훈련(OSOM) 20기 수료
929	2012.12.16	인천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수료식
929	2012.12.16	CMN(의료선교부) : 선교사 위한 독감예방접종
930	2012.12.23	CGNTV에 700만원 현금한 이종상 어르신
930	2012.12.23	양지 온누리교회 소개 및 담당목사 인터뷰
930	2012.12.23	NGO <더 멋진 세상> 출범 2주년 감사예배 및 홍보대사 위촉식
930	2012.12.23	KIBI(키비) <송년의 밤> 개최
931	2012.12.30	2013년 선교현금작성 안내
931	2012.12.30	<2012 선교현금> 열방 사용처 안내
931	2012.12.30	PHOTO NEWS(사진기사) : 남양주 온누리교회 세례식
931	2012.12.30	인천 온누리교회 : 몽골인 전도축제
932	2013.01.06	2013년 선교현금 작성 안내
932	2013.01.06	<기획연재> 이웃에게 사랑전하는 대학청년부 : ③ 다문화가정과 함께 'Winter Camp'
932	2013.01.06	다문화가정과 함께 'Winter Camp' 참가자 가족 인터뷰 : 민지원(필리핀)& 아내 이정자
932	2013.01.06	2013년 선교현금 사용처 및 현장사역비 안내
932	2013.01.06	2013년 선교현금 작성 인터뷰 : 이재훈 담임목사
932	2013.01.06	2013년 선교현금 작성 선교현금 작성 방법
932	2013.01.06	올해부터 온누리 선교사 후보들 대상 <1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932	2013.01.06	서빙고 - 기초 중국어 성경 모임 외
932	2013.01.06	양재 - 무릎선교 기도모임 외
933	2013.01.13	2013 선교현금 2차 작성 안내
933	2013.01.1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1
933	2013.01.1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2
933	2013.01.13	<2013 패션(Passion)> 집회 보고& 감사 어록
933	2013.01.13	<2013 패션(Passion)> 집회 인터뷰 :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933	2013.01.13	TV 추천 프로그램 : GMAN 선교포럼
933	2013.01.13	CGNTV <후원방법 안내> : 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934	2013.01.20	2013년 선교현금 작성 집계 결과 : 73억 6천만 원 작성
934	2013.01.20	선교사 파송& 일만사역자 파송 : 정준모-정혜진 외 가정 4팀, 싱글 1팀& 서미란 일만사역자
934	2013.01.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차세대팀 쥬빌리 일본인교회 아웃리치
934	2013.01.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아이티 아웃리치
934	2013.01.20	뉴저지 온누리교회 : 시리아 피난민 사역일지
934	2013.01.20	오사카 온누리교회 : 안수집사 임직예배& 일본인 나가오카교코 자매 간증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35	2013.01.27	선교사 후보생 위한 <온누리 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936	2013.02.03	온누리미션 : 이주민 위한 수련회 일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936	2013.02.03	당회소위원회 명칭 변경 안내 및 신설 분과위원회 '선교' 파트 명단
936	2013.02.03	2013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 10대 선교 과제 선정 및 선교방향 발표
937	2013.02.17	선교사 파송 : 류은유-김겸손 외 가정 2팀, 싱글 22팀
937	2013.02.17	강동 캠퍼스 : 다문화가정 초청 <선택이 나눔 잔치> 개최 및 참석자 인터뷰
937	2013.02.17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아웃리치
937	2013.02.17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 : 이재환 선교사 초청 <선교컨퍼런스>
937	2013.02.17	대만 아웃리치 보고 : 한경훈 형제(Pole2 공동체)
937	2013.02.17	이스라엘 비전트립 보고 : 홍예지 자매(서빙고 중등2부)
937	2013.02.17	<2013 Passion> 집회 보고 : 배아연 자매(인천 중등부)
937	2013.02.17	CGNTV <후원방법 안내> 2. 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937	2013.02.17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937	2013.02.17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937	2013.02.17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938	2013.02.24	라오스 아웃리치 보고 : 안세훈 성도(서빙고 마포공동체)
938	2013.02.24	온누리M미션 전도집회 보고 : 김지현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938	2013.02.24	온누리교회 선교사 대륙별 현황
938	2013.02.24	2000선교 본부장 도육환 목사 인터뷰
938	2013.02.2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Acts29 센터> 개원 1-1
938	2013.02.2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Acts29 센터> 개원 1-2
938	2013.02.24	인도네시아를 가슴에 품은 '인선회'와 '안디옥 선교사역' - 박용국 장로
938	2013.02.24	네팔 '올네이션스 비전센터' 개원 및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
938	2013.02.24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양덕훈 선교사(태국)
939	2013.03.03	3월 3일 비전헌금 : 평택 인도네시아 쉼터 사역 돕기 및 강동 다문화가족 후원
939	2013.03.03	서빙고 여성사역 알림 : 무릎선교기도학교 모집
939	2013.03.03	서빙고 와이미션(Why Mission?) 권사스쿨 개강
939	2013.03.03	남양주 온누리교회 : 터키 선교사 후원 바자회 개최
939	2013.03.03	손수 만든 인형 선교지에 보내는 '한땀 사역'에 동참 독려하는 '박경희 권사'
939	2013.03.03	CMN(의료선교부) : '2013 스프링데이' 개최
939	2013.03.03	양재 이천선교 : 제1회 온누리 선교 탁구대회 개최
939	2013.03.03	TV 추천 프로그램 : CGN 비전특강 <정제순 선교사 편>
939	2013.03.03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무명(사우디아라비아)
940	2013.03.10	CGN TV : 동일본 대지진 2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940	2013.03.10	샤론회 데코팀 :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40	2013.03.10	차세대 : 선교 주제로 특별강사 초청해 '수요어머니기도회' 진행 안내
940	2013.03.10	부천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 소개
940	2013.03.10	열린 선교단체장 조찬모임 : 선교사역 및 선교근황 공유
940	2013.03.10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청년인턴 · 전문 해외봉사단 모집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파키스탄 청년 리더십 초청 <전주비전대 교육 지원>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후원자 초청 감사패 수여
940	2013.03.10	오사카 온누리교회 : 박용관 집사 초청 <리더십스쿨> 개최
940	2013.03.10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향기
941	2013.03.17	인도 나갈랜드 지역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 3인 <CGNTV 연수>
941	2013.03.17	온누리 공동체 : '순 선교 사역' 실시할 예정
941	2013.03.17	샤론회 데코팀 :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941	2013.03.17	제3기 과학기술선교학교 개강
941	2013.03.17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941	2013.03.17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및 '무릎팍선교사' 노선빈 팀장 소개
941	2013.03.17	대전 온누리교회 : 3월 캄보디아 어린이 후원 위한 비전헌금
941	2013.03.17	양지 온누리교회 : 선교 관련 기사판
941	2013.03.17	강동 온누리교회 : 3월 미소가족(다문화가정) 위한 비전헌금
941	2013.03.17	CGNTV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 무명 (오스트리아 비엔나)
941	2013.03.17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우츠크시마 후크시마 after 3.11
942	2013.03.2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참가 접수 안내
942	2013.03.24	양재 온누리교회 : 햇불 트리니티 이주민 학생 장학금 수여식
942	2013.03.24	CGNTV 개국 8주년 기념 특집 다크 방영
942	2013.03.24	서빙고 권사스쿨 : '와이미션' 개강
942	2013.03.24	서빙고 무릎선교기도학교 상반기 개강 및 개편
942	2013.03.2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3/25-31)
942	2013.03.24	아웃리치 위한 적정기술세미나 개최
942	2013.03.24	대련 온누리교회 : 순 개강예배
942	2013.03.24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및 봉사자 김관식 장로 소감
942	2013.03.24	수원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개강
942	2013.03.24	양재 이천선교 중보기도회
942	2013.03.24	'와이미션' 수료자 조기훈 팀장 간증
942	2013.03.24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은혜의 강 아마존
942	2013.03.24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시리아에 핀 무지개
943	2013.03.31	CGNTV 개국 8주년 감사예배 및 직원 4명 선교사 헌신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43	2013.03.31	CGNTV 개국 8주년 기념 인터뷰(Interview) : 이재훈 담임목사
943	2013.03.31	CGNTV History 및 주요연혁
943	2013.03.31	CGNTV에 온 편지 : 축하메시지
943	2013.03.31	CMN 의료선교팀 : 몽골인 화상환자 <차스커> 자매 수술 지원
943	2013.03.31	햇빛트리니티에 지원한 이주민 8명의 학생들 장학금 수여
943	2013.03.31	서대문 공동체 : 캄보디아 아웃리치 보고 및 아웃리치 이후 선교사님 소식
943	2013.03.31	<차세대 수요어머니기도회> 특별 강사 초청 '선교' 주제로 진행
943	2013.03.31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1-7)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
944	2013.04.07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3기 개강
944	2013.04.07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8-14)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기념 인터뷰(Interview) : 유재건 장로(CGNTV 대표이사)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선교헌신예배' 선교헌신자 4명 간증 : 박미진, 박재웅, 윤영준, 이철원
944	2013.04.07	PHOTO NEWS(사진 기사) : CGNTV 개국 8주년 기념예배 단체 사진
944	2013.04.07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944	2013.04.07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945	2013.04.14	온누리 지구촌 사역 : 동콩고 난민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 '자선콘서트' 개최
945	2013.04.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터키 '전방개척 전략회의' 개최
945	2013.04.1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 1-1
945	2013.04.1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 1-2
945	2013.04.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터키 현지에서 '전방개척 전략회의' 개최
945	2013.04.14	무릎선교기도학교 :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망인들 위한' 바자회 개최
945	2013.04.1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15-21)
945	2013.04.14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소개
945	2013.04.14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간증 : 김명훈 형제(이수공동체)
946	2013.04.21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위한 '정경화 자선콘서트' 개최
946	2013.04.21	FA 단기선교 수료자 기도모임 시작
946	2013.04.21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위한 연합기도회 개최
946	2013.04.21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22-28)
946	2013.04.21	강동 온누리교회 : 마지막 주 수요일 '선교헌신예배'로 지정
946	2013.04.21	온누리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Onnuri Missionary Orientation) 소개
946	2013.04.21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은덕 선교사(가명)
947	2013.04.28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집회 1차 접수 안내
947	2013.04.28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29-5.5)
947	2013.04.2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연세의료원 : 선천성 기형 몽골 어린이 위한 특별 환송회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47	2013.04.28	대전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아웃리치 위한 자선장
947	2013.04.28	강동 온누리교회 : 수요선교헌신예배 시작
947	2013.04.28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종강 및 예비 선교사 17명 배출
948	2013.05.05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1차 참가자교육 안내
948	2013.05.05	선교사 준비생을 위한 일일 오리엔테이션(OMO) 일정 안내
948	2013.05.05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5.6-12)
948	2013.05.05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48	2013.05.0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개강예배
948	2013.05.05	여성 선교사 리트릿 보고 : 브리스길라 선교사(중국 A국)
948	2013.05.05	책 소개 : 『숨지마, 네 인생이잖아』 - 김해영 지음
948	2013.05.05	CGNTV 후원자스토리 : 홍희란(가명)
949	2013.05.12	Again 오키나와 <열린 러브소나타> 개최
949	2013.05.12	더(The) 멋진 세상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949	2013.05.12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5.13-19)
949	2013.05.12	CGNTV 추천 프로그램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폐막
950	2013.05.19	CGNTV 직원 여름 아웃리치 발대예배
950	2013.05.19	2013 2차 선교사 파송식 : 유성근-허귀재 외 가정 4팀, 싱글 1팀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현장 스케치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오키나와 소개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인터뷰 : 쿠니요시 마모루 목사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교회부흥세미나 및 가스펠 나이트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인물스토리 : 다카시마 나나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참가자 인터뷰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이재훈 목사 설교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950	2013.05.19	서빙고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50	2013.05.1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일정 안내
950	2013.05.1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이상준 목사 인터뷰
950	2013.05.19	2013 상반기 '온누리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950	2013.05.19	CGNTV 드림온 후원 안내
950	2013.05.19	전면광고 : 201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951	2013.05.26	대청 리더십들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집회 진행
951	2013.05.26	의료선교팀(CMN) : 평택 캠퍼스 몽골&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의료봉사
951	2013.05.26	중국 유학생 전도집회 <CHISTA LOVE TOUCH> 개최
951	2013.05.26	중국 유학생 전도집회 <CHISTA LOVE TOUCH> 참가자 인터뷰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51	2013.05.26	동아시아A국 지도자 초청 (비타민C) 집회 개최
951	2013.05.26	OSOM 21기 수료식 및 간증 최정현 자매(21기 수료생)
951	2013.05.26	세브란스& 한국교회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식>
951	2013.05.26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L 선교사(몽골)
951	2013.05.26	CGNTV 추천 프로그램 : [특별대담] 비즈니스와 선교협력의 장
952	2013.06.02	6월 9일 비전헌금 : 단기선교 및 '여름 아웃리치'
952	2013.06.02	이주민을 위한 선교학교 8기 모집
952	2013.06.02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 제작> 간증 : 류석인 권사(샤론회데코팀)
953	2013.06.0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홍보기도모임 안내
953	2013.06.09	서빙고 온누리 장로 및 권사 위한 <와이미션 1기> 종강
953	2013.06.09	제7회 IBA(International Business As Mission Alliance) 서울포럼 개최
953	2013.06.09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증축 완공 봉헌예배&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 1-1
953	2013.06.09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증축 완공 봉헌예배&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 1-2
953	2013.06.09	필리핀 보홀섬 삼복지역 아웃리치 보고 : 김영옥 집사(양재 스포츠선교팀)
954	2013.06.16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안내
954	2013.06.16	일본 나하바테스트교회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감사예배
954	2013.06.16	2013 상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954	2013.06.16	양재 온누리교회 : 공동체 아웃리치 자금조성 위한 자선장
954	2013.06.16	서빙고&양재&수원&부천 일대일사역팀 연합 호주 아웃리치
954	2013.06.16	부천 캠퍼스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소감 : 권오향 목사
954	2013.06.16	부천 캠퍼스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간증 : 고은희 집사
954	2013.06.16	강동 온누리교회 : <다문화 제1기 어머니학교> 수료식
954	2013.06.16	강동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54	2013.06.16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54	2013.06.16	남양주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54	2013.06.16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안내
954	2013.06.16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 선교사 (대만)
955	2013.06.2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955	2013.06.23	4차 선교사 파송식 : 조에스더(중동 H국), 김태훈-김희연(아프리카 V국)
955	2013.06.23	전면광고 : 201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안내
956	2013.06.30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956	2013.06.30	KIBI(키비) : <샬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안내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현장 스케치 및 참석자 인터뷰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① 이재훈 목사 말씀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① 초대강사 주요 어록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⑩ 이상준 목사 말씀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⑨ 어윈 맥매너스 목사 말씀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⑧ 김승욱 목사 말씀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⑦ 초대강사 주요 어록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⑥ 어윈 맥매너스 목사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⑤ 박종길 목사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④ 다니엘 김 목사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③ 회원극단 'Untill The Day' 팀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② 도육환 목사
956	2013.06.30	남양주 온누리교회 : 나고야 하베스트교회 아웃리치
956	2013.06.30	온누리M센터 <열방연합예배> 개최 및 참석자 '디네쉬' 이야기
957	2013.07.07	노원공동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957	2013.07.07	강동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발대식 및 해외 여름 아웃리치 일정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스케치 및 참석자 소감 및 헌신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2013 아웃리치 발대식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아웃리치 선언문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이재훈 목사 설교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어윈 맥매너스 목사 설교
957	2013.07.07	네이퍼빌 시카고 비전교회 : 다운타운 캠퍼스 대청팀 인도 북델리 어린이 · 의료 사역
957	2013.07.07	CGNTV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958	2013.07.14	일본 CGNTV 직원들 '후쿠시마 타이라그리스도복음교회' 아웃리치
958	2013.07.14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958	2013.07.14	여호수아 공동체 : 아웃리치 준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발대식 보고
959	2013.07.21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안내
959	2013.07.21	서빙고 금요철야팀 :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959	2013.07.21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헌신자 254명 선교훈련프로그램 신청
959	2013.07.21	평택 온누리교회 : 대청 메이커스 공동체 선교 특강 안내
959	2013.07.21	평택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59	2013.07.21	터키 아웃리치 보고 : 정진만 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959	2013.07.21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구치소 외국인사역 스케치 및 임지현 자매 봉사자 인터뷰
959	2013.07.21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구치소 외국인 사역 '베트남 여성 온티란 이야기'
959	2013.07.21	서빙고 상담실팀 : 필리핀 안티폴 아웃리치
959	2013.07.21	필리핀 아웃리치 간증 : 이희영 권사(서빙고 상담실팀)
959	2013.07.21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나점두 성도(송파공동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59	2013.07.21	CGNTV 추천 프로그램 :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960	2013.07.28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안내
960	2013.07.28	5차 선교사 파송식 : 신바나바-최안나 외 가정 2팀, 싱글 7팀
960	2013.07.28	NGO 더멋진세상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종료
960	2013.07.28	서빙고 좋은이웃모빌팀 : 청주 외국인여자 교도소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960	2013.07.28	강동 온누리교회 : 일본 야치요& 야마가타 아웃리치 위한 바자
960	2013.07.28	강동 온누리교회 일만사역자 파송식 : 윤복기-심은진 집사 (미국 덴버)
960	2013.07.28	평택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61	2013.08.04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예배 여는 말씀 : 이재훈 목사
961	2013.08.04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사 : 이동원 목사
961	2013.08.04	광고 :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961	2013.08.04	NGO 더 멋진 세상 : 선천성 발목기형 캄보디아 청년 '소반 나린' 돕기 지원자 모집
961	2013.08.04	8월 11일 비전헌금 : 해외중국유학생복음연합회(CHISTA) 지원
961	2013.08.04	양재 두란노서점 :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기념 <추모 도서전> 개최
961	2013.08.04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3기 추가 모집
961	2013.08.04	얼바인 온누리교회 : 멕시코 아웃리치
961	2013.08.04	밴쿠버 온누리교회 : 슬라이아몬 부족 원주민 선교 아웃리치
961	2013.08.04	앵커리치 온누리교회 : 책임선교사 '정진모 선교사' 가족 니카라과 파송 및 축복
961	2013.08.04	교토 온누리교회 : 교토로 아웃리치 온 양재 서초B공동체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스케치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가족대표 인사 : 장남 하성석 형제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흥정길 원로목사 설교 : 나그네의 길 1-1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이어령 교수 추모사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1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흥정길 원로목사 설교 : 나그네의 길 1-2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양유식 장로 대표기도 : 송고한 꿈과 비전 잊지 않게 하소서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이어령 교수 추모사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2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공식 및 기념 도서관 개관식 스케치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념관과 채플 건축 계획 설명 : 이남식 장로
961	2013.08.04	<HOPE Be Restored>국제 자유와 정의 사역에 힘쓰는 영여예배 담당 '에디번 목사' 인터뷰
961	2013.08.04	남태평양 축섭 아웃리치 보고 : 흥혜선 권사(여의도 공동체)
961	2013.08.04	CGNTV : 故 하용조 목사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962	2013.08.11	온누리 전체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안내
962	2013.08.11	CGNTV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다큐 '더 메시지'
962	2013.08.11	KCSI주관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962	2013.08.1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62	2013.08.11	온누리M미션 : 연합세례식
962	2013.08.11	CGNTV 선교현신자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 윤영준 국장, 박미진 자매 인터뷰
962	2013.08.11	일본 CGNTV 태국 아웃리치 보고 : 나가무네 카이(제작팀)
962	2013.08.11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박지현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962	2013.08.11	캄보디아 뿌레아위이어& 오지마을 아웃리치 보고 : 고도경 자매(강동 온누리)
962	2013.08.11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김예겸 형제(평택 메이커스 공동체)
962	2013.08.11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백형철 선교사 (니제르)
962	2013.08.11	CGNTV 드림온 캠페인 : 해외 선교사 위성 안테나 후원
963	2013.08.18	서빙고 · 양재 여성사역 :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963	2013.08.18	스포츠와 선교 특별세미나 <Sports As Mission> : 양영자 선교사, 박지현 코치 간증
963	2013.08.18	CGNTV 직원들의 특별한 여름 나기 : 태국 · 대만 · 일본 아웃리치
963	2013.08.18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보고 : 박병량 성도(부천 화평공동체)
963	2013.08.18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보고 : 전정호-김현숙 부부(수원 일대일사역팀)
963	2013.08.18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 보고 : 이명자 권사(수원 샬롬팀)
963	2013.08.18	남아시아 J국&D국 국경지역 아웃리치 보고 : 조혁래 순장(양천공동체)
963	2013.08.18	일본 교토 · 오사카 아웃리치 보고 : 유우선-이미경 서기(서초B공동체)
964	2013.08.25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및 봉사자 모집 안내
964	2013.08.25	두란노&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 협력 『불한성경』 출간
964	2013.08.25	2013 블레싱 캄보디아 전도집회 <Joyful Purpose>
964	2013.08.25	캄보디아 <뿌라엑 엠벨교회> 헌당식
964	2013.08.25	2013 JDS(예수제자학교) DISCIPLES DAY 행사 개최 및 아웃리치 간증
964	2013.08.25	샤프로 아웃리치 보고 : 정인숙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965	2013.09.01	201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965	2013.09.01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965	2013.09.01	몽골 아웃리치 다녀온 서초 C공동체
965	2013.09.01	KCSI 주관 : '샬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965	2013.09.01	수원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해단식
965	2013.09.0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65	2013.09.01	2013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1-1
965	2013.09.01	2013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1-2
965	2013.09.01	아프리카D국 아웃리치 보고 : 박지영, 김성현 성도(일산공동체)
965	2013.09.01	필리핀 아웃리치 보고 : 강소희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
965	2013.09.01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 보고 : 고예나 자매(강동 온누리교회)
965	2013.09.01	CGNTV 기획연재 : ①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966	2013.09.08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및 봉사자 모집 안내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66	2013.09.08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966	2013.09.08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행사 일정 안내
966	2013.09.08	ACTS29 비전빌리지 다목적홀 준공예배 안내
966	2013.09.08	2013 6차 선교사 파송식 : 밀알 외 싱글 2팀, FA 4개국 팀(중동A국 8명, 프랑스 6명, 남아시아 M국 4명, 남아시아 I국 5명)
966	2013.09.08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966	2013.09.08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스포츠 선교> 세미나 간증 : 양영자 선교사
966	2013.09.08	CGNTV 기획연재 : ②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966	2013.09.08	NGO '더 멋진 세상' 사역 안내 및 발목 장애 소년 '소반나린' 수술 지원
967	2013.09.15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행사 개최 안내& 역대 러브소나타 열린 지역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 정기후원 약정행사
967	2013.09.15	영어예배(OEM) 에디 변 목사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라디오 출연
967	2013.09.15	양재 권사스쿨 : 와이미션 첫 시작
967	2013.09.15	양지 온누리교회 :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예배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설립 배경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인재 모집 안내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Donation(후원) 종류 및 방법 안내
967	2013.09.15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MVP 후원자
967	2013.09.15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회& 중보기도 모임
967	2013.09.15	전면광고 : 러브소나타 <군마>
968	2013.09.29	러브소나타 <군마> 큐티 세미나 보고 및 기도제목(9.30-10.6)
968	2013.09.29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집계 결과
968	2013.09.29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영어예배(OEM) 에디 변 목사 메시지
968	2013.09.29	수원 온누리교회 :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968	2013.09.29	강남 A공동체 아웃리치 시화전 우수작 소개 : 사랑4순 배요셉(자녀), 기쁨4순 신정자 권사
968	2013.09.29	Acts29 류모세 선교사 인터뷰
968	2013.09.29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① : '바로 그 교회의 꿈'
968	2013.09.29	온누리M미션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3> 보고
968	2013.09.29	산본안산공동체 : 추석연휴 남아시아 E국 아웃리치 보고
968	2013.09.29	CGNTV 기획연재 : ④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968	2013.09.29	CGNTV 동역자 모집 : 2013 CGNTV 정기후원 안내
969	2013.10.06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 주일
969	2013.10.06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집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
969	2013.10.06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 개최
969	2013.10.06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② :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69	2013.10.06	일본 러브소나타 소개
969	2013.10.06	군마에서 온 편지 : 카나이 쿠미에 목사(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위원)
969	2013.10.06	군마 러브소나타 기도제목(10.7-13)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의 날 :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969	2013.10.06	CGNTV의 또 다른 도전 :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되는 '러브 스토리'(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 정기후원 약정의 날&기념이벤트
970	2013.10.13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970	2013.10.13	동아시아A국 목회자 및 리더십 초청 <비타민C 컨퍼런스> 개최
970	2013.10.13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0.14-20)
970	2013.10.13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970	2013.10.13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말씀 : '비전 나눔'
970	2013.10.13	2013년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 현황
970	2013.10.13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③ : 온누리 순교열전
970	2013.10.13	하용조 목사가 쓴 '故 김사무엘 선교사 추모편지' (온누리신문 477호 게재)
970	2013.10.13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 후원 약정 감사 인사
970	2013.10.13	전면광고 : 러브소나타 <군마>
971	2013.10.20	러브소나타 <군마> 기독교 역사 소개 및 참가자 추가 모집 안내
971	2013.10.20	7차 선교사 파송식 : 뵈뵈 외 가정 4팀, 싱글 1팀
971	2013.10.20	시드니 온누리교회 : 의료선교팀 피지 아웃리치
971	2013.10.20	양재 권사스쿨 와이미션팀 : 온누리M센터 방문
971	2013.10.20	중동A국& 그리스 아웃리치 보고 : 문난희 자매(부천 여성사역)
971	2013.10.20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④ : 예수향기회& 램프온(Lamp On)
971	2013.10.20	러브소나타 <군마> 쫓기대회& 쫓기대회를 마치고 참석자 간증
971	2013.10.20	<군마> 러브소나타 기도제목(10.21-27)
971	2013.10.20	군마에서 만난 믿음의 선배 : 이수정 선교사와 유아사 지로 장로
971	2013.10.20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우물 공사
971	2013.10.20	캄보디아 선천적 다리 장애 소년 '소반나린' 감사 인사
971	2013.10.20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연혁
971	2013.10.20	전면광고 : 러브소나타 <군마>
972	2013.10.27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안내
972	2013.10.27	KIBI(키비) : 요셉술람 목사 특별 세미나 알림
972	2013.10.27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0.28-11.3)
972	2013.10.27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
972	2013.10.27	단기선교사(TP) 24기 모집
972	2013.10.27	남아시아 H국 크리스천 카페 오픈 위한 물품 후원 모집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72	2013.10.27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 : OSOM 훈련생 및 안식선교사 참여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인도네시아 예배공동체 섬김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 예배 섬김 및 이광 성도 인터뷰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인도네시아 예배 섬김 및 나점두 성도 인터뷰
972	2013.10.27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⑤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972	2013.10.27	구순 재미 원로목사 겨자씨선교회 제자와 CGNTV 방문& 후원금 전달
973	2013.11.03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임' 안내
973	2013.11.03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1.4-10)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및 두레방 쉼터 박수미 소장 인터뷰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고아·국제정의사역팀 후원 위한 <아라뱃길 자전거 축제> 참가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간증 : 제이미노 자매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OO-엄OO 선교사(중앙아시아 D국)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싘띠-정OO 선교사(남아시아 B국)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빛-이샘 선교사(중동 B국)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샘물 선교사 (동아시아 A국)
973	2013.11.03	OSOM(장기선교사훈련)에 첫 도입된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 개최
973	2013.11.03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 강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이철희 선교사& 김신화 훈련생
973	2013.11.03	전면광고 : 러브소나타 <군마>
974	2013.11.10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임' 및 개최 준비 보고
974	2013.11.10	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제목(11.11-11.27)
974	2013.11.10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Japan 일본 선교전략 회의 참석 보고 : 양판석 선교사
974	2013.11.10	NGO 더 멋진 세상 : 필리핀 보홀섬 긴급 지원 위한 답사
974	2013.11.10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안내
974	2013.11.10	CGNTV가 만난 사람 인터뷰 : 당회 서기 양유식 장로
974	2013.11.10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카시를 다녀와서 : 장은임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974	2013.11.10	CGNTV 추천 프로그램 : 군마 러브소나타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현황 보고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몽골환우 '나랑토야'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개막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이재훈 목사 설교 : 세상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화보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자원봉사자 이야기 1-1
975	2013.11.17	러브소나타 <군마> 자원봉사자 이야기 1-2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과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호수별 목록

▶ 2013년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975	2013.11.17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975	2013.11.17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976	2013.11.24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과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팀 파견
976	2013.11.24	온누리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사 대상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976	2013.11.24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 안산M센터 아웃리치
976	2013.11.24	4개 교회 연합 친선 축구경기대회
976	2013.11.24	러브소나타 〈군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감사예배
976	2013.11.24	러브소나타 〈군마〉 끝나지 않은 이야기 '간증' : 정현주 간사
976	2013.11.24	이천선교&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단체사진촬영 및 선교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
976	2013.11.24	양재 권사회 하반기 와이미션 수료자 간증 : 이환인 권사(강남B공동체)
977	2013.12.01	온누리 긴급구호팀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977	2013.12.01	OMSC 출판감사예배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출간
977	2013.12.01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르완다 해외봉사단원 모집
977	2013.12.01	인천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977	2013.12.01	대청 〈사랑앓나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윈터캠프'
977	2013.12.01	'윈터캠프'를 준비하며 : 이다흰 자매& 박지혜 자매
978	2013.12.08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2차 긴급구호팀 파견 및 명단
978	2013.12.08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르완다 해외봉사단원 모집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민문기 장로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박일구 장로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이한열 장로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정영택 장로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한충희 장로
978	2013.12.08	서빙고&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978	2013.12.08	온누리M미션 : 17개 공동체 성탄행사 안내
978	2013.12.08	부천 무릎선교학교 : 와이미션 8기 종강예배
978	2013.12.08	월요치유집회팀 : 네팔 카투만두& 교혈뿔 치유사역 및 김성진 장로 간증
979	2013.12.15	CGNTV 청춘선교단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979	2013.12.15	서빙고 무릎기도팀 : 미안마 환아 〈뗏빠잉〉 수술 후원 및 삼촌 유원 예수 영접
979	2013.12.15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1
979	2013.12.15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2
979	2013.12.15	용산공동체& 더 멋진 세상 몽골 〈나랑토야〉 자매 수술 지원
979	2013.12.15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대청 〈윈터캠프〉 개최
979	2013.12.15	윈터캠프를 다녀와서 : 짱위랜& 구충완& 윤일종 형제
979	2013.12.15	양재 세피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종강 및 스리랑카 아웃리치 간증자 이해인





## 온누리신문 선교 관련 기사 분류표

01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관련 (이재훈 목사, 하용조 목사 관련 포함)
02	선교 관련 건물, 시설물 신축, 개축 등
03	<선교 전략> 관련 정책, 회의, 교육, 행사(미전도종족 선교 관련 포함) 2000/10000 대한 칼럼 및 행사/ 온누리 10주년/ 미전도종족(정보)/ Acts 29 특집
04	선교 헌금 및 재정(예산, 결산 등) 관련 Acts 29 비전을 위한 헌금
05	선교사 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 TP(단기)/ 장기(OSOM)/ 전문인 선교학교(OPMS)/ FA/ 안식, 본국 선교사:H2H, H2K/ OMO
06	선교사 허입, 파송, 종료 등 인사 관련 종료 순직(순교) 포함
07	선교지 행사 및 탐방 취재(르포), 선교지 소개, 정보 해외 집회 및 행사/ 소아시아 관련/ 이스라엘 현장집회
08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 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 큰 기도표
0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CGNTV/ 더멋진세상/ M Mission/ TIM/ 외국어예배부서/ IT사역위원회(OIMC)/ 과학기술선교팀 / SWIM/ 해외일만사역관련/ 햇불 트리니티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공동체 다락방 선교동역/ 아웃리치 (계획, 현황, 보고, 간증)/ 선교사 선물관련/ CMN(온누리 의료선교부)
11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기사 협력 관련/ 타 교회에서 우리교회 방문/ Acts 29
12	선교 관련 학교 및 강좌, 세미나, 선교여행 등 와이미션/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 BEE/ 무릎선교학교/ KIBI/ 갈렙선교학교/ 세품아/ JDS/ 하가훈/ 국내 비전교회 내 학교
13	긴급 구호 및 질병 치료 지원 활동 등 Lamp On
14	선교 관련 게시판 광고(기도모임, 학교모집 광고 등) 물품구입/ 후원요청
15	기타 (위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교회(선교부)조직도/ 하용조목사 추도/ 순직선교사 추도 관련/ 장로 장립
16	러브소나타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 온누리교회 선교 역사 관련(이재훈 목사, 하용조 목사 관련 포함) (2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	2012.01.01	2011년 온누리교회 10대 뉴스 1-1	13
883	2012.01.01	2011년 온누리교회 10대 뉴스 1-2	14
884	2012.01.08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1-1	25
884	2012.01.08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 1-2	26
885	2012.01.1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1-1	30
885	2012.01.15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1-2	31
894	2012.04.01	2012 온누리장로수련회 이재훈 목사와 함께 '비전 나눔' : Acts29 비전 함께 이룰 'AMA'	74
897	2012.04.2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복음을 전파하라 1-1	81
897	2012.04.2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복음을 전파하라 1-2	82
921	2012.10.21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20주년 기념 'TIM 선교주일' 예배 진행	224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두란노해외선교회 20주년 발자취	226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0년)	226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도육환 목사 인터뷰	227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선교사 파송현황& 대륙별 선교현황	227
921	2012.10.21	<기획연재> ① 한눈에 보는 TIM 20주년 : 한눈에 보는 TIM 20년 (2001년~2012년)	227
923	2012.11.04	<기획연재> ② "선교는 즐겁다" I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233
924	2012.11.11	<기획연재> ② "선교는 즐겁다" II : 선교사가 전하는 생생한 선교이야기	238
933	2013.01.1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1	276
933	2013.01.13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1-2	277
945	2013.04.1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 1-1	328
945	2013.04.14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설교 :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받은 교회 1-2	329
961	2013.08.04	CGNTV : 故 하용조 목사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	411
968	2013.09.29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① : '바로 그 교회의 꿈'	454
969	2013.10.06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② : 선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461
970	2013.10.13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③ : 온누리 순교열전	469
970	2013.10.13	하용조 목사가 쓴 '故 김사무엘 선교사 추모편지' (온누리신문 477호 게재)	469
971	2013.10.20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④ : 예수향기회& 램프온(Lamp On)	474
972	2013.10.27	<창립 28주년 특집> 단숨에 읽는 온누리교회⑤ :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482

## ▶ 2. 선교 관련 건물, 시설물 신축, 개축 등 (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3. <선교전략> 관련 정책, 회의, 교육, 행사 (미전도종족 선교 관련 포함) (9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4	2012.01.08	지난 선교사역 평가& 올해의 계획·전망 : 도육환 목사 인터뷰	24
884	2012.01.08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현황	24
887	2012.02.05	2천선교 <비전 컨퍼런스> 개최	38
890	2012.03.04	선교단체장 초청모임 : 올해 온누리 주요 선교정책 '아프리카 선교베이스 구축'	51
928	2012.12.09	'애쓰네 국제선교대회(Ethne Seoul Korea)' 미전도 종족 입양 사례발표	260
936	2013.02.03	2013 2천선교 비전컨퍼런스 : 10대 선교 과제 선정 및 선교방향 발표	286
938	2013.02.24	온누리교회 선교사 대륙별 현황	294
938	2013.02.24	2000선교 본부장 도육환 목사 인터뷰	294
974	2013.11.10	두란노 해외선교회(TIM) Japan 일본 선교전략 회의 참석 보고 : 양판석 선교사	490

### ▶ 4. 선교 헌금 및 재정(예산,결산 등) 관련 (2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	2012.01.01	2012년 선교헌금작성 안내	11
884	2012.01.08	2012년 선교헌금작성 안내	20
884	2012.01.08	2011년 선교헌금 사용내역 안내 및 2012년 사용계획 안내	23
885	2012.01.15	2차 선교헌금 작성 안내	29
886	2012.01.22	2012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33
887	2012.02.05	2월 12일 비전헌금 : 온누리미션 신입생 장학 지원	37
890	2012.03.04	3월 11일 비전헌금 :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51
903	2012.06.03	6월 10일 비전헌금 : 단기선교 및 아웃리치	110
920	2012.10.14	10월 14일 비전헌금 :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220
931	2012.12.30	2013년 선교헌금작성 안내	266
931	2012.12.30	<2012 선교헌금> 열방 사용처 안내	267
932	2013.01.06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안내	271
932	2013.01.06	2013년 선교헌금 사용처 및 현장사역비 안내	273
932	2013.01.06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인터뷰 : 이재훈 담임목사	273
932	2013.01.06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선교헌금 작성 방법	273
933	2013.01.13	2013 선교헌금 2차 작성 안내	275
934	2013.01.20	2013년 선교헌금 작성 집계 결과 : 73억 6천만 원 작성	280
939	2013.03.03	3월 3일 비전헌금 : 평택 인도네시아 헬터 사역 돕기 및 강동 다문화가족 후원	299
941	2013.03.17	대전 온누리교회 : 3월 캄보디아 어린이 후원 위한 비전헌금	308
941	2013.03.17	강동 온누리교회 : 3월 미소가족(다문화가정) 위한 비전헌금	309
952	2013.06.02	6월 9일 비전헌금 : 단기선교 및 '여름 아웃리치'	359
961	2013.08.04	8월 11일 비전헌금 : 해외중국유학생복음연합회(CHISTA) 지원	403
981	2013.12.29	2014년 선교헌금 작성 : 시행 일정 및 목표액 안내	524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5. 선교사 훈련 및 관련 프로그램 (28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4	2012.01.0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온누리전문인선교훈련학교(OPMS) 2기 훈련생 모집	22
893	2012.03.25	전문인 선교학교(OPMS) 2기 참가자 모집& OPMS 1기 수료 및 파송상황	65
901	2012.05.20	이재훈 담임목사와 본부장들 OSOM 훈련생들 위로	106
903	2012.06.03	장기선교훈련(OSOM) 19기 수료식 및 김진경 예비선교사 간증	118
904	2012.06.17	OSOM 수료하고 신규 허입한 23명 신입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123
909	2012.07.22	단기선교훈련 TP(Turning Point) 수료예배	154
916	2012.09.09	안식년 장기사역자 훈련 프로그램 '홈투홈(Home to Home)'	202
927	2012.12.02	전문인자비량 선교학교(OPMS) 2기 수료	255
927	2012.12.02	청년 단기선교훈련 프로그램(FA) 4기 모집	255
929	2012.12.16	장기선교훈련(OSOM) 20기 수료	263
932	2013.01.06	올해부터 온누리 선교사 후보들 대상 <1일 오리엔테이션> 실시	271
935	2013.01.27	선교사 후보생 위한 <온누리 선교사 1일 오리엔테이션> 개최	284
944	2013.04.07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3기 개강	322
945	2013.04.14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소개	332
945	2013.04.14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간증 : 김명훈 형제(이수공동체)	332
946	2013.04.21	온누리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Onnuri Missionary Orientation) 소개	335
948	2013.05.05	선교사 준비생을 위한 일일 오리엔테이션(OMO) 일정 안내	340
948	2013.05.0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온누리전문인선교학교(OPMS) 개강예배	341
950	2013.05.19	2013 상반기 '온누리 선교사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352
951	2013.05.26	OSOM 21기 수료식 및 간증 최정현 자매(21기 수료생)	357
972	2013.10.27	온누리 선교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안내	478
972	2013.10.27	제1회 안식선교사 힐링캠프	479
972	2013.10.27	단기선교사(TP) 24기 모집	479
972	2013.10.27	재생산하는 교회 개척돌파(CPM) 세미나 : OSOM 훈련생 및 안식선교사 참여	480
973	2013.11.03	OSOM(장기선교사훈련)에 첫 도입된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 개최	487
973	2013.11.03	'교회개척운동(CPM)' 세미나 강사 및 참여자 인터뷰 : 이철희 선교사& 김신화 훈련생	487
974	2013.11.10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안내	491
976	2013.11.24	온누리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사 대상 1일 '오리엔테이션(OMO)' 개최	503

### ▶ 6. 선교사 허입,파송,종료 등 인사 관련 (17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9	2012.02.26	2012년 첫 선교사 파송식 : 권능-지혜 외 가정 1팀, FA 2기 2개국 팀(아시아A국 6명, 유럽B국 7명)	45
892	2012.03.18	선교사 파송 : 신원석-오수경 외 가정 6팀, 싱글 3팀	61
892	2012.03.18	해외 일만사역자 임명식 : 최필순(싱가포르), 박희경(싱가포르)	61
896	2012.04.15	선교사 파송 : 장갈렘-홍사라(동아시아 C국), 김스데반(중동 Y국)	7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6. 선교사 허입, 파송, 종료 등 인사 관련 (17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97	2012.04.22	일만사역자 파송 : 김원기(헝가리)	80
901	2012.05.20	3차 선교사 파송식 : 표바나바-송사라(아프리카 T국), 어영선-박미선(인도)	102
910	2012.07.29	선교사 파송 : 카일리(동아시아 C국), 이다윗-정빛(중동 A국)	155
913	2012.08.19	4차 선교사 파송식 : 김기용-김선희 외 가정 4팀, 싱글 4팀, FA 3기 팀(7명)	183
921	2012.10.21	선교사& 일만사역자 파송 : 임모세-유루스 외 가정5팀, 싱글7팀& 임형규 일만사역자	224
934	2013.01.20	선교사 파송& 일만사역자 파송 : 정준모-정혜진 외 가정 4팀, 싱글 1팀& 서미란 일만사역자	280
937	2013.02.17	선교사 파송 : 류은유-김겸손 외 가정 2팀, 싱글 22팀	287
950	2013.05.19	2013 2차 선교사 파송식 : 유성근-허귀재 외 가정 4팀, 싱글 1팀	346
955	2013.06.23	4차 선교사 파송식 : 조에스더(중동 H국), 김태훈-김희연(아프리카 V국)	374
960	2013.07.28	5차 선교사 파송식 : 신바나바-최안나 외 가정 2팀, 싱글 7팀	399
960	2013.07.28	강동 온누리교회 일만사역자 파송식 : 윤복기-심은진 집사 (미국 덴버)	401
966	2013.09.08	2013 6차 선교사 파송식 : 밀알 외 싱글 2팀, FA 4개국 팀(중동A국 8명, 프랑스 6명, 남아시아 M국 4명, 남아시아 I국 5명)	440
971	2013.10.20	7차 선교사 파송식 : 뵤뵤 외 가정 4팀, 싱글 1팀	472

### ▶ 7. 선교지 행사 및 탐방 취재(르포), 선교지 소개, 정보 (13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개최	210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메시지 :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211
917	2012.09.16	<2012 일본 비전컨퍼런스> 일본 CGNTV 개국 6주년	211
919	2012.09.30	중국 심양·단둥·연길 선교지 탐방 보고 : 정순풍 장로	219
938	2013.02.2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Acts29 센터> 개원 1-1	295
938	2013.02.2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Acts29 센터> 개원 1-2	296
938	2013.02.24	인도네시아를 가슴에 품은 '인선회'와 '안디옥 선교사역' - 박용국 장로	296
938	2013.02.24	네팔 '올네이션스 비전센터' 개원 및 '새 그리스도의 빛 교회' 헌당	297
953	2013.06.09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증축 완공 봉헌예배&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 1-1	363
953	2013.06.09	스리랑카 올네이션스 국제학교 증축 완공 봉헌예배& 몰라티브교회 및 교육지원센터 헌당예배 1-2	364
964	2013.08.25	2013 블레싱 캄보디아 전도집회 <Joyful Purpose>	427
964	2013.08.25	캄보디아 <쁘라예 엠벨교회> 헌당식	427
978	2013.12.08	월요치유집회팀 : 네팔 카투만두& 고희뿔 치유사역 및 김성진 장로 간증	514

### ▶ 8.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 (24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9	2012.02.26	FA청년 단기선교사 간증 : 임하영(아시아 A국)& 손하진(유럽B국)	49
893	2012.03.25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영광-이찬양 선교사(소아시아 A국)	6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8. 선교사 소식 및 편지, 사역보고, 간증, 기도제목 등 (24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93	2012.03.25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양윤희 선교사(태국)	65
897	2012.04.22	여성선교사 리트릿에서 생긴 일 : 천사랑 선교사(T국)	89
904	2012.06.17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김상희 선교사(시에라리온)	123
905	2012.06.24	아프리카에서 보내온 편지 : 한진 선교사 (베넌)	126
906	2012.07.01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영섭 선교사(차드)	136
910	2012.07.29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박광우-고혜영(코트디부아르)	158
916	2012.09.09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 편지 : 이영재-최명미 선교사(탄자니아)	202
919	2012.09.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윤요셉-신마리아 선교사 (M국)	219
925	2012.11.18	CGNTV 후원 감사 편지 : A선교사(인도)	245
928	2012.12.09	TP선교사 선교일지 : 김미영 선교사(M국)	262
928	2012.12.09	FA선교사 선교일지 : FA 3기 선교사(동아시아 A국)	262
938	2013.02.24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양덕훈 선교사(태국)	298
946	2013.04.21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홍은덕 선교사(가명)	336
948	2013.05.05	여성 선교사 리트릿 보고 : 브리스길라 선교사(중국 A국)	341
951	2013.05.26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L 선교사(몽골)	358
954	2013.06.16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C 선교사 (대만)	373
966	2013.09.08	양재 이천선교 스포츠선교팀 <스포츠 선교> 세미나 간증 : 양영자 선교사	441
968	2013.09.29	Acts29 류모세 선교사 인터뷰	453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김OO-엄OO 선교사(중앙아시아 D국)	486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싘OO-정OO 선교사(남아시아 B국)	486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이OO-이OO 선교사(중동 B국)	486
973	2013.11.03	선교지에서 온 편지 : 한OO 선교사 (동아시아 A국)	486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	2012.01.01	2천선교 : 선교 사진전 개최	12
883	2012.01.01	평택 온누리교회 : 몽골어예배팀 성탄절 맞이 자국민 초청행사 개최	15
883	2012.01.01	인천 온누리교회 : 대학청년부 '몽골인 전도집회' 개최	15
884	2012.01.08	TV 추천 프로그램 :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 복음 앞에"	27
886	2012.01.22	온누리M미션 설날 수련회 안내	33
886	2012.01.22	OEM : Mission Trip to Cambodia	35
888	2012.02.12	Acts29 비전컨퍼런스	40
888	2012.02.12	Acts29 비전빌리지 : 조선족 성도 장인과 사위 세례식 및 간증	41
888	2012.02.12	OEM : Winter Missions	42
888	2012.02.1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중앙아시아 기획다큐'	4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9	2012.02.26	온누리M미션 : 외국인 신학생 장학금 전달	46
889	2012.02.26	평택 온누리교회 : 2012년 선교팀 사역계획 안내	47
889	2012.02.26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109편>	50
889	2012.02.26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나의 선교지, 파푸아뉴기니	50
891	2012.03.11	아랍 CGNTV 창립 및 본격적 활동 안내	57
891	2012.03.11	평택 온누리교회 : 1+2 예배 소개	58
891	2012.03.11	러시아 주일예배 세례식 및 '인나 유가이' 간증	58
891	2012.03.1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세네갈 이화섭 선교사편>	60
891	2012.03.11	TV 추천 프로그램 : 위클리 미션 <첫방송>	60
893	2012.03.25	CGNTV 개국 7주년 특집 다큐 <블레싱 사하라> 방영 안내	64
893	2012.03.25	다문화가정 위한 교육프로그램 <스타트리>영어전문학원으로 개편 개강	65
893	2012.03.2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남아시아 선교사 전략회의	65
893	2012.03.25	안산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4명 성도 세례	66
893	2012.03.25	안산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세례자 간증 : 념 소완(Nhoem Sovann)	67
893	2012.03.25	OEM : Freedom and Honor Conference	68
893	2012.03.25	OEM : Intro to IJM Night	69
893	2012.03.25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블레싱 사하라	69
893	2012.03.25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라크의 크리스천	69
894	2012.04.01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1-1	71
894	2012.04.01	국제개발 NGO '더 멋진 세상'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1-2	72
894	2012.04.01	NGO '더 멋진 세상' 긴급구호사업 계획 안내	72
895	2012.04.08	평택 몽골어예배 '아지트' 전도사 인터뷰 및 기도요청	75
896	2012.04.15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및 자선장 개최	76
897	2012.04.22	온누리M미션 : 연합열방예배 및 자선장 개최	80
897	2012.04.22	양재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 유학생 장학금 수여	83
897	2012.04.22	OEM : Intro to IJM Night	87
897	2012.04.22	OEM : The Grlbal Orphan Care Revival& the korean Church	90
897	2012.04.22	OEM : Free2 Play	90
897	2012.04.22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111편>	90
897	2012.04.22	TV 추천 프로그램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90
898	2012.04.29	남양주 온누리미션 '자선장' 개최	95
898	2012.04.29	해외 이주 근로자 섬기는 박흥규-이지희 부부 인터뷰	96
898	2012.04.29	온누리M미션 : '리더십 회복집회' 및 '열방연합예배' 보고	97
898	2012.04.29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 '유현숙 선교사'	95
898	2012.04.29	TV 추천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믿음의 영웅들-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	9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99	2012.05.06	남양주 온누리미션팀 : 다문화가정과 해외 이주근로자 위한 자선장 개최	98
900	2012.05.13	안산M센터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별 5분 전도팀 동행취재	101
901	2012.05.20	온누리교회&연세세브란스병원 :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	103
901	2012.05.20	양재 이천선교본부 : '함께하는 선교' 강조하며 이천선교 중보기도모임 진행	104
901	2012.05.20	수원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주최 '선교사를 위한 바자회' 진행	105
901	2012.05.20	중국교회 리더십 위한 <비타민 C집회>	107
901	2012.05.20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김자옥의 하늘빛향기 <양유식 장로>	106
902	2012.05.27	크리스천CEO포럼(CCF) : 특별세미나 및 네팔교회 건축기금 전달	108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학생이 보낸 편지 : 이병훈 (경배와찬양학과)	109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중국에서 온 편지 : 탕자매 (루이안시 광명당교회)	109
902	2012.05.27	<비타민 C집회> : 중국 크리스천 리더십 CGNTV 후원	108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몽골어예배 운녕바야르 자매 간증	113
903	2012.06.03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다카마쓰 비전트립	119
904	2012.06.17	NGO '더 멋진 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120
905	2012.06.24	동부노인요양센터&영어예배&몽골어예배 : '다문화 음식체험' 행사	124
906	2012.07.01	양재 2천선교 적정기술선교팀 : <적정기술 소개자료> 앱 출시	130
906	2012.07.01	'온누리 장학금' 수혜 외국인 학생 리트릿 개최	136
906	2012.07.01	더 멋진 세상 파키스탄 후시푸르 비전센터 완공식 다녀와서 : 최진혁 실장	137
906	2012.07.01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구호사업 소개 및 계획 안내	137
906	2012.07.01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버지학교'	138
906	2012.07.01	TV 추천 프로그램 : [기획대담] 한국 선교의 미래를 말한다.	138
909	2012.07.22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안내	153
909	2012.07.22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이홍렬의 꿈꾸는 자전거	154
910	2012.07.29	온누리교회& 우리은행 협약 <우리사랑나눔> 홍보 행사	155
910	2012.07.29	TV 추천 프로그램 : [추모특집 다큐] 하용조	160
910	2012.07.29	TV 추천 프로그램 : 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Live)	160
912	2012.08.12	더 멋진 세상(Better World) :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정경화 자선 콘서트' 개최	175
912	2012.08.12	일본어예배 : 일본인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참가자 모집	175
912	2012.08.12	TV 추천 프로그램 : [특집대담] 한인 디아스포라와 선교	182
912	2012.08.12	TV 추천 프로그램 : [블레싱사하라 특집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182
913	2012.08.19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188
913	2012.08.19	TV 추천 프로그램 : 한국기독실업인회(CBMS) 60주년 기념대회	188
914	2012.08.26	온누리미션 : 연합세례식 현장 및 찌아 티나 형제 · 손춘희 자매 간증	190
914	2012.08.26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119편)	193
915	2012.09.02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강정례 팀장과 오정란 사역자 인터뷰	19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15	2012.09.02	아프리카 어린이 위한 콘서트 준비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인터뷰	196
915	2012.09.02	TV 추천 프로그램 : 주영훈의 편편한 북카페	199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개막	201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티아트 테이블 장식 담당자 인터뷰	201
916	2012.09.09	일본인을 위한 전도집회 <키즈나> 참석자 인터뷰	201
916	2012.09.09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 향기	205
916	2012.09.09	TV 추천 프로그램 : 일본인 전도집회 'KIZUNA'	205
917	2012.09.16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안내	206
917	2012.09.16	CGNTV 정기후원 약정 및 해외 후원자 간증	207
917	2012.09.16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09편>	212
918	2012.09.23	CGNTV 정기후원 약정 행사	213
918	2012.09.23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개최	213
918	2012.09.23	영어예배(OEM) : 캄보디아 아웃리치팀 간증 및 이슬람을 위한 기도행진	214
919	2012.09.30	외국인 이주민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2> 진행 보고	216
919	2012.09.30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20주년 선교대회> 개최 안내	216
919	2012.09.30	CGNTV 선교 및 문화 콘텐츠 강화 가을개편 단행	217
919	2012.09.30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보고	217
919	2012.09.30	평택 온누리교회 :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 안내	218
919	2012.09.30	TV 추천 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218
919	2012.09.30	TV 추천 프로그램 : [선교다큐 시리즈] 1부 카자흐스탄	218
920	2012.10.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20주년 선교대회> 개최 안내	221
920	2012.10.14	수원 온누리교회 공출사역팀 소개	221
920	2012.10.14	외국인 이주민 위한 <Harvest 2012> 축제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	222
921	2012.10.21	강남B공동체 : 캄보디아 형제들 초청 '전도집회' 개최	225
921	2012.10.21	선교 공모전(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 각 부문 결과 발표	225
921	2012.10.21	온누리 핵심가치 전수 <제3회 비타민 C집회> 개최	225
922	2012.10.28	2012 온누리부흥축제 '하나님의 흔적(The Signature of God)' 보고	229
922	2012.10.28	<2012 Acts29 비전 컨퍼런스> 개최 및 해외 비전교회 권역별 사역보고	231
922	2012.10.28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231
923	2012.11.04	CGNTV 다큐 '스마일 라크로즈' : 2012 환태평양영화제 베스트 미션 필름상 수상	232
924	2012.11.11	온누리교회 지원하는 외국인 장학생 리트릿 진행	235
924	2012.11.11	평택 온누리교회 : 외국인 식구 포함 전교인 체육대회 개최	237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희선의 하늘빛 향기 <88편>	239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Salt & Light <317편>	239
924	2012.11.11	TV 추천 프로그램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239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25	2012.11.18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파키스탄 리더십 초청 새마을운동 교육	240
925	2012.11.18	TV 추천 프로그램 : 독수리 5형제 <인도네시아 발리섬>	245
926	2012.11.25	온누리M미션 : 네팔어 예배 창립	253
926	2012.11.25	온누리M미션(Onnuri Mission) 소개	253
927	2012.12.02	NGO <더 멋진 세상> 해외봉사단원 모집	255
927	2012.12.02	대전 온누리교회 : 중국어예배 신설	256
927	2012.12.02	TV 추천 프로그램 : 충성! 은혜로軍 <아이티 단비부대>	257
928	2012.12.09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현지 리더십 '새마을교육' 수료	259
928	2012.12.09	수원 온누리교회 : <블레싱 인도네시아> 집회 개최	261
928	2012.12.09	TV 추천 프로그램 : 마이카의 중동이야기 <6편>	261
928	2012.12.09	TV 추천 프로그램 : [드라마] 꿈을 좇는 아이들	261
929	2012.12.16	2012 선교감사의 밤 행사 개최	263
930	2012.12.23	CGNTV에 700만원 현금한 이증상 어르신	264
930	2012.12.23	NGO <더 멋진 세상> 출범 2주년 감사예배 및 홍보대사 위촉식	264
931	2012.12.30	PHOTO NEWS(사진기사) : 남양주 온누리교회 세례식	268
931	2012.12.30	인천 온누리교회 : 몽골인 전도축제	268
932	2013.01.06	<기획연재> 이웃에게 사랑전하는 대학청년부 : ③ 다문화가정과 함께 'Winter Camp'	272
932	2013.01.06	다문화가정과 함께 'Winter Camp' 참가자 가족 인터뷰 : 민지원(필리핀)& 아내 이정자	272
933	2013.01.13	<2013 패션(Passion)> 집회 보고& 감사 어록	278
933	2013.01.13	<2013 패션(Passion)> 집회 인터뷰 :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	278
933	2013.01.13	TV 추천 프로그램 : GMAN 선교포럼	279
933	2013.01.13	CGNTV <후원방법 안내> : 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279
936	2013.02.03	온누리미션 : 이주민 위한 수련회 일정 및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285
937	2013.02.17	강동 캠퍼스 : 다문화가정 초청 <설맞이 나눔 잔치> 개최 및 참석자 인터뷰	288
937	2013.02.17	<2013 Passion> 집회 보고 : 배아연 자매(인천 중등부)	290
937	2013.02.17	CGNTV <후원방법 안내> 2. 선교지 안테나 설치 후원	291
938	2013.02.24	온누리M미션 전도집회 보고 : 김지현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293
939	2013.03.03	손수 만든 인형 선교지에 보내는 '한땀 사역'에 동참 독려하는 '박경희 권사'	300
939	2013.03.03	양재 이천선교 : 제1회 온누리 선교 탁구대회 개최	300
939	2013.03.03	TV 추천 프로그램 : CGN 비전특강 <정제순 선교사 편>	301
940	2013.03.10	CGN TV : 동일본 대지진 2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302
940	2013.03.10	차세대 : 선교 주제로 특별강사 초청해 '수요어머니기도회' 진행 안내	302
940	2013.03.10	열린 선교단체장 조찬모임 : 선교사역 및 선교근황 공유	303
940	2013.03.10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303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청년인턴 · 전문 해외봉사단 모집	304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파키스탄 청년 리더십 초청 <전주비전대 교육 지원>	304
940	2013.03.10	NGO 더 멋진 세상 : 후원자 초청 감사패 수여	305
940	2013.03.10	TV 추천 프로그램 : 강석우,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305
941	2013.03.17	인도 나갈랜드 지역 기독교 방송국 관계자 3인 <CGNTV 연수>	306
941	2013.03.17	제3기 과학기술선교학교 개강	307
941	2013.03.17	CGNTV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 무명 (오스트리아 비엔나)	309
941	2013.03.17	TV 추천 프로그램 : [다큐] 우츠크시마 후크시마 after 3.11	309
942	2013.03.24	양재 온누리교회 : 햇볼 트리니티 이주민 학생 장학금 수여식	310
942	2013.03.24	CGNTV 개국 8주년 기념 특집 다크 방영	310
942	2013.03.24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및 봉사자 김관식 장로 소감	313
942	2013.03.24	양재 이천선교 중보기도회	314
942	2013.03.24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은혜의 강 아마존	315
942	2013.03.24	TV 추천 프로그램 : [개국 8주년 특집다큐] 시리아에 핀 무지개	315
943	2013.03.31	CGNTV 개국 8주년 감사예배 및 직원 4명 선교사 헌신	316
943	2013.03.31	CGNTV 개국 8주년 기념 인터뷰(Interview) : 이재훈 담임목사	317
943	2013.03.31	CGNTV History 및 주요연혁	317
943	2013.03.31	CGNTV에 온 편지 : 축하메시지	318
943	2013.03.31	햇볼트리니티에 지원한 이주민 8명의 학생들 장학금 수여	320
943	2013.03.31	<차세대 수요어머니기도회> 특별 감사 초청 '선교' 주제로 진행	321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기념행사	322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기념 인터뷰(Interview) : 유재건 장로(CGNTV 대표이사)	323
944	2013.04.07	CGNTV 개국 8주년 '선교헌신예배' 선교헌신자 4명 간증 : 박미진, 박재웅, 윤영준, 이철원	323
944	2013.04.07	PHOTO NEWS(사진 기사) : CGNTV 개국 8주년 기념예배 단체 사진	324
945	2013.04.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터키 '전방개척 전략회의' 개최	327
945	2013.04.14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터키 현지에서 '전방개척 전략회의' 개최	330
946	2013.04.21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어린이 생명 살리기 위한 '정경화 자선콘서트' 개최	333
946	2013.04.21	FA 단기선교 수료자 기도모임 시작	333
946	2013.04.21	대학청년부 '카운트다운' 집회 위한 연합기도회 개최	334
946	2013.04.21	강동 온누리교회 : 마지막 주 수요일 '선교헌신예배'로 지정	334
947	2013.04.28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집회 1차 접수 안내	337
947	2013.04.28	강동 온누리교회 : 수요선교헌신예배 시작	339
948	2013.05.05	CGNTV 후원자스토리 : 흥희란(가명)	342
949	2013.05.12	더(The) 멋진 세상 정경화 바이올린 독주회	344
949	2013.05.12	CGNTV 추천 프로그램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344
950	2013.05.19	CGNTV 직원 여름 아웃리치 발대예배	34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50	2013.05.1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일정 안내	353
950	2013.05.1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이상준 목사 인터뷰	353
950	2013.05.19	CGNTV 드림온 후원 안내	352
950	2013.05.19	전면광고 : 201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354
951	2013.05.26	대청 리더십들 <카운트다운 프리워십> 집회 진행	355
951	2013.05.26	중국 유학생 전도집회 <CHISTA LOVE TOUCH> 개최	356
951	2013.05.26	중국 유학생 전도집회 <CHISTA LOVE TOUCH> 참가자 인터뷰	356
951	2013.05.26	동아시아A국 지도자 초청 <비타민C> 집회 개최	357
951	2013.05.26	세브란스& 한국교회 <해외선교사 건강지원 협약식>	358
951	2013.05.26	CGNTV 추천 프로그램 : [특별대담] 비즈니스와 선교협력의 장	358
953	2013.06.09	대청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중보기도모임 안내	361
953	2013.06.09	제7회 IBA(International Business As Mission Alliance) 서울포럼 개최	362
954	2013.06.16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안내	366
954	2013.06.16	온누리M미션 : <열방연합예배> 개최 안내	373
955	2013.06.2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개막	374
955	2013.06.23	전면광고 : 2013 예배 · 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375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안내	376
956	2013.06.30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377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현장 스케치 및 참석자 인터뷰	378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⑩ 이재훈 목사 말씀	379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⑨ 초대강사 주요 어록	379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⑩ 이상준 목사 말씀	380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⑨ 어원 맥매너스 목사 말씀	380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⑧ 김승욱 목사 말씀	380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 ⑦ 초대강사 주요 어록	380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⑥ 어원 맥매너스 목사	381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⑤ 박종길 목사	381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④ 다니엘 김 목사	381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③ 회원극단 'Untill The Day' 팀	381
956	2013.06.30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Count② 도육환 목사	381
956	2013.06.30	온누리M센터 <열방연합예배> 개최 및 참석자 '디네쉬' 이야기	382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스케치 및 참석자 소감 및 헌신	385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2013 아웃리치 발대식	386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아웃리치 선언문	386
957	2013.07.07	예배 ·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이재훈 목사 설교	38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57	2013.07.07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주일연합예배 어원 맥매너스 목사 설교	386
957	2013.07.07	CGNTV가 만난 사람 인터뷰 :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388
958	2013.07.14	일본 CGNTV 직원들 '후쿠시마 타이라그리스도복음교회' 아웃리치	389
958	2013.07.14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389
959	2013.07.21	예배·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 헌신자 254명 선교훈련프로그램 신청	391
959	2013.07.21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구치소 외국인사역 스케치 및 임지현 자매 봉사자 인터뷰	394
959	2013.07.21	양재 좋은이웃모빌팀 : 구치소 외국인 사역 '베트남 여성 온티란 이야기'	394
959	2013.07.21	CGNTV 추천 프로그램 : 2013 예배선교 컨퍼런스 COUNTDOWN	397
960	2013.07.28	NGO 더멋진세상 아프리카 모기장 후원 위한 <Stop Malaria> 캠페인 종료	399
960	2013.07.28	서빙고 좋은이웃모빌팀 : 청주 외국인여자 교도소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	400
961	2013.08.04	<HOPE Be Restored>국제 자유와 정의 사역에 힘쓰는 영어예배 담당 '에디번 목사' 인터뷰	410
962	2013.08.11	KCSI주관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413
962	2013.08.11	온누리M미션 : 연합세례식	414
962	2013.08.11	CGNTV 선교헌신자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 윤영준 국장, 박미진 자매 인터뷰	415
962	2013.08.11	일본 CGNTV 태국 아웃리치 보고 : 나가무네 카이(제작팀)	415
962	2013.08.11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백형철 선교사 (니제르)	418
962	2013.08.11	CGNTV 드림온 캠페인 : 해외 선교사 위성 안테나 후원	418
963	2013.08.18	스포츠와 선교 특별세미나 <Sports As Mission> : 양영자 선교사, 박지현 코치 간증	420
963	2013.08.18	CGNTV 직원들의 특별한 여름 나기 : 태국·대만·일본 아웃리치	421
964	2013.08.25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및 봉사자 모집 안내	426
965	2013.09.01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431
965	2013.09.01	KCSI 주관 :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431
965	2013.09.01	CGNTV 기획연재 : ① CGNTV가 땅 끝에서 만난 사람들	438
966	2013.09.08	온누리M미션 : 추석연합집회 개최 및 봉사자 모집 안내	439
966	2013.09.08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439
966	2013.09.08	ACTS29 비전빌리지 다목적홀 준공예배 안내	439
966	2013.09.08	CGNTV 기획연재 : ② 사진으로 보는 CGNTV 24시	442
966	2013.09.08	NGO '더 멋진 세상' 사역 안내 및 발목 장애 소년 '소반나린' 수술 지원	443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 정기후원 약정행사	444
967	2013.09.15	영어예배(OEM) 에디 번 목사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라디오 출연	445
967	2013.09.15	양지 온누리교회 : Acts29 비전빌리지 박승철홀 준공예배	446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설립 배경	447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인재 모집 안내	447
967	2013.09.15	NGO '더 멋진 세상' Donation(후원) 종류 및 방법 안내	447
967	2013.09.15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MVP 후원자	448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67	2013.09.15	CGNTV 기획연재 : ③ 보이지 않는 곳에서 CGNTV를 만드는 사람들 - 운영위원회& 중보기도 모임	448
968	2013.09.29	NGO '더 멋진 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집계 결과	450
968	2013.09.29	'패밀리라이프 투데이'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 영어예배(OEM) 에디 변 목사 메시지	451
968	2013.09.29	온누리M미션 추석연합집회 <Harvest 2013> 보고	455
968	2013.09.29	CGNTV 기획연재 : ④ 10월 6일 CGNTV와 함께 땅 끝 선교사가 됩시다.	457
968	2013.09.29	CGNTV 동역자 모집 : 2013 CGNTV 정기후원 안내	458
969	2013.10.06	온누리교회 창립 28주년 주일	459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안내	459
969	2013.10.06	제2회 교회연합 '선교탁구축제' 개최	460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의 날 : 이재훈 담임목사 인터뷰	463
969	2013.10.06	CGNTV의 또 다른 도전 : 이슬람권을 위해 준비되는 '러브 스토리'(함태경 경영기획본부장)	464
969	2013.10.06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 정기후원 약정의 날&기념이벤트	465
970	2013.10.13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결과	466
970	2013.10.13	동아시아A국 목회자 및 리더십 초청 <비타민C 컨퍼런스> 개최	466
970	2013.10.13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468
970	2013.10.13	2013 Acts29 비전컨퍼런스 이재훈 목사 말씀 : '비전 나눔'	468
970	2013.10.13	2013년 온누리교회 해외비전교회 현황	468
970	2013.10.13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 : 후원 약정 감사 인사	467
971	2013.10.20	양재 권사스쿨 와이미션팀 : 온누리M센터 방문	473
971	2013.10.20	NGO 더 멋진 세상 : 세네갈 본나바 마을 우물 공사	476
971	2013.10.20	NGO '더 멋진 세상' 세네갈 지부 연혁	476
972	2013.10.27	남아시아 H국 크리스천 카페 오픈 위한 물품 후원 모집	480
972	2013.10.27	구순 재미 원로목사 겨자씨선교회 제자와 CGNTV 방문& 후원금 전달	483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및 두레방 쉼터 박수미 소장 인터뷰	485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고아·국제정의사역팀 후원 위한 <아라뱃길 자전거 축제> 참가	485
973	2013.11.03	영어예배(OEM) 인신매매사역팀 두레방 쉼터 방문 간증 : 제이미노 자매	485
974	2013.11.10	CGNTV가 만난 사람 인터뷰 : 당회 서기 양유식 장로	492
974	2013.11.10	CGNTV 추천 프로그램 : 군마 러브소나타	491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몽골환우 '나랑토야' 통역 자원봉사자 모집	494
976	2013.11.24	4개 교회 연합 친선 축구경기대회	504
976	2013.11.24	이천선교&두란노해외선교회(TIM) : 단체사진촬영 및 선교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	506
977	2013.12.01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르완다 해외봉사단원 모집	509
977	2013.12.01	대청 <사랑앓나눔>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윈터캠프'	509
977	2013.12.01	'윈터캠프'를 준비하며 : 이다흰 자매& 박지혜 자매	510
978	2013.12.08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르완다 해외봉사단원 모집	511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9. 선교관련기관 행사, 홍보, 후원 요청 등 (30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78	2013.12.08	온누리M미션 : 17개 공동체 성탄행사 안내	513
979	2013.12.15	CGNTV 청춘선교단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515
979	2013.12.15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대청 <윈터캠프> 개최	518
979	2013.12.15	윈터캠프를 다녀와서 : 짱위랜& 구충완& 윤일종 형제	518
980	2013.12.22	CGNTV 시니어 선교동원 캠페인 시작	520
980	2013.12.22	NGO 더 멋진 세상 : 아프리카 세네갈 해외봉사단원 모집	520
980	2013.12.22	2013 선교결산 : 선교감사의 밤	521
980	2013.12.22	2013 온누리 선교본부 사역 결산	521
980	2013.12.22	2013 주요 <선교 NEWS!>한 눈에 보기	521
980	2013.12.22	온누리M미션 : 한국어말하기대회	523
980	2013.12.22	CGNTV 시니어 선교 캠페인 : 시니어 선교단원 모집	523
981	2013.12.29	MK 선교사자녀 (Missionary Kids) 위한 감사의 날 행사 개최	525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	2012.01.01	북아프리카 전방개척 아웃리치 계획	12
887	2012.02.05	대학청년연합 멘토들 비전공유 위한 '2012 비전나이트' 개최	37
889	2012.02.26	2천선교 : 공동체 '책임선교사 제도' 소개	49
890	2012.03.04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연합스프링데이' 개최	52
892	2012.03.18	2012 북서부 아프리카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계획	61
892	2012.03.18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아프리카 18개 국가 소개	63
896	2012.04.15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77
896	2012.04.15	<선교사 자녀에게 어린이날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78
897	2012.04.22	2012 여름 아웃리치 <블레싱 사하라> 남은 지역 참가 접수 및 안내	88
897	2012.04.22	온누리 의료선교부 CMN 의료사역 동참 요청	88
900	2012.05.13	아웃리치 세미나 및 아웃리치 스쿨 개강 안내	100
901	2012.05.20	모잠비크 간사 아웃리치팀 : 아웃리치 물품 후원 요청	103
903	2012.06.03	축복과 교제의 <CMN 간담회> 개최	110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CMN 사역팀 의료봉사	111
903	2012.06.03	CMN 의료봉사 참가자 간증 : 더기·사마 자매	112
903	2012.06.03	평택 온누리교회 : 선교 후원 위한 바자회	113
903	2012.06.03	양재 일대일사역팀 : 아웃리치 기금 마련 연합자선장 개최	114
903	2012.06.03	2천선교 : 아웃리치 세미나&기도회& 스쿨 진행 현황 안내	118
903	2012.06.03	1주차 아웃리치 스쿨 '이대형 선교사' 메세지 :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한 로드맵	118
904	2012.06.17	대전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시작 및 아웃리치 일정표	120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04	2012.06.17	대전& 평택 온누리교회 : 선교후원 바자회	121
904	2012.06.17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신미식 작가 · 오성환 PD	123
905	2012.06.24	일산 공동체 주관 : 세네갈 ·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기금 마련 자선장	124
905	2012.06.24	요셉 공동체 12주년 블레싱 및 ODO사역 현황	125
905	2012.06.24	효과적인 아웃리치를 위한 TIP : 정보애 선교사	127
906	2012.07.01	2012 여름 아웃리치 본격적으로 시작	129
906	2012.07.01	<2012 대청 여름 아웃리치 스쿨> 폐막	130
906	2012.07.01	강동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를 위한 특별예배	131
906	2012.07.01	평택 온누리교회 : 대청 첫 아웃리치 중국 청도	132
906	2012.07.01	결혼 30주년 기념 '인도네시아 반동 아웃리치' 다녀온 김현태-김병희 부부	135
907	2012.07.08	대청 2012 해외 아웃리치 일정 안내	139
907	2012.07.08	노원공동체 요르단 아웃리치 시작	141
907	2012.07.08	평택 온누리교회 : 책임선교지 첫 아웃리치 '아제르바이잔'	142
908	2012.07.15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진행	143
908	2012.07.15	본아이에프㈜ 본사랑 : 해외 아웃리치 팀 위한 죽 후원	143
908	2012.07.15	두바이에서 열린 <블레싱 사하라> 발대식 스케치	144
908	2012.07.15	CMN의료선교 아웃리치 발대식	146
908	2012.07.15	대청연합 : 아웃리치 위한 특별기도회 진행중	147
908	2012.07.15	부천 대청연합 드림 공동체 : <홍해기도회>를 통한 아웃리치 준비	147
909	2012.07.22	<2012 블레싱 사하라> 진행 현황	148
909	2012.07.22	이재훈 담임목사님팀 : 세네갈 아웃리치 1-1	149
909	2012.07.22	이재훈 담임목사님팀 : 세네갈 아웃리치 1-2	150
909	2012.07.22	요르단 아웃리치 보고 : 박수정 자매(하늘 공동체)	151
909	2012.07.22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지아 교사(양재 품땅 소년 2부)	151
909	2012.07.22	블레싱 사하라 동행 취재기 : 모로코 · 모리타니 편	152
909	2012.07.22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보고 : 정현숙 집사(송파공동체)	153
910	2012.07.29	만남 : 비전트립의 감동을 일러스트로 나누는 작가 이준천 형제	156
910	2012.07.29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김보람 성도(남양주 구리공동체)	159
910	2012.07.29	모잠비크 아웃리치 보고 : 손영은 간사(양재 목회지원실)	159
912	2012.08.12	이집트 아웃리치 보고 : 홍차영 자매(Pole2공동체)	177
912	2012.08.12	튀니지 아웃리치 보고 : 민웅기 형제(허브 공동체)	177
912	2012.08.12	중국 아웃리치 보고 : 조영우 성도(고양은평공동체)	178
912	2012.08.12	필리핀 세부 아웃리치 보고 : 박지명 형제(브릿지33+공동체)	179
912	2012.08.12	포인트5공동체 : 다문화가정 섬김 아웃리치 <2012 케어리치> 개최	181
913	2012.08.19	서빙고 · 젊은 부부학교 연합 인도네시아 람퐁 아웃리치	18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13	2012.08.19	인도 · 네팔 · 부탄 아웃리치 보고 : 황민식 전도사(남양주33+공동체)	184
913	2012.08.19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박혜원 (하늘 공동체)	185
913	2012.08.19	캄보디아 아웃리치 보고 : 임수연 (GiL 공동체 선교그룹)	186
913	2012.08.19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신현기 교사 (차세대 양제 중등1부)	186
914	2012.08.26	2천선교& CGNTV : '여름 아웃리치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실시	189
914	2012.08.26	세네갈 아웃리치 보고 : 박지영 성도(일산공동체)	191
914	2012.08.26	일본 이치카와 아웃리치 보고 : 조대현 집사(양천공동체)	191
914	2012.08.26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임윤 자매(Point5공동체)	192
914	2012.08.26	필리핀 아웃리치 보고 : 장민주(남양주 J공동체)	193
915	2012.09.02	서빙고 일대일 사역팀 : C국 아웃리치 보고	194
915	2012.09.02	중국 곤명 아웃리치 보고 : 박영훈 집사(고양은평공동체)	197
915	2012.09.02	인도네시아 솔로 아웃리치 보고 : 조수현 집사(일산공동체)	197
915	2012.09.02	'블레싱 사하라' 케냐 아웃리치 보고 : 한동호-이향숙 성도(서초B공동체)	198
915	2012.09.02	북경 아웃리치 보고 : 남주언 성도(서초C공동체)	199
916	2012.09.09	2012 여름 아웃리치 폐막 및 선교본부 아웃리치 사진 · 영상 · 간증 공모	200
916	2012.09.09	몽골 아웃리치 보고 : 오회중 집사(용산공동체)	203
916	2012.09.09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이태열 집사(서빙고 전도폭팔)	203
916	2012.09.09	중국 아웃리치 보고 : 송영봉 집사(분당A공동체)	204
916	2012.09.09	남양주 온누리미션 아웃리치 보고 : 박지현(온누리드림챔버오케스트라)	205
917	2012.09.16	CMN(의료선교부) 해외 아웃리치 보고	206
917	2012.09.16	PHOTO NEWS (사진기사) : 강동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사진전 <HUG>	206
919	2012.09.30	<투고> 인도 난디알 의료봉사를 다녀와서 : 김정숙 목사 (온누리 병원선교 담당)	217
922	2012.10.28	네팔 아웃리치 보고 : 용명순 권사(월요치유집회팀)	230
923	2012.11.04	<2012 아웃리치 공모전 시상식> 개최	232
924	2012.11.11	서빙고 캠퍼스 성북공동체 : 안산 온누리M센터 아웃리치	235
925	2012.11.18	의료선교 숨은 주역 CMN '지원팀' 및 담당 목사와 장로의 만남	245
925	2012.11.18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246
925	2012.11.18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 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247
926	2012.11.25	강남B공동체 : 탁구로 선교하는 공동체 이야기	249
926	2012.11.25	터키 아웃리치 보고 : 이영희 성도(분당A공동체)	254
926	2012.11.25	불가리아 아웃리치 : 최형선 사역자(인천A공동체)	254
927	2012.12.02	2012 CMN(의료선교부) 사역보고	258
929	2012.12.16	CMN(의료선교부) : 선교사 위한 독감예방접종	236
937	2013.02.17	대만 아웃리치 보고 : 한경훈 형제(Pole2 공동체)	289
937	2013.02.17	이스라엘 비전트립 보고 : 홍예지 자매(서빙고 중등2부)	290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38	2013.02.24	라오스 아웃리치 보고 : 안세훈 성도(서빙고 마포공동체)	293
939	2013.03.03	남양주 온누리교회 : 터키 선교사 후원 바자회 개최	299
939	2013.03.03	CMN(의료선교부) : '2013 스프링데이' 개최	300
941	2013.03.17	온누리 공동체 : '순 선교 사역' 실시할 예정	306
942	2013.03.24	아웃리치 위한 적정기술세미나 개최	312
943	2013.03.31	서대문 공동체 : 캄보디아 아웃리치 보고 및 아웃리치 이후 선교사님 소식	320
944	2013.04.07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325
944	2013.04.07	<선교사 자녀들에게 선물보내기> 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326
947	2013.04.28	대전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아웃리치 위한 자선장	338
951	2013.05.26	의료선교팀(CMN) : 평택 캠퍼스 몽골& 인도네시아 이주민들 의료봉사	355
953	2013.06.09	필리핀 보홀섬 삼복지역 아웃리치 보고 : 김영욱 집사(양재 스포츠선교팀)	365
954	2013.06.16	양재 온누리교회 : 공동체 아웃리치 자금조성 위한 자선장	368
954	2013.06.16	서빙고&양재&수원&부천 일대일사역팀 연합 호주 아웃리치	369
956	2013.06.30	남양주 온누리교회 : 나고야 하베스트교회 아웃리치	382
957	2013.07.07	노원공동체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383
957	2013.07.07	강동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발대식 및 해외 여름 아웃리치 일정	384
958	2013.07.14	여호수아 공동체 : 아웃리치 준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발대식 보고	389
959	2013.07.21	서빙고 금요철야팀 : 요코하마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391
959	2013.07.21	평택 온누리교회 : 대청 메이커스 공동체 선교 특강 안내	392
959	2013.07.21	터키 아웃리치 보고 : 정진만 간사(남양주 온누리교회)	393
959	2013.07.21	서빙고 상담실팀 : 필리핀 안티폴 아웃리치	395
959	2013.07.21	필리핀 아웃리치 간증 : 이희영 권사(서빙고 상담실팀)	396
959	2013.07.21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나점두 성도(송파공동체)	397
960	2013.07.28	강동 온누리교회 : 일본 야치요& 야마가타 아웃리치 위한 바자	400
961	2013.08.04	남태평양 축섬 아웃리치 보고 : 홍해선 권사(여의도 공동체)	410
962	2013.08.11	온누리 전체 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안내	412
962	2013.08.11	스리랑카 아웃리치 보고 : 박지현 자매(여호수아 공동체)	416
962	2013.08.11	캄보디아 빠레아위히어& 오지마을 아웃리치 보고 : 고도경 자매(강동 온누리)	417
962	2013.08.11	베트남 아웃리치 보고 : 김예겸 형제(평택 메이커스 공동체)	417
963	2013.08.18	남아시아 H국 아웃리치 보고 : 박병량 성도(부천 화평공동체)	422
963	2013.08.18	남아시아 F국 아웃리치 보고 : 전정호-김현숙 부부(수원 일대일사역팀)	423
963	2013.08.18	남아시아N국 아웃리치 보고 : 이명자 권사(수원 살롬팀)	423
963	2013.08.18	남아시아 J국&D국 국경지역 아웃리치 보고 : 조혁래 순장(양천공동체)	424
963	2013.08.18	일본 교토·오사카 아웃리치 보고 : 유우선-이미경 서기(서초B공동체)	425
964	2013.08.25	삿포로 아웃리치 보고 : 정인숙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429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0. 공동체 책임선교사, 해외아웃리치, 단기선교, 의료선교 등 (1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65	2013.09.01	2013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430
965	2013.09.01	몽골 아웃리치 다녀온 서초 C공동체	431
965	2013.09.01	수원 온누리교회 : 아웃리치 해단식	432
965	2013.09.01	2013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1-1	433
965	2013.09.01	2013년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결산 1-2	434
965	2013.09.01	아프리카D국 아웃리치 보고 : 박지영, 김성현 성도(일산공동체)	435
965	2013.09.01	필리핀 아웃리치 보고 : 강소희 자매(남양주 온누리교회)	436
965	2013.09.01	유라시아A국 아웃리치 보고 : 고예나 자매(강동 온누리교회)	437
968	2013.09.29	강남 A공동체 아웃리치 시화전 우수작 소개 : 사랑4순 배요셉(자녀), 기쁨4순 신정자 권사	452
968	2013.09.29	산본안산공동체 : 추석연휴 남아시아 E국 아웃리치 보고	456
971	2013.10.20	중동A국& 그리스 아웃리치 보고 : 문난희 자매(부천 여성사역)	473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인도네시아 예배공동체 섬김	481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스리랑카 예배 섬김 및 이광 성도 인터뷰	481
972	2013.10.27	송파공동체 : 인도네시아 예배 섬김 및 나점두 성도 인터뷰	481
975	2013.11.17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1	501
975	2013.11.17	<2013 선교사 자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기>공동체 순 연결 선교지 주소 1-2	502

### ▶ 11.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6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	2012.01.01	미주 비전교회& 미주두란노해외선교회(TIM) : 평신도 선교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16
886	2012.01.22	웨스트LA 온누리교회 : 땅밧기 아웃리치 및 뉴멕시코 원주민들과 함께 성탄예배	35
886	2012.01.22	보스턴 온누리교회 : 원데이 아웃리치 및 대학부 볼리비아 아웃리치	35
888	2012.02.12	괌 온누리교회 : 선교 활동 중인 퍼시픽 아일랜드 대학교 학생 2명 선교장학금 전달	42
889	2012.02.26	단동 온누리교회 : 성경통독운동과 중보기도의 열기	47
889	2012.02.26	동경 온누리교회 : 지진 및 인플루엔자 피해 확산 방지 위한 기도요청	48
889	2012.02.26	시드니 온누리교회 : 대학청년부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아웃리치	48
892	2012.03.18	얼바인 온누리교회 : 온두라스 '미스끼토' 종족 선교 사진첩 발간	62
895	2012.04.08	산타모니카(구 웨스트 LA)·뉴저지·교토 온누리교회를 해외비전교회 승인	75
897	2012.04.22	동경온누리교회 : 창립 11주년 새비전 선포 및 테페르 위해 기도 요청	84
897	2012.04.22	야치오 온누리교회 : 기타무라 스스무 형제 세례	85
897	2012.04.22	대련 온누리교회 : 부활절 찬양축제 개최	85
897	2012.04.22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구 웨스트LA) 창립예배	86
897	2012.04.22	시드니 온누리교회 : AS공동체 오범석 선교사 인도네시아 파송	86
897	2012.04.22	미주 온누리교회 연합 : '일대일큐티세미나' 단기선교 개최	86
901	2012.05.20	김재란 선교사& 아사히카와 러브소나타팀 온누리교회 방문	102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1.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6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01	2012.05.20	시카고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진행	106
901	2012.05.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김재석 담당목사 취임	106
903	2012.06.03	뉴저지 온누리교회 창립예배	115
903	2012.06.03	시드니 온누리교회 : 인도네시아 발리 고아원 '요셉하우스' 프로젝트 선포	115
904	2012.06.17	보스턴 온누리교회 : 도미니카 일대일, 큐티 아웃리치	121
904	2012.06.17	우에다 온누리교회 : '러브소나타 나가노 네트워크' 결성	122
904	2012.06.17	오사카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수료	122
904	2012.06.17	나고야 온누리교회 : <지진피해지역 위한 자선장> 개최	122
905	2012.06.24	<아오모리 러브소나타>가 맺은 인연 : 나태일-사사키 유미 부부	128
906	2012.07.01	중국 장춘 종교국 관계자 온누리교회 방문	131
906	2012.07.01	남양주 캠퍼스 : 일대일 수료 중국인 자매 감사편지 및 양육자 정인숙 집사 간증	133
906	2012.07.01	단동 온누리교회 : 윤형로 장로 찬양 전도집회 개최	134
906	2012.07.01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 제5기 와이미션 강의 시작	134
906	2012.07.01	대련 온누리교회 : 중국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자선장	134
907	2012.07.08	대련 온누리교회 : 예배찬양 컨퍼런스 개최	142
917	2012.09.16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 파워웨이브 선교실습훈련	207
971	2012.09.16	동경 온누리교회 : 이시노마키 아웃리치 보고	208
917	2012.09.16	보스턴 온누리교회 선교팀 : 워터 페스티벌 일일 전도행사 진행	209
917	2012.09.16	뉴욕 IN2 온누리교회 : 보스턴 린 리빙필드교회 아웃리치	209
923	2012.11.04	대련 온누리교회 :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234
923	2012.11.04	해외 비전교회& 국내 캠퍼스 공동체 자매결연	234
924	2012.11.11	미주·중국·베트남 해외 비전교회 : 일대일 사역 이야기	236
926	2012.11.25	일본 현지 '토미 그리스도교회' 목회자 성도 한국 방문 감사패 전달	248
927	2012.12.02	노스시카고 온누리교회 : 니카라과 아웃리치	257
928	2012.12.09	대련 온누리교회 : 16명 세례식 및 김혜원 성도 간증	260
928	2012.12.09	야치요 온누리교회 : 우에다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260
934	2013.01.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차세대팀 쥬빌리 일본인교회 아웃리치	281
934	2013.01.20	산타모니카 온누리교회 : 아이티 아웃리치	281
934	2013.01.20	뉴저지 온누리교회 : 시리아 피난민 사역일지	282
934	2013.01.20	오사카 온누리교회 : 안수집사 임직예배& 일본인 나가오카교코 자매 간증	283
937	2013.02.17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 요르단 시리아 난민 캠프 아웃리치	287
937	2013.02.17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 : 이재환 선교사 초청 <선교컨퍼런스>	289
939	2013.03.03	CGNTV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무명(사우디아라비아)	301
940	2013.03.10	오사카 온누리교회 : 박용관 집사 초청 <리더십스쿨> 개최	305
942	2013.03.24	대련 온누리교회 : 순 개강예배	312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1. 비전교회, 해외협력교회, 해외 성도 등의 선교 관련 (60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47	2013.04.28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종강 및 예비 선교사 17명 배출	339
954	2013.06.16	일본 나하뎃테스트교회 :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감사예배	367
957	2013.07.07	네이퍼빌 시카고 비전교회 : 다운타운 캠퍼스 대청팀 인도 북델리 어린이 · 의료 사역	387
961	2013.08.04	얼바인 온누리교회 : 멕시코 아웃리치	404
961	2013.08.04	밴쿠버 온누리교회 : 슬라이아몬 부족 원주민 선교 아웃리치	404
961	2013.08.04	앵커리치 온누리교회 : 책임선교사 '정진모 선교사' 가족 니카라과 파송 및 축복	405
961	2013.08.04	교토 온누리교회 : 교토로 아웃리치 온 양재 서초B공동체	405
971	2013.10.20	시드니 온누리교회 : 의료선교팀 피지 아웃리치	472
974	2013.11.10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카시를 다녀와서 : 장은임 집사(동경 온누리교회)	493

### ▶ 12. 선교 관련 학교 및 강좌, 세미나, 선교여행 등 (4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7	2012.02.05	iSchool(아이스쿨) : 선교 관련 강의	39
889	2012.02.26	양재 2기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모집	46
890	2012.03.04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안내	52
890	2012.03.04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프로그램 소개	53
891	2012.03.11	와이미션 10주년 기념행사	59
891	2012.03.11	와이미션(Why Mission?) 소개 및 허만호 예비 선교사 간증	59
899	2012.05.06	강동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개강	99
904	2012.06.17	무릎선교 기도학교 종강	120
907	2012.07.08	예수제자학교(JDS) 해외 아웃리치 안내	140
913	2012.08.19	키비(KIBI) : IBS스쿨 21기 개강	188
914	2012.08.26	예수제자학교(JDS) : 아웃리치 보고회 〈2012 Disciple's Day〉 개최	189
915	2012.09.02	공동체 다락방장 위한 '와이미션(Why Missions?)' 모집	194
928	2012.12.09	2012 서빙고 여성사역 무릎기도중보자학교 종강	259
929	2012.12.16	인천 온누리교회 : 와이미션 2기 수료식	263
930	2012.12.23	KIBI(키비) 〈송년의 밤〉 개최	264
939	2013.03.03	서빙고 와이미션(Why Mission?) 권사스쿨 개강	299
940	2013.03.10	부천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학교 소개	302
941	2013.03.17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307
941	2013.03.17	부천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및 '무릎팍선교사' 노선빈 팀장 소개	308
942	2013.03.24	서빙고 권사스쿨 : '와이미션' 개강	311
942	2013.03.24	서빙고 무릎선교기도학교 상반기 개강 및 개편	312
942	2013.03.24	수원 온누리교회 : 여성사역 〈무릎선교기도〉 개강	314
942	2013.03.24	'와이미션' 수료자 조기훈 팀장 간증	31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2. 선교 관련 학교 및 강좌, 세미나, 선교여행 등 (4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45	2013.04.14	무릎선교기도학교 : '아프가니스탄 전쟁 미망인들 위한' 바자회 개최	331
952	2013.06.02	이주민을 위한 선교학교 8기 모집	359
953	2013.06.09	서빙고 온누리 장로 및 권사 위한 <와이미션 1기> 종강	362
954	2013.06.16	2013 상반기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368
954	2013.06.16	부천 캠퍼스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소감 : 권오항 목사	370
954	2013.06.16	부천 캠퍼스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간증 : 고은희 집사	371
954	2013.06.16	강동 온누리교회 : <다문화 제1기 어머니학교> 수료식	372
956	2013.06.30	KIBI(키비) : <살롬 예루살렘, 브루클린 페스티벌> 개최 안내	377
961	2013.08.04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3기 추가 모집	403
963	2013.08.18	서빙고·양재 여성사역 :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419
964	2013.08.25	2013 JDS(예수제자학교) DISCIPLES DAY 행사 개최 및 아웃리치 간증	428
966	2013.09.08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440
967	2013.09.15	양재 권사스쿨 : 와이미션 첫 시작	445
968	2013.09.29	수원 온누리교회 : 무릎선교기도학교 개강	452
976	2013.11.24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 안산M센터 아웃리치	504
976	2013.11.24	양재 권사회 하반기 와이미션 수료자 간증 : 이환인 권사(강남B공동체)	507
978	2013.12.08	서빙고& 양재 무릎선교기도학교 종강	512
978	2013.12.08	부천 무릎선교학교 : 와이미션 8기 종강예배	514
979	2013.12.15	양재 세품아(세계를 품은 아이들) 종강 및 스리랑카 아웃리치 간증자 이혜인	519

### ▶ 13. 긴급 구호 및 질병 치료 지원 활동 등 (17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43	2013.03.31	CMN 의료선교팀 : 몽골인 화상환자 <차스커> 자매 수술 지원	319
945	2013.04.14	온누리 지구촌 사역 : 동콩고 난민 긴급구호& NGO 더멋진세상 '자선콘서트' 개최	327
947	2013.04.2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연세의료원 : 선천성 기형 몽골 어린이 위한 특별 환송회	338
961	2013.08.04	NGO 더 멋진 세상 : 선천성 발목기형 캄보디아 청년 '소반 나린' 돕기 지원자 모집	403
966	2013.09.08	NGO '더 멋진 세상' 사역 안내 및 발목 장애 소년 '소반나린' 수술 지원	443
971	2013.10.20	캄보디아 선천적 다리 장애 소년 '소반나린' 감사 인사	476
974	2013.11.10	NGO 더 멋진 세상 : 필리핀 보홀섬 긴급 지원 위한 답사	491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	494
975	2013.11.17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과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	500
976	2013.11.24	NGO 더 멋진 세상 : 지진과 태풍 피해 필리핀 중부지역 긴급구호팀 파견	503
977	2013.12.01	온누리 긴급구호팀 :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508
978	2013.12.08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2차 긴급구호팀 파견 및 명단	511
979	2013.12.15	서빙고 무릎기도팀 : 미얀마 환자 <땃빠잉> 수술 후원 및 삼촌 유원 예수 영접	515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3. 긴급 구호 및 질병 치료 지원 활동 등 (17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79	2013.12.15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1	516
979	2013.12.15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다녀 온 '온누리 긴급구호팀' 보고 1-2	517
979	2013.12.15	용산공동체& 더 멋진 세상 몽골 <나랑토야> 자매 수술 지원	518
980	2013.12.22	필리핀 태풍 피해지역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와서 : 고대선 부장(더 멋진 세상)	522

### ▶ 14. 선교 관련 게시판 광고 (기도모임, 학교모집 광고 등등) (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4	2012.01.08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27
884	2012.01.08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28
884	2012.01.0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28
885	2012.01.15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32
885	2012.01.15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32
885	2012.01.15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32
886	2012.01.22	온누리교회 선교관련 기도모임 소개	34
886	2012.01.22	서빙고 - 왕초보 중국어 성경 모임 외	36
886	2012.01.22	양재 - 다문화가정여성에 한글가르칠 교사 모집 외	36
887	2012.02.05	재정 - 해외선교계좌	39
888	2012.02.12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43
888	2012.02.12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44
888	2012.02.12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44
890	2012.03.04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53
892	2012.03.18	남양주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62
897	2012.04.22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87
901	2012.05.20	강동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04
901	2012.05.20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05
901	2012.05.20	부천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05
903	2012.06.03	대청(대학 청년부)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19
906	2012.07.0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32
907	2012.07.08	평택&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141
924	2012.11.1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237
932	2013.01.06	서빙고 - 기초 중국어 성경 모임 외	274
932	2013.01.06	양재 - 무릎선교 기도모임 외	274
937	2013.02.17	서빙고 - 화요선교집회 외	291
937	2013.02.17	2000선교본부 - 선교사, 선교지 중보기도모임 개설안내 외	292
937	2013.02.17	두란노해외선교회(TIM) - MK(선교사자녀) 중보기도모임 외	292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4. 선교 관련 게시판 광고 (기도모임, 학교모집 광고 등등) (41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39	2013.03.03	서빙고 여성사역 알림 : 무릎선교기도학교 모집	299
941	2013.03.17	양지 온누리교회 : 선교 관련 게시판	309
948	2013.05.05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40
950	2013.05.19	서빙고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52
954	2013.06.16	강동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71
954	2013.06.16	대전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71
954	2013.06.16	남양주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72
959	2013.07.21	평택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393
960	2013.07.28	평택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401
962	2013.08.1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414
965	2013.09.01	수원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432
972	2013.10.27	KIBI(키비) : 요셉솔람 목사 특별 세미나 알림	478
977	2013.12.01	인천 온누리교회 알림 : 선교 관련 게시판	509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8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온누리 NGO "더 멋진 세상"	16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1	17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서빙고 캠퍼스 2000선교본부 1-2	18
883별쇄	2012.01.01	2012 온누리 조직도 : 양재 캠퍼스 2000선교	19
884	2012.01.08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특별기획/기도> 기도와 선교편	21
886	2012.01.22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소개 : 김복음 선교사 (캄보디아)	33
886	2012.01.22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소개 : 김별-백합화 선교사 (아프리카A국)	34
887	2012.02.05	故 조성록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및 출판 감사예배	37
894	2012.04.01	2012 온누리장로수련회 : 故 하용조 목사 성묘 참배	73
896	2012.04.15	아리문초 선교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76
897	2012.04.22	온누리 목사안수 소감 : 박신웅 목사 (대학청년부)	83
898	2012.04.29	도서안내 :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본을 나도 사랑했습니다』 - 하용조 목사	95
900	2012.05.13	대전 온누리교회 : 이상현 집사 가족 인터뷰	100
902	2012.05.27	故 하용조 담임목사 묘지 이장	108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묘지 이장	110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현장 스케치	116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메시지 : 이동원 목사	117
903	2012.06.03	<故 하용조 목사 이장예배> 기도 : 김종인 장로	117
905	2012.06.24	Acts29 비전빌리지 '온누리교회 양지 캠퍼스' 승인	124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8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08	2012.07.15	주일강단 황종연 목사 설교 : 내 양 떼를 먹여라	145
909	2012.07.22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 안내	148
909	2012.07.22	전교인 필독서 :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 케이티 데이비스	154
910	2012.07.29	〈故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일정 안내	155
910	2012.07.29	(故) 하용조 목사 1주기 추모 안내	157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161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시인 이원로 장로 추모시	161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스케치	162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흥정길 목사 설교	162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서빙고 성전 추모예배〉	163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김진홍 목사 설교	163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故 하용조 목사 장남 하성석	164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저서 안내	164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이동원 목사 추모사	164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예배〉 추모시	164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	165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추모사진 및 도서전〉 개최	165
911	2012.08.05	〈故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새벽예배〉 참석자 인터뷰	165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故 하용조 목사 행장(行狀)	166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최순영 장로 인터뷰	166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일본을 향한 하용조 목사의 러브소나타	167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러브소나타관련 특별 인터뷰	167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투병일지 및 비전 확장	168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하용조 목사 담당의사들 인터뷰	168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하용조 목사가 남긴 비전	169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 비전교회 관련 김선도 집사 인터뷰	169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①	170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②	171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③	172
911	2012.08.05	〈故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추모메시지 ④	173
911	2012.08.05	전면광고 : 故 하용조 목사 추모 1주기 기념 저서 안내	174
912	2012.08.12	하용조 목사 소천 1주기를 보내며 : 정병두 · 홍범식 장로	180
913	2012.08.19	국민일보 기사 속 책 소개 : 『목숨을 건 일본 사랑 러브소나타』 - 하용조 지음	187
915	2012.09.02	박영근 · 강일영 선교 목회자 인턴십 인터뷰	196
920	2012.10.14	서울대 미대 김병중 교수가 소개하는 책 : 『쿠사츠의 봄』 - 이형기 지음	22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5. 기타 (다른 분류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 (82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22	2012.10.28	목사 안수 소감 : 하카마타 미키(일본어예배)	230
930	2012.12.23	양지 온누리교회 소개 및 담당목사 인터뷰	265
936	2013.02.03	당회소위원회 명칭 변경 안내 및 신설 분과위원회 '선교' 파트 명단	285
948	2013.05.05	책 소개 : 『숨지마, 네 인생이잖아』 - 김해영 지음	342
959	2013.07.21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안내	390
960	2013.07.28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안내	398
961	2013.08.04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예배 여는 말씀 : 이재훈 목사	402
961	2013.08.04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사 : 이동원 목사	402
961	2013.08.04	광고 : 하용조 목사 2주기 추모예배	402
961	2013.08.04	양재 두란노서점 :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기념 <추모 도서전> 개최	403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스케치	406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가족대표 인사 : 장남 하성석 형제	406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흥정길 원로목사 설교 : 나그네의 길 1-1	407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이어령 교수 추모사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1	407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흥정길 원로목사 설교 : 나그네의 길 1-2	408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양유식 장로 대표기도 : 송고한 꿈과 비전 잊지 않게 하소서	408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이어령 교수 추모사 : "하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1-2	408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공식 및 기념 도서관 개관식 스케치	409
961	2013.08.04	故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행사 기념관과 채플 건축 계획 설명 : 이남식 장로	409
962	2013.08.11	CGNTV 하용조 목사 소천 2주기 추모다큐 '더 메시지'	413
964	2013.08.25	두란노&사단법인 한국불어권선교회 협력 『불한성경』 출간	426
977	2013.12.01	OMSC 출판감사예배 『선교사 가정에 대한 책무』 출간	508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민문기 장로	511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박일구 장로	511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이한열 장로	512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정영택 장로	512
978	2013.12.08	2013 장로장립 소감 : 한충희 장로	512
981	2013.12.29	키워드로 보는 2013 온누리교회 : 2013 국내외 아웃리치	525

### ▶ 16. 러브소나타 (95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89	2012.02.26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참가자 모집	45
890	2012.03.04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앞둔 봉사자와 참석자 인터뷰&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기도제목	54
890	2012.03.04	전면광고 : 다카마쓰 러브소나타	55
891	2012.03.1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준비 상황 안내	56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6. 러브소나타 (95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891	2012.03.1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12-18)	57
892	2012.03.1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19-25)	62
893	2012.03.25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3.26-4.1)	64
894	2012.04.0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위한 <총궐기대회> 개최	70
894	2012.04.01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 (4.2-8)	70
895	2012.04.0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참가자 교육	75
895	2012.04.08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9-15)	75
896	2012.04.15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16-22)	76
897	2012.04.2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곧 개막	79
897	2012.04.22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기도제목(4.23-28)	79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폐막	91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봉사자& 참가자 인터뷰	91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행사들	92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현지교회 방문기	93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사토 아키라' 목사 간증	93
898	2012.04.29	러브소나타 <다카마쓰> 이재훈 목사 메세지 : 희망의 나무	94
912	2012.08.12	<러브소나타 실행위원장 간담회> 개최	176
912	2012.08.12	고베 러브소나타 그 후 이야기	176
917	2012.09.16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	206
918	2012.09.23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모집	213
918	2012.09.23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9.24-30)	214
918	2012.09.23	전면광고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215
919	2012.09.30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1-7)	216
920	2012.10.1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프레대회(홍보집회) 보고	220
920	2012.10.1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15-21)	220
921	2012.10.2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22-28)	225
922	2012.10.2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참가자 교육	228
922	2012.10.2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0.29-11.4)	228
923	2012.11.04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1.5-11)	232
924	2012.11.1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개막 안내	235
924	2012.11.11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기도제목(11.12-18)	236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개막	240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스케치	241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가스펠나이트& 교회부흥세미나& 러브소나타의 꽃 봉사자	242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실행위원장 인터뷰	243



## 온누리신문 선교관련기사 분류별 목록

### ▶ 16. 러브소나타 (95개)

신문호수	신문발행일	기사제목	page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크리스천 CEO 포럼 및 김명용 총장 인터뷰	243
925	2012.11.18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이재훈 목사 메시지	244
926	2012.11.25	수원 온누리교회 : <가고시마 러브소나타> 40명 성도 참석	250
926	2012.11.25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 크리스천 CEO 포럼 1-1	251
926	2012.11.25	러브소나타 <가고시마> : 크리스천 CEO 포럼 1-2	252
940	2013.03.10	샤론헤 데코팀 :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302
941	2013.03.17	샤론헤 데코팀 :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제작 봉사자> 모집	307
942	2013.03.2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참가 접수 안내	310
942	2013.03.2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3/25-31)	312
943	2013.03.31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1-7)	321
944	2013.04.07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8-14)	322
945	2013.04.14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15-21)	331
946	2013.04.21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22-28)	334
947	2013.04.28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4.29-5.5)	337
948	2013.05.05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1차 참가자교육 안내	340
948	2013.05.05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5.6-12)	340
949	2013.05.12	Again 오키나와 <열린 러브소나타> 개최	343
949	2013.05.12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기도제목(5.13-19)	344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폐막	345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현장 스케치	347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오키나와 소개	348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인터뷰 : 쿠니요시 마모루 목사	348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교회부흥세미나 및 가스펠 나이트	349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인물스토리 : 다카시마 나나	350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참가자 인터뷰	350
950	2013.05.19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이재훈 목사 설교 :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51
952	2013.06.02	러브소나타 집회 위한 <화관 제작> 간증 : 류석인 권사(샤론헤데코팀)	360
966	2013.09.08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행사 일정 안내	439
967	2013.09.15	러브소나타 <군마> 론칭 행사 개최 안내& 역대 러브소나타 열린 지역	444
967	2013.09.15	전면광고 : 러브소나타 <군마>	449
968	2013.09.29	러브소나타 <군마> 큐티 세미나 보고 및 기도제목(9.30-10.6)	450
969	2013.10.06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 모집	459
969	2013.10.06	일본 러브소나타 소개	462
969	2013.10.06	군마에서 온 편지 : 카나이 쿠미에 목사(러브소나타 군마 기도위원)	462
969	2013.10.06	군마 러브소나타 기도제목(10.7-13)	462





